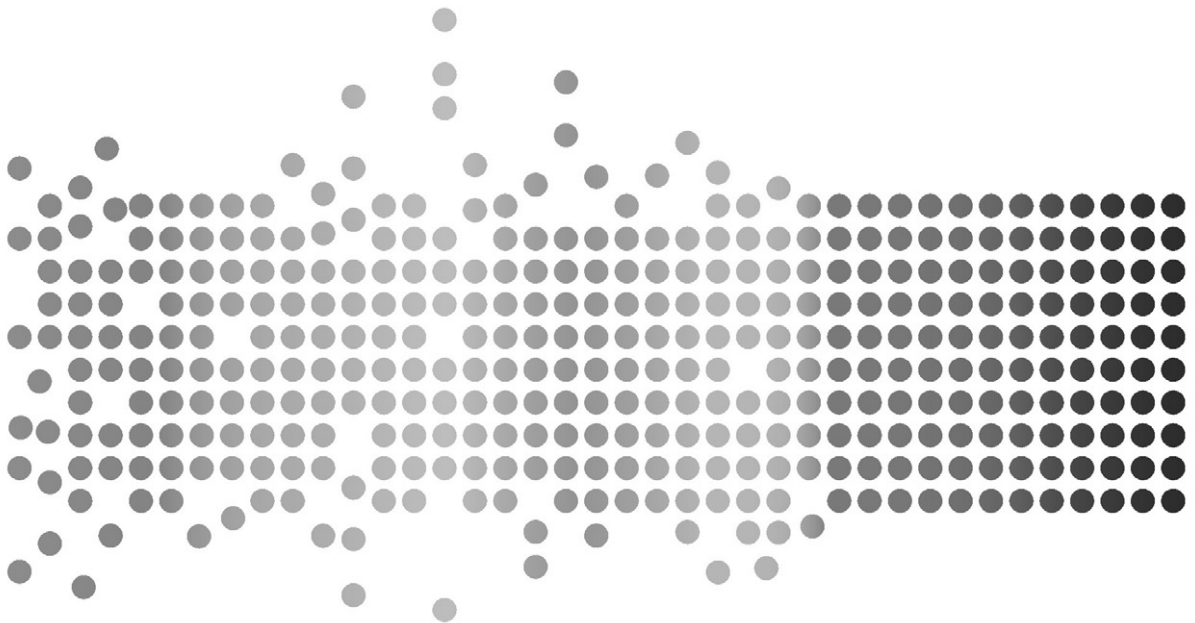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The 2012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 Welfare
in Korea

김승권 · 김유경 · 김혜련 · 박종서 · 손창균 · 최영준 · 김연우 · 이가은 · 윤아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발행일	2012년
저자	김승권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23,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6827-004-8 93330



머리말

본 조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한국사회의 인구변동에 맞추어 그 내용이 크게 변화되어 왔다. 과거에는 인구증가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 속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구자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결과가 널리 활용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지난 세기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즉, 한국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구직난, 소득격감 등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연기, 출산연기 등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합계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3년부터 저출산 문제에 포괄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복지와 자녀양육비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범 국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회복은 전혀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가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출산력관련 조사로서 22번째 실시된 본 조사는 당 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연구진에 의해 완성되었다. 보고서 집필의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집필:

- 제1장 서론 (김승권·손창균·윤아름)
- 제2장 조사완료가구 및 가구주의 제 특성 (김승권)
- 제3장 혼인가치관과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 (김승권·최영준)
- 제4장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김승권·최영준)
- 제5장 자녀가치관과 출산행태의 변화 (김승권)
- 제6장 임신 및 임신종결형태의 변화 (김승권)
- 제7장 피임수용실태 (김유경)
- 제8장 난임실태 (김승권·최영준)
- 제9장 모자보건실태 (김혜련)
- 제10장 모유수유실태 (김혜련)
- 제11장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김유경)
- 제12장 가족의 역할 및 관계 실태 (박종서)
- 제13장 동거 및 비동거 가족 지원 (김승권·이가은)
- 제14장 가족생활의 질 (김승권·김연우)
- 제15장 혼인실태와 가족주기의 변화 (김유경)
- 제16장 자녀양육 태도와 양육비 지출 실태 (김승권)
- 제17장 결혼비용 실태 (김승권)
- 제18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박종서·김유경)
- 제19장 정책제언 (김승권·김연우)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현지조사를 위해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보건복지부, 각 시·도 및 시·군·구 관계기관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조사관리 및 자료처리에 노력한 이연희 팀장, 문병윤 선임전문원, 정운자 선임행정원, 윤아름 전문원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주신 당원의 장영식 선임연구위원과 황나미 연구위원, 충남대학교 전광희 교수, 강남대학교 이성용 교수에게 특히 감사드린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제1부: 서론부]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9
제3절 표본설계 개요	55
제4절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62
 제2장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주의 제 특성	67
제1절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주의 일반특성	67
제2절 조사완료가구의 경제적 특성	70
제3절 조사완료가구의 사회적 특성	86
제4절 시사점	93

[제2부: 결혼·임신·출산]

제3장 혼인가치관과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	101
제1절 개요	101
제2절 혼인가치관의 변화	106
제3절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120
제4절 시사점	134

제4장 걱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141

제1절 개요 141

제2절 걱정 결혼연령 144

제3절 본인 결혼연령의 적절성 150

제4절 만혼과 비혼의 원인에 대한 태도 161

제5절 시사점 191

제5장 자녀가치관과 출산행태의 변화 199

제1절 개요 199

제2절 자녀가치관의 변화 203

제3절 출산행태의 변화 235

제4절 출생아수 및 현존자녀수의 변화와 추가자녀 계획 239

제5절 시사점 267

제6장 임신 및 임신종결형태의 변화 273

제1절 개요 273

제2절 총 임신 및 임신종결형태의 변화 276

제3절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284

제4절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특성 290

제5절 시사점 304

[제3부: 가족보건]

제7장 피임수용실태	309
제1절 개요	309
제2절 피임실천 실태	316
제3절 피임비실천 실태	341
제4절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	349
제5절 시사점	355
 제8장 난임실태	361
제1절 개요	361
제2절 난임경험 및 난임진단 실태	365
제3절 난임 치료 실태와 지원정책	369
제4절 시사점	375
 제9장 모자보건실태	379
제1절 개요	379
제2절 조사대상 출생아의 분포	383
제3절 산전관리 실태	385
제4절 분만 및 출생아 실태	390
제5절 산후관리 실태	404
제6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태	408
제7절 시사점	410

제10장 모유수유실태	415
제1절 개요	415
제2절 수유양상	417
제3절 모유수유에 대한 산전·산후 교육 실태	427
제4절 모유수유 장애요인 및 모유수유 정책욕구	433
제5절 영유아 보충식 도입시기	438
제6절 시사점	439

[제4부: 가족복지생활 및 자녀양육]

제11장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447
제1절 개요	447
제2절 기혼여성의 현 취업실태	454
제3절 결혼 전·후의 취업실태	507
제4절 첫째아 출산 전·후의 취업실태	517
제5절 막내아 출산 전·후의 취업실태	527
제6절 막내아 초교입학 전·후의 취업실태	536
제7절 시사점	547
 제12장 가족의 역할 및 관계 실태	 551
제1절 개요	551
제2절 가족의 역할	555
제3절 가족관계	600
제4절 시사점	660

제13장 동거 및 비동거 가족 지원	667
제1절 개요	667
제2절 비동거부모와의 접촉 및 상호 지원	672
제3절 동거부모와의 상호 지원	708
제4절 시사점	723
 제14장 가족생활의 질	731
제1절 개요	731
제2절 가족 행복의 요건	734
제3절 가족생활 만족도	737
제4절 시사점	760
 제15장 혼인실태와 가족주기의 변화	765
제1절 개요	765
제2절 혼인실태의 변화	775
제3절 가족주기의 변화	801
제4절 시사점	810
 제16장 자녀양육 태도 및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817
제1절 개요	817
제2절 자녀양육 태도 및 책임한계	821
제3절 양육비 지출 실태	838
제4절 시사점	844

제17장 결혼비용 실태	849
제1절 개요	849
제2절 본인 및 자녀의 결혼비용	853
제3절 결혼비용의 부담수준	857
제4절 시사점	861

[제5부: 결론부]

제18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867
제1절 개요	867
제2절 저출산 현상에 관한 태도	876
제3절 기혼가구의 출산정책 선호도	879
제4절 가족정책 욕구	904
제5절 시사점	917

제19장 정책제언	925
제1절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제언	925
제2절 가족보건 관련 정책제언	927
제3절 가족복지생활 및 자녀양육 관련 정책제언	930

부록 1 조사지역	949
부록 2 조사표	959

표 목차

〈표 1- 1〉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지역별 가임기 여성인구	56
〈표 1- 2〉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90% 조사구의 층별 규모	57
〈표 1- 3〉 16개 시도 및 동부 읍·면부 표본배분 결과	58
〈표 1- 4〉 층별 표본 배분결과	59
〈표 2- 1〉 조사완료가구의 특성	68
〈표 2- 2〉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	69
〈표 2- 3〉 조사완료가구의 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71
〈표 2- 4〉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72
〈표 2- 5〉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비 분포	73
〈표 2- 6〉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비 분포	74
〈표 2- 7〉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가구저축 분포	75
〈표 2- 8〉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가구저축 분포	76
〈표 2- 9〉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보유재산 분포	77
〈표 2-10〉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보유재산 분포	78
〈표 2-11〉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부채규모 분포	79
〈표 2-12〉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부채규모 분포	80
〈표 2-13〉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부채 원인	81
〈표 2-14〉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부채 원인	82
〈표 2-15〉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관적 경제적 자립정도	84
〈표 2-16〉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주관적 경제적 자립정도	85
〈표 2-17〉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관적 사회적 지위	86
〈표 2-18〉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	87
〈표 2-19〉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거주유형	88

〈표 2-20〉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거주유형	89
〈표 2-21〉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	90
〈표 2-22〉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	91
〈표 2-23〉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자가(自家)의 소유명의	92
〈표 2-24〉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자가(自家)의 소유명의	93
〈표 2-25〉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경제상태	94
〈표 2-26〉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경제상태	95
〈표 3- 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07
〈표 3- 2〉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108
〈표 3- 3〉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109
〈표 3- 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10
〈표 3- 5〉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111
〈표 3- 6〉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112
〈표 3- 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113
〈표 3- 8〉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115
〈표 3- 9〉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116
〈표 3-1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17
〈표 3-11〉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118
〈표 3-12〉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119
〈표 3-1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① ...	121

〈표 3-14〉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①122
〈표 3-15〉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①123
〈표 3-16〉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②	..124
〈표 3-17〉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②125
〈표 3-18〉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②126
〈표 3-1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③	...127
〈표 3-20〉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③129
〈표 3-21〉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③130
〈표 3-2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④	...131
〈표 3-23〉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④132
〈표 3-24〉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④133
〈표 3-25〉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134
〈표 3-26〉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차이	..135
〈표 3-27〉	기혼남녀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135
〈표 3-28〉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차이	..136
〈표 3-29〉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의 차이	..137
〈표 4- 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145
〈표 4- 2〉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146
〈표 4- 3〉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147
〈표 4- 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148

〈표 4- 5〉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여성의 걱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149
〈표 4- 6〉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여성의 걱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150
〈표 4- 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한 태도151
〈표 4- 8〉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한 태도	..152
〈표 4- 9〉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한 태도	..153
〈표 4-1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을 빨리 한 이유」154
〈표 4-11〉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을 빨리 한 이유」155
〈표 4-12〉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을 빨리 한 이유」157
〈표 4-1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158
〈표 4-14〉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159
〈표 4-15〉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160
〈표 4-16〉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①	..162
〈표 4-17〉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①163
〈표 4-18〉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①164
〈표 4-1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②165
〈표 4-20〉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②166
〈표 4-21〉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②167
〈표 4-2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③	..168
〈표 4-23〉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③169
〈표 4-24〉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③170
〈표 4-2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④	..171
〈표 4-26〉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④172

〈표 4-27〉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④173
〈표 4-28〉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⑤	..174
〈표 4-29〉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⑤175
〈표 4-30〉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⑤176
〈표 4-3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⑥	..177
〈표 4-32〉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⑥178
〈표 4-33〉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⑥179
〈표 4-3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⑦	..180
〈표 4-35〉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⑦181
〈표 4-36〉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⑦182
〈표 4-3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⑧	..183
〈표 4-38〉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⑧184
〈표 4-39〉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⑧185
〈표 4-4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⑨	..186
〈표 4-41〉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⑨187
〈표 4-42〉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⑨188
〈표 4-4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⑩	..189
〈표 4-44〉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⑩190
〈표 4-45〉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⑩191
〈표 4-46〉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남녀 「평균 적정 결혼연령」 차이	..192
〈표 4-47〉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결혼을 빨리 한 이유」의 차이	...193
〈표 4-48〉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결혼을 늦게 한 이유」의 차이	...193

〈표 4-49〉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만혼 및 비혼의 원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194
〈표 5-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관련 25개 중점과제	202
〈표 5- 2〉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자녀필요성』	203
〈표 5- 3〉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204
〈표 5-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205
〈표 5- 5〉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206
〈표 5- 6〉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견	207
〈표 5-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견	208
〈표 5- 8〉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견	209
〈표 5-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 ..	210
〈표 5-10〉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 ..	211
〈표 5-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 ..	212
〈표 5-12〉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	213
〈표 5-13〉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아들 필요성』 변화	214

〈표 5-14〉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215
〈표 5-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216
〈표 5-16〉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217
〈표 5-17〉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아들의 필요이유 ..	219
〈표 5-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아들의 필요이유	220
〈표 5-19〉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아들의 필요이유 ..	221
〈표 5-20〉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의 성별 구분여부	222
〈표 5-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이상자녀수」의 성별 구분여부	223
〈표 5-22〉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제1장 서론	224
〈표 5-23〉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	225
〈표 5-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	226
〈표 5-25〉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	227
〈표 5-26〉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 ..	229
〈표 5-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	230

〈표 5-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231
〈표 5-29〉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232
〈표 5-30〉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입양고려 경험	233
〈표 5-3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입양고려 경험	234
〈표 5-32〉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236
〈표 5-33〉 합계출산율의 변화	237
〈표 5-34〉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동추이	238
〈표 5-3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수 분포	240
〈표 5-3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수 분포	241
〈표 5-3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	242
〈표 5-3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	243
〈표 5-39〉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	244
〈표 5-40〉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자녀 출산계획 ..	245
〈표 5-4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자녀 출산계획 ..	246
〈표 5-4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 희망자녀수	247
〈표 5-4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 희망자녀수	248
〈표 5-4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자녀 성별 구별 여부	249
〈표 5-4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자녀 성별 구별 여부	250

〈표 5-4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 희망 남아수 및 여아수	251
〈표 5-4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 희망 남아수 및 희망 여아수	252
〈표 5-4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 ...	254
〈표 5-4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	256
〈표 5-5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욕구소득비별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	258
〈표 5-5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준 정보매체	259
〈표 5-5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준 정보매체	260
〈표 5-5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정부의 정책지원 시 추가자녀 출산계획	261
〈표 5-5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정부의 정책지원 시 추가자녀 출산계획	262
〈표 5-5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정책지원시 추가 희망자녀수	263
〈표 5-5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정책지원시 추가 희망자녀수	264
〈표 5-5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자녀 출산을 위한 희망 정부정책	265

〈표 5-5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자녀 출산을 위한 희망 정부정책	266
〈표 5-59〉 15~44세 유배우부인과 남편의 자녀필요성 차이	267
〈표 5-60〉 15~44세 유배우부인과 남편의 평균 이상자녀수 차이 ..	268
〈표 5-61〉 15~44세 유배우부인과 남편의 아들 필요성 차이	268
〈표 5-62〉 15~44세 유배우부인과 남편의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 차이와 성비	269
〈표 6-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횟수 변화	277
〈표 6-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총 임신횟수 분포	278
〈표 6-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응답자 특성별 총 임신횟수 분포 ..	279
〈표 6-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별 평균횟수	280
〈표 6-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의 구성비	281
〈표 6-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임신종결형태	281
〈표 6-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 ..	282
〈표 6-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 ..	283
〈표 6- 9〉 20~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을 변동추이 ..	285
〈표 6-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을 변동추이 ..	286
〈표 6-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287
〈표 6-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287
〈표 6-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응답자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288

〈표 6-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 및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 변화	289
〈표 6-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임신순위	291
〈표 6-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임신순위	292
〈표 6-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	293
〈표 6-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	294
〈표 6-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 ..	295
〈표 6-2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 성비	295
〈표 6-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296
〈표 6-2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임신순위	298
〈표 6-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임신순위	299
〈표 6-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	300
〈표 6-2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	301

〈표 6-26〉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	302
〈표 6-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 성비	302
〈표 6-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	303
〈표 7-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태 변화	318
〈표 7-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 변화	321
〈표 7-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변화	323
〈표 7-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태 분포	325
〈표 7-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피임실태 분포 ..	327
〈표 7-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방법별 피임실천율 분포 ..	329
〈표 7-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 연령 및 취업여부별 피임실천율 분포	331
〈표 7-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 및 불임실천율	332
〈표 7-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목적에 따른 피임실태 분포	334
〈표 7-10〉 가구특성별 15~44세 유배우부인의 단산 및 출산연기 이유 분포	335
〈표 7-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단산 및 출산연기 이유 분포	336
〈표 7-12〉 15~44세 유배우 피임실천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목적 분포	338

〈표 7-13〉 15~44세 유배우부인 중 비영구적 피임실천부인의 방법별 계속 사용의향 및 변경희망 피임방법	340
〈표 7-14〉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 피임방법 분포	342
〈표 7-15〉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중단 및 무경험 비율과 이유 분포	344
〈표 7-16〉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향후 실천의향 분포	346
〈표 7-17〉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희망부인의 선호 피임방법 분포	347
〈표 7-18〉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분포	348
〈표 7-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노출상태 분포	350
〈표 7-2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정책 대상자 분포	352
〈표 7-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자녀추가 희망여부 및 피임실천	353
〈표 8- 1〉 15~49세 유배우부인의 가구 특성별 난임경험, 난임진단 및 난임치료 경험률	366
〈표 8- 2〉 15~49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난임, 난임진단 및 난임치료 경험률	367
〈표 8- 3〉 15~49세 유배우부인의 난임진단 결과 난임의 원인	368
〈표 8- 4〉 15~49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난임치료 여부	369
〈표 8- 5〉 15~49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난임 치료기관	370

〈표 8- 6〉 15~49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난임 미치료 이유	370
〈표 8- 7〉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인지 여부	371
〈표 8- 8〉 난임진단 경험 부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출산율 상승 효과성	372
〈표 8- 9〉 난임진단 경험 부인의 「난임 관련 상담 프로그램」 필요성	372
〈표 8-10〉 15~49세 유배우부인의 「난임 관련 상담 프로그램」 운영 희망기관	373
〈표 8-11〉 15~49세 유배우부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개선점	374
〈표 8-12〉 15~49세 유배우부인 중 난임관련 경험 여부별 입양에 대한 태도	375
〈표 9-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산전수진을	380
〈표 9-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산후수진을 추이	380
〈표 9-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시설편만을 추이	381
〈표 9-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제왕절개분만 비율	381
〈표 9-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시 체중	382
〈표 9-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분포	384
〈표 9-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성별 연령별 분포	384
〈표 9-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386
〈표 9-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387

〈표 9-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횟수	388
〈표 9-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횟수	389
〈표 9-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시설분만을 및 분만장소 ..	390
〈표 9-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 분만장소	391
〈표 9-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 분만장소	392
〈표 9-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	393
〈표 9-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	394
〈표 9-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	395
〈표 9-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이유	396
〈표 9-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제왕절개분만 권유자별 권유 이유	396
〈표 9-2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분만장소별 분만형태	397
〈표 9-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시 임신주수	398
〈표 9-2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조산 여부	399

〈표 9-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의 조산 여부	400
〈표 9-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시 체중	402
〈표 9-2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 체중	403
〈표 9-2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 체중	404
〈표 9-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출산후 산후수진을	405
〈표 9-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경험을	406
〈표 9-29〉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경험을	407
〈표 9-3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률	409
〈표 9-31〉 15~44세 유배우부인 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 종류	410
〈표 10-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월령별 모유수유율 추이	418
〈표 10-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양상	419
〈표 10-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	420
〈표 10-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	421

〈표 10-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3개월시 수유양상	422
〈표 10-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3개월시 수유양상	423
〈표 10-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5개월시 수유양상	424
〈표 10-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5개월시 수유양상	425
〈표 10-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	426
〈표 10-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	427
〈표 10-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임신중 모유수유 교육경험율 및 교육받은 기관	428
〈표 10-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임신중 모유수유 교육경험율 및 교육받은 기관	429
〈표 10-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중 모유수유 교육의 도움정도	429
〈표 10-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산 후 모자동실 이용 수준	430
〈표 10-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산 후 모자동실 이용 수준	431

〈표 10-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산후 보건의료인에 의한 모유수유 교육경험을	432
〈표 10-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산후 보건의료인에 의한 모유수유 교육경험을	432
〈표 10-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전혀 모유를 먹이지 않은 이유 ..	433
〈표 10-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중단이유	434
〈표 10-20〉 조제분유(모유 대체 아기분유)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 ..	435
〈표 10-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모유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436
〈표 10-2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모유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437
〈표 10-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보충식 시작 시기	438
〈표 10-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의 보충식 시작 시기	439
〈표 11- 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현 취업률	455
〈표 11- 2〉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률	457
〈표 11- 3〉 남편특성별 15~49세 기혼여성의 취업률	458
〈표 11- 4〉 15~49세 기혼여성의 현 취업 직종	460
〈표 11- 5〉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 직종	461
〈표 11- 6〉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현 취업 직종	463
〈표 11- 7〉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취업 직종	464
〈표 11- 8〉 15~49세 기혼여성의 현 취업 종사상 지위	466

〈표 11- 9〉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 종사상 지위467
〈표 11-10〉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현 취업 종사상 지위469
〈표 11-11〉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취업 종사상 지위	..470
〈표 11-12〉 15~49세 현 취업 기혼여성의 직장유형472
〈표 11-13〉 15~49세 현 취업 기혼여성의 특성별 직장유형473
〈표 11-14〉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직장유형475
〈표 11-15〉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직장유형476
〈표 11-16〉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479
〈표 11-17〉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481
〈표 11-18〉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직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482
〈표 11-19〉 15~49세 기혼여성의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484
〈표 11-20〉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485
〈표 11-21〉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487
〈표 11-22〉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488
〈표 11-23〉 15~49세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490
〈표 11-24〉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491

〈표 11-25〉 15~49세 현 취업여성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	493
〈표 11-26〉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만족도	494
〈표 11-27〉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만족도	495
〈표 11-28〉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별 현재 일 만족도	497
〈표 11-29〉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계속 여부	498
〈표 11-30〉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계속 여부	500
〈표 11-31〉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별 현재 일 계속 여부	501
〈표 11-32〉 15세~49세 비취업 기혼여성의 향후 취업의향	502
〈표 11-33〉 15~49세 비취업 기혼여성의 특성별 향후 취업의향	503
〈표 11-34〉 15세~64세 기혼가구특성별 15~49세 기혼여성의 이상적인 자녀구성 및 일(직장) 형태	504
〈표 11-35〉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이상적인 자녀구성 및 일(직장) 형태	506
〈표 11-36〉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구성 및 일 형태별 이상적인 자녀구성 및 일(직장) 형태	507
〈표 11-37〉 기혼여성의 결혼직전·결혼직후 취업을 변화	508
〈표 11-38〉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직전·결혼직후 취업을 변화	510
〈표 11-39〉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직전·직후 취업여부 및 직종 .	511
〈표 11-40〉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직전·직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512
〈표 11-41〉 결혼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514

〈표 11-42〉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515
〈표 11-43〉 15~64세 기혼가구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직후 취업중단 이유	516
〈표 11-44〉 15~49세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직전·출산직후 취업률 변화	518
〈표 11-45〉 기혼여성의 특성별 첫째아 출산직전·출산직후 취업률 변화	519
〈표 11-46〉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여부 및 직종	521
〈표 11-47〉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522
〈표 11-48〉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지속 기혼여성의 취업직장의 변화	523
〈표 11-49〉 기혼여성의 특성별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지속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524
〈표 11-50〉 15~64세 기혼가구 기혼여성의 특성별 첫째아 출산직후 취업중단 이유	526
〈표 11-51〉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률 변화	528
〈표 11-52〉 기혼여성의 특성별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률 변화	529
〈표 11-53〉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여부 및 직종	531
〈표 11-54〉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	532
〈표 11-55〉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지속 부인의 취업직장 변화	533

〈표 11-56〉 기혼여성 특성별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지속 부인의 취업직장 변화	534
〈표 11-57〉 15~64세 기혼가구 기혼여성 특성별 막내아 출산직후 취업중단 이유	536
〈표 11-58〉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교입학 직전·직후 취업을 변화	538
〈표 11-59〉 기혼여성 특성별 막내아 초교입학 전·후 취업률 변화	539
〈표 11-60〉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취업여부 및 직종	541
〈표 11-61〉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전·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542
〈표 11-62〉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543
〈표 11-63〉 기혼여성 특성별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544
〈표 11-64〉 15~64세 기혼가구특성별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교입학 직후 취업중단 이유	546
〈표 12- 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양육과 가사분담 방법	556
〈표 12- 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양육과 가사분담 방법	557
〈표 12- 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식사요리 준비」 분담방법	558
〈표 12- 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식사요리 준비」 분담방법	559

〈표 12- 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설거지」 분담방법	560
〈표 12- 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설거지」 분담방법	561
〈표 12- 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세탁」 분담방법	562
〈표 12- 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세탁」 분담방법	563
〈표 12- 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시장보기」 분담방법	564
〈표 12-1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시장보기」 분담방법	565
〈표 12-1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집안청소」 분담방법	566
〈표 12-1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집안청소」 분담방법	567
〈표 12-1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기타 가사활동」 분담방법	568
〈표 12-1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기타 가사활동」 분담방법	569
〈표 12-1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 및 요일별 가사활동의 분담방법	570

〈표 12-1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 및 요일별 가사활동의 분담방법	571
〈표 12-1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양육 활동 중 「학교공부」 분담방법	572
〈표 12-1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양육 활동 중 「학교공부」 분담방법	573
〈표 12-1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양육 활동 중 「놀이주기」 분담방법	574
〈표 12-2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양육 활동 중 「놀이주기」 분담방법	575
〈표 12-2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양육활동 중 「보육시설, 학교 등·하교」 분담방법	576
〈표 12-2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양육활동 중 「보육시설, 학교 등·하교」 분담방법	577
〈표 12-2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양육활동 중 「기타 자녀양육활동」 분담방법	578
〈표 12-2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양육활동 중 「기타 자녀양육활동」 분담방법	579
〈표 12-2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 및 요일별 자녀양육활동의 분담방법	580
〈표 12-2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 및 요일별 자녀양육활동의 분담방법	581
〈표 12-2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① ..	582

〈표 12-2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①	583
〈표 12-2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② ..	584
〈표 12-3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②	585
〈표 12-3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③	586
〈표 12-3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③	587
〈표 12-3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④ ..	588
〈표 12-3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④	589
〈표 12-3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⑤ ..	590
〈표 12-3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⑤	591
〈표 12-3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① ..	592
〈표 12-3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①	593
〈표 12-3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② ..	594
〈표 12-4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②	595
〈표 12-4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③ ..	596

〈표 12-4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③	597
〈표 12-4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④ ..	598
〈표 12-4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④	599
〈표 12-4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 ..	600
〈표 12-4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	601
〈표 12-4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	602
〈표 12-4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	603
〈표 12-4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남편의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	604
〈표 12-5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남편의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	605
〈표 12-51〉 기혼가구(15~64세)의 가구특성별 남편의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	606
〈표 12-5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남편의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	607
〈표 12-5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남편의 며느리로서의 아내 만족도	608
〈표 12-5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남편의 며느리로서의 아내 만족도	609

〈표 12-5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아내의 결혼생활 만족도	·610
〈표 12-5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아내의 결혼생활 만족도611
〈표 12-5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아내의 배우자로서의 남편 만족도612
〈표 12-5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아내의 배우자로서의 남편 만족도613
〈표 12-5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아내의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614
〈표 12-6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아내의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615
〈표 12-6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아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도616
〈표 12-6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아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도617
〈표 12-6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아내의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618
〈표 12-6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아내의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619
〈표 12-6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배우자와의 비동거율620
〈표 12-6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와 비동거율	·621
〈표 12-6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만족도 ①622
〈표 12-6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만족도 ①623

〈표 12-6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만족도 ②	624
〈표 12-7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만족도 ②	625
〈표 12-7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만족도 ③	626
〈표 12-7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만족도 ③	627
〈표 12-7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만족도 ④	628
〈표 12-7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만족도 ④	629
〈표 12-7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①	630
〈표 12-7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①	631
〈표 12-7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②	632
〈표 12-7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②	633
〈표 12-7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③	634
〈표 12-8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③	635
〈표 12-8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④	636
〈표 12-8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④	637
〈표 12-8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⑤	638
〈표 12-8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⑤	639
〈표 12-8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⑥	640

〈표 12-8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⑥	641
〈표 12-8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⑦	642
〈표 12-8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⑦	643
〈표 12-8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⑧	644
〈표 12-9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⑧	645
〈표 12-9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⑨	646
〈표 12-9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⑨	647
〈표 12-9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⑩	648
〈표 12-9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⑩	649
〈표 12-9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⑪	650
〈표 12-9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⑪	651
〈표 12-9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⑫	652
〈표 12-9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⑫	653
〈표 12-9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⑬	654
〈표 12-10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⑬	655

〈표 12-10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⑭656
〈표 12-10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⑭657
〈표 12-10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⑮658
〈표 12-10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⑮659
〈표 13- 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만남 빈도673
〈표 13- 2〉 가구주 특성별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만남 빈도674
〈표 13- 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만남 빈도675
〈표 13- 4〉 가구주 특성별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만남 빈도677
〈표 13- 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비대면 접촉 빈도678
〈표 13- 6〉 가구주 특성별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비대면접촉 빈도	...679
〈표 13- 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비대면 접촉 빈도680
〈표 13- 8〉 가구주 특성별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비대면 접촉 빈도	..681
〈표 13- 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683
〈표 13-10〉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684

〈표 13-1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정기적 금전	686
〈표 13-12〉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정기적 금전	687
〈표 13-1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금전	688
〈표 13-14〉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금전 ...	689
〈표 13-1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정기적 금전	691
〈표 13-16〉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정기적 금전	692
〈표 13-1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정기적 금전	694
〈표 13-18〉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정기적 금전	695
〈표 13-1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금전	696
〈표 13-20〉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금전 ..	697
〈표 13-2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남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	699
〈표 13-22〉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남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	700

〈표 13-2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남편부모로부터 받은 서비스	701
〈표 13-24〉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남편부모로부터 받은 서비스	702
〈표 13-2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부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	704
〈표 13-26〉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부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	705
〈표 13-2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부인부모로부터 받은 서비스	706
〈표 13-28〉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부인부모로부터 받은 서비스	707
〈표 13-2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	709
〈표 13-30〉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 ..	710
〈표 13-3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정기적 금전	711
〈표 13-32〉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정기적 금전	713
〈표 13-3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금전	714
〈표 13-34〉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금전	715

〈표 13-3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정기적 금전	716
〈표 13-36〉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정기적 금전 ..	718
〈표 13-3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정기적 금전	719
〈표 13-38〉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정기적 금전	720
〈표 13-3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금전	722
〈표 13-40〉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금전	723
〈표 13-41〉 15~64세 기혼가구의 비동거 양가 부모와의 대면 및 비대면 접촉 빈도	724
〈표 13-42〉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비동거 양가 부모와의 금전적 교류	725
〈표 13-43〉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비동거 양가 부모와의 비금전 교류	726
〈표 13-44〉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비동거 양가 부모와 상호 교류한 서비스	726
〈표 13-45〉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동거 양가 부모와의 금전적 교류	727
〈표 13-46〉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동거 양가 부모와의 비금전 교류	728
〈표 14- 1〉 15~64세 기혼가구의 가족 행복의 중요요건	734

〈표 14- 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 행복의 중요요건735
〈표 14- 3〉 응답자 특성별 가족 행복의 중요요건736
〈표 14- 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생활 비교737
〈표 14- 5〉 응답자 특성별 가족생활 비교738
〈표 14- 6〉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생활이 더 나빠진 주된 이유739
〈표 14- 7〉 응답자 특성별 가족생활이 더 나빠진 주된 이유740
〈표 14- 8〉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 내에서 『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741
〈표 14- 9〉 응답자 특성별 가족 내에서 『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742
〈표 14-1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743
〈표 14-11〉 응답자 특성별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744
〈표 14-1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745
〈표 14-13〉 응답자 특성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	..746
〈표 14-1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747
〈표 14-15〉 응답자 특성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748
〈표 14-16〉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749

〈표 14-17〉 응답자 특성별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	750
〈표 14-18〉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	751
〈표 14-19〉 응답자 특성별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	752
〈표 14-2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753
〈표 14-21〉 응답자 특성별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754
〈표 14-2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	755
〈표 14-23〉 응답자 특성별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	756
〈표 14-2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삶에서의 성취 정도」에 대한 만족도	757
〈표 14-26〉 응답자 특성별 「삶에서의 성취 정도」에 대한 만족도	758
〈표 14-2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759
〈표 14-28〉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760
〈표 14-29〉 가족생활 만족도	761
〈표 15- 1〉 15~64세 기혼가구의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지역별 결혼상태	776
〈표 15- 2〉 15~64세 기혼가구의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	777
〈표 15- 3〉 15~64세 기혼가구의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의 비교	778

〈표 15- 4〉 15~49세 기혼여성과 남편의 결혼경력	779
〈표 15- 5〉 15~64세 기혼가구의 부부특성별 부부의 평균 초혼연령	781
〈표 15- 6〉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초혼연령별 남편의 초혼연령 분포 ..	782
〈표 15- 7〉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남편의 교육수준 분포 ..	783
〈표 15- 8〉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평균 혼인지속기간	784
〈표 15- 9〉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특성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785
〈표 15-10〉 사별·이혼·별거부인의 일반특성	786
〈표 15-11〉 사별 및 이혼·별거부인의 해혼유형별 특성	788
〈표 15-12〉 해혼유형별 해혼당시 부인 및 남편의 평균연령	789
〈표 15-13〉 해혼유형별 해혼당시 부인 및 남편의 연령분포	790
〈표 15-14〉 이혼·별거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이유	793
〈표 15-15〉 이혼·별거부인의 결혼연도별 이혼·별거 이유	793
〈표 15-16〉 해혼부인의 결혼연도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794
〈표 15-17〉 이혼·별거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제의자	796
〈표 15-18〉 이혼·별거부인의 이혼·별거 당시 연령별 18세 미만 자녀수	797
〈표 15-19〉 15~64세 기혼가구의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현재 18세 미만 자녀수	798
〈표 15-20〉 현재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특성별 동거자	799
〈표 15-21〉 현재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및 동거자별 주 양육비 제공자	800

〈표 15-22〉 15~64세 초혼부인의 초혼연도별 출생아 유무	801
〈표 15-23〉 15~64세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	803
〈표 15-24〉 15~64세 초혼 출산경험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805
〈표 15-25〉 가족형성기 부인의 평균연령	806
〈표 15-26〉 가족확대기 부인의 평균연령	807
〈표 15-27〉 가족축소기 부인의 평균연령	808
〈표 15-28〉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의 평균연령 ..	809
〈표 16- 1〉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태도」	822
〈표 16- 2〉 기혼남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①	823
〈표 16- 3〉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①	824
〈표 16- 4〉 기혼여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①	825
〈표 16- 5〉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①	826
〈표 16- 6〉 기혼남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②	827
〈표 16- 7〉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②	828
〈표 16- 8〉 기혼여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②	829
〈표 16- 9〉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②	830
〈표 16-10〉 기혼남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③	831
〈표 16-11〉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③	832
〈표 16-12〉 기혼여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③	833
〈표 16-13〉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③	834
〈표 16-14〉 기혼부부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책임한계	836
〈표 16-15〉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양육 책임한계	837
〈표 16-16〉 지출항목별 세부 내용	839

〈표 16-17〉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족 공동비용 중 개인자녀 몫	840
〈표 16-18〉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비용	841
〈표 16-19〉 자녀연령별 1인당 월평균 양육비	842
〈표 16-20〉 자녀 1인당 각 단계별 및 전체 양육비용 추정	844
〈표 17- 1〉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결혼비용	854
〈표 17- 2〉 15~64세 기혼가구 내 가장 최근 결혼당사자의 결혼당시 특성별 결혼비용	855
〈표 17- 3〉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가정의 경제능력 대비 결혼비용 정도	858
〈표 17- 4〉 15~64세 기혼가구 내 응답자 특성별 가정의 경제능력 대비 결혼비용 정도	859
〈표 17- 5〉 전체 결혼비용별 결혼비용의 부담수준	859
〈표 17- 6〉 15~64세 기혼가구의 결혼관련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	860
〈표 18- 1〉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수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876
〈표 18- 2〉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수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878
〈표 18- 3〉 15~64세 기혼가구의 출생아수 감소 이유에 대한 생각 ..	879
〈표 18- 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분야 우선순위	880

〈표 18- 5〉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분야 우선순위	881
〈표 18- 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결혼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882
〈표 18- 7〉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결혼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883
〈표 18- 8〉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임신 및 출산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884
〈표 18- 9〉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임신 및 출산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885
〈표 18-10〉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양육의 경제적 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886
〈표 18-11〉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양육의 경제적 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887
〈표 18-12〉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양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분야 우선순위	888
〈표 18-13〉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양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분야 우선순위	889
〈표 18-1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일가정양립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890
〈표 18-15〉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일가정양립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891

〈표 18-1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기타 가족생활 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892
〈표 18-17〉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기타 가족생활 지원 분야 우선 지원 정책	893
〈표 18-18〉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 정도	894
〈표 18-19〉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 정도	895
〈표 18-20〉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출산 및 양육의 국가지원에 대한 생각	896
〈표 18-21〉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출산 및 양육의 국가지원에 대한 생각	897
〈표 18-22〉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출산 및 양육의 직장지원에 대한 생각	898
〈표 18-23〉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출산 및 양육의 직장지원에 대한 생각	899
〈표 18-2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다자녀 가정에 국가세금 지원에 대한 생각	900
〈표 18-25〉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다자녀 가정에 국가세금 지원에 대한 생각	901
〈표 18-2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출산 양육의 바람직한 사회여건 우선순위	902

〈표 18-27〉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출산 양육의 바람직한 사회여건 우선순위	903
〈표 18-28〉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반드시 필요한 혼인장려정책	906
〈표 18-29〉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반드시 필요한 혼인장려정책	907
〈표 18-3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분포 및 평균	909
〈표 18-31〉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분포 및 평균	910
〈표 18-3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정책과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도	912
〈표 18-33〉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가족정책과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도	914
〈표 18-3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915
〈표 18-35〉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917
〈표 18-36〉 15~64세 기혼가구의 출산지원 관련 정책별 우선순위 ..	919

그림 목차

[그림 3-1] 가정법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혼전·후 가족지원사업 연계 모델	106
[그림 7-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별 피임실천상태	354
[그림 16-1]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843
[그림 17-1]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	856



Abstract

This study is the 22nd and latest in the series of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which started in 1964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informed policymaking by means of an up-to-date understanding of a wide range of variables that are associated directly or indirectly with marriage, childbirth, child rearing, support for parents, and family heal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re has been a slight gain, first time in many years, in the importance of marriage in the public perception. Still, however, most of the Koreans who choose to marry late or not to marry at all do so largely because they have “no stable job” or “cannot afford to marry and have a family.” Second, having children for a growing number of Koreans has become a mere option, not a necessity.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for married women aged between 15 and 44 was 2.2, while the actual number of children they have on average was 1.6. In the same group, 76.6% responded that they would have no more children. The rate of pregnancy wastage for the same group declined to 22.4% from 29.0% and 25.8% in 2006 and 2009, respectively. Of particular significance was that there

was a marked reduction in the number of induced abortions. Fourth, the overall rate of breastfeeding declined somewhat from what it was in 2009, whereas the rate of exclusive breastfeeding in the 1st, 2nd and 3rd weeks postpartum increased to 26.7%, 53.0% and 59.1%, respectively. Fifth, “family health” (44.4%) and “family stability” (41.7%) were the conditions that Koreans consider most important for their families. In comparison, such other factors as “success”, “power”, “wealth,” “filial piety” are considered much less important in keeping the family happy. Sixth, Korean families spends a monthly average amount of KW1.19 million on children, an increase from KW0.75 million, KW0.91 million and KW1.01 million in 2003, 2006 and 2009, respectively. Seventh, Korean men and women are found to have spent KW75.5 million and KW5.23 million on average on their marriage, an increase from KW73 million for men and KW32.6 million for women in 2009.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혼, 출산, 자녀양육, 부모지원, 자녀결혼, 가족보건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시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대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여 바람직하고 효과성 높은 인구 및 가족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첫째, 부인의 임신, 출산, 피임, 난임 등 임신·출산관련 요소(factors)의 행태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단기 인구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
- 둘째,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가족생활, 자녀양육, 결혼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족복지 증진방안을 동시에 모색함.
- 셋째, 산전산후관리, 저체중출생아, 모유수유 등 모자보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함.

- 넷째, 궁극적으로 출산율과 가족생활의 안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지연시키고,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 연구내용

- 가구조사: 조사대상 구분과 정책대상 여부, 가구원의 특성, 출생에 관한 사항, 가구에 관한 사항
- 개인조사: 결혼 및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폐임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기혼부인의 취업에 관한 사항, 자녀양육 및 결혼비용에 관한 사항, 출산정책 및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주의 제 특성

□ 조사완료 가구의 일반특성

- 조사완료가구의 지역별 분포는 동부(도시) 지역 83.5%, 읍·면부(농·어촌) 지역 16.5%, 가구원 수는 1~2인 50.8%, 3~4인이 42.1%이었고, 5인 이상 7.2%이었음.
- 가구소득은 100만원 단위로 약 11~19%를 보였는데, 500만원 이상이 1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0~300만원 미만인 19.4%이었음.
- 가구원 수를 적용한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별 총 소득을 의미하는 욕구소득비에 의해 조사대상가구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의 2~3배 미만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생계비 미만은 12.3%이었음.

□ 조사완료 가구주의 일반특성

- 남성가구주는 79.5%로 여성가구주 20.5%의 약 4배가 많았고, 가구주 연령은 전체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60세 이상자가 2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 50대, 30대의 순이었음.
-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비율이 6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미혼 13.9%, 사별 12.5%, 이혼·별거 8.0%의 순이었음.
-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35.8%이었으며, 중학교 이하 학력자는 25.2%이었음.
- 가구주의 취업률은 75.6%이었으며, 비취업 가구주도 24.4%나 있었는데, 가구원 중에서 실제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가구주로 정의하고 있는 본 조사의 특성상 비취업 가구주가 있다는 것은 생계여량의 가구가 다소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제3장 혼인가치관과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

□ 혼인가치관의 변화

- 기혼가구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3년 54.4%, 2006년 57.7%, 2009년 60.6%이었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63.3%이었음.
- 기혼가구의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함과 하는 편이 좋음)은 2003년 18.6%, 2006년 13.8%, 2009년 20.5%이었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26.9%로 높았음.
- 기혼가구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음’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조사연도에 따라 일관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는 못하였지만, 최근 반대의견이 낮아지고, 찬성의견이 높아지고 있음(2006년

56.8%, 2009년 67.8%, 2012년 62.2%).

- 기혼가구의 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 의견은 2003년 20.7%, 2006년 18.3%, 2009년 20.9%이었으며, 2012년 조사는 17.8%로 가장 낮았음.

□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4개 변수를 활용하여 살펴봄.
-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기혼가구의 찬성률(대체로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은 2012년 78.7%로 2009년 75.2% 보다 높았으며, 이와는 달리 반대율(전혀 찬성하지 않음과 별로 찬성하지 않음)은 24.8%에서 21.3%로 낮아짐.
-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기혼가구의 반대율(전혀 찬성하지 않음과 별로 찬성하지 않음)은 2012년 82.4%로 2009년 84.3% 보다 미미하나마 감소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찬성률(대체로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은 15.7%에서 17.6%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음.
-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기혼가구의 반대율(전혀 찬성하지 않음과 별로 찬성하지 않음)은 2012년 64.5%로 2009년 67.9% 보다 낮았으며, 이와 반대로 찬성률(대체로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은 32.1%에서 35.4%로 증가하였음.
-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반대율(전혀 찬성하지 않음과 별로 찬성하지 않음)은 2012년 61.4%로 2009년의 68.6%보다 감소하였고, 이와는 달리 찬성률(대체로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은 2009년 31.4%에서 2012년 38.6%로 증가하였음.

제4장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 적정 결혼연령

- 기혼가구의 응답자가 생각하는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과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각각 평균 30.9세, 평균 28.58세로, 2009년 조사결과(남성 30.38세, 여성 28.08세) 보다 약간 상승하였음.

□ 본인 결혼연령의 적절성

- 기혼가구의 응답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적절했음’이 51.4%, ‘빨랐음’ 28.6%, ‘늦었음’ 19.9%로 나타났다. 이를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빨랐음’은 4.2%pt 감소하였고, ‘적절했음’과 ‘늦었음’은 각각 3.4%pt, 0.8%pt 증가한 것임.
- 본인의 결혼연령이 ‘빨랐음’(전체의 28.6%)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요구로’가 2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특별한 이유 없음’ 29.5%, ‘집안 어른의 권유로’ 19.6%, ‘임신이 되어서’ 17.2% 등의 순이었음.
- 본인의 결혼연령이 ‘늦었음’(전체의 19.9%)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음’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감이 없어서’ 36.1%,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11.4%, ‘취업에 방해가 될까 봐’ 8.1%,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3.8% 등의 순이었음.

□ 만혼과 비혼의 원인에 대한 태도

- 한국사회의 만혼과 비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0개 항목에 의하여 기혼남녀의 의견을 개발하여 조사하였으며, 기혼가구 응답자의 찬성률은 다음과 같음.
-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의 찬성률 82.4%

-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의 찬성률: 77.0%
-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의 찬성률: 66.6%
-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의 찬성률: 50.6%
-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의 찬성률: 56.1%
-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의 찬성률: 68.3%
-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의 찬성률: 60.6%
-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의 찬성률: 76.4%
-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의 찬성률: 84.0%
-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의 찬성률: 76.0%

제5장 자녀가치관과 출산행태의 변화

□ 자녀가치관 및 이상자녀수

- 유배우부인 가구의 자녀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조사에서는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가 가장 많았으나(2003년 54.5%, 2006년 53.8%, 2009년 55.9%), 이번 조사에서는 자녀출산을 선택으로 보는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53.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변화함.
- 유배우부인 가구의 98.8%가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하였고, 이상자녀수가 있는 유배우부인 가구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2명으로 2006년과 2009년 조사의 2.3명보다 0.1명 낮았으며, 2000년 및 2003년과 동일하였음.

□ 남아선호가치관

- 유배우부인 가구의 남아선호가치관을 ‘아들 필요성’에 의하여 파악한 결과, 2000년 대비 이번 조사결과가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은 16.2%

에서 8.2%로 약 절반이 낮아진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은 39.5%에서 58.3%로 대폭 높아짐.

- 유배우부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들의 필요이유를 파악한 결과, 정신적 만족감인 ‘심리적 만족’과 ‘가정행복’이 각 7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통적 가계계승인 ‘가문유지’가 24.2%로 세 번째였음.
- ‘이상자녀수 있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별로 구별하여 이상자녀수를 원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한 결과, 응답가구의 22.3%가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를 제시하였고, 77.7%는 ‘구별없음’이라고 하였음.
-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한 결과, 평균 이상여아수는 1.32명으로 평균 이상남아수 1.14명 보다 많았음.

□ 입양에 대한 태도

- 입양을 하여 자녀를 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양고려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유배우부인 가구 중 입양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는 8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려한 적이 있으나 포기하였다’ 9.9%, ‘입양을 적극 고려하였다’ 1.2%, 실제로 ‘입양 경험이 있다’ 0.1%의 순이었음.

□ 출생아 수 및 현존자녀수

-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는 1.61명으로 2006년 1.7명, 2009년 1.69명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음.
- 유배우부인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61명으로 2000년 이후 조사 중에서 가장 적었으며, 2009년(1.68명) 대비 0.07명 감소하였음.

□ 추가자녀 계획

- 유배우부인 가구가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비율이 76.6%이었고, 출산을 할 계획인 비율은 20.1%이었으며, 현재 생각 중인 경우는 3.3%이었음.
- 추가자녀를 원하는 유배우부인 가구(20.1%)의 추가 희망자녀수는 1명이 6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 29.1%이었으며, 3명 이상은 2.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평균 추가 희망자녀는 1.34명이었음.
- 정부의 정책지원 시 15~44세 유배우부인이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비율이 72.8%이었고, 출산을 할 계획인 비율은 24.9%이었으며, 출산을 할 계획인 이들 유배우부인(24.9%)의 추가 희망자녀는 평균 1.30명임.
- 어떤 정부지원이 있다면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희망정책은 ‘자녀양육비 지원’이 5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육비 지원’ 17.3%이었음.

제6장 임신 및 임신종결형태의 변화

□ 총 임신 및 임신종결형태의 변화

-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은 2000년 및 2003년 조사에서 평균 2.7회이었으나, 2006년 및 2009년 조사에서는 각각 2.5회, 2.3회로 감소하였고, 이번 조사에서는 더욱 감소하여 2.1회에 불과하였음.
-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으로 종결된 임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74.8%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이와는 상반되게 임신소모는 22.4%로 2000년 이후 최저를 보였음.
- 임신소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인공임신중절은 2000년 이후 계속 낮아져 11.2%이었으며, 자연유산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 11.1%를 차지하였다. 사산은 감소하여 0.1%에 불과하였음.

□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유배우부인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4세 연령층은 2009년 조사보다 현저히 높아져 2006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인 61로 상승하였고, 35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미미하게 상승하였으며, 25~34세 연령층 부인에서는 크게 감소하였음.
-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역사상 가장 낮은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인 17%로 나타났으며, 이는 1980~1990년대 초반의 약 1/3 수준에 그치는 것임.
- 인공임신중절 무경험률은 82.7%로 역대 가장 높았고,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은 2000년 17.1%에서 2003년 15.8%, 2006년 10.1%, 2009년 6.6%, 2012년 5.1%로 지속적인 저하를 보였음.
- 총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2000년 24.1%에서 계속 낮아져 2012년 절반 수준인 11.2%이었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같은 기간에 70.7%에서 51.0%로 약 1/3 감소하였음.

□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특성

-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이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8.2%,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35.2%, 셋째 이상 임신은 36.7%로, 2006년 및 2009년의 조사결과보다 임신순위가 앞당겨 졌음.
-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은 28.1세로 2006년 27.3세, 2009년 27.7세 보다 높아, 이는 부인의 초혼연령 상승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는 0.55명으로 2006년 1.22명, 2009년 1.17명보다 현저히 낮았음.
-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이유는 2006년 및 2009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녀불원’이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18.9%), ‘터울조절’(12.0%), ‘경제적 곤란’(10.7%) 등의 순이었음.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특성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비율은 17.0%, 두 번째 임신인 비율은 28.5%, 셋째 이상 임신은 54.5%로 2006년 및 2009년의 조사결과보다 임신순위가 앞당겨 졌음.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은 29.2세로 2006년 28.5세, 2009년 28.7세 보다 높았음.
-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는 1.26명으로 2006년 1.41명, 2009년 1.35명보다 다소 낮았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한 비율이 2006년 15.7%, 2009년 18.1%, 2012년 24.0%로 계속 증가한데 기인되는 것임.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이유는 2006년 및 2009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녀불원’이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20.0%), ‘경제적 곤란’(11.1%),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 위험 등’(9.1%), ‘터울조절’(8.8%) 등의 순이었음.

제7장 피임수용실태

□ 피임실천변동 추이

-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77.1%로, 2000년의 79.3%, 2006년 79.6%, 2009년 80.0%에서 소폭으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피임실천수준을 보임.
-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을 살펴보면, 난관과 자궁내장치는 2000년 18.3%와 13.7%에서 2012년 5.7%와 10.5%로 감소하였고, 정관수

술은 2000년 13.0%에서 2012년 16.7%로 다소 증가함. 또한 콘돔과 기타 피임방법은 2000년 각각 16.5%와 15.7%에서 2012년 23.7%와 17.9%로 대폭 증가함.

□ 피임목적 및 피임방법 사용의향

- 유배우부인의 68.0%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실천은 9.1%에 불과함.
 - 단산과 출산연기의 구체적인 이유는 자녀양육 비용부담 때문이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중심 생활이 14.1%임.
- 현 피임방법을 계속 사용할 의향을 가진 부인은 72.3%였으며, 다른 피임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을 가진 부인은 10.3%,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17.4%임.
 -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을 가진 부인의 바꾸고자 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80.0%로 가장 많았음.

□ 피임비실천 실태

-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 피임경험부인의 마지막 사용한 피임방법은 콘돔이 4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 21.1%이었음.
- 피임중단과 피임무경험 이유는 모두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각각 58.5%와 88.0%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외에 피임 불필요, 피임부작용, 피임부족 등으로 나타남.
- 피임비실천 부인 중 62.1%가 실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16.7%는 실천할 의향이 없었고, 아직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21.2%였음.

□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

- 유배우부인 중 임신가능하면서 피임 실천중인 부인은 54.5%, 피임

비실천중인 임신가능 부인은 13.6%이며, 불임수술로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은 22.4%임.

-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를 살펴보면, 자녀를 원치 않는 피임실천 부인은 70.4%, 자녀를 원치 않는 피임비실천 부인은 16.5%이며, 자녀를 희망함에도 현재는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은 7.6%임.

제8장 난임실태

□ 난임경험 및 난임진단 실태

- 유배우부인의 난임경험률(임신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인의 비율)은 34.9%임.
- 난임진단 경험률(난임을 경험한 응답자 중 양방병원에서 난임의 원인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은 33.1%임.
- 난임치료 경험률(양방병원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 중 난임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 62.0%임.

□ 난임 치료 실태와 지원정책

- 난임진단 부인의 37.1%는 치료를 받았고, 25.0%는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였으며, 37.9%는 치료를 받지 않음.
- 난임치료를 받은 부인의 난임 치료기관은 양방병원 68.6%,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의 병행 27.1%, 한방병원 4.3%임.
- 난임진단을 받았음에도 난임치료를 받지 않은 유배우부인의 미치료 이유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59.6%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3.5%, ‘영구불임판정을 받아서’ 11.5% 순임.
- 난임진단을 받은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인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음’이 4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부분 알고 있음’

35.7%, ‘전혀 모름’ 16.1%의 순이었음.

- 최소 1년 동안 난임을 경험한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본 결과, ‘난임치료비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 39.4%와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31.5%가 대다수를 차지함.

제9장 모자보건실태

□ 산전관리 실태

- 산전수진율의 전국 평균은 100.0%로 조사대상 부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부인이 임신 중 최소 한번 이상 산전수진을 받고 있음.
- 2010~2012년 기간 동안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인의 초진시기는 평균 임신 후 5.38주였으며, 이는 2009년에 비하여 초진시기가 약간 빨라졌음을 볼 수 있음.
- 산전관리 수진 횟수는 평균 13.39회이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산전관리 회수 4회 이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98.7%에 이르는 높은 수준임.

□ 분만실태

- 시설분만율은 2000년 99.9%, 2003년 99.3%, 2006년 100.0%, 2009년 99.9%, 2012년에는 99.8%에 달해 안전분만율이 매우 높음.
- 시설분만 장소로는 ‘병원(78.3%)’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11.2%)’, ‘의원(9.9%)’의 순으로 병원 분만 비중이 높아지고 의원 분만 비중이 낮아졌음.
- 분만형태는 자연분만 65.7%, 제왕절개 34.3%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주요 이유는 ‘아두골반 불균형’, ‘반복 제왕절개나 제왕수술 기왕력 및 자궁근종술’ 등임.
-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출생시 임신 주수는 정상분만인 ‘37주 이상’

이 95.2%였고, ‘33~36주 이하’ 4.2%, ‘32주 이하’ 0.6%로, 전체 출생아 중 4.8%는 조산아로 출생하였음.

□ 산후관리

-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산후검진을 받은 비율은 2000년 85.0%, 2003년 90.9%, 2006년 91.9%, 2009년 91.9%에서 2012년에는 91.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조사대상 부인의 50.2%가 분만후 의료기관 입원과 연계된 단기 산후조리나 다양한 형태의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10장 모유수유실태

□ 수유양상

- 2010년 1월 이후 출생한 영유아의 완전 모유수유율이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모유수유와 조제분유를 같이 먹이는 혼합영양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음.
- 출생후 1개월시의 수유양상은 출산후 비취업부인의 모유수유율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5개월시에 32.3%로 크게 낮아지고 모유와 조제분유를 같이 먹이는 혼합영양이나 또는 조제분유를 먹이는 인공영양이 증가하였음.

□ 모유수유 장애요인 및 모유수유 정책욕구

- 모유를 전혀 먹이지 않은 이유로는 모유량 부족과 엄마의 취업으로 인하여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모유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분만 병원에서의 모자동실 운영’ 순임.

제11장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 기혼여성의 현 취업실태

- 기혼여성의 현 취업률은 53.1%이고, 그 중 유배우 부인의 현 취업률은 51.2%임. 이는 2009년보다 각각 3.1%pt와 3.2%pt 상승한 수치임.
- 취업여성의 직종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3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무직 종사자 23.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6%, 단순노무자 및 기타 11.9% 순임.
- 취업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51.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시근로자 18.7%, 자영업자 11.0%, 무급가족종사자 8.2%, 일용근로자 7.8% 등의 순이었음.
- 취업여성의 직장유형은 기업체 근무가 45.6%, 개인사업체 및 기타 직장은 41.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12.6%의 분포를 보임.
- 취업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41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약 3시간 초과함.
- 취업여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70.39만원으로 남편 근로소득의 48.5% 수준에 불과함.

□ 취업상의 어려움 및 취업욕구

-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어려움은 ‘가사부담’과 ‘자녀양육 부담’이 각각 25.6%와 24.1%로 많았고, 다음은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11.5%, ‘직장생활과 육아병행’ 8.1% 순이었음.
- 기혼여성의 현 취업 계속여부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가 2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년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27.0%,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23.1%, ‘쉬고 싶어질 때까지’ 16.3% 순임.

- 기혼여성이 희망하는 자녀구성 및 근무형태는 자녀 2명 이상에 시간제 근무가 3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 2명 이상에 전일제 19.9%, 자녀 2명 이상에 비취업 15.6%, 자녀 1명에 전일제 근무 10.7% 순이었음.

□ 생애단계별 취업실태

- 취업률은 결혼직전 87.5%에서 직후 47.8%로 39.7%pt 감소하였고, 첫째아 출산 전에 31.0%였던 취업률은 첫째아 출산 후 25.4%로 5.6%pt 감소함.
- 막내아 출산 전 25.8%였던 취업률은 막내아 출산 후 24.8%로 감소하다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 40.3%로 증가하였고, 입학 후에는 43.4%로 더욱 높아짐.
- 취업부인의 직장변화를 살펴보면,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결혼 전·후 91.3%, 첫째아 출산 전·후 95.9%, 그리고 막내아 출산 전·후와 초등학교 입학 전·후는 모두 94.9%로 결혼 전·후가 다른 생애단계에 비해 다른 직장이나 직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음.
- 취업중단 이유는 결혼 전·후는 ‘결혼 때문’이 88.4%로 대다수를 차지하다 첫째아 출산 전·후는 ‘자녀양육 때문’이 92.7%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취업중단이 대부분을 차지함. 이는 막내아 출산 전·후도 유사하였음.
 - － 한편,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는 ‘자녀양육 때문’이 52.9%에 불과하였고, 이외에 ‘건강이 인 좋아서’,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회사가 문을 닫아서를 포함한 기타’ 등 다양한 이유를 보임.

제12장 가족의 역할 및 관계 실태

□ 가족의 역할

-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분담에서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 21.8%, 주로 부인이하고 남편이 일부 도움을 주는 비율 65.8%로,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분담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성역할 구분이 여전히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임.
- 세부 가사활동별 부인이 하는 역할을 비율로 살펴보면, 식사요리 준비 91.2%, 설거지 87.0%, 세탁 86.2%, 시장보기 75.2%, 집안청소 78.3%로, 시장보기만 남성의 참여가 다른 가사활동보다도 다소 활발함.
- 요일별 가사분담의 변화를 보면, 남성의 가사 참여는 평일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중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주말가사활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 자녀양육활동에서 부인의 역할 비중은 학교공부 76.6%, 놀아주기 60.5%로, 등하교 78.4%로, 대체로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부부간의 의사결정에서 가구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의 결정은 대체로 부부가 공동결정하였고, 일반 생활비 지출은 부인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성역할에 대한 태도

-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찬성률: 66.4%
-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 찬성률: 46.7%
-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찬성률: 75.4%
-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 찬성률: 21.5%

□ 가족관계

-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 70.9%, 부인의 결혼생활 만족도 59.8%로 남편에 비해서 부인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자녀관계 전반적 만족도는 67.2%이며, 세부적으로 자녀와의 대화 만족도 67.1%, 자녀와의 문화생활 만족도 44.3%,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 충족 만족도 58.1%임.
- 세부 항목별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간 대화 59.1%, 문제해결 노력 67.6%, 잘 알고 있음 65.2%, 열린 마음 55.5%, 도움요청 71.8%, 여가공유 47.5%, 상호 친밀성 68.3%, 솔직함 66.2%, 지지와 격려 69.3%, 감정 표현 66.2%, 발언권 69.6%, 상호 인정 69.4%, 행동 책임 70.3%, 상호 존중 68.2%, 감정 존중 69.7%임.

제13장 동거 및 비동거 가족 지원

□ 비동거부모와의 접촉

-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만남 빈도는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가 20.6%로 가장 많았고,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만남 빈도도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음.
-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비대면 접촉(전화, 편지, 이메일 등) 빈도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비대면 접촉(전화, 편지, 이메일 등) 빈도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24.2%로 가장 높았음.

□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지원

- 최근 1년간 비동거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 부모 30.9%, 부인부모 20.2%이며, 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의 월평균 제공금액은 남편부모 8만 2천원, 부인부모 4만 5천원임.

- 최근 1년간 비동거 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부모 89.5%, 부인부모 85.0%이며, 1년간 제공금액은 남편부모 72만 3천원, 부인부모 58만 4천원임.
- 비동거부모에 대한 비금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외식/음식물 제공률이 남편부모에게 85.7%, 부인부모에게 84.4%로 가장 높았음.

□ 비동거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 비동거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받은 비율은 남편부모로부터 0.7%, 부인부모로부터 0.7%이며, 비동거 부모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받은 비율은 남편부모로부터 19.8%, 부인부모로부터 18.8%이었음.
- 비동거부모로부터의 비금전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외식/음식물 수혜율은 남편부모로부터 56.4%, 부인부모로부터 59.7%로 가장 높았음.

□ 동거부모와의 상호 지원

- 비동거 남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집안일이 가장 많았는데, 남편의 부(父)에게 39.2%, 남편의 모(母)에게 44.3%이었음.
- 비동거 남편부모로부터 수혜한 서비스는 ‘자녀돌봄’이 가장 많았는데, 남편의 부(父)로부터 8.7%, 남편의 모(母)로부터 11.9%이었음.
- 비동거 부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집안일이 가장 많았는데, 부인의 부(父)에게 31.9%, 부인의 모(母)에게 37.9%이었음.
- 비동거 부인부모로부터 수혜한 서비스는 ‘자녀돌봄’이 가장 많았는데, 부인의 부(父)로부터 10.6%, 부인의 모(母)로부터 17.6%이었음.

□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지원

- 최근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부모 44.7%, 부인부모 41.9%이었고, 비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부모 70.5%, 부인부모 67.8%이었음.

- 동거부모에 대한 비금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외식/음식물 제공률이 남편부모에게 88.5%, 부인부모에게 87.9%로 가장 높았음.

□ 동거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 동거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받은 비율은 남편부모로부터 3.5%, 부인부모로부터 3.5%로 동일하였고, 비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받은 비율은 남편부모로부터 16.4%, 부인부모로부터 21.2%이었음.
- 동거부모로부터의 비금전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외식/음식물 수혜율이 남편부모로부터 38.3%, 부인부모로부터 58.6%로 가장 높았으며, 부인부모로부터 훨씬 높은 수혜율을 보임.

제14장 가족생활의 질

□ 가족 행복의 요건

-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은 ‘가족의 건강’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정이 안정되어야 함’ 41.7%임.

□ 가족생활 만족도

- 가족생활을 1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 ‘동일함’이 6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더 좋아짐’ 20.3%임.
- ‘가족 내에서 본인의 지위와 역할’ 만족도: 54.2%
- ‘가사노동 분담 정도’ 만족도: 43.5%
-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만족도: 58.2%
-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 만족도: 44.7%
- ‘가족의 의식주 수준’ 만족도: 45.7%

-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만족도: 45.7%
-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37.6%
- ‘가족원의 건강수준’ 만족도: 55.5%
- ‘삶에서의 성취 정도’ 만족도: 41.3%
- ‘전반적인 가족생활’ 만족도: 50.5%

제15장 혼인실태와 가족주기의 변화

□ 혼인실태의 변화

-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는 유배우 87.5%, 사별 5.8%, 이혼·별거 6.7%임.
- 부부의 경력별 결합형태는 부부모두 초혼인 비율은 2000 97.3%에서 2012년 97.1%로 0.2%pt 감소한 반면, 부부 모두 또는 한쪽이 재혼인 비율은 2000년 2.7%에서 2012년 2.9%로 0.2%pt 증가함.
- 남편과 부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27.84세, 부인 24.84세로 남녀 간에 3세의 차이를 보임.
- 기혼여성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2012년 18.4년으로 2009년의 19.8년보다 1.4년이 더 단축됨.
- 해혼상태 부인은 12.5%로 2009년의 10.2%에 비해 2.3%pt 증가하였으며, 해혼당시 평균연령은 사별부인은 45.77세, 이혼·별거부인 38.53세로 사별부인이 이혼·별거보다 7.24세가 더 많았음.
- 이혼·별거 부인을 대상으로 해혼 이유를 살펴본 결과, 경제문제 26.1%, 배우자 외도 24.2%, 성격차이 22.2%, 학대·폭력 12.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2009과 비교하면 성격차이에 의한 해혼은 줄어든 반면, 학대·폭력과 경제문제에 의한 해혼이 늘어남.
- 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비율은 74.7%였으며, 그 중 1명이 41.3%, 2명 이상이 33.4%의 분포를 보임.

□ 가족주기의 변화

- 가족형성기인 초혼연령은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21.61세에서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27.24세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가족확대기인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23.14세에서 2000년대 28.70세였고,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같은 기간 26.87세와 31.07세로 최근으로 오면서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데 비해 출산간격은 좁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족축소기인 자녀결혼 시작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은 54.78세에서 2000년대 59.45세였고,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같은 기간 59.47세와 63.90세로 추정되어 만혼화로 인해 자녀출산완료 후 자녀결혼 시작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추세를 보임.
- 가족해체기인 남편사망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76.14세에서 2000년대 85.92세로 추정되었고, 부인 본인 사망연령은 같은 기간에 각각 78.10세와 90.62세로 최근으로 오면서 사망연령이 높아짐.
 - － 배우자 사망 후 잔여기간은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1.96년에서 2000년대는 4.70년으로 결혼년도가 최근으로 오면서 사별기간이 늘어남.

제16장 자녀양육 태도 및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 자녀양육 태도 및 책임한계

- 자녀양육태도
 - －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 찬성률: 42.3%
 - －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찬성률: 90.4%

-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 찬성률: 95.1%
- 자녀양육 책임의 한계에 대해 ‘대학 졸업 할 때까지’가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0.4%, ‘취업할 때까지’ 15.7%의 순이었음.

□ 양육비 지출 실태

- 부모가 부담하는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는 2003년 74만 8천원→2006년 91만 2천원→2009년 100만 9천원→2012년 118만 9천원으로 지속 증가하였음.
 - 양육비 공통비용은 월평균 50만 2천원으로, 2003년 29만 4천원보다 1.7배 증가하였다. 특히, 교통통신비가 12만 7천원을 차지함.
 - 양육비 개인비용은 월평균 68만 7천원이며, 2003년 45만 4천원보다 1.5배 증가함. 양육비 개인비용 중 사교육비가 가장 큰 22만 8천원, 식료품비가 20만 4천원임.
- 자녀 1인당 대학졸업(22년간)까지의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천원으로 추정되어, ‘09년(2억 6,204만 4천원) 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함.

제17장 결혼비용 실태

□ 본인 및 자녀의 결혼비용

- 2010~20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천 545만 6천원, 여성 5천 226만 6천원이고, 이 중 결혼당사자 부담 비율은 각각 38.6%, 41.5%임.
- 이는 ‘09년에 비해 남성 245만 8천원, 여성 1천 963만 4천원 증가한 수치임.

□ 결혼비용의 부담수준

- 결혼비용의 부담수준이 가구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어떠했는지 파악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경제능력에 맞게 적당했음’은 2009년 조사결과(50.4%)와 유사한 수준인 50.7%이고, 다음은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함’ 43.0%,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 6.3% 등이었음.
- 결혼비용으로 지출한 전체 항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결과, 신랑측은 ‘신혼주택 비용’(81.8%)이 절대적으로 큰 부담스러운 항목이었고, 신부측은 ‘신혼살림’(44.8%), ‘배우자측 예단’(12.5%), ‘신혼주택 비용’(12.4%) 등으로 나타남.

제18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 저출산 현상에 관한 태도

- 출생이수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전체 비율은 83.4%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출생이수 감소의 주요 이유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자녀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의 증가,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의식의 확산 등의 순임.

□ 기혼가구의 출산정책 선호도

- 기혼가구가 생각하는 출산지원 관련 정책 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산후 조리원 및 산후 도우미 등과 같은 산후 지원이며, 다음은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신혼부부 주거지원,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남.
-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정도에 대해 70%가 본인에게 영향이 있다고 하였음.
- 출산과 양육의 국가지원 필요성에 대해 95.7%가 지원필요성을 인정

하였고, 출산 및 양육의 직장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필요성보다도 높은 96.9%가 긍정적 태도를 보임.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세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율은 78.9%임.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의 우선순위는 안전한 자녀양육환경(23.8%)이 가장 높고,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17.8%), 경기 활성화(13.2%), 복지수준 향상(10.4%) 등의 순임.

□ 가족정책 욕구

- 반드시 필요한 혼인장려책을 조사한 결과, ‘청년실업 해소’가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민층의 주택응자’ 17.1%, ‘혼인 및 출산 가치관 확립’ 12.9%,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과, 중립적 의견이 각각 41.6%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 의견은 16.8%로 비교적 적음.
- 가족정책과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62.2%로 가장 많았고, 필요 없다는 의견은 23.2%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언어통역서비스’가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양육 지원’ 24.9%, ‘취업교육 및 훈련’ 20.9%, ‘경제적 지원’ 13.3% 순임.

제19장 정책제언

□ 결혼 관련 정책제언

- 첫째, 결혼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가족관계를 완화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족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 둘째, 혼인가치관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태도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와 연령대별 차이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만혼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넷째,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취업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다섯째, 결혼생활과 가족제도에서 각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문화가 변화되어야 함.
- 여섯째, 기혼부부 가족 대상의 다양한 세제 혜택과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의 할인 혜택 등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됨.

□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제언

- 첫째, 경제적 어려움, 난임 및 부부의 건강문제, 양성불평등적 가족문화 등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저출산정책 추진이 필요함.
- 둘째,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과 다양한 저출산 대책의 홍보 강화
- 셋째, 출산지원을 위한 ‘산후도우미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넷째,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임신부 산전관리가 요구됨.
- 다섯째, 인공임신중절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당사자와 의료인에 대한 홍보, 교육과 단속이 강화되어야 함.

□ 피임 및 난임 관련 정책제언

- 첫째, 가임기 여성의 피임행태는 생식건강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정기적인 생식건강증진교육을 통해 인식을 증진함.
- 둘째, 가임기 여성의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됨.
- 셋째, 난임치료에 소요되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 넷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난임치료의 정책적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횟수를 확대할 것이 요구됨.

□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관련 정책제언

- 첫째, 제왕절개율을 OECD의 권고수준인 5~15%로 낮추도록 노력함.
- 둘째, 신생아의 저체중 및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 중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셋째, 취약지역 분만의료기관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넷째,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 다섯째,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와 모유수유 지원시책의 추진, 육아 휴직 지원 확대, 사회적인 모유수유지지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비취업 여성(전업주부) 대상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일곱째, 조제분유의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됨.

□ 여성취업 및 가족주기 관련 정책제언

- 첫째,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과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요구됨.
-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함.
-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함.
- 넷째, 탄력근무제도를 확산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함.
- 다섯째, 이혼을 최소화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지지 제고 정책이 필요함.
- 여섯째, 해체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고용안정, 양육부담 완화 등의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일곱째,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함.
- 여덟째,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함.
- 아홉째,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열째, 생애주기 전반을 통해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원이 필요함.

□ 가족생활 관련 정책제언

- 첫째, 양성불평등에 따른 가족 갈등을 방지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둘째, 실질적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남성의 가사참여 시간을 보장함.
- 셋째,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 넷째,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함.

□ 양육비용 및 결혼비용 관련 정책제언

- 첫째,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양육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취학자녀와 대학생의 양육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 셋째, ‘양육비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의 산정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넷째, 가장 큰 결혼비용 부담항목인 ‘신혼주택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다섯째, 결혼비용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결혼문화의 개선이 요구됨.
- 여섯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결혼당사자의 신혼살림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의 후원기관 및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후원금품에 의한 지원을 유도함.

*주요용어: 출산(fertility), 피임(contraception), 가족보건(family health), 양육비(child care expenditure), 가족복지(family welf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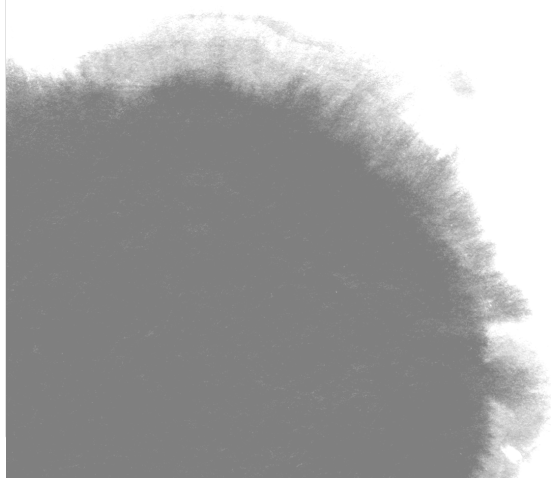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제1부 서론부

제1장 서론

제2장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주의 제 특성

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한 사회의 인구 및 가구와 가족생활의 변동은 이와 관련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에는 결혼, 출산, 자녀양육, 부모지원, 자녀결혼과 같이 생애단계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와 함께 전 생애기간의 취업이 포함된다. 특히, 본 연구는 출산, 가족보건, 가족복지의 세 가지 큰 주제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은 본 연구가 1960년부터 계속되어온 역사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접근이며, 이에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및 실태의 변화와 이에 밀접히 연관되는 가족생활의 가치관 및 실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의 변화는 크게 두 축으로 구분된다는 판단이다. 하나는 1980년대 초의 변화로서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저하된 시기이며, 다른 하나는 1997년 말에 붙어 닥친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의 경제위기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하게 된 시기이다. 전자는 과잉인구가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인구증가억제대책 차원에서 추진된 정부가족계획사업의 ‘의도된 성과’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합계출산율 1.7명이 약 10년간 지속되면서 ‘인구자질’에 초점을 둔 인구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출산율이 급락하게 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고, 이러한 외부충격에 의해 야기된 문제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닥치면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인구증가억제대책의 정부가족계획사업에 의해 기존에 정착된 ‘소자녀 규범’에 더하여 경제위기 및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구직난’, ‘양육부담’이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맞물리면서 비혼 및 만혼, 출산기피로 귀결된 것이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은 1995년 1.65명에서 2000년 1.47명으로 저하되었고, 2005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인 1.08명으로 떨어졌다가, 2010년 1.23명으로 미미하나마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출산 국가 군(群)’에 포함되어 있다(통계청, 연도별 자료).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라는 용어가 회자(膾炙)되고 정책적 관심을 두게 된 것은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부터다. 2003년에는 출산율이 다소 상승하여 1.19명을 나타냄으로써 다소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2004년에는 다시 1.16명으로 낮아졌고, 더욱 심해져 2005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1.08명으로 급락하였다. 이에 국가는 저출산대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였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하기에 이르렀다.¹⁾ 최근에는 합계출산율의 급락에 따른 반발효과인지, 정책효과인

1)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 2일 제7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치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통령훈령을 개정하여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의 설치 근거를 마련, 동년 10월 24일 Task Force(TF) 형태의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설치하였다.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은 2004년 1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5회 국정과제회의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였는데, 이는 4대 분야, 20 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비전으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제시하였으며, 4대 정책분야별 목표로 ①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을 통한 출산안정 도모, ②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③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④ 고령친화적 재정·산업

지 분명하지 않지만 다소 상승하여 1.2명을 약간 웃돌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설치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현재 제2차 기본계획이 추진중에 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의 추진에 의한 효과가 단기간에 거양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혼, 가족, 출산,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의 형성과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적(私的) 영역인 결혼과 출산은 국가의 개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부모지원, 자녀결혼, 가족보건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시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대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여 바람직하고 효과성 높은 인구 및 가족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목적

1964년 이래 22번째 실시된 본 조사²⁾는 한국사회의 변동과 정책환경

정책을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추진과제 20개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어서 ‘인구·고령사회 대책답’은 2004년 2월9일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고, 위원회 내에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조직면모를 갖추어 동년 3월5일 대통령직속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김승권 외, 2009).

- 2) 본 조사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이는 인구사회학적 변동과 맥락을 같이하였다. 즉,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조사의 초점이 발전되었다고 하겠으며, 크게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에는 ‘가족계획’ 단어만 제목에 포함되었다가 ‘출산력’ 단어가 함께 제목에 포함되었다. 제2기에는 ‘출산력’과 ‘가족보건’이란 단어가 제목에 포함되었다가, ‘피임’이란 단어를 제목에 함께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제3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중반부터는 국가 지정통계가 되면서 ‘출산력 및 가족보건’이란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였다. 제4기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보다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변동을 적극 고려하여 조사 횟수를 거듭할수록 조사의 목적이 변화되고 조사항목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이는 사회가 복잡할수록 개인과 가족의 결혼, 임신 및 출산, 피임, 모자보건, 양육, 가족생활 등의 행태(行態)가 상호 얽혀 있어 광범위한 영역이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부인의 임신, 출산, 피임, 난임 등 임신·출산관련 요소(factors)의 행태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단기 인구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둘째,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가족생활, 자녀양육, 결혼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족복지 증진방안을 동시에 모색한다.

셋째, 산전산후관리, 저체중출생아, 모유수유 등 모자보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출산율과 가족생활의 안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지연시키고,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었다. 제1~2기는 정부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제3기는 가족계획사업이 목표달성을 하면서 인구자질을 강화하는데, 제4기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변화된 것이라 하겠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조사에서는 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의 행태, 자녀 및 남아선호 가치관, 피임행태, 인공임신중절 등 임신소모실태, 난임실태, 가족 및 자녀가 치관, 결혼 및 가족주기, 모자보건, 취업과 취업의 장애요인, 자녀양육 및 결혼비용, 가족역할 및 가족관계, 부모지원 등 가족복지, 출산정책 및 가족정책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본 조사는 과거에 실시된 조사자료의 분석결과와 시계열적 비교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인구관련 제 연구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방안과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가구조사와 개인조사의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가구조사

가구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즉, 개인조사에 해당되는 가구가 아닐지라도 조사구 내에 있는 모든 가구는 가구조사를 수행하게 되므로 가구원과 가구의 특성파악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조사표 제1장의 내용이다

1) 조사대상 구분과 정책대상 여부

조사표 구성이 복잡한 관계로 조사대상 구분을 먼저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주요 정책대상 여부도 함께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구분은 출산력 조사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구원 중 15~49세 기혼여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몇 명 있는지에 대한 문항, 자녀양육비조사 대상가구 여부 및 몇 명 있는지에 대한 문항, 미혼조사(20~44세) 대상 여부 등이다. 그리고 정책대상은 다문화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록 장애가구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항이 개발되었다.

2) 가구원의 특성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 출생년월,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취업여부 및 직종, 혼인상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본 조사에서는 비동거 자녀를 비동거 가구원으로 파악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동거 자녀는 조사대상가구에서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기타 친척 등이 포함되며, 국외 거주 자녀도 포함하였다.³⁾ 비동거 자녀의 조사항목은 가구원 사항과 유사하며, 비동거 시작 년월, 비동거 지역(국내 및 해외 등)이 추가되었다.

3) 출생에 관한 사항

2010년 1월 이후 출생아의 출생 연월일, 성, 출생당시 모(母)의 연령, 생존여부 및 사망일시, 출생아 및 모(母)의 현 동거여부, 비동거 이유,

3) 이는 조기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부양자녀를 파악함으로써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실태, 특히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출생신고 여부, 출생지(국내, 외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들은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유배우 출산율을 산출하는 기초자료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⁴⁾

4)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의 주거 및 경제사회적 관련 문항이 주류를 이룬다. 주거관련 내용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 현 주거의 소유 여부 및 소유자, 현재 살고 있지 않지만 별도의 자가 소유 여부 및 소유자 등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지출, 월평균 저축액, 재산(동산 및 부동산), 부채, 부채의 주된 원인, 경제적 자립수준 등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9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나. 개인조사

1) 결혼 및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이는 조사표 제2장의 내용으로 15~64세 기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혼인, 이혼 및 재혼에 관한 태도, 응답자 및 배우자의 혼인관련 사항,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혼인, 이혼 및 재혼에 관한 태도는 결혼의 필요성, 적정 결혼연령,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 여부와 늦게 또는 빨리 결혼한 이유,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이혼의 필요성,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에 대한 태도, 재혼

4) 국외출생아 사항의 세부항목으로 2006~2009년 조사에서 포함되었던 출생국가, 국외 출산의 의도성, 국외출산 이유, 체류기간, 출산 및 체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전체 조사분량의 과다로 인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의 필요성, 만혼 및 비혼의 원인에 대한 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응답자 및 배우자의 혼인관련 사항은 현 결혼의 결혼시기, 혼인당시 연령, 초혼여부, 종교, 신앙심 정도 등이다. 아울러 이혼·별거·사별 가정에 대하여는 해혼시 남편 및 부인의 연령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혼·별거 가정에 대하여는 이혼·별거의 이유, 먼저 제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혼·별거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자녀와의 동거자, 양육비 제공자 등이 조사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은 현재 초혼인 부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조사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녀출생에 관한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자녀혼인에 관한 사항이다. 전자는 첫째와 막내 아의 생년월일과 현재 연령, 이들 자녀의 성별에 관한 것이며, 후자는 부인이 출산한 자녀의 첫 결혼과 마지막 결혼에 대한 것으로 혼인자녀와 미혼자녀를 파악하였다. 특히 후자는 자녀의 첫 결혼과 마지막 결혼 당시의 자녀연령과 모(母)의 연령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은 조사표 제3장의 내용으로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는 크게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임신·출산 및 입양관련 사항, 가족계획실태, 난임실태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는 자녀의 필요성, 이상자녀 수, 아들 필요성 및 필요이유 등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을 파악한다. 이 부분은 부인 부재시에 남편이 응답 가능토록 하였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토록 하였다.

둘째, 본 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신·출산 및 입양관련 사항은

현존자녀수, 총 임신 횟수, 임신소모(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횟수를 파악한다. 특히, 임신소모 중 가장 관심있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심층적으로 조사항목화 하고 있다. 또한 현 임신여부 및 출산계획, 향후 출산계획,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향후 출산의향, 입양을 고려한 경험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인의 체중 및 신장, 남편의 흡연 여부를 추가하였는데, 분석과정에서 독립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의미있는 변수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가족계획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임실천 및 비실천에 대한 항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영역은 15~44세 유배우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조사자료와 시계열적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조사문항으로는 피임실천여부 및 목적, 피임수용방법 및 이유, 피임방법의 만족여부, 현 피임방법의 계속사용여부 및 원하는 변경방법, 현 피임방법의 사용시기, 비용부담 또는 구입처, 과거 사용한 피임방법 및 중단이유, 피임무경험 이유 및 향후 계획 등이다.

마지막으로 난임실태 및 치료 부분은 최근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므로 난임부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으로 과거조사보다 더 구체화하였다. 조사대상은 현재 피임 중단 및 피임경험이 없는 부인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난임경험 여부, 양방병원에서의 난임진단 여부, 난임의 원인, 난임치료 여부, 치료기관, 치료중단 및 미치료 이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인지도, 도움여부, 난임 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 프로그램 운영기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개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이는 조사표 제4장의 내용으로 15~49세 기혼여성 중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 중 최종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으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최종아에 대한 산전진찰 여부 및 횟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 모유수유 교육 및 수강 경험 및 기관, 교육 및 수강의 도움 여부, 분만장소, 분만형태, 제왕절개 권유자 및 이유, 최종 출생아의 임신기간, 출생시 아기 체중, 출생시 아기 신장, 저체중아 여부 및 이유, 미숙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인지도, 인지경로, 의료비 수혜 여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여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여부 및 검사 종류, 출생 1주 내 의료기관 이송 여부, 임신초기 체중조절(다이어트) 여부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최종출생아의 산후진찰 여부, 산후 조리원 이용 여부, 모자동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 모유수유 교육 경험, 출산후 6개월간 취업 여부 및 근무시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수유에 관한 사항은 모유수유 여부, 모유수유 중단시기, 향후 모유수유 계속 여부, 모유수유 않은 이유, 모유수유 중단이유, 모유수유 지원정책, 조제분유 정보획득 경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이는 조사표 제5장의 내용으로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역할, 가족관계, 동거 및 비동거 가족지원, 가족생활의 질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가족역할은 부부의 가사분담, 주요 가사활동의 분담 형태, 요일별 가사분담 비율, 자녀양육에 관한 주요 활동의 분담형태, 요일별 자녀양육활동 비율, 부부간 의사결정, 양성평등에 대한 의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족관계는 부인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배우자로서의 남편, 남편과의 관계, 아버지로서의 남편, 사위로서의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조사되었고, 동일한 방식에 의해 남편대상으로 결혼생활, 배우자로서의 아내, 아내와의 관계, 어머니로서의 아내, 며느리로서의 아내에 대한 만족도가 조사되었다.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지 여부, 자녀만족도에 대한 내용으로 4문항,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15개 문항이 조사되었다. 특히, 자녀만족도와 가족관계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동거 및 비동거 가족지원은 생존하고 계신 양가 부모 모두와의 지원을 파악하였다. 먼저 비동거 양가부모와의 접촉빈도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직접접촉과 전화, 편지, 전자메일 등에 의한 간접접촉으로 구분하였다. 지원은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현금지원, 현물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는데, 현금지원은 정기적 지원과 비정기적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현물지원은 여가(여행 및 관광),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서비스는 간병, 집안일, 자녀돌봄,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생활의 질은 가정행복의 조건, 1년 전 대비 가족생활의 변화, 나빠진 경우의 이유, 9개 가정생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가족생활 만족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만족도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5) 기혼부인의 취업에 관한 사항

이는 조사표 제6장의 내용으로 15~6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

되었다. 취업에 관한 사항은 부인의 결혼 직전·후, 첫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초교 입학 전·후 등에 관한 사항과 부인과 남편의 현재 취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먼저 부인의 결혼 직전·후, 첫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초교 입학 전·후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단계마다의 취업여부, 동일직장 여부, 중단 및 전직이유 등이다. 이는 여성들이 결혼과 첫 자녀 출산, 막내 자녀 출산, 막내 자녀 초교 입학 등의 주요 생애주기를 전·후하여 직장을 그만 두거나 전직하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취업에 관한 내용으로는 부부의 취업여부, 주당 평균근무시간, 지난 3개월 월평균 근로소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을 하고 있는 부인에게는 일을 하는 이유, 일에 대한 만족도,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 일의 계속 여부 등이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부인에게는 향후 취업의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자녀수와 직장형태’를 주요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본 조사에서 취업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출산의 장애요인이 취업이거나 취업의 장애요인이 출산이기 때문이다. 즉, 기혼여성의 취업은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본 조사 문항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6) 자녀양육 및 결혼비용에 관한 사항

이는 조사표 제7장의 내용으로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양육 및 결혼비용에 관한 사항은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자녀양육 비용, 본인 및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 견해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과 자녀양육의 책임 한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은 자녀양육 비용으로 가구 내에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와 18세 이상이라도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출되는 양육비를 조사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자녀 사교육비 등 과도한 자녀양육비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소자녀관이 정착되어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효하며, 구체적으로 자녀 개인에게 지출되는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관련 비용, 보충교육비(사교육비) 및 관련 비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인 및 자녀의 결혼비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가구주 부부나 자녀·손자녀 등 동거가족 중 결혼한 경우의 결혼비용을 파악한 것이다. 결혼연도, 결혼당사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성, 결혼당시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 일반적 사항과 함께 결혼비용이 파악되었다. 아울러 지출된 결혼비용을 가구 경제능력과 비교하여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이 무엇인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7) 출산정책 및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이는 조사표 제8장의 내용으로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출산정책은 출생이수 감소의 문제적 시각 여부, 소자녀 행태에 대한 일반적 의견, 저출산 해소정책으로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의견, 국가 및 직장에서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의 기대수준, 양육의 바람직한 여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족정책으로는 비혼 및 만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혼인장려의 우선 시책, 국제결혼에 대한 의견,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족을 위한 우선시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조사표 개발 및 조사대상, 현지조사 준비 및 실시, 조사자료 처리 및 분석, 자문회의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의 연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행연구 분석

전체 조사문항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임신, 출산, 피임, 난임, 모자보건, 자녀양육, 결혼비용, 가족복지 등의 선행연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조사의 주요 항목에 대한 최근 정책동향을 파악하였다.

나. 조사표 개발 및 조사대상

본 조사를 위한 조사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이 개발하였다. 시계열 조사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책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조사문항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가구조사의 응답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였다. 여기서 가구의 개념은 ‘가족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사실상의 가구주’로 정의하였으며, 서류상의 가구주, 세대주 또는 호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

사팀이 조사지역에 머무르는 며칠 동안(보통 2~3일) 가구주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생활을 잘 파악하고 있고 가구내의 모든 가구원의 개인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가구원을 응답자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구조사는 조사지역 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노인가구, 미혼가구 등 포함). 개인조사는 조사문항(조사표의 장)에 따라 15~64세 기혼가구와 15~49세 기혼가구로 구분된다. 가구조사의 응답자는 가구주나 그 배우자이고, 기혼여성 조사의 응답자는 기혼여성 당사자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부록 조사표에 제시된다.

가구 내 기혼여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기혼여성을 만날 수 없어 개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편, 가구 내 다른 기혼여성, 성인자녀 등을 대리응답자로 하여 가능한 조사를 완료토록 하였다.⁵⁾ 그렇지만 가치관에 관한 조사문항과 본인이 직접 응답하여야 하는 문항이고 대리응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구방문 시 기혼여성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특성을 별도로 기재토록 하였다.

다. 현지조사 준비 및 실시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연구원 자체조사와 외부 전문조사업체에 위탁으로 이원화 되었다. 전체 360개 조사지역 중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한 조사지역은 182개(50.6%)이며, 나머지 178개(49.4%)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였다.

5) 극히 일부가구에서 발생하였으며, 남편 또는 시어머니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대리응답자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 넘으로써 조사불가 또는 무응답을 최대한 감소되도록 노력하였다.

1) 조사원 모집, 교육, 팀 구성 등

가) 연구원 자체 조사

조사원 모집, 교육훈련, 조사팀 구성 등 일체의 업무는 당원의 ‘조사패널팀’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당원에서는 많은 전문조사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들 인력이 대부분 참여하였으며, 일부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 조사원 모집이 이루어졌다.

부족한 조사원 모집은 당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공고와 종전에 수차례 연구원의 조사를 수행해 온 조사원을 대상으로 개별통보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최종 조사원 명단은 조사패널팀과 연구진에 의하여 검토되었고, 56명이 최종 확정되었다. 현지 조사를 위해 14개 조사팀(지도원 14명, 조사원 42명)이 구성되었다. 다만, 제주지역은 현지 조사원 2명을 포함하였다.

조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당 연구원 대강당에서 당 연구진에 의해 2일간 실시되었다. 조사원 교육훈련을 위해 개발된 조사표, 조사지침서, 양·음력 환산표, 가구명부, 조사지역 요도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조사표와 함께 현지조사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은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조사에서도 많은 유사한 경험을 하였지만 특히 조사팀을 4명으로 구성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한 조사지역은 약 50가구이기 때문에 1명의 조사원이 하루에 약 4~5가구를 완료한다고 예상할 때 조사팀을 4명으로 할 경우 한 지역을 완료하는 데는 약 3일 정도 소요된다. 이 기일은 한 조사지역의 구조와 특징을 익히고 조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가구원이 부재중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사원은 몇 차례까지도 재방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 조사지역에 최소한 4일 정도는 체류를 하여야 조사미완율을 낮추고 조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둘째, 본 조사는 약 18,000가구가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여건에서 조사기간이 2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부득이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이외 지방에서의 조사기간도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조사원의 이동, 숙박 등을 고려할 때 조사팀당 4명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각 조사팀의 인원이 소수일 경우 많은 지도원이 필요하며 실제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늘어나야 하고, 따라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넷째, 본 조사에서는 조사표의 오류를 해당 조사지역에서 수정·보완하여야 하므로 지도원과 조사원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지도원이 조사 완료된 조사표를 해당지역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사원 3명이 가장 적당한 규모이다.

나) 외부 전문조사업체에 의한 조사

외부에 의뢰된 조사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및 부산(인접지역 일부 포함) 지역이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 국한한 것은 서울 본사와 대도시에 지사를 둔 우리나라 전문조사업체의 특성을 최대한 배려한 것이다. 공개입찰 절차에 의해 두 개 업체가 응모하였으며, 참가업체의 발표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마케팅리서치’사가 선정되었다.

외부 전문조사업체의 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서울과 대전에서 당원의

연구진 및 조사패널팀 관계자에 의해 직접 수행되었다. 서울교육에는 수도권 조사관계자가 참여하였고, 대전교육에는 대전 및 부산 조사관계자가 참여하였다.

교육대상은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자료 입력, 오류체크, 자료분석 등을 실제로 수행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원의 모집 및 팀 구성은 전문조사업체의 판단에 의하였다.

2)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직접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로 구분되었으며, 연구진에 의하여 표본추출된 조사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현지조사는 약 100일간 진행되었다. 연구원 자체조사는 2012. 4. 23~ 2012. 6. 14까지, 전문조사업체 조사는 2012. 5. 30~2012. 7. 30까지 이루어졌다.

조사의 초기단계에서는 연구진에 의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기 설정된 조사지역의 확인 및 조사지역 내 가구의 증감 상태 등은 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점적 확인사항이었다. 또한 지도원과 조사원의 원만한 관계, 조사팀과 조사지역 행정기관 및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요청이 이루어졌다. 모든 조사지역에는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 공문이 시군구 및 읍면동을 통하여 하달되었으며, 공문에는 조사지역, 조사기간, 협조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외부 전문조사업체의 조사품질은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되었다. 즉, 당원과 전문조사업체 간에 맺은 계약서에 ‘조사업체 주의사항’으

로 포함된 조사품질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제안한 사항 일체 및 명시된 조사 수행 과정을 준수해야 함.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연구진에 의하여 2일간 실시되며, 장소, 비용 등은 조사업체가 담당한다.
-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 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지역별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휴대폰 번호 포함)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한다(일정 변경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의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
- 조사지역별 오류(2부 이상) 및 부적절한 조사수행(1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지역의 전체 완료 조사표는 폐기하고,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경비를 전액 변상 또는 재조사 중 연구진의 선택에 응해야 한다.
- 조사진행 사항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연구진에 보고한다(조사지역, 대상가구, 완료가구, 완료율).
- 특이사항 발생 시 연구진과 협의한다.

실제로 전체 조사실시 과정에서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품질관리를 실시하였다. 외부 전문조사업체의 178개 조사지역 중 연구진의 현장검수 후 완료조사표가 전량 폐기된 조사지역은 4개 지역이었고, 연구진의 의심 요청에 의하여 전문조사업체의 자체 현장검수 후 완료조사표가 전량 폐기된 조사지역은 5개 지역이었다. 이들 폐기된 9개 조사지역은 예비로 확보되어 있던 다른 조사지역으로 대체되었다.

라. 조사자료 처리 및 분석

조사완료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현지에서 지도원에 의해 오류수정을 하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는 완벽한 작업을 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완료한 후 일부 지도원과 조사원에 의하여 약 2개월간 오류수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인력은 모두 조사에 참여한 지도원과 조사원으로 구성되었다. 오류수정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본 조사를 실제로 실시한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동 작업은 사전에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부호화 지침서』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특히 작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1일간의 사전교육이 실시되었다.

오류수정 작업이 완료된 조사자료는 입력요원에 의하여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종전과 달리 동 작업은 외부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되지 않고 연구진이 숙련된 입력요원을 채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아 외부에서 이를 수행한 경우 입력과정에서의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 전산화된 자료의 오류수정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전산화된 조사자료는 연구진에 의해 정확도가 검증되었고, 전산화된 자료의 정확한 수정을 위해 전 연구진과 7명의 전문 자료정리요원이 투입되었다.

이어서 자료분석을 위한 파일이 재구성되었고, 연구진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이 주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패키지 프로그램이었다.

마. 자문회의 및 전문가 토론회

조사표 개발, 조사자료 분석, 연구결과의 논의 및 정책제안 등을 위하

여 자문회의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에는 관련 학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였다.

제3절 표본설계 개요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목적에 따라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주어진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적정 표본수를 산정하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층화 한 다음, 조사구 특성에 따라 정렬한 후 표본조사구를 추출하도록 하였다.

1. 모집단 층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를 지역특성에 따라 3개의 층으로 분류하였다.

- 7대 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동부)
- 기타 시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의 동부)
- 읍·면지역(그 외 읍·면지역)

한편 조사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유형별 특성을 분류지표로 활용하였다.

- 일반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

따라서 모집단조사구를 행정구역별로 정렬한 후 이를 기준으로 3개 층으로 층화하고, 주거형태에 따라 재정렬하여 지역별로 표본조사구가 편향되지 않도록 하고, 층화 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2. 모집단 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역별로 15~49세 가임기여성의 인구수 분포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이 전체 가임기 여성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가임기 여성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을 배분할 경우 서울 및 경기 지역이 표본의 대다수가 배분될 우려가 있다.

〈표 1-1〉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지역별 가임기 여성인구

(단위: 명)

지역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서울	1,556,359	1,233,203	2,789,562	-	-	-
부산	377,822	476,196	854,018	7,457	14,714	22,171
대구	265,781	344,581	610,362	10,976	32,570	43,546
인천	303,090	428,237	731,327	7,123	1,654	8,777
광주	114,489	290,483	404,972	-	-	-
대전	161,902	249,087	410,989	-	-	-
울산	95,995	148,850	244,845	14,589	31,662	46,251
경기	1,007,408	1,677,076	2,684,484	198,717	256,229	454,946
강원	76,218	152,365	228,583	63,519	34,365	97,884
충북	89,332	162,931	252,263	58,197	49,077	107,274
충남	68,763	153,448	222,211	119,204	108,653	227,857
전북	95,828	231,407	327,235	54,744	18,591	73,335
전남	56,689	146,885	203,574	85,923	49,030	134,953
경북	146,964	215,007	361,971	123,427	84,513	207,940
경남	207,141	334,629	541,770	100,146	121,872	222,018
제주	74,585	30,750	105,335	23,229	1,206	24,435
계	4,698,366	6,275,135	10,973,501	867,251	804,136	1,671,387

따라서 층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국적인 출산력을 추정하기위해 앞에서 고려한 3개 지역별 층과 조사구 유형에 따라 2개의 분류지표를 적용하여 총 6개의 층으

로 모집단을 층화하여 각 층별 조사구 분포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90% 조사구의 층별 규모

(단위: 개)

층 분류	모집단	
	조사구수	가구수
1. 7대 시 일반	74,823	4,272,936
2. 기타시 일반	51,224	2,881,060
3. 읍·면 일반	43,169	2,309,268
4. 7대 시 아파트	59,820	3,607,375
5. 기타시 아파트	57,424	3,456,383
6. 읍·면 아파트	16,733	930,444
전 체	303,193	17,457,466

3. 표본 규모

먼저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고려하고, 표본 조사구내에서 약 50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할 경우 총 18,000가구의 표본수가 결정된다. 이는 가구수 기준으로 95% 신뢰수준 하에서 0.75%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수준이다.

$$n = \frac{N \sum_{h=1}^L N_h P_h Q_h}{NV' + \sum_{h=1}^L N_h P_h Q_h}$$

여기서 P_h 는 h 층의 가임기 여성의 출현율이고, V' 은 목표 오차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층별로 허용오차를 계산하면 읍면 일반 층이 2.7%로 가장 크고, 7대시 아파트 층이 1.4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4. 표본 배분

조사구 또는 가구수에 따라 표본을 비례 배분할 경우 읍·면지역의 표본규모가 과소 표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임여성의 규모에 따라 표본조사구를 배분하였다. 앞의 <표 1-2>로부터 6개 층별 조사구수의 분포를 파악한 결과 읍·면지역의 아파트 조사구를 제외하고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해진 표본규모에 따라 각 층별로 조사구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층별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표본가구수를 기준으로 조사구당 50가구를 조사완료할 경우 총표본 조사구수는 360개이며, 표본가구수는 18,000가구이다.

<표 1-3> 16개 시도 및 동부 읍·면부 표본배분 결과

(단위: 개)

지역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6	20	0	0	46
부산	11	14	0	1	26
대구	9	12	1	1	23
인천	10	14	0	0	24
광주	5	13	0	0	18
대전	7	11	0	0	18
울산	5	8	1	1	15
경기	16	26	3	4	49
강원	4	7	3	2	16
충북	4	8	3	2	17
충남	3	6	5	5	19
전북	4	11	2	1	18
전남	3	7	4	2	16
경북	5	8	5	3	21
경남	6	11	3	4	24
제주	6	2	2	0	10
계	124	178	32	26	360

〈표 1-4〉 층별 표본 배분결과

(단위 : 개, 가구, %)

층 구분	조사구 추출확률	표본 조사구수	조사대상 가구수	층별 목표오차
1. 7대시 일반	0.0009756	73	3,650	1.66
2. 기타시 일반	0.0009956	51	2,550	1.98
3. 읍·면 일반	0.0007413	32	1,600	2.50
4. 7대 시 아파트	0.001538	92	4,600	1.47
5. 기타시 아파트	0.0014977	86	4,300	1.52
6. 읍·면 아파트	0.0015538	26	1,300	2.77
전 체	0.0011874	360	18,000	0.75

5. 표본가구의 선정

각 층별 표본조사구수는 지역별로 만 15~49세의 출산가능인구수의 제곱근 비례 배분하여 읍·면 지역의 가임여성가구가 과소 표집 되지 않도록 하였다. 각 층에서의 표본조사구 추출은 층별 가임여성의 수를 크기 측도로 고려하여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중에서 조사구의 가구수가 적은 조사구는 인접 조사구에서 표본가구를 추가하였다. 즉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가구 수가 45가구 미만인 표본 조사구는 인접한 조사구에서 5가구를 추가하여 조사 대상가구를 50가구가 되도록 하며 50가구 이상일 경우는 거처번호 순으로 하여 50가구 이후 거처에 속하는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에서 제외하였다.

6. 무응답 대체

표본조사구내에서 무응답이 발생할 경우 거처번호가 51번째 이후 가구를 순서대로 대체하며, 해당 조사구에 무응답 가구를 대체할 수 없을

경우 인접조사구에서 5가구까지만 대체를 허용하였다.

한편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가 재개발, 천재지변에 의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층 내에서 예비조사구(표본조사구의 20%)로 대체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7. 가중치 조정 및 추정

가임기 여성의 총 인구수 및 가구의 평균 가임이 여성수 등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복합표본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추출단위들의 추출확률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불균등 확률 추출의 경우 추정치의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가중치 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를 산출하고, 가중표본합계치를 사용하여 평균, 구성비 등의 통계치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정 가중치는 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 각 조사 미완률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사후층화(Post Stratification)조정을 수행하여 추정치의 편향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추출틀의 노후화로 인해 2012년 현재 가임기 여성의 층별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2년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사후조정하도록 하였다.

가구조사 결과에서 어떤 특성 y 를 갖는 가구수 및 인구수에 대한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가구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필요한 기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N : 모집단 총 조사구수($=\sum_h N_h$)
- N_h : h 층의 모집단 조사구수
- n_h : h 층의 표본조사구 수
- M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수

- m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내 표본 가구수(=50)
 p_{hij} : h 층의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확률
 r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응답가구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가중치
 w_{hi}^r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무응답조정가중치
 w_{hij}^p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사후가중치
 W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최종가중치

① h 층의 j 번째 조사구의 i 번째 가구의 추출확률 계산

$$p_{hij} = \frac{n_h}{N_h} \times \frac{m_{hi}}{M_{hi}} \quad (1)$$

② 가중치는 추출확률의 역수이므로 식(1)로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표본조사구내 표본가구수는 조사구별로 동일하게 50가구씩 조사함으로 $m_{hi} = 50$ 을 대입하여 구한다.

$$w_{hij} = \frac{1}{p_{hij}} = \frac{N_h}{n_h m_{hi}} \times M_{hi} = \frac{N_h}{50 n_h} \times M_{hi}$$

③ 무응답 조정가중치

$$w_{hi}^r = \frac{m_{hi}}{r_{hi}}$$

④ 최종 가중치

$$W_{hij} = w_{hij} \times w_{hi}^r \times w_{hij}^p$$

⑤ 전국 가구의 평균 산출

$$\hat{Y} = \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 / W_{\dots}$$

여기서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로서 표본가구들의 가중치의 총계이다.

⑥ 분산과 표준오차

$$\hat{V}(\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Y}) \right) / W_{...}$,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SE(\hat{Y}) = \sqrt{\hat{V}(\hat{Y})}$$

⑦ 상대표준오차

$$\widehat{CV}(\hat{Y}) = \frac{SE(\hat{Y})}{\hat{Y}} \times 100\%$$

제4절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통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사항 응답부인 및 남편의 특성, 결혼양상, 가족정책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분석은 전체 가구 또는 15~64세 기혼가구이다.

둘째, 본 조사에서 개인조사는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임신·출산·폐임, 모자보건에 관한 분석은 15~44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출생아에 대한 사항은 출산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파악하였다.

셋째, 지역별 구분을 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 아닌 동부와 읍·면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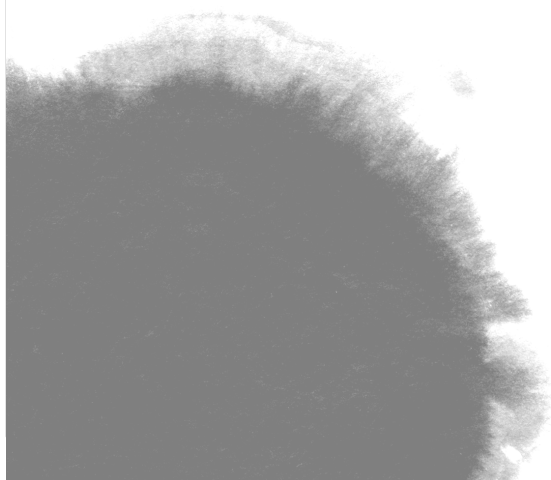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1996년에 시행된 전국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부는 도시지역으로, 읍·면부는 농촌지역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넷째,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유배우 출산율, 그리고 인공임신중절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국의 결과만을 게재하고 지역별, 즉,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1996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동부지역(도시)은 확대되고, 읍·면부지역(농촌)은 더욱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조사는 표본조사인 관계로 읍·면부지역의 응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출생아 한 명 또는 인공임신중절 한 건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통계결과의 제시로 이해를 잘못할 수 있는 지표는 전국 통계치만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각 통계표에는 ‘무응답’ 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응답자의 특성에서 제시된 수(數)와 각 통계표의 응답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응답자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2장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주의 제 특성



제2장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주의 제 특성

제1 절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주의 일반특성

‘가구’와 ‘가구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본 조사 내용의 이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본 조사의 단위인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정의된다. 가구는 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와 다르고 동거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혈연관계만 포함하는 ‘가족’과도 차이가 있다(통계청, 2010). 따라서 본 조사의 단위인 ‘가구’에는 동거가족 뿐 아니라 비가족원도 가구에 포함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가구주를 “조사대상 가구를 대표하여 가구원의 경제적 부양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가구주의 정의인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응답자가 가구주라고 인정하는 사람”(통계청, 2010)과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통계청 2000; 김승권 외 2004. 재인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조사대상 가구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완료가구의 지역별 분포는 동부(도시) 지역 83.5%, 읍·면부(농·어

춘) 지역 16.5%이었다. 가구원 수는 1~2인 50.8%, 3~4인이 42.1%이었고, 5인 이상 7.2%이었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단위로 약 11~19%를 보였는데, 500만원 이상이 1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0~300만원 미만 19.4%이었다. 가구원 수를 적용한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별 총 소득을 의미하는 욕구소득비에 의해 조사대상가구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의 2~3배 미만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생계비 미만은 12.3%이었다.

〈표 2-1〉 조사완료가구의 특성

(단위: %, 가구)

특성	전체	동부	읍·면부
지역			
동부	83.5	-	-
읍·면부	16.5	-	-
가구원 수			
1인	25.3	23.8	32.6
2인	25.5	24.3	31.4
3~4인	42.1	44.6	29.4
5인 이상	7.2	7.3	6.6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5.9	13.5	27.9
100~200 미만	18.2	17.6	21.3
200~300 미만	19.4	19.3	19.5
300~400 미만	15.5	16.1	12.6
400~500 미만	11.2	11.6	9.0
500 이상	19.8	21.8	9.7
욕구소득비			
1 미만	12.3	10.5	21.7
1~2 미만	23.5	22.4	29.2
2~3 미만	26.5	27.3	22.9
3~4 미만	17.7	18.5	13.7
4 이상	20.0	21.5	12.4
계(수)	100.0(14,970)	100.0(12,501)	100.0(2,469)

주: 1) 가구소득 무응답은 123명이며, 가구소득이 무응답인 경우 욕구소득비는 무응답임; 2) 욕구소득비는 가구원 수를 적용한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별 총 소득을 의미하며, 1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최저생계비를 의미하며, 1보다 낮으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이고, 1보다 크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임. 본 자료는 2012년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것임.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남성가구는 79.5%로 여성가구 20.5%의 약 4배가 많았다. 가구 연령은 전체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60세 이상자가 2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 50대, 30대의 순이었다. 가구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비율이 6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미혼 13.9%, 사별 12.5%, 이혼·별거 8.0%의 순이었다.

〈표 2-2〉 조사완료가구의 가구 특성

(단위: %, 명)

특성	전체	동부	읍·면부
성			
남자	79.5	80.2	75.8
여자	20.5	19.8	24.2
연령			
15~29세	7.7	8.1	5.5
30~39세	18.3	18.9	15.1
40~49세	24.5	25.6	18.9
50~59세	23.0	23.8	19.3
60세 이상	26.5	23.6	41.2
혼인상태			
유배우	65.6	66.5	61.0
사별	12.5	10.6	21.6
이혼·별거	8.0	8.4	6.2
미혼	13.9	14.5	11.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2	21.3	45.2
고등학교	35.8	35.9	35.3
대학 이상	39.0	42.8	19.5
취업여부			
취업	75.6	76.0	73.8
비취업	24.4	24.0	26.2
계(수)	100.0(14,970)	100.0(12,501)	100.0(2,469)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35.8%이었으며, 중학교 이하 학력자는 25.2%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의 가구주가 있는 것은 60세 이상 가구주와 미혼가구주가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주의 취업률은 75.6%이었으며, 비취업 가구주도 24.4%나 있었다. 가구원 중에서 실제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가구주로 정의하고 있는 본 조사의 특성상 비취업 가구주가 있다는 것은 생계어려움의 가구가 다소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일부는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의 지원에 의하여 생활하는 미혼의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2절 조사원료가구의 경제적 특성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 가구 및 가구주별 경제사회적 특성을 살펴본다. 경제사회적 특성은 소득, 소비, 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경제실태와 거주 형태와 주택소유 여부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응답가구의 소득 및 소비실태

가. 소득실태

조사원료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17.3만원이었다. 가구소득은 동부 지역 거주가구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보다 월평균 약 100만원이 많았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았으며, 가구원 수를 고려한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음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표 2-3〉 조사완료가구의 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단위: %, 명, 만원)

특성	가구소득(만원)							월평균
	100만원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계(수)	
전체	15.9	18.2	19.4	15.5	11.2	19.8	100.0(14,846)	317.3
지역								
동부	13.5	17.6	19.3	16.1	11.6	21.8	100.0(12,380)	333.9
읍·면부	27.9	21.3	19.5	12.6	9.0	9.7	100.0(2,466)	233.9
가구원 수								
1인	43.2	31.4	17.6	4.9	1.9	1.1	100.0(3,757)	134.2
2인	17.1	26.9	22.7	14.8	6.6	11.9	100.0(3,783)	257.6
3~4인	1.4	7.6	19.2	21.7	17.9	32.2	100.0(6,239)	433.3
5인 이상	0.7	3.1	14.5	19.6	21.1	41.1	100.0(1,068)	494.8
육구소득비								
1 미만	91.6	8.0	0.3	-	-	-	100.0(1,830)	55.1
1~2 미만	19.6	47.4	27.7	4.8	0.6	-	100.0(3,490)	159.8
2~3 미만	-	16.7	30.8	33.0	15.9	3.5	100.0(3,937)	291.1
3~4 미만	-	9.4	17.0	23.8	25.7	24.1	100.0(2,626)	377.7
4 이상	-	-	8.1	7.4	11.5	73.0	100.0(2,964)	645.6

자료: 본 조사결과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약 2.3배 많았다. 40대 연령층 가구주의 가구소득이 월평균 421.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는 상대적으로 60세 이상 연령층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172.6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15~29세 연령층 가구주의 가구소득도 월평균 198.2만원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는 취업 여부 및 근속기간이 가구주 연령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39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별거 및 미혼 가구의 소득은 모두 월평균 180만원대였으며, 사별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23.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았는데, 대학 이상자가 중학교 이하자보다 가구소득이 약 2.7배 많았다. 가구주가 취업 중인 경우의 가구소득은 374.7만원이었고, 비취업 상태인 경우는 137.7만원에 불

과하여 가구주의 취업여부가 가구소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2-4〉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단위: %, 명, 만원)

특성	가구소득(만원)							월평균
	100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계(수)	
성								
남자	9.2	15.3	19.8	17.9	13.5	24.2	100.0(11,806)	359.6
여자	41.7	29.5	17.6	6.2	2.2	2.7	100.0(3,041)	153.0
연령								
15~29세	18.1	36.1	27.5	10.3	4.8	3.1	100.0(1,137)	198.2
30~39세	3.2	12.4	28.3	22.0	14.0	20.1	100.0(2,710)	350.8
40~49세	3.5	10.1	16.6	20.8	17.9	31.1	100.0(3,650)	421.2
50~59세	7.2	16.6	19.3	15.3	12.8	28.7	100.0(3,412)	386.2
60세 이상	43.0	26.0	13.5	8.0	3.4	6.1	100.0(3,938)	172.6
혼인상태								
유배우	6.1	11.3	18.5	19.8	15.5	28.9	100.0(9,734)	399.0
사별	59.8	20.6	10.2	4.3	2.4	2.6	100.0(1,853)	123.3
이혼·별거	21.9	40.4	21.8	10.0	3.5	2.4	100.0(1,199)	181.2
미혼	19.2	36.0	30.4	8.9	3.4	2.1	100.0(2,060)	185.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4.0	25.6	14.6	8.1	3.8	3.9	100.0(3,751)	159.3
고등학교	7.3	20.7	25.7	18.5	12.6	15.1	100.0(5,340)	305.8
대학 이상	5.6	11.1	16.5	17.7	14.6	34.5	100.0(5,756)	430.8
취업여부								
취업	4.6	15.9	21.7	18.7	14.1	25.0	100.0(11,248)	374.7
비취업	51.3	25.5	11.9	5.6	2.1	3.6	100.0(3,600)	137.7

자료: 본 조사결과

나. 가구소비 실태

조사완료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비는 250.7만원이었다. 가구소비는 동부 지역 거주가구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보다 월평균 약 70만원 많았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비가 많았으며,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가구소비가 많았다.

〈표 2-5〉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비 분포

(단위: %, 명, 만원)

특성	가구소비(만원)							월평균
	100만원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계(수)	
전체	17.8	25.2	21.9	16.7	9.3	9.1	100.0(14,840)	250.7
지역								
동부	15.1	25.0	22.4	17.3	10.0	10.2	100.0(12,380)	262.6
읍·면부	31.1	26.4	19.4	13.7	5.9	3.5	100.0(2,460)	190.7
가구원 수								
1인	50.4	39.7	7.9	1.3	0.5	0.3	100.0(3,760)	104.3
2인	17.7	39.9	23.6	10.6	4.0	4.2	100.0(3,778)	198.3
3~4인	1.1	11.3	29.9	27.5	15.2	15.0	100.0(6,236)	343.7
5인 이상	0.2	3.7	18.3	29.3	25.3	23.2	100.0(1,067)	408.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92.9	5.5	0.8	0.6	0.1	0.1	100.0(2,353)	65.0
100~200 미만	14.0	82.1	3.2	0.5	0.1	0.1	100.0(2,698)	128.0
200~300 미만	2.3	38.9	55.3	3.0	0.4	0.1	100.0(2,861)	197.9
300~400 미만	0.0	8.6	47.4	41.0	2.5	0.5	100.0(2,299)	274.9
400~500 미만	-	3.1	19.6	49.9	25.5	1.9	100.0(1,656)	339.3
500 이상	0.0	1.1	4.5	19.8	30.3	44.2	100.0(2,925)	494.2
욕구소득비								
1 미만	84.2	12.6	1.9	0.8	0.3	0.2	100.0(1,820)	69.8
1~2 미만	24.6	45.4	23.8	5.0	1.0	0.2	100.0(3,472)	155.2
2~3 미만	3.9	25.8	35.1	26.3	7.4	1.5	100.0(3,928)	249.4
3~4 미만	2.5	24.2	21.7	26.0	18.6	6.9	100.0(2,619)	292.4
4 이상	0.9	9.6	14.3	19.0	19.1	37.1	100.0(2,953)	437.0

자료: 본 조사결과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보다 월평균 가구소비가 약 2.3배 많았다. 40대 연령층 가구주의 가구소비가 월평균 345.5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에 60세 이상 연령층 가구주의 가구소비는 월평균 137.9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15~29세 연령층 가구주의 가구소비도 월평균 144.1만원으로 적은 편이었다.

〈표 2-6〉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비 분포

(단위: %, 명, 만원)

특성	가구소비(만원)							월평균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 이상	계(수)	
성								
남자	10.3	22.5	24.6	20.1	11.4	11.2	100.0(11,796)	283.1
여자	46.8	35.9	11.4	3.5	1.5	0.9	100.0(3,044)	125.0
연령								
15~29세	26.6	51.4	16.2	4.1	1.2	0.4	100.0(1,139)	144.1
30~39세	4.9	25.1	31.4	21.1	11.5	6.0	100.0(2,715)	271.1
40~49세	3.8	13.9	23.0	26.3	16.1	16.9	100.0(3,645)	345.5
50~59세	8.5	22.0	24.5	18.8	11.9	14.3	100.0(3,409)	298.8
60세 이상	45.1	31.0	13.6	6.5	1.7	2.1	100.0(3,933)	137.9
혼인상태								
유배우	6.2	16.6	26.5	23.5	13.6	13.6	100.0(9,725)	315.1
사별	63.1	23.7	8.1	2.8	1.6	0.6	100.0(1,853)	103.4
이혼·별거	25.7	44.5	21.1	6.0	1.6	1.1	100.0(1,195)	159.3
미혼	27.1	56.2	12.8	3.2	0.7	0.1	100.0(2,069)	132.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7.1	30.8	13.5	5.5	2.3	0.8	100.0(3,741)	132.3
고등학교	8.6	28.2	29.4	19.5	8.9	5.4	100.0(5,335)	248.1
대학 이상	7.2	18.8	20.4	21.3	14.3	18.0	100.0(5,766)	329.7
취업여부								
취업	7.3	23.9	25.0	20.3	11.8	11.7	100.0(11,240)	291.0
비취업	50.3	29.6	12.1	5.3	1.7	1.0	100.0(3,600)	124.8

자료: 본 조사결과

조사완료가구의 월평균 저축은 66.5만원이었다. 저축은 동부지역 가구가 월평균 70.9만원으로 읍·면부지역 가구(44.5만원)보다 많았고, 가구원 수, 가구소득, 욕구소득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 수와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와 관련이 있고, 가구소비 후 저축을 할 여지가 이들 가구에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2-7〉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가구저축 분포

(단위: %, 명, 만원)

특성	가구저축(만원)							월평균
	없음	100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 이상	계(수)	
전체	38.3	34.9	17.1	5.7	2.1	2.0	100.0(14,856)	66.5
지역								
동부	37.7	33.6	18.0	6.2	2.3	2.3	100.0(12,388)	70.9
읍·면부	41.4	41.3	12.5	3.1	1.1	0.6	100.0(2,468)	44.5
가구원 수								
1인	52.0	35.0	10.8	1.6	0.5	0.1	100.0(3,765)	31.7
2인	43.0	32.3	16.2	5.4	1.5	1.5	100.0(3,781)	58.2
3~4인	28.3	35.9	21.6	7.8	3.3	3.1	100.0(6,244)	89.0
5인 이상	31.9	37.7	15.4	8.7	2.3	3.8	100.0(1,068)	87.6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2.5	17.5	-	-	-	-	100.0(2,359)	2.1
100~200 미만	55.3	43.2	1.4	-	-	0.1	100.0(2,701)	17.2
200~300 미만	37.1	47.9	14.8	0.2	-	0.0	100.0(2,873)	38.6
300~400 미만	27.2	44.3	25.9	2.3	0.3	-	100.0(2,309)	57.9
400~500 미만	16.9	39.2	33.2	9.6	0.9	0.1	100.0(1,659)	84.8
500 이상	8.7	18.6	31.5	21.5	9.8	10.0	100.0(2,923)	188.6
욕구소득비								
1 미만	86.0	13.9	0.1	-	-	0.1	100.0(1,828)	1.9
1~2 미만	63.0	36.1	0.9	0.0	-	0.0	100.0(3,488)	11.2
2~3 미만	31.6	52.6	14.6	0.9	0.2	0.0	100.0(3,936)	43.4
3~4 미만	15.9	42.5	34.7	6.3	0.5	0.2	100.0(2,624)	81.8
4 이상	8.1	16.3	34.5	21.7	9.7	9.7	100.0(2,949)	189.9

자료: 본 조사결과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평균 가구저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성가구주의 월저축은 75.6만원으로 여성가구주의 저축보다 2배 이상 많았고, 50대 연령층 가구주의 저축이 월평균 85.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배우 가구는 월평균 82.5만원을 저축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3배 이상 월저축액이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주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표 2-8〉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가구저축 분포

(단위: %, 명, 만원)

특성	가구저축 (만원)							월평균
	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 이상	계(수)	
성								
남자	34.3	35.1	18.9	6.8	2.5	2.4	100.0(11,807)	75.6
여자	53.7	34.1	10.0	1.2	0.6	0.4	100.0(3,050)	31.4
연령								
15~29세	37.2	38.2	20.1	3.7	0.4	0.4	100.0(1,137)	54.4
30~39세	25.5	40.7	22.5	6.5	2.8	2.1	100.0(2,710)	80.2
40~49세	31.4	37.4	19.5	6.9	2.7	1.9	100.0(3,644)	76.9
50~59세	34.7	31.7	20.0	7.5	2.6	3.6	100.0(3,423)	85.4
60세 이상	57.0	30.3	7.7	3.0	1.1	1.0	100.0(3,943)	34.7
혼인상태								
유배우	32.1	35.1	19.5	7.6	2.8	2.9	100.0(9,734)	82.5
사별	61.3	29.4	7.5	1.0	0.5	0.3	100.0(1,858)	21.9
이혼·별거	55.9	35.1	7.2	1.3	0.2	0.2	100.0(1,202)	26.5
미혼	36.7	38.5	20.1	3.2	1.2	0.4	100.0(2,064)	54.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4	32.9	8.0	2.0	0.4	0.3	100.0(3,758)	26.7
고등학교	38.0	37.9	15.7	5.4	1.6	1.4	100.0(5,347)	61.3
대학 이상	26.8	33.3	24.3	8.4	3.6	3.6	100.0(5,752)	97.4
취업여부								
취업	28.2	38.7	21.0	7.0	2.6	2.4	100.0(11,241)	81.5
비취업	69.8	22.9	4.9	1.5	0.4	0.6	100.0(3,615)	20.0

자료: 본 조사결과

2. 재산보유실태

조사완료가구의 보유재산은 평균 2억 2,153만원이었다. 보유재산은 동부지역 가구가 읍·면부지역 가구보다 많았고, 가구원 수, 가구소득, 욕구소득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 수와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와 연계되어 있고, 가구저축이 보유재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표 2-9〉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보유재산 분포

(단위: %, 가구, 십만원)

특성	보유 재산							평균
	없음	5,000만 원 미만	5000~ 1억 미만	1억~1억 5천 미만	1억5천~2억 미만	2억 이상	계(수)	
전체	1.2	27.7	14.5	12.4	9.6	34.7	100.0(14,743)	2,215.3
지역								
동부	1.0	25.9	14.1	12.3	9.4	37.3	100.0(12,281)	2,374.2
읍·면부	1.9	36.4	16.7	13.0	10.6	21.4	100.0(2,462)	1,422.3
가구원 수								
1인	3.2	59.7	16.4	8.1	3.8	8.9	100.0(3,705)	699.9
2인	1.0	22.3	15.4	15.1	10.2	36.0	100.0(3,762)	2,465.7
3~4인	0.2	14.6	13.6	13.0	12.4	46.2	100.0(6,212)	2,732.9
5인 이상	0.4	11.7	10.3	14.4	11.2	52.0	100.0(1,063)	3,587.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5.2	55.0	14.8	11.4	4.7	8.9	100.0(2,316)	694.3
100~200 미만	1.3	45.2	17.0	10.7	6.8	19.0	100.0(2,665)	1,163.3
200~300 미만	0.3	36.1	20.5	13.7	9.3	20.1	100.0(2,847)	1,375.5
300~400 미만	0.1	16.3	18.3	17.7	15.4	32.3	100.0(2,283)	1,842.4
400~500 미만	0.1	8.4	13.8	15.4	15.7	46.6	100.0(1,651)	2,674.3
500 이상	0.0	1.7	4.0	7.9	8.3	78.0	100.0(2,908)	5,206.3
욕구소득비								
1 미만	6.0	53.6	15.2	10.4	5.2	9.5	100.0(1,794)	715.6
1~2 미만	1.2	36.9	19.2	14.5	7.8	20.3	100.0(3,441)	1,266.2
2~3 미만	0.3	24.7	15.8	15.0	13.1	31.1	100.0(3,908)	1,855.2
3~4 미만	0.2	23.3	11.7	12.5	12.7	39.5	100.0(2,600)	2,168.8
4 이상	0.1	9.0	9.6	7.7	7.0	66.6	100.0(2,928)	4,731.6

자료: 본 조사결과

보유재산은 남성가구주가 2억 5242만원으로 여성가구주(9,994만원)의 약 2.5배나 많았고, 가구주 연령이 50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유배우가구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특히, 유배우가구와 이혼·별거가구의 보유재산 차이는 약 3.6배나 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가 보유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보유재산 분포

(단위: %, 가구, 십만원)

특성	보유 재산							평균
	없음	5,000만 원 미만	5000~ 1억 미만	1억~1억 5천 미만	1억5천~2 억 미만	2억 이상	계(수)	
성								
남자	0.8	21.8	14.5	12.5	10.5	39.9	100.0(11,757)	2,524.2
여자	2.7	50.6	14.6	12.2	5.9	13.9	100.0(2,986)	999.4
연령								
15~29세	2.2	65.6	18.9	4.1	3.6	5.5	100.0(1,119)	513.2
30~39세	0.4	27.3	20.2	11.5	10.8	29.8	100.0(2,708)	1,605.5
40~49세	0.5	20.6	12.0	14.2	10.5	42.1	100.0(3,609)	2,581.6
50~59세	0.6	21.1	13.1	11.5	11.0	42.7	100.0(3,405)	2,910.1
60세 이상	2.4	29.3	13.0	14.5	8.3	32.5	100.0(3,899)	2,181.4
혼인상태								
유배우	0.4	13.8	13.6	13.6	12.0	46.7	100.0(9,704)	2,923.8
사별	3.9	44.0	15.1	14.7	5.3	17.1	100.0(1,827)	1,159.1
이혼·별거	2.4	52.6	15.9	10.9	7.4	10.9	100.0(1,179)	816.9
미혼	1.8	64.6	17.9	5.7	3.3	6.7	100.0(2,034)	592.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	37.7	16.7	14.3	8.3	20.0	100.0(3,721)	1,290.7
고등학교	0.7	29.3	15.9	14.1	10.3	29.6	100.0(5,290)	1,912.6
대학 이상	0.4	19.6	11.9	9.6	9.7	48.8	100.0(5,729)	3,094.1
취업여부								
취업	0.5	23.9	15.1	12.9	10.3	37.3	100.0(11,180)	2,357.1
비취업	3.4	39.6	12.8	10.8	7.1	26.3	100.0(3,563)	1,770.4

자료: 본 조사결과

3. 부채실태

가. 부채규모

조사완료가구의 가구당 부채는 평균 2,761만원이었다. 부채는 동부지역 가구가 2,931만원으로 읍·면부지역 가구(1,911만원)보다 많았고, 가구원 수, 가구소득, 욕구소득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부채규모 분포

(단위: %, 가구, 십만원)

특성	부채							평균
	없음	5,000만원 미만	5000~1억 미만	1억~1억 5천 미만	1억5천~2억 미만	2억 이상	계(수)	
전체	61.7	21.6	8.2	4.2	0.9	3.4	100.0(14,845)	276.1
지역								
동부	61.8	21.0	8.1	4.3	1.0	3.8	100.0(12,381)	293.1
읍·면부	61.3	24.7	8.3	3.7	0.5	1.4	100.0(2,464)	191.1
가구원 수								
1인	81.7	13.9	2.0	1.3	0.2	0.8	100.0(3,774)	80.8
2인	65.8	19.8	7.2	3.4	0.5	3.3	100.0(3,784)	256.4
3~4인	50.5	26.0	11.6	5.9	1.5	4.5	100.0(6,225)	362.6
5인 이상	41.8	29.6	13.0	7.4	1.3	6.9	100.0(1,064)	533.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3.3	13.5	1.7	0.8	0.1	0.5	100.0(2,356)	64.8
100~200 미만	70.1	21.3	5.2	1.5	0.4	1.4	100.0(2,693)	142.7
200~300 미만	60.8	26.8	6.8	2.8	0.5	2.3	100.0(2,859)	212.6
300~400 미만	51.7	28.6	11.9	4.4	1.1	2.3	100.0(2,286)	268.2
400~500 미만	50.3	26.2	11.5	5.5	1.7	4.8	100.0(1,647)	380.9
500 이상	51.0	15.8	12.7	9.9	2.0	8.6	100.0(2,907)	581.1
욕구소득비								
1 미만	80.4	15.3	2.4	0.9	0.2	1.0	100.0(1,822)	96.8
1~2 미만	64.1	25.2	6.4	2.1	0.5	1.6	100.0(3,471)	175.4
2~3 미만	55.3	26.3	10.0	3.9	1.0	3.6	100.0(3,907)	294.9
3~4 미만	59.4	21.6	10.8	4.9	0.9	2.4	100.0(2,612)	257.8
4 이상	57.3	15.5	9.2	8.5	1.8	7.7	100.0(2,937)	498.7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부채를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득, 소비, 저축이 많은 남성 가구주가 3216만원으로 여성가구주(1009만원)보다 현저히 많았으며, 가구주 연령이 50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배우 가구가, 가구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취업중인 경우에 부채가 많았다. 따라서 부채는 소득이나 저축이 적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보다는 가용자원이 많은 경우 특정한 용도를 위해 부채를 늘리거나 부동산 등 재산증식을 위해 부채가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구입이나 사업 및 자영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표 2-12〉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부채규모 분포

(단위: %, 가구, 십만원)

특성	부채							평균 부채액
	없음	5,000만원 미만	5000~1억 미만	1억~1억 5천 미만	1억5천~ 2억 미만	2억 이상	계(수)	
성								
남자	57.7	22.9	9.4	4.8	1.1	4.0	100.0(11,789)	321.6
여자	77.1	16.6	3.2	1.8	0.2	1.0	100.0(3,058)	100.9
연령								
15~29세	81.0	14.8	2.5	1.0	-	0.7	100.0(1,145)	66.2
30~39세	54.9	26.6	10.5	4.2	1.0	2.8	100.0(2,723)	282.0
40~49세	49.0	26.6	12.0	6.4	1.8	4.2	100.0(3,617)	362.3
50~59세	57.2	23.1	8.4	5.6	0.9	4.8	100.0(3,416)	373.2
60세 이상	76.3	14.3	4.4	1.9	0.4	2.7	100.0(3,945)	170.9
혼인상태								
유배우	53.4	24.3	10.8	5.5	1.3	4.7	100.0(9,717)	366.6
사별	81.1	13.0	3.2	1.6	0.3	0.9	100.0(1,862)	89.6
이혼·별거	61.0	29.3	4.7	2.7	0.3	1.9	100.0(1,191)	180.7
미혼	83.4	12.2	2.2	1.3	0.3	0.7	100.0(2,074)	74.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2.8	19.9	4.1	1.7	0.4	1.0	100.0(3,756)	116.6
고등학교	58.1	25.9	8.8	3.4	0.6	3.2	100.0(5,316)	270.2
대학 이상	57.7	18.8	10.2	6.6	1.6	5.1	100.0(5,771)	385.2
취업여부								
취업	56.2	24.2	9.6	4.9	1.2	3.9	100.0(11,224)	317.0
비취업	78.7	13.5	3.7	2.0	0.2	1.9	100.0(3,623)	149.4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나. 부채의 원인

조사완료가구의 평균 부채액 2,761만원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5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업자금 23.5%, 생계비 12.3% 등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교육비 4.9%, 의료비와 관혼상제비 각각 1.2%였다.

〈표 2-13〉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부채 원인

(단위: %, 명)

특성	부채 원인							계(수)
	생계비	주거비/ 주택마련	교육비	사업자금	의료비	관혼 상제비	기타	
전체	12.3	53.0	4.9	23.5	1.2	1.2	3.8	100.0(5,620)
지역								
동부	12.0	57.2	5.1	20.4	1.0	1.2	3.2	100.0(4,672)
읍·면부	14.1	32.6	4.0	39.1	2.1	1.3	6.8	100.0(948)
가구원 수								
1인	26.3	32.8	5.9	21.6	3.2	0.9	9.3	100.0(677)
2인	12.5	46.1	5.0	27.1	1.9	2.4	5.0	100.0(1,269)
3~4인	9.0	59.9	4.9	22.4	0.6	1.0	2.3	100.0(3,060)
5인 이상	13.5	55.7	3.4	24.1	0.3	0.2	2.8	100.0(61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5.2	25.1	3.9	15.9	6.3	1.6	12.0	100.0(383)
100~200 미만	24.1	37.8	4.3	25.4	2.2	1.3	4.9	100.0(783)
200~300 미만	16.7	48.5	5.7	24.9	0.6	1.3	2.3	100.0(1,100)
300~400 미만	9.8	54.9	6.9	22.7	0.6	2.3	2.8	100.0(1,094)
400~500 미만	4.3	59.2	5.6	25.4	0.4	0.6	4.5	100.0(816)
500이상	2.6	68.1	2.8	22.8	0.5	0.5	2.7	100.0(1,419)
육구소득비								
1 미만	38.3	27.1	3.2	19.9	3.7	1.2	6.6	100.0(347)
1~2 미만	23.2	42.3	4.4	22.1	2.2	0.8	5.0	100.0(1,215)
2~3 미만	9.5	55.8	5.0	24.1	0.6	1.8	3.2	100.0(1,736)
3~4 미만	6.3	58.4	7.0	24.1	0.3	0.9	2.9	100.0(1,054)
4 이상	3.4	62.9	3.8	24.4	1.0	1.0	3.5	100.0(1,247)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특성별 부채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주 원인이었다. 그렇지만 사업자금이 주 원인인 경우는 읍·면부 거주 가구(39.1%)이었으며, 생계비가 주 원인인 경우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35.2%)과 욕구소득비 1 미만(38.3%)에 해당하는 가구이었다. 특히, 욕구소득비 1 미만인 경우는 기초보장수급가구인데 이들이 생계비 부족으로 부채를 갖고 있음은 최저생계비보다 실질생계비가 높거나 과거 부채를 갖고 있지만 갚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2-14〉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부채 원인

(단위: %, 명)

특성	부채 원인							계(수)
	생계비	주거비/ 주택마련	교육비	사업자금	의료비	관혼 상제비	기타	
성								
남자	10.4	54.6	4.7	24.7	0.9	1.3	3.5	100.0(4,939)
여자	26.7	41.8	6.3	15.4	3.1	0.3	6.5	100.0(682)
연령								
15~29세	11.5	52.5	16.6	5.5	0.9	0.9	12.0	100.0(217)
30~39세	12.5	67.7	1.0	15.2	0.2	0.7	2.8	100.0(1,215)
40~49세	11.9	56.5	3.4	25.1	0.6	0.2	2.3	100.0(1,834)
50~59세	10.6	44.7	10.7	29.0	0.8	1.3	2.9	100.0(1,431)
60세 이상	15.8	40.0	1.3	27.2	4.1	3.8	7.8	100.0(923)
혼인상태								
유배우	8.9	57.2	4.5	24.2	0.8	1.3	3.1	100.0(4,487)
사별	21.1	38.3	3.3	16.9	5.0	2.1	13.4	100.0(337)
이혼·별거	34.6	34.8	4.6	21.9	1.3	-	2.8	100.0(457)
미혼	19.8	37.5	11.5	23.9	1.8	-	5.6	100.0(33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9.4	34.3	4.5	30.1	2.8	2.4	6.5	100.0(1,008)
고등학교	14.7	48.2	5.0	26.5	1.1	0.8	3.7	100.0(2,186)
대학 이상	7.3	65.2	5.0	18.1	0.6	1.0	2.8	100.0(2,425)
취업여부								
취업	10.4	54.7	4.8	25.0	0.8	1.0	3.3	100.0(4,869)
비취업	25.0	42.3	5.3	14.2	3.9	2.3	6.9	100.0(751)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 특성에 따른 부채 원인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 특성에 관계없이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었음은 공통적이었다. 그렇지만 특징을 살펴보면, 생계비가 부채의 원인이라는 비율은 여성가구주(26.7%)가 남성가구주(10.4%)의 약 2.6배였고, 이혼·별거가구(34.6%)가 유배우가구(8.9%)의 약 3.9배나 되었으며, 중학교 이하 학력자(19.4%)가 대학 이상 학력자(7.3%)의 약 2.7배이었다.

4. 응답가구의 주관적 경제수준

조사완료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자립정도는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는 의견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통으로 25.5%를 차지하였다. 응답문항을 (전혀) 자립 못함, 보통, 약간(상당히) 자립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립함이 52.0%이었고, 자립 못함이 22.2%로 나타났다. 자립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낮았지만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들 가구에 대한 복지정책 측면의 관심이 요구된다.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보다 자립율이 높았으며, 3~4인의 가구원 수를 가진 가구가 자립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과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자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하지 못하는 비율이 자립하고 있는 비율보다 높은 계층은 1인 가구원(비자립 40.9%, 자립 35.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비자립 63.4%, 자립 15.9%), 욕구소득비 1 미만(비자립 64.1%, 자립 14.9%)의 가구들이었다.

〈표 2-15〉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관적 경제적 자립정도

(단위: %, 명)

특성	주관적 경제적 자립정도						계(수)
	전혀 자립하지 못함	별로 자립하지 못함	보통	약간 자립하고 있음	상당히 자립하고 있음	모르 겠음	
전체	7.0	15.2	25.5	19.4	32.6	0.3	100.0(14,945)
지역							
동부	6.7	14.2	25.6	19.5	33.8	0.3	100.0(12,477)
읍·면부	8.8	20.3	25.0	19.1	26.2	0.7	100.0(2,468)
가구원 수							
1인	19.3	21.6	22.4	13.4	22.4	0.8	100.0(3,780)
2인	5.2	16.4	26.7	20.2	31.2	0.2	100.0(3,803)
3~4인	1.6	11.0	26.6	21.5	39.2	0.1	100.0(6,284)
5인 이상	2.2	12.5	25.5	25.2	34.5	0.2	100.0(1,076)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0.3	33.1	19.9	9.4	6.3	0.9	100.0(2,357)
100~200 미만	7.3	22.9	26.4	19.3	23.7	0.4	100.0(2,702)
200~300 미만	2.7	13.9	31.3	23.2	28.7	0.2	100.0(2,871)
300~400 미만	1.2	11.2	29.2	22.8	35.4	0.2	100.0(2,301)
400~500 미만	1.1	6.4	27.8	22.2	42.5	0.1	100.0(1,660)
500 이상	0.3	3.2	19.3	19.5	57.6	0.2	100.0(2,937)
육구소득비							
1 미만	30.4	33.7	20.0	8.8	6.1	1.0	100.0(1,826)
1~2 미만	8.6	25.9	27.4	19.4	18.4	0.4	100.0(3,482)
2~3 미만	2.7	11.5	29.4	23.7	32.5	0.1	100.0(3,933)
3~4 미만	2.3	6.6	27.9	22.0	40.8	0.3	100.0(2,622)
4 이상	0.7	3.9	19.3	17.8	58.1	0.1	100.0(2,961)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주관적 경제적 자립정도를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성가구주의 자립율(56.9%)이 여성가구주의 자립율(33.2%)보다 높았고, 30~50대 가구주의 자립율(57.2~60.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유배우 가구의 자립율(59.7%)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사별가구의 자립율(26.1%)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율이 높았고, 가구주의 취업이 자립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립하지 못하는 비율이 자립하고 있는 비율보다 높은 계층은 혼인상태가 사별인 가구(비자립 49.7%, 자립 26.1%), 가구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비자립 41.4%, 자립 33.2%),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인 가구(비자립 49.9%, 자립 28.2%) 들이었다.

〈표 2-16〉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주관적 경제적 자립정도

(단위: %, 명)

특성	주관적 경제적 자립정도						계(수)
	전혀 자립하지 못함	별로 자립하지 못함	보통	약간 자립하고 있음	상당히 자립하고 있음	모르 겠음	
성							
남자	4.2	13.2	25.7	20.8	36.1	0.2	100.0(11,873)
여자	18.1	23.1	24.9	14.4	18.8	0.7	100.0(3,069)
연령							
15~29세	17.6	16.2	27.4	14.8	23.2	0.9	100.0(1,149)
30~39세	3.3	10.9	25.5	22.1	37.9	0.3	100.0(2,736)
40~49세	2.3	11.6	26.1	21.5	38.4	0.1	100.0(3,657)
50~59세	3.7	12.8	26.1	19.8	37.4	0.2	100.0(3,442)
60세 이상	13.8	23.3	23.6	16.5	22.1	0.6	100.0(3,959)
혼인상태							
유배우	2.1	11.8	26.2	22.0	37.7	0.1	100.0(9,797)
사별	21.6	28.1	23.3	12.0	14.1	0.9	100.0(1,862)
이혼·별거	12.2	21.8	24.0	16.5	25.3	0.2	100.0(1,198)
미혼	14.0	15.8	25.0	15.2	29.2	0.8	100.0(2,08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4	26.0	24.8	16.6	16.6	0.6	100.0(3,764)
고등학교	3.5	14.3	27.6	21.3	33.2	0.1	100.0(5,352)
대학 이상	4.8	9.1	23.9	19.5	42.3	0.3	100.0(5,823)
취업여부							
취업	1.8	11.6	26.8	21.5	38.1	0.2	100.0(11,307)
비취업	23.4	26.5	21.1	12.9	15.3	0.7	100.0(3,636)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조사완료가구의 사회적 특성

1. 주관적 사회적 지위

조사완료가구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중류층이 5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하류층으로 36.9%이었으며, 상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3.6%에 불과하였다.

〈표 2-17〉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관적 사회적 지위

(단위: %, 명)

특성	주관적 사회적 지위									계(수)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전체	0.3	1.7	1.6	9.5	27.2	22.8	15.0	12.5	9.4	100.0(14,930)
지역										
동부	0.3	2.0	1.7	10.2	28.2	22.9	14.5	11.5	8.7	100.0(12,473)
읍·면부	0.1	0.7	1.1	5.9	21.9	22.5	17.9	17.2	12.7	100.0(2,457)
가구원 수										
1인	0.2	0.6	0.6	3.8	16.3	20.8	18.0	19.0	20.7	100.0(3,771)
2인	0.3	1.5	2.2	9.1	25.1	22.1	16.8	13.7	9.2	100.0(3,805)
3~4인	0.3	2.2	1.8	12.5	33.6	24.0	13.1	8.7	3.7	100.0(6,280)
5인 이상	0.4	3.4	2.1	13.2	35.4	25.0	10.0	7.2	3.3	100.0(1,07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0.5	0.8	1.2	10.6	14.1	17.4	22.6	32.9	100.0(2,358)
100~200 미만	0.2	0.2	0.7	4.0	16.7	24.0	21.9	21.0	11.4	100.0(2,695)
200~300 미만	0.1	0.8	0.7	5.0	23.4	30.3	19.3	13.6	6.9	100.0(2,867)
300~400 미만	0.2	0.6	1.9	8.6	32.4	29.0	15.0	9.5	3.0	100.0(2,304)
400~500 미만	0.2	1.5	1.9	11.1	41.1	25.4	11.4	6.0	1.4	100.0(1,660)
500 이상	0.9	6.1	3.8	25.5	41.4	15.1	5.0	1.7	0.5	100.0(2,925)
목구소득비										
1 미만	-	0.3	0.9	1.4	8.9	14.0	16.8	22.6	35.1	100.0(1,829)
1~2 미만	0.0	0.5	0.7	3.1	19.2	24.2	20.5	19.7	12.1	100.0(3,482)
2~3 미만	0.1	0.7	1.1	7.1	29.2	29.5	16.7	10.8	4.7	100.0(3,932)
3~4 미만	0.3	1.4	1.8	11.3	34.2	24.2	14.3	8.6	3.9	100.0(2,619)
4 이상	0.9	5.6	3.7	23.7	38.4	16.8	6.2	3.6	1.2	100.0(2,947)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상류층 및 중류층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과 욕구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하류층이라고 한 비율이 상류층 및 중류층이라고 한 비율보다 높은 계층은 1인 가구,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욕구소득비 2 미만 가구 등이었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여성가구주 가구, 60세 이상 가구, 사별 및 이혼·별거 가구, 중학교 이하 학력의 가구, 비취업 가구 등이 상류층 및 중류층 비율보다 하류층 비율이 높았다.

〈표 2-18〉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

(단위: %, 명)

특성	주관적 사회적 지위									계(수)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성										
남자	0.3	1.9	1.9	11.0	29.8	23.5	14.5	10.5	6.6	100.0(11,861)
여자	0.1	1.0	0.5	3.8	17.2	20.3	17.2	19.9	19.9	100.0(3,068)
연령										
15~29세	0.1	0.9	0.4	7.4	27.6	28.3	14.2	11.9	9.2	100.0(1,147)
30~39세	0.3	1.8	1.2	10.5	33.0	27.1	14.1	8.1	4.0	100.0(2,727)
40~49세	0.3	2.0	1.6	11.9	31.5	23.3	12.9	10.5	6.0	100.0(3,661)
50~59세	0.3	2.4	2.4	11.4	27.6	20.3	15.2	12.5	7.9	100.0(3,433)
60세 이상	0.2	1.1	1.8	5.5	18.7	20.0	17.7	17.4	17.5	100.0(3,962)
혼인상태										
유배우	0.3	2.3	2.1	12.6	32.6	23.7	13.2	8.9	4.3	100.0(9,791)
사별	0.2	0.6	0.6	2.1	12.9	18.1	17.7	21.6	26.2	100.0(1,862)
이혼·별거	-	0.6	0.7	2.5	12.7	18.5	21.1	23.1	20.9	100.0(1,201)
미혼	0.1	0.8	0.7	5.7	22.7	25.3	18.1	15.0	11.5	100.0(2,07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0.3	0.5	2.3	13.9	20.3	19.9	21.4	21.3	100.0(3,765)
고등학교	0.1	0.9	1.4	6.8	27.5	24.7	17.7	13.3	7.5	100.0(5,347)
대학 이상	0.5	3.4	2.6	16.6	35.5	22.7	9.4	5.9	3.3	100.0(5,816)
취업여부										
취업	0.3	2.0	1.8	11.0	29.7	24.1	14.9	10.6	5.7	100.0(11,289)
비취업	0.1	1.0	1.3	4.9	19.3	18.9	15.6	18.3	20.7	100.0(3,641)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2. 주거실태

가. 거주유형

조사완료가구의 거주주택은 아파트가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단독주택 38.2%이었으며, 그 외에도 다세대주택 11.1%, 연립주택 4.8% 등이 있었다. 따라서 거주주택은 크게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대분된다 고 하겠다.

〈표 2-19〉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거주유형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계(수)
전체	38.2	45.1	4.8	11.1	0.8	100.0(14,970)
지역						
동부	33.7	47.1	5.4	13.0	0.9	100.0(12,501)
읍·면부	60.9	34.9	2.1	1.4	0.7	100.0(2,469)
가구원 수						
1인	59.8	23.5	4.7	10.6	1.5	100.0(3,784)
2인	43.2	40.6	4.5	10.9	0.8	100.0(3,811)
3~4인	23.9	58.8	4.9	11.9	0.5	100.0(6,297)
5인 이상	28.7	56.2	6.1	8.2	0.8	100.0(1,07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3.4	22.6	5.6	7.8	0.7	100.0(2,359)
100~200 미만	51.3	28.6	5.7	13.2	1.2	100.0(2,706)
200~300 미만	42.5	35.9	5.4	15.2	1.0	100.0(2,872)
300~400 미만	30.6	49.1	5.2	14.3	0.8	100.0(2,308)
400~500 미만	25.4	57.6	4.5	11.7	0.8	100.0(1,661)
500 이상	15.3	76.1	2.8	5.1	0.6	100.0(2,939)
육구소득비						
1 미만	60.0	24.2	6.2	8.7	0.9	100.0(1,830)
1~2 미만	49.2	32.8	5.9	11.7	0.4	100.0(3,489)
2~3 미만	32.6	45.9	5.0	15.7	0.8	100.0(3,938)
3~4 미만	33.4	48.8	5.2	11.3	1.4	100.0(2,626)
4 이상	24.0	66.9	2.4	5.7	0.9	100.0(2,965)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아파트에 많이 사는 가구특성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3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 3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 2 이상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가구 등이었다. 반대로 단독주택에 많이 사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1~2인 가구,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 욕구소득비가 2 미만인 가구 등이었다.

아파트에 많이 사는 경우는 남성가구주, 30~60세 미만 가구주, 유배우 가구,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가구, 취업가구 등이었다. 반면에 단독주택에 많이 사는 경우는 여성가구주, 15~29세 및 60세 이상 가구주, 사별·이혼·별거 및 미혼자, 중학교 이하 학력자, 비취업가구주 등이었다.

〈표 2-20〉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거주유형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계(수)
성						
남자	34.7	49.2	4.7	10.6	0.8	100.0(11,897)
여자	51.6	28.8	5.6	12.9	1.1	100.0(3,074)
연령						
15~29세	61.0	22.1	2.4	13.2	1.2	100.0(1,152)
30~39세	28.3	55.5	4.5	10.1	1.6	100.0(2,739)
40~49세	26.4	55.2	5.6	12.1	0.6	100.0(3,664)
50~59세	34.5	47.5	5.2	11.9	1.0	100.0(3,448)
60세 이상	52.5	32.9	4.8	9.4	0.4	100.0(3,968)
혼인상태						
유배우	29.5	55.0	4.7	10.2	0.6	100.0(9,814)
사별	52.9	29.0	6.2	11.4	0.4	100.0(1,863)
이혼·별거	44.4	30.1	6.0	18.6	0.9	100.0(1,203)
미혼	62.5	21.0	3.8	10.3	2.3	100.0(2,08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5	25.1	5.9	11.7	0.6	100.0(3,772)
고등학교	37.6	40.8	5.8	14.8	1.0	100.0(5,363)
대학 이상	26.9	61.8	3.2	7.2	0.8	100.0(5,833)
현 취업여부						
취업	34.0	48.9	4.7	11.4	0.9	100.0(11,323)
비취업	51.2	33.1	5.2	9.9	0.6	100.0(3,645)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조사완료가구의 거주주택에 대한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비율이 5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세 20.5%, 전·월세 18.8%, 사글세 2.0% 등이었다. 따라서 전체의 약 47%가 주거불안정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조사완료가구에는 미혼가구가 약 14%있기 때문에(표 2-2 참조), 이들은 본가(本家)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주거안정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재 거주주택은 비 자가(非 自家)일지라도 별도의 자가(自家)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주거불안정 상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표 2-21〉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

(단위: %, 명)

특성	자가	전세	전·월세	사글세	기타	계(수)
전체	53.0	20.5	18.8	2.0	5.8	100.0(14,964)
지역						
동부	51.7	23.0	18.8	1.8	4.8	100.0(12,495)
읍·면부	59.5	7.9	18.6	3.4	10.6	100.0(2,469)
가구원 수						
1인	25.4	20.0	38.9	4.9	10.9	100.0(3,782)
2인	61.3	16.9	14.7	1.6	5.5	100.0(3,810)
3~4인	61.8	23.5	10.8	0.7	3.1	100.0(6,296)
5인 이상	68.5	16.7	9.6	1.3	4.0	100.0(1,07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1.2	16.7	22.8	5.0	14.3	100.0(2,360)
100~200 미만	42.6	16.1	30.7	3.7	6.9	100.0(2,706)
200~300 미만	44.1	22.8	27.3	1.4	4.5	100.0(2,874)
300~400 미만	58.2	20.9	16.1	1.0	3.9	100.0(2,306)
400~500 미만	62.2	25.2	8.7	0.5	3.3	100.0(1,660)
500 이상	71.5	21.7	4.3	0.5	2.1	100.0(2,937)
목구소득비						
1 미만	42.0	18.8	21.0	4.9	13.3	100.0(1,830)
1~2 미만	50.0	18.5	21.2	2.6	7.7	100.0(3,488)
2~3 미만	55.5	19.3	20.0	1.4	3.8	100.0(3,938)
3~4 미만	52.7	20.5	20.8	1.7	4.3	100.0(2,625)
4 이상	60.2	24.7	11.5	0.7	2.8	100.0(2,962)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 특성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가구주,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유배우자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가(自家) 비율은 높았다. 가구주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22〉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

(단위: %, 명)

특성	자가	전세	전·월세	사글세	기타	계(수)
성						
남자	57.0	21.0	16.1	1.7	4.2	100.0(11,892)
여자	37.2	18.5	29.3	3.5	11.6	100.0(3,072)
연령						
15~29세	5.5	31.2	53.2	3.1	7.0	100.0(1,148)
30~39세	36.3	33.1	24.3	1.3	5.1	100.0(2,738)
40~49세	56.2	21.7	16.3	1.6	4.3	100.0(3,664)
50~59세	63.1	16.2	14.9	2.7	3.2	100.0(3,446)
60세 이상	66.4	11.3	10.7	2.1	9.5	100.0(3,968)
혼인상태						
유배우	64.7	20.7	9.9	0.9	3.7	100.0(9,814)
사별	51.7	15.3	15.1	3.4	14.4	100.0(1,863)
이혼·별거	32.8	18.0	38.0	5.4	5.8	100.0(1,203)
미혼	10.2	25.4	52.7	3.9	7.9	100.0(2,08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8.9	12.2	15.6	3.8	9.5	100.0(3,771)
고등학교	51.4	19.2	23.5	1.6	4.3	100.0(5,360)
대학 이상	50.5	26.9	16.6	1.3	4.7	100.0(5,830)
현 취업여부						
취업	53.3	21.9	18.8	1.7	4.3	100.0(11,320)
비취업	52.0	16.1	18.8	3.0	10.2	100.0(3,645)

주: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거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를 살펴보았다. 남편 명의 55.0%, 부인 명의 26.5%, 부부 공동명의 5.3% 등이었다. 가구주가 여성인 비율이 약 21%임을 감안한다면(표 2-2 참조), 높은 부인소유율 또는 공동

명의를 올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능력 향상과 양성평등 인식의 확산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즉, 기혼여성들이 주택구입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를 부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비율은 1인 가구, 100만원 미만 소득의 가구가 높았다.

〈표 2-23〉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자가(自家)의 소유명의

(단위: %, 명)					
특성	남편	부인	부부 공동명의	기타	계(수)
전체	55.0	26.5	5.3	13.3	100.0(8,889)
지역					
동부	54.8	26.1	5.9	13.1	100.0(7,263)
읍·면부	55.8	27.9	2.5	13.8	100.0(1,626)
가구원 수					
1인	12.5	40.7	0.1	46.7	100.0(1,534)
2인	63.1	26.6	3.1	7.2	100.0(2,471)
3~4인	65.1	22.7	8.3	3.9	100.0(4,122)
5인 이상	59.9	17.5	6.4	16.2	100.0(760)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7.3	46.0	0.6	16.2	100.0(1,070)
100~200 미만	49.4	25.0	1.1	24.5	100.0(1,390)
200~300 미만	52.5	22.3	3.1	22.1	100.0(1,495)
300~400 미만	63.8	22.7	4.1	9.5	100.0(1,416)
400~500 미만	61.8	23.5	6.7	8.1	100.0(1,112)
500 이상	60.0	24.5	11.3	4.2	100.0(2,339)
육구소득비					
1 미만	49.4	34.9	1.1	14.5	100.0(807)
1~2 미만	53.6	30.8	2.1	13.5	100.0(1,870)
2~3 미만	59.6	23.6	4.3	12.5	100.0(2,379)
3~4 미만	56.3	22.7	5.6	15.4	100.0(1,629)
4 이상	52.7	25.2	10.4	11.6	100.0(2,138)

주: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자가의 소유명의를 부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비율은 여성가구주, 사별·이혼·별거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4〉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자가(自家)의 소유명의

(단위: %, 명)

특성	남편	부인	부부 공동명의	기타	계(수)
성					
남자	64.5	18.8	6.2	10.6	100.0(7,499)
여자	3.9	67.8	0.6	27.7	100.0(1,390)
연령					
15~29세	7.2	1.9	0.7	90.1	100.0(415)
30~39세	48.6	15.6	8.7	27.1	100.0(1,266)
40~49세	58.1	23.4	8.2	10.3	100.0(2,257)
50~59세	60.4	30.9	5.1	3.6	100.0(2,274)
60세 이상	58.3	34.1	2.1	5.5	100.0(2,675)
혼인상태					
유배우	68.7	20.9	7.0	3.4	100.0(6,691)
사별	14.6	75.6	0.2	9.6	100.0(975)
이혼·별거	36.0	51.4	-	12.6	100.0(422)
미혼	-	-	-	100.0	100.0(8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4.6	38.4	1.1	5.9	100.0(2,245)
고등학교	57.1	25.2	3.7	14.0	100.0(3,057)
대학 이상	53.4	20.1	9.3	17.2	100.0(3,584)
현 취업여부					
취업	57.2	23.9	6.4	12.6	100.0(6,797)
비취업	47.8	34.9	1.8	15.5	100.0(2,091)

주: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제4절 시사점

조사완료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 2-25> 및 <표 2-26>과 같다. 간략히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317.3만원, 월평균 가구소비는 250.7만원, 월평균 가구저축은 66.5만원 이었다. 가구당 평균 보유재산은 2억 2,153만원, 가구당 평균 부채는 2,761만원이었다.

조사완료가구의 경제상태를 종합적으로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소

득·소비·저축·재산·부채 모두 동부지역 거주가가 읍·면부지역 거주가
구보다 많았다. 경제상태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고, 가구소득 및 욕구소
득비에 비례하는 것임은 당연한 결과라 판단된다.

〈표 2-25〉 조사완료가구의 가구특성별 경제상태

(단위: 만원, 십만원)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월평균 가구소비 (만원)	월평균 가구저축 (만원)	보유재산 (십만원)	부채 (십만원)
전체	317.3	250.7	66.5	2,215.3	276.1
지역					
동부	333.9	262.6	70.9	2,374.2	293.1
읍·면부	233.9	190.7	44.5	1,422.3	191.1
가구원 수					
1인	134.2	104.3	31.7	699.9	80.8
2인	257.6	198.3	58.2	2,465.7	256.4
3~4인	433.3	343.7	89.0	2,732.9	362.6
5인 이상	494.8	408.3	87.6	3,587.9	533.3
가구소득(만원)	-				
100 미만	-	65.0	2.1	694.3	64.8
100~200 미만	-	128.0	17.2	1,163.3	142.7
200~300 미만	-	197.9	38.6	1,375.5	212.6
300~400 미만	-	274.9	57.9	1,842.4	268.2
400~500 미만	-	339.3	84.8	2,674.3	380.9
500 이상	-	494.2	188.6	5,206.3	581.1
욕구소득비					
1 미만	55.1	69.8	1.9	715.6	96.8
1~2 미만	159.8	155.2	11.2	1,266.2	175.4
2~3 미만	291.1	249.4	43.4	1,855.2	294.9
3~4 미만	377.7	292.4	81.8	2,168.8	257.8
4 이상	645.6	437.0	189.9	4,731.6	498.7

주: 무응답은 제외한 분석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조사완료가구의 경제상태를 종합적으로 가구주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에 비하여 소득·소비·저축·재산·부채 모두 많았
다. 가구주 연령이 40대가 소득·소비가 많았고, 50대는 저축·재산·부채

가 가장 많았다. 유배우 가구가 소득·소비·저축·재산·부채 모두 많았으며, 사별가구는 소득·소비·저축이 가장 적었고, 미혼가구는 재산·부채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가구가 소득·소비·저축·재산·부채가 모두 많았다.

〈표 2-26〉 조사완료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경제상태

(단위: 만원, 십만원)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월평균 가구소비 (만원)	월평균 가구저축 (만원)	보유재산 (십만원)	부채 (십만원)
성					
남자	359.6	283.1	75.6	2,524.2	321.6
여자	153.0	125.0	31.4	999.4	100.9
연령					
15~29세	198.2	144.1	54.4	513.2	66.2
30~39세	350.8	271.1	80.2	1,605.5	282.0
40~49세	421.2	345.5	76.9	2,581.6	362.3
50~59세	386.2	298.8	85.4	2,910.1	373.2
60세 이상	172.6	137.9	34.7	2,181.4	170.9
혼인상태					
유배우	399.0	315.1	82.5	2,923.8	366.6
사별	123.3	103.4	21.9	1,159.1	89.6
이혼·별거	181.2	159.3	26.5	816.9	180.7
미혼	185.1	132.5	54.6	592.7	74.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9.3	132.3	26.7	1,290.7	116.6
고등학교	305.8	248.1	61.3	1,912.6	270.2
대학 이상	430.8	329.7	97.4	3,094.1	385.2
취업여부					
취업	374.7	291.0	81.5	2,357.1	317.0
비취업	137.7	124.8	20.0	1,770.4	149.4

자료: 본 조사결과

주관적 경제적 자립정도는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중류층이 가장 많았지만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이 많았다. 이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고 있기 때

문으로 이해된다. 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 사회적 지위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완료가구의 경제상태는 전국 규모의 다른 표본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제2부 결혼·임신·출산

제3장 혼인가치관과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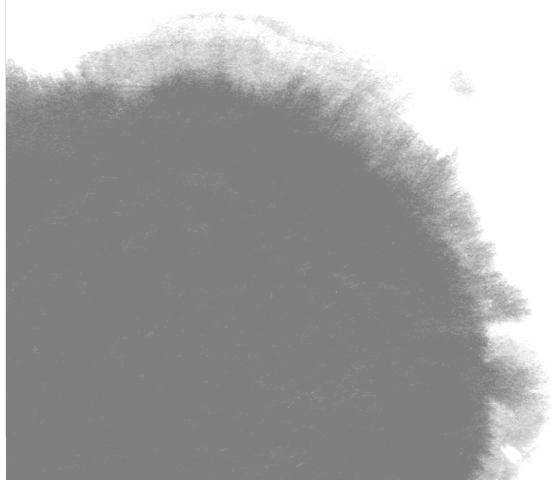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제4장 걱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제5장 자녀가치관과 출산행태의 변화

제6장 임신 및 임신종결형태의 변화

3장

혼인가치관과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



제3장 혼인가치관과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가치관’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김태길, 1996), 개인의 행동은 물론 사회적 의식 형성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인가치관은 한 개인 혹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김경신·이선미, 1998)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최근 들어 급격히 변하여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이 필수사항이었으나 최근에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김승권 외, 2009), 이러한 결혼 필요성의 약화로 인해 미혼율 증대와 초혼연령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가치관 변화와 함께 결혼행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통계청(2011)의 ‘2011년 혼인 및 이혼통계’에 의하면 2011년 한국의 혼인건수는 32만 9천 1백건으로,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인 조(粗)혼인율은 6.6건으로 집계되었다. 혼인건수는 2010년(32만 6천 100건)에 비하여 약 3천건 증가하였고, 조(粗)혼인율은 역시 전년도(6.5건)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한국의 혼인은 2007년(34만 3천 6백 건)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결혼연령은 점차적으로 높아져 2011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31.9세, 여성은 29.1세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02년과 비교할 때 남성은 2.4세, 여성은 2.3세 상승한 것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주 결혼연령대였던 20대 후반 남녀의 혼인이 급격히 감소하고, 30대의 만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혼에 대한 태도는 점차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혼가치관은 결혼가치관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점차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9; 최연실, 2010).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한국의 이혼건수는 11만 4천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3천건 감소하였고,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인 조(粗)이혼율은 2.3건을 기록하였다. 비록 이혼건수 및 조(粗)이혼율이 2003년(각각 16만 6천 6백건, 3.4) 정점에 달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0년대 후반의 급격한 증가 이후 여전히 매년 10만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한국사회에는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혼인의 감소 및 만혼, 이혼의 증가가 뚜렷하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과 새로운 형태의 가족 출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다 깊은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장(章)에서는 기혼가구의 혼인가치관과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본 조사에서는 혼인가치관을 크게 결혼 필요성, 이혼 필요성, 재혼 필요성,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는 4개 항목에 의하여 살펴보았다.

2. 선행연구

결혼가치관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각 연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혼자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김승권, 2009). 여성가족부의 「2010 가족실태조사」 분석결과도 한국인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혼에 대해서도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동거와 혼전 및 혼외 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최연실, 2010). 통계청 사회조사 1998~200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혼인가치관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석현호 외, 2009).

한편, 이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가치관과 비교하면 속도는 떨어지지만 점차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 1998~2006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대체로 이혼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2005년과 201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분석결과는 한국인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다소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연실, 2010).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한국인의 혼인가치관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서 점차적으로 “선택적인 것”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혼가치관은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점차 이혼을 수용하는 가치관이 확산됨을 엿볼 수 있다.

3. 정책동향

가. 혼인 관련 정책동향

혼인가치관 관련 정책동향은 ‘결혼 및 이혼 가치관 인식 재고’로 요약될 수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목표로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세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혼누리사이트

결혼누리사이트(www.wed-info.kr)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며, 결혼친화 중심의 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이트는 만남 준비, 결혼 준비, 결혼, 결혼 후 가정생활 등 결혼과 관련한 단계별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전국 148개⁶⁾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예비 및 신혼기 부부 교육, 남성대상 교육,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등이다.

나. 이혼 관련 정책동향

최근의 이혼 관련 정책동향은 이혼과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특징적이다. 기혼부부의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과정에 이혼숙려기간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혼 관련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다.

6) 기존 138개소에서 2012년 10개소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 2012).

1) 이혼 시 전문상담인의 상담 권고

민법 제836조 제1항에 의해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협의이혼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상담인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이혼당사자의 분쟁을 조절하고, 7) 이혼 시 발생하게 될 자녀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2) 이혼숙려기간제도

이혼숙려기간제도는 협의이혼 시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 및 전문가 상담을 권고하는 제도로써, 2007년 민법의 개정⁸⁾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다.

민법개정의 주된 내용으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협의이혼 당사자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양육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이혼의사를 확인하게끔 하는 것이다. 양육자녀가 있고 숙려기간을 거친 이혼당사자는 이혼의사 확인 시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과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내용을 담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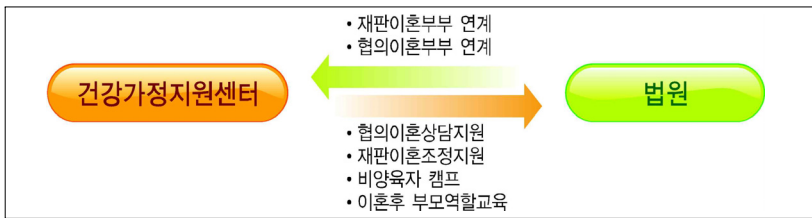
7) 이는 이혼 당사자의 가정문제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통하여 당사자의 가정환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상담인이 분쟁의 법률적 해결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박복순·박선영·신연희, 2011).

8) 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이다. 신설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항: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제3항: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가정법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혼 전·후 가족지원사업

‘가정법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혼 전·후 가족지원사업’은 이혼 신청 또는 소송 중인 가족의 상담 및 기능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가정법원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계된 재판 및 협의이혼의 당사자들에게 부부갈등조정 프로그램, 협의이혼상담지원,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 전·후, 재혼 등의 경우에 가족상담을 필수사업으로 진행 중이다(여성가족부, 2011).

[그림 3-1] 가정법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혼전·후 가족지원사업 연계 모델



제2절 혼인가치관의 변화

15~64세 기혼가구 내 기혼남녀의 혼인가치관을 결혼가치관, 이혼가치관, 재혼가치관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1. 결혼가치관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3년 54.4%, 2006년 57.7%, 2009년 60.6%이었으며, 2012년 조사에서

는 63.3%이었다. 반대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과 ‘하지 않는 편이 좋음’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표 3-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 겠음	계(수)	χ^2
2003 ¹⁾	25.7	28.7	37.1	7.9	0.7	100.0(11,145)	
2006 ²⁾	27.9	29.8	38.2	4.0	-	100.0(9,693)	
2009 ³⁾	28.5	32.1	35.0	4.4	-	100.0(9,791)	
2012 ⁴⁾	21.7	41.6	31.8	4.6	0.3	100.0(10,071)	
지역							
동부	21.1	41.8	32.3	4.5	0.3	100.0(8,695)	23.4***
읍·면부	25.4	40.5	28.3	5.7	0.1	100.0(1,376)	
가구원 수							
1인	17.3	34.1	37.9	9.9	0.8	100.0(860)	139.4***
2인	26.3	41.3	27.6	4.7	0.1	100.0(2,243)	
3~4인	20.4	42.9	32.4	3.9	0.3	100.0(5,913)	
5인 이상	22.2	41.3	32.2	4.0	0.3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6.1	34.0	24.8	14.4	0.6	100.0(460)	212.6***
100~200 미만	20.9	35.6	35.3	8.0	0.2	100.0(1,244)	
200~300 미만	15.1	41.5	36.7	6.5	0.2	100.0(1,954)	
300~400 미만	18.2	45.0	32.3	4.3	0.4	100.0(1,982)	
400~500 미만	18.5	45.0	33.1	3.2	0.2	100.0(1,540)	
500 이상	20.7	43.1	34.1	2.0	0.2	100.0(2,817)	
욕구소득비							
1 미만	22.5	36.4	30.0	10.2	0.7	100.0(423)	179.4***
1~2 미만	20.7	37.7	34.9	6.3	0.5	100.0(2,094)	
2~3 미만	18.5	44.3	31.2	5.8	0.3	100.0(3,137)	
3~4 미만	21.9	44.6	30.0	3.4	0.1	100.0(1,914)	
4 이상	25.8	40.4	31.9	1.7	0.2	100.0(2,428)	

주: 1) 2003~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1)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본 조사결과

읍·면부지역 거주가구(65.9%), 2인 가구원의 가구(67.6%), 가구소득 100만원 이상과 욕구소득비 1 이상에서는 가구소득 및 욕구소득비가 높

을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기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과거조사의 결과보다 많았으며, 50대 이상 연령층(50대 66.4%, 60세 이상 78.8%), 사별 부인(69.9%), 중학교 이하 학력층(69.1%), 취업부인(62.2%)이 많았다. 특히, 유일하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많은 계층은 이혼·별거부인으로 긍정적 의견 41.5%, 부정적 의견 58.4%이었다.

〈표 3-2〉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 겠음	계(수)	χ^2
2003	25.7	28.7	37.1	7.9	0.7	100.0(11,145)	
2006	27.9	29.8	38.2	4.0	-	100.0(9,693)	
2009	28.5	32.1	35.0	4.4	-	100.0(9,791)	
2012	19.1	42.2	33.7	4.7	0.2	100.0(8,179)	
연령							
15~29세	20.5	42.7	33.9	2.6	0.3	100.0(386)	265.5 ***
30~39세	14.3	43.2	37.8	4.3	0.4	100.0(2,271)	
40~49세	14.8	42.6	37.2	5.2	0.2	100.0(2,777)	
50~59세	26.4	40.0	29.0	4.6	0.0	100.0(2,332)	
60세 이상	32.1	46.7	14.1	6.3	0.7	100.0(411)	
혼인상태							
유배우	19.4	43.1	33.4	3.8	0.2	100.0(6,995)	218.2 ***
사별	26.0	43.9	24.2	5.3	0.5	100.0(549)	
이혼·별거	9.9	31.6	44.9	13.5	0.2	100.0(6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6	43.5	23.9	6.7	0.2	100.0(1,456)	163.1 ***
고등학교	16.5	41.2	36.2	5.9	0.2	100.0(3,719)	
대학 이상	19.2	42.9	35.4	2.2	0.3	100.0(3,005)	
취업여부							
취업	20.3	41.9	32.4	5.1	0.3	100.0(4,095)	13.7 **
비취업	17.9	42.5	35.0	4.3	0.2	100.0(4,08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1>과 동일

기혼남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과거조사(2009년)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30세 미만 연령층(95.7%), 사별 남성(80.3%), 대학 이상 학력층(75.1%), 취업남성(72.3%)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3〉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 겠음	계(수)	χ^2
2009 ¹⁾	39.8	32.1	25.4	2.8	-	100.0(970)	
2012 ²⁾	32.7	39.0	23.5	4.3	0.5	100.0(1,892)	
연령							
15~29세	26.1	69.6	4.3	-	-	100.0(23)	-
30~39세	35.0	41.3	20.1	2.8	0.8	100.0(254)	
40~49세	24.7	45.2	23.6	5.8	0.7	100.0(571)	
50~59세	33.3	34.5	27.3	4.4	0.4	100.0(768)	
60세 이상	46.0	34.3	17.2	2.6	-	100.0(274)	
혼인상태							
유배우	40.9	38.9	17.1	2.9	0.2	100.0(1,325)	-
사별	31.3	49.0	14.6	5.2	-	100.0(96)	
이혼·별거	9.7	37.1	43.6	8.3	1.3	100.0(47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3	37.6	25.9	3.9	0.2	100.0(433)	-
고등학교	31.9	38.0	23.6	5.9	0.5	100.0(842)	
대학 이상	34.4	40.7	21.9	2.6	0.5	100.0(622)	
현 취업여부							
취업	33.2	39.1	22.7	4.5	0.4	100.0(1,585)	4.1
비취업	30.9	37.3	27.7	3.9	0.3	100.0(311)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본 조사결과

2. 이혼가치관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함

과 하는 편이 좋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함 또는 하는 편이 좋음’의 비율은 2003년 18.6%, 2006년 13.8%, 2009년 20.5%이었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26.9%로 높았다.

〈표 3-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 됨	절대로 해서는 안 됨	모르 겠음	계(수)	χ^2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2003	3.3	15.3	30.3	36.2	14.2	0.7	100.0(11,145)	
2006	2.2	11.6	34.8	40.8	10.0	0.5	100.0(9,693)	
2009	2.0	18.5	31.8	39.1	8.4	0.2	100.0(9,796)	
2012	2.5	24.4	34.0	33.6	7.3	0.2	100.0(10,064)	
지역								
동부	2.6	24.4	34.7	33.1	5.0	0.2	100.0(8,688)	26.3***
읍·면부	2.2	23.9	29.7	36.6	7.3	0.2	100.0(1,376)	
가구원 수								
1인	4.1	30.3	31.8	28.3	5.4	0.2	100.0(859)	52.4***
2인	2.8	22.8	33.6	34.5	6.2	0.2	100.0(2,241)	
3~4인	2.3	24.5	34.8	33.2	4.9	0.2	100.0(5,912)	
5인 이상	1.9	22.0	32.0	38.5	5.4	0.2	100.0(1,05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1	25.7	29.8	34.4	5.4	0.4	100.0(459)	72.1***
100~200 미만	3.1	24.7	31.6	33.0	7.1	0.6	100.0(1,245)	
200~300 미만	2.5	24.0	31.0	36.4	6.0	-	100.0(1,952)	
300~400 미만	2.1	24.6	37.0	31.9	4.4	0.1	100.0(1,981)	
400~500 미만	2.3	25.3	37.0	30.7	4.5	0.2	100.0(1,539)	
500 이상	2.3	23.5	34.6	34.5	5.0	0.2	100.0(2,815)	
육구소득비								
1 미만	4.3	23.4	33.1	33.8	5.0	0.5	100.0(423)	41.4**
1~2 미만	2.5	24.1	30.7	35.6	6.7	0.3	100.0(2,092)	
2~3 미만	2.2	25.0	34.1	33.6	4.9	0.1	100.0(3,134)	
3~4 미만	2.4	23.9	37.4	31.3	5.0	0.1	100.0(1,914)	
4 이상	2.6	24.2	34.7	33.5	4.9	0.2	100.0(2,428)	

주: 1) 2003~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1>과 동일

반대로 이혼을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됨’의 비율은 2003년 50.4%, 2006년 50.8%, 2009년 47.5%이었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36.3%로 낮았다. 읍·면부지역 거주가구(26.1%), 1인 가구의 가구원(34.4%),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29.8%), 욕구소득비 1 미만 가구(27.7%)가 상대적으로 이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표 3-5〉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 됨	절대로 해서는 안 됨	모르 겠음	계(수)	χ^2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2003	3.3	15.3	30.3	36.2	14.2	0.7	100.0(11,145)	
2006	2.2	11.6	34.8	40.8	10.0	0.5	100.0(9,693)	
2009	2.0	18.5	31.8	39.1	8.4	0.2	100.0(9,796)	
2012	2.7	25.7	35.1	31.8	4.5	0.2	100.0(8,178)	
연령								
15~29세	4.7	25.8	35.1	31.5	2.6	0.3	100.0(387)	166.6***
30~39세	3.0	29.5	37.0	27.4	3.0	0.1	100.0(2,270)	
40~49세	2.2	26.1	37.9	29.5	4.1	0.1	100.0(2,776)	
50~59세	2.8	21.9	31.7	37.4	6.0	0.2	100.0(2,333)	
60세 이상	1.7	24.4	24.9	39.5	8.8	0.7	100.0(410)	
혼인상태								
유배우	2.5	25.0	35.7	32.2	4.5	0.2	100.0(6,993)	166.8***
사별	0.5	23.6	27.6	38.6	9.1	0.5	100.0(547)	
이혼·별거	6.8	36.1	35.0	20.9	1.3	-	100.0(6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	20.4	31.9	38.4	7.4	0.4	100.0(1,454)	104.5***
고등학교	2.7	26.9	35.3	31.4	3.7	0.1	100.0(3,719)	
대학 이상	3.3	26.9	36.6	28.9	4.2	0.2	100.0(3,003)	
취업여부								
취업	2.8	26.1	34.6	31.6	4.7	0.2	100.0(4,092)	2.9
비취업	2.5	25.3	35.6	31.5	4.9	0.3	100.0(4,08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1>과 동일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함과 하는 편이 좋음)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기혼여성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과거조사의 결과보다 강하였으며, 30대 연령층(32.5%), 이혼·별거 부인(42.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30.2%), 취업부인(28.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대로 60세 이상 연령층(48.3%), 사별 부인(47.7%),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혼을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됨’의 비율이 높았다.

<표 3-6>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 됨	절대로 해서는 안 됨	모르 겠음	계(수)	χ^2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2009	1.2	13.7	22.5	50.7	11.5	0.3	100.0(968)	
2012	1.8	18.5	29.1	41.7	8.7	0.2	100.0(1,889)	
연령								
15~29세	-	16.7	20.8	50.0	12.5	-	100.0(24)	-
30~39세	2.0	21.8	25.4	44.8	5.2	0.8	100.0(252)	
40~49세	1.6	17.3	33.9	40.3	6.6	0.3	100.0(573)	
50~59세	1.8	19.7	30.1	39.7	8.7	-	100.0(768)	
60세 이상	2.2	14.7	20.9	46.5	15.8	-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1.0	15.6	26.9	45.8	10.4	0.3	100.0(1,322)	-
사별	-	16.7	34.4	43.8	5.2	-	100.0(96)	
이혼·별거	4.7	26.9	34.3	29.4	4.7	-	100.0(47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	14.0	31.4	42.6	10.7	-	100.0(430)	19.5*
고등학교	2.0	19.7	29.3	40.8	8.2	-	100.0(839)	
대학 이상	1.8	19.9	27.4	42.5	7.8	0.6	100.0(617)	
취업여부								
취업	1.6	19.4	29.6	40.6	8.6	0.3	100.0(1,583)	11.5*
비취업	2.9	13.7	27.0	47.2	9.1	-	100.0(307)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3-3>과 동일

기혼남성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함과 하는 편이 좋음)은 2009년 조사결과(14.9%)에 비해 크게 상승한 20.3%이었다. 이러한 긍정적 의견은 30대 연령층(23.8%), 이혼·별거 남성(31.6%), 고등학교 이상 학력(21.7%), 취업남성(21.0%)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6 ¹⁾	14.2	42.6	40.4	2.8	100.0(8,727)	
2009 ²⁾	17.0	50.8	31.4	0.8	100.0(9,792)	
2012 ³⁾	12.8	49.4	35.5	2.3	100.0(10,054)	
지역						
동부	12.4	49.3	35.9	2.3	100.0(8,678)	10.3*
읍·면·부	15.1	49.9	33.1	2.0	100.0(1,376)	
가구원 수						
1인	13.2	44.4	39.2	3.3	100.0(858)	47.3***
2인	13.8	47.1	36.0	3.1	100.0(2,240)	
3~4인	11.9	50.7	35.4	2.1	100.0(5,903)	
5인 이상	15.6	50.9	32.6	0.9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5.5	47.8	33.4	3.3	100.0(458)	29.7*
100~200 미만	13.7	48.5	34.9	3.0	100.0(1,242)	
200~300 미만	11.2	52.0	35.4	1.4	100.0(1,951)	
300~400 미만	12.5	48.7	36.4	2.4	100.0(1,980)	
400~500 미만	12.8	48.1	36.1	3.0	100.0(1,537)	
500 이상	13.1	49.1	35.9	1.8	100.0(2,814)	
육구소득비						
1 미만	12.1	51.4	32.9	3.6	100.0(422)	27.3**
1~2 미만	14.2	50.2	33.7	1.9	100.0(2,088)	
2~3 미만	11.5	51.1	35.4	2.0	100.0(3,135)	
3~4 미만	13.2	46.5	37.9	2.4	100.0(1,908)	
4 이상	12.9	48.0	36.5	2.6	100.0(2,428)	

주: 1) 2006~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본 조사결과

구체적으로 이혼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혼남녀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음’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조사연도에 따라 일관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는 못하였지만, 최근 반대의견이 낮아지고 찬성의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였다(2006년 56.8%, 2009년 67.8%, 2012년 62.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음’에 대한 의견은 모든 가구특성에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현저히 높았음은 공통적이었다. 그렇지만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부지역 거주가구(65.0%), 5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66.5%), 가구소득 및 욕구소득비가 대체로 낮은 가구가 자녀가 있을 경우의 이혼에 반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음’에 대한 의견은 기혼여성의 개인특성에 상관없이 반대가 많았고, 찬성은 적었다. 그렇지만 개인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60세 이상(74.7%), 사별(68.1%),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68.3%)의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8〉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6	14.2	42.6	40.4	2.8	100.0(8,727)	
2009	17.0	50.8	31.4	0.8	100.0(9,792)	
2012	11.5	48.8	37.2	2.5	100.0(8,167)	
연령						
15~29세	10.4	49.6	35.6	4.4	100.0(385)	111.7***
30~39세	8.0	50.7	38.9	2.4	100.0(2,271)	
40~49세	10.7	47.1	39.4	2.8	100.0(2,773)	
50~59세	14.7	47.7	35.6	2.1	100.0(2,327)	
60세 이상	18.7	56.0	23.6	1.7	100.0(411)	
혼인상태						
유배우	11.7	50.1	36.1	2.1	100.0(6,986)	217.8***
사별	16.9	51.2	31.4	0.6	100.0(545)	
이혼·별거	4.7	33.2	54.2	7.9	100.0(63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8	52.5	29.9	1.9	100.0(1,453)	65.3***
고등학교	10.8	47.1	39.5	2.6	100.0(3,713)	
대학 이상	10.2	49.2	37.9	2.7	100.0(2,999)	
취업여부						
취업	11.3	49.6	36.5	2.6	100.0(4,087)	3.0
비취업	11.6	48.1	38.0	2.4	100.0(4,08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7>과 동일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음’에 대해 기혼남성의 개인특성에 상관 없이 반대의견이 많았고, 찬성의견이 적었다. 그렇지만 개인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30세 미만(87.0%), 유배우(74.0%),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78.6%), 비취업(76.4%) 남성의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표 3-8>과 <표 3-9>를 비교하면, 기혼남성은 젊은 연령층에서, 기혼여성은 고연령층에서, 기혼여성은 사별자가, 기혼남성은 유배우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을 반대하는 대조적 경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9〉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6	21.9	43.3	32.3	2.5	100.0(1,387)	
2009	25.4	49.5	24.1	0.9	100.0(969)	
2012	18.4	51.6	28.6	1.4	100.0(1,888)	
연령						
15~29세	8.7	78.3	13.0	-	100.0(23)	-
30~39세	20.1	50.8	28.3	0.8	100.0(254)	
40~49세	14.6	52.5	32.1	0.9	100.0(570)	
50~59세	18.6	49.9	29.6	2.0	100.0(768)	
60세 이상	25.6	53.8	18.7	1.8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21.5	52.5	25.1	0.8	100.0(1,321)	48.2***
사별	15.8	48.4	34.7	1.1	100.0(95)	
이혼·별거	10.8	50.3	36.1	2.8	100.0(4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3	57.3	20.9	0.5	100.0(431)	25.8
고등학교	16.4	49.0	32.7	1.8	100.0(840)	
대학 이상	19.4	51.4	27.7	1.5	100.0(617)	
취업여부						
취업	17.6	51.2	30.0	1.2	100.0(1,584)	13.2**
비취업	22.9	53.5	21.3	2.3	100.0(31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표 3-7>과 동일

3. 재혼가치관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재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2003년 이후 조사에서 2012년의 조사결과가 가장 낮은 17.8%이었다. 즉, 재혼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과 하는 것이 좋음’의 비율은 2003년 20.7%, 2006년 18.3%, 2009년 20.9%이었으며, 2012년 조사는 17.8%이었다.

〈표 3-1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 겠음	계(수)	χ^2
2003	0.8	19.9	47.2	21.5	5.9	4.6	100.0(11,127)	
2006	0.5	17.8	52.1	22.7	3.5	3.5	100.0(9,680)	
2009	0.4	20.5	49.5	23.4	3.8	2.5	100.0(9,797)	
2012	0.3	17.5	57.5	21.1	1.9	1.8	100.0(10,065)	
지역								
동부	0.3	16.7	58.0	21.1	2.0	1.9	100.0(8,687)	32.4
읍·면부	0.1	21.9	54.3	21.5	1.3	0.9	100.0(1,378)	**
가구원 수								
1인	0.4	17.7	50.4	28.7	1.6	1.2	100.0(857)	
2인	0.4	19.4	56.6	20.6	1.3	1.7	100.0(2,244)	67.2
3~4인	0.2	17.2	58.9	19.9	2.0	1.8	100.0(5,910)	***
5인 이상	0.4	14.3	56.9	23.3	2.9	2.1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0.2	17.2	52.1	26.4	3.1	1.1	100.0(459)	
100~200 미만	0.2	16.2	53.5	26.0	2.4	1.6	100.0(1,244)	
200~300 미만	0.2	17.1	56.0	23.0	2.1	1.6	100.0(1,949)	69.3
300~400 미만	0.3	16.5	60.3	19.8	1.6	1.6	100.0(1,983)	***
400~500 미만	0.3	18.1	57.2	20.1	2.1	2.3	100.0(1,539)	
500 이상	0.2	18.8	59.5	18.0	1.6	1.8	100.0(2,818)	
육구소득비								
1 미만	-	14.9	54.6	24.6	4.3	1.7	100.0(423)	
1~2 미만	0.3	15.2	56.0	24.3	2.6	1.5	100.0(2,089)	
2~3 미만	0.1	18.0	56.6	21.8	1.7	1.8	100.0(3,137)	90.4
3~4 미만	0.5	16.4	61.5	18.8	1.4	1.5	100.0(1,913)	***
4 이상	0.2	20.3	57.4	18.4	1.6	2.2	100.0(2,429)	

주: 1) 2003~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1>과 동일

2012년 조사결과를 가구특성에 재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의 비율을 살펴보면, 육구소득비 4 이상의 가구(긍정적 의견 20.5%, 부정적 의견 20.0%)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성에 상관없이 부정적 의견 보다는 긍정적 의견이 높았다. 재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읍·면

부지역 거주가구(22.0%), 2인 가구원의 가구(19.8%), 가구소득 400~500만원 미만의 가구(18.4%), 욕구소득비 4 이상의 가구(20.5%)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재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기혼여성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많은 계층은 30세 미만 연령층(긍정적 의견 19.9%, 부정적 의견 13.2%)과 대학 이상 학력의 교육수준을 가진 계층(긍정적 의견 17.9%, 부정적 의견 17.1%)이었다. 그 외의 모든 계층에서는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많았다.

〈표 3-11〉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 겠음	계(수)	χ^2
2003	0.8	19.9	47.2	21.5	5.9	4.6	100.0(11,127)	
2006	0.5	17.8	52.1	22.7	3.5	3.5	100.0(9,680)	
2009	0.4	20.5	49.5	23.4	3.8	2.5	100.0(9,797)	
2012	0.2	16.1	57.8	22.1	2.0	1.7	100.0(8,174)	
연령								
15~29세	0.5	19.4	63.6	11.9	1.3	3.4	100.0(387)	130.2 ***
30~39세	0.4	16.0	62.0	17.0	2.2	2.4	100.0(2,272)	
40~49세	0.1	16.4	56.4	23.5	2.1	1.4	100.0(2,778)	
50~59세	0.2	15.0	56.4	25.4	1.8	1.2	100.0(2,330)	
60세 이상	0.5	18.2	46.5	31.6	2.7	0.5	100.0(411)	
혼인상태								
유배우	0.2	16.8	58.3	21.0	2.1	1.6	100.0(6,991)	56.7 ***
사별	0.5	14.7	53.7	28.6	1.6	0.9	100.0(546)	
이혼·별거	0.2	10.0	56.2	29.4	1.7	2.5	100.0(6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1	15.5	50.7	30.3	2.7	0.6	100.0(1,455)	171.1
고등학교	0.2	15.2	56.5	24.0	2.4	1.8	100.0(3,715)	
대학 이상	0.4	17.5	62.9	15.9	1.2	2.0	100.0(3,004)	
취업여부								
취업	0.2	16.6	56.5	22.8	2.2	1.7	100.0(4,089)	6.1
비취업	0.3	15.7	59.1	21.4	1.9	1.6	100.0(4,07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1>과 동일

기혼여성의 재혼에 대한 의견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의견은 최근 10년 간의 4차례 조사 중 가장 적었으며, 부정적 의견도 가장 적었다. 이는 재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표 3-12〉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 겠음	계(수)	χ^2
2009	1.3	31.3	43.1	17.0	3.0	4.2	100.0(968)	
2012	0.3	23.3	55.8	17.0	1.3	2.2	100.0(1,890)	
연령								
15~29세	-	8.7	82.6	4.3	-	4.3	100.0(23)	-
30~39세	0.4	27.2	55.9	11.0	1.6	3.9	100.0(254)	
40~49세	0.7	23.8	58.6	13.6	0.9	2.4	100.0(572)	
50~59세	0.3	22.3	52.5	21.9	1.4	1.7	100.0(768)	
60세 이상	-	22.8	57.4	16.9	1.8	1.1	100.0(272)	
혼인상태								
유배우	0.5	23.6	55.6	16.5	1.4	2.5	100.0(1,324)	-
사별	-	22.1	61.1	16.8	-	-	100.0(95)	
이혼·별거	-	23.0	55.7	18.3	1.3	1.7	100.0(47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5	23.7	48.7	23.9	2.3	0.9	100.0(431)	32.9 ***
고등학교	0.2	22.9	59.5	14.4	0.8	2.1	100.0(840)	
대학 이상	0.3	23.8	56.0	15.5	1.3	3.1	100.0(618)	
취업여부								
취업	0.3	23.7	55.1	16.9	1.3	2.5	100.0(1,583)	7.7
비취업	0.3	21.4	59.2	17.5	1.3	0.3	100.0(306)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3-3>과 동일

기혼남성의 재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2009년 조사결과(32.6%)보다 낮아진 23.6%이었으며, 부정적 의견도 2009년 조사결과(20.0%)보다 낮아진 18.3%이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많았다. 재혼에 대한 기혼남성의 긍정적 의견은 50대 연령층과 중학교 이

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 연령층의 남성은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의견(23.3%)이 긍정적 의견(22.6%)이 많았으며,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도 부정적 의견(26.2%)이 긍정적 의견(24.2%)보다 많았다.

제3절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4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①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②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③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④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결혼과 가족에 대한 첫 번째 태도로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의 2012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률(대체로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은 2012년 78.7%로 2009년 75.2% 보다 높았으며, 이와는 달리 반대율(전혀 찬성하지 않음과 별로 찬성하지 않음)은 24.8%에서 21.3%로 낮아졌다. 따라서 결혼을 결혼당사자의 개인적 영역으로 보는 가치관보다 가족의 대사(大事)로 보는 가치관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찬성률은 가구특성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높았다. 가구특성 중에서도 읍·면부지역 거주가구(83.1%), 1인 가구원(84.9%),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83.6%), 1 미만의 욕구소득비 가구(82.0%)가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표 3-1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①

(단위: %, 명)

특성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3.3	21.5	64.9	10.3	100.0(9,788)	
2012	3.2	18.1	61.3	17.4	100.0(10,060)	
지역						
동부	3.5	18.5	60.5	17.5	100.0(8,684)	19.2***
읍·면부	1.5	15.3	66.4	16.7	100.0(1,376)	
가구원 수						
1인	2.3	12.8	62.5	22.4	100.0(859)	64.3***
2인	2.9	17.0	63.5	16.7	100.0(2,240)	
3~4인	3.4	20.1	59.6	16.9	100.0(5,907)	
5인 이상	3.6	13.6	65.2	17.5	100.0(1,05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7	12.7	63.5	20.1	100.0(458)	109.6***
100~200 미만	2.4	15.4	59.2	22.9	100.0(1,243)	
200~300 미만	2.9	14.7	64.0	18.4	100.0(1,950)	
300~400 미만	2.6	18.0	63.1	16.3	100.0(1,980)	
400~500 미만	4.5	18.5	61.5	15.4	100.0(1,539)	
500 이상	3.4	22.3	58.6	15.8	100.0(2,816)	
욕구소득비						
1 미만	4.0	13.9	59.8	22.2	100.0(423)	85.2***
1~2 미만	3.3	14.8	61.9	20.0	100.0(2,090)	
2~3 미만	3.0	17.0	62.6	17.4	100.0(3,134)	
3~4 미만	2.9	18.2	61.2	17.7	100.0(1,914)	
4 이상	3.6	23.0	59.3	14.1	100.0(2,428)	

주: 1) 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3>과 동일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기혼여성의 찬성률은 78.2%로 2009년 조사결과(75.2%)보다 다소 높았다. 이와 같이 높은 찬성률은 여성의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50대 연령층(84.3%), 사별 여성(81.2%), 중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여성(86.9%), 비취업 여성(79.0%)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표 3-14〉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①

(단위: %, 명)

특성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3.3	21.5	64.9	10.3	100.0(9,788)	
2012	3.1	18.6	61.5	16.7	100.0(8,171)	
연령						
15~29세	3.9	23.1	59.6	13.5	100.0 (386)	97.0 ***
30~39세	3.2	20.9	60.7	15.2	100.0(2,270)	
40~49세	3.4	21.4	59.7	15.5	100.0(2,775)	
50~59세	2.5	13.2	65.0	19.3	100.0(2,330)	
60세 이상	3.2	14.8	59.9	22.1	100.0(411)	
혼인상태						
유배우	3.0	19.1	61.4	16.4	100.0(6,987)	18.5 **
사별	2.0	16.8	60.9	20.3	100.0(548)	
이혼·별거	4.9	15.4	62.8	17.2	100.0(6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	10.4	67.7	19.2	100.0(1,455)	137.8 ***
고등학교	2.7	17.6	63.0	16.6	100.0(3,716)	
대학 이상	3.8	24.0	56.6	15.7	100.0(3,001)	
취업여부						
취업	3.6	18.8	60.9	16.6	100.0(4,089)	6.9 #
비취업	2.6	18.5	62.1	16.9	100.0(4,08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3>과 동일

이 항목에 대한 기혼남성의 찬성률은 80.6%로 2009년 조사결과(82.9%)보다 다소 낮아 기혼여성의 결과(3.0%pt 증가)와는 반대였다. 그렇지만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높은 찬성률은 남성의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30대 미만 연령층(87.5%), 이혼·별거 남성(84.9%),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83.6%)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미한 차이였다.

〈표 3-15〉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①

(단위: %, 명)

특성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2.3	14.9	68.7	14.2	100.0(968)	
2012	3.7	15.7	60.5	20.1	100.0(1,888)	
연령						
15~29세	-	12.5	70.8	16.7	100.0(24)	38.8***
30~39세	3.6	18.2	63.2	15.0	100.0(253)	
40~49세	4.2	20.3	57.4	18.0	100.0(571)	
50~59세	4.2	10.5	61.8	23.4	100.0(768)	
60세 이상	1.8	19.0	59.3	19.8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4.6	16.3	61.0	18.1	100.0(1,321)	25.6***
사별	-	20.0	62.1	17.9	100.0(95)	
이혼·별거	1.9	13.2	58.8	26.1	100.0(4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	15.5	58.0	24.4	100.0(431)	35.2***
고등학교	2.5	13.9	62.3	21.3	100.0(840)	
대학 이상	6.5	18.3	59.7	15.5	100.0(618)	
취업여부						
취업	3.3	16.2	61.6	19.0	100.0(1,584)	12.9*
비취업	5.8	13.2	55.5	25.5	100.0(31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3>과 동일

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결혼과 가족에 대한 두 번째 태도로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의 2012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대율(전혀 찬성하지 않음과 별로 찬성하지 않음)은 2012년 82.4%로 2009년 84.3% 보다 미미하나마 감소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찬성률(대체로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은 15.7%에서 17.6%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혼전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으로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표 3-16〉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②

(단위: %, 명)

특성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31.1	53.2	15.2	0.5	100.0(9,787)	
2012	36.4	46.0	15.6	2.0	100.0(10,061)	
지역						
동부	37.1	45.3	15.6	2.0	100.0(8,685)	19.3**
읍·면부	31.8	50.8	16.0	1.5	100.0(1,376)	
가구원 수						
1인	35.5	46.3	15.7	2.4	100.0(858)	21.9**
2인	39.2	43.4	15.8	1.5	100.0(2,240)	
3~4인	35.6	46.8	15.4	2.2	100.0(5,908)	
5인 이상	34.9	47.3	16.7	1.1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4.4	47.5	15.3	2.8	100.0(459)	43.2***
100~200 미만	40.0	41.2	16.2	2.6	100.0(1,244)	
200~300 미만	34.6	47.7	16.1	1.6	100.0(1,950)	
300~400 미만	34.0	47.9	15.3	2.8	100.0(1,980)	
400~500 미만	35.6	46.0	16.4	1.9	100.0(1,540)	
500 이상	38.0	45.8	15.0	1.2	100.0(2,816)	
육구소득비						
1 미만	37.8	43.7	15.6	2.8	100.0(423)	21.6*
1~2 미만	36.9	45.3	15.8	2.0	100.0(2,089)	
2~3 미만	34.5	47.7	15.5	2.3	100.0(3,135)	
3~4 미만	35.1	46.8	16.0	2.1	100.0(1,915)	
4 이상	38.6	44.6	15.5	1.3	100.0(2,429)	

주: 1) 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3>과 동일

이 항목에 대한 반대율은 모든 특성에서 높았다. 특성별로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구소득과

육구소득비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구(83.8%)와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81.2%)의 반대율 차이는 2.6%pt이었으며, 육구소득비 1 미만과 4 이상의 격차는 1.7%pt이었다.

〈표 3-17〉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②

(단위: %, 명)

특성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31.1	53.2	15.2	0.5	100.0(9,787)	
2012	36.7	46.0	15.2	2.0	100.0(8,173)	
연령						
15~29세	23.1	52.2	20.8	3.9	100.0(385)	237.8***
30~39세	29.0	46.7	21.7	2.6	100.0(2,270)	
40~49세	37.3	47.3	13.7	1.8	100.0(2,775)	
50~59세	44.5	43.3	10.7	1.5	100.0(2,330)	
60세 이상	44.5	43.1	10.7	1.7	100.0(411)	
혼인상태						
유배우	36.2	46.6	15.3	2.0	100.0(6,988)	24.4**
사별	45.1	41.1	11.7	2.2	100.0(548)	
이혼·별거	35.8	43.6	17.9	2.7	100.0(6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9.9	46.9	12.0	1.2	100.0(1,455)	35.5***
고등학교	37.4	45.7	14.7	2.3	100.0(3,716)	
대학 이상	34.4	46.0	17.5	2.1	100.0(3,002)	
취업여부						
취업	36.7	45.6	16.0	1.7	100.0(4,090)	9.3*
비취업	36.7	46.4	14.4	2.4	100.0(4,08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3>과 동일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기혼여성의 반대율은 82.7%로 2009년 조사결과(84.3%)보다 다소 낮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강한 반대를 보였는데, 이러한 높은 반대율은 여성의 모든 특성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50대 연령층(87.8%), 사별 여성(86.2%),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86.8%)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 항목에 대한 기혼남성의 반대율은 81.0%로 2009년 조사결과(82.8%)보다 다소 낮아 기혼여성의 결과(1.8%p 감소)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혼전출산에 대한 여전히 강한 반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높은 반대율은 남성의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연령이 상승할수록, 사별 남성(88.5%),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86.3%), 비취업 남성(83.0%)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표 3-18〉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②

(단위: %, 명)

특성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30.4	52.4	16.7	0.5	100.0(968)	
2012	34.7	46.3	17.4	1.6	100.0(1,888)	
연령						
15~29세	4.3	65.2	30.4	-	100.0(23)	-
30~39세	30.7	44.1	24.0	1.2	100.0(254)	
40~49세	28.8	48.8	20.1	2.3	100.0(572)	
50~59세	37.8	46.0	15.1	1.0	100.0(769)	
60세 이상	44.0	42.1	11.0	2.9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36.5	45.0	17.2	1.4	100.0(1,321)	18.6**
사별	43.2	45.3	9.5	2.1	100.0(95)	
이혼·별거	27.8	50.3	19.5	2.3	100.0(4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4	49.9	12.5	1.2	100.0(431)	11.8#
고등학교	33.5	46.2	18.4	1.9	100.0(839)	
대학 이상	35.1	43.7	19.6	1.6	100.0(618)	
취업여부						
취업	33.7	46.8	17.8	1.8	100.0(1,585)	4.1
비취업	39.5	43.5	15.7	1.3	100.0(306)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3-3>과 동일

3.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의견

결혼과 가족에 대한 세 번째 태도로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의견의 2012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③

(단위: %, 명)

특성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23.6	44.3	30.5	1.6	100.0(9,783)	
2012	24.4	40.1	32.1	3.3	100.0(10,061)	
지역						
동부	24.7	40.2	31.6	3.6	100.0(8,684)	20.4***
읍·면부	23.0	39.7	35.6	1.7	100.0(1,377)	
가구원 수						
1인	21.4	40.0	35.1	3.5	100.0(860)	25.8**
2인	27.4	40.5	29.5	2.6	100.0(2,241)	
3~4인	23.7	40.3	32.5	3.6	100.0(5,908)	
5인 이상	24.9	38.3	33.3	3.5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5.5	43.0	27.9	3.5	100.0(458)	56.3***
100~200 미만	25.6	40.3	30.8	3.3	100.0(1,244)	
200~300 미만	22.6	39.5	35.6	2.3	100.0(1,950)	
300~400 미만	22.0	39.7	33.3	4.9	100.0(1,980)	
400~500 미만	23.3	42.0	31.2	3.4	100.0(1,539)	
500 이상	26.9	39.4	30.9	2.8	100.0(2,816)	
육구소득비						
1 미만	27.4	42.3	26.7	3.5	100.0(423)	49.0***
1~2 미만	25.4	38.6	33.1	2.9	100.0(2,088)	
2~3 미만	22.0	40.0	33.8	4.1	100.0(3,134)	
3~4 미만	22.3	43.0	31.2	3.5	100.0(1,913)	
4 이상	27.3	39.1	31.1	2.5	100.0(2,428)	

주: 1) 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3>과 동일

반대율(전혀 찬성하지 않음과 별로 찬성하지 않음)은 2012년 64.5%로 2009년 67.9% 보다 낮았으며, 이와 반대로 찬성률(대체로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은 32.1%에서 35.4%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혼전동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부정적 시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반대율은 가구특성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높았다. 가구특성 중에서도 동부지역 거주가구(64.9%), 2인 가구원 가구(67.9%),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68.5%), 1 미만의 욕구소득비 가구(69.7%)가 상대적으로 반대율이 높았다.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기혼여성의 반대율은 64.0%로 2009년 조사결과(67.9%)보다 감소하였고, 찬성률이 32.1%에서 36.0%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반대율을 보였는데, 이와 같이 높은 반대율은 기혼여성의 연령을 제외한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유배우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혼전동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따라서 혼전동거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은 다소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많다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향후에 점차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당장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혼전동거를 할 수도 있다’는 가치관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징후는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연령에 비례하여 반대율이 높았으나, 15~29세 연령층에서는 혼전동거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 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서구 국가와 같이 보편적 현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젊은 미혼층의 혼전동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향후에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3-20〉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③

(단위: %, 명)

특성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좋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23.6	44.3	30.5	1.6	100.0(9,783)	
2012	24.7	39.3	32.5	3.5	100.0(8,171)	
연령						
15~29세	12.2	28.5	50.8	8.5	100.0(386)	477.6 ***
30~39세	16.4	35.4	43.1	5.2	100.0(2,269)	
40~49세	25.4	39.9	31.4	3.3	100.0(2,776)	
50~59세	32.2	43.2	22.8	1.8	100.0(2,329)	
60세 이상	35.3	45.3	18.2	1.2	100.0(411)	
혼인상태						
유배우	24.6	39.3	32.8	3.3	100.0(6,988)	72.8 ***
사별	34.2	42.5	21.6	1.6	100.0(546)	
이혼·별거	17.3	37.1	38.5	7.1	100.0(6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3	44.2	24.9	1.7	100.0(1,455)	83.9 ***
고등학교	24.3	39.0	33.2	3.5	100.0(3,716)	
대학 이상	23.0	37.3	35.2	4.4	100.0(3,002)	
취업여부						
취업	24.2	39.4	32.6	3.8	100.0(4,091)	2.2
비취업	25.1	39.3	32.3	3.3	100.0(4,08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3>과 동일

이 항목에 대한 기혼남성의 반대율은 66.8%로 2009년 조사결과(67.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높은 반대율을 보인 것은 사실이며, 이와 같이 높은 반대율은 기혼남성의 연령을 제외한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사별 남성(80.3%),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73.3%), 비취업 남성(74.7%)이 혼전동거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30대 연령층에서는 반대율(46.9%)보다 찬성률(53.2%)이 높았다. 그 외 연령층은 반대율이 높았으며, 특히 40대 이상 연령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③

(단위: %, 명)

특성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23.9	43.3	31.9	0.9	100.0(968)	
2012	23.4	43.4	30.7	2.5	100.0(1,889)	
연령						
15~29세	-	52.2	39.1	8.7	100.0(23)	136.8 ***
30~39세	12.6	34.3	46.1	7.1	100.0(254)	
40~49세	18.2	41.3	37.9	2.6	100.0(572)	
50~59세	27.7	47.3	23.9	1.0	100.0(769)	
60세 이상	34.1	44.7	19.0	2.2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25.8	43.6	28.1	2.4	100.0(1,322)	39.6 ***
사별	24.0	56.3	17.7	2.1	100.0(96)	
이혼·별거	16.6	40.3	40.1	3.0	100.0(4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5	48.8	25.0	1.6	100.0(430)	17.5 **
고등학교	22.2	40.3	34.8	2.6	100.0(840)	
대학 이상	24.2	44.0	28.9	2.9	100.0(618)	
취업여부						
취업	21.0	44.3	32.0	2.7	100.0(1,583)	32.2 ***
비취업	35.7	39.0	23.6	1.6	100.0(30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3>과 동일

4.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결혼과 가족에 대한 네 번째 태도로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의 2012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대율(전혀 찬성하지 않음과 별로 찬성하지 않음)은 2012년 61.4%로 2009년의 68.6%보다 감소하였고, 이와는 달리 찬성률(대체로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은 2009년 31.4%에서 2012년 38.6%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반대율은 가구특성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높았다. 다만, 동부지역 거주가구(38.9%), 가구원 수 3~4인 가구(40.0%), 400~5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40.9%), 욕구소득비가 높을 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2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④

(단위: %, 명)

특성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23.3	45.3	30.5	0.9	100.0(9,781)	
2012	20.3	41.1	37.0	1.6	100.0(10,061)	
지역						
동부	20.2	40.9	37.2	1.7	100.0(8,684)	2.7
읍·면부	20.5	42.3	35.9	1.2	100.0(1,377)	
가구원 수						
1인	23.4	39.7	34.8	2.1	100.0(860)	18.0*
2인	21.3	42.4	35.0	1.4	100.0(2,241)	
3~4인	19.5	40.5	38.3	1.7	100.0(5,908)	
5인 이상	19.8	42.6	36.0	1.6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7.2	42.3	27.0	3.5	100.0(459)	80.0***
100~200 미만	24.1	41.6	32.2	2.2	100.0(1,244)	
200~300 미만	19.0	42.6	37.0	1.5	100.0(1,950)	
300~400 미만	17.2	42.3	38.6	1.9	100.0(1,980)	
400~500 미만	20.3	38.8	39.4	1.5	100.0(1,539)	
500 이상	19.9	40.2	38.8	1.1	100.0(2,816)	
욕구소득비						
1 미만	27.9	41.6	27.4	3.1	100.0(423)	79.2***
1~2 미만	22.4	40.9	34.1	2.6	100.0(2,089)	
2~3 미만	18.9	42.8	36.8	1.5	100.0(3,135)	
3~4 미만	18.7	41.8	38.2	1.3	100.0(1,914)	
4 이상	19.4	38.5	41.0	1.1	100.0(2,428)	

주: 1) 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3>과 동일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기혼여성의 반대율은 61.8%로 2009년 조사결과(68.6%)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찬성률(38.2)보다 크게 높았다. 이와 같은 높은 반대율은 40세 미만 연령층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찬성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15~29세 기혼여성은 찬성 63.7%, 반대 36.3%이었고, 30~39세 기혼여성은 찬성 54.5%, 반대 45.4%이었다. 즉, 4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혼전 성관계를 수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23〉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④

(단위: %, 명)

특성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23.3	45.3	30.5	0.9	100.0(9,781)	
2012	20.6	41.2	36.5	1.7	100.0(8,171)	
연령						
15~29세	7.3	29.0	58.5	5.2	100.0(386)	715.1 ***
30~39세	10.3	35.1	52.3	2.2	100.0(2,269)	
40~49세	22.6	41.7	34.1	1.5	100.0(2,776)	
50~59세	28.5	47.1	23.4	1.0	100.0(2,329)	
60세 이상	31.9	49.6	18.0	0.5	100.0(411)	
혼인상태						
유배우	19.9	41.5	37.0	1.6	100.0(6,989)	92.1 ***
사별	29.3	47.3	22.7	0.5	100.0(547)	
이혼·별거	21.7	32.8	41.8	3.8	100.0(6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0	49.9	22.3	0.8	100.0(1,455)	217.9 ***
고등학교	21.1	40.8	36.1	2.0	100.0(3,716)	
대학 이상	16.9	37.6	43.8	1.8	100.0(3,002)	
취업여부						
취업	21.1	40.7	36.5	1.7	100.0(4,091)	2.2
비취업	20.2	41.7	36.4	1.7	100.0(4,08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3>과 동일

이 항목에 대한 기혼남성의 반대율은 59.2%로 2009년 조사결과 (60.9%)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찬성률(40.8%)보다 크게 높았다. 이와 같은 높은 반대율은 40세 미만 연령층 기혼남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찬성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15~29세 기혼남성은 찬성 69.6%, 반대 30.4%이었고, 30~39세 기혼남성은 찬성 66.4%, 반대 33.6%이었다. 즉, 4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혼전 성관계를 수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24〉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④

(단위: %, 명)

특성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09	20.9	40.0	38.2	0.9	100.0(968)	
2012	18.7	40.5	39.5	1.3	100.0(1,887)	
연령						
15~29세	-	30.4	69.6	-	100.0(23)	148.7***
30~39세	8.7	24.9	63.2	3.2	100.0(253)	
40~49세	14.7	37.7	46.1	1.4	100.0(570)	
50~59세	22.9	45.3	31.1	0.7	100.0(768)	
60세 이상	26.0	48.0	24.9	1.1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21.3	38.5	39.1	1.1	100.0(1,321)	32.7***
사별	23.2	42.1	31.6	3.2	100.0(95)	
이혼·별거	10.6	45.8	42.2	1.5	100.0(47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9.5	51.3	28.5	0.7	100.0(431)	15.7*
고등학교	19.4	39.2	40.0	1.3	100.0(839)	
대학 이상	17.3	34.6	46.3	1.8	100.0(618)	
취업여부						
취업	17.9	40.3	40.6	1.2	100.0(1,583)	8.2*
비취업	23.2	41.2	33.7	2.0	100.0(30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3-3>과 동일

제4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15~64세 기혼가구 내 기혼남녀의 혼인가치관과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남녀 간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전에 이들 내용에 대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의견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기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결혼을 ‘하는 편이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기혼여성 42.2%, 기혼남성 39.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기혼여성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이 33.7%이었고, 기혼남성은 ‘반드시 해야 함’이 32.7%로 높았다. 따라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함’과 ‘하는 편이 좋음’을 합한 비율인 ‘결혼 찬성률’은 기혼여성 61.3%, 기혼남성 71.7%로 차이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과 ‘하지 않는 편이 좋음’을 합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비율은 기혼여성 38.4%, 기혼남성 27.8%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결혼 필요성」은 기혼남성이 기혼여성에 비하여 강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사회제도가 여성에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가사, 양육,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 되어 있고, 결혼 및 출산이 여성의 자아육구 충족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25〉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 겠음	계(수)	χ^2
기혼여성	19.1	42.2	33.7	4.7	0.2	100.0(8,179)	23.4
기혼남성	32.7	39.0	23.5	4.3	0.5	100.0(1,892)	***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이혼 필요성』에 대해 기혼여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이 35.1%로 가장 많았고, 기혼남성은 ‘가급적 해서는 안됨’이 41.7%로 가장 많았다. 더군다나 이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함 또는 하는 편이 좋음’의 비율은 기혼여성 28.4%, 기혼남성 20.3%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가족생활의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고, 이혼의 원인제공자가 남성이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표 3-26〉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차이

(단위: %, 명)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 됨	절대로 해서는 안 됨	모르 겠음	계(수)	χ^2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기혼여성	2.7	25.7	35.1	31.8	4.5	0.2	100.0(8,178)	26.1
기혼남성	1.8	18.5	29.2	41.7	8.6	0.3	100.0(1,889)	***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이혼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해 ‘전혀(별로) 찬성하지 않음’의 비율이 ‘대체로(전적으로) 찬성함’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혼남성이 기혼여성보다 강하였다.

〈표 3-27〉 기혼남녀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기혼여성	11.5	48.8	37.2	2.5	100.0(8,167)	10.3*
기혼남성	18.5	51.7	28.4	1.4	100.0(1,888)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음’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기혼남성 70.2%, 기혼여성 60.3%이었던 반면, 찬성 의견은 기혼여성 39.7%, 기혼남성 29.8%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 이는 기혼남성이 기혼여성보다 더 강하였으며, 기혼여성은 자녀가 있어도 이혼을 해야 할 경우라면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혼남성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기혼남녀의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기혼여성 57.8%, 기혼남성 55.9%로 가장 높았다.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기혼여성 24.1%, 기혼남성 18.2%이었고, 긍정적 의견은 기혼남성이 23.6%로 기혼여성 16.3%보다 많았다. 따라서 기혼남성이 기혼여성보다 재혼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28〉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차이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계(수)	χ^2
기혼여성	0.2	16.1	57.8	22.1	2.0	1.7	100.0(8,174)	32.7
기혼남성	0.3	23.3	55.9	16.9	1.3	2.2	100.0(1,890)	***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 보다 크게 높았으며, 찬성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즉, 찬성률은 기혼남성 80.6%, 기혼여성 78.2%였고, 반대율은 기혼여성 21.7%, 기혼남성 19.4%이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반대율이 찬성률 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반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즉, 반대율은 기혼여성 82.7%, 기혼남성 81.0%였었고, 찬성률은 기혼남성 19.0%, 기혼여성 17.2%이었다.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반대율이 찬성률 보다 다소 높았으며, 반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즉, 반대율은 기혼남성 66.8%, 기혼여성 64.0%였고, 찬성률은 기혼여성 36.0%, 기혼남성 33.2%로 나타났다.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반대율이 찬성률보다 크게 높았으며, 반대율은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높았다. 즉, 반대율은 기혼여성 61.8%, 기혼남성 59.2%이었고, 찬성률은 기혼남성 40.7%, 기혼여성 38.2%이었다.

〈표 3-29〉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의 차이

(단위: %, 명)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χ^2
①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함	전체	3.2	18.1	61.3	17.4	100.0(10,060)	19.2 ***
	기혼여성	3.1	18.6	61.5	16.7	100.0(8,170)	
	기혼남성	3.7	15.7	60.5	20.1	100.0(1,888)	
②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음	전체	36.4	46.0	15.6	2.0	100.0(10,061)	7.5 ***
	기혼여성	36.7	46.0	15.2	2.0	100.0(8,173)	
	기혼남성	34.7	46.3	17.4	1.6	100.0(1,888)	
③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음	전체	24.4	40.1	32.1	3.3	100.0(10,061)	20.2 ***
	기혼여성	24.7	39.3	32.5	3.5	100.0(8,171)	
	기혼남성	23.4	43.4	30.7	2.5	100.0(1,889)	
④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음	전체	20.3	41.1	37.0	1.6	11.0(10,061)	7.9*
	기혼여성	20.6	41.2	36.5	1.7	100.0(8,173)	
	기혼남성	18.7	40.5	39.4	1.3	100.0(1,889)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자료: 본 조사결과

기혼남녀의 혼인가치관과 결혼·가족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시계열적 변화를 논의한 본 장(章)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최근 결혼, 이혼, 재혼 등의 혼인가치관이 완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은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혼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증가로 인하여 불안정한 혼인상태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는 적은 자녀수를 원하게 되는 가치관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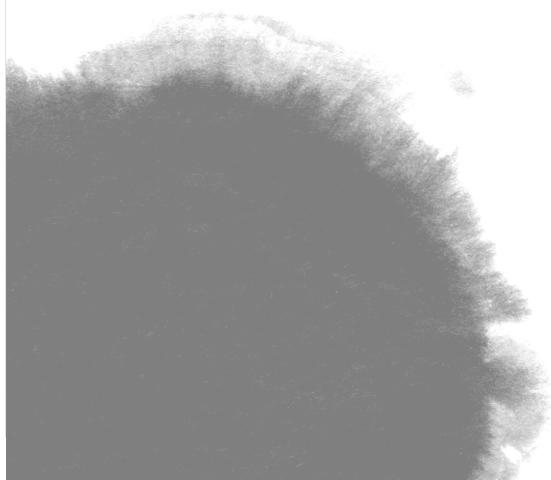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둘째, 결혼이 완전히 사적(私的) 영역으로 보기 보다는 가족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가족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풍조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복잡한 가족 관계를 완화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족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혼전 성관계와 혼전 출산은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강하긴 하지만, 혼전 출산이 혼전 성관계보다 부정적 의견이 더 강함은 미혼모와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을 우려케 한다. 따라서 효과성이 높은 피임실천이 가능하도록 성교육 강화와 피임기구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혼인가치관 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가 남녀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부부 간에 인식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의 기대가 다르고 이로 인하여 부부갈등과 가족갈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들 가치관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와 연령대별 차이를 인식하고 대화와 이해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4장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제4장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제1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한국사회에서는 주로 결혼을 통하여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혼연령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는 낮은 출산율의 원인 중의 하나가 만혼 및 비혼이기 때문이다. 즉, 만혼은 생식의학적 측면에서 임신 가능연령을 늦추어서 출산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라는 점에서, 비혼은 결혼과 출산의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겠다.

한국사회의 만혼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전체 결혼 여성의 약 절반가량이 25~29세에 결혼했으나, 2011년 여성결혼자의 25~29세 비중은 43.1%로 약 7%p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30세 이후 결혼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결혼여성 중 30~39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8.5%에서 2011년 35.3%로 약 2배 증가했다.

만혼의 경향은 남성도 예외가 아니다. 2001년 전체 혼인남성의 25~29세 비중은 46.0%였으나, 2011년에는 28.4%로 낮아져 10년 간 17.4%p 감소하였다. 이와 상반되게 전체 혼인남성 중 35~39세 연령층은 2001년 8.2%에서 2011년 14.9%로 약 2배 증가하였다.

만혼과 더불어 혼인건수 자체도 감소하였다.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평균적으로 약 9.0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7.0 미만으로 하향 안정화되었다(통계청, 2011).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가족형성과 임신·출산의 주요한 시발점인 결혼은 지속적으로 늦추어지고 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한 비혼 경향 역시 유지되고 있어 향후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적정 결혼연령 및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만혼 및 비혼의 원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만혼 및 비혼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 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적 근거는 Becker(1973, 1974; 정창무, 2008 재인용)의 저서 『결혼의 경제학』에서 찾을 수 있다. Becker는 결혼을 경제현상으로 상정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은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결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만혼 및 비혼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도 Becker 주장의 확장선상에서 개인의 자원 및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 및 결혼연령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8~2002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 남녀의 교육수준과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 연구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이 시대에 따라 결혼에 상반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했다. 1990~1997년에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결혼시기가 저학력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빨랐으나 취업과 결혼시기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교육수준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고, 취업은 결혼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개인적인 요인은 물론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연령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경제활동 참여와 높은 소득은 여성의 결혼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대시켜 결혼연령을 상승시켰다. 한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일수록 남녀 모두 평균초혼연령이 낮아지고, 주택공급의 증가는 남성의 결혼연령을 낮추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창무, 2008).

동일한 경제적 자원이라 할지라도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도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성 결혼여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 결혼여부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취업 역시 남성의 결혼확률을 높였으나, 여성에게는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확률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취업여성들 중에서도 직업지위가 높은 전문가, 임직원, 관리자 직군의 여성은 단순노무직 근무여성에 비하여 결혼확률이 낮게 나타나,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을 밝혔다(유홍준·현성민, 2010).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결혼활동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만혼과 비혼의 경향이 유지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 사회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와 같은 결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은 결혼연령을 낮추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바, 결혼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정책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만혼과 비혼의 저지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힘입어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책동향

결혼장려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2010~2015)에서는 신혼부부가 결혼 후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 중에 있다. 먼저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현행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현행 대출 가능 연소득의 상한액인 연소득 2천 만원을 2011년부터 신혼부부에 한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3천 만원으로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3천 만원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13년 4천 만원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사업주체에게 입주자 모집의 자율권을 주던 기존방침에서 신혼부부에게 미임대주택 입주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2절 적정 결혼연령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가 생각하는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평균 30.9세로 2009년 조사결과(30.38세) 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적정 결혼연령의 연령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25~29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에서 30~34세로 이동하였거나 또는 30~34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에서 35세 이상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구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동부지역 거주가구(30.96세), 가구원 수가 3~4인 가구(31.02세),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

(31.03세), 육구소득비가 4 이상인 가구(31.09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χ^2	평균	F(T)
2009 ¹⁾	0.1	25.3	69.5	5.2	100.0(9,796)		30.38	
2012 ²⁾	0.2	15.9	74.9	9.0	100.0(10,040)		30.90	
지역								
동부	0.2	15.0	75.3	9.5	100.0(8,666)	52.1***	30.96	(6.4***)
읍·면부	0.1	21.6	72.3	5.9	100.0(1,374)		30.56	
가구원 수								
1인	0.5	19.2	73.8	6.5	100.0(852)	33.8***	30.46	20.8***
2인	0.2	15.5	76.1	8.2	100.0(2,238)		30.86	
3~4인	0.1	15.3	74.5	10.0	100.0(5,901)		31.02	
5인 이상	-	17.0	75.5	7.4	100.0(1,050)		30.7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0.4	24.8	69.5	5.3	100.0(455)	114.1***	30.25	22.0***
100~200 미만	0.2	18.3	75.3	6.1	100.0(1,238)		30.47	
200~300 미만	-	18.5	69.5	12.0	100.0(1,949)		31.00	
300~400 미만	0.3	13.1	77.5	9.1	100.0(1,979)		30.97	
400~500 미만	0.1	15.4	74.6	9.8	100.0(1,539)		30.98	
500 이상	0.2	13.9	77.7	8.3	100.0(2,807)		31.03	
육구소득비								
1 미만	0.5	22.3	70.6	6.6	100.0(422)	57.4***	30.31	17.8***
1~2 미만	0.0	19.1	71.8	9.0	100.0(2,084)		30.70	
2~3 미만	0.1	15.9	74.2	9.8	100.0(3,132)		30.97	
3~4 미만	0.3	14.4	77.1	8.2	100.0(1,908)		30.91	
4 이상	0.2	13.3	77.4	9.1	100.0(2,421)		31.09	

주: 1) 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1)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 내 기혼여성 응답자는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을 평균 31.03세라고 하였으며, 이는 2009년 조사결과(30.38세) 보다 다소 상승한 것이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31.64세), 유배우(31.06세), 대학 이상 교육수준(31.37세)의 기혼여성이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을 가장 높게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취업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남성의 걱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χ^2	평균	F(T)
2009	0.1	25.3	69.5	5.2	100.0(9,796)		30.38	
2012	0.2	14.2	75.9	9.7	100.0(8,161)		31.03	
연령								
15~29세	-	17.4	71.9	10.6	100.0(385)	208.0***	31.20	74.7***
30~39세	0.1	10.6	73.0	16.3	100.0(2,267)		31.64	
40~49세	0.1	14.9	76.5	8.5	100.0(2,770)		30.89	
50~59세	0.2	15.3	79.5	5.0	100.0(2,328)		30.66	
60세 이상	0.2	20.0	72.5	7.3	100.0(411)		30.58	
혼인상태								
유배우	0.1	13.8	76.2	9.8	100.0(6,981)	10.3	31.06	6.6**
사별	0.4	17.9	72.6	9.1	100.0(547)		30.73	
이혼·별거	0.3	15.0	75.4	9.3	100.0(634)		30.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1	18.9	75.6	5.3	100.0(1,452)	-	30.59	72.8***
고등학교	0.2	14.4	75.8	9.6	100.0(3,711)		30.94	
대학 이상	0.1	11.6	76.3	12.0	100.0(2,996)		31.37	
취업여부								
취업	0.2	14.6	75.6	9.6	100.0(4,084)	1.6	31.02	(0.6)
비취업	0.2	13.7	76.3	9.8	100.0(4,076)		31.05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4-1>과 동일

15~64세 기혼가구 내 기혼남성 응답자는 「남성의 걱정 결혼연령」을 평균 30.34세라고 하였으며, 이는 2009년 조사결과(29.62세) 보다 다소 상승한 것이다.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30.81세), 이혼·별거(30.47세), 대학 이상 교육수준(30.52세)의 기혼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의 평균 걱정 결혼연령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3〉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χ^2	평균	F(T)
2009	1.1	39.1	55.8	3.9	100.0(971)		29.62	
2012	0.2	23.1	70.5	6.2	100.0(1,880)		30.34	
연령								
15~29세	-	21.7	78.3	-	100.0(23)	-	29.99	6.9***
30~39세	-	16.6	75.9	7.5	100.0(253)		30.81	
40~49세	0.5	24.9	65.1	9.5	100.0(567)		30.50	
50~59세	-	23.4	71.5	5.1	100.0(764)		30.21	
60세 이상	0.4	24.9	73.3	1.5	100.0(273)		29.95	
혼인상태								
유배우	0.1	25.0	68.9	6.0	100.0(1,319)	-	30.30	1.2
사별	-	23.2	73.7	3.2	100.0(95)		30.20	
이혼·별거	0.4	18.0	74.3	7.3	100.0(467)		30.4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5	25.1	70.2	4.2	100.0(430)	-	30.02	7.1**
고등학교	-	23.5	69.5	7.0	100.0(834)		30.37	
대학 이상	0.2	21.3	72.0	6.5	100.0(615)		30.52	
취업여부								
취업	0.2	23.7	69.8	6.3	100.0(1,576)	-	30.34	(0.3)
비취업	0.3	20.0	74.1	5.6	100.0(305)		30.3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표 4-1>과 동일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가 생각하는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평균 28.58세로 2009년 조사결과(28.08세) 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적정 결혼연령의 연령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25~29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에서 30~34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구특성별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동부지역 거주가구(28.65세), 가구원 수 3~4인 가구(28.69세),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28.81세), 욕구소득비가 4 이상인 가구(28.84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과 동일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표 4-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χ^2	평균	F(T)
2009	2.8	67.7	28.8	0.7	100.0(9,795)		28.08	
2012	2.0	56.8	39.9	1.3	100.0(10,043)		28.58	
지역								
동부	1.9	55.3	41.4	1.3	100.0(8,667)	68.4***	28.65	(8.5****)
읍·면부	2.8	66.1	30.1	1.0	100.0(1,376)		28.15	
가구원 수								
1인	2.5	66.1	31.1	0.4	100.0(853)	56.1***	27.94	34.5***
2인	2.2	58.2	38.5	1.0	100.0(2,238)		28.57	
3~4인	1.8	54.7	41.9	1.6	100.0(5,902)		28.69	
5인 이상	2.2	58.3	38.3	1.2	100.0(1,050)		28.5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8	65.4	29.6	0.2	100.0(456)	117.0***	27.85	38.6***
100~200 미만	2.7	64.9	31.7	0.7	100.0(1,238)		28.03	
200~300 미만	1.7	57.6	38.8	1.9	100.0(1,949)		28.61	
300~400 미만	2.1	54.9	41.5	1.4	100.0(1,979)		28.68	
400~500 미만	2.0	56.7	40.1	1.2	100.0(1,540)		28.65	
500 이상	1.5	52.9	44.4	1.2	100.0(2,806)		28.81	
교육소득비								
1 미만	5.2	62.8	31.3	0.7	100.0(422)	89.4***	27.95	30.8***
1~2 미만	2.4	61.3	35.3	1.1	100.0(2,084)		28.31	
2~3 미만	1.9	56.0	40.3	1.8	100.0(3,134)		28.66	
3~4 미만	1.9	57.8	39.5	0.8	100.0(1,909)		28.57	
4 이상	1.6	52.4	44.7	1.3	100.0(2,420)		28.84	

주: 1) 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4-1>과 동일

15~64세 기혼가구 내 기혼여성 응답자는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을 평균 28.74세라고 하였으며, 이는 2009년 조사결과(28.08세) 보다 다소 상승한 것이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29.27세), 유배우(28.79세), 대학 이상 교육수준(29.10세)의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5〉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χ^2	평균	F(T)
2009	2.8	67.7	28.8	0.7	100.0(9,795)		28.08	
2012	1.4	55.2	41.9	1.5	100.0(8,162)		28.74	
연령								
15~29세	1.8	64.2	30.3	3.6	100.0(386)	235.5***	28.53	62.1***
30~39세	0.7	44.6	52.0	2.6	100.0(2,267)		29.27	
40~49세	1.3	57.3	40.0	1.4	100.0(2,770)		28.65	
50~59세	1.8	59.3	38.5	0.3	100.0(2,328)		28.48	
60세 이상	3.2	66.3	30.1	0.5	100.0(412)		28.14	
혼인상태								
유배우	1.2	54.4	42.7	1.6	100.0(6,982)	45.9***	28.79	23.0***
사별	3.1	65.2	31.5	0.2	100.0(546)		28.19	
이혼·별거	1.4	54.2	42.5	1.9	100.0(635)		28.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	63.8	34.0	0.4	100.0(1,452)	129.0***	28.33	86.4***
고등학교	1.8	56.8	40.1	1.3	100.0(3,709)		28.62	
대학 이상	0.8	49.0	48.0	2.2	100.0(2,995)		29.10	
취업여부								
취업	1.3	55.9	41.1	1.7	100.0(4,084)	3.6	28.74	(0.1)
비취업	1.4	54.5	42.8	1.3	100.0(4,077)		28.75	

주: 1)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4-1>과 동일

15~64세 기혼가구 내 기혼남성 응답자는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을 평균 27.88세라고 하였으며, 이는 2009년 조사결과(27.21세) 보다 다소 상승한 것이다.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28.36세), 사별(28.04세), 대학 이상 교육수준(28.11세)의 기혼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6〉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χ^2	평균	F(T)
2009	9.4	70.8	19.3	0.5	100.0(969)		27.21	
2012	4.8	64.0	30.8	0.4	100.0(1,882)		27.88	
연령								
15~29세	8.7	52.2	39.1	-	100.0(23)	-	28.21	6.6***
30~39세	3.9	55.5	39.8	0.8	100.0(254)		28.36	
40~49세	6.2	58.6	34.9	0.4	100.0(567)		28.00	
50~59세	3.8	68.3	27.5	0.4	100.0(764)		27.75	
60세 이상	5.1	71.8	22.7	0.4	100.0(273)		27.55	
혼인상태								
유배우	4.8	64.1	30.8	0.4	100.0(1,318)	-	27.94	2.5#
사별	4.2	58.9	36.8	-	100.0(95)		28.04	
이혼·별거	4.9	65.0	29.5	0.6	100.0(468)		27.7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	70.2	24.2	-	100.0(431)	-	27.42	15.2***
고등학교	4.4	61.2	33.5	0.8	100.0(835)		27.96	
대학 이상	4.7	63.4	31.9	-	100.0(614)		28.11	
취업여부								
취업	5.1	63.5	30.9	0.5	100.0(1,576)	4.3	27.91	(1.3)
비취업	3.0	66.4	30.6	-	100.0(304)		27.75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4-1>과 동일

제3절 본인 결혼연령의 적절성

1. 본인 결혼연령의 적절성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적절했음’이 51.4%, ‘빨랐음’ 28.6%, ‘늦었음’ 19.9%로 나타났다. 이를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빨랐음’은 4.2%pt 감소하였고, ‘적절했음’과 ‘늦었음’은 각각 3.4%pt, 0.8%pt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2009년 대비 본인의 결혼연령이 적절했거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이며, 이는 한국인의 초혼연령 상승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특성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52.1%), 가구원 수가 2인 가구(52.7%), 가구소득 및 욕구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본인의 결혼연령이 적절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4-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빨랐음	적절했음	늦었음	모르겠음	계(수)	χ^2
2009	32.8	48.0	19.1	0.1	100.0(9,790)	
2012	28.6	51.4	19.9	0.1	100.0(10,067)	
지역						
동부	27.6	52.1	20.2	0.1	100.0(8,690)	44.0***
읍·면부	35.5	46.8	17.6	0.1	100.0(1,377)	
가구원 수						
1인	36.4	46.2	17.0	0.3	100.0(526)	82.7***
2인	27.3	52.7	20.0	0.0	100.0(1,701)	
3~4인	27.5	51.6	20.8	0.1	100.0(5,035)	
5인 이상	31.5	51.4	16.7	-	100.0(91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8.2	41.7	19.4	0.7	100.0(458)	138.7***
100~200 미만	33.7	44.7	21.6	0.1	100.0(1,245)	
200~300 미만	30.9	48.5	20.6	0.1	100.0(1,950)	
300~400 미만	29.2	48.9	21.7	0.2	100.0(1,983)	
400~500 미만	25.5	55.5	19.0	-	100.0(1,540)	
500 이상	24.2	57.8	17.9	0.0	100.0(2,818)	
욕구소득비						
1 미만	34.0	43.3	22.0	0.7	100.0(423)	128.0***
1~2 미만	35.3	45.7	18.9	0.1	100.0(2,090)	
2~3 미만	28.1	50.3	21.5	0.1	100.0(3,137)	
3~4 미만	26.5	53.6	19.9	0.1	100.0(1,914)	
4 이상	23.9	57.8	18.3	0.0	100.0(2,430)	

주: 1) 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4-1>과 동일

15~64세 기혼가구 내 기혼여성은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해 ‘적절했음’이 51.8%, ‘빨랐음’ 30.3%, ‘늦었음’ 17.8%로 나타났다. 이

는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빨랐음’은 2.5%pt, ‘늦었음’은 1.3%pt 감소한 것이며, ‘적절했음’은 3.8%pt 증가한 것이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40대 연령층(52.8%), 유배우(52.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52.8%), 초혼연령 25~29세 연령층(64.7%)의 ‘적절했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4-8〉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빨랐음	적절했음	늦었음	모르겠음	계(수)	χ^2
2009	32.8	48.0	19.1	0.1	100.0(9,790)	
2012	30.3	51.8	17.8	0.1	100.0(8,178)	
연령						
15~29세	49.9	47.8	2.1	0.3	100.0(387)	-
30~39세	31.5	51.5	16.9	0.1	100.0(2,272)	
40~49세	28.4	52.8	18.7	0.0	100.0(2,776)	
50~59세	28.0	52.1	19.8	0.1	100.0(2,331)	
60세 이상	31.2	49.3	19.5	-	100.0(410)	
혼인상태						75.9***
유배우	29.0	52.9	18.0	0.1	100.0(6,992)	
사별	34.1	52.5	13.3	0.2	100.0(547)	
이혼·별거	40.8	39.1	19.5	0.6	100.0(637)	
교육수준						-
중학교 이하	42.7	42.3	14.8	0.3	100.0(1,454)	
고등학교	30.7	51.2	18.1	0.0	100.0(3,717)	
대학 이상	23.8	57.1	18.9	0.1	100.0(3,005)	
취업여부						-
취업	31.7	50.9	17.3	0.1	100.0(4,094)	
비취업	28.9	52.8	18.2	0.1	100.0(4,083)	
초혼연령						-
19세 이하	88.0	11.0	1.0	-	100.0(525)	
20~24세	46.4	50.2	3.3	0.1	100.0(3,478)	
25~29세	11.9	64.7	23.2	0.1	100.0(3,261)	
30세 이상	1.0	34.6	64.3	0.1	100.0(897)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표 4-1>과 동일

15~64세 기혼가구 내 기혼남성은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해 ‘적절했음’이 49.6%, ‘빨랐음’ 21.5%, ‘늦었음’ 28.9%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빨랐음’은 2.1%pt, ‘늦었음’은 2.6%pt 감소한 것이며, ‘적절했음’은 4.7%pt 증가한 것이다.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30세 미만 연령층(60.9%), 사별(55.8%),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52.6%), 초혼연령 25~29세 연령층(55.9%)의 ‘적절했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9〉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빨랐음	적절했음	늦었음	계(수)	χ^2
2009	23.6	44.9	31.5	100.0(969)	
2012	21.5	49.6	28.9	100.0(1,889)	
연령					
15~29세	39.1	60.9	-	100.0(23)	27.1**
30~39세	22.8	53.1	24.0	100.0(254)	
40~49세	18.9	45.7	35.4	100.0(571)	
50~59세	22.6	50.2	27.2	100.0(769)	
60세 이상	21.3	51.5	27.2	100.0(272)	
혼인상태					
유배우	19.5	50.0	30.5	100.0(1,323)	15.4**
사별	25.3	55.8	18.9	100.0(95)	
이혼·별거	26.5	46.9	26.5	100.0(4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2	39.4	34.3	100.0(432)	32.3***
고등학교	22.9	49.5	27.7	100.0(841)	
대학 이상	16.3	56.9	26.8	100.0(619)	
취업여부					
취업	21.8	49.0	29.2	100.0(1,585)	1.4
비취업	19.9	52.6	27.5	100.0(306)	
초혼연령					
19세 이하	41.0	31.8	27.2	100.0(173)	184.0***
20~24세	28.4	50.5	21.1	100.0(871)	
25~29세	10.6	55.9	33.5	100.0(653)	
30세 이상	9.3	33.8	57.0	100.0(151)	

주: 1)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4-1>과 동일

2. 결혼을 빨리 한 이유

본인의 결혼연령이 ‘빨랐음’(전체의 28.6%)이라고 응답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배우자의 요구로’가 2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특별한 이유 없음’ 29.5%, ‘집안 어른의 권유로’ 19.6%, ‘임신이 되어서’ 17.2% 등의 순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특별한 이유 없음’과 ‘임신이 되어서’가 각각 6.7%pt, 0.8%pt 증가한 것이다.

〈표 4-1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을 빨리 한 이유」¹⁾

(단위: %, 명)

특성	집안 어른의 권유로	배우자의 요구로	임신이 되어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χ^2
2009	25.8	28.9	16.4	5.5	22.8	0.6	100.0(3,202)	
2012	19.6	29.8	17.2	3.6	29.5	0.3	100.0(2,873)	
지역								
동부	18.2	29.4	16.7	3.8	31.8	0.2	100.0(2,385)	51.7***
읍·면부	26.6	32.0	19.9	2.7	18.0	0.8	100.0(488)	
가구원 수								
1인	35.0	23.6	18.1	1.3	21.7	0.3	100.0(309)	128.6***
2인	27.6	29.2	12.4	3.1	27.3	0.3	100.0(612)	
3~4인	15.1	32.0	17.2	4.1	31.3	0.3	100.0(1,621)	
5인 이상	12.7	26.4	25.5	3.9	31.5	-	100.0(330)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5.1	20.6	14.3	0.6	18.3	1.1	100.0(175)	143.5***
100~200 미만	24.9	29.3	18.5	2.4	24.7	0.2	100.0(417)	
200~300 미만	17.7	28.7	21.3	4.3	28.0	-	100.0(600)	
300~400 미만	16.6	33.0	17.3	4.0	29.2	-	100.0(579)	
400~500 미만	16.5	33.8	18.3	3.4	27.1	1.0	100.0(388)	
500 이상	16.6	28.6	13.5	4.4	36.7	0.1	100.0(681)	
육구소득비								
1 미만	28.8	19.9	16.4	1.4	31.5	2.1	100.0(146)	81.1***
1~2 미만	21.7	30.2	21.6	3.8	22.6	0.1	100.0(736)	
2~3 미만	17.8	32.0	18.5	3.3	28.3	0.1	100.0(877)	
3~4 미만	19.3	29.0	15.0	4.7	31.2	0.8	100.0(507)	
4 이상	18.4	29.1	12.7	3.6	36.2	-	100.0(577)	

주: 1) 결혼연령이 빨랐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4-1>과 동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요구로’ 결혼을 빨리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 2인 및 3~4인 가구, 가구소득 100~500만원 미만 가구, 욕구소득비 1~3 미만 가구이었다. ‘집안 어른의 권유로’ 결혼을 빨리한 경우는 1인 가구와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이었다.

기혼여성 응답자 중 본인의 결혼연령이 ‘빨랐음’(전체의 30.3%)이라고 한 경우의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표 4-11〉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을 빨리 한 이유」¹⁾

(단위: %, 명)

특성	집안 어른의 권유로	배우자의 요구로	임신이 되어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χ^2
2009	25.8	28.9	16.4	5.5	22.8	0.6	100.0(3,202)	
2012	18.8	32.2	17.8	3.5	27.5	0.2	100.0(2,467)	
연령								
15~29세	6.2	28.5	47.7	3.1	14.5	-	100.0(193)	-
30~39세	8.4	33.7	16.3	5.3	36.1	0.1	100.0(712)	
40~49세	13.8	36.5	15.7	3.4	30.3	0.3	100.0(783)	
50~59세	32.0	28.5	14.9	1.8	22.6	0.2	100.0(650)	
60세 이상	58.3	23.6	7.9	1.6	7.9	0.8	100.0(127)	
혼인상태								
유배우	15.9	32.7	18.1	3.9	29.2	0.2	100.0(2,023)	149.5***
사별	50.8	24.6	9.6	1.6	13.4	-	100.0(187)	
이혼·별거	18.5	34.0	20.8	1.5	24.3	0.8	100.0(25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9	29.0	13.1	1.0	17.6	0.5	100.0(620)	279.5***
고등학교	13.6	33.6	22.2	4.3	26.0	0.3	100.0(1,136)	
대학 이상	9.6	32.9	14.9	4.4	38.3	-	100.0(712)	
취업여부								
취업	18.0	33.5	16.9	3.2	28.1	0.2	100.0(1,294)	4.1
비취업	19.6	30.9	18.7	3.7	26.7	0.3	100.0(1,174)	
초혼연령								
19세 이하	27.5	37.0	18.8	1.7	14.1	0.9	100.0(462)	-
20~24세	17.4	33.0	16.5	3.4	29.5	0.1	100.0(1,608)	
25~29세	14.0	24.2	21.6	6.2	34.0	-	100.0(385)	
30세 이상	-	12.5	25.0	-	62.5	-	100.0(8)	

주: 1) 결혼연령이 빨랐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4-1>과 동일

‘배우자의 요구로’가 3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특별한 이유 없음’ 27.5% ‘집안 어른의 권유로’ 18.8%, ‘임신이 되어서’ 17.8% 등의 순이었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배우자의 요구로’, ‘특별한 이유 없음’, ‘임신이 되어서’가 증가하였고, ‘집안 어른의 권유로’와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는 감소하였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요구로’ 결혼을 빨리한 경우는 30~49세 연령층 여성, 유배우 및 이혼·별거 여성,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여성, 초혼연령 24세 이하의 여성 등이 많았다. ‘집안 어른의 권유로’ 결혼을 빨리한 경우는 50세 이상 연령층과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여성이었으며, ‘임신이 되어서’ 결혼을 빨리한 경우는 30세 미만 연령층의 기혼여성이었다.

기혼남성 응답자 중 본인의 결혼연령이 ‘빨랐음’(전체의 21.5%)이라고 한 경우의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특별한 이유 없음’이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집안 어른의 권유로’ 24.6%, ‘배우자의 요구로’ 15.3%, ‘임신이 되어서’ 13.9% 등의 순이었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배우자의 요구로’와 ‘특별한 이유 없음’은 증가하였고, ‘임신이 되어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집안 어른의 권유로’는 감소하였다.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요구로’ 결혼을 빨리한 경우는 30~39세 연령층 남성이 많았고, ‘집안 어른의 권유로’ 결혼을 빨리한 경우는 60세 이상 연령층,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 초혼연령이 19세 이하인 남성이었다. 그 밖의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 없음’을 기혼남성이 결혼을 빨리한 이유로 밝혀졌다.

〈표 4-12〉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을 빨리 한 이유」¹⁾

(단위: %, 명)

특성	집안 어른의 권유로	배우자의 요구로	임신이 되어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χ^2
2009	25.4	10.1	20.2	6.6	37.7	-	100.0(228)	
2012	24.6	15.3	13.9	4.2	41.5	0.6	100.0(406)	
연령								
15~29세	11.1	-	44.4	11.1	33.3	-	100.0(9)	-
30~39세	10.3	27.6	15.5	8.6	34.5	3.4	100.0(58)	
40~49세	17.0	20.8	17.9	1.9	42.5	-	100.0(106)	
50~59세	27.7	12.7	9.2	3.5	46.8	-	100.0(173)	
60세 이상	47.4	1.8	14.0	3.5	33.3	-	100.0(57)	
혼인상태								
유배우	26.8	17.1	12.1	3.9	39.3	0.8	100.0(257)	-
사별	37.5	12.5	4.2	4.2	41.7	-	100.0(24)	
이혼·별거	17.6	12.0	19.2	4.8	46.4	-	100.0(12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8	11.4	11.4	3.5	36.8	-	100.0(114)	-
고등학교	19.4	19.9	13.6	5.2	41.9	-	100.0(191)	
대학 이상	20.8	11.9	16.8	3.0	45.5	2.0	100.0(101)	
취업여부								
취업	23.8	16.3	14.2	4.1	41.0	0.6	100.0(344)	-
비취업	27.9	9.8	13.1	4.9	44.3	-	100.0(62)	
초혼연령								
19세 이하	38.6	18.6	11.4	10.0	21.4	-	100.0(70)	-
20~24세	23.2	16.3	12.6	2.8	44.3	0.8	100.0(246)	
25~29세	18.8	11.6	21.7	4.3	43.5	-	100.0(69)	
30세 이상	14.3	7.1	7.1	-	71.4	-	100.0(14)	

주: 1) 결혼연령이 빨랐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4-1>과 동일

3. 결혼을 늦게 한 이유

본인의 결혼연령이 ‘늦었음’(전체의 19.9%)이라고 응답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특별한 이유 없음’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감이 없어서’ 36.1%,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11.4%, ‘취업에 방해가 될까 봐’ 8.1%,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3.8%

등의 순이었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배우자감이 없어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는 증가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음’, ‘취업에 방해가 될까 봐’,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등은 감소하였다.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배우자감이 없어서’는 읍·면부지역 거주 가구, 1인 및 5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 욕구소득비 3 미만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외의 가구특성은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¹⁾

(단위: %, 명)

특성	취업에 방해가 될까봐	배우자 감이 없어서	배우자 의 사정 때문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χ^2
2009	10.9	26.1	4.5	10.1	44.0	4.5	100.0(1,863)	
2012	8.1	36.1	3.8	11.4	38.8	1.7	100.0(1,986)	
지역								
동부	8.4	34.8	3.8	11.6	39.7	1.7	100.0(1,744)	11.8*
읍·면부	6.2	45.5	4.1	9.9	32.2	2.1	100.0(242)	
가구원 수								
1인	3.4	47.3	0.7	21.9	26.0	0.7	100.0(146)	69.6***
2인	7.4	23.3	3.8	16.5	37.5	2.5	100.0(443)	
3~4인	8.4	35.3	3.9	8.6	42.1	1.6	100.0(1,222)	
5인 이상	10.8	42.6	5.7	10.2	29.5	1.1	100.0(176)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4	39.1	-	21.8	34.5	1.1	100.0(87)	85.5**
100~200 미만	4.1	45.1	1.5	19.0	29.5	0.7	100.0(268)	
200~300 미만	6.0	37.7	4.8	13.8	36.7	1.0	100.0(398)	
300~400 미만	9.8	33.7	4.7	10.2	40.0	1.6	100.0(430)	
400~500 미만	10.0	35.1	3.8	6.9	43.0	1.4	100.0(291)	
500 이상	10.2	32.3	4.6	7.8	42.3	2.8	100.0(501)	
욕구소득비								
1 미만	1.1	47.3	-	15.4	35.2	1.1	100.0(91)	70.9***
1~2 미만	4.6	38.3	4.3	16.8	34.7	1.3	100.0(392)	
2~3 미만	9.4	38.1	3.6	10.7	37.6	0.6	100.0(670)	
3~4 미만	9.0	33.5	2.6	12.7	39.8	2.4	100.0(379)	
4 이상	10.0	31.7	5.4	5.9	44.0	2.9	100.0(441)	

주: 1) 결혼이 늦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4-1>과 동일

기혼여성 응답자 중 본인의 결혼연령이 ‘늦었음’(전체의 17.8%)이라고 한 경우의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특별한 이유 없음’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감이 없어서’ 32.9%,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와 ‘취업에 방해가 될까 봐’ 각 8.8%,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4.1% 등의 순이었다.

〈표 4-14〉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¹⁾

(단위: %, 명)

특성	취업에 방해가 될까봐	배우자 감이 없어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χ^2
2009	10.9	26.1	4.5	10.1	44.0	4.5	100.0(1,863)	
2012	8.8	32.9	4.1	8.8	43.7	1.6	100.0(1,442)	
연령								
15~29세	-	25.0	25.0	12.5	37.5	-	100.0(8)	-
30~39세	11.2	32.7	7.0	7.8	39.5	1.8	100.0(385)	
40~49세	5.6	38.1	3.5	5.6	45.5	1.6	100.0(514)	
50~59세	9.6	29.3	2.2	10.7	46.8	1.3	100.0(457)	
60세 이상	14.8	21.0	2.5	23.5	34.6	3.7	100.0(81)	
혼인상태								
유배우	9.5	33.9	4.5	6.2	44.2	1.8	100.0(1,249)	102.8***
사별	2.7	24.7	4.1	35.6	31.5	1.4	100.0(73)	
이혼·별거	5.7	26.8	0.8	20.3	45.5	0.8	100.0(1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7	29.3	1.9	23.3	39.1	1.9	100.0(215)	88.8***
고등학교	7.5	36.1	3.4	7.2	44.8	0.9	100.0(667)	
대학 이상	11.9	30.3	5.9	5.3	44.2	2.3	100.0(561)	
취업여부								
취업	7.6	31.5	4.4	10.9	43.8	1.7	100.0(707)	10.0
비취업	9.9	34.1	3.8	6.8	43.7	1.6	100.0(735)	
초혼연령								
19세 이하	40.0	20.0	-	-	40.0	-	100.0(5)	-
20~24세	3.5	33.3	4.4	17.5	40.4	0.9	100.0(114)	
25~29세	9.4	29.7	4.2	8.5	46.2	2.0	100.0(753)	
30세 이상	8.8	37.0	4.0	7.7	41.1	1.4	100.0(570)	

주: 1) 결혼이 늦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4-1>과 동일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배우자감이 없어서’는 증가하였고, ‘취업에 방해가 될까 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음’ 등은 감소하였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에 상관없이 ‘특별한 이유 없음’이 결혼을 늦게 한 가장 큰 이유이었다.

기혼남성 응답자 중 본인의 결혼연령이 ‘늦었음’(전체의 28.9%)이라고 한 경우의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표 4-15〉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¹⁾

(단위: %, 명)

특성	취업에 방해가 될까봐	배우자 감이 없어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χ^2
2009	7.9	25.8	3.3	32.8	25.2	5.0	100.0(302)	
2012	6.1	44.8	3.1	18.4	25.8	1.8	100.0(543)	
연령								
15~29세	-	-	-	-	-	-	-	-
30~39세	1.7	50.8	1.7	22.0	20.3	3.4	100.0(59)	
40~49세	5.5	47.5	3.5	12.0	30.0	1.5	100.0(200)	
50~59세	7.7	41.8	3.4	19.2	26.0	1.9	100.0(208)	
60세 이상	6.8	41.9	1.4	31.1	18.9	-	100.0(74)	
혼인상태								
유배우	7.8	44.0	3.8	15.0	27.0	2.5	100.0(400)	-
사별	-	41.2	-	41.2	17.6	-	100.0(17)	
이혼·별거	1.6	48.4	0.8	26.6	22.6	-	100.0(1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	55.7	2.7	21.1	16.8	-	100.0(149)	-
고등학교	9.5	41.1	2.6	19.9	25.5	1.3	100.0(231)	
대학 이상	4.3	39.9	4.3	12.9	34.4	4.3	100.0(163)	
취업여부								
취업	7.0	45.0	3.5	16.8	26.0	1.7	100.0(458)	9.6 [#]
비취업	1.2	44.0	1.2	27.4	25.0	1.2	100.0(84)	
초혼연령								
19세 이하	2.2	78.3	4.3	10.9	4.3	-	100.0(46)	-
20~24세	7.1	43.5	2.2	19.6	26.1	1.6	100.0(184)	
25~29세	7.4	41.9	4.1	20.7	22.6	3.2	100.0(217)	
30세 이상	2.4	42.4	1.2	11.8	42.4	-	100.0(85)	

주: 1) 결혼이 늦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4-1>과 동일

‘배우자감이 없어서’가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특별한 이유 없음’ 25.8%,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18.4%, ‘취업에 방해가 될까 봐’ 6.1%,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3.1% 등의 순이었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배우자감이 없어서’는 크게 증가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음’은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취업에 방해가 될까 봐’와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도 감소하였다. 기혼남성의 개인특성에 상관없이 ‘배우자감이 없어서’가 결혼을 늦게 한 가장 큰 이유이었다.

제4절 만혼과 비혼의 원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만혼과 비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0개 항목에 의하여 기혼남녀의 의견을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하여 가구특성과 기혼남녀의 개인특성에 따른 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한다.

1.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의 「(안정된) 직장」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 제시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에 대하여 응답자의 82.4%가 찬성하였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가구특성에 따라서도 큰 차이 없이 찬성률이 매우 높았다. 거주지역별 차이는 0.1%pt, 가구원 수별 최고 차이는 2.1%pt, 가구소득별 최고 차이는 5.4%pt, 욕구소득비별 최고 차이는 2.7%pt이었다. 그 중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찬성률을 보면,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 가구가

86.3%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80.9%의 찬성률을 보였다.

〈표 4-16〉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①

(단위: %, 명)

특성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1.7	15.9	61.7	20.7	100.0(10,053)	
지역						
동부	1.7	15.8	61.3	21.1	100.0(8,677)	9.5*
읍·면부	1.6	16.0	64.8	17.7	100.0(1,376)	
가구원 수						
1인	2.0	16.9	64.6	16.6	100.0(858)	15.9#
2인	1.4	15.3	62.8	20.5	100.0(2,241)	
3~4인	1.9	15.7	61.3	21.2	100.0(5,901)	
5인 이상	1.4	17.1	59.8	21.7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4	11.4	68.8	17.5	100.0(458)	55.6***
100~200 미만	1.5	16.5	62.5	19.5	100.0(1,244)	
200~300 미만	1.2	16.1	61.4	21.3	100.0(1,949)	
300~400 미만	1.0	16.3	59.5	23.2	100.0(1,978)	
400~500 미만	2.0	14.3	60.9	22.8	100.0(1,538)	
500 이상	2.4	16.7	62.5	18.4	100.0(2,813)	
육구소득비						
1 미만	2.8	13.7	63.7	19.7	100.0(422)	44.2***
1~2 미만	1.4	15.5	63.7	19.4	100.0(2,089)	
2~3 미만	1.2	15.9	59.8	23.1	100.0(3,132)	
3~4 미만	1.3	15.7	62.2	20.8	100.0(1,912)	
4 이상	2.7	16.6	61.9	18.8	100.0(2,42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기혼여성의 82.3%가 찬성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뚜렷한 차이 없이 찬성률이 매우 높았다. 30세 미만 연령층(83.1%), 사별(85.1%),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84.3%), 비취업(82.5%)인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은 계층으로 나타났다.

〈표 4-17〉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①

(단위: %, 명)

특성	직장을 구하지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못하거나 안정된 별로 찬성하지 않음	직장을 가지기 대체로 찬성	어려워서 전적으로 찬성	계(수)	χ^2
전체	1.7	15.9	61.7	20.6	100.0(8,165)	
연령						
15~29세	0.5	16.4	58.4	24.7	100.0(385)	20.6 [#]
30~39세	1.6	17.5	61.4	19.4	100.0(2,270)	
40~49세	1.9	16.0	62.0	20.0	100.0(2,772)	
50~59세	1.7	14.3	61.9	22.1	100.0(2,328)	
60세 이상	1.7	15.4	63.4	19.5	100.0(410)	
혼인상태						
유배우	1.7	16.0	61.6	20.6	100.0(6,985)	4.1
사별	1.5	13.4	64.0	21.1	100.0(545)	
이혼·별거	2.0	17.1	60.5	20.4	100.0(63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	14.5	65.3	19.0	100.0(1,455)	32.1 ^{***}
고등학교	1.2	17.0	60.8	21.0	100.0(3,713)	
대학 이상	2.6	15.4	61.0	21.0	100.0(3,000)	
취업여부						
취업	1.6	16.2	61.3	20.8	100.0(4,090)	1.7
비취업	1.9	15.6	62.1	20.4	100.0(4,07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우리 사회에서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기혼남성도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의 82.8%가 이 의견에 동의하였다.

기혼남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뚜렷한 차이 없이 찬성률이 매우 높았다. 특히, 15~29세 연령층(95.8%), 사별(88.4%),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83.1%), 비취업(84.6%)인 기혼남성의 찬성률이 타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82.3%와 기혼남성의 82.8%가 한국사회의 비혼 및 만혼의 원인으로 ‘(안정된) 직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결혼적령기의 직장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당위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18〉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①

(단위: %, 명)

특성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1.7	15.5	61.9	20.9	100.0(1,888)		
연령							
15~29세	-	4.2	70.8	25.0	100.0(24)	7.7	
30~39세	1.6	13.0	62.1	23.3	100.0(253)		
40~49세	1.2	15.8	61.3	21.7	100.0(571)		
50~59세	2.0	15.9	62.2	19.9	100.0(767)		
60세 이상	2.2	17.2	61.5	19.0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1.6	15.3	60.1	23.1	100.0(1,322)	30.1***	
사별	5.3	6.3	76.8	11.6	100.0(95)		
이혼·별거	1.3	18.1	64.2	16.4	100.0(46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9	16.7	65.9	15.5	100.0(431)	12.3#	
고등학교	1.3	15.5	59.5	23.6	100.0(838)		
대학 이상	1.9	14.9	62.2	20.9	100.0(617)		
취업여부							
취업	1.6	15.9	61.5	21.0	100.0(1,581)	1.2	
비취업	1.6	13.8	64.5	20.1	100.0(30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2.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의 「결혼비용」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 제시된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에 대하여 응답자의 77.0%가 찬성하였다. 결혼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가구의 모든 특성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동부지역 거주가구(77.3%), 2인 가구원의 가구

(77.5%), 200~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80.7%), 육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가구(79.6%)가 결혼비용 부담이 결혼의 장애요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4-1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②

(단위: %, 명)

특성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1.8	21.3	55.4	21.6	100.0(10,051)	
지역						
동부	1.8	20.9	55.1	22.2	100.0(8,675)	19.1***
읍·면부	1.6	24.0	57.0	17.4	100.0(1,376)	
가구원 수						
1인	2.8	23.7	50.4	23.1	100.0(856)	21.8**
2인	2.1	20.5	55.6	21.9	100.0(2,242)	
3~4인	1.5	21.2	56.3	21.1	100.0(5,901)	
5인 이상	2.4	21.5	53.7	22.4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8	21.7	55.1	21.4	100.0(457)	66.6***
100~200 미만	1.8	20.7	53.9	23.6	100.0(1,244)	
200~300 미만	1.4	17.9	56.2	24.5	100.0(1,949)	
300~400 미만	1.3	20.9	54.4	23.4	100.0(1,980)	
400~500 미만	1.7	21.6	54.6	22.1	100.0(1,536)	
500 이상	2.3	23.5	57.0	17.2	100.0(2,814)	
육구소득비						
1 미만	2.1	18.2	56.6	23.0	100.0(422)	67.0***
1~2 미만	1.4	20.4	54.5	23.7	100.0(2,088)	
2~3 미만	1.2	19.8	55.1	23.9	100.0(3,134)	
3~4 미만	2.3	20.9	55.8	21.0	100.0(1,910)	
4 이상	2.2	24.3	56.4	17.1	100.0(2,42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기혼 여성의 77.2%가 찬성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모든 특성에서 찬성률이 높았는데,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85.0%), 유배우(77.3%), 고등학교 교육수준(78.0%), 비취업(77.7%)인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표 4-20〉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②

(단위: %, 명)

특성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1.6	21.1	55.6	21.6	100.0(8,167)	
연령						
15~29세	1.0	14.0	57.0	28.0	100.0(386)	67.4***
30~39세	1.0	18.8	59.7	20.5	100.0(2,271)	
40~49세	2.0	22.3	55.7	20.1	100.0(2,773)	
50~59세	1.9	22.1	52.6	23.4	100.0(2,330)	
60세 이상	2.0	27.8	47.7	22.6	100.0(407)	
혼인상태						
유배우	1.6	21.0	56.2	21.1	100.0(6,984)	13.1*
사별	1.6	22.4	49.4	26.6	100.0(545)	
이혼·별거	1.9	20.9	54.0	23.2	100.0(6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	22.5	52.5	23.2	100.0(1,454)	8.7
고등학교	1.6	20.4	56.1	21.9	100.0(3,713)	
대학 이상	1.6	21.4	56.4	20.6	100.0(3,001)	
취업여부						
취업	1.7	21.4	56.0	20.8	100.0(4,091)	3.8
비취업	1.5	20.8	55.2	22.5	100.0(4,07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기혼남성의 75.6%가 찬성하였다. 또한 기혼남성의 모든 특성에서 찬성률이 높았는데,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91.3%), 이혼·별거(77.1%), 고등학교 교육수준(78.6%), 비취업(81.9%)인 기혼남성이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77.2%와 기혼남성의 75.6%가 한국사회의 비혼 및 만혼의 원인으로 ‘결혼비용 부담’을 들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안정된) 직장’의 중요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족형성의 큰 장애요인임에 틀림없다. 결혼비용 부담은 우리 스스로 결혼문화를 변화시키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성 높은 결혼부담 완화정책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
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분석결과라 하겠다.

〈표 4-21〉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②

(단위: %, 명)

특성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2.4	22.0	54.4	21.2	100.0(1,884)	
연령						
15~29세	-	8.7	60.9	30.4	100.0(23)	30.8***
30~39세	0.8	13.0	60.1	26.1	100.0(253)	
40~49세	2.3	22.5	54.4	20.9	100.0(570)	
50~59세	2.6	23.8	51.9	21.7	100.0(765)	
60세 이상	4.0	25.3	55.3	15.4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2.3	21.8	55.4	20.5	100.0(1,321)	9.7
사별	4.2	31.6	45.3	18.9	100.0(95)	
이혼·별거	2.6	20.3	53.4	23.7	100.0(46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	29.2	49.0	19.3	100.0(431)	19.4
고등학교	1.9	19.5	56.3	22.3	100.0(837)	
대학 이상	2.9	20.3	55.6	21.2	100.0(617)	
취업여부						
취업	2.5	23.1	54.0	20.5	100.0(1,579)	9.1*
비취업	2.0	16.1	56.6	25.3	100.0(30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3.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의 「독신 삶 선호」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 제시된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에 대하여 응답자의 66.6%가 찬성하였다. 가구특성별로 찬성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동부지역 거주가구(66.9%),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300~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68.0%), 욕구소득비

2~3 미만인 가구(69.5%)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표 4-2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③

(단위: %, 명)

특성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3.9	29.5	54.3	12.3	100.0(10,050)	
지역						
동부	3.9	29.2	54.0	12.9	100.0(8,673)	21.6***
읍·면부	3.9	31.3	56.3	8.5	100.0(1,377)	
가구원 수						
1인	5.8	35.4	47.5	11.2	100.0(856)	69.5***
2인	4.3	32.9	49.8	12.9	100.0(2,242)	
3~4인	3.7	27.6	56.4	12.3	100.0(5,899)	
5인 이상	2.2	27.8	58.1	11.9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3	37.1	49.8	9.9	100.0(456)	48.6***
100~200 미만	4.2	33.7	47.9	14.2	100.0(1,244)	
200~300 미만	3.3	30.2	54.8	11.7	100.0(1,949)	
300~400 미만	4.5	27.4	56.2	11.8	100.0(1,979)	
400~500 미만	4.4	27.6	55.4	12.6	100.0(1,535)	
500 이상	3.5	28.7	55.4	12.4	100.0(2,813)	
육구소득비						
1 미만	3.6	35.1	50.0	11.4	100.0(422)	49.6***
1~2 미만	2.5	32.8	51.8	12.8	100.0(2,089)	
2~3 미만	4.2	26.3	56.9	12.6	100.0(3,133)	
3~4 미만	4.0	30.3	54.8	10.9	100.0(1,910)	
4 이상	4.6	29.4	53.3	12.8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 제시된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68.1%가 찬성하였다. 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30대 연령층(74.5%), 이혼·별거(64.3%), 대학 이상 교육수준(71.3%)의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렇지만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3〉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③

(단위: %, 명)

특성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3.7	28.2	55.9	12.2	100.0(8,164)	
연령						
15~29세	1.8	28.8	56.4	13.0	100.0(385)	109.7***
30~39세	2.6	22.9	61.1	13.4	100.0(2,269)	
40~49세	3.6	28.0	56.6	11.8	100.0(2,774)	
50~59세	4.5	32.1	51.5	11.9	100.0(2,330)	
60세 이상	7.9	35.7	45.8	10.6	100.0(406)	
혼인상태						
유배우	3.4	27.5	56.8	12.2	100.0(6,983)	44.5***
사별	8.1	31.7	48.0	12.3	100.0(546)	
이혼·별거	3.6	32.0	51.6	12.7	100.0(6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3	35.4	52.8	7.5	100.0(1,453)	80.4***
고등학교	3.3	28.1	55.3	13.3	100.0(3,713)	
대학 이상	3.9	24.8	58.0	13.3	100.0(3,000)	
취업여부						
취업	4.4	27.7	56.6	11.4	100.0(4,091)	15.4**
비취업	3.1	28.6	55.1	13.2	100.0(4,07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 제시된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에 대하여 기혼남성의 60.3%가 찬성하였다. 이 찬성률은 <표 4-23>의 기혼여성 찬성률 68.1% 보다 7.8%pt 낮은 것이다. 따라서 ‘독신의 삶’에 대한 선호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남성의 이 항목에 대한 찬성률은 반대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남성의 모든 개인특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69.5%), 사별(61.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렇지만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4〉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③

(단위: %, 명)

특성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4.5	35.3	47.8	12.5	100.0(1,885)	
연령						
15~29세	-	30.4	47.8	21.7	100.0(23)	23.7*
30~39세	3.6	30.8	51.0	14.6	100.0(253)	
40~49세	3.2	33.8	51.8	11.2	100.0(571)	
50~59세	4.7	37.5	44.3	13.5	100.0(765)	
60세 이상	7.7	36.6	46.2	9.5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3.9	35.6	47.1	13.4	100.0(1,322)	8.4
사별	4.2	34.4	50.0	11.5	100.0(96)	
이혼·별거	6.4	34.2	49.1	10.3	100.0(46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1	40.0	43.7	8.1	100.0(430)	33.6***
고등학교	2.9	34.7	49.6	12.8	100.0(836)	
대학 이상	4.2	32.7	48.0	15.1	100.0(617)	
취업여부						
취업	4.6	35.3	47.2	12.9	100.0(1,581)	2.5
비취업	3.9	35.1	50.8	10.2	100.0(30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4.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의 「결혼생활 부담」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 제시된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에 대하여 응답자의 50.6%가 찬성하였고, 49.3%가 반대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만혼과 비혼의 원인 10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찬성률은 보인 것이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약 절반이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가구특성별로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 항목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

대하는 비율보다 높은 특성은 동부지역 거주가구(51.3%), 가구원 수 3인 이상 가구(52.4% 이상), 가구소득 200~500만원 미만 가구(51.7% 이상), 욕구소득비 1~4 미만인 가구(50.6% 이상)이었다. 이와는 달리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은 특성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53.3%), 가구원 수 1~2인 가구(52.7% 이상),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구(53.3% 이상) 등이었다.

〈표 4-2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④

(단위: %, 명)

특성	시택·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4.8	44.5	42.8	7.8	100.0(10,050)	
지역						
동부	4.5	44.2	43.1	8.2	100.0(8,673)	32.6***
읍·면부	7.0	46.3	41.5	5.2	100.0(1,377)	
가구원 수						
1인	6.7	49.6	35.9	7.8	100.0(855)	60.2***
2인	6.6	46.1	39.9	7.5	100.0(2,243)	
3~4인	4.2	43.2	44.8	7.7	100.0(5,900)	
5인 이상	3.2	44.3	43.6	8.8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7	51.4	37.6	7.2	100.0(457)	81.3***
100~200 미만	7.5	45.8	38.6	8.1	100.0(1,243)	
200~300 미만	5.3	40.0	46.5	8.2	100.0(1,949)	
300~400 미만	4.1	42.6	44.4	8.8	100.0(1,979)	
400~500 미만	4.4	43.8	43.3	8.4	100.0(1,535)	
500 이상	4.2	47.9	42.0	5.9	100.0(2,814)	
욕구소득비						
1 미만	5.0	48.5	39.5	7.1	100.0(423)	48.9***
1~2 미만	5.4	43.1	42.8	8.7	100.0(2,087)	
2~3 미만	4.1	41.9	45.6	8.4	100.0(3,135)	
3~4 미만	5.3	44.1	43.2	7.4	100.0(1,909)	
4 이상	4.9	49.0	40.0	6.1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 제시된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52.5%가 찬성하였고, 47.5%는 반대하였다. 15~49세(51.3% 이상), 유배우(53.6%),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52.5% 이상), 비취업(55.6%) 기혼여성은 이 항목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이와는 달리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은 기혼여성은 50세 이상(53.0% 이상),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56.2%), 취업(50.6%) 등의 특성을 가졌다.

〈표 4-26〉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④

(단위: %, 명)

특성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4.3	43.2	44.8	7.7	100.0(8,168)	
연령						
15~29세	3.1	30.1	57.0	9.8	100.0(386)	156.4***
30~39세	2.8	37.5	49.9	9.9	100.0(2,271)	
40~49세	4.5	44.2	44.6	6.7	100.0(2,774)	
50~59세	5.3	47.7	40.2	6.8	100.0(2,330)	
60세 이상	7.1	54.1	32.4	6.4	100.0(407)	
혼인상태						
유배우	4.1	42.4	45.8	7.8	100.0(6,983)	31.5***
사별	7.3	48.0	37.9	6.8	100.0(546)	
이혼·별거	4.4	47.9	39.6	8.2	100.0(6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	50.6	39.6	4.1	100.0(1,453)	84.5***
고등학교	4.0	43.5	44.7	7.8	100.0(3,713)	
대학 이상	4.1	39.2	47.3	9.4	100.0(3,001)	
취업여부						
취업	4.4	46.2	41.9	7.5	100.0(4,092)	33.3***
비취업	4.2	40.1	47.7	7.9	100.0(4,07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 제시된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에 대하여 기혼남성의 57.3%가 반대하였고, 42.7%가 찬성하였다. 이는 <표 4-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혼여성의 응답결과(찬성 52.5%, 반대 47.5%)와 상반된 것으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결혼생활에 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계층은 15~39세 연령층(53.5% 이상)과 이혼·별거(50.6%)인 기혼남성이었다. 특히, 반대율이 높은 계층은 60세 이상(64.0%), 사별(63.5%),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67.1%)의 기혼남성이었다.

<표 4-27>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④

(단위: %, 명)

특성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6.9	50.4	34.5	8.2	100.0(1,884)	
연령						58.1***
15~29세	-	39.1	60.9	-	100.0(23)	
30~39세	3.1	43.3	43.3	10.2	100.0(254)	
40~49세	4.2	53.3	35.1	7.4	100.0(570)	
50~59세	7.8	51.1	31.8	9.3	100.0(765)	
60세 이상	14.0	50.0	30.5	5.5	100.0(272)	
혼인상태						21.8**
유배우	6.7	53.1	33.1	7.2	100.0(1,321)	
사별	8.3	55.2	30.2	6.3	100.0(96)	
이혼·별거	7.5	41.9	39.3	11.3	100.0(468)	
교육수준						28.2***
중학교 이하	9.5	57.6	28.2	4.6	100.0(432)	
고등학교	6.3	47.7	35.8	10.2	100.0(837)	
대학 이상	6.0	49.0	36.9	8.1	100.0(616)	
취업여부						1.6
취업	6.6	50.7	34.5	8.2	100.0(1,581)	
비취업	8.6	48.7	34.2	8.6	100.0(30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5.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의 「결혼의 의무와 역할」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 제시된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에 대하여 응답자의 56.1%가 찬성하였고, 43.9%가 반대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만혼과 비혼의 원인 10개 항목 중 비교적 낮은 찬성률을 보인 것이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항목을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결혼생활 및 가족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표 4-28〉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⑤

특성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4.6	39.3	47.2	8.9	100.0(10,050)	
지역						
동부	4.2	38.8	47.6	9.4	100.0(8,674)	41.3***
읍·면부	6.6	42.8	45.	5.5	100.0(1,376)	
가구원 수						
1인	6.7	46.4	39.3	7.6	100.0(857)	82.3***
2인	6.2	41.9	43.2	8.6	100.0(2,242)	
3~4인	3.8	37.4	49.6	9.2	100.0(5,900)	
5인 이상	3.4	39.0	49.1	8.5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8	45.1	41.8	8.3	100.0(457)	58.5***
100~200 미만	7.2	41.9	43.2	7.6	100.0(1,244)	
200~300 미만	4.8	36.4	49.9	8.9	100.0(1,949)	
300~400 미만	3.7	38.2	47.4	10.7	100.0(1,978)	
400~500 미만	4.2	38.8	48.7	8.4	100.0(1,535)	
500 이상	4.0	40.5	47.3	8.3	100.0(2,812)	
육구소득비						
1 미만	4.3	41.0	45.0	9.7	100.0(422)	22.7*
1~2 미만	5.0	39.4	47.5	8.0	100.0(2,088)	
2~3 미만	4.1	37.7	48.4	9.8	100.0(3,135)	
3~4 미만	5.1	38.6	46.8	9.5	100.0(1,910)	
4 이상	4.4	41.7	46.4	7.5	100.0(2,42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특성별로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 항목에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은 계층은 1인 가구(53.1%) 뿐이었고, 다른 계층은 모두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았다.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 제시된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57.6%가 찬성하였고, 42.4%는 반대하였다.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은 기혼여성은 60세 이상(55.9%), 사별(51.5%),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52.8%) 등의 특성을 가졌다. 그 외 계층의 기혼여성은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표 4-29〉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⑤

(단위: %, 명)

특성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4.1	38.3	48.4	9.2	100.0(8,167)	
연령						
15~29세	1.3	29.1	59.5	10.1	100.0(385)	174.4***
30~39세	2.1	32.2	55.2	10.6	100.0(2,270)	
40~49세	4.9	39.7	47.4	8.0	100.0(2,774)	
50~59세	5.6	42.0	43.1	9.3	100.0(2,330)	
60세 이상	4.2	51.7	37.0	7.1	100.0(408)	
혼인상태						
유배우	4.0	37.2	49.6	9.3	100.0(6,983)	43.0***
사별	6.4	45.1	42.1	6.4	100.0(546)	
이혼·별거	3.6	45.0	41.1	10.3	100.0(63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4	47.4	41.4	5.8	100.0(1,453)	115.4***
고등학교	4.4	38.6	47.7	9.3	100.0(3,713)	
대학 이상	3.0	33.6	52.7	10.6	100.0(2,999)	
취업여부						
취업	4.7	40.9	46.0	8.4	100.0(4,091)	36.4***
비취업	3.5	35.7	50.8	10.0	100.0(4,07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에 대하여 기혼남성의 49.8%가 찬성하였고, 50.2%가 반대하였다. 이는 <표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혼여성의 응답결과(찬성 57.6%, 반대 42.4%)와 상반된 것으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결혼생활에서의 의무와 역할에 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계층은 30~39세 연령층(57.3%), 이혼·별거(55.3%), 고등학교 교육수준(54.2%)의 기혼남성이었다. 이외는 달리 반대율이 찬성률 보다 높은 계층은 40세 이상 연령층(50.5% 이상), 유배우(51.8%), 비취업(51.5%)의 기혼남성이었다.

<표 4-30>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⑤

(단위: %, 명)

특성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6.5	43.7	42.3	7.5	100.0(1,881)	
연령						48.2***
15~29세	-	50.0	50.0	-	100.0(22)	
30~39세	3.2	37.5	50.6	8.7	100.0(253)	
40~49세	4.0	47.4	43.7	4.9	100.0(570)	
50~59세	7.7	42.8	39.8	9.7	100.0(764)	
60세 이상	11.8	43.8	37.9	6.6	100.0(272)	
혼인상태						16.6***
유배우	5.8	46.0	40.7	7.5	100.0(1,321)	
사별	6.3	49.0	38.5	6.3	100.0(96)	
이혼·별거	8.5	36.1	47.2	8.1	100.0(468)	
교육수준						33.5***
중학교 이하	10.5	48.6	36.0	4.9	100.0(430)	
고등학교	5.1	40.7	44.4	9.8	100.0(836)	
대학 이상	5.7	44.3	43.7	6.3	100.0(616)	
취업여부						3.1
취업	6.1	43.9	42.3	7.7	100.0(1,580)	
비취업	8.9	42.6	41.3	7.2	100.0(30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6.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의 「꼭 결혼해야 한다」의 생각의 약해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 제시된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에 대하여 응답자의 68.3%가 찬성하였다. 가구특성에 상관없이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았다. 그렇지만 찬성률은 가구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동부지역 거주가구(69.5%),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100 만원 이상 소득에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욕구소득비 4 미만에서는 욕구소득비가 증가할수록 찬성률이 증가하였다.

〈표 4-3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⑥

(단위: %, 명)

특성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3.1	28.7	57.6	10.7	100.0(10,048)	
지역						
동부	3.0	27.6	58.2	11.3	100.0(8,673)	52.5***
읍·면부	3.5	35.6	54.1	6.8	100.0(1,375)	
가구원 수						
1인	3.4	38.0	50.8	7.8	100.0(856)	63.8***
2인	4.0	29.6	55.3	11.1	100.0(2,243)	
3~4인	2.9	27.5	58.9	10.7	100.0(5,898)	
5인 이상	1.9	25.9	60.8	11.4	100.0(1,05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0	33.4	56.1	8.5	100.0(458)	56.4***
100~200 미만	3.9	32.2	53.9	10.1	100.0(1,244)	
200~300 미만	3.2	31.6	54.6	10.6	100.0(1,950)	
300~400 미만	3.3	29.0	57.5	10.2	100.0(1,978)	
400~500 미만	3.0	28.5	58.6	9.9	100.0(1,535)	
500 이상	2.7	24.5	61.1	11.7	100.0(2,813)	
욕구소득비						
1 미만	2.8	31.8	54.3	11.1	100.0(422)	29.7**
1~2 미만	2.5	31.5	55.6	10.4	100.0(2,088)	
2~3 미만	2.8	29.3	57.7	10.2	100.0(3,134)	
3~4 미만	4.1	25.5	59.2	11.1	100.0(1,910)	
4 이상	3.0	27.7	58.6	10.7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는 제시된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69.8%가 찬성하였다. 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30대 연령층(73.2%), 유배우(70.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70.8%)의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표 4-32〉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⑥

(단위: %, 명)

특성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2.8	27.5	58.9	10.9	100.0(8,167)	
연령						62.1***
15~29세	1.8	39.4	48.7	10.1	100.0(386)	
30~39세	2.0	24.7	61.5	11.7	100.0(2,270)	
40~49세	3.1	26.4	59.8	10.6	100.0(2,774)	
50~59세	3.1	28.3	57.4	11.2	100.0(2,329)	
60세 이상	2.9	34.6	55.1	7.4	100.0(408)	
혼인상태						23.1**
유배우	2.7	26.6	59.8	10.9	100.0(6,981)	
사별	3.3	32.4	51.6	12.8	100.0(547)	
이혼·별거	3.0	32.3	55.3	9.4	100.0(638)	
교육수준						88.3***
중학교 이하	2.6	33.7	55.5	8.1	100.0(1,452)	
고등학교	3.0	29.2	57.5	10.3	100.0(3,713)	
대학 이상	2.5	22.3	62.2	13.0	100.0(2,999)	
취업여부						4.4
취업	2.9	28.3	57.9	10.8	100.0(4,089)	
비취업	2.6	26.6	59.9	10.9	100.0(4,07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는 제시된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에 대하여 기혼남성의 61.8%가 찬성하였다. 이 찬성률은 <표 4-32>의 기혼여성 찬성률 69.8% 보다 8.0%pt 낮은 것이다. 따라서 ‘결혼 필요성의 약화’가 남성보다 여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혼남성의 이 항목에 대한 찬성률은 반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15~29세 연령층 기혼남성(반대 52.2%, 찬성 47.8%)을 제외한 모든 개인특성에서 높았다. 특히, 40대 연령층(62.8%), 사별(65.3%), 고등학교 학력(64.9%), 취업(62.4%) 기혼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표 4-33〉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⑥

(단위: %, 명)

특성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4.4	33.9	52.1	9.7	100.0(1,884)	
연령						
15~29세	-	52.2	30.4	17.4	100.0(23)	11.7
30~39세	4.3	34.0	51.8	9.9	100.0(253)	
40~49세	3.3	33.9	54.0	8.8	100.0(570)	
50~59세	5.4	32.7	51.8	10.2	100.0(765)	
60세 이상	4.4	35.5	50.9	9.2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3.7	33.6	52.3	10.4	100.0(1,321)	11.9 [#]
사별	5.3	29.5	60.0	5.3	100.0(95)	
이혼·별거	6.4	35.5	49.7	8.4	100.0(46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37.5	47.5	6.3	100.0(432)	39.7 ^{***}
고등학교	2.6	32.4	53.0	11.9	100.0(837)	
대학 이상	3.9	33.3	53.9	8.9	100.0(616)	
취업여부						
취업	4.7	32.8	52.8	9.6	100.0(1,580)	5.2
비취업	3.3	39.0	47.9	9.8	100.0(30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7.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는 「교육기간」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는 제시된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에 대하여 응답자의 60.6%가 찬성하였으며, 가구특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동부지역 거주가구(61.0%), 3~4인 가구원을 가진 가구(61.4%),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63.6%), 육구소득비 4 이상인 가구(62.8%)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표 4-3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⑦

(단위: %, 명)

특성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3.6	35.7	51.5	9.1	100.0(10,050)	
지역						
동부	3.6	35.5	51.6	9.4	100.0(8,673)	6.8 [#]
읍·면부	4.1	37.2	51.2	7.5	100.0(1,377)	
가구원 수						
1인	5.3	37.1	48.6	9.0	100.0(856)	18.5 [*]
2인	4.4	35.8	51.2	8.6	100.0(2,242)	
3~4인	3.2	35.4	52.2	9.2	100.0(5,898)	
5인 이상	3.0	36.4	50.9	9.7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7	35.8	52.6	7.9	100.0(458)	31.2 ^{**}
100~200 미만	4.7	36.2	49.2	10.0	100.0(1,244)	
200~300 미만	3.5	38.3	49.7	8.5	100.0(1,950)	
300~400 미만	3.6	36.5	49.9	9.9	100.0(1,978)	
400~500 미만	2.9	36.9	51.4	8.8	100.0(1,536)	
500 이상	3.7	32.7	54.7	8.9	100.0(2,813)	
육구소득비						
1 미만	3.5	38.5	50.4	7.6	100.0(423)	14.1
1~2 미만	3.5	37.6	49.2	9.7	100.0(2,089)	
2~3 미만	3.5	36.1	51.5	8.9	100.0(3,132)	
3~4 미만	3.9	35.7	51.4	9.0	100.0(1,910)	
4 이상	3.8	33.4	53.7	9.1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 제시된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61.6%가 찬성하였다. 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라서 찬성률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50대 연령층(63.9%), 유배우(62.0%), 대학 이상 교육수준(65.3%)의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렇지만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35〉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⑦

(단위: %, 명)

특성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3.3	35.1	52.5	9.1	100.0(8,164)	
연령						42.1***
15~29세	6.7	36.0	49.7	7.5	100.0(386)	
30~39세	2.9	38.1	50.1	8.9	100.0(2,269)	
40~49세	3.5	33.6	53.7	9.2	100.0(2,773)	
50~59세	2.8	33.2	53.9	10.0	100.0(2,329)	
60세 이상	3.2	39.3	51.6	5.9	100.0(407)	
혼인상태						13.4*
유배우	3.2	34.7	52.9	9.1	100.0(6,983)	
사별	3.6	34.4	53.8	8.1	100.0(546)	
이혼·별거	3.6	40.5	45.8	10.0	100.0(637)	
교육수준						45.1***
중학교 이하	3.4	36.0	54.2	6.3	100.0(1,454)	
고등학교	3.4	37.6	49.9	9.1	100.0(3,713)	
대학 이상	3.0	31.7	54.8	10.5	100.0(2,998)	
취업여부						2.6
취업	3.3	35.0	53.0	8.6	100.0(4,090)	
비취업	3.2	35.3	52.0	9.6	100.0(4,07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에 대하여 기혼남성의 56.7%가 찬성하였고, 반대율은 43.4%이었다.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15~29세 연령층(반대율 59.1%, 찬성률 40.9%)을 제외하고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여부를 불문하고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았다. 비교적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계층은 50대 연령층(58.4%), 사별(66.3%), 비취업(57.7%)의 기혼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렇지만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의견 차이가 미미하였다.

〈표 4-36〉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⑦

(단위: %, 명)

특성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5.2	38.2	47.6	9.1	100.0(1,882)	
연령						11.1
15~29세	-	59.1	31.8	9.1	100.0(22)	
30~39세	4.4	40.9	46.0	8.7	100.0(252)	
40~49세	5.1	39.5	46.0	9.5	100.0(570)	
50~59세	5.8	35.8	48.6	9.8	100.0(765)	
60세 이상	4.8	38.1	50.5	6.6	100.0(273)	
혼인상태						22.6**
유배우	4.5	39.7	46.8	9.0	100.0(1,322)	
사별	8.4	25.3	64.2	2.1	100.0(95)	
이혼·별거	6.4	36.5	46.2	10.9	100.0(468)	
교육수준						67.3***
중학교 이하	9.5	33.9	51.5	5.1	100.0(431)	
고등학교	3.1	40.2	43.0	13.7	100.0(838)	
대학 이상	5.0	38.4	50.9	5.7	100.0(617)	
취업여부						5.3
취업	5.7	37.9	47.5	8.9	100.0(1,581)	
비취업	2.6	39.7	47.5	10.2	100.0(30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8.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의 「배우자 기대수준」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는 제시된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에 대하여 응답자의 76.4%가 찬성하였다. 이 의견은 가구의 모든 특성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동부지역 거주가구(77.0%),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4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77.6%), 욕구소득비 2~3 미만의 가구(77.7%)가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만혼과 비혼이 발생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3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⑧

(단위: %, 명)

특성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2.0	21.6	60.2	16.2	100.0(10,050)	
지역						
동부	1.9	21.2	60.1	16.9	100.0(8,673)	30.0***
읍·면부	3.1	23.9	60.9	12.1	100.0(1,377)	
가구원 수						
1인	2.5	25.2	59.3	13.0	100.0(856)	34.6***
2인	2.9	22.5	58.2	16.4	100.0(2,242)	
3~4인	1.8	21.2	60.4	16.6	100.0(5,899)	
5인 이상	1.4	18.5	63.7	16.3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4	23.6	63.9	10.1	100.0(457)	42.7***
100~200 미만	2.8	22.2	60.1	14.9	100.0(1,244)	
200~300 미만	2.7	21.4	61.2	14.7	100.0(1,950)	
300~400 미만	1.4	22.9	58.4	17.3	100.0(1,977)	
400~500 미만	1.4	21.0	59.4	18.2	100.0(1,536)	
500 이상	2.0	20.4	61.3	16.3	100.0(2,812)	
욕구소득비						
1 미만	2.4	23.9	63.6	10.2	100.0(423)	35.0***
1~2 미만	2.3	21.9	61.8	13.9	100.0(2,088)	
2~3 미만	1.9	20.4	60.3	17.4	100.0(3,133)	
3~4 미만	1.8	22.6	57.3	18.2	100.0(1,910)	
4 이상	2.1	21.5	61.1	15.3	100.0(2,42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기혼여성의 78.0%가 찬성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모든 특성에

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았는데, 특히 30대 연령층(79.6%), 유배우(78.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78.4%)인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표 4-38〉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⑧

(단위: %, 명)

특성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1.6	20.5	61.0	17.0	100.0(8,164)	
연령						53.0***
15~29세	2.1	19.7	54.1	24.1	100.0(386)	
30~39세	1.1	19.3	61.9	17.7	100.0(2,270)	
40~49세	1.8	21.3	60.5	16.4	100.0(2,773)	
50~59세	1.6	19.5	61.8	17.1	100.0(2,328)	
60세 이상	2.5	27.8	60.9	8.8	100.0(407)	
혼인상태						14.7*
유배우	1.5	20.0	61.3	17.2	100.0(6,981)	
사별	2.2	22.2	61.5	14.1	100.0(546)	
이혼·별거	2.2	24.5	57.0	16.3	100.0(637)	
교육수준						49.2***
중학교 이하	2.1	21.2	65.0	11.7	100.0(1,453)	
고등학교	1.8	20.4	60.9	16.9	100.0(3,714)	
대학 이상	1.1	20.4	58.9	19.6	100.0(3,000)	
취업여부						2.4
취업	1.7	20.8	61.0	16.4	100.0(4,089)	
비취업	1.5	20.2	60.9	17.5	100.0(4,07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기혼남성의 69.8%가 찬성하였다. 또한 기혼남성의 모든 특성에서 찬성률이 높았는데,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73.6%), 사별(70.6%), 고등학교 교육수준(72.1%), 비취업(70.5%)인 기혼남성이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표 4-38>과 <표 4-39>를 비교하면,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 제시된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에 대한 찬성률은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8.2%pt 높았다. 이는 여성이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만혼 및 비혼이 나타난다는 의견에 대해 남성보다 더 많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4-39〉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⑧

(단위: %, 명)

특성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4.1	26.2	56.9	12.9	100.0(1,885)	
연령						
15~29세	-	30.4	65.2	4.3	100.0(23)	23.7*
30~39세	2.0	30.0	56.1	11.9	100.0(253)	
40~49세	4.4	28.1	57.3	10.1	100.0(572)	
50~59세	5.1	24.2	57.2	13.5	100.0(764)	
60세 이상	2.9	23.4	54.9	18.7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4.7	25.2	57.0	13.0	100.0(1,320)	13.8*
사별	2.1	27.4	49.5	21.1	100.0(95)	
이혼·별거	2.8	28.7	58.0	10.5	100.0(46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3	29.1	57.2	11.4	100.0(430)	12.1#
고등학교	4.2	23.7	57.9	14.2	100.0(836)	
대학 이상	5.3	27.4	55.3	12.0	100.0(617)	
취업여부						
취업	4.4	26.1	57.5	12.1	100.0(1,580)	6.2
비취업	3.0	26.6	53.8	16.7	100.0(30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9.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는 「결혼생활 유지가능 수입 부족」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 제시된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에 대하여 응답자의 84.0%가 찬성하였다. 이

항목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만혼과 비혼의 원인 10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은 보인 것이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수입이 부족하여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가구특성을 불문하고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현저히 높았다. 특히, 동부지역 거주가구(84.4%), 가구원 수가 3~4인 가구(84.5%), 100~200만원 미만인 가구(87.0%), 욕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가구(87.2%)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4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⑨

(단위: %, 명)

특성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전적으로 찬성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0.9	15.1	61.3	22.7	100.0(10,049)	
지역						
동부	0.9	14.7	61.5	22.9	100.0(8,672)	8.9*
읍·면부	0.7	17.6	60.4	21.2	100.0(1,377)	
가구원 수						
1인	1.3	16.4	58.5	23.8	100.0(856)	16.6 [#]
2인	0.8	15.7	59.0	24.5	100.0(2,241)	
3~4인	0.9	14.6	62.7	21.8	100.0(5,899)	
5인 이상	0.6	15.8	60.7	23.0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0.9	14.0	61.5	23.6	100.0(457)	55.7***
100~200 미만	0.8	12.2	59.6	27.4	100.0(1,242)	
200~300 미만	1.1	14.6	60.7	23.6	100.0(1,949)	
300~400 미만	0.5	16.3	59.3	24.0	100.0(1,977)	
400~500 미만	0.6	15.0	62.2	22.3	100.0(1,536)	
500 이상	1.1	16.1	63.8	19.1	100.0(2,812)	
욕구소득비						
1 미만	1.2	11.6	63.6	23.6	100.0(423)	68.3***
1~2 미만	0.8	14.2	59.8	25.2	100.0(2,087)	
2~3 미만	0.7	13.4	62.0	23.9	100.0(3,133)	
3~4 미만	0.6	18.5	58.0	22.9	100.0(1,910)	
4 이상	1.3	15.8	64.3	18.6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기혼여성의 84.3%가 찬성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뚜렷한 차이 없이 찬성률이 매우 높았는데, 특히 15~29세 미만 연령층(87.3%), 이혼·별거(85.3%), 고등학교 교육수준(85.0%), 비취업(85.2%)인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표 4-41〉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⑨

(단위: %, 명)

특성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0.8	14.8	61.4	22.9	100.0(8,167)	
연령						
15~29세	0.3	12.4	58.3	29.0	100.0(386)	27.5**
30~39세	0.6	14.0	63.0	22.3	100.0(2,271)	
40~49세	0.7	15.8	62.3	21.2	100.0(2,774)	
50~59세	1.2	14.6	59.7	24.4	100.0(2,328)	
60세 이상	1.0	15.9	59.6	23.5	100.0(408)	
혼인상태						
유배우	0.9	14.9	62.0	22.2	100.0(6,982)	16.3*
사별	0.7	14.1	57.0	28.2	100.0(546)	
이혼·별거	0.5	14.3	58.8	26.5	100.0(6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15.3	60.6	23.3	100.0(1,453)	12.9*
고등학교	0.8	14.3	60.5	24.5	100.0(3,713)	
대학 이상	0.9	15.2	63.0	20.9	100.0(2,998)	
취업여부						
취업	0.9	15.6	61.0	22.5	100.0(4,091)	4.7
비취업	0.8	14.0	61.8	23.4	100.0(4,07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서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기혼남성도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성의 82.5%가 이 의

견에 동의하였다. 기혼남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뚜렷한 차이 없이 찬성률이 매우 높았다. 특히, 15~29세 연령층(95.7%), 유배우(83.7%), 고등학교 교육수준(83.4%), 비취업(83.8%)인 기혼남성의 찬성률이 타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42〉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⑨

(단위: %, 명)

특성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1.1	16.5	60.9	21.6	100.0(1,883)	
연령						
15~29세	-	4.3	69.6	26.1	100.0(23)	10.0
30~39세	0.8	13.0	64.8	21.3	100.0(253)	
40~49세	0.7	18.7	60.2	20.3	100.0(571)	
50~59세	1.4	16.0	60.2	22.4	100.0(763)	
60세 이상	1.1	17.2	59.7	22.0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1.1	15.2	61.2	22.5	100.0(1,321)	7.8
사별	2.1	21.3	60.6	16.0	100.0(94)	
이혼·별거	0.9	18.8	60.3	20.1	100.0(46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5	17.6	63.8	18.1	100.0(431)	7.4
고등학교	1.1	15.6	60.2	23.2	100.0(836)	
대학 이상	1.5	16.8	59.9	21.8	100.0(614)	
취업여부						
취업	1.1	16.5	60.7	21.6	100.0(1,579)	0.8
비취업	0.7	15.5	61.8	22.0	100.0(30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0.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의 「결혼보다 일 우선」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서 제시된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에 대하여 응답자의 76.0%가 찬성하였다. ‘결혼보다 일 우선’의

로 인하여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가구의 모든 특성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동부지역 거주가구(76.1%), 3~4인 가구원의 가구(77.3%),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77.0%), 욕구소득비 1~2 미만의 가구(77.2%)가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하는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표 4-4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⑩

(단위: %, 명)

특성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1.6	22.4	62.7	13.3	100.0(10,050)	
지역						
동부	1.7	22.2	62.4	13.7	100.0(8,673)	14.4**
읍·면부	1.1	23.9	64.5	10.5	100.0(1,377)	
가구원 수						
1인	3.3	26.0	59.6	11.1	100.0(857)	36.9***
2인	1.8	23.8	61.0	13.4	100.0(2,242)	
3~4인	1.4	21.4	64.0	13.3	100.0(5,900)	
5인 이상	1.2	22.5	61.2	15.1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3	26.3	63.5	9.0	100.0(457)	45.7***
100~200 미만	2.9	21.2	64.1	11.8	100.0(1,244)	
200~300 미만	1.6	23.4	63.9	11.1	100.0(1,949)	
300~400 미만	1.2	22.3	62.4	14.0	100.0(1,978)	
400~500 미만	1.4	23.1	61.2	14.2	100.0(1,538)	
500 이상	1.6	21.5	62.1	14.9	100.0(2,811)	
욕구소득비						
1 미만	1.2	27.5	61.6	9.7	100.0(422)	35.0***
1~2 미만	1.5	21.3	66.3	10.9	100.0(2,089)	
2~3 미만	1.5	22.6	62.4	13.6	100.0(3,133)	
3~4 미만	2.1	21.5	62.3	14.1	100.0(1,913)	
4 이상	1.7	23.2	60.5	14.6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은 기혼여성의 77.6%가 찬성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모든 특

성에서 찬성률이 높았는데, 특히, 30대 연령층(79.5%), 유배우(78.3%),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78.3%), 비취업(78.7%)인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표 4-44〉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⑩

(단위: %, 명)

특성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1.2	21.2	63.6	14.0	100.0(8,165)	
연령						
15~29세	1.8	19.9	66.3	11.9	100.0(386)	33.1**
30~39세	1.0	19.5	66.0	13.5	100.0(2,269)	
40~49세	1.4	21.1	62.4	15.0	100.0(2,772)	
50~59세	1.0	22.0	62.2	14.8	100.0(2,328)	
60세 이상	1.0	27.8	62.7	8.5	100.0(410)	
혼인상태						
유배우	1.1	20.6	64.1	14.2	100.0(6,983)	18.5**
사별	1.1	24.3	62.9	11.7	100.0(547)	
이혼·별거	2.0	25.3	58.1	14.6	100.0(6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9	24.8	65.2	9.1	100.0(1,455)	44.7***
고등학교	1.2	20.5	63.4	14.9	100.0(3,713)	
대학 이상	1.3	20.3	63.0	15.3	100.0(2,998)	
취업여부						
취업	1.2	22.4	62.7	13.8	100.0(4,090)	6.7 [#]
비취업	1.2	20.0	64.4	14.3	100.0(4,07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만혼과 비혼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기혼남성의 68.8%가 찬성하였다. <표 4-44>와 <표 4-45>를 비교하면, 이러한 이유로 만혼과 비혼이 발생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률은 기혼남성보다 기혼여성(77.6%)이 8.8%pt 높은 것이다.

기혼남성의 모든 개인특성에서 이 의견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는데,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82.6%), 사별(75.8%), 고등학교 교육수준(71.2%),

취업(68.8%)인 기혼남성이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표 4-45〉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원인」 ⑩

(단위: %, 명)

특성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계(수)	χ^2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3.6	27.6	58.8	10.0	100.0(1,885)	
연령						
15~29세	-	17.4	78.3	4.3	100.0(23)	24.8*
30~39세	2.8	29.8	56.7	10.7	100.0(252)	
40~49세	1.7	29.0	57.5	11.7	100.0(572)	
50~59세	5.5	27.3	57.8	9.4	100.0(765)	
60세 이상	2.9	24.5	64.5	8.1	100.0(273)	
혼인상태						
유배우	3.3	29.5	56.4	10.9	100.0(1,322)	15.2*
사별	4.2	20.0	68.4	7.4	100.0(95)	
이혼·별거	4.3	23.9	63.7	8.1	100.0(46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9	29.0	57.5	8.6	100.0(431)	7.4
고등학교	3.0	25.8	60.9	10.3	100.0(837)	
대학 이상	3.4	29.2	56.6	10.9	100.0(617)	
취업여부						
취업	3.7	27.4	58.6	10.2	100.0(1,581)	1.7
비취업	2.6	29.2	59.3	8.9	100.0(30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제5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15~64세 기혼가구 내 기혼남녀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본인 결혼연령의 적정성 여부, 만혼과 비혼의 원인 10개 항목에 대한 태도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남녀 간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전에 이들 내용에 대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의견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기혼여성은 기혼남성보다 적정 결혼연령을 약 0.7~0.8세 높게 제시하고 있었다. 즉,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으로 기혼여성은 31.03세, 기혼남성은 30.34세를 제시하여 기혼여성이 0.69세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기혼여성은 28.74세, 기혼남성은 27.88세를 제시하여 기혼여성이 0.86세 높았다. 다른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의 차이는 기혼여성은 2.29세, 기혼남성은 2.46세로 나타나 기혼남성이 남녀간의 결혼연령 차이를 좀 더 두고 있었다.

〈표 4-46〉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남녀 「평균 적정 결혼연령」 차이

(단위: %, 명, 세)

특성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a)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b)	결혼연령의 남녀 차이 (a-b)
전체	30.90	28.58	2.32
기혼여성(c)	31.03	28.74	2.29
기혼남성(d)	30.34	27.88	2.46
응답자의 성별차이(c-d)	0.69	0.86	△0.17

자료: 본 조사결과

기혼여성의 30.3%, 기혼남성의 21.5%가 본인의 결혼이 ‘빨랐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이 결혼을 빨리 한 이유의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은 ‘배우자의 요구로’가 32.2%로 가장 많았고, 기혼남성은 ‘특별한 이유 없음’이 41.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큰 이유는 기혼여성이 ‘특별한 이유 없음’(27.5%), 기혼남성이 ‘집안 어른의 권유로’(24.6%)를 제시하였다.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임신이 되어서’인데, 이는 기혼여성의 17.8%, 기혼남성의 13.9%이었다. 이는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결혼을 빨리한 것으로 결혼으로 연결되어 다행이지만, 본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혼전임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표 4-47〉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결혼을 빨리 한 이유」¹⁾의 차이

(단위: %, 명)

특성	집안 어른의 권유로	배우자의 요구로	임신이 되어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χ^2
전체	19.6	29.8	17.2	3.6	29.5	0.3	100.0(2,873)	67.2 ***
기혼여성(a)	18.8	32.2	17.8	3.5	27.5	0.2	100.0(2,467)	
기혼남성(b)	24.6	15.3	13.9	4.2	41.5	0.5	100.0(406)	
남녀 차이(a-b)	△5.8	16.9	3.9	△0.7	△14.0	△0.3		

주: 1) 결혼연령이 빨랐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기혼여성의 17.8%, 기혼남성의 28.9%가 본인의 결혼이 ‘늦었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이 결혼을 늦게 한 이유의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은 ‘특별한 이유 없음’이 43.7%로 가장 많았고, 기혼남성은 ‘배우자감이 없어서’가 44.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큰 이유는 기혼여성이 ‘배우자감이 없어서’(32.9%), 기혼남성이 ‘특별한 이유 없음’(25.8%)를 제시하였다.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와 ‘취업에 방해가 될까 봐’인데, 전자는 결혼을 늦게 했다고 한 기혼여성의 8.8%, 기혼남성의 18.4%가, 후자는 기혼여성의 8.8%, 기혼남성의 6.1%가 늦게 한 이유였다.

〈표 4-48〉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결혼을 늦게 한 이유」¹⁾의 차이

(단위: %, 명)

특성	취업에 방해가 될까봐	배우자감이 없어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χ^2
전체	8.1	36.1	3.8	11.4	38.8	1.7	100.0(1,986)	84.8 ***
기혼여성(a)	8.8	32.9	4.1	8.8	43.7	1.7	100.0(1,442)	
기혼남성(b)	6.1	44.8	3.1	18.4	25.8	1.8	100.0(543)	
남녀 차이(a-b)	2.7	△11.9	1.0	△9.6	17.9	△0.1	-	

주: 1) 결혼연령이 늦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만혼 및 비혼의 원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항목에 대한 찬성률(대체로 및 전적으로 찬성)이 기혼남성보다 기혼여성이 가장 큰 차이로 높은 것은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9.8%pt)이었으며, 그 다음은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8.8%pt),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8.2%pt),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8.0%pt)의 순이었다. 그 외에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와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도 7.8%pt의 차이에서 기혼여성의 찬성률이 높았다.

〈표 4-49〉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만혼 및 비혼의 원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단위: %, 명)

내용	찬성률(대체로 및 전적으로 찬성)			남녀 차이 (a-b)
	전체	기혼여성(a)	기혼남성(b)	
①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82.4	82.3	82.8	△0.5
②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7.0	77.2	75.6	1.6
③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66.6	68.1	60.3	7.8
④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50.6	52.5	42.7	9.8
⑤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56.1	57.6	49.8	7.8
⑥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68.3	69.8	61.8	8.0
⑦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60.6	61.6	56.7	4.9
⑧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76.4	78.0	69.8	8.2
⑨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84.0	84.3	82.5	1.8
⑩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76.0	77.6	68.8	8.8

자료: 본 조사결과

기혼남녀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본인 결혼연령의 적정성 여부, 만혼과 비혼의 원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시계열적 변화를 논의한 본 장(章)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혼을 늦게 하는 주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미혼남녀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양성과 충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가족형성의 첫 단계인 결혼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에 필요한 소득보장과 주거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결혼적령기 남녀의 취업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지원에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거나 높은 기준에서 제한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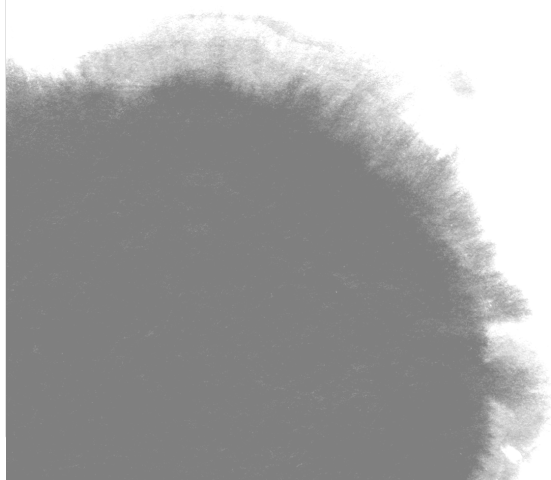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셋째, 결혼생활과 가족제도에서의 각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우리나라 가족문화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결혼비용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결혼문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관습적으로 지출되는 항목 중 혼례식 및 결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자제토록 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결혼의 필요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의 장점(長點) 또는 이점(利點)이 단점(短點) 또는 불리한 점보다 많아야 한다. 따라서 부부단위로 다양한 세제 혜택과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의 할인 혜택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장

자녀가치관과 출산행태의 변화



제5장 자녀가치관과 출산행태의 변화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가치(價値)’란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대적 가치(value)와 실제 그 자체가 가진, 다시 말해 내재된 가치인 절대적 가치(worth)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가치(value of children)는 상대적 가치의 개념이라 하겠다(김승권, 2005; 김승권 외, 2009. 재인용). 이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과 다른 재화와의 비교를 통한 자녀출산 선택에 대한 사고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자녀가치관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각 연도별 자료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 응답항목 중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의 응답비율이 1997년에는 73.7%였던 것에 반하여 2000년 조사에서는 58.1%로 급감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55.9%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여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급격히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출산 역시 동반하여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합계출산율⁹⁾은 1.244명으

9) 1997년과 2000년에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란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로, 최저치(1.076명)를 기록했던 200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통계청, 2011) 2000년의 1.47명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자녀가치관이 필연적으로 출산율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의 문제에 대응키 위해 자녀가치관과 출산력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수립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章)에서는 자녀가치관을 자녀의 필요성 인식과 이상자녀수로, 출산행태는 임신경험, 출산율, 출생아수, 현존자녀수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 선행연구

자녀가치관 및 출산행태 관련 연구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출산행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녀수 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자녀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아들이 꼭 필요하며 적어도 한명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수록 현존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1). 또한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의 효용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경향을 보이고 기대자녀수도 높았다(이삼식, 2006). 한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는 자녀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현존자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이인숙, 2005).

자녀가치관은 이미 자녀를 가진 여성의 향후 자녀출산 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취업상태이며 자녀를 한명 가진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

10) 여성 한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가치관은 후속 자녀 출산의도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이정원, 2009), 현재 비취업 상태이며 자녀를 한명 가진 기혼여성들도 긍정적인 자녀가치관을 가질수록 높은 후속 자녀출산 의도를 나타냈다(정혜은·진미정, 2008).

요약하면, 선행연구들은 자녀가치관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자녀수와 기대자녀수도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높은 자녀가치관은 이미 현존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향후 자녀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3. 정책동향

자녀가치관과 출산행태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한 출산장려정책들이 있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¹¹⁾에 의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출산력 저하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실시하였고, 제1차 계획에 대한 성과진단 및 변화된 상황을 토대로 현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기조가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본격적 대응체계 확립’이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점진적 출산을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계획은 동법과 동법의 시행령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획안을 확정하여 국회 보고 후 후 시행하게 된다.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은 정책대상을 제1차 계획과는 달리 '저소득 가정' 중심에서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보육지원'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적 접근으로 정책영역을 확장하였다(보건복지부, 2010).

2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 추진방향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이는 다시 ①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②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③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의 분야로 세분화 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각 분야별 중점과제 및 담당 부처를 <표 5-1>에 제시한다.

<표 5-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관련 25개 중점과제

분야		중점 과제	부처
일·가정의 양립 일상화	휴가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구권 도입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상시근로자 수 안정기준 개선	고용노동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행정안전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강제방안 도입	복지/고용부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가족형성 여건조성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확산	여가/기재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임신·출산 지원 확대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국방부
		분만취약지 보건의료인프라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보육 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복지부/교과부
		다자녀가장 공무원 퇴직후 재고용	행정안전부
		다자녀가장 세제, 주택, 학비지원 확대	기재/국토/교과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보건복지부
		공공형·지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여성가족부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복지/교과/여가부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아동학대 예방)	보건복지부
		Wee프로젝트(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교육과학기술부
	아동정책 기반조성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11~’15)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 재구성

제2절 자녀가치관의 변화

1. 자녀가치관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자녀가치관을 파악한 결과,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이 5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로 46.3%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즉, 과거조사에서는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가 가장 많았으나(2003년 54.5%, 2006년 53.8%, 2009년 55.9%), 이번 조사에서는 자녀출산을 선택으로 보는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더군다나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는 비율은 16.0%로 2003~2009년의 약 11~12%대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자녀가치관의 퇴색은 향후 출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며, 현재의 저출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부담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2〉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자녀필요성」

(단위: %, 명)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2003 ¹⁾	54.5	44.9	32.3	12.6	0.6	100.0(6,593)
2006 ²⁾	53.8	46.2	34.1	12.1	-	100.0(5,386)
2009 ³⁾	55.9	44.1	32.7	11.4	-	100.0(4,867)
2012 ⁴⁾	46.3	53.5	37.5	16.0	0.3	100.0(4,536)

주: 2003~2009년 자료는 유배우부인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제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자료: 1)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자녀가 ‘꼭 필요함’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50.9%), 5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55.3%),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60.0%), 욕구소득비 1 미만인 빈곤가구(54.0%)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음’의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6.1%), 가구원 수 2인 가구(22.3%),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19.0%), 욕구소득비 1 미만인 가구(17.5%)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3〉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꼭 필요함	있는 것이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수)	χ^2
지역						
동부	45.6	38.1	16.1	0.3	100.0(3,943)	6.7 [#]
읍·면부	50.9	33.2	15.6	0.3	100.0(597)	
가구원 수						
1인	-	100.0	-	-	100.0(1)	52.2 ^{***}
2인	37.9	39.2	22.3	0.6	100.0(543)	
3~4인	45.6	38.4	15.7	0.3	100.0(3,254)	
5인 이상	55.3	31.9	12.8	-	100.0(74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0.0	28.0	12.0	-	100.0(25)	30.9 ^{**}
100~200 미만	49.2	32.8	18.1	-	100.0(177)	
200~300 미만	41.3	39.0	19.0	0.7	100.0(888)	
300~400 미만	47.1	38.4	14.3	0.3	100.0(1,123)	
400~500 미만	49.7	33.4	16.8	0.1	100.0(880)	
500 이상	46.6	38.3	14.9	0.2	100.0(1,419)	
욕구소득비						
1 미만	54.0	28.6	17.5	-	100.0(63)	8.3
1~2 미만	49.0	34.6	16.0	0.5	100.0(871)	
2~3 미만	45.8	37.8	16.1	0.3	100.0(1,636)	
3~4 미만	45.5	37.9	16.5	0.1	100.0(881)	
4 이상	45.6	38.3	15.8	0.3	100.0(1,06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필요성」 질문에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 또는 남편(부인 부재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의 45.5%가 자녀가 ‘꼭 필요함’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은 15~24세 연령층(63.0%), 고등학교 교육수준(47.3%), 현존자녀수가 많은 유배우부인일수록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그렇지만 취업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음’의 비율은 35~39세 연령층(19.6%),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는(22.4%) 유배우부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꼭 필요함	있는 것이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45.5	37.7	16.4	0.3	100.0(4,079)	
연령						
15~24세	63.0	26.1	8.7	2.2	100.0(46)	34.4***
25~29세	49.7	33.9	16.4	-	100.0(360)	
30~34세	44.9	40.6	14.0	0.6	100.0(1,025)	
35~39세	44.2	36.0	19.6	0.2	100.0(1,238)	
40~44세	45.4	38.4	15.9	0.3	100.0(1,41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9.8	31.6	27.6	1.0	100.0(98)	18.6**
고등학교	47.3	35.5	17.0	0.2	100.0(1,732)	
대학 이상	44.3	39.6	15.7	0.4	100.0(2,255)	
취업여부						
취업	45.8	37.8	16.2	0.2	100.0(1,918)	3.3
비취업	45.2	37.7	16.8	0.5	100.0(2,166)	
현존자녀수						
0명	36.6	40.0	22.4	1.0	100.0(410)	29.7***
1명	43.8	39.1	17.1	-	100.0(1,166)	
2명	46.9	36.7	15.9	0.4	100.0(2,082)	
3명	50.8	36.9	12.4	-	100.0(388)	
4명 이상	56.4	30.8	12.8	-	100.0(39)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자료: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자녀필요성」 질문에 응답한 남편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남편의 53.5%가 자녀가 ‘꼭 필요함’에 찬성하였다. 이는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배우부인의 찬성률 45.5%보다 8.0%p¹ 높은 것으로 남편이 자녀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녀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25~29세 연령층(66.7%), 고등학교 교육수준(59.5%), 취업층(53.8%), 현존자녀가 2명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표 5-5〉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꼭 필요함	있는 것이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53.5	34.8	11.7	-	100.0(454)	
연령						
15~24세	-	100.0	-	-	100.0(2)	7.2
25~29세	66.7	22.2	11.1	-	100.0(18)	
30~34세	52.9	37.9	9.2	-	100.0(87)	
35~39세	57.0	30.1	12.9	-	100.0(93)	
40~44세	53.4	34.5	12.1	-	100.0(116)	
45세 이상	50.7	37.0	12.3	-	100.0(13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3.3	46.7	-	-	100.0(15)	7.4
고등학교	59.5	28.6	11.9	-	100.0(185)	
대학 이상	49.4	38.3	12.3	-	100.0(253)	
취업여부						
취업	53.8	34.6	11.7	-	100.0(437)	0.3
비취업	47.1	41.2	11.8	-	100.0(17)	
현존자녀수						
0명	36.6	39.0	24.4	-	100.0(82)	-
1명	51.8	34.8	13.5	-	100.0(141)	
2명	60.8	33.7	5.5	-	100.0(199)	
3명	60.0	33.3	6.7	-	100.0(30)	
4명 이상	-	-	-	-	100.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이와는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음’의 비율은 35~39세 연령층(12.9%),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12.3%), 자녀가 없는(24.4%) 남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이상자녀수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이상자녀수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전체 응답자의 98.8%가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하였다.

〈표 5-6〉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이상자녀수 있음	잘 모르겠음	계(수)	χ^2
2009 ¹⁾	97.9	2.1	100.0(4,868)	
2012 ²⁾	98.8	1.2	100.0(4,537)	
지역				
동부	98.8	1.2	100.0(3,941)	0.6
읍·면부	99.2	0.8	100.0(596)	
가구원 수				
1인	100.0	-	100.0(1)	1.2
2인	98.3	1.7	100.0(541)	
3~4인	98.9	1.1	100.0(3,255)	
5인 이상	98.9	1.1	100.0(74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00.0	-	100.0(25)	6.2
100~200 미만	97.7	2.3	100.0(177)	
200~300 미만	98.8	1.2	100.0(890)	
300~400 미만	98.9	1.1	100.0(1,123)	
400~500 미만	99.4	0.6	100.0(880)	
500 이상	98.5	1.5	100.0(1,417)	
육구소득비				
1 미만	100.0	-	100.0(63)	14.4**
1~2 미만	98.3	1.7	100.0(871)	
2~3 미만	99.4	0.6	100.0(1,635)	
3~4 미만	98.0	2.0	100.0(881)	
4 이상	99.2	0.8	100.0(1,059)	

주: 1) 2009년 자료는 유배우부인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제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2)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자료: 1)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본 조사결과

이와 같은 결과는 2009년 조사결과(97.9%)보다 미미하나마 증가한 것이다. 이상자녀수가 있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특성에 따라 최저 98.0%, 최고 100.0%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상자녀수」 질문에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 또는 남편(부인 부재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의 98.8%가 ‘이상자녀수가 있음’이라고 하였으며, 부인의 개인특성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최저 98.0%, 최고 100.0%).

〈표 5-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이상자녀수 있음	잘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98.8	1.2	100.0(4,083)	
연령				
15~24세	100.0	-	100.0(46)	9.1 [#]
25~29세	98.3	1.7	100.0(359)	
30~34세	99.2	0.8	100.0(1,026)	
35~39세	99.3	0.7	100.0(1,237)	
40~44세	98.2	1.8	100.0(1,41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8.0	2.0	100.0(98)	2.3
고등학교	99.1	0.9	100.0(1,734)	
대학 이상	98.6	1.4	100.0(2,253)	
취업여부				
취업	99.2	0.8	100.0(1,918)	4.8 [*]
비취업	98.5	1.5	100.0(2,166)	
현존자녀수				
0명	98.8	1.2	100.0(408)	2.0
1명	99.0	1.0	100.0(1,168)	
2명	98.8	1.2	100.0(2,080)	
3명	98.2	1.8	100.0(388)	
4명 이상	100.0	-	100.0(3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이상자녀수」 질문에 응답한 남편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99.1%가 ‘이상자녀수가 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개인특성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최저 94.1%~최고 100.0%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5-8〉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이상자녀수 있음	잘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99.1	0.9	100.0(454)	
연령				
15~24세	100.0	-	100.0(2)	2.7
25~29세	100.0	-	100.0(18)	
30~34세	100.0	-	100.0(87)	
35~39세	97.8	2.2	100.0(93)	
40~44세	99.1	0.9	100.0(116)	
45세 이상	99.3	0.7	100.0(13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0.0	-	100.0(15)	-
고등학교	98.0	1.1	100.0(185)	
대학 이상	98.8	1.2	100.0(253)	
취업여부				
취업	98.9	1.1	100.0(437)	-
비취업	94.1	5.9	100.0(17)	
현존자녀수				
0명	96.4	3.6	100.0(83)	-
1명	99.3	0.7	100.0(141)	
2명	99.0	1.0	100.0(200)	
3명	100.0	-	100.0(31)	
4명 이상	-	-	100.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이상자녀수 있음’이라고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상자녀수를 파악하였다. 2012년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2명으로 2006년과 2009년 조사의 2.3명보다 0.1명 낮았으며, 2000년 및 2003

년과 동일하였다. 유배우부인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 이하 연령층은 2.1명, 30~44세 연령층은 2.2명이었다. 이와 같이 이상자녀수가 2003년 및 2006년의 조사결과 보다 낮아진 것이 출산력 저하와 연결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표 5-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

(단위: 명)

연령	1982 ¹⁾	1985 ²⁾	1988 ³⁾	1991 ⁴⁾	1994 ⁵⁾	1997 ⁶⁾	2000 ⁷⁾	2003 ⁸⁾	2006 ⁹⁾	2009 ¹⁰⁾	2012 ¹¹⁾
15-24세	2.1	1.8	1.8	1.8	2.0	2.1	2.1	2.2	2.2	2.2	2.1
25-29세	2.2	1.9	1.9	1.9	2.1	2.1	2.1	2.2	2.1	2.2	2.1
30-34세	2.5	2.0	2.0	2.1	2.2	2.2	2.2	2.3	2.2	2.2	2.2
35-39세	2.6	2.1	2.0	2.2	2.3	2.3	2.3	2.3	2.3	2.3	2.2
40-44세	2.9	2.2	2.1	2.3	2.3	2.3	2.3	2.3	2.3	2.3	2.2
전체	2.5	2.0	2.0	2.1	2.2	2.3	2.2	2.2	2.3	2.3	2.2

주: '이상자녀수가 있음'이라고 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2009년까지의 자료는 유배우부인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제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자료: 1) 문현상 외(1982),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2) 문현상 외(1985),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3) 문현상 외(1989),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 보건연구원; 4)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홍문식 외(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조남훈 외(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본 조사결과

이와 같이 평균 이상자녀수가 감소한 것은 이상자녀수 분포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상자녀수를 2명이라고 한 비율은 증가하고, 3명 및 4명 이상이라고 한 비율은 감소하였다.

평균 이상자녀수는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구원 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원 수가 1~2인 가구는 평균 이상자녀수를 2.0명이라 하였고,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는 평균 이상자녀수가 2.4명으로 많았다.

〈표 5-10〉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이상자녀수 분포						χ^2	평균 ¹⁾ 이상 자녀수	F(T)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기타	계(수)			
2006년 ¹⁾	11.5	58.8	21.7	6.7	1.2	100.0(6,599)		2.2	
2009년 ²⁾	10.8	59.1	21.5	6.6	2.1	100.0(4,869)		2.3	
2012년 ³⁾	10.8	64.7	18.4	4.9	1.2	100.0(4,536)		2.2	
지역									
동부	11.1	65.4	17.8	4.5	1.2	100.0(3,940)	23.1***	2.2	(-4.7***)
읍·면부	8.9	59.9	22.7	7.7	0.8	100.0(596)		2.3	
가구원 수									
1인	-	100.0	-	-	-	100.0(1)	-	2.0	42.7***
2인	16.4	67.5	12.2	2.2	1.7	100.0(542)		2.0	
3~4인	11.0	65.9	17.4	4.5	1.1	100.0(3,255)		2.2	
5인 이상	5.7	57.1	27.3	8.9	1.1	100.0(741)		2.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3	70.8	16.7	4.2	-	100.0(24)	60.6***	2.2	6.6***
100~200 미만	8.0	65.9	22.7	1.1	2.3	100.0(176)		2.2	
200~300 미만	13.3	68.7	13.9	2.8	1.2	100.0(889)		2.1	
300~400 미만	12.2	63.0	18.1	5.7	1.1	100.0(1,122)		2.2	
400~500 미만	9.9	64.9	20.6	4.1	0.6	100.0(880)		2.2	
500 이상	9.1	63.9	18.8	6.7	1.5	100.0(1,417)		2.2	
육구소득비									
1 미만	7.8	57.8	28.1	6.3	-	100.0(64)	40.9**	2.3	1.6
1~2 미만	8.3	67.9	17.5	4.7	1.7	100.0(871)		2.2	
2~3 미만	11.5	65.3	18.4	4.2	0.6	100.0(1,635)		2.2	
3~4 미만	11.3	60.5	20.7	5.3	2.0	100.0(882)		2.2	
4 이상	11.5	66.0	15.7	5.9	0.8	100.0(1,059)		2.2	

주: 1) 이상자녀수가 “잘 모르겠음”인 경우를 제외하였음; 2) 2006~2009년 자료는 유배우부인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제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3) *** $p < .001$, ** $p < .01$, * $p < .05$, # $p < .1$; 4)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본 조사결과

‘이상자녀수 있음’이라고 한 15~44세 유배우부인 또는 남편(부인 부재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상자녀수가 있음’이라고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2명이었다. 부인의 개인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나 0.1명만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개인특성 중

현존자녀수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현존자녀가 많을수록 평균 이상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존자녀가 0~1명인 부인은 평균 이상자녀수를 2.0명이라 하였고, 현존자녀가 4명 이상인 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8명이었다.

〈표 5-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이상자녀수 분포						χ^2	평균 이상자녀수 ¹⁾	F(T)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기타	계(수)			
전체	10.9	64.2	18.7	5.0	1.2	100.0(4,084)		2.2	
연령									
15~24세	13.0	67.4	17.4	2.2	-	100.0(46)	44.9***	2.1	2.3 [#]
25~29세	12.5	64.6	19.5	1.7	1.7	100.0(359)		2.1	
30~34세	7.9	69.0	18.4	3.9	0.8	100.0(1,026)		2.2	
35~39세	12.3	63.5	18.2	5.3	0.7	100.0(1,237)		2.2	
40~44세	11.3	61.2	19.3	6.5	1.8	100.0(1,416)		2.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4	53.1	19.4	3.1	2.0	100.0(98)	20.6**	2.1	1.9
고등학교	11.3	64.0	18.3	5.5	0.9	100.0(1,734)		2.2	
대학 이상	10.0	64.9	19.0	4.7	1.4	100.0(2,253)		2.2	
취업여부									
취업	10.3	63.4	21.0	4.5	0.8	100.0(1,918)	17.6**	2.2	(1.5)
비취업	11.5	64.9	16.7	5.4	1.5	100.0(2,167)		2.2	
현존자녀수									
0명	15.6	68.7	11.5	2.9	1.2	100.0(409)	-	2.0	65.1***
1명	19.8	61.3	16.4	1.5	1.0	100.0(1,169)		2.0	
2명	5.6	69.0	18.7	5.6	1.2	100.0(2,083)		2.3	
3명	8.5	44.8	31.4	13.4	1.8	100.0(388)		2.5	
4명 이상	2.6	38.5	41.0	17.9	-	100.0(39)		2.8	

주: 1) 이상자녀수가 “잘 모르겠음”인 경우를 제외하였음.; 2) *** p<.001, ** p<.01, * p<.05, # p<.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이상자녀수」 질문에 응답한 남편 중 ‘이상자녀수 있음’이라고 한 경우를 대상으로 이상자녀수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균 이상자녀수는 2.2명이었다. 남편의

개인특성 중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나 0.1명만의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과 현존자녀수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 이상자녀수는 남편의 연령 및 현존자녀수와 대체로 비례하였는데, 연령에 따라 1.0~2.3명의 큰 격차가 있었고, 현존자녀수에 따라서도 1.9~2.7명의 비교적 넓은 범주에 있었다.

〈표 5-12〉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이상자녀수 분포						χ^2	평균 이상 자녀수 ¹⁾	F(7)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기타	계(수)			
전체	10.0	69.0	15.5	4.6	0.9	100.0(452)		2.2	
연령									
15~24세	100.0	-	-	-	-	100.0(2)	-	1.0	3.9**
25~29세	23.5	58.8	17.6	-	-	100.0(17)		2.0	
30~34세	11.5	80.5	6.9	1.1	-	100.0(87)		2.0	
35~39세	10.8	66.7	16.1	4.3	2.2	100.0(93)		2.1	
40~44세	6.9	67.2	21.6	3.4	0.9	100.0(116)		2.2	
45세 이상	8.0	67.2	15.3	8.8	0.7	100.0(137)		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7	66.7	26.7	-	-	100.0(15)	-	2.2	2.0
고등학교	13.0	70.8	9.7	5.4	1.1	100.0(185)		2.1	
대학 이상	7.9	67.6	19.0	4.3	1.2	100.0(253)		2.2	
취업여부									
취업	10.1	69.1	14.9	4.8	1.1	100.0(437)	-	2.2	(0.5)
비취업	5.9	58.8	29.4	-	5.9	100.0(17)		2.2	
현존자녀수									
0명	20.5	67.5	8.4	-	3.6	100.0(83)	-	1.9	19.8***
1명	17.7	72.3	7.8	1.4	0.7	100.0(141)		1.9	
2명	1.5	70.9	18.6	8.0	1.0	100.0(199)		2.3	
3명	-	41.9	48.4	9.7	-	100.0(31)		2.7	
4명 이상	-	-	-	-	-	100.0(-)		2.0	

주: 1) 이상자녀수가 “잘 모르겠음”인 경우를 제외하였음.; 2) *** p<.001, ** p<.01, * p<.05, # p<.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3. 남아선호가치관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남아선호가치관을 ‘아들 필요성’에 의하여 파악하였다. 이들이 ‘없어도 무관함’이 5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들이 ‘있는 것이 좋음’으로 33.0%를 보였으며, 이들이 ‘꼭 있어야 함’은 8.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대비 이번 조사결과가 이들이 ‘꼭 있어야 함’은 16.2%에서 8.2%로 약 절반이 낮아진 반면에 이들이 ‘없어도 무관함’은 39.5%에서 58.3%로 대폭 높아졌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잔존해 있던 ‘남아선호’는 불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3〉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아들 필요성」 변화

(단위: %, 명)					
연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2000 ¹⁾	16.2	43.2	39.5	1.1	100.0(6,350)
2003 ²⁾	14.1	41.8	43.3	0.8	100.0(6,599)
2006 ³⁾	10.2	39.3	49.8	0.7	100.0(5,386)
2009 ⁴⁾	8.9	39.2	51.8	0.1	100.0(4,868)
2012 ⁵⁾	8.2	33.0	58.3	0.5	100.0(4,535)

주: 1) 2000~2009년 자료는 유배우부인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제로 인하여 대려 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자료: 1)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해보았다. 이들이 ‘꼭 있어야 함’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12.1%), 5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12.4%),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20.0%), 욕구소득비 1 미만인 빈곤가구(17.5%)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이외는 반대로 이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59.6%), 가구원 수 2인 가구(62.4%), 가구소득 400~500만원 미만인 가

구(60.3%), 육구소득비 3~4 미만인 가구(62.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14〉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 겠음	계(수)	χ^2
지역						
동부	7.6	32.3	59.6	0.5	100.0(3,939)	26.5***
읍·면부	12.1	37.9	49.5	0.5	100.0(596)	
가구원 수						
1인	-	100.0	-	-	100.0(1)	-
2인	7.7	28.7	62.4	1.1	100.0(543)	
3~4인	7.4	33.0	59.2	0.4	100.0(3,251)	
5인 이상	12.4	36.1	51.1	0.4	100.0(74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0.0	36.0	44.0	-	100.0(25)	-
100~200 미만	15.3	35.0	48.6	1.1	100.0(177)	
200~300 미만	8.3	32.2	58.9	0.6	100.0(888)	
300~400 미만	8.0	35.3	56.2	0.5	100.0(1,122)	
400~500 미만	8.7	30.4	60.3	0.6	100.0(878)	
500 이상	7.2	33.3	59.2	0.4	100.0(1,418)	
육구소득비						
1 미만	17.5	41.3	41.3	-	100.0(63)	38.5***
1~2 미만	10.9	35.9	52.6	0.6	100.0(869)	
2~3 미만	8.0	33.1	58.4	0.5	100.0(1,635)	
3~4 미만	8.0	29.7	62.0	0.3	100.0(880)	
4 이상	6.1	33.3	59.9	0.7	100.0(1,062)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아들 필요성」 질문에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 또는 남편(부인 부재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의 8.0%가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은 15~24세 연령층(21.7%),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9.2%), 비취업(9.2%), 현존자녀수 3명(12.9%), 아들 2명 이상(11.4%), 딸이 없는 경우(9.3%)의 유배우부인일수록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그렇지만 이외는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비율은 35~39세 연령층(63.2%),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63.3%), 취업 중(59.4%), 자녀 1명(63.8%), 아들이 없는 경우(70.6%), 딸이 2명 이상(64.0%)인 유배우부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8.0	32.6	58.9	0.5	100.0(4,083)	
연령						
15~24세	21.7	30.4	47.8	-	100.0(46)	42.2***
25~29세	12.7	30.4	56.4	0.6	100.0(362)	
30~34세	8.5	35.9	54.9	0.7	100.0(1,025)	
35~39세	6.9	29.5	63.2	0.5	100.0(1,238)	
40~44세	7.0	33.6	59.1	0.4	100.0(1,41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2	26.5	63.3	1.0	100.0(98)	9.2
고등학교	9.2	32.5	57.7	0.6	100.0(1,731)	
대학 이상	7.0	32.9	59.6	0.4	100.0(2,254)	
취업여부						
취업	6.7	33.5	59.4	0.5	100.0(1,919)	8.7 [#]
비취업	9.2	31.8	58.5	0.6	100.0(2,164)	
현존자녀수						
0명	7.3	28.1	63.1	1.5	100.0(409)	-
1명	7.4	28.7	63.8	0.2	100.0(1,167)	
2명	7.6	34.2	57.8	0.5	100.0(2,079)	
3명	12.9	38.7	47.9	0.5	100.0(388)	
4명 이상	10.3	48.7	41.0	0	100.0(39)	
현존아들수						
0명	4.6	24.1	70.6	0.7	100.0(1,452)	139.0***
1명	9.3	37.7	52.6	0.4	100.0(1,899)	
2명 이상	11.4	36.2	52.0	0.4	100.0(729)	
현존딸수						
0명	9.3	33.2	56.9	0.6	100.0(1,588)	15.0*
1명	7.9	32.9	58.8	0.4	100.0(1,819)	
2명 이상	5.3	30.1	64.0	0.6	100.0(675)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이들필요성」 질문에 응답한 남편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6〉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이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10.3	36.7	52.3	0.7	100.0(455)	
연령						
15~24세	-	-	100.0	-	100.0(2)	-
25~29세	11.1	55.6	33.3	-	100.0(18)	
30~34세	6.9	36.8	56.3	-	100.0(87)	
35~39세	11.8	35.5	51.6	1.1	100.0(93)	
40~44세	17.2	33.6	49.1	-	100.0(116)	
45세 이상	5.8	38.1	54.7	1.4	100.0(13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3	33.3	53.3	-	100.0(15)	-
고등학교	8.6	35.7	54.6	1.1	100.0(185)	
대학 이상	11.4	37.4	50.8	0.4	100.0(254)	
취업여부						
취업	10.3	36.7	52.5	0.5	100.0(436)	-
비취업	5.9	41.2	52.9	-	100.0(17)	
현존자녀수						
0명	8.5	28.0	63.4	-	100.0(82)	-
1명	9.9	35.2	53.5	1.4	100.0(142)	
2명	11.1	38.2	50.8	-	100.0(199)	
3명	9.7	58.1	29.0	3.2	100.0(31)	
4명 이상	-	-	-	-	-	
현존아들수						
0명	7.7	30.9	61.3	-	100.0(181)	-
1명	13.1	39.0	46.9	0.9	100.0(213)	
2명 이상	6.9	48.3	44.8	-	100.0(58)	
현존딸수						
0명	10.3	33.8	54.9	0.9	100.0(213)	-
1명	9.1	40.6	50.3	-	100.0(187)	
2명 이상	13.0	35.2	50.0	1.9	100.0(54)	

주: 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남편의 10.3%가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은 40~44세 연령층(17.2%),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13.3%), 취업 (10.3%), 현존자녀수 2명(11.1%), 아들 1명(13.1%), 딸 2명 이상 (13.0%)의 남편일수록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비율은 15~24세 연령층 (100.0%), 고등학교 교육수준(54.6%),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들 및 딸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남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거나 아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를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전체의 41.2%) 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파악하였다. 이는 필요한 이유에 해당되는 모든 경우를 응답토록 한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아들의 필요이유를 파악한 결과, 정신적 만족감인 ‘심리적 만족’과 ‘가정행복’이 각 7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통적 가계계승인 ‘가문유지’가 24.2%로 세 번째 였다. 그 외에도 ‘노후생활’ 9.4%, ‘제사’ 8.1%, ‘경제적 도움’ 5.8% 등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인데, 모든 항목에서 비율이 증가하였고 증가폭도 매우 컸다. 즉, 아들이 필요한 이유가 ‘가정행복’이라고 한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2009년 대비 33.8%pt), ‘심리적 만족’도 크게 증가하였으며(2009년 대비 15.1%pt)다. 그 외에도 ‘가문유지’, ‘노후생활’, ‘제사’, ‘경제적 도움’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증가하였다.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아들이 필요한 이유’는 특성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전통적 가계계승이라 할 수 있는 ‘가문유지’ 및 ‘제사’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읍·면부지 역 거주가구(36.4%), 5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38.1%), 가구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48.1%), 욕구소득비 1~2 미만인 가구(47.0%)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표 5-17〉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아들의 필요이유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수)	전통적 가계계승		자식으로부터의 도움		정신적 만족감		기타
		가문 유지	제사	노후 생활	경제적 도움	심리적 만족	가정 행복	
2006년	(2,666)	19.0	5.0	2.6	1.0	67.1	51.2	-
2009년	(2,341)	14.2	2.5	2.6	0.5	57.5	38.8	0.1
2012년	(1,859)	24.2	8.1	9.4	5.8	72.6	72.6	0.3
지역								
동부	(1,562)	23.4	7.7	9.1	5.4	71.3	72.7	0.3
읍·면부	(297)	28.3	8.1	11.1	8.1	79.1	71.7	-
가구원 수								
1인	(1)	-	-	-	-	100.0	-	-
2인	(194)	24.2	9.8	10.8	5.7	69.6	70.1	1.0
3~4인	(1,305)	22.6	7.8	8.5	5.1	73.4	71.7	0.2
5인 이상	(360)	30.0	8.1	11.9	8.6	71.3	77.2	-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4)	14.3	14.3	7.1	7.1	92.9	78.6	-
100~200 미만	(90)	27.8	14.4	10.1	2.2	74.2	68.5	-
200~300 미만	(360)	33.6	14.5	7.0	5.3	71.7	71.9	0.3
300~400 미만	(480)	20.0	6.5	7.3	4.6	74.2	71.4	0.4
400~500 미만	(340)	22.1	6.2	10.0	7.4	71.8	74.1	0.3
500 이상	(573)	22.9	5.6	12.4	7.0	71.6	73.5	0.3
욕구소득비								
1 미만	(37)	24.3	13.5	10.8	5.3	81.1	67.6	-
1~2 미만	(407)	33.2	13.8	6.6	4.4	72.0	75.4	-
2~3 미만	(668)	21.0	7.3	8.5	6.1	73.2	71.0	0.3
3~4 미만	(329)	19.1	5.5	7.6	3.3	70.8	69.6	0.6
4 이상	(416)	24.8	5.0	14.9	8.9	72.8	74.5	0.5

주: 1)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거나 아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수응답 결과임; 2) 2006~2009년 자료는 유배우부인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자료: <표 5-10>과 동일

『아들필요성』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 또는 남편(부인 부재시)을 구분하여 ‘필요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이 필요한 이유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성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전통적 가계계승이라 할 수 있는 ‘가문유지’ 및 ‘제사’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젊은 연령층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자녀수 및 아들수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딸이 없는 부인이 전통적 가계계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5-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아들의 필요이유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수)	전통적 가계계승		자식으로부터의 도움		정신적 만족감		기타
		가문 유지	제사	노후 생활	경제적 도움	심리적 만족	가정 행복	
전체	(1,648)	22.9	7.5	9.0	5.6	72.7	73.5	0.2
연령								
15~24세	(24)	25.0	12.5	-	-	82.6	70.8	-
25~29세	(155)	25.8	7.1	7.1	3.9	64.7	70.3	1.3
30~34세	(452)	29.2	8.4	7.3	3.8	73.5	73.8	0.2
35~39세	(449)	22.5	7.6	8.9	7.6	72.6	74.6	-
40~44세	(568)	17.4	6.5	11.5	6.2	74.1	73.2	0.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5)	22.9	11.4	5.7	5.7	85.7	71.4	-
고등학교	(717)	24.0	9.8	6.8	3.9	72.4	71.7	0.1
대학 이상	(894)	21.9	5.5	10.9	6.8	72.6	74.9	0.4
취업여부								
취업	(763)	21.4	5.5	10.1	7.1	72.8	73.2	0.3
비취업	(883)	24.1	9.2	8.2	4.3	72.7	73.7	0.3
현존자녀수								
0명	(142)	22.5	9.2	11.3	5.6	73.2	76.8	1.4
1명	(419)	32.0	8.3	8.4	5.0	73.0	72.3	0.2
2명	(863)	17.7	6.6	9.2	5.6	73.6	72.6	0.2
3명	(200)	25.5	8.0	7.0	6.5	68.5	80.0	-
4명 이상	(22)	31.8	13.0	22.7	8.7	65.2	47.8	-
현존아들수								
0명	(413)	20.6	8.0	8.2	3.1	71.4	73.1	0.7
1명	(889)	25.5	7.9	7.9	5.5	73.3	72.9	0.2
2명 이상	(345)	18.8	5.8	13.0	9.0	72.8	75.1	-
현존딸수								
0명	(669)	25.9	7.3	11.1	7.8	74.6	73.7	0.4
1명	(739)	20.7	7.3	8.5	4.1	72.0	73.9	0.3

주: 1)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거나 아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아들필요성」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남편의 ‘아들 필요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8>과 <표 5-19>를 비교해 보면, 전통적 가계계승이라 할 수 있는 ‘가문유지’ 및 ‘제사’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편(47.0%)이 부인(30.4%)보다 훨씬 높았다. 남편의 개인특성에 따라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9〉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아들의 필요이유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수)	전통적 가계계승		자식으로부터의 도움		정신적 만족감	
		가문유지	제사	노후생활	경제적 도움	심리적 만족	가정행복
전체	(213)	34.3	12.7	11.8	7.5	71.7	65.7
연령							
15~24세	(12)	25.0	8.3	-	-	66.7	58.3
25~29세	(37)	48.6	13.5	18.9	7.9	62.2	64.9
30~34세	(45)	26.7	8.9	9.1	6.8	65.9	63.6
35~39세	(58)	41.4	15.3	13.8	10.3	74.1	79.3
40~44세	(61)	26.2	14.8	9.8	6.6	78.7	57.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	62.5	28.6	-	14.3	71.4	50.0
고등학교	(83)	28.9	14.6	6.1	3.7	74.4	61.0
대학 이상	(124)	36.3	10.6	16.9	10.5	69.9	69.9
취업여부							
취업	(205)	33.7	12.3	12.2	8.3	71.6	65.4
비취업	(8)	50.0	25.0	12.5	-	62.5	75.0
현존자녀수							
0명	(31)	29.0	16.1	13.3	3.3	48.4	54.8
1명	(64)	40.6	10.9	4.7	1.6	75.0	62.5
2명	(97)	29.9	13.4	15.5	12.4	75.3	70.1
3명	(21)	42.9	9.5	14.3	10.0	76.2	66.7
4명 이상	-	-	-	-	-	-	-
현존아들수							
0명	(69)	27.5	11.4	12.9	4.3	62.9	56.5
1명	(111)	38.7	14.5	9.0	8.2	78.4	70.0
2명 이상	(33)	33.3	9.1	21.9	12.5	65.6	69.7
현존딸수							
0명	(94)	36.2	13.8	10.5	6.3	64.2	63.2
1명	(92)	32.6	9.9	14.1	8.7	74.7	69.6
2명 이상	(26)	30.8	15.4	11.5	11.5	84.6	61.5

주: 1)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거나 아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본 조사결과

본 조사의 대부분 응답자가 ‘이상자녀수가 있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성별로 구별하여 이상자녀수를 원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응답가구의 22.3%가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를 제시하였고, 77.7%는 ‘구별없음’이라고 하였다.

〈표 5-20〉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의 성별 구분여부

(단위: %, 명)				
특성	구별없이	구별해서	계수	χ^2
2006년	74.4	25.6	100.0(5,328)	
2009년	71.9	28.1	100.0(4,764)	
2012년	77.7	22.3	100.0(4,483)	
지역				
동부	78.5	21.5	100.0(3,892)	12.9***
읍·면부	71.9	28.1	100.0(591)	
가구원 수				
1인	-	100.0	100.0(1)	-
2인	74.8	25.2	100.0(532)	
3~4인	79.7	20.3	100.0(3,216)	
5인 이상	71.1	28.9	100.0(73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8.0	32.0	100.0(25)	6.0
100~200 미만	73.4	26.6	100.0(173)	
200~300 미만	76.5	23.5	100.0(878)	
300~400 미만	78.5	21.5	100.0(1,110)	
400~500 미만	79.3	20.7	100.0(875)	
500 이상	76.9	23.1	100.0(1,396)	
육구소득비				
1 미만	71.4	28.6	100.0(63)	9.3#
1~2 미만	74.5	25.5	100.0(856)	
2~3 미만	79.2	20.8	100.0(1,625)	
3~4 미만	76.7	23.3	100.0(862)	
4 이상	78.6	21.4	100.0(1,050)	

주: 1)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2006~2009년 자료는 유배우부인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3) *** $p < .001$, ** $p < .01$, * $p < .05$, # $p < .1$; 4)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5-10>과 동일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를 제시한 경우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지역 거주가구(28.1%), 응답자가 적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5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28.9%), 가구소득과 육구소득비가 가장 낮

은 가구(각각 32.0%, 28.6%)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를 제시한 경우를 15~44세 유배우부인 또는 남편(부인 부재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의 22.4%가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의견은 유배우부인의 젊을수록, 고등학교 교육수준(25.1%) 및 비취업(23.1%) 부인이 강하였다.

〈표 5-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이상자녀수」의 성별 구분여부

특성	구별없이	구별해서	기타	계(수)	(단위: %, 명) χ^2
전체	77.6	22.4	-	100.0(4,034)	
연령					
15~24세	65.2	34.8	-	100.0(46)	16.7**
25~29세	74.3	25.7	-	100.0(354)	
30~34세	74.7	25.3	-	100.0(1,017)	
35~39세	79.3	20.7	-	100.0(1,227)	
40~44세	79.6	20.4	-	100.0(1,39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4.4	15.6	-	100.0(96)	-
고등학교	74.9	25.1	-	100.0(1,717)	
대학 이상	79.5	20.5	-	100.0(2,221)	
취업여부					
취업	78.4	21.6	-	100.0(1,902)	1.3
비취업	76.9	23.1	-	100.0(2,132)	
현존자녀수					
0명	73.9	26.1	-	100.0(403)	13.2*
1명	80.9	19.1	-	100.0(1,155)	
2명	77.2	22.8	-	100.0(2,057)	
3명	74.8	25.2	-	100.0(381)	
4명 이상	71.8	28.2	-	100.0(39)	
현존아들수					
0명	80.7	19.3	-	100.0(1,433)	12.4**
1명	75.9	24.1	-	100.0(1,875)	
2명 이상	76.0	24.0	-	100.0(724)	
현존딸수					
0명	77.1	22.9	-	100.0(1,573)	4.9#
1명	76.9	23.1	-	100.0(1,796)	
2명 이상	80.9	19.1	-	100.0(665)	

주: 1)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를 원하는지의 여부에 응답한 남편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를 제시한 비율은 22.3%이었다. 이러한 의견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 현존자녀가 적을수록, 딸이 적을수록 강하였으며, 그 외의 특성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5-22〉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제1장 서론

				(단위: %, 명)
특성	구별없이	구별해서	계(수)	χ^2
전체	77.7	22.3	100.0(448)	
연령				
15~24세	100.0	-	100.0(2)	12.1*
25~29세	61.1	38.9	100.0(18)	
30~34세	70.1	29.9	100.0(87)	
35~39세	85.4	14.6	100.0(89)	
40~44세	73.9	26.1	100.0(115)	
45세 이상	82.5	17.5	100.0(1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6.7	13.3	100.0(15)	-
고등학교	79.1	20.9	100.0(182)	
대학 이상	76.0	24.0	100.0(250)	
취업여부				
취업	77.5	22.5	100.0(432)	-
비취업	81.3	18.8	100.0(16)	
현존자녀수				
0명	73.8	26.3	100.0(80)	-
1명	75.2	24.8	100.0(141)	
2명	79.3	20.7	100.0(198)	
3명	87.1	12.9	100.0(31)	
4명 이상	-	-	100.0(-)	
현존아들수				
0명	78.2	21.8	100.0(179)	2.0
1명	75.5	24.5	100.0(212)	
2명 이상	84.2	15.8	100.0(57)	
현존딸수				
0명	75.5	24.5	100.0(208)	2.3
1명	78.5	21.5	100.0(186)	
2명 이상	84.9	15.1	100.0(53)	

주: 1)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 $p < .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였다. 평균 이상여아수는 1.32명으로 평균 이상남아수 1.14명 보다 많았다. 따라서 평균 이상자녀수의 성비는 86으로 ‘여아선호’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를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더 심한 여아선호현상을 보였다.

여아선호를 더 강하게 보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은 동부지역 거주 가구(85), 가구원 수 3인 이상 가구(85)이었으며, 가구소득과 육구소득비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표 5-23〉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¹⁾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수)	평균 남아수	평균 여아수	F(T)	성비
2009	(1,339)	1.22	1.35		90
2012	(1,001)	1.14	1.32		86
지역					
동부	(835)	1.12	1.32	(0.1)	85
읍·면부	(166)	1.22	1.31		93
가구원 수					
1인	(1)	1.00	1.00	4.4**	100
2인	(134)	1.07	1.20		89
3~4인	(654)	1.13	1.33		85
5인 이상	(212)	1.20	1.42		8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	1.19	1.49	1.9 [#]	80
100~200 미만	(46)	1.00	1.28		78
200~300 미만	(206)	1.05	1.28		82
300~400 미만	(238)	1.14	1.29		88
400~500 미만	(181)	1.19	1.34		89
500 이상	(323)	1.17	1.40		84
육구소득비					
1 미만	(18)	1.18	1.46	1.5	81
1~2 미만	(218)	1.13	1.27		89
2~3 미만	(338)	1.11	1.33		83
3~4 미만	(201)	1.17	1.37		85
4 이상	(225)	1.15	1.37		84

주: 1)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2009년 자료는 유배우부인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제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5-6>과 동일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 질문에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 또는 남편(부인 부재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 응답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이상여아수는 1.33명으로 평균 이상남아수 1.14명 보다 많았다. 따라서 평균 이상자녀수의 성비는 86으로 ‘여아선호’ 현상을 보여 주었다.

〈표 5-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¹⁾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수)	평균 남아수	평균 여아수	F(T)	성비
전체	(901)	1.14	1.33		86
연령					
15~24세	(16)	1.03	1.16	4.1**	89
25~29세	(91)	1.01	1.18		86
30~34세	(257)	1.11	1.31		85
35~39세	(254)	1.14	1.41		81
40~44세	(283)	1.22	1.35		9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	1.14	1.43	4.1*	80
고등학교	(431)	1.15	1.28		90
대학 이상	(455)	1.14	1.38		83
취업여부					
취업	(410)	1.16	1.36	(1.3)	85
비취업	(491)	1.12	1.31		85
현존자녀수					
0명	(105)	1.06	1.20	4.2**	88
1명	(220)	0.96	1.33		72
2명	(469)	1.20	1.33		90
3명	(96)	1.34	1.50		89
4명 이상	(11)	1.06	1.41		75
현존아들수					
0명	(276)	1.04	1.35	0.9	77
1명	(452)	1.14	1.34		85
2명 이상	(174)	1.32	1.29		102
현존딸수					
0명	(360)	1.15	1.23	15.5***	93
1명	(414)	1.10	1.38		80
2명 이상	(127)	1.23	1.50		82

주: 1)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여아선호를 더 강하게 보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은 35~39세 연령층(81), 대학 이상 교육수준(83), 현존자녀수 1명(72), 아들이 많을수록, 딸이 없는 경우 등이었다.

〈표 5-25〉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개인특성별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수)	평균 남아수	평균 여아수	F(T)	성비
전체	(100)	1.10	1.15		96
연령					
25~29세	(7)	1.00	1.28	0.5	78
30~34세	(26)	0.93	1.14		82
35~39세	(13)	1.11	1.23		90
40~44세	(30)	1.19	1.09		109
45세 이상	(24)	1.20	1.18		10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	1.00	0.38	5.9**	263
고등학교	(38)	1.3	1.07		121
대학 이상	(60)	1.09	1.23		89
취업여부					
취업	(97)	1.10	1.16	(0.3)	95
비취업	(3)	1.00	1.16		86
현존자녀수					
0명	(21)	0.91	1.25	2.8*	73
1명	(35)	1.06	1.00		106
2명	(41)	1.20	1.24		97
3명	(4)	1.45	1.11		131
4명 이상	-	-	-		-
현존아들수					
0명	(39)	1.02	1.30	4.7*	78
1명	(52)	1.08	1.05		102
2명 이상	(9)	1.58	1.17		135
현존딸수					
0명	(51)	1.05	1.11	8.7***	95
1명	(40)	1.13	1.10		103
2명 이상	(8)	1.26	1.67		75

주: 1)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 질문에 응답한 남편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44세 유배우부인 남편의 평균 이상여아수는 1.15명으로 평균 이상남아수 1.10명 보다 많았다. 따라서 평균 이상자녀수의 성비는 96으로 유배우부인 보다는 미미하지만 역시 ‘여아선호’ 현상을 보여 주었다.

여아선호를 더 강하게 보인 남편의 개인특성을 보면, 젊을수록, 대학 이상 교육수준(89), 비취업(86), 자녀가 없는 경우(73), 아들이 없는 경우(78), 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75) 등이었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본 바로는 우리 사회에서 남아선호 보다는 여아선호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미하긴 하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남아선호가 잔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아출산 노력 경험’과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를 파악하였다.

2012년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이 있는 가구의 ‘남아출산 노력 경험’은 3.6%이었다. 이는 2006년 조사결과(6.1%) 보다는 감소한 것이며, 2009년 조사결과(3.6%)와는 동일한 것이었다.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의 유형으로는 자연요법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초음파검사 0.7%, 양수검사 0.2%, 융모막검사 0.1% 등이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남아출산 노력 경험’ 여부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지역 거주가구(5.2%), 5인 이상 가구원 수를 가진 가구(5.3%), 비교적 가구소득이 많은 가구(3.4% 이상),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이거나 3~4 미만인 가구(각각 4.9%, 4.0%)가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유형은 가구특성에 상관없이 자연요법이 가장 많았다.

〈표 5-26〉 15~44세 유배우부인 가구의 특성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

(단위: %, 명)

특성	노력않음	노력유형별 경험률 ¹⁾						(분석대상수)
		소계	자연 요법	양수 검사	용모막 검사	초음파 검사	기타	
2006년	93.9	6.1	3.8	0.5	0.1	1.9	1.0	(5,081)
2009년	96.4	3.6	2.0	0.4	0.1	1.3	0.1	(4,779)
2012년	96.4	3.6	2.9	0.2	0.1	0.7	0.3	(4,220)
거주지역								
동부	96.7	3.3	2.8	0.2	0.1	0.7	0.3	(3,665)
읍·면부	94.8	5.2	3.4	0.5	0.2	1.1	0.5	(555)
가구원 수								
1인	100.0	-	-	-	-	-	-	(1)
2인	99.2	0.8	0.8	0.4	-	-	-	(241)
3~4인	96.6	3.4	2.8	0.2	0.1	0.6	0.2	(3,237)
5인 이상	94.7	5.3	3.6	0.5	0.1	1.5	0.7	(740)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00.0	-	-	-	-	-	-	(22)
100~200 미만	98.1	1.9	1.3	-	-	0.6	-	(160)
200~300 미만	97.2	2.8	2.1	0.2	-	0.6	0.1	(819)
300~400 미만	95.9	4.1	3.4	0.2	0.1	0.8	0.3	(1,039)
400~500 미만	96.6	3.4	2.8	0.4	-	0.7	0.1	(816)
500 이상	95.9	4.1	3.3	0.3	0.1	0.7	0.6	(1,340)
육구소득비								
1 미만	95.1	4.9	1.7	-	-	1.6	-	(61)
1~2 미만	96.2	3.8	2.7	0.4	0.1	0.9	0.2	(851)
2~3 미만	96.6	3.4	2.9	0.2	-	0.6	0.2	(1,568)
3~4 미만	96.0	4.0	3.4	0.4	0.3	0.6	0.4	(800)
4 이상	96.6	3.4	2.6	0.1	-	0.8	0.5	(916)

주: 1) 남아출산 노력 경험이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표 5-10>과 동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남아출산 노력 경험’ 여부와 노력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일관성은 없었으며, 20대 후반(4.4%)과 40대 초반(4.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4.1%), 아들이 1명인 경우(4.3%), 딸을 2명 이상 둔 경우(8.8%)의 유배우여성이 남아출산 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였다.

〈표 5-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

(단위: %, 명)

특성	노력않음	노력유형별 경험률 ¹⁾						(분석대상수)
		소계	자연 요법	양수 검사	용모막 검사	초음파 검사	기타	
연령								
15~24세	100.0	-	-	-	-	-	-	(54)
25~29세	95.6	4.4	4.1	-	-	0.3	-	(339)
30~34세	98.2	1.8	1.4	0.1	-	0.2	0.2	(999)
35~39세	95.9	4.1	3.5	0.4	-	0.7	0.3	(1,286)
40~44세	95.7	4.3	3.1	0.3	0.2	1.0	0.5	(1,53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9.1	0.9	0.9	-	-	-	-	(115)
고등학교	96.4	3.6	2.7	0.2	-	0.8	0.3	(1,841)
대학 이상	96.3	3.7	3.1	0.3	0.1	0.7	0.4	(2,263)
취업여부								
취업	97.0	3.0	2.4	0.2	0.0	0.6	0.2	(2,007)
비취업	95.9	4.1	3.3	0.3	0.1	0.8	0.4	(2,213)
현존 아들수								
0명	96.1	3.9	0.3	0.3	0.2	0.7	0.3	(1,318)
1명	95.7	4.3	0.3	0.3	0.0	0.9	0.4	(2,111)
2명 이상	98.7	1.3	-	-	-	-	0.1	(791)
현존 딸수								
0명	99.4	0.6	-	-	-	-	0.1	(1,485)
1명	96.1	3.9	0.1	0.1	-	0.5	0.1	(2,007)
2명 이상	91.2	8.8	0.8	0.8	0.4	2.6	1.2	(729)

주: 1) 남아출산 노력 경험이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본 조사결과

다음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부인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를 파악하였다. ‘태아 성감별’ 실시율은 첫 인공임신중절시 2.8%,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시 2.8%로 동일하였다.¹²⁾ 이는 과거조사보다 증가한 것이다(첫 중절시 실시율: 2006년 2.5%, 2009년 1.8%; 마지막 중절시 실시율: 2006년 2.6%, 2009년 2.0%).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실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은 동부지역

12) 인공임신중절을 단 한번만 경험한 경우는 첫 중절과 마지막 중절에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거주자, 가구원 수 3~4인,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과 400~500만원 미만, 욕구소득비 3~4 미만이었다.

〈표 5-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단위: 명, %)

특성	첫 중절시 태아 성감별		마지막 중절시 태아 성감별	
	(분석대상수)	실시율	(분석대상수)	실시율
2006년	(1,830)	2.5	(1,832)	2.6
2009년	(1,271)	1.8	(1,270)	2.0
2012년	(785)	2.8	(785)	2.8
거주지역				
동부	(669)	2.8	(669)	2.8
읍·면부	(116)	2.6	(116)	2.6
가구원 수				
1인	(1)	-	(1)	-
2인	(32)	-	(32)	-
3~4인	(598)	3.0	(598)	3.2
5인 이상	(154)	1.9	(154)	1.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	-	(2)	-
100~200 미만	(22)	-	(22)	-
200~300 미만	(178)	3.4	(178)	2.8
300~400 미만	(173)	2.3	(173)	2.9
400~500 미만	(151)	3.3	(151)	3.9
500 이상	(258)	2.3	(258)	2.3
욕구소득비				
1 미만	(8)	-	(8)	-
1~2 미만	(179)	3.4	(179)	3.4
2~3 미만	(270)	2.6	(270)	3.0
3~4 미만	(157)	5.1	(157)	4.5
4 이상	(171)	0.6	(171)	0.6

주: 임신중절경험이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표 5-10>과 동일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실시율을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분석대상이 적어 유의미하지 않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존 남아가 0명인 경우,

현존 여아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29〉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단위: %)

특성	첫 중절시 태아 성감별		마지막 중절시 태아 성감별	
	(분석대상수)	실시율	(분석대상수)	실시율
연령				
15~24세	(5)	40.0	(5)	40.0
25~29세	(14)	-	(14)	-
30~34세	(129)	1.6	(129)	0.8
35~39세	(240)	2.1	(240)	2.1
40~44세	(397)	3.3	(397)	3.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	7.7	(26)	7.7
고등학교	(459)	3.1	(459)	2.8
대학 이상	(301)	2.0	(301)	2.3
취업여부				
취업	(426)	2.3	(426)	2.3
비취업	(360)	3.3	(360)	3.3
현존 남아수				
0명	(203)	3.9	(203)	3.9
1명	(411)	1.9	(411)	1.9
2명 이상	(172)	3.5	(172)	3.5
현존 여아수				
0명	(268)	2.2	(268)	2.2
1명	(340)	1.8	(340)	1.8
2명 이상	(178)	5.6	(178)	5.6

주: 임신중절검험이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본 조사결과

4. 입양에 대한 태도

자녀를 두고 싶지만 둘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적절한 양육환경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입양은 공급의 양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공급 측면 보다는 수요 측면을

더 의미있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수급이 맞지 않아 해외입양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을 하여 자녀를 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양고려 경험’ 여부를 질문하였다.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입양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는 8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려한 적이 있으나 포기하였다’ 9.9%, ‘입양을 적극 고려하였다’ 1.2%, 실제로 ‘입양 경험이 있다’ 0.1%의 순이었다.

〈표 5-30〉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입양고려 경험

(단위: %, 명)

특성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	고려한 적이 있으나 포기하였다	입양을 적극 고려하였다	입양 경험이 있다	계(수)	χ^2
전체	88.7	9.9	1.2	0.1	100.0(4,503)	
지역						
동부	89.1	9.6	1.2	0.1	100.0(3,909)	-
읍·면부	86.2	12.0	1.3	0.5	100.0(594)	
가구원 수						
1인	100.0	-	-	-	100.0(1)	-
2인	88.3	9.3	2.4	-	100.0(539)	
3~4인	88.6	10.0	1.2	0.2	100.0(3,228)	
5인 이상	89.4	9.9	0.7	-	100.0(73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8.0	12.0	-	-	100.0(25)	-
100~200 미만	90.9	7.4	1.7	-	100.0(176)	
200~300 미만	88.5	10.2	1.0	0.3	100.0(886)	
300~400 미만	88.6	10.5	0.9	-	100.0(1,117)	
400~500 미만	90.4	8.2	1.3	0.1	100.0(876)	
500 이상	87.4	10.9	1.6	0.1	100.0(1,398)	
육구소득비						
1 미만	95.2	4.8	-	-	100.0(62)	-
1~2 미만	88.4	10.0	1.3	0.3	100.0(869)	
2~3 미만	89.5	9.7	0.7	0.1	100.0(1,626)	
3~4 미만	89.9	8.8	1.4	-	100.0(878)	
4 이상	86.3	11.5	2.1	0.1	100.0(1,040)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입양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여 ‘입양을 적극 고려하였다’와 ‘입양 경험이 있다’를 합한 비율을 가구특성과 개인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입양에 적극성을 보인 가구의 특성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1.8%), 가구원이 2인 가구(2.4%), 가구소득이 100~2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가구(각 1.7%), 육구소득비가 4 이상인 가구(2.2%) 등이었다.

또한 부인의 연령이 50대(2.5%),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1.7%), 취업 중(1.6%), 자녀가 없거나 4명 이상인 경우(각 2.7%, 2.6%)에 입양에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보였다.

〈표 5-3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입양고려 경험

(단위: %, 명)

특성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	고려한 적이 있으나 포기하였다	입양을 적극 고려하였다	입양 경험이 있다	계(수)	χ^2
연령						
15~29세	93.3	4.4	2.2	-	100.0(45)	-
30~39세	92.2	6.9	0.8	-	100.0(361)	
40~49세	90.2	8.9	0.9	-	100.0(1,003)	
50~59세	84.5	12.0	2.2	0.3	100.0(1,232)	
60세 이상	88.7	10.3	0.9	0.1	100.0(1,4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1.8	8.2	-	-	100.0(97)	-
고등학교	88.7	10.1	0.9	0.3	100.0(1,729)	
대학 이상	87.6	10.7	1.7	-	100.0(2,227)	
취업여부						
취업	88.4	10.0	1.4	0.2	100.0(1,896)	-
비취업	87.0	10.8	1.2	0.1	100.0(2,154)	
현존자녀수						
0명	87.2	10.1	2.7	-	100.0(406)	-
1명	87.0	11.5	1.1	0.3	100.0(1,143)	
2명	88.9	10.0	1.1	0.0	100.0(2,076)	
3명	89.1	9.8	1.0	-	100.0(387)	
4명 이상	92.1	5.3	2.6	-	100.0(38)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출산행태의 변화

출산행태의 변화는 출산력 변화추이에 의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을 제시한다. 2012년 조사는 2010년 이후의 모든 출산을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1년의 출산율을 산출하여 제시한다.

1.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연령별 출산율은 여성 1,000명(미혼 및 기혼 모두 포함)이 출산하는 아이수를 의미한다. 산출방식은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부인연령인 15~49세를 5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분석결과(표 5-32 참조)에 기초하여, 2012년 조사에서 나타난 2011년의 연령별 출산율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³⁾

첫째,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층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25~29세 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30~34세으로 옮겨졌고,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이 연령층의 출산율이 역대 최고치인 113명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최근 여성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과거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1990년대 초·중반에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다시 하락하여 저하를 지속하고 있다(1981년 245명, 2011년 82명).

셋째, 35세 이상 고령출산율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강하게 나타나

13) 본 조사의 연령별 출산율 결과는 통계청의 2011년 인구동태자료에서 제시된 연령별 출산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참고로,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면, 15~19세 1.8명, 20~24세 16.4명, 20~25세 78.4명, 30~34세 114.4명, 35~39세 35.4명, 40~44명 4.6명, 45~49세 0.2명이다.

고 있으며, 특히 35~39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2008년부터 전체 7개 연령층 중 세 번째로 높은 출산율(2008년 30명, 2011년 45명)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40~44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 3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5명)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고령출산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임신부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⁴⁾

〈표 5-32〉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단위: 명/여성 1,000명당)

연령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15~19세	12	7	3	3	3	3	2	1	1	1	2
20~24세	161	162	104	62	71	62	50	24	19	16	17
25~29세	245	187	168	188	195	181	142	110	94	89	82
30~34세	94	52	39	50	64	83	75	83	87	104	113
35~39세	23	8	6	7	15	10	13	13	14	30	45
40~44세	3	1	3	1	1	4	3	2	4	3	5
45~49세	-	-	-	-	-	-	-	-	-	-	-

자료: <표 5-9>와 동일

2. 합계출산율의 변화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생애동안 출산하는 아이수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결과의 합계출산율은 1.316명으로 동일한 조사와 비교하면, 1999년 이후 4번의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¹⁵⁾ 또한 동일한 조사 중 최저

14) 이번 조사에서는 출산율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 연령인 만 50세에 건강한 출산을 한 부인도 있어 평소와 임신기간 중 건강관리만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한다.

15) 본 조사의 합계출산율 1.316명은 통계청의 2011년 인구동태자료에서 제시된 합계출산율 1.244명보다 약간(0.072명) 높은 것이다.

기록을 보인 2005년의 합계출산율 1.09명 이후 2008년 1.22명에 이어 지속 상승한 것이다.

〈표 5-33〉 합계출산율의 변화

(단위: 명/여성 1명당)

연도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합계출산율	2.7	2.1	1.6	1.6	1.75	1.71	1.43	1.17	1.09	1.22	1.316

자료: <표 5-9>와 동일

3.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전술한 연령별 출산율과 이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합계출산율은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유배우 출산율은 혼인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유배우 출산율이 갖는 의미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유배우 출산율은 통상적으로 20~49세 연령층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결혼연령을 고려한 것이다. 20~49세 연령을 5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것이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이다. 동일한 조사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이번 조사까지의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변동추이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층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20~24세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25~29세 연령층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를 주 출산연령층이 30~34세 연령층인 연령별 출산율과 비교하면, 결혼을 빨리하면 출산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미혼여성을 포함하여 산출되는 연령별 출산율은 30~34

세 연령층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반면, 유배우 출산율은 25~29세 연령층이라는 점은 미혼율 및 결혼율에 의한 것이다.

둘째,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은 연령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상승과 함께 계획된 자녀를 모두 출산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출산종료 부인이 추가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가치관 변화가 초래되어야 한다. 즉, 다자녀관이 정착되고, 자녀양육 부담이 없어야 가능할 것이다.

셋째, 20~44세의 모든 연령층에서 유배우 출산율이 상승하였다. 20~29세 연령층은 2005년에 출산율이 낮아졌으며, 2008년 최저 기록을 보였고, 2011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0~39세 연령층은 1990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40~44세 연령층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출산이 이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표 5-34〉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동추이

(단위: 명/유배우부인 1,000명당)

연령	1990 ¹⁾	1993 ²⁾	1996 ³⁾	1999 ⁴⁾	2002 ⁵⁾	2005 ⁶⁾	2008 ⁷⁾	2011 ⁸⁾
20~24세	306	320	377	386	313	202	127.7	272.7
25~29세	234	237	264	224	250	231	188.0	241.9
30~34세	53	65	88	86	106	108	133.2	155.3
35~39세	7	15	11	14	16	17	34.3	52.2
40~44세	1	1	4	4	2	4	3.5	5.1
45~49세	-	-	-	-	-	-	-	-

자료: 1)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홍문식 외(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조남훈 외(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본 조사결과

본 절에서 살펴본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최근에 출산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그렇지만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2.1명)을 감안하

면, 현저히 매우 낮은 상태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며, 본격적인 상승전환은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출생아수 및 현존자녀수의 변화와 추가자녀 계획

본 절에서는 한 부인이 출산한 총 출생아수(children ever-born), 현존자녀수를 분석하여 시계열적으로 비교한다. 이에 더하여 추가자녀 계획 여부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1. 출생아 수

‘출생아’의 개념은 부인이 낳은 모든 아이를 의미한다. 출산시기는 결혼 전·후와 결혼 내·외를 묻지 않는다. 아울러 출생한 아이의 생사 여부, 입양 여부, 결혼 여부를 묻지 않는다. 또한 재혼부인인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도 그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본인의 출생아에 포함된다. 물론 쌍태아 또는 삼태아인 경우도 2명 또는 3명의 출생아로 계산된다. 그렇지만 현재 부부의 아이일지라도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 즉 남편의 전처 아이, 혼외자녀는 출생아에서 제외되며, 입양된 아이도 제외된다. 요약하면, 현재 본인의 자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이 되었든, 그리고 아이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부인 본인이 생애동안 출산한 모든 아이는 출생아수에 포함되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6, 200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는 1.61명으로 2006년 1.7명, 2009년 1.69명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출생아수 분포를 보면, 출생아 2명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명 28.4%, 0명 10.9%, 3명

9.4%, 4명 이상 0.8%이었다. 출생아수 0명과 1명은 증가한 것이며, 2명 이상은 감소한 것이다.

평균 출생아수를 부인의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지역 거주(1.74명), 가구원 수 5인 이상(2.44명),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1.71명), 욕구소득비 1 미만(1.97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3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수 분포

특성	출생아수						χ ²	평균 출생아수	F(T)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2006	9.8	22.6	57.0	9.8	0.8	100.0(5,394)		1.7	
2009	10.1	23.0	55.9	10.1	0.9	100.0(4,866)		1.69	
2012	10.9	28.4	50.4	9.4	0.8	100.0(4,542)		1.61	
지역									
동부	11.1	28.9	50.6	8.8	0.6	100.0(3,945)	29.2***	1.59	(-3.7***)
읍·면부	10.1	25.0	49.2	13.7	2.0	100.0(597)		1.74	
가구원 수									
1인	-	-	100.0	-	-	100.0(1)	-	2.00	1440.8***
2인	86.2	5.9	7.6	0.4	-	100.0(543)		0.22	
3~4인	0.7	35.3	62.0	1.9	0.1	100.0(3,256)		1.65	
5인 이상	0.5	14.6	31.0	49.2	4.7	100.0(742)		2.4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3	41.7	37.5	12.5	-	100.0(24)	96.4***	1.52	9.7***
100~200 미만	15.3	38.6	36.9	8.0	1.1	100.0(176)		1.42	
200~300 미만	13.8	35.1	41.6	8.3	1.2	100.0(890)		1.49	
300~400 미만	11.5	28.8	48.5	10.4	0.7	100.0(1,123)		1.60	
400~500 미만	11.0	25.0	54.3	9.0	0.7	100.0(880)		1.63	
500 이상	8.0	24.8	56.8	9.9	0.6	100.0(1,418)		1.71	
욕구소득비									
1 미만	3.2	34.9	36.5	15.9	9.5	100.0(63)	409.3***	1.97	69.9***
1~2 미만	3.8	25.3	49.1	19.9	1.8	100.0(873)		1.91	
2~3 미만	7.4	29.0	54.1	8.8	0.7	100.0(1,636)		1.67	
3~4 미만	13.5	26.7	53.5	6.1	0.2	100.0(881)		1.53	
4 이상	20.5	31.3	43.8	4.3	0.1	100.0(1,061)		1.32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5-10>과 동일

평균 출생아수를 부인의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가 많았으며, 비취업 부인(1.64명)이 취업부인(1.57명)보다 출생아가 많았다.

〈표 5-3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출생아수						χ ²	평균 출생아수	F(T)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연령									
15~24세	24.6	60.9	14.5	-	-	100.0(69)	946.0***	0.89	239.9***
25~29세	38.6	44.9	15.2	0.9	0.5	100.0(428)		0.80	
30~34세	16.6	39.4	37.5	5.8	0.7	100.0(1,116)		1.35	
35~39세	5.7	22.1	59.9	11.5	0.7	100.0(1,343)		1.79	
40~44세	3.3	20.1	62.6	13.0	1.1	100.0(1,583)		1.8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9	29.8	33.9	23.1	3.3	100.0(121)	149.7***	1.83	59.7***
고등학교	7.3	24.7	54.9	11.9	1.2	100.0(1,943)		1.75	
대학 이상	13.8	31.3	47.7	6.8	0.4	100.0(2,477)		1.49	
취업여부									
취업	13.5	25.8	51.5	8.5	0.8	100.0(2,219)	41.7***	1.57	(-2.8**)
비취업	8.5	30.9	49.4	10.4	0.9	100.0(2,323)		1.6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2. 현존자녀수

‘현존자녀’는 전술한 ‘출생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구이든, 입양하였든 상관없이,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 모든 자녀가 현존자녀수의 개념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재혼한 가정의 경우 전 처의 자식, 전 남편의 자식도 포함되며, 자녀가 결혼을 하여 출가하였더라도 현존자녀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부부의 자녀였지만 다른 집에 입양된 경우와 사망한 자녀는 포함되

지 않는다(김승권 외, 2006, 200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61명으로 2000년 이후 조사 중에서 가장 적었으며, 2009년(1.68명) 대비 0.07명 감소하였다. 현존자녀수 분포는 2명이 50.3%로 가장 많았지만 2009년 대비 5.7%pt 감소하였고, 반대로 1명 이하는 39.6%로 2009년 대비 6.2%pt 증가하였다. 소폭이지만 현존자녀수가 감소한 것은 전술한 출생아수의 감소(2009년 대비 0.07명 감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후술하는 임신의 감소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

(단위: %, 명)

연도	1명 이하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자녀수
2000	31.7	57.4	10.9	100.0(6,404)	1.7
2003	27.4	60.6	12.0	100.0(6,599)	1.8
2006	32.2	56.8	11.0	100.0(5,395)	1.7
2009	33.4	56.0	10.6	100.0(4,869)	1.68
2012	39.6	50.3	10.1	100.0(4,545)	1.61

자료: <표 5-13>과 동일

최근 조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존자녀수가 0명이거나 1명인 비율(각각 10.8%, 28.8%)은 증가하였고, 2명과 3명인 비율(각각 50.3%, 9.2%)은 감소하였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현존자녀수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지역 거주가구(1.73명), 5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2.45명),¹⁶⁾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1.71명), 욕구소득비 1 미만의 가구(1.98명)의 현존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이는 현존자녀수가 많기 때문에 가구원이 많을 수 있다.

〈표 5-3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현존자녀수						χ^2	평균 자녀수	F(T)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수)			
2006	10.0	22.2	56.8	10.2	0.8	100.0(5,397)		1.7	
2009	10.1	23.3	56.0	9.7	0.8	100.0(4,869)		1.68	
2012	10.8	28.8	50.3	9.2	0.9	100.0(4,545)		1.61	
지역									
동부	11.0	29.4	50.4	8.6	0.7	100.0(3,949)	28.5***	1.58	3.7***
읍·면부	9.9	25.3	49.2	13.6	2.0	100.0(596)		1.73	
가구원 수									
1인	-	-	100.0	-	-	100.0(1)	-	2.00	15180***
2인	86.9	5.7	6.8	0.2	0.4	100.0(543)		0.21	
3~4인	0.5	36.1	61.9	1.4	0.1	100.0(3,257)		1.65	
5인 이상	0.5	14.0	30.9	50.0	4.6	100.0(744)		2.4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3	41.7	41.7	8.3	-	100.0(24)	119.5***	1.45	11.4***
100~200 미만	15.3	39.5	36.7	7.3	1.1	100.0(177)		1.40	
200~300 미만	13.7	37.3	39.1	8.4	1.5	100.0(890)		1.47	
300~400 미만	11.4	28.8	48.9	10.1	0.8	100.0(1,123)		1.60	
400~500 미만	11.1	25.0	54.4	8.8	0.7	100.0(880)		1.63	
500 이상	7.8	24.7	57.1	9.8	0.6	100.0(1,421)		1.71	
교육소득비									
1 미만	3.2	33.3	39.7	12.7	11.1	100.0(63)	434.2***	1.98	69.9***
1~2 미만	3.3	25.6	49.2	20.1	1.8	100.0(872)		1.92	
2~3 미만	7.4	30.3	53.2	8.4	0.7	100.0(1,636)		1.65	
3~4 미만	13.4	26.6	53.9	5.9	0.2	100.0(881)		1.53	
4 이상	20.5	31.2	43.9	4.2	0.2	100.0(1,061)		1.33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5-10>과 동일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에 따른 평균 현존자녀수는 다음과 같다. 부인의 연령이 15~24세 미만(0.89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존자녀수는 부인의 연령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5~29세 연령층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0.80명에 불과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많아져 40~44세 연령층 부인은 1.88명이었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현존자녀수는 많았고(중학교 이하

1.82명, 대학 이상 1.49명), 비취업 부인의 현존자녀수(1.64명)으로 취업 부인(1.57명) 보다 미미하게 많았다.

〈표 5-39〉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현존자녀수						χ^2	평균 자녀수	F(T)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수)			
연령									
15~24세	25.8	59.1	15.2	-	-	100.0(69)	920.0***	0.89	221.1***
25~29세	38.4	45.0	15.2	0.9	0.5	100.0(427)		0.80	
30~34세	16.5	39.1	37.5	6.4	0.6	100.0(1,120)		1.36	
35~39세	5.4	23.4	59.4	11.0	0.7	100.0(1,343)		1.78	
40~44세	3.4	20.5	62.5	12.4	1.3	100.0(1,584)		1.8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9	30.6	33.9	21.5	4.1	100.0(121)	143.2***	1.82	55.3***
고등학교	7.3	25.6	54.3	11.6	1.2	100.0(1,944)		1.74	
대학 이상	13.7	31.4	47.8	6.7	0.4	100.0(2,478)		1.49	
취업여부									
취업	13.3	26.4	51.2	8.2	0.8	100.0(2,219)	40.1***	1.57	(3.0**)
비취업	8.4	31.2	49.2	10.2	0.9	100.0(2,326)		1.6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3. 추가자녀 계획

15~44세 유배우부인이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비율이 76.6% 이었고, 출산을 할 계획인 비율은 20.1%이었으며, 현재 생각 중인 경우는 3.3%이었다.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1.6%), 1인 가구인 부인(72.2%),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부인(36.0%), 욕구소득비 4 이상의 부인(25.2%)과 1 미만의 빈곤 가구의 부인(23.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40〉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자녀 출산계획

(단위: %, 명)

특성	낳겠다	낳지 않겠다	생각중이다	계(수)	χ^2
전체	20.1	76.6	3.3	100.0(4,482)	
지역					
동부	19.9	76.7	3.3	100.0(3,894)	1.4
읍·면부	21.6	75.7	2.7	100.0(588)	
가구원 수					
1인	72.2	21.1	6.7	100.0(536)	1,131.1***
2인	14.5	82.2	3.3	100.0(3,210)	
3~4인	6.5	92.9	0.5	100.0(734)	
5인 이상	-	-	-	-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6.0	60.0	4.0	100.0(25)	112.2***
100~200 미만	29.1	64.6	6.3	100.0(175)	
200~300 미만	28.4	66.7	4.9	100.0(871)	
300~400 미만	22.1	75.3	2.6	100.0(1,102)	
400~500 미만	17.4	80.1	2.5	100.0(874)	
500 이상	14.0	83.2	2.8	100.0(1,407)	
육구소득비					
1 미만	23.8	71.4	4.8	100.0(63)	38.2***
1~2 미만	17.9	79.4	2.7	100.0(854)	
2~3 미만	16.8	79.6	3.5	100.0(1,612)	
3~4 미만	22.2	75.3	2.5	100.0(873)	
4 이상	25.2	71.0	3.8	100.0(1,05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비율을 개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부인의 연령이 젊을수록 추가 자녀 출산계획 비율이 높았는데, 40~44세 연령층은 3.6%에 불과한 반면, 15~24세 연령층은 67.7%나 되었다. 이는 아직 자녀가 없는 부인이 젊은 연령층에 많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 부인이,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추가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현존자녀가 없는 부인은 80.9%가 추가자녀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34.2%가 추가자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현존자녀가 2명 있는 부인의 추가

자녀 계획 비율은 크게 낮아져 2.7%에 불과하였다.

추가자녀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부인의 비율이 무자녀 부인의 11.9%, 한 자녀 부인의 60.0%나 되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는 무자녀를 원하거나 한 자녀만을 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

〈표 5-4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자녀 출산계획

					(단위: %, 명)
특성	낳겠다	낳지 않겠다	생각중이다	계(수)	χ^2
연령					
15~24세	67.7	24.6	7.7	100.0(65)	1285.9***
25~29세	63.1	29.6	7.3	100.0(425)	
30~34세	36.4	57.4	6.2	100.0(1,113)	
35~39세	9.6	88.0	2.5	100.0(1,329)	
40~44세	3.6	96.0	0.5	100.0(1,54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2	77.7	4.1	100.0(121)	55.1***
고등학교	15.6	82.0	2.4	100.0(1,894)	
대학 이상	23.7	72.4	3.9	100.0(2,465)	
취업여부					
취업	19.3	77.7	3.0	100.0(2,184)	3.1
비취업	20.9	75.6	3.5	100.0(2,298)	
현존자녀수					
0명	80.9	11.9	7.2	100.0(486)	1968.9***
1명	34.2	60.0	5.8	100.0(1,294)	
2명	2.7	95.7	1.6	100.0(2,243)	
3명	1.4	98.6	-	100.0(414)	
4명 이상	-	100.0	-	100.0(3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추가자녀를 원하는 15~44세 유배우부인(20.1%)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자녀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였다. 추가 희망자녀는 1명이 6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 29.1%이었으며, 3명 이상은 2.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평균 추가 희망자녀는 1.34명이었다.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 희망자녀수를 보면, 읍·면부지역 거주(1.37명), 2인 가구(1.60명),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1.88명), 육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가구(1.63명)의 추가 희망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4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 희망자녀수

(단위: %, 명)

특성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χ^2	평균	F(T)
전체	68.6	29.1	2.3	100.0(900)		1.34	
지역							
동부	68.6	29.4	2.1	100.0(773)	1.8	1.34	(0.6)
읍·면부	68.5	27.6	3.9	100.0(127)		1.37	
가구원 수							
1인	-	-	-	-	182.4***	-	102.4***
2인	44.6	51.0	4.4	100.0(386)		1.60	
3~4인	85.6	13.5	0.9	100.0(465)		1.15	
5인 이상	95.8	4.2	-	100.0(48)		1.0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3.3	44.4	22.2	100.0(9)	37.3***	1.88	5.04***
100~200 미만	66.0	34.0	-	100.0(50)		1.34	
200~300 미만	77.7	20.6	1.6	100.0(247)		1.24	
300~400 미만	64.2	32.5	3.3	100.0(243)		1.39	
400~500 미만	60.5	36.8	2.6	100.0(152)		1.43	
500 이상	71.8	26.7	1.5	100.0(195)		1.30	
육구소득비							
1 미만	53.3	33.3	13.3	100.0(15)	50.4***	1.63	11.2***
1~2 미만	86.2	13.8	-	100.0(152)		1.14	
2~3 미만	74.2	23.6	2.2	100.0(271)		1.28	
3~4 미만	62.7	34.2	3.1	100.0(193)		1.41	
4 이상	58.7	38.6	2.7	100.0(264)		1.4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평균 추가 희망자녀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5~29세 연령층 부인(1.42명),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부인(1.41명), 자녀가 없는 부인(1.60명)이 추가 희망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현존자녀가 없음에도 추가자녀를 1명 갖겠다는 부인이

44.6%나 되었고, 2명 갖겠다는 부인이 51.0%에 이르고 있으며, 3명 이상 갖겠다는 부인은 불과 4.3%에 머물고 있음은 향후 출산율이 개선될 여지가 매우 불투명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4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 희망자녀수

(단위: %, 명)

특성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χ^2	평균	F(T)
연령							
15~24세	65.9	34.1	-	100.0(44)	26.4**	1.34	5.9***
25~29세	61.8	34.8	3.4	100.0(267)		1.42	
30~34세	67.2	30.1	2.7	100.0(405)		1.36	
35~39세	78.0	21.3	0.8	100.0(127)		1.23	
40~44세	90.9	9.1	-	100.0(55)		1.1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6.4	13.6	-	100.0(22)	8.0#	1.15	3.1*
고등학교	72.6	25.0	2.4	100.0(296)		1.30	
대학 이상	65.6	31.8	2.6	100.0(582)		1.37	
취업여부							
취업	62.7	34.2	3.1	100.0(421)	12.3**	1.41	31.7***
비취업	73.5	24.6	1.9	100.0(480)		1.28	
현존자녀수							
0명	44.6	51.0	4.3	100.0(392)	186.5***	1.60	70.1***
1명	85.7	13.4	0.9	100.0(441)		1.15	
2명	95.0	5.0	-	100.0(60)		1.05	
3명	100.0	-	-	100.0(6)		1.00	
4명 이상	-	-	-	-		1.34	

주: 1) 추가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한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자료: 본 조사결과

추가자녀를 갖겠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별로 구별하여 추가자녀를 원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가구의 68.2%가 ‘구별하지 않음’이라고 하였고, 31.8%는 ‘구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특성의 부인이 추가자녀의 성을 ‘구별하지 않음’이 ‘구별해서’ 보다 더 많았다.

동부지역 거주부인(32.1%), 가구원 수 3~4인 가구(37.5%),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77.8%), 육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가구(46.7%) 등은 성(性)을 구별해서 추가자녀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4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자녀 성별 구별 여부

(단위: %, 명)

특성	구별하지 않음	구별해서	계(수)	χ^2
전체	68.2	31.8	100.0(897)	
지역				
동부	67.9	32.1	100.0(770)	0.2
읍·면부	70.1	29.9	100.0(127)	
가구원 수				
1인	74.0	26.0	100.0(385)	10.3***
2인	64.1	35.9	100.0(463)	
3~4인	62.5	37.5	100.0(48)	
5인 이상	-	-	-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2.2	77.8	100.0(9)	30.7***
100~200 미만	68.6	31.4	100.0(51)	
200~300 미만	68.8	31.2	100.0(247)	
300~400 미만	68.3	31.7	100.0(240)	
400~500 미만	55.3	44.7	100.0(152)	
500 이상	78.9	21.1	100.0(194)	
육구소득비				
1 미만	53.3	46.7	100.0(15)	8.9 [#]
1~2 미만	60.5	39.5	100.0(152)	
2~3 미만	69.6	30.4	100.0(270)	
3~4 미만	66.8	33.2	100.0(193)	
4 이상	73.0	27.0	100.0(26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현존 아들 및 딸이 각 2명 이상인 경우만 추가자녀의 성을 ‘구별해서’가 ‘구별하지 않음’ 보다 더 많았다. 그 외의 부인의 모든 특성에서 추가자녀의 성을 ‘구별하지 않음’이 ‘구별해서’ 보다 많았다.

〈표 5-4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자녀 성별 구별 여부

특성	구별하지 않음	구별해서	계(수)	(단위: %, 명) χ^2
연령				
15~24세	70.5	29.5	100.0(44)	16.9**
25~29세	70.1	29.9	100.0(268)	
30~34세	63.3	36.8	100.0(400)	
35~39세	71.7	28.3	100.0(127)	
40~44세	89.1	10.9	100.0(5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1.8	18.2	100.0(22)	2.0
고등학교	67.1	32.9	100.0(295)	
대학 이상	68.2	31.8	100.0(578)	
취업여부				
취업	70.1	29.9	100.0(418)	1.3
비취업	66.6	33.4	100.0(479)	
현존자녀수				
0명	74.2	25.8	100.0(391)	14.3**
1명	64.8	35.2	100.0(438)	
2명	54.1	45.9	100.0(61)	
3명	71.4	28.6	100.0(7)	
4명 이상	-	-	-	
현존아들수				
0명	70.9	29.1	100.0(643)	15.1**
1명	63.2	36.8	100.0(239)	
2명 이상	28.6	71.4	100.0(14)	
현존딸수				
0명	68.6	31.4	100.0(605)	10.5**
1명	70.0	30.0	100.0(273)	
2명 이상	33.3	66.7	100.0(18)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추가 자녀를 원하는 부인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 남아수 및 여아수를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희망 여아수 0.85명이었

고, 희망 남아수 0.58명으로 여아를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아 100명당 남아수를 의미하는 성비(性比)는 68로 ‘여아선호’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평균 이상자녀수의 성비 86 보다 더 심각한 ‘여아 선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추가 자녀를 둘에 있어서 ‘여아 선호’를 더 강하게 보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은 동부지역 거주(65), 가구원 수 3~4인(59)이었으며,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57), 1~2 미만의 욕구소득비(49)를 가진 경우이었다.

〈표 5-4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 희망 남아수 및 여아수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수)	평균 남아수	평균 여아수	F(T)	성비
전체	(283)	0.58	0.85		68
지역					
동부	(247)	0.56	0.86	(1.5)	65
읍·면부	(38)	0.72	0.77		94
가구원 수					
1인	-	-	-		-
2인	(100)	0.83	1.08	17.8***	77
3~4인	(166)	0.44	0.74		59
5인 이상	(18)	0.58	0.55		10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7)	0.77	1.17		66
100~200 미만	(16)	0.44	0.74		59
200~300 미만	(77)	0.47	0.82	2.2#	57
300~400 미만	(76)	0.55	0.87		63
400~500 미만	(68)	0.73	0.89		82
500 이상	(41)	0.64	0.78		82
욕구소득비					
1 미만	(7)	0.71	1.16		61
1~2 미만	(60)	0.39	0.80	0.6	49
2~3 미만	(82)	0.48	0.73		66
3~4 미만	(64)	0.73	0.87		84
4 이상	(71)	0.72	0.97		74

주: 1)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추가 희망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추가로 원하는 자녀의 성(性)은 부인의 개인특성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선호도를 보였다. 남아를 더 많이 원하는 부인특성으로는 15~24세 및 40~44세 연령층,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 이들이 없는 부인, 딸을 가진 부인 등이었다. 특히, 딸을 2명 이상 두고 있는 부인은 추가 자녀로 남아 1.00명, 여아 0.12명으로 매우 높은 남아 선호(833)를 보였다.

〈표 5-4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 희망 남아수 및 희망 여아수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수)	평균 남아수	평균 여아수	F(T)	성비
연령					
15~24세	(13)	0.91	0.50	1.4	182
25~29세	(80)	0.53	0.98		54
30~34세	(147)	0.58	0.85		68
35~39세	(36)	0.58	0.78		74
40~44세	(6)	0.64	0.45		1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	0.09	0.91	1.6	10
고등학교	(97)	0.57	0.86		66
대학 이상	(184)	0.60	0.84		71
취업여부					
취업	(125)	0.67	0.89	2.5*	75
비취업	(160)	0.51	0.82		62
현존자녀수					
0명	(101)	0.83	1.09	12.0***	76
1명	(154)	0.43	0.75		57
2명	(28)	0.55	0.56		98
3명	(2)	0.57	0.43		133
4명 이상	-	-	-		-
현존아들수					
0명	(187)	0.82	0.78	4.3*	105
1명	(88)	0.13	0.97		13
2명 이상	(10)	0.15	1.00		15
현존딸수					
0명	(190)	0.49	1.05	64.4***	47
1명	(82)	0.75	0.49		153
2명 이상	(12)	1.00	0.12		833

주: 1)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추가 희망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그 외의 부인특성은 여아선호를 보였는데, 25~39세 연령층, 모든 교육수준에서,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현존자녀 2명 이하, 현존아들 1명 이상, 딸이 없는 부인 등이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76.6%가 추가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표 5-40 참조), 이들이 왜 추가자녀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연령, 현존자녀수, 욕구소득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를 유배우부인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양육 비용은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에서 가장 큰 이유였고, 자녀교육 비용은 35~39세와 40~44세 연령층에서 가장 큰 이유였으며, 15~24세 연령층에서는 자녀양육 비용과 자녀교육 비용이 동일한 수준에서 가장 큰 이유였다.

관심을 가져야 할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낮은 소득, 고용불안정, 주택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은 15~24세 부인의 5.9%, 25~29세 부인의 7.9%, 30~34세 부인의 7.3%, 35~39세 부인의 6.7%, 40~44세 부인의 4.1%이었다. 자녀양육시설 부족, 직장에서의 차별, 사회활동 지장, 자녀 장래 염려 등 사회적 이유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은 25~29세 부인의 5.6%, 30~34세 부인의 5.9%, 35~39세 부인의 6.5%, 40~44세 부인의 2.9%이었다.

또한 가치관 관련 이유 중 여가를 위해, 아이를 싫어함, 자아성취 시간부족,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등으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은 25~29세 부인의 3.1%, 30~34세 부인의 3.3%, 35~39세 부인의 5.4%, 40~44세 부인의 7.1%이었다. 그 외에도 건강관련 이유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은 15~24세의 11.8%나 되었다는 점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5-4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

(단위: %, 명)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	유배우부인의 연령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경제적 이유					
저소득	5.9	5.5	4.3	3.2	2.0
실업상태여서	-	-	0.2	0.1	0.1
고용불안정	-	1.6	0.3	0.6	0.6
주택마련 어려움	-	0.8	2.5	2.8	1.4
자녀양육비용	35.3	40.9	32.8	20.0	14.2
자녀교육비용	35.3	24.4	23.4	28.5	23.8
(소계)	(76.5)	(73.2)	(63.5)	(55.2)	(42.1)
사회적 이유					
자녀양육시설부족	-	0.8	1.3	0.9	0.3
직장에서의 차별	-	-	0.5	0.2	0.1
사회활동 지장	-	2.4	3.6	4.8	1.7
자녀 장래염려	-	2.4	0.5	0.6	0.8
(소계)	(-)	(5.6)	(5.9)	(6.5)	(2.9)
가치관 관련					
여가를 위해	-	3.1	2.4	3.0	2.8
아이를 싫어함	-	-	-	0.2	1.2
자아성취 시간부족	-	-	0.6	1.1	0.8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	-	0.3	1.1	2.3
계획자녀 출산완료	11.8	14.2	16.8	18.7	21.4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	-	0.8	0.5	0.4	1.4
아이가 많음	-	0.8	0.6	0.8	1.4
(소계)	(11.8)	(18.9)	(21.2)	(25.3)	(31.3)
가족관련 이유					
가사 및 양육분담 불공평	-	1.6	0.6	0.4	0.5
부부관계가 좋지 않음	-	-	0.2	-	0.1
가족의 장애 및 건강	-	-	0.2	0.1	0.1
(소계)		(1.6)	(1.0)	(0.5)	(0.7)
건강관련 이유					
아이가 생기지 않음	-	-	0.8	0.8	1.1
본인의 건강문제	11.8	-	2.8	4.4	4.1
배우자의 건강문제	-	0.8	0.5	0.3	1.4
(소계)	(11.8)	(0.8)	(4.1)	(5.5)	(6.6)
기타					
나이가 많음	-	-	4.1	6.0	15.9
기타	-	-	0.2	1.2	0.3
(소계)	(-)	(-)	(4.3)	(7.2)	(16.2)
계(수)	100.0(17)	100.0(127)	100.0(635)	100.0(1,169)	100.0(1,475)

자료: 본 조사결과

다음으로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를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로 살펴보면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자녀가 없는 부인은 ‘자녀양육 비용’과 ‘아이가 생기지 않음’이 동일한 15.8%이었으며, 한 자녀를 둔 부인은 ‘자녀양육 비용’ 21.6%, ‘자녀교육 비용’ 19.7%이었다. 두 자녀를 둔 부인은 ‘자녀교육 비용’ 28.4%, ‘계획자녀 출산완료’ 23.2%이었고, 세 자녀를 둔 부인은 ‘계획자녀 출산완료’ 24.6%, ‘자녀교육 비용’ 23.2%이었으며, 네 자녀 이상을 둔 부인은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 30.8%, ‘자녀교육 비용’ 28.2%이었다. 이 외에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이유로는 두 자녀 부인의 20.8%, 세 자녀 부인의 20.0%, 네 자녀 이상 부인의 10.3%가 제시한 ‘자녀양육 비용’이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낮은 소득, 고용불안정, 주택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은 무자녀 부인의 12.3%, 한 자녀 부인의 6.7%, 두 자녀 부인의 5.2%, 세 자녀 부인의 6.3%, 네 자녀 이상 부인의 7.7%이었다. 자녀양육시설 부족, 직장에서의 차별, 사회활동 지장, 자녀 장래 염려 등 사회적 이유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은 무자녀 부인의 5.3%, 한 자녀 부인의 7.1%, 두 자녀 부인의 4.5%, 세 자녀 부인의 1.7%이었다.

또한 가치관 관련 이유 중 여가를 위해, 아이를 싫어함, 자아성취 시간부족,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등으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은 무자녀 부인의 19.3%, 한 자녀 부인의 11.2%, 두 자녀 부인의 4.1%, 세 자녀 부인의 1.7%이었다.

그 외에도 건강관련 이유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무자녀 부인의 28.1%나 되었다는 점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아이가 생기지 않음’이 무자녀 부인의 15.8%나 되었음은 난임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5-4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

(단위: %, 명)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	현존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경제적 이유					
저소득	5.3	4.0	2.2	4.1	7.7
실업상태여서	-	0.1	0.1	-	-
고용불안정	7.0	0.8	0.5	0.7	-
주택마련 어려움	-	1.8	2.4	1.5	-
자녀양육비용	15.8	21.6	20.8	20.0	10.3
자녀교육비용	8.8	19.7	28.4	23.2	28.2
(소계)	(36.9)	(48)	(54.4)	(49.5)	(46.2)
사회적이유					
자녀양육시설부족	-	0.9	0.7	-	-
직장에서의 차별	-	0.1	0.3	-	-
사회활동 지장	3.5	5.8	2.6	1.2	-
자녀 장래염려	1.8	0.3	0.9	0.5	-
(소계)	(5.3)	(7.1)	(4.5)	(1.7)	(-)
가치관 관련					
여가를 위해	10.5	5.3	2.1	1.0	-
아이를 싫어함	1.8	1.8	0.2	-	-
자아성취 시간부족	-	1.3	0.7	0.7	-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7.0	2.8	1.1	-	-
계획자녀 출산완료	1.8	6.3	23.2	24.6	-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	-	-	1.3	0.2	30.8
아이가 많음	-	0.1	0.1	6.3	2.6
(소계)	(21.1)	(17.6)	(28.7)	(32.8)	(33.4)
가족관련 이유					
가사 및 양육분담 불공평	-	1.3	0.2	1.0	-
부부관계가 좋지 않음	-	0.1	-	-	-
가족의 장애 및 건강	-	-	0.1	-	-
(소계)	(-)	(1.4)	(0.3)	(1.0)	(-)
건강관련 이유					
아이가 생기지 않음	15.8	2.1	0.2	-	-
본인의 건강문제	7.0	8.0	2.2	4.1	-
배우자의 건강문제	5.3	1.4	0.4	0.5	-
(소계)	(28.1)	(11.5)	(2.8)	(4.6)	(-)
기타					
나이가 많음	7.0	12.7	8.7	10.0	10.3
기타	1.8	1.4	0.3	0.2	-
(소계)	(8.8)	(14.1)	(9.0)	(10.2)	(10.3)
계(수)	100.0(57)	100.0(773)	100.0(2,142)	100.0(410)	100.0(39)

자료: 본 조사결과

마지막으로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를 욕구소득비별로 살펴보면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욕구소득비 1미만의 빈곤 가구의 부인은 ‘자녀교육 비용’(37.0%)과 ‘계획자녀 출산완료’ 21.7%이었으며, 욕구소득비 1~2 미만과 2~3 미만인 부인은 ‘자녀교육 비용’ 각각 26.2%, 29.4%, ‘자녀양육 비용’ 각각 25.6%, 23.0%이었다. 욕구소득비 3~4 미만인 부인은 ‘자녀교육 비용’ 25.4%, ‘계획자녀 출산완료’ 23.0%이었고, 욕구소득비 4 이상인 부인은 ‘계획자녀 출산완료’ 21.1%, ‘자녀교육 비용’ 17.9%이었다. 이 외에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이유로는 욕구소득비 1 미만 부인의 17.2%, 3~4 미만 부인의 18.5%, 4 이상 부인의 12.5%가 제시한 ‘자녀양육 비용’이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낮은 소득, 고용불안정, 주택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비율은 욕구소득비 1 미만 부인의 17.5%, 1~2 미만의 13.5%, 2~3 미만 부인의 5.4%, 3~4 미만 부인의 2.6%, 4 이상 부인의 2.2%이었다. 자녀양육시설 부족, 직장에서의 차별, 사회활동 지장, 자녀 장래 염려 등 사회적 이유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비율은 욕구소득비 1~2 미만 부인의 1.1%, 2~3 미만 부인의 2.5%, 3~4 미만 부인의 6.6%, 4 이상 부인의 10.7%이었다.

또한 가치관 관련 이유 중 여가를 위해, 아이를 싫어함, 자아성취 시간부족,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등으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의 비율은 욕구소득비 1 미만 부인의 2.2%, 1~2 미만 부인의 1.4%, 2~3 미만 부인의 4.5%, 3~4 미만 부인의 4.8%, 4 이상 부인의 12.1%이었다. 그 외에도 건강관련 이유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욕구소득비 1~2 미만 부인의 5.2%, 2~3 미만 부인의 4.5%, 3~4 미만 부인의 5.0%, 4 이상 부인의 8.5%이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5-5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욕구소득비별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

(단위: %, 명)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	욕구소득비				
	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 이상
경제적 이유					
저소득	10.9	9.2	2.1	0.8	0.3
실업상태여서	2.2	0.1	0.1	-	-
고용불안정	2.2	1.8	0.5	0.3	0.4
주택마련 어려움	2.2	2.4	2.7	1.5	1.5
자녀양육비용	17.2	25.6	23.0	18.5	12.5
자녀교육비용	37.0	26.2	29.4	25.4	17.9
(소계)	(71.7)	(65.3)	(57.8)	(46.5)	(32.6)
사회적이유					
자녀양육시설부족	-	0.4	0.2	0.9	1.5
직장에서의 차별	-	-	-	0.9	0.1
사회활동 지장	-	0.4	1.6	4.0	7.8
자녀 장래염려	-	0.3	0.7	0.8	1.3
(소계)	(-)	(1.1)	(2.5)	(6.6)	(10.7)
가치관 관련					
여가를 위해	-	1.0	1.9	3.2	5.6
아이를 싫어함	-	-	0.9	0.5	0.5
자아성취 시간부족	2.2	0.1	0.5	0.8	2.0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	0.3	1.2	0.3	4.0
계획자녀 출산완료	21.7	19.1	16.5	23.0	21.1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	-	0.1	1.7	-	0.7
아이가 많음	-	1.2	1.4	0.6	0.5
(소계)	(23.9)	(21.8)	(24.1)	(28.4)	(34.4)
가족관련 이유					
가사 및 양육분담 불공평	2.2	0.6	0.4	0.8	0.5
부부관계가 좋지 않음	-	-	0.1	0.2	-
가족의 장애 및 건강	-	0.1	0.1	-	-
(소계)	(2.2)	(0.7)	(0.6)	(1.0)	(0.5)
건강관련 이유					
아이가 생기지 않음	-	0.1	1.1	0.2	1.7
본인의 건강문제	-	4.7	2.3	4.0	6.3
배우자의 건강문제	-	0.4	1.1	0.8	0.5
(소계)	(-)	(5.2)	(4.5)	(5.0)	(8.5)
기타					
나이가 많음	2.2	5.8	9.2	12.0	13.0
기타	-	0.1	1.2	0.5	0.1
(소계)	(2.2)	(5.9)	(10.4)	(12.5)	(13.1)
계(수)	100.0(46)	100.0(677)	100.0(1,277)	100.0(652)	100.0(745)

자료: 본 조사결과

그렇다면 전술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보매체가 무엇인지를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전체의 83.5%가 영향을 준 정보매체가 없었으며, 16.5%만이 영향을 준 정보매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정보매체는 TV로 8.9%이었고 다음은 인터넷 5.2%,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2.0% 등의 순이었다.

〈표 5-5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준 정보매체

(단위: %, 명)

특성	없음	있음						계(수)	χ^2
		소계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기타		
전체	83.5	16.5	2.0	0.2	8.9	5.2	0.2	100.0(4,514)	
지역									
동부	83.8	16.3	1.9	0.2	8.7	5.2	0.3	100.0(3,917)	6.5
읍·면부	81.6	18.3	2.8	0.3	10.2	5.0	-	100.0(597)	
가구원 수									
1인	100.0	-	-	-	-	-	-	100.0(1)	43.9 ***
2인	75.1	24.9	2.4	0.2	12.4	9.5	0.4	100.0(539)	
3~4인	84.4	15.5	2.0	0.1	8.2	5.0	0.2	100.0(3,234)	
5인 이상	85.4	14.6	1.9	0.3	9.3	2.8	0.3	100.0(740)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4.0	16	-	-	4.0	12.0	-	100.0(25)	46.2 **
100~200 미만	77.8	22.1	1.1	-	11.9	9.1	-	100.0(176)	
200~300 미만	81.8	18.1	2.0	-	10.7	5.4	-	100.0(886)	
300~400 미만	81.1	19.0	2.0	0.2	9.8	6.5	0.5	100.0(1,114)	
400~500 미만	84.9	15.0	2.4	0.3	7.8	4.4	0.1	100.0(877)	
500 이상	86.3	13.7	2.0	0.1	7.7	3.8	0.1	100.0(1,406)	
육구소득비									
1 미만	85.7	14.2	-	-	6.3	7.9	-	100.0(63)	-
1~2 미만	84.2	15.8	1.6	0.1	9.1	5.0	-	100.0(868)	
2~3 미만	80.7	19.2	2.6	0.2	10.3	5.7	0.4	100.0(1,625)	
3~4 미만	84.8	15.1	1.7	0.1	8.3	4.7	0.3	100.0(877)	
4 이상	85.7	14.3	1.9	-	7.5	4.8	0.1	100.0(1,05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준 정보매체가 있다는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8.3%), 2인 가구원의 부인(24.9%),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부인(22.1%), 욕구소득비 2~3 미만 가구의 부인(19.2%)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영향을 준 정보매체가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대학 이상 학력(17.6%) 및 중학교 이하 학력(17.5%)의 정보매체 영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준 정보매체

(단위: %, 명)

특성	없음	있음						계(수)	X ²
		소계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기타		
연령									
15~24세	67.7	32.3	4.6	-	15.4	12.3	-	100.0(65)	-
25~29세	76.5	23.5	3.3	-	8.7	11.5	-	100.0(425)	
30~34세	78.4	21.7	2.7	0.3	10.6	7.7	0.4	100.0(1,112)	
35~39세	84.7	15.4	1.4	0.1	9.1	4.5	0.3	100.0(1,337)	
40~44세	88.6	11.4	1.7	0.2	7.3	2.1	0.1	100.0(1,57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2.5	17.5	3.3	-	10.0	4.2	-	100.0(120)	-
고등학교	85.1	14.9	1.7	0.1	9.6	3.4	0.1	100.0(1,929)	
대학 이상	82.3	17.6	2.3	0.2	8.2	6.6	0.3	100.0(2,462)	
현존자녀수									
0명	74.5	25.5	2.7	0.2	11.9	10.3	0.4	100.0(487)	-
1명	82.9	17.1	2.1	0.1	8.0	6.7	0.2	100.0(1,304)	
2명	85.4	14.6	2.1	0.2	8.5	3.7	0.1	100.0(2,265)	
3명	85.6	14.4	1.0	0.2	10.1	2.6	0.5	100.0(416)	
4명 이상	87.2	12.8	-	-	12.8	-	-	100.0(39)	

주: 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²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정부의 정책지원 시 15~44세 유배우부인이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비율이 72.8%이었고, 출산을 할 계획인 비율은 24.9%이었으며,

생각 중인 경우는 2.3%이었다.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8.6%), 2인 가구인 부인(75.9%),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욕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가구의 부인(30.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5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정부의 정책지원 시 추가자녀 출산계획

(단위: %, 명)

특성	날것다	날지 않것다	생각중이다	계(수)	χ^2
전체	24.9	72.8	2.3	100.0(4,478)	
지역					
동부	24.4	73.4	2.2	100.0(3,891)	7.1*
읍·면부	28.6	68.3	3.1	100.0(587)	
가구원 수					
1인	-	-	-	-	906.7***
2인	75.9	20.0	4.1	100.0(536)	
3~4인	19.6	78.1	2.3	100.0(3,207)	
5인 이상	10.9	87.9	1.2	100.0(73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0.0	60.0	-	100.0(25)	123.2***
100~200 미만	35.6	60.9	3.4	100.0(174)	
200~300 미만	34.9	61.8	3.3	100.0(872)	
300~400 미만	27.4	70.4	2.2	100.0(1,101)	
400~500 미만	21.8	76.6	1.6	100.0(873)	
500 이상	17.4	80.5	2.1	100.0(1,405)	
욕구소득비					
1 미만	30.2	69.8	-	100.0(63)	18.8*
1~2 미만	23.8	73.7	2.5	100.0(852)	
2~3 미만	22.3	75.5	2.2	100.0(1,611)	
3~4 미만	26.4	71.6	2.1	100.0(872)	
4 이상	28.5	68.7	2.8	100.0(1,05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정부의 정책지원 시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비율을 개인특성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부인의 연령이 젊을수록 추가자녀 출산계획 비율이 높았는데, 40~44세 연령층은 5.1%에 불과한 반면, 15~24세 연령층은 72.1%나 되었다. 이는 아직 자녀가 없는 부인이 젊

은 연령층에 많기 때문에 판단된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 부인(28.8%), 비취업부인(26.6%),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정부의 정책지원 시 추가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현존자녀가 없는 부인은 85.2%가 추가자녀를 계획하고 있었고,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39.8%가 추가자녀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현존자녀가 2명 이상인 부인은 정책지원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자녀를 낳겠다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았음은 정책이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5-5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정부의 정책지원 시 추가자녀 출산계획

					(단위: %, 명)
특성	낳겠다	낳지 않겠다	생각중이다	계(수)	χ^2
연령					
15~24세	72.1	22.1	5.9	100.0(68)	1268.1***
25~29세	69.3	26.2	4.4	100.0(427)	
30~34세	44.5	50.9	4.6	100.0(1,110)	
35~39세	14.9	83.3	1.8	100.0(1,329)	
40~44세	5.1	94.4	0.5	100.0(1,5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8	75.8	3.3	100.0(120)	51.5***
고등학교	20.1	78.1	1.7	100.0(1,892)	
대학 이상	28.8	68.5	2.7	100.0(2,464)	
취업여부					
취업	23.1	74.8	2.1	100.0(2,184)	9.4***
비취업	26.6	70.8	2.6	100.0(2,294)	
현존자녀수					
0명	85.2	10.9	3.9	100.0(486)	1632.2***
1명	39.8	56.9	3.3	100.0(1,292)	
2명	7.3	91.0	1.7	100.0(2,246)	
3명	5.6	94.2	0.2	100.0(413)	
4명 이상	-	94.9	5.1	100.0(3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정부의 정책지원 시 추가자녀를 원하는 15~44세 유배우부인(24.9%)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자녀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였다. 추가 희망자녀는 1명이 7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 25.2%이었으며, 3명 이상은 2.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평균 추가 희망자녀는 1.30명이었다.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정부의 정책지원 시 추가 희망자녀수를 보면, 읍·면부지역 거주(1.34명), 2인 가구(1.54명),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1.67명), 욕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가구(1.45명)의 추가 희망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5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정책지원시 추가 희망자녀수

(단위: %, 명)

특성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χ^2	평균	F(T)
전체	72.6	25.2	2.2	100.0(1,114)		1.30	
지역							
동부	73.0	25.1	1.9	100.0(946)	2.1	1.29	(1.1)
읍·면부	70.2	26.2	3.6	100.0(168)		1.34	
가구원 수							
1인	-	-	-	-	151.5***	-	82.9***
2인	51.1	44.5	4.4	100.0(407)		1.54	
3~4인	84.4	14.6	1.0	100.0(628)		1.16	
5인 이상	89.9	10.1	-	100.0(79)		1.1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55.6	22.2	22.2	100.0(9)	-	1.67	2.2*
100~200 미만	67.2	32.8	-	100.0(61)		1.35	
200~300 미만	75.3	23.4	1.3	100.0(304)		1.26	
300~400 미만	71.9	25.2	3.0	100.0(302)		1.31	
400~500 미만	69.8	27.5	2.6	100.0(189)		1.34	
500 이상	75.8	23.0	1.2	100.0(244)		1.25	
욕구소득비							
1 미만	66.7	22.2	11.1	100.0(18)	32.4***	1.45	6.1***
1~2 미만	86.1	13.9	-	100.0(201)		1.15	
2~3 미만	72.2	25.8	1.9	100.0(360)		1.30	
3~4 미만	70.4	27.0	2.6	100.0(230)		1.32	
4 이상	67.2	30.4	2.3	100.0(299)		1.36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정부의 정책지원 시 평균 추가 희망자녀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5~29세 연령층 부인(1.38명),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부인(1.32명), 취업부인(1.34명), 자녀가 적을수록 추가 희망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현존자녀가 없음에도, 그리고 정부의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자녀를 1명만 갖겠다는 부인이 51.2%나 되었고, 2명 갖겠다는 부인이 44.4%에 이르고 있으며, 3명 이상 갖겠다는 부인은 불과 4.3%에 머물고 있음은 향후 출산율이 개선될 여지가 매우 불투명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5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정책지원시 추가 희망자녀수

(단위: %, 명)

특성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χ^2	평균	F(T)
연령							
15~24세	66.0	34.0	-	100.0(47)	25.0**	1.33	5.0**
25~29세	65.1	32.2	2.7	100.0(295)		1.38	
30~34세	72.3	25.3	2.4	100.0(494)		1.31	
35~39세	81.8	16.7	1.5	100.0(198)		1.20	
40~44세	83.3	16.7	-	100.0(78)		1.1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0.8	29.2	-	100.0(24)	7.6	1.29	2.4 [#]
고등학교	77.4	20.5	2.1	100.0(381)		1.25	
대학 이상	70.2	27.7	2.1	100.0(707)		1.32	
취업여부							
취업	69.0	28.4	2.6	100.0(504)	6.4*	1.34	(2.5*)
비취업	75.7	22.7	1.6	100.0(609)		1.26	
현존자녀수							
0명	51.2	44.4	4.3	100.0(414)	156.5***	1.54	57.4***
1명	82.9	16.1	1.0	100.0(514)		1.18	
2명	90.8	8.6	0.6	100.0(163)		1.09	
3명	95.7	4.3	-	100.0(23)		1.04	
4명 이상	-	-	-	-		-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마지막으로 어떤 정부지원이 있다면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희망정책은 ‘자녀양육비 지원’이 5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육비 지원’ 17.3%이었다. 가구특성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부인이 이들 두 정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는 ‘자녀양육비 지원’(55.6%)과 ‘출산지원금’(18.5%)을 희망하였고,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는 추가로 ‘보육시설 확충’(18.5%)을 희망하였다.

〈표 5-5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추가자녀 출산을 위한 희망 정부정책

(단위: %, 명)

특성	출산 지원금	자녀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아동시설 확충	기타	계(수)	χ^2
전체	7.5	59.7	17.3	9.0	5.0	1.5	100.0(927)	
지역								
동부	7.7	59.9	16.6	9.2	4.8	-	100.0(791)	4.9
읍·면부	5.9	58.8	21.3	8.1	5.9	1.5	100.0(136)	
가구원 수								
1인	-	-	-	-	-	-	-	61.9***
2인	9.0	59.8	14.6	12.4	4.0	0.3	100.0(323)	
3~4인	7.2	59.4	19.2	7.4	5.9	0.9	100.0(527)	
5인 이상	1.3	64.0	14.7	6.7	2.7	10.7	100.0(7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100.0	-	-	-	-	100.0(8)	72.7***
100~200 미만	18.5	55.6	16.7	3.7	3.7	1.9	100.0(54)	
200~300 미만	7.1	71.0	13.7	4.7	3.5	-	100.0(255)	
300~400 미만	7.0	58.5	19.0	7.0	5.4	3.1	100.0(258)	
400~500 미만	8.6	58.6	19.7	9.2	3.9	-	100.0(152)	
500 이상	4.6	48.7	18.5	18.5	7.2	2.6	100.0(195)	
육구소득비								
1 미만	-	80.0	-	-	13.3	6.7	100.0(15)	62.2***
1~2 미만	11.0	64.0	18.6	3.5	2.9	-	100.0(172)	
2~3 미만	6.3	64.8	14.8	6.9	5.0	2.2	100.0(318)	
3~4 미만	6.3	62.4	19.6	7.4	3.2	1.1	100.0(189)	
4 이상	7.4	46.3	19.7	17.5	7.4	1.7	100.0(22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추가자녀를 출산을 위해 어떤 정책지원이 필요한지를 부인의 개인특성별로 살펴보았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부인이 ‘자녀양육비 지원’과 ‘보육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다만, 15~24세 연령층 부인은 ‘자녀양육비 지원’(60.5%)과 ‘출산지원금’(18.6%)을 희망하였다.

〈표 5-5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추가자녀 출산을 위한 희망 정부정책

(단위: %, 명)

특성	출산 지원금	자녀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아동시설 확충	기타	계(수)	χ^2
연령								
15~24세	18.6	60.5	14.0	2.3	4.7	-	100.0(43)	33.4*
25~29세	8.4	59.7	19.0	9.3	3.5	-	100.0(226)	
30~34세	5.3	58.9	17.9	10.8	5.3	1.9	100.0(418)	
35~39세	6.9	61.5	14.9	8.0	5.2	3.4	100.0(174)	
40~44세	12.5	59.4	15.6	3.1	9.4	-	100.0(6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3	73.7	21.1	-	-	-	100.0(19)	35.5***
고등학교	8.6	67.4	14.1	3.2	6.1	0.6	100.0(313)	
대학 이상	6.8	55.4	18.8	12.5	4.6	2.0	100.0(592)	
취업여부								
취업	6.7	55.8	15.6	14.2	6.7	1.0	100.0(416)	32.2***
비취업	7.9	63.2	18.7	4.9	3.3	2.0	100.0(508)	
현존자녀수								
0명	8.9	58.8	14.5	13.5	4.0	0.3	100.0(325)	61.3***
1명	7.4	58.4	20.0	7.9	5.6	0.7	100.0(430)	
2명	4.7	64.2	15.5	3.4	4.7	7.4	100.0(148)	
3명	-	72.7	13.6	4.5	9.1	-	100.0(22)	
4명 이상	-	-	-	-	-	-	-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제5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이 있는 가구의 부인과 남편을 대상으로 자녀가치관과 출산행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남녀 간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전에 비교 가능한 내용에 대해 유배우부인과 남편의 의견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자녀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가져야 함’은 남편(53.5%)이 부인(45.5%)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함’은 부인(16.4%)이 남편(11.7%)보다 강하였다. 출산이 부부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출산당사자인 부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9〉 15~44세 유배우부인과 남편의 자녀필요성 차이

(단위: %, 명)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전체	46.3	53.5	37.5	16.0	0.3	100.0(4,536)
부인	45.5	54.1	37.7	16.4	0.3	100.0(4,079)
남편	53.5	46.5	34.8	11.7	-	100.0(454)

자료: 본 조사결과

다음은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몇 명의 자녀가 이상적인지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 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인은 30대 미만은 2.1명이, 30대 이상은 2.2명이 이상자녀수라고 하였으며, 남편은 24세 이하는 1.0명, 25~34세 2.0명, 35~39세 2.1명, 40~44세 2.2명을 이상자녀수라고 하여 연령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표 5-60〉 15~44세 유배우부인과 남편의 평균 이상자녀수 차이

(단위: %, 명)			
연령	전체	부인	남편
전체	2.2	2.2	2.2
15~24세	2.1	2.1	1.0
25~29세	2.1	2.1	2.0
30~34세	2.2	2.2	2.0
35~39세	2.2	2.2	2.1
40~44세	2.2	2.2	2.2

주: '이상자녀수가 있음'이라고 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상자녀수를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함.
자료: 본 조사결과

한국사회에 잔존해 있는 남아선호가치관에 대한 부인과 남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녀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비율은 남편이 부인보다 2.3%pt 높았고, ‘없어도 무관함’은 부인이 남편보다 6.6%pt 높았다.

〈표 5-61〉 15~44세 유배우부인과 남편의 아들 필요성 차이

(단위: %, 명)					
연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전체	8.2	33.0	58.3	0.5	100.0(4,535)
부인	8.0	32.6	58.9	0.5	100.0(4,083)
남편	10.3	36.7	52.3	0.7	100.0(455)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의 ‘성 구별’해서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2.3%로 ‘성 구별없음’(77.7%) 보다는 매우 낮았다. 그런데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수를 원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의 부부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여아선호’를 보였다. 즉, 부인의 평균 이상남아수 1.14명, 평균 이상여아수 1.33명이었고, 남편의 평균 이상남아수 1.10명, 평균 이상여아수 1.15명이었다. 따라서 이상자녀수는 부인이 많고, 남편이 적었으며, ‘여아선호가치관’은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 나타

난 현상이었으며, 부인의 여아선호가 더 심하였다.

〈표 5-62〉 15~44세 유배우부인과 남편의 이상남아수 및 이상여아수¹⁾ 차이와 성비

특성	(분석대상수)	평균 남아수	평균 여아수	(단위: 명, %)
				성비
전체	(1,001)	1.14	1.32	86
부인	(901)	1.14	1.33	86
남편	(100)	1.10	1.15	96

주: 1)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전체 여성의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출산율의 분석결과는 최근에 출산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변화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은 초혼연령의 상승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출산율과 초혼연령의 상관성’이 정(正)의 관계에 있음을 볼 때, 우리사회에서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초혼연령이 낮아지거나 더 이상 상승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는 평균 1.61명으로 본 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적었다. 더군다나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인 비율은 20.1%에 불과하였으며, 추가 희망자녀수는 1.34명이었다. 따라서 출산 종결된 유배우부인의 자녀수는 최고 1.8~1.9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또 발견되는 것은 추가 희망자녀의 ‘여아선호현상’이다. 즉, 추가희망자녀를 원하는 부인의 희망자녀 성비는 ‘68’로 강한 여아선호를 보였다.

정부의 정책지원 시 15~44세 유배우부인이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인 비율은 24.9%이었으며, 추가희망자녀수는 1.30명이었다. 추가자녀

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자녀양육비 지원’과 ‘보육비 지원’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관련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유배우부인의 16.5%만이 추가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준 정보매체가 있었으며, 83.5%는 영향을 준 정보매체가 없다고 밝혔다.

15~44세 유배우부인과 남편의 자녀가치관과 출산행태의 변화를 논의한 본 장(章)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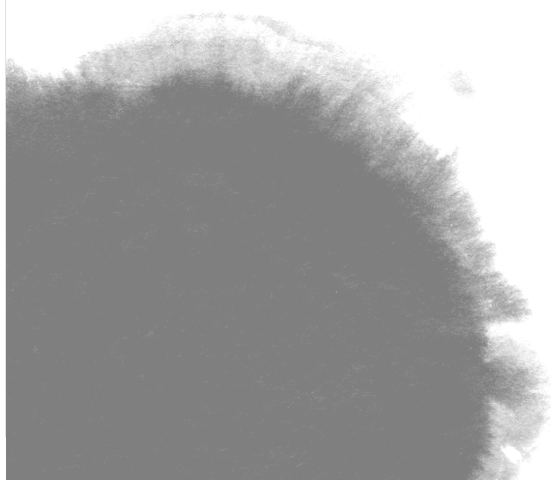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첫째, 출산율은 미미하나마 상승하였으나, 주로 30대 연령층의 출산율이 높아졌다. 우리사회에서 출산율의 획기적인 상승전환이 있기 위해서는 초혼연령이 낮아지거나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유배우부인의 자녀출산이 2~3명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

둘째,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제시된, 경제적 어려움, 난임 및 부부의 건강문제, 양성불평등적 가족문화 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추가자녀를 계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제시된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을 위한 지원이 학령기 전체 아동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과 다양한 저출산 대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에의 접근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매체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중파 및 케이블 TV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출산은 사적(私的) 영역이 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저출산의 심각성과 본인에게의 부정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방안이어야 할 것이다.

6장

임신 및 임신종결형태의 변화



제6장 임신 및 임신종결형태의 변화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모든 임신은 정상출생,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 중 어느 하나로 종결된다.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은 ‘임신소모’라고 칭하고 있다. 이러한 임신의 종결은 임신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 한 사회의 경제수준, 사회문화적 요인 및 보건의료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배우부인의 임신 평균횟수는 2000년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임신의 종결형태에서 임신소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저출산시대의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2000년대의 임신소모 형태는 자연유산의 증가, 사산의 유지, 인공임신중절의 감소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김승권 외, 2009). 다행히 인공임신중절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임신중절이 임신종결의 형태 중 정상출생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임신중절의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이 경험한 임신의 횟수와 임신종결의 형태를 살펴본다. 임신종결 형태 중 임신소모경험은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은 첫 인공

임신중절과 마지막 임신중절 시 부인의 임신순위, 연령, 자녀수 및 성비, 인공임신중절의 이유 등의 항목을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임신에 대한 연구는 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주요 연구들이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의 주요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연구 중 여성의 임신력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실증적 연구는 김승권(1992)의 연구가 최초라 할 수 있다. 1976~1991년의 출산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신중절 확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부인의 연령이 높고 자녀수, 특히 남아의 수가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높은 인공임신중절 발생확률(odd ratio)을 보였다. 후속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김승권(1992)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먼저 현존자녀수와 임신중절의 관계를 보면, 임신당시 자녀수가 많고 아들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임신중절 확률이 높은 경향이 2003년 조사결과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곽동선 외 2009).

기혼가구의 교육수준은 후속 연구들에서도 인공임신중절 유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문대 이상의 높은 여성 교육수준은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성용·이정환, 2011).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분석에서도 중졸 이상의 여성 학력이 인공유산 발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곽동선 외 2009), 부인은 물론 남편이 고학력일수록 기혼

가구의 인공임신중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용·이정환, 2011).

기혼가구의 거주지역별로도 인공임신중절 발생확률의 차이를 보였다.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기혼부인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할 확률이 높았다(곽동선 외, 2009). 기혼여성의 취업 또한 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용·이정환, 2011). 이는 취업여성의 비율이 높은 도시지역 거주부인의 임신중절 확률이 높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높은 현존 자녀수, 낮은 교육수준, 도시지역거주, 여성취업 등은 인공임신중절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정책동향

본 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0)을 중심으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신소모 및 임신중절예방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가.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불필요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의 도모를 목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임신부 대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임신

중 감기약, 피임약 등 약물 복용시 부작용 및 임신 중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며 홈페이지(www.mothersafe.co.kr) 및 전문상담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위기임신 상담 신고센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내에 위기임신 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상담·연계서비스와 신고·접수이다. 상담·연계서비스는 인공임신중절관련 일반상담을 제공하되,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공 혹은 민간부분의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한다. 신고·접수 업무는 보건복지콜센터 직원이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광고, 의료기관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인 가족건강과 연계하여 처리한다.

제2절 총 임신 및 임신종결형태의 변화

본 장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대상을 이렇게 제한한 것은 과거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와의 시계열적 비교를 위한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신경험 횟수와 이들 임신의 종결형태를 살펴본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통계와 첫 번째 및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임신종결형태는 정상출생과 임신소모로 구분하고, 임신소모는 다시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1. 총 임신 횟수의 변화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총 임신은 2000년 및 2003년 조사에서 평균 2.7회이었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2.5회로 감소하였고, 2009년 조사에서는 2.3회로 감소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더욱 감소하여 2.1회에 불과하였다.

임신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회 이상의 임신경험은 감소하였고, 2회 이하의 임신경험은 증가하였다. 또한 2회의 임신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 조사결과(35.4%)가 지속되어 37.7%를 차지하였다.

〈표 6-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횟수 변화

(단위: %, 명, 회)

연도	총 임신횟수						평균 임신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2000 ¹⁾	4.7	15.6	29.5	23.7	26.5	100.0(6,408)	2.7
2003 ²⁾	4.6	12.8	30.3	25.8	26.5	100.0(6,596)	2.7
2006 ³⁾	5.8	15.9	33.5	25.9	18.9	100.0(5,394)	2.5
2009 ⁴⁾	6.6	17.0	35.4	25.6	15.4	100.0(4,869)	2.3
2012 ⁵⁾	7.1	22.7	37.7	20.4	12.1	100.0(4,542)	2.1

자료: 1)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본 조사결과

총 임신횟수의 변화를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를 살펴보았다. 읍·면부지역 거주가구(2.36회), 응답자가 적어 무의미한 1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소득비 1~2 미만의 가구(2.46회)가 상대적으로 평균 임신횟수가 많았다. 임신분포에 의해 살펴보면, 2인 가구(0회 55.5%)와 가구소득 100~200만원인 가구(1회 35.8%)를 제외한 모든 가구특성에서 2회의 임신경험이 가장 많았다.

〈표 6-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총 임신횟수 분포

(단위: %, 명, 회)

특성	총 임신횟수						χ^2	평균 임신횟수	F(T)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지역									
동부	7.1	23.5	38.1	19.9	11.4	100.0(3,942)	22.0***	2.09	(5.0***)
읍·면부	6.9	18.0	35.2	23.5	16.4	100.0(596)		2.36	
가구원 수									
1인	-	-	-	100.0	-	100.0(1)	-	3.00	491.2***
2인	55.5	30.4	8.1	3.9	2.0	100.0(542)		0.70	
3~4인	0.6	24.6	45.1	19.9	9.8	100.0(3,252)		2.17	
5인 이상	0.3	9.0	26.8	34.6	29.3	100.0(743)		2.9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3	29.2	41.7	4.2	16.7	100.0(24)	87.8***	1.96	4.3***
100~200 미만	9.1	35.8	30.1	15.9	9.1	100.0(176)		1.85	
200~300 미만	8.1	29.1	31.9	18.9	12.0	100.0(890)		2.04	
300~400 미만	7.5	24.0	34.9	21.3	12.2	100.0(1,120)		2.12	
400~500 미만	7.3	19.8	39.7	20.7	12.6	100.0(880)		2.15	
500 이상	5.6	17.9	42.7	21.6	12.2	100.0(1,420)		2.22	
교육소득비									
1 미만	3.2	22.2	38.1	17.5	19.0	100.0(63)	192.5***	2.39	33.7***
1~2 미만	2.4	19.6	34.6	25.9	17.5	100.0(873)		2.46	
2~3 미만	4.2	23.7	39.6	21.0	11.6	100.0(1,632)		2.17	
3~4 미만	9.3	20.8	38.9	19.6	11.4	100.0(881)		2.08	
4 이상	13.7	25.7	35.4	16.3	8.9	100.0(1,062)		1.8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이어서 총 임신횟수의 변화를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를 살펴보았다.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임신횟수가 많았는데, 15~24세 연령층은 1.15회로 가장 적었고, 40~44세 연령층은 2.51회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신횟수가 많았으며,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부인은 1.92회로 가장 적었고,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부인은 2.39회로 가장 많았다. 또한 비취업부인(2.16회)이 취업부인(2.10회)보다 임신횟수가 미미하게 많았다.

임신분포에 의해 살펴보면, 29세 이하 부인은 1회가 가장 많았고

(48.7~60.6%),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부인은 3회가 가장 많았다 (30.0%). 그 외의 모든 개인특성에서 2회의 임신경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6-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응답자 특성별 총 임신횟수 분포

(단위: %, 명, 회)

특성	총 임신횟수						χ^2	평균 임신횟수	F(T)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연령									
15~24세	18.2	60.6	13.6	4.5	3.0	100.0(66)	767.7***	1.15	163.3***
25~29세	20.7	48.7	23.8	5.1	1.6	100.0(429)		1.19	
30~34세	10.8	31.5	36.9	13.0	7.9	100.0(1,119)		1.78	
35~39세	4.2	16.4	41.4	24.7	13.3	100.0(1,342)		2.31	
40~44세	2.8	13.3	39.9	26.8	17.2	100.0(1,583)		2.5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0	27.5	20.0	30.0	17.5	100.0(120)	171.3***	2.39	81.3***
고등학교	5.3	17.9	35.7	24.9	16.3	100.0(1,942)		2.37	
대학 이상	8.7	26.4	40.1	16.4	8.5	100.0(2,476)		1.92	
취업여부									
취업	9.6	20.1	38.6	19.5	12.3	100.0(2,219)	53.3***	2.10	(-1.7#)
비취업	4.7	25.3	36.8	21.3	11.9	100.0(2,324)		2.1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2. 임신종결형태의 변화

모든 임신은 어떤 형태로든 종결될 수밖에 없다. 종결형태는 정상출생,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 중 어느 하나가 된다. 여기서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을 일반적으로 임신소모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현재 임신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임신은 위의 한 형태로 종결되는 것이다.

물론 임신종결형태는 본인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한 임신임

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출생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임신의 종결은 그 사회의 경제수준, 문화적 배경, 보건의료수준, 양성평등의 정도와 부부 또는 출산당사자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겠다(김승권 외, 200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는 당연히 정상출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이 많았으며, 사산이 가장 적었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총 임신이 감소한 결과로 인하여 현 임신중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결형태에서 평균횟수는 감소하였다.

〈표 6-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별 평균횟수

(단위: 회)

연도	총임신	정상출생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현 임신중
2000	2.69	1.72	0.01	0.26	0.65	0.06
2003	2.72	1.78	0.01	0.26	0.63	0.04
2006	2.46	1.69	0.01	0.23	0.47	0.05
2009	2.33	1.68	0.01	0.25	0.34	0.05
2012	2.13	1.59	0.00	0.24	0.24	0.06

자료: <표 6-1>과 동일

임신종결형태를 총임신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표 6-5>와 같다. 간략히 요약하면,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으로 종결된 임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74.8%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외는 상반되게 임신소모는 22.4%로 2000년 이후 최저를 보였다.

임신소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인공임신중절은 2000년 이후 계속 낮아져 11.2%이었으며, 자연유산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 11.1%를 차지하였다. 사산은 감소하여 0.1%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유산의 증가가 임신부에 대한 지도 및 과학적 관리의 부족, 임신부의 주의력 부족, 자연환경의 오염 등에 기인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명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6-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의 구성비

(단위: %, 명)

임신종결형태	2000	2003	2006	2009	2012
정상출생	63.8	65.5	69.0	72.0	74.8
임신소모	34.0	32.9	29.0	25.8	22.4
(사산)	(0.3)	(0.2)	(0.3)	(0.3)	(0.1)
(자연유산)	(9.7)	(9.6)	(9.5)	(10.7)	(11.1)
(인공임신중절)	(24.1)	(23.1)	(19.2)	(14.8)	(11.2)
현 임신중	2.1	1.6	2.0	2.2	2.8
계(수)	100.0(17,241)	100.0(17,920)	100.0(13,256)	100.0(11,323)	100.0(9,664)

자료: <표 6-1>과 동일

임신종결형태를 유배우부인의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총 임신 중 정상출생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75.2%)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72.9%)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임신소모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4.3%)이 동부지역 거주부인(22.0%)보다 높았다.

임신소모의 구체적 유형을 거주지역별로 비교하면, 인공유산과 사산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3.0%, 0.3%)이 많았다. 자연유산은 동부지역 거주부인(11.1%)과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1.0%)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6-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임신종결형태

(단위: %, 명)

임신결과	전국	동부	읍·면부
정상출생	74.8	75.2	72.9
임신소모	22.4	22.0	24.3
(사산)	(0.1)	(0.1)	(0.3)
(자연유산)	(11.1)	(11.1)	(11.0)
(인공유산)	(11.2)	(10.8)	(13.0)
현 임신중	2.8	2.8	2.8
계(수)	100.0(9,664)	100.0(8,255)	100.0(1,409)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특성별 임신소모의 평균 횟수는 2012년 0.47회로 2006년 0.71회, 2009년 0.60회에 이어 감소하였는데, 읍·면부지역 거주부인(0.57회), 응답자가 적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욕구소득비 1~2 미만의 가구(0.52회)가 상대적으로 임신소모가 많았다. 100~2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부인(0.36회)을 제외하고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였다.

〈표 6-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

특성	총 임신소모 횟수						χ^2	평균 임신소모 횟수	F(T)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2006 ¹⁾	52.4	30.6	12.3	3.4	1.2	100.0(5,395)		0.71	
2009 ²⁾	57.6	28.8	10.5	2.4	0.7	100.0(4,867)		0.60	
2012 ³⁾	67.2	22.1	7.8	2.5	0.4	100.0(4,541)		0.47	
지역									
동부	67.6	22.1	7.6	2.3	0.3	100.0(3,945)	12.3*	0.46	(-3.2**)
읍·면부	64.4	21.8	8.9	3.9	1.0	100.0(596)		0.57	
가구원 수									
1인	-	100.0	-	-	-	100.0(1)	83.4***	1.00	15.4***
2인	82.4	12.9	2.9	1.1	0.7	100.0(544)		0.27	
3~4인	65.7	23.4	7.8	2.8	0.4	100.0(3,256)		0.49	
5인 이상	62.5	23.3	11.2	2.6	0.4	100.0(742)		0.5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4.0	24.0	12.0	-	-	100.0(25)	-	0.47	0.9
100~200 미만	75.1	16.4	6.2	1.7	0.6	100.0(177)		0.36	
200~300 미만	66.2	22.9	7.7	2.5	0.7	100.0(891)		0.49	
300~400 미만	67.0	22.1	8.3	2.3	0.4	100.0(1,123)		0.47	
400~500 미만	67.5	21.1	6.6	4.5	0.2	100.0(880)		0.49	
500 이상	66.2	23.2	8.3	1.8	0.5	100.0(1,420)		0.48	
욕구소득비									
1 미만	67.2	20.3	10.9	1.6	-	100.0(64)	-	0.46	1.6
1~2 미만	64.0	24.0	9.2	2.2	0.7	100.0(872)		0.52	
2~3 미만	67.7	21.7	8.0	2.5	0.2	100.0(1,635)		0.46	
3~4 미만	66.9	21.8	6.6	4.0	0.8	100.0(882)		0.51	
4 이상	68.6	21.9	7.1	1.9	0.5	100.0(1,063)		0.4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본 조사결과

임신소모의 무경험률은 2006년 52.4%, 2009년 57.6%, 2012년 67.2%로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임신소모 횟수의 분포는 응답자가 적어 유의미하지 않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부인의 모든 가구특성에서 0회가 가장 많았다. 무경험률은 동부지역 거주부인(67.6%),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부인(75.1%), 4 이상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부인(68.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 임신소모 횟수를 부인의 개인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2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부인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인(0.60회)이 많았다. 그렇지만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을 뿐이었다. 임신소모 무경험률이 2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부인연령이 낮을수록,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인(72.8%), 취업부인(6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서 알 수 있다.

〈표 6-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

(단위: %, 명, 회)

특성	총 임신소모 횟수						χ^2	평균 임신소모 횟수	F(T)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연령									
15~24세	84.3	12.9	2.7	-	-	100.0(70)	200.4***	0.18	42.0***
25~29세	85.7	11.9	1.9	-	0.5	100.0(427)		0.18	
30~34세	75.8	16.9	5.1	2.1	0.2	100.0(1,118)		0.34	
35~39세	64.6	24.2	8.3	2.7	0.2	100.0(1,342)		0.50	
40~44세	57.5	27.1	11.0	3.5	0.8	100.0(1,584)		0.6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6.1	19.8	11.6	2.5	-	100.0(121)	98.6***	0.51	47.2***
고등학교	60.0	25.5	10.0	3.7	0.8	100.0(1,942)		0.60	
대학 이상	72.8	19.6	5.8	1.7	0.2	100.0(2,476)		0.37	
취업여부									
취업	67.6	21.0	7.9	3.1	0.4	100.0(2,219)	7.1	0.48	(0.6)
비취업	66.7	23.1	7.7	2.1	0.5	100.0(2,324)		0.47	

주: 1)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인공임신중절은 인공유산 또는 낙태(落胎)라고도 불리며,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기간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이다(김승권 외, 2009). 자연유산과 사산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인공임신중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임신종결 형태이다. 그렇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만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¹⁷⁾

1. 인공임신중절률

인공임신중절률(Induced Abortion Rate)은 한 여성이 생애동안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횟수를 일정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연도인 2012년의 전년도인 2011년 인공임신중절률을 산출하였다. 과거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20~44세 유배우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6-9>는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다. 2003년 조사(2002년 통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6년 조사(2005년 통계), 2009년 조사(2008년 통계), 2012년 조사(2011년 통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유배우부인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4세 연령층에서는 2009년 조사보다 현저히 높아져 2006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인 61로 상승하였으며, 35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미미하게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25~34

17) 이번 조사에서 “쌍태아를 임신한 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한 태아는 인공임신중절 시키고, 다른 태아는 정상출생한 경우가 있었다.

세 연령층 부인은 크게 감소하였다

〈표 6-9〉 20~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변동추이

(단위: 회/1000명당)

연령	1984 ¹⁾	1987 ²⁾	1990 ³⁾	1993 ⁴⁾	1996 ⁵⁾	1999 ⁶⁾	2002 ⁷⁾	2005 ⁸⁾	2008 ⁹⁾	2011 ¹⁰⁾
20~24세	91	102	186	105	79	53	74	59	7	61
25~29세	146	103	112	94	51	33	38	15	6	2
30~34세	115	71	60	63	49	33	30	19	20	9
35~39세	40	29	21	25	16	12	21	7	6	8
40~44세	20	7	6	1	3	1	6	5	1	2

자료: 1) 문현상 외(1985),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2) 문현상 외(1989),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 보건연구원; 3)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홍문식 외(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조남훈 외(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본 조사결과

2.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및 경험횟수

유배우부인이 얼마나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전술한 인공임신중절률 외에도 인공임신중절경험률, 인공임신중절횟수 분포,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전체 부인 중 인공임신중절을 단 한번이라도 경험한 부인의 비율이다. 따라서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1회 경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0~1990년대 초반까지는 50% 이상의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1990년대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저하해 1994년 40%대로 낮아졌고, 2000년에는 30%대로 낮아졌으며, 2009년 20%대로 낮아졌다. 2012년 조사에서는 10%대로 더욱 낮아졌다. 즉, 이번 조사에서는 역사상 가장 낮은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인 17%로 나타났다. 이는 1980~1990년대 초반의 약 1/3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0%)이 동부지역 거주부인(17%)보다 높았다. 또한 부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험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15~24세 연령의 부인은 가장 낮은 7%이었고, 40~44세 부인은 가장 높은 25%이었다.

〈표 6-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단위: %)

특성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전체	53	52	54	49	44	39	40	34	26	17
지역										
동부	55	54	55	49	45	39	41	34	26	17
읍·면부	48	47	49	49	39	41	38	35	28	20
연령										
15~24세	22	27	29	21	21	13	15	15	4	7
25~29세	42	41	40	36	27	17	23	11	11	4
30~34세	61	57	55	51	45	35	34	24	18	12
35~39세	63	63	60	58	52	50	46	40	28	18
40~44세	67	62	65	60	53	52	50	48	37	25

자료: <표 6-9>와 동일

인공임신중절횟수는 얼마나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전술한 인공임신중절 경험률과는 달리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부인의 실제 경험횟수를 정확하게 감안하여 산출되기 때문이다. 인공임신중절 무경험률은 82.7%로 역대 가장 높았고,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은 2000년 17.1%에서 2003년 15.8%, 2006년 10.1%, 2009년 6.6%, 2012년 5.1%로 지속적인 저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횟수도 2000년 0.7회에서 2003년 0.6회, 2006년 0.5회, 2009년 0.3회, 2012년 0.2회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표 6-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단위: %, 명, 회)

연도	무경험	유경험			계(수)	평균 경험횟수
		소계	1회	2회 이상		
2000	60.8	39.2	22.1	17.1	100.0(6,408)	0.7
2003	59.6	40.4	24.6	15.8	100.0(6,597)	0.6
2006	66.0	34.0	23.9	10.1	100.0(5,382)	0.5
2009	73.8	26.2	19.6	6.6	100.0(4,867)	0.3
2012	82.7	17.3	12.2	5.1	100.0(4,542)	0.2

자료: <표 6-1>과 동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횟수를 부인의 가구특성 별로 살펴보면, 평균 횟수는 읍·면부지역 거주(0.31회), 응답자가 적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200~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0.27회), 욕구소득비 1~2 미만(0.28회)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6-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단위: %, 명, 회)

특성	무경험	유경험			계(수)	χ^2	평균 횟수	F(T)
		소계	1회	2회 이상				
지역								
동부	83.0	17.0	12.3	4.7	100.0(3,946)	11.2**	0.23	(-3.2***)
읍·면부	80.5	19.5	11.6	7.9	100.0(596)		0.31	
가구원 수								
1인	-	100.0	100.0	-	100.0(1)	-	1.00	12.1***
2인	93.9	6.0	4.0	2.0	100.0(544)		0.10	
3~4인	81.6	18.4	12.9	5.5	100.0(3,256)		0.25	
5인 이상	79.2	20.8	15.4	5.4	100.0(742)		0.2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91.7	8.4	4.2	4.2	100.0(24)	19.3*	0.15	1.3
100~200 미만	87.6	12.4	6.2	6.2	100.0(177)		0.20	
200~300 미만	80.0	20.0	14.0	6.0	100.0(890)		0.27	
300~400 미만	84.6	15.4	10.6	4.8	100.0(1,123)		0.22	
400~500 미만	82.7	17.3	11.8	5.5	100.0(880)		0.25	
500 이상	81.8	18.2	13.7	4.5	100.0(1,420)		0.24	
욕구소득비								
1 미만	87.3	12.7	4.8	7.9	100.0(63)	13.8#	0.20	2.4#
1~2 미만	79.5	20.5	14.1	6.4	100.0(872)		0.28	
2~3 미만	83.4	16.6	11.7	4.9	100.0(1,636)		0.23	
3~4 미만	82.3	17.7	12.4	5.3	100.0(881)		0.26	
4 이상	83.8	16.1	12.1	4.0	100.0(1,063)		0.21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무경험률은 동부지역 거주(83.0%), 2인 가구원(93.9%),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91.7%), 4 이상의 욕구소득비(83.8%)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횟수를 부인의 개인특성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한 2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부인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부인(0.27회),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횟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응답자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단위: %, 명, 회)

특성	무경험	유경험			계(수)	χ^2	평균 횟수	F(T)
		소계	1회	2회 이상				
연령								
15~24세	92.8	7.2	4.3	2.9	100.0(69)	162.1** *	0.10	38.6***
25~29세	96.5	3.5	3.0	0.5	100.0(429)		0.04	
30~34세	88.4	11.6	9.1	2.5	100.0(1,119)		0.15	
35~39세	82.1	17.9	12.9	5.0	100.0(1,343)		0.24	
40~44세	74.9	25.1	16.7	8.4	100.0(1,583)		0.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8.7	21.3	9.0	12.3	100.0(122)	115.6** *	0.35	45.7***
고등학교	76.3	23.7	16.6	7.1	100.0(1,943)		0.32	
대학 이상	87.8	12.2	9.0	3.2	100.0(2,476)		0.16	
취업여부								
취업	80.8	19.2	13.1	6.1	100.0(2,219)	13.1***	0.27	(3.8***)
비취업	84.5	15.5	11.4	4.1	100.0(2,322)		0.20	
현존자녀수								
0명	96.7	3.2	2.4	0.8	100.0(492)	129.7** *	0.04	26.1***
1명	86.3	13.7	9.4	4.3	100.0(1,310)		0.19	
2명	79.3	20.7	15.0	5.7	100.0(2,281)		0.28	
3명	73.7	26.3	17.7	8.6	100.0(418)		0.37	
4명 이상	78.9	21.1	7.9	13.2	100.0(38)		0.4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따라서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한 2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부인연령이 낮을수록,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87.8%), 비취업부인(84.5%),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4명 이상 제외) 인공임신중절 무경험률은 높았다.

3. 총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 종결률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소모된 비율, 임신소모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비율은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총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2000년 24.1%에서 계속 낮아져 2012년 절반 수준인 11.2%이었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같은 기간에 70.7%에서 51.0%로 약 1/3 감소하였다.

〈표 6-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 및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 변화

(단위: 회, %)

연도	총임신 (A)	임신소모 (B)	인공임신중절 (C)	총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C/A)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C/B)
2000	2.70	0.92	0.65	24.1	70.7
2003	2.72	0.90	0.63	23.2	70.0
2006	2.46	0.71	0.47	19.1	66.2
2009	2.33	0.60	0.34	14.6	56.7
2012	2.13	0.47	0.24	11.2	51.0

자료: <표 6-1>과 동일

이상 살펴본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및 경험횟수, 총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 종결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나라 부인들의 인공임신중절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인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이 많이 이

루어지고 있음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4절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과거조사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15~44세 유배우부인이 경험한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과거에는 인공임신중절을 많이 경험하였으나, 최근에는 적게 경험하고 있어 그 중요도는 낮아졌지만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임신순위, 부인연령, 자녀수, 자녀 성비, 수용이유 등은 향후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인공임신중절을 한번만 경험한 부인은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되었다. 이는 과거조사와 동일한 접근방식이다.

1. 첫 인공임신중절의 특성

가. 첫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15~44세 유배우부인이 경험한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임신순위 중 몇 번째 인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이 임신순위에 따라 상이한 측면이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8.2%,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35.2%, 셋째 이상 임신은 36.7%로 2006년 및 2009년의 조사결과보다 임신순위가 앞당겨 졌음을 보였다.

첫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부인의 가구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28.6%), 2인 가구원 가구(50.0%),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40.9%), 욕구소득비 3~4 미만(31.4%)의 부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첫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임신순위

(단위: %, 명)

특성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계(수)	χ^2
2006	21.4	36.4	42.2	100.0(1,832)	
2009	23.3	36.7	40.0	100.0(1,274)	
2012	28.2	35.2	36.7	100.0(785)	
지역					
동부	28.6	33.9	37.5	100.0(669)	3.0
읍·면부	25.9	42.2	31.9	100.0(116)	
가구원 수					
1인	-	-	100.0	100.0(1)	-
2인	50.0	31.3	18.8	100.0(32)	
3~4인	28.5	36.7	34.7	100.0(599)	
5인 이상	21.4	30.5	48.1	100.0(1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66.7	33.3	100.0(3)	13.8
100~200 미만	40.9	31.8	27.3	100.0(22)	
200~300 미만	27.1	41.8	31.1	100.0(177)	
300~400 미만	30.6	30.1	39.3	100.0(173)	
400~500 미만	32.5	32.5	35.1	100.0(151)	
500 이상	23.6	35.7	40.7	100.0(258)	
욕구소득비					
1 미만	22.2	44.4	33.3	100.0(9)	-
1~2 미만	27.9	35.2	36.9	100.0(179)	
2~3 미만	28.5	34.4	37.0	100.0(270)	
3~4 미만	31.4	29.5	39.1	100.0(156)	
4 이상	24.0	40.9	35.1	100.0(171)	

주: 1) 첫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6-7>과 동일

첫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부인의 개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비율은 25~29세 연령층(71.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32.8%) 부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첫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임신순위

(단위: %, 명)

특성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계(수)	χ^2
연령					
15~24세	25.0	50.0	25.0	100.0(4)	-
25~29세	71.4	21.4	7.1	100.0(14)	
30~34세	33.1	42.3	24.6	100.0(130)	
35~39세	32.9	27.1	40.0	100.0(240)	
40~44세	21.9	38.0	40.1	100.0(39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0	28.0	64.0	100.0(25)	14.1**
고등학교	25.9	37.5	36.6	100.0(459)	
대학 이상	33.0	32.3	34.7	100.0(300)	
취업여부					
취업	24.0	37.6	38.4	100.0(425)	7.6*
비취업	32.8	32.2	35.0	100.0(360)	

주: 1) 첫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나.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은 28.1세로 2006년 27.3세, 2009년 27.7세 보다 높았다. 이는 부인의 초혼연령 상승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28.3세), 가구원 1인(32.0세),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30.6세), 욕구소득비 1 미

만(29.2세)의 가구에 살고 있는 부인들의 연령이 높았다.

〈표 6-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첫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부인연령

(단위: 세)

특성	첫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F(T)
2006	27.3	
2009	27.7	
2012	28.1	
지역		
동부	28.3	(2.8**)
읍·면부	27.0	
가구원 수		
1인	32.0	3.9**
2인	26.2	
3~4인	28.0	
5인 이상	28.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0.6	2.6*
100~200 미만	25.5	
200~300 미만	28.1	
300~400 미만	27.6	
400~500 미만	28.1	
500 이상	28.6	
육구소득비		
1 미만	29.2	2.4*
1~2 미만	27.3	
2~3 미만	28.1	
3~4 미만	28.0	
4 이상	28.8	

주: 1) 첫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6-7>과 동일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을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35~39세 28.7세, 40~44세 28.3세),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29.0세), 취업 중(28.3세)인 부인들이 인공임신중절당시의 연령이 높았다.

〈표 6-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첫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부인연령

(단위: 세)

특성	첫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F(T)
연령		
15~24세	21.6	10.4***
25~29세	23.3	
30~34세	27.0	
35~39세	28.7	
40~44세	2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0	11.7***
고등학교	27.5	
대학 이상	29.0	
취업여부		
취업	28.3	1.8 [#]
비취업	27.8	

주: 1) 첫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다.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 및 자녀 성비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는 0.55명으로 2006년 1.22명, 2009년 1.17명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한 비율이 2006년 21.2%, 2009년 24.2%, 2012년 29.3%로 계속 증가한데 기인되는 것이라 하겠다.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평균 자녀수는 대체로 부인연령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29세 및 35~39세는 정확한 비례는 아님). 또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과 자녀수를 함께 고려하면, 25~29세 및 35~39세 연령층 부인은 자녀가 없음에도 각각 71.4%, 36.3%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였고, 15~24세 및 30~34세 연령층 부인은 자녀가 1

명인 상태에서 각각 50.0%, 39.2%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였다.

〈표 6-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자녀수

(단위: %, 명)

당시 부인연령	당시 자녀수				계(수)	첫 인공임신 중절시 평균자녀수	F
	0명	1명	2명	3명 이상			
2006	21.2	38.8	37.1	2.8	100.0(1,828)	1.22	
2009	24.2	37.3	35.5	3.0	100.0(1,275)	1.17	
2012	29.3	36.6	31.1	3.1	100.0(785)	0.55	
15~24세	25.0	50.0	25.0	-	100.0(4)	0.30	2.8*
25~29세	71.4	21.4	7.1	-	100.0(14)	0.24	
30~34세	33.8	39.2	23.1	3.8	100.0(130)	0.52	
35~39세	36.3	31.3	30.0	2.5	100.0(240)	0.48	
40~44세	22.2	39.3	35.3	3.3	100.0(397)	0.62	

주: 1) 첫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6-7>과 동일

인공임신중절이 ‘자녀의 성 선호’와 관련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를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자녀 성비는 정상적 수준인 104이었다. 그렇지만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응답자가 적어 무의미한 15~24세 연령층 부인(성비 41)을 제외하더라도 25~29세 연령층 부인은 200의 높은 성비를 보였던 반면, 35~39세 연령층 부인은 96의 낮은 성비를 보였다.

〈표 6-2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자녀 성비

(단위: 명)

당시 부인연령	평균 아들수	평균 딸수	성비
전체	0.55	0.53	104
15~24세	0.30	0.73	41
25~29세	0.24	0.12	200
30~34세	0.52	0.44	118
35~39세	0.48	0.50	96
40~44세	0.62	0.59	105

주: 1) 첫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본 조사결과

라. 첫 인공임신중절의 수용 이유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이유는 2006년 및 2009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녀불원’이 3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18.9%), ‘터울조절’(12.0%), ‘경제적 곤란’(10.7%) 등의 순이었다. 이들 주요 이유 중에서 ‘터울조절’과 ‘경제적 곤란’은 과거보다 감소한 것이고, ‘자녀불원’,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은 과거보다 증가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태아가 딸이므로’는 2006년 2.0%, 2009년 1.3%, 2012년 0.9%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남아선호가 미미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등’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9.7%이었고, ‘혼전임신’이어서 인공임신중절을 한 비율이 6.1%이었음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6-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¹⁾의 수용이유

(단위: %)

인공임신중절 이유	2006	2009	2012		
			전국	동부	읍·면부
자녀불원	30.0	32.1	34.3	33.2	40.9
터울조절	16.4	14.6	12.0	12.0	12.2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	10.0	14.1	18.9	19.9	13.0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등	5.0	12.2	9.7	10.0	7.8
혼전임신	7.9	9.5	6.1	5.8	7.8
가정문제	1.3	2.3	0.4	0.4	-
경제적 곤란	13.4	10.7	10.7	10.9	9.6
태아가 딸이므로	2.0	1.3	0.9	0.7	1.7
취업중이어서	2.5	2.4	2.0	2.2	0.9
기타	11.5	0.9	5.0	4.8	6.1
계 (수)	100.0 (1,833)	100.0 (1,273)	100.0 (784)	100.0 (669)	100.0 (115)

주: 1) 첫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표 6-7>과 동일

2.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특성

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본 연구에서는 한번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부인을 첫 인공임신중절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비율은 17.0%, 두 번째 임신인 비율은 28.5%, 셋째 이상 임신은 54.5%로 2006년 및 2009년의 조사결과보다 임신순위가 앞당겨 졌음을 보였다. 이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이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첫 인공임신중절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비교하면, 첫째 임신인 비율은 첫 인공임신중절 28.2%,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17.0%이었고, 둘째 임신인 비율은 첫 인공임신중절 35.2%,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28.5%, 셋째 이상 임신인 비율은 첫 인공임신중절 36.7%,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54.5%로 나타났다(표 6-15와 표 6-22 참조). 따라서 첫 인공임신중절에 비해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가 현저히 늦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부인의 가구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 임신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7.6%), 응답자가 적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200~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19.6%), 욕구소득비 1~2 미만(18.4%)의 특성을 가진 부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2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임신순위

(단위: %, 명)

특성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계(수)	χ^2
2006	13.6	26.3	60.1	100.0(1,827)	
2009	12.0	22.8	65.1	100.0(1,595)	
2012	17.0	28.5	54.5	100.0(786)	
지역					
동부	17.6	28.7	53.7	100.0(670)	1.3
읍·면부	13.8	27.6	58.6	100.0(116)	
가구원 수					
1인	-	-	100.0	100.0(1)	-
2인	37.5	21.9	40.6	100.0(32)	
3~4인	17.1	29.6	53.3	100.0(598)	
5인 이상	13.0	26.0	61.0	100.0(1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50.0	50.0	100.0(2)	-
100~200 미만	13.6	31.8	54.5	100.0(22)	
200~300 미만	19.6	27.4	53.1	100.0(179)	
300~400 미만	17.3	31.8	50.9	100.0(173)	
400~500 미만	17.9	25.2	57.0	100.0(151)	
500 이상	14.7	29.0	56.4	100.0(259)	
육구소득비					
1 미만	12.5	25.0	62.5	100.0(8)	-
1~2 미만	18.4	26.3	55.3	100.0(179)	
2~3 미만	17.0	31.9	51.1	100.0(270)	
3~4 미만	15.4	22.4	62.2	100.0(156)	
4 이상	17.0	32.2	50.9	100.0(171)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6-7>과 동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부인의 개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 임신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비율은 25~29세 연령층(60.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21.4%) 부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첫 임신을 첫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비율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표 6-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임신순위

(단위: %, 명)

특성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계(수)	χ^2
연령					
15~24세	20.0	20.0	60.0	100.0(5)	-
25~29세	60.0	20.0	20.0	100.0(15)	
30~34세	21.5	41.5	36.9	100.0(130)	
35~39세	20.4	22.1	57.5	100.0(240)	
40~44세	11.8	28.7	59.4	100.0(39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12.5	87.5	100.0(24)	15.8**
고등학교	15.2	29.6	55.2	100.0(460)	
대학 이상	21.0	28.3	50.7	100.0(300)	
취업여부					
취업	13.2	26.6	60.2	100.0(425)	14.5***
비취업	21.4	30.8	47.8	100.0(360)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 < .001$, ** $p < .01$, * $p < .05$, # $p < .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은 29.2세로 2006년 28.5세, 2009년 28.7세 보다 높았다. 이는 부인의 초혼연령 상승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29.3세), 가구원 1인(32.0세),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31.4세), 욕구소득비 1 미만(30.3세)의 가구에 살고 있는 부인들의 당시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가구특성별 부인연령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표 6-17 및 표 6-24 참조).

〈표 6-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부인연령

(단위: 세)

특성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F(T)
2006	28.5	
2009	28.7	
2012	29.2	
지역		
동부	29.3	(1.7 [#])
읍·면부	28.6	
가구원 수		
1인	32.0	1.8
2인	28.1	
3~4인	29.1	
5인 이상	29.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1.4	1.5
100~200 미만	27.5	
200~300 미만	29.5	
300~400 미만	28.8	
400~500 미만	29.0	
500 이상	29.6	
육구소득비		
1 미만	30.3	1.3
1~2 미만	28.8	
2~3 미만	29.2	
3~4 미만	29.1	
4 이상	29.8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6-7>과 동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을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32.5세)인 부인들의 인공임신중절당시 연령이 높았다. 그렇지만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취업중 29.5세, 미취업 29.0세)

〈표 6-2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부인연령

(단위: 세)

특성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F(T)
연령		
15~24세	22.9	15.2***
25~29세	23.5	
30~34세	27.6	
35~39세	29.5	
40~44세	29.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5	13.8***
고등학교	28.6	
대학 이상	29.8	
취업여부		
취업	29.5	(1.5)
비취업	29.0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 및 자녀 성비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는 1.26명으로 2006년 1.41명, 2009년 1.35명보다 다소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한 비율이 2006년 15.7%, 2009년 18.1%, 2012년 24.0%로 계속 증가한데 기인되는 것이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평균 자녀수는 응답자가 적어 무의미한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부인연령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과 자녀수를 함께 고려하면, 25~29세 연령층 부인의 60.0%가 자녀가 없음에도 인공임신중절을 하였고, 30~34세 연령층 부인의 41.1%가 자녀가 1명인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였다.

〈표 6-26〉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자녀수

(단위: %, 명, 세)

당시 부인연령	당시 자녀수				계(수)	마지막 인공임신 중절시 평균자녀수	F
	0명	1명	2명	3명 이상			
2006	15.7	32.6	47.2	4.5	100.0(1,829)	1.41	
2009	18.1	33.0	44.7	4.2	100.0(1,271)	1.35	
2012	24.0	31.9	38.7	5.3	100.0(786)	1.26	
15~24세	20.0	20.0	60.0	-	100.0(5)	1.35	10.4***
25~29세	60.0	33.3	6.7	-	100.0(15)	0.45	
30~34세	28.7	41.1	24.8	5.4	100.0(129)	1.08	
35~39세	31.8	28.9	36.4	2.9	100.0(239)	1.11	
40~44세	16.6	30.9	45.5	7.0	100.0(398)	1.44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6-7>과 동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자녀의 성 선호’와 관련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를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자녀 성비는 정상적 수준을 약간 웃도는 107이었다. 응답자가 적어 무의미한 25~29세 연령층 부인을 제외하면, 당시 부인연령에 따라 최저 100, 최고 112의 성비 차이를 보여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 성비 보다는 격차가 매우 적었다.

〈표 6-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¹⁾ 당시의 자녀 성비

(단위: 명)

당시 부인연령	평균 아들수	평균 딸수	성비
전체	0.65	0.61	107
15~24세	0.30	1.05	29
25~29세	0.24	0.22	109
30~34세	0.57	0.51	112
35~39세	0.55	0.55	100
40~44세	0.76	0.68	112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본 조사결과

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 이유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이유는 2006년 및 2009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녀불원’이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20.0%), ‘경제적 곤란’(11.1%),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등’(9.1%), ‘터울조절’(8.8%) 등의 순이었다. 이들 주요 이유 중에서 ‘터울조절’과 ‘경제적 곤란’은 과거보다 감소한 것이고, ‘자녀불원’,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은 과거보다 증가한 것이며,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등’은 2006년보다는 증가, 2009년보다는 감소하였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태아가 딸이므로’는 2006년 2.3%, 2009년 1.2%, 2012년 1.0%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남아선호가 미미하였다. 또한 ‘혼전임신’이어서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비율이 2006년 5.4%, 2009년 6.7%, 2012년 4.8%로 일정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6-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¹⁾의 수용이유

(단위: %, 명)

인공임신중절 이유	2006	2009	2012		
			전국	동부	읍·면부
자녀불원	38.4	36.9	39.4	38.5	44.8
터울조절	11.7	11.2	8.8	8.5	10.3
임부의 건강상/자궁 외 임신	10.4	14.5	20.0	21.1	13.8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등	4.6	12.7	9.1	9.4	6.9
혼전임신	5.4	6.7	4.8	4.6	6.0
가정문제	1.1	2.3	1.0	0.9	1.7
경제적 곤란	13.4	11.9	11.1	11.7	7.8
태아가 딸이므로	2.3	1.2	1.0	0.7	2.6
취업중이어서	2.1	2.0	2.0	2.2	0.9
기타	10.6	0.6	2.7	2.2	5.2
계 (수)	100.0 (1,833)	100.0 (1,273)	100.0 (784)	100.0 (668)	100.0 (116)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표 6-7>과 동일

제5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임신경험 횟수, 임신중결형태, 인공임신중절 실태, 첫 번째 및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인의 임신경험은 과거보다 감소하였고, 정상출생이 임신소모보다 많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총 임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이 감소되지 않고, 과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은 임신부의 산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유산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임신부 스스로 건강관리, 식의약품 오남용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그 동안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어 온 기혼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를 살펴보면, 모자보건 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자녀불원, 터울조절, 경제 사회적 이유 등이 많아 여전히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넷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중에서 ‘혼전임신’이 과거조사보다는 미미하나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태아가 딸이므로’와 ‘취업중이어서’ 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은 사회정책 및 사회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3부 가족보건

제7장 피임수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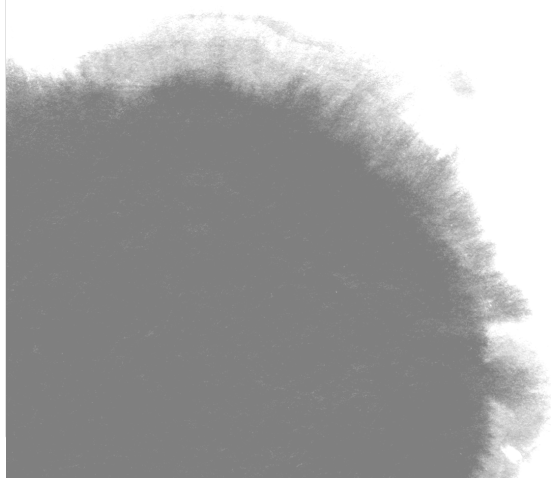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제8장 난임실태

제9장 모자보건실태

제10장 모유수유실태

7장

피임수용실태



제7장 피임수용실태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피임이란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임방법은 수용자의 성별, 피임효과의 영구성과 지속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수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피임방법과 여성피임방법으로 분류된다. 남성 피임방법으로는 정관수술, 콘돔,¹⁸⁾ 질외사정법 등이 있으며, 여성피임방법으로는 난관수술, 자궁내장치,¹⁹⁾ 먹는 피임약,²⁰⁾ 살정제²¹⁾ 등이 있다.

피임효과의 영구성 측면에서는 불임시술인 정관수술과 난관수술, 비영구적인 효과를 갖는 자궁내장치, 콘돔, 먹는 피임약 등이 있다. 또한 피임효과의 지속성에 따라서는 피임효과가 가장 높은 정관수술 또는 난관수술같은 불임수술과 이보다는 효과가 낮으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자궁내장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효과적인 피임방법으로 분류되는 콘돔, 먹는 피임약, 살정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피임방법의 선택은 수용자의 특성, 피임목적, 접근의 용이성, 비용 및 부작용 등 다양한 요인

18) 수정 즉, 난자와 정자의 결합상태를 저지시키는 방법이다.

19)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법이다.

20) 배란 자체를 억제시키는 방법이다.

21) 정자의 활동력 감소 내지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에 의해 결정된다.

피임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는 1961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서 시작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의 주된 목적은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가임기의 부인에게 피임을 권장하여 출산력을 저하하는데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소자녀의 이점과 피임사용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피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약 30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자 1989년부터 정부의 피임보급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6년에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어 정부차원의 피임보급은 극히 일부계층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정부의 피임보급물량의 감소는 피임실천율에 변화를 주게 될 우려가 있고, 불원임신을 증가시켜 인공임신 중절률을 높여 인구자질 측면에서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히 진행된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장려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피임보급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²²⁾과 관련하여 기혼여성의 피임실천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장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 4,546명을 분석대상으로 피임수용실태를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연도별로 전체 피임실천율, 부인특성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의 변동추이를 파악한다. 둘째, 피임실천부인을 대상으로 부인특성 및 피임방법별, 지역 및 취업별로 피임실천 양상을 파악하고, 피임목적, 선호하는 피임방법 등을 분석한다. 셋째, 피임비실천 부인을 대상으로 최종 사용한 피임방법, 피임중단 및 무경험이유,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피임방법 등을 파악한

22)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과 함께 남아선호관은 출산행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즉, 기혼여성의 남아선호관은 성감별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 등이 행하여질 것이 예측되어 출산 저해뿐 아니라 성비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다. 마지막으로 현재 피임노출 상태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를 분석한다.

2. 선행연구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보면 피임관련 연구들은 가족계획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평가하기 위한 피임실태 파악 연구(고갑석 외, 1980; 김지자와 한성현, 1977; 문현상 외, 1972; 박병태 외, 1976; 송건용 & 한성현, 1973), 피임방법의 효과를 의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김상도, 1978; 노순영, 1973; 송찬호, 1974; 우복희, 1974), 피임실천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김병기, 1967; 김응석, 1973)가 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피임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 목표인 1% 수준이 1988년에 이미 조기달성됨에 따라 가족계획 및 피임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건강이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피임연구의 경향은 피임경험을 통해 여성의 성적주체성과 자율성을 조망해보는 사회적, 여성학적인 연구들(장수정, 1998; 조윤정, 1996)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상이 주로 미혼여성에 국한되어 있으며 기혼여성을 포함하더라도 미혼 때의 경험이 결혼 후에 변화하는 결과적 차원만을 다루는 연구로서 기혼여성의 문제를 간과하였다.

2000년대 피임관련 연구는 기혼여성의 피임실천수준과 피임방법, 피임결정요인 등에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피임은 서구식 생활양식의 영향에 의해 우리의 성문화가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인공유산율에서 나타나

는데, 2002년 연구에 따르면 잠정적 집계상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2배 이상 인공유산이 이루어진다고 추정하였다(이임순 외, 2002). 피임의 사용을 높이는 것은 유산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피임이 보편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졌음에도 인공 유산율이 높고, 원치 않는 임신이 많으며, 피임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안이한 피임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임순 외, 2002; 김승권 외, 2006; 김승권 외, 2009).

김명희(1996)는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피임교육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한 결과, 피임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은 피임행위에 유의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36$).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공유산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p=.019$), 교육정도($p=.003$), 가족월수입($p=.040$)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진희(1999)는 그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피임행위와 관련 있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성만족만이 논의되고 있을 뿐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외연구는 피임결정 또는 피임행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Bull과 Melian(1998)은 문화에 따라 다른 피임행위를 보고하였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파라과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피임방법을 조사한 결과 88%가 herbs(yuyos)를 피임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 행위를 선택하고 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지역, 교육수준, 경제수준, 자녀수, 사용하는 언어가 보고되었다. Khan(1996)은 가임연령에 있는 8500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현존하는 자녀수가 가장 강력한 피임행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존하는 아들의 수와 피임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준은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피임관련 국내연구는 피임수용 및 피임법의 효과, 피임수용자의 특성, 피임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는 조사연구 또는 피임이론을 적용하여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피임행위 및 피임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규명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 피임행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피임방법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저출산시대를 맞아 피임이 보편화되고 인구의 자질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3. 정책동향

피임 관련 정책은 출산력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정책과 관련이 높다. 가족계획사업은 출산억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1962~1965년은 가족계획사업 도입기로 주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었고, 1981~1999년까지는 가족계획사업 확대기로 피임보급양의 양적확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었다. 1982~1991년까지는 인식개선 및 질적 측면의 사후관리, 관리제도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82년부터 출산력이 대체출산을 수준 이하로 저하되기 시작하자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억제 정책에서 모자보건 강화,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인공인신중절예방, 청소년 성문제 해결 등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인구복지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피임관련 정책은 인구자질 향상 측면에서 여성의 생식보건정책 틀 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센터를 운영하여 임신 중, 수유 중 노출된 약물, 방사선, 흡연 등 위험물질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한다. 임신초기 노출되는 다빈도 약물 등에 대한 DB 구축·연구를 통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예비부부 및 임신부이고 지원내용은 임신 중 감기약, 피임약 등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오프라인으로는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창원 등 거점병원을 운영하여 근접거리 상담을 실시한다. 다른 하나는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나 임신초기 임신여부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물, 흡연, 음주 등에 노출된 임신 임신부에게 노출에 따른 기형발생위험성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모유수유가 부득이하게 급·만성질환으로 약물 등에 노출되는 경우 위험 및 안정성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임신을 계획하는 모든 여성에게 임신시 태아에 위험이 되는 요인에 대한 평가 및 정보를 제공한다.

나. 산모 건강관리 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산전관리로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등에 신고한 임신부 신고·등록관리 등이 수행되며, 임신부에게 산전진찰 비용을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다. 임신 중기의 모자 건강 및 태내 성장 증진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 임신 5개월(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하며, 임신계획부터 임신초기까지 엽산섭취를 권장한다. 또한 임부에 대한 산전관리의 중요성 및 홍보를 통해 안전분

만 또는 자연분만을 적극 유도한다. 고위험 임신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통해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산후관리로는 산모 및 영유아를 위해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다. 분만 후 1주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분만 4주 이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수행한다.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 및 분유회사 등에서 모자보건수첩을 제작·보급하여 이를 활용해 산전 진찰 보험급여 및 6세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사업 등과 연계하고 있다.

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 사업

여성생식보건증진프로그램으로 여성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대상별 체계적 생식건강증진 실태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다. 일환으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생식건강증진 교육 실시 및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각종 용어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대학생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대학내 생식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확대, 대학생 및 교육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기법 개발·지원, 대학생 생식건강 정규 교양과목을 확대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생식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보건소 통역요원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어린이, 청소년, 신혼부부,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성인 등을 대상으로 책임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성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내용 및 방향은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성관련 지식 전달, 생명

존중의식 확대, 연령 및 성별 등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상담전화, 사회복지시설, 경찰관서, 청소년 상담실, 관련단체 등을 네트워크화 하여 방문, 내방, 전화,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통하여 상담 전·후 발견된 치료 및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인공임신중절예방, 청소년 성문제 등을 홍보한다. 또한 지역주민, 대학생, 시설, 단체, 학교 등 인구밀집 지역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소를 선택하여 차별화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교육, 연수교육,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 주관기관의 협조 하에 자료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초·중·고교 보건교사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며 지역 반사회 및 부녀회를 통해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 내 의사·약사 등 의료인을 활용한 피임방법을 지도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정보(www.aga-love.org, 1645-7373)를 제공한다. 일환으로 가임기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보콘텐츠를 개발·제공,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담 상담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국어 온라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한다. 산부인과, 소아과전문의 등 전문가에 의한 24시간 온라인 상담 및 상담원 상담전화 활성화를 통한 가임기 여성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제2절 피임실천 실태

본 절에서는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피임수용실태를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연도별로 전체 피임실천율, 부인특성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의 변동추이를 파악한다. 둘째, 피임실천부인을 대상으로 부인특성 및 피임방법별, 지역 및 취업별로 피임실

천 양상을 파악하고, 피임목적, 선호하는 피임방법 등을 분석한다.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은 피임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천이 이루어 지므로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즉 일정 시점에서 볼 때 피임을 실천하는 상태와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되고,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는 다시 과거에 피임을 실천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와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피임 실천 양상을 4가지 유형 즉 피임실천부인, 피임비실천부인으로 나누고, 피임비실천부인은 다시 피임경험부인, 피임무경험부인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변화를 파악하며, 또한 부인특성에 따른 경향을 살펴본다.

1. 피임실천변동 추이

가. 연도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연도별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상태를 살펴보면, 2000년의 피임실천율은 79.3%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84.5%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다. 2006년에는 2003년에 비해 4.9%pt가 감소한 79.6%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2009년에는 다시 소폭으로 상승하여 80.0%에 달하였다. 2012년에는 2009년에 비해 2.9%pt가 감소한 77.1%로 2000년 이후 가장 저조한 피임실천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피임 불필요 집단의 누적과 난임의 증가에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피임실천율의 변화는 가족계획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1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보급물량이 지원됨에 따라 피임실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

지되는 등 인구정책이 인구자질 및 복지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피임 실천율이 소폭으로 증감을 계속하면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피임실천이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현재의 높은 피임 실천 수준은 피임실천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피임비실천율은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2000년에는 20.7%에서 2003년에는 15.5%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다시 20.4%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20.0%에 이르렀고, 2012년에는 22.9%로 소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를 과거경험이 있으나 현재 실천하지 않은 부인과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무경험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과거경험이 있으나 현재 피임실천을 하지 않은 부인은 2000년 10.1%에서 2012년에는 11.1%로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피임무경험부인도 각각 10.0%에서 11.8%로 증가하여 유사한 경향과 수준을 보였다.

〈표 7-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태 변화

(단위: %, 명)

연도	실천	비실천			계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2000 ¹⁾	79.3	20.7	10.1	10.6	100.0(6,408)
2003 ²⁾	84.5	15.5	8.5	7.0	100.0(6,598)
2006 ³⁾	79.6	20.4	9.9	10.5	100.0(5,395)
2009 ⁴⁾	80.0	20.0	10.0	10.0	100.0(4,867)
2012 ⁵⁾	77.1	22.9	11.1	11.8	100.0(4,546)

자료: 1)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본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피임은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²³⁾ 피임실

23) 최근 각국의 조사자료에 의한 합계출산율과 피임실천율과의 관계를 보면, 피임실천율이 10% 증가하는데 따라 합계출산율은 0.7명 감소하였다(UN, 1997).

천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2003년에 84.5%로 정점을 이루었던 피임실천율은 증감을 반복하여 2012년 77.1%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피임실천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합계출산율은 1989년 정부피임보급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에 증감을 반복하다가²⁴⁾ 2003년에 1.18명에서 2011년에는 1.24명으로 다소 높아졌다. 이는 피임실천율이 낮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경향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주목된다.

나.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연도별 피임실천율의 변화를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2000년에는 읍·면부지역이 계속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이면서,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2003년에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을 상회하면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2006년에는 지역 간에 소폭의 감소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다시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지다가 2012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0년에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든 것은 피임에 대한 지식 및 생활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 다시 동부지역의 피임실천율이 높아지면서, 지역 간에 차이가 약간 벌어지는 것은 여성의 결혼연령과 이로 인한 출산종료시기의 지역별 차이에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최근 2012년에는 여성의 결혼연령의 지역 간에 차이²⁵⁾가 줄어들면서 출산종료시기와 관련이 높은 피임행태가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지역별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24) 1989년 이후 출산수준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듯 1990년의 합계출산율은 1.60명에서 1993년에는 1.75명, 그리고 1996년 1.71명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25) 2011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국 29.14세, 동부 29.48세, 읍면부 28.83세, 면부 28.64세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부인의 연령 및 현존자녀수에 따른 피임실천율은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29세 이하 연령층은 전체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였으며, 2000년에는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체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연령별 피임실천율은 다른 경향을 보여서 34세 이하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은 전체보다 낮았고, 35세 이상 연령층으로 오면서 전체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피임실천시기이 5년 정도 늦추어지는 현상은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출산 완료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현존자녀수별 피임실천율은 2000년에 자녀 1명 이하인 경우는 전체보다 낮은 피임실천을 수준을 보인 반면, 2명 이상인 경우는 전체를 상회하였다. 2003년에는 자녀수가 3명 이하인 경우만 피임실천율이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자녀수가 3명 이하인 경우 피임실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9년도 유사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자녀수가 0명 또는 2명인 경우는 피임실천이 감소하였으나, 자녀가 1명 또는 4명 이상에서는 피임실천이 증가하였고, 자녀가 3명인 경우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피임실천의 보편화로 피임실천은 안정화되었으나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지는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되며, 여성의 생식보건과 관련하여 질적인 관리에 집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은 연도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2000년에는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의 피임실천수준은 전체를 상회하였으나 고학력층은 전체보다 낮았다. 2003년과 2006년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층까지 전체보다 높았으며, 2009년과 2012년에는 교육수준별로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 이하 피임실천수준은 2000~2006년까지 약 82~89%의 피임실천수준을 보이다 2009년으로 오면서 78.6%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53.8%로 24.8%pt 감소하였으나 분석대상수가

적어서 통계적 의미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간에 피임실천의 격차가 심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피임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기가 늦어지면서 원하는 자녀수를 가진 후 피임을 수용하는 경향이 정착됨에 따라 고학력층 여성의 피임실천율이 낮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표 7-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 변화

(단위: %)					
특성	2000	2003	2006	2009	2012
전체	79.3	84.5	79.6	80.0	77.1
지역					
동부	79.2	84.8	79.8	80.3	77.1
읍·면부	80.2	82.7	78.2	77.7	76.7
연령					
24세 이하	43.5	56.8	43.3	39.5	58.0
25~29세	57.0	64.8	51.3	50.1	48.4
30~34세	81.3	80.8	74.2	71.2	62.4
35~39세	89.3	90.8	88.0	88.4	84.1
40~44세	87.7	91.5	90.3	90.4	9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85.3	88.5	81.8	78.6	53.8
중학교	88.9	89.4	85.2	78.6	78.9
고등학교	78.4	85.3	81.6	82.7	81.3
대학 이상	75.4	81.3	76.2	77.3	73.7
현존자녀수					
0명	29.3	38.7	35.4	32.7	25.8
1명	58.7	67.0	61.5	65.1	65.8
2명	92.7	94.5	92.2	92.8	91.7
3명	90.7	93.4	91.5	90.5	90.5
4명 이상	92.7	91.7	90.9	86.5	97.5
(5명 이상)	(94.1)	(92.9)	(100.0)	(100.0)	(100.0)

자료: <표 7-1>과 동일

다.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은 연도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표 7-3 참조). 영구적 피임방법인 난관수술은 2000년에 18.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5.7%에 이르고, 정관수술 실천율은 2000년에 13.0%에서 2009년에 21.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에 16.7%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영구적인 자궁내장치는 2000년에 13.7%에서 증감을 계속하다 2009년에는 16.1%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 10.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일시적 피임방법인 먹는 피임약의 실천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6년에 일시인 감소를 보였고 2009년과 2012년에는 각각 2.7%와 2.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콘돔실천은 2003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후에 2009년 25.0%까지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23.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타 방법은 난관수술이 감소하면서 사용이 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8.2%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2년에도 17.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피임방법별 실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콘돔과 기타 방법의 실천율의 증가는 대체로 난관수술과 자궁내장치 등 영구·반영구적 피임방법의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피임방법의 변화는 정부정책과 관련이 높다.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 시기에는 여성을 정부정책의 대상으로 하여 난관수술을 주도하였으나, 정부의 피임보급이 감소함에 따라 난관수술의 의존도가 떨어졌으며, 남성피임법인 정관수술과 반영구적 피임방법인 자궁내장치, 일시적 피임방법인 콘돔과 기타 방법 등에 의한 실천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7-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변화

피임방법	(단위: %)				
	2000	2003	2006	2009	2012
난관수술	18.3	15.6	11.3	7.3	5.7
정관수술	13.0	15.7	19.7	21.0	16.7
자궁내장치	13.7	16.1	15.0	16.1	10.5
먹는 피임약	2.1	2.0	1.1	2.7	2.3
콘돔	16.5	8.5	19.2	25.0	23.7
기타	15.7	26.6	13.3	18.2	17.9

자료: <표 7-1>과 동일

2. 피임실천양상

본 절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 중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부인을 중심으로 피임실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부인특성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천, 피임을 실천하는 목적 및 현사용 피임방법에 대한 계속 사용의향 및 선호하는 피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인특성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피임실천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77.1%, 76.7%로 동부지역이 0.6%pt 높았다. 이는 2009년의 경우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2.6%pt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동부지역이 읍·면부보다 피임실천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4 참조).²⁶⁾

피임비실천부인 중 과거경험이 있었던 부인은 2009년에 동부지역이

26) 2009년 15~44세 유배우부인 4,8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동부지역은 피임실천율이 80.3%, 비실천율이 19.7%였으며, 읍·면부지역은 피임실천율이 77.7%, 비실천율이 22.3%의 분포를 보였다(김승권 외, 2009).

10.0%, 읍·면부지역이 10.2%에서 2012년에는 각각 11.0%, 11.7%로 3년 동안 피임비실천율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은 1.0%pt, 읍·면부지역은 1.5%pt 높아졌다. 그리고 피임무경험부인의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3년간 피임무경험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은 2.2%pt 증가하였고, 읍·면부지역은 0.5%pt 감소하였다.²⁷⁾

결과적으로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의 피임비실천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고, 과거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부인의 피임비실천율은 동부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의 경우 동부보다 읍·면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부인연령에 따른 피임실천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25~29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피임실천 부인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점차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피임비실천 부인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경험부인과 피임무경험부인의 비율도 각각 연령이 높을수록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30대 초반까지 자녀출산을 종료한 후 30대 후반에는 단산을 위하여 피임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저학력층 부인의 피임실천이 높은 편이었으며 고학력층은 상대적으로 피임실천이 저조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최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령에 의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5~44세 유배우부인의 교육수준별 평균연령을 보면 중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은 37.0세, 고등학교는 37.2세, 대학

27) 2009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부지역은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이 10.0%, 피임무경험 부인은 9.7%인 반면 읍·면부지역은 각각 10.2%, 12.1%였다(김승권 외, 2009).

출신의 부인은 35.8세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7-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태 분포

(단위: %, 명)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χ^2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전체	77.1	22.9	11.1	11.8	100.0(4,546)	
지역						
동부	77.1	22.9	11.0	11.9	100.0(3,948)	.271
읍·면부	76.7	23.3	11.7	11.6	100.0(598)	
연령						
24세 이하	58.0	42.0	13.0	29.0	100.0(69)	565.7 ***
25~29세	48.4	51.6	21.7	29.9	100.0(428)	
30~34세	62.4	37.6	20.8	16.8	100.0(1,120)	
35~39세	84.1	15.9	6.7	9.2	100.0(1,345)	
40~44세	90.0	10.0	5.0	5.0	100.0(1,58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6.9	23.1	8.3	14.8	100.0(121)	37.7 ***
고등학교	81.3	18.7	9.4	9.3	100.0(1,945)	
대학 이상	73.7	26.3	12.6	13.7	100.0(2,477)	
현존자녀수						
0명	25.8	74.2	29.3	44.9	100.0(492)	1201.9 ***
1명	65.8	34.2	16.2	18.0	100.0(1,311)	
2명	91.7	8.3	5.3	3.0	100.0(2,284)	
3명	90.5	9.5	6.6	2.9	100.0(419)	
4명 이상	97.5	2.5	2.5	-	100.0(40)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자료: 본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자녀수는 부인의 연령과 정비례의 관계로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현존 자녀수는 많았으며, 대체로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피임 실천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조사결과, 자녀가 1명인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65.8%,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91.7%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3명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4명 이상은 97.5%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서 대체로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90% 이상의 높은 피임실천수준을

보였다. 이는 소자녀 가치관의 정착 때문으로 두 자녀가 일반화됨에 따라 그 이상의 자녀를 둔 부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피임실천상태를 <표 7-5>에 제시하였다.

15~24세 연령층의 경우 중학교 이하의 피임실천율은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가 적으며 고등학교의 피임실천은 61.0%, 대학 이상은 73.3%로 교육수준에 따라 피임실천 수준은 차이를 보였다. 이 시기에 고학력층은 취업 및 학업 등 자신의 성취로 가족계획 실천이 높은 것으로 짐작되어 고학력층은 저학력층에 비해 임신·출산 행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에서는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피임실천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는 고학력층 부인이 저학력층 부인보다 결혼연령이 높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임신시기가 늦어지는 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자녀출산이 종료되는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연령층에서는 피임실천율이 정점을 보였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인 경우 피임실천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여성의 고학력화, 취업기회 확대 및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한 결혼연령이 상승하나 소자녀 또는 무자녀 가치관이 확대되면서 결혼 후 단기간 내에 출산을 종결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7-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피임실태 분포

(단위: %, 명)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χ^2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24세 이하						
중학교 이하	30.8	69.2	23.1	46.1	100.0(13)	
고등학교	61.0	39.0	12.2	26.8	100.0(41)	
대학 이상	73.3	26.7	6.7	20.0	100.0(15)	
25~29세						
중학교 이하	46.2	53.8	23.1	30.7	100.0(13)	
고등학교	54.4	45.6	15.7	29.9	100.0(147)	
대학 이상	44.8	55.2	25.3	29.9	100.0(268)	
30~34세						
중학교 이하	50.0	50.0	10.0	40.0	100.0(10)	
고등학교	70.7	29.3	18.2	11.1	100.0(379)	
대학 이상	58.3	41.7	22.3	19.4	100.0(731)	
35~39세						
중학교 이하	78.6	21.4	7.1	14.3	100.0(14)	
고등학교	86.5	13.5	6.0	7.5	100.0(572)	
대학 이상	82.3	17.7	7.3	10.4	100.0(759)	
40~44세						
중학교 이하	93.0	7.0	2.8	4.2	100.0(71)	
고등학교	88.4	11.6	6.6	5.0	100.0(806)	
대학 이상	91.2	8.8	3.6	5.2	100.0(707)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나. 부인의 특성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태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사용하는 피임방법에 따른 피임실태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6 참조).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정관수술 및 콘돔, 살정제 등의 피임방법을 많이 사용하였고,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월경주기법, 기타 방법 등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다소 많았다. 따라서 동부지역에서는 주로 남성용 피임방법을, 읍·면

부지역에서는 여성용 피임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의 경우 동부지역보다 피임방법의 선택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이 정부의 피임보급량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임시술 보급량의 감소는 그 속도를 완만하게 하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인연령 및 피임방법별로 피임실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난관 및 정관수술 등의 영구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은 부인연령이 높을수록 상승하였다. 반영구적 피임방법인 자궁내장치는 40~44세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콘돔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이 높았으며, 월경주기법은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았다. 먹는 피임약과 기타 방법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은 젊은 연령층 부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는 이미 원하는 자녀를 갖고 단산을 원하기 때문에 불임수술을 수용하는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것이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아직 원하는 자녀를 모두 출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터울조절이 가능한 일시적 피임방법의 사용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피임방법별 실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난관수술과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및 월경주기법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높았고, 콘돔과 기타 방법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천율이 높았으며, 정관수술과 살정제는 일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여성용 피임방법을,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남성용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외에 연령에서 오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학력과 피임방법의 관계만으로 단순히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존자녀수 및 피임방법별 실천율은 부인의 연령에 따른 피임방법 실천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난관수술 또는 정관수술과 같은 영구피임방법과 자궁내장치 같은 반영구피임방법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방법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았다.

〈표 7-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방법별 피임실천율 분포

(단위: %, 명)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χ^2
	소계	난관수술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주기법	기타방법			
전체	77.1	5.7	16.7	10.6	2.3	23.8	0.4	13.7	3.9	22.9	100.0(4,546)	
지역												
동부	77.1	5.4	17.1	10.3	2.2	24.2	0.5	13.5	3.9	22.9	100.0(3,948)	.070
읍·면부	76.7	7.5	14.5	12.4	3.4	20.1	0.2	14.4	4.2	23.3	100.0(598)	
연령												
24세 이하	58.0	-	-	8.9	6.0	22.3	-	10.4	10.4	42.0	100.0(69)	534.075 ***
25~29세	48.4	0.7	2.1	2.3	4.4	25.2	-	10.9	2.8	51.6	100.0(428)	
30~34세	62.4	1.8	8.7	6.4	2.1	23.8	0.6	14.7	4.3	37.6	100.0(1,120)	
35~39세	84.1	6.3	18.8	11.4	1.6	28.1	0.5	13.2	4.2	15.9	100.0(1,345)	
40~44세	90.0	9.5	25.5	14.9	2.3	19.8	0.4	14.1	3.5	10.0	100.0(1,58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6.9	14.3	12.5	19.2	8.3	5.0	-	15.9	1.7	23.1	100.0(121)	34.772
고등학교	81.3	8.3	18.2	13.9	2.2	21.3	0.5	13.0	3.9	18.7	100.0(1,945)	***
대학 이상	73.7	3.2	15.9	7.5	2.1	26.5	0.4	14.0	4.1	26.3	100.0(2,477)	
현존자녀수												
0명	25.8	-	1.0	0.6	4.1	11.8	-	5.7	2.6	74.2	100.0(492)	1154.998 ***
1명	65.8	2.0	5.2	8.9	3.0	25.4	0.5	16.3	4.5	34.2	100.0(1,311)	
2명	91.7	7.4	24.9	12.9	1.7	26.5	0.5	13.9	3.9	8.3	100.0(2,284)	
3명	90.5	13.4	27.7	13.6	1.4	18.2	0.5	12.4	3.3	9.5	100.0(419)	
4명 이상	97.5	17.9	15.4	20.7	2.5	17.9	-	15.4	7.7	2.5	100.0(4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부인의 취업여부는 피임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출산 및 자녀양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피임실천율을 살펴본다.

취업한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78.3%로 비취업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실천율인 75.8%보다 2.5%pt 높았다. 지역별 피임실천율도 취업 부인이 비취업부인보다 피임실천율이 높아서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피임실천율의 수준은 취업부인은 지역 간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취업부인은 지역 간에 다소 차이를 보여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비취업 부인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비취업 부인보다 피임실천율이 높았다.

취업여부에 따른 피임실천율은 연령별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4세 이하 연령층은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 간에 피임실천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25~29세 연령층부터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서 40~44세 연령층에서 6.2%pt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 및 연령별 피임실천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읍·면부 거주부인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서 20대 연령층은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 간에 차이가 적은 편이었고 30대 연령층부터 큰 폭의 차이를 보여서 40~44세 연령층에서는 11.4%로 차이가 가장 컸다. 지역 간에 차이는 20대 연령층에서는 거의 없었으나 30대 연령층부터 벌어져서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약 2~6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피임실천경향은 출산가능시기인 젊은 연령층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출산종료 시기인 40대 연령층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취업한 부인은 짧은 시기 안에 출산행위를 종료하는 것에 비해, 비취업부인은 터울을 두고 출산을 조절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보다 소자녀 출산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역 간 차이를 보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동부지

역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취업이 출산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 연령 및 취업여부별 피임실천율 분포

(단위: %, 명)

취업여부	실천						비실천	계(수)	χ^2
	소계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국									
취업	78.3	0.7	5.6	17.9	24.0	30.1	21.7	1000(2,221)	4.020*
비취업	75.8	1.6	8.7	20.0	21.6	23.9	24.2	1000(2,325)	
동부									
취업	78.2	0.6	5.2	18.0	23.9	30.5	21.8	1000(1,917)	2.637
비취업	76.0	1.4	8.3	19.3	22.0	25.0	24.0	1000(2,031)	
읍·면·부									
취업	78.9	1.3	8.3	16.8	24.9	27.6	21.1	1000(303)	1.855
비취업	74.2	3.0	11.4	24.0	19.6	16.2	25.8	1000(29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부인의 연령 및 현존자녀수별로 피임실천율 및 불임수술실천율을 살펴보면 <표 7-8>과 같다. 자녀가 없는 부인의 피임실천율은 25.6%였고, 불임수술은 1.0%로 극히 미미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15~2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은 29.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는데, 이는 2009년도 조사결과 30~34세 연령층에서 높은 것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²⁸⁾. 이와 같이 2009년보다 낮은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으로 오면서 첫째아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데서 오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²⁹⁾.

또한 30~34세 연령층 부인은 25~29세 연령층보다 피임실천율이 낮았는데, 이는 난임에 의한 영향이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 자녀를 원하기

28) 2009년 조사결과 자녀가 0명인 경우 피임실천율은 30~34세 연령층이 3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5~24세 34.5%, 25~29세 33.2%의 순이었다(김승권 외, 2009).

29) 기혼여성 중 초혼연도가 1979년 이하인 경우 첫째아 출산연령은 23.14세에서 2000~2012년에는 28.70세로 최근으로 오면서 첫째아 출산연령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인의 불임실천율은 40대부터 나타나는데 특히 40~44세 연령층의 불임실천율은 자녀출산을 완료하고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표 7-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 및 불임실천율

(단위: %)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2009년 ¹⁾						
피임실천율	39.5	50.1	71.2	88.4	90.4	80.0
불임수술실천율	0.1	1.6	9.2	39.3	49.8	22.7
2012년 ²⁾						
피임실천율	58.0	48.4	62.4	84.1	90.0	77.1
불임수술실천율	-	2.8	10.4	25.0	34.8	22.4
0명						
피임실천율	29.4	27.4	24.5	26.0	22.2	25.6
불임수술실천율	-	-	-	-	9.3	1.0
1명						
피임실천율	67.4	54.7	53.3	72.9	81.8	65.7
불임수술실천율	-	1.6	3.7	8.9	14.8	7.2
2명						
피임실천율	60.0	76.9	84.0	92.7	95.4	91.7
불임수술실천율	-	13.6	18.1	30.9	40.5	32.1
3명						
피임실천율	-	100.0	84.5	89.2	93.8	90.7
불임수술실천율	-	20.0	31.4	39.9	45.9	41.1
4명 이상*						
피임실천율	-	100.0	100.0	100.0	95.0	97.5
불임수술실천율	-	-	28.6	27.3	35.0	30.0

주: * 분석대상수가 40명 이하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낮음.

자료: 1)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본 조사결과

자녀를 1명 가진 부인의 경우는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임실천율과 불임수술실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2명인 부인의 경우는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에 비하여 피임실천율과 불임수술실천율이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35~39세 연

령층에서 92.7%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고, 불임수술실천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40~44세 연령층의 경우 40.5%로 가장 높았다. 자녀가 3명인 부인은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보다 35~39세와 40~44세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이 낮은 반면, 불임실천율은 15~24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높아서 자녀 3명을 가진 경우 단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다.

다. 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 목적

부인의 피임실천목적은 출산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표 7-9>와 같다. 우리나라 15~44세의 유배우부인의 68.0%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실천부인은 9.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단산과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각각 0.1%pt와 0.3%pt 많았다.

부인의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연령층의 출산연기를 위한 피임실천율은 39.1%로 2009년의 25.4%에 비하여 증가한 반면,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은 각각 28.4%와 16.7%로 2009년의 32.4%와 21.1%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아성취 등의 욕구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연령층에서 계획출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20대 연령층은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데 비해, 30대 이상 연령층은 주로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목적도 교육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단산목적의 피임실천이 많았으나 대체로 저연령층의 고학력 부인의 경우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실천이 많은 편이었다. 즉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의 73.9%는 단산을 목적으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10.6%는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다.

〈표 7-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목적에 따른 피임실태 분포

(단위: %, 명)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χ^2
	소계	단산	출산연기	기타			
2009	80.0	68.2	11.7	0.1	20.0	100.0(4,867)	
2012	77.1	68.0	9.1	-	22.9	100.0(4,546)	
지역							
동부	77.1	67.9	9.2	-	22.9	100.0(3,948)	.070
읍·면부	76.7	67.8	8.9	-	23.3	100.0(598)	
연령							
24세 이하	58.0	18.9	39.1	-	42.0	100.0(69)	534.075 ***
25~29세	48.4	20.0	28.4	-	51.6	100.0(428)	
30~34세	62.4	45.7	16.7	-	37.6	100.0(1,120)	
35~39세	84.1	79.3	4.8	-	15.9	100.0(1,345)	
40~44세	90.0	88.8	1.1	0.1	10.0	100.0(1,58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6.9	68.6	8.3	-	23.1	100.0(121)	34.772 ***
고등학교	81.3	73.9	7.3	0.1	18.7	100.0(1,945)	
대학 이상	73.7	63.1	10.6	-	26.3	100.0(2,477)	
현존자녀수							
0명	25.8	4.9	20.9	-	74.2	100.0(492)	1154.598 ***
1명	65.8	46.6	19.2	-	34.2	100.0(1,311)	
2명	91.7	89.2	2.5	-	8.3	100.0(2,284)	
3명	90.5	89.3	1.2	-	9.5	100.0(419)	
4명 이상	97.5	97.5	-	-	2.5	100.0(40)	

주: 1) 기타에는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이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7-8>과 동일

현존자녀수는 부인의 연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연령에 따른 피임실천목적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없는 부인은 주로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단산과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그리고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경우는 단산을 주 목적으로 피임실천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인은 1명의 자녀를 출산한 후부터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대다수도 피임을 통하여 단산하고 있어서 저출산의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피임목적이 단산 및 출산연기인 부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양육비용부담 때문이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중심의 생활이 14.1%로 많은 편이었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이는 2009년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공통적으로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차이가 없었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에서는 낮은 소득, 고용 상태 불안정 등이 많은 편이었고, 터울조절 때문도 나타나고 있으나 실수가 적어 통계적인 의미가 적다. 중간소득층에서는 자녀양육비용 부담 때문이 많았으며, 고소득층에서는 사회활동 지장과 부부중심의 생활 때문이 많은 경향을 보여서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7-10〉 가구특성별 15~44세 유배우부인의 단산 및 출산연기 이유 분포

(단위: %, 명)

특성	저소득	고용 상태 불안정	자녀 양육 비용 부담	자녀 돌볼 사람/ 시설 없음	출산으로 인한 직장 차별	사회 활동 지장	부부 중심의 생활	가정내 가사 및 양육의 불평등 부담	가족 수발	터울 조절	기타	계수	χ^2
2009	7.7	1.5	51.8	3.7	0.1	6.1	14.1	0.9	0.4	3.2	10.4	100.0(3,892)	
2012	5.4	1.0	53.8	4.0	0.4	6.5	14.1	1.1	1.0	3.5	9.0	100.0(3,469)	
지역													
동부	5.6	1.1	53.3	4.0	0.5	6.6	14.3	0.9	1.1	3.5	9.1	100.0(3,014)	13.237
읍·면부	4.6	0.9	57.6	3.5	-	6.2	12.7	2.2	0.4	3.1	8.8	100.0(45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4.3	4.8	38.1	-	-	4.8	9.5	4.8	-	14.3	9.5	100.0(21)	
100~200미만	21.2	4.2	59.3	-	-	3.4	4.2	0.8	1.7	1.7	3.4	100.0(118)	
200~300미만	12.2	2.0	55.7	3.4	-	2.6	7.1	0.7	0.7	6.9	8.9	100.0(609)	
300~400미만	6.9	1.2	63.2	1.9	-	3.8	10.2	1.4	0.7	3.7	7.1	100.0(845)	
400~500미만	2.0	0.4	61.9	2.1	0.7	4.7	15.3	1.4	1.3	3.3	6.8	100.0(703)	
500 이상	1.1	0.6	40.8	7.4	0.8	12.0	21.0	0.9	1.4	1.6	12.4	100.0(1,173)	
육구소득비													
1 미만	16.7	2.1	60.4	-	-	4.2	4.2	2.1	-	6.3	4.2	100.0(48)	
1~2 미만	13.3	1.9	61.8	2.2	-	1.9	4.8	1.3	0.9	5.0	7.0	100.0(685)	
2~3 미만	5.0	0.9	62.7	1.9	-	3.5	12.0	0.9	0.9	3.3	8.8	100.0(1,271)	
3~4 미만	2.1	0.9	54.6	4.1	0.1	7.1	14.4	1.5	0.7	3.8	10.6	100.0(679)	
4 이상	1.2	0.7	32.0	9.2	1.6	13.9	26.5	1.0	1.7	2.0	10.3	100.0(765)	

주: 1) 피임목적이 '단산 및 출산연기'라고 응답한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에는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이 포함됨;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7-8>과 동일

최저생계비 대비 실제소득의 비율인 욕구소득비로 보면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낮은 소득, 고용불안정, 자녀양육비용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가 많았고,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는 자녀돌볼 사람·시설이 없거나 사회활동 지장 및 부부중심의 생활 때문 등 비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나타나서 차이를 보였다.

부인의 특성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20대 연령층에서는 낮은 소득, 터울조절 등이 많은 편이었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층은 사회활동 지장이 많은 편이었다. 자녀돌볼 사람·시설 없음은 30대 연령층이 많았으며,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자녀양육비용 부담 때문, 부부중심의 생활 등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7-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단산 및 출산연기 이유 분포

(단위: %, 명)

특성	저소득	고용 상태 불안정	자녀 양육 비용 부담	자녀 돌볼 사람/ 시설 없음	출산 으로 인한 직장 차별	사회 활동 지장	부부 중심의 생활	가정내 가사 및 양육의 불평등 분담	가족 수발	터울 조절	기타	계수)	χ^2
2009	7.7	1.5	51.8	3.7	0.1	6.1	14.1	0.9	0.4	3.2	10.4	100.0(3,892)	
2012	5.4	1.0	53.8	4.0	0.4	6.5	14.1	1.1	1.0	3.5	9.0	100.0(3,469)	
연령													
24세 이하	25.6	-	46.2	2.6	-	2.6	2.6	-	-	20.5	-	100.0(39)	
25~29세	7.3	0.5	45.1	2.9	1.0	8.7	10.2	1.5	-	21.4	1.5	100.0(206)	
30~34세	7.2	1.7	50.4	7.8	0.7	7.5	9.5	1.3	0.4	8.1	5.2	100.0(692)	
35~39세	4.9	0.8	58.1	5.5	0.3	6.9	11.8	1.1	1.2	0.5	8.9	100.0(1,123)	
40~44세	4.1	1.0	53.6	1.1	0.2	5.6	19.1	1.0	1.4	0.4	12.4	100.0(1,40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7	3.3	40.2	-	-	1.1	4.3	-	6.5	3.3	20.7	100.0(92)	315216
고등학교	7.3	1.4	61.1	1.1	-	2.9	12.6	1.1	0.7	2.9	8.8	100.0(1,566)	***
대학 이상	3.0	0.7	48.2	6.7	0.7	10.0	15.8	1.2	1.0	4.0	8.7	100.0(1,811)	
현존자녀수													
0명	18.1	3.9	7.9	7.1	3.1	18.9	29.9	0.8	3.1	-	7.1	100.0(127)	
1명	7.8	1.2	37.9	6.7	0.7	8.4	14.6	0.7	2.0	12.9	7.0	100.0(853)	
2명	3.3	0.9	61.3	3.4	0.1	5.8	13.6	1.2	0.6	0.5	9.2	100.0(2,071)	
3명	6.1	1.1	63.3	0.5	-	2.9	10.8	1.6	0.5	-	13.2	100.0(379)	
4명 이상	15.4	-	61.5	-	-	-	12.8	-	-	-	10.3	100.0(39)	

주: 1) 피입목적이 '단산 및 출산연기'라고 응답한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에는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이 포함됨; 3)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7-8>과 동일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의 저학력층에서는 낮은 소득, 고용상태 불안정, 자녀양육비용 부담 등이 많은 편이었고, 대학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사회활동 지장과 부부중심의 생활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존자녀수별로는 무자녀 또는 자녀가 1명인 경우는 낮은 소득, 자녀돌볼 사람·시설 없음, 사회활동 지장, 부부중심의 생활, 그리고 터울조절 등의 다양한 이유로 나타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자녀양육비용 부담 때문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인들이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그 목적이 단산인지 또는 출산연기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단산의 경우 대다수가 영구피임방법 또는 반영구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시적 피임방법을 출산연기 뿐만 아니라 단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피임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피임목적에 따른 적절한 피임사용법의 홍보·계몽 및 지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피임방법별 피임실천 목적에 대한 지역 간 차이를 보면(표 7-12 참조), 단산목적의 피임방법은 전국과 유사하여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방법은 동부지역에서는 먹는 피임약, 콘돔과 살정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읍·면부보다 높은 편이었고, 읍·면부지역에서는 월경주기법과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7-12〉 15~44세 유배우 피임실천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목적 분포

(단위: %, 명)

피임방법	단산	출산연기	기타	계(수)	χ^2
전국					
난관수술	100.0	-	-	100.0(257)	-
정관수술	99.6	0.4	-	100.0(757)	
자궁내장치	93.9	6.1	-	100.0(479)	
먹는 피임약	74.5	25.5	-	100.0(106)	
콘돔	80.2	19.8	-	100.0(1,074)	
살정제	88.9	11.1	-	100.0(18)	
월경주기법	82.5	17.5	-	100.0(618)	
기타	80.3	19.1	0.6	100.0(178)	
동부					
난관수술	100.0	-	-	100.0(212)	-
정관수술	99.6	0.4	-	100.0(670)	
자궁내장치	94.8	5.2	-	100.0(404)	
먹는 피임약	73.3	26.7	-	100.0(86)	
콘돔	79.5	20.5	-	100.0(954)	
살정제	88.2	11.8	-	100.0(17)	
월경주기법	83.6	16.4	-	100.0(532)	
기타	80.4	19.0	0.7	100.0(153)	
읍·면부					
난관수술	100.0	-	-	100.0(45)	-
정관수술	100.0	-	-	100.0(87)	
자궁내장치	89.3	10.7	-	100.0(75)	
먹는 피임약	80.0	20.0	-	100.0(20)	
콘돔	85.8	14.2	-	100.0(120)	
살정제	100.0	-	-	100.0(1)	
월경주기법	75.6	24.4	-	100.0(86)	
기타	80.0	20.0	-	100.0(25)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라. 현사용 피임방법에 대한 계속 사용의향 및 선호피임방법

〈표 7-13〉은 비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 중 향후 사용의향 및 앞으로 피임방법을 바꾸려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특히 향후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출산 및 여성의 생식건강과도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피임방법을 계속 사용할 의향을 가진 부인은 72.3%였으며, 다른 피임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10.3%,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17.4%로 적지 않았다. 피임방법별로는 자궁내장치 수용부인의 85.1%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반면, 월경주기법과 기타 방법은 각각 66.7%와 59.0%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여 다른 방법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을 변경하겠다고 응답한 부인은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이 1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살정제 11.8%, 콘돔과 월경주기법이 모두 11.4% 등이었다. 반면에 먹는 피임약과 자궁내장치를 사용하는 부인은 각각 6.7%와 5.9%만이 변경하겠다고 응답하여 다른 방법에 비해 적었다.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의향을 가진 부인의 바꾸고자 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80.0%로 가장 많았고, 미미하나 자궁내장치 8.9%, 난관수술 4.7%, 미결정 3.3%, 콘돔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사용상의 불편 및 실패임신의 위험이 낮은 정관수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피임방법별로 향후 사용을 희망하는 피임방법을 보면, 현재 사용하는 모든 피임방법에서 정관수술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자궁내장치를 사용 중인 부인의 76.7%, 먹는 피임약 62.5%, 콘돔 87.0%, 살정제 100.0%, 월경주기법 76.9%, 기타 방법은 72.9%로 다른 방법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외에 현재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도 자궁내장치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궁내장치 및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는 부인이 경우 난관수술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도 낮지 않았

다. 따라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상의 번거로움이 따르는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 향후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안정성이 높고, 사용상의 불편함이 적은 영구적 및 반영구적 피임방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3〉 15~44세 유배우부인 중 비영구적 피임실천부인의 방법별 계속 사용의향 및 변경희망 피임방법

(단위: %, 명)

구분	현 사용 피임방법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주기법	기타	전체
향후 계속사용 의향							
계속 사용하겠음	85.1	72.1	72.0	70.6	66.7	59.0	72.3
바꾸겠음	5.9	6.7	11.4	11.8	11.4	14.0	10.3
생각해보지 않았음 /모르겠음	9.0	21.2	16.6	17.6	21.9	27.0	1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8)	(104)	(1,075)	(17)	(616)	(178)	(2,468)
χ^2	70.142***						
변경희망 피임방법 ¹⁾							
난관수술	11.6	12.5	2.8	-	5.2	-	4.7
정관수술	76.7	62.5	87.0	100.0	76.9	72.9	80.0
자궁내장치	-	12.5	9.0	-	10.4	10.4	8.9
먹는 피임약	-	-	-	-	-	-	-
콘돔	-	4.2	-	-	4.5	10.4	2.8
살정제	-	-	-	-	-	-	-
월경주기법	2.3	-	-	-	-	-	0.2
기타	-	4.2	-	-	-	-	0.2
미결정	9.3	4.2	1.1	-	3.0	6.3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3)	(24)	(177)	(3)	(134)	(48)	(429)
χ^2							

주: 1) 현재 사용 중인 피임방법을 바꾸겠다고 응답한 부인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피임비실천 실태

본 절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 중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을 중심으로 피임비실천 양상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피임중단 및 무경험자로 구분하여 피임중단시 사용했던 피임방법, 피임중단 및 무경험 이유, 그리고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하는 피임방법 그리고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피임중단시 사용했던 피임방법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에 피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피임방법을 보면(표 7-14 참조), 콘돔이 4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 21.1%, 기타 피임방법 12.9%, 먹는 피임약 10.6%, 자궁내장치 4.4%의 순이었다. 이외에 불임수술을 사용했던 부인은 극히 미미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피임방법은 자궁내장치, 살정제, 월경주기법, 기타 피임방법 등이었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에 비하여 난관수술, 정관수술, 콘돔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연령층은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가 적으며, 25~29세 연령층에서는 콘돔이 5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 17.4%, 기타 피임방법 12.0%, 먹는 피임약 10.9%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콘돔 사용자가 많은 편이었다. 30~34세 연령층에서는 콘돔이 52.4%로 전체보다 많았고, 월경주기법 21.9%, 먹는 피임약 12.9%, 기타 피임방법 9.9%로 25~29세 연령층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35~39세 연령층도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이 23.6%로 사용률이 높았으며, 기타 방법이 18.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다. 40~44세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콘돔사용자는 30.3%로 적었으나, 자궁내장치 사용자는 많았다.

이와 같이 25~29세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콘돔, 월경주기법, 먹는 피임약 및 기타 피임방법에 편중되었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궁내장치와 불임수술 등의 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는 콘돔과 먹는 피임약 등을 사용했던 반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은 월경주기법, 기타 방법, 자궁내장치 및 불임수술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 피임방법 분포

(단위: %, 명)

특성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기타	계(수)	χ^2
2009	1.1	1.8	9.3	10.1	48.1	0.7	17.0	11.9	100.0(489)	
2012	0.6	0.6	4.4	10.6	49.2	0.6	21.1	12.9	100.0(498)	
지역										
동부	0.2	0.2	4.7	10.7	48.5	0.7	21.7	13.3	100.0(429)	-
읍·면부	2.9	2.9	2.9	10.1	53.6	-	17.4	10.1	100.0(69)	
연령										
24세 이하	-	-	11.1	22.2	44.4	-	11.1	11.1	100.0(9)	-
25~29세	-	-	1.1	10.9	58.7	-	17.4	12.0	100.0(92)	
30~34세	0.4	-	2.1	12.9	52.4	0.4	21.9	9.9	100.0(233)	
35~39세	1.1	2.2	2.2	5.6	47.2	-	23.6	18.0	100.0(89)	
40~44세	1.3	1.3	17.1	9.2	30.3	2.6	22.4	15.8	100.0(76)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7-8>과 동일

2. 피임중단 및 무경험의 이유

<표 7-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조사결과,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부인의 비율은 22.9%로 이 중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중단한 부인은 11.1%,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은 11.8%였다.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조사당시 피임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중단 이유는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중단한 비율이 58.5%로 피임의 중단 원인이 자녀를 갖는데 있었다. 이 외에도 피임을 중단한 이유는 피임의 영구 불필요 15.8%, 부작용 9.7%, 실패임신 때문이 8.5%, 사용상 불편 3.7% 등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피임을 중단한 이유로 임신을 원하거나 자연 배출, 피임 영구 불필요, 부작용 등은 증가한 반면, 실패 임신, 사용상 불편과 피임 일시 불필요 등의 이유는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실패임신, 자연배출, 사용상 불편, 피임 일시 불필요 등의 이유로 피임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임신 원함, 피임 영구 불필요, 부작용 등으로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 과거에 주로 사용했던 피임방법이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일시적 피임방법일 가능성이 높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의 피임 무경험이유로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8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연불임 8.6%, 피임지식 부족은 2.1%였고,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이를 2009년과 비교하면 자녀 원함과 피임 일시 불필요, 그리고 기타 이유는 증가한 반면, 자연불임과 피임지식 부족은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피임무경험 이유로 자녀희망과 피임 일시 불필요 등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자연불임과 피임지식 부족 그리고 기타 때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많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에 피임을 실천하였으나 현재 피임을 중단한

부인 또는 과거에 전혀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없는 부인의 경우도 현재 피임을 비실천하는 이유로 난임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난임으로 임신을 못하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난임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표 7-15〉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중단 및 무경험 비율과 이유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2009년 ¹⁾	2012년 ²⁾		
전체 부인 중 피임중단 부인의 비율(수)	10.0 (489)	11.1 (506)	11.0 (436)	11.7 (70)
χ^2			.271	
피임중단 이유				
임신 원함	54.4	58.5	57.9	62.0
실패 임신	8.6	8.5	8.7	7.0
자연 배출	0.3	2.0	2.3	-
사용상 불편	4.0	3.7	4.1	1.4
피임 영구 불필요	11.8	15.8	15.9	15.5
피임 일시 불필요	18.5	1.2	1.4	-
부작용	2.3	9.7	9.0	14.1
기타	-	0.6	0.7	-
계(수)	100.0(489)	100.0(506)	100.0(436)	100.0(70)
χ^2				
전체부인중 피임 무경험 부인의 비율(수)	10.0 (485)	11.8 (538)	11.9 (469)	11.6 (69)
χ^2			.271	
피임무경험 이유				
자연 불임	9.3	8.6	8.4	10.1
자녀 원함	83.3	88.0	88.8	82.6
피임 일시 불필요	0.3	0.4	0.4	-
피임지식 부족	6.4	2.1	1.5	5.8
기타	0.8	0.9	0.9	1.4
계(수)	100.0(485)	100.0(535)	100.0(466)	100.0(69)
χ^2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7-8>과 동일

3.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 피임방법

현재 피임비실천상태에 있는 부인들의 향후 피임실천 의향을 살펴보면 <표 7-16>과 같다. 피임비실천 부인 중 62.1%가 실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16.7%는 실천할 의향이 없었고, 아직 그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21.2%였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실천하지 않겠다는 부인의 비율은 19.9%로 2012년에 3.2%pt 감소한 반면, 실천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9.3%로 2012년에 2.8%pt 증가하였다.

향후 피임실천의향을 과거에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부인과 피임실천 경험이 없는 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경우는 피임 중단 부인이 79.3%, 피임 무경험부인이 48.3%로 피임중단부인이 피임무경험부인보다 31.0%pt나 많았다. 또한 실천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피임중단부인이 5.8%, 피임무경험부인이 25.5%로 무경험부인이 19.7%pt 많아서,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향후 피임을 실천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임실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인의 비율은 피임중단부인의 경우 14.9%, 피임 무경험부인은 26.2%로 나타나서 피임실천에 있어서 과거 피임경험자보다는 피임무경험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향후 피임실천 의향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62.4%,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60.5%로 동부지역이 약간 많았다. 과거 피임경험이 있는 피임중단부인과 경험이 없는 비실천부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피임중단부인의 경우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다소 많았고, 피임무경험부인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약간 많았다. 반면 실천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읍·면부지역이 약간 많았다(동부 16.3%, 읍·면부 19.4%). 피임을 중단한 부인 중 피임을 실천할 의향이 없는 부인은 지역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피

임무경험부인은 읍·면부지역이 다소 많았다.

그리고 피임실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은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피임중단부인과 피임무경험부인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읍·면부지역보다 높은 피임실천의지를 보인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피임실천여부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이었다.

〈표 7-16〉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향후 실천의향 분포

(단위: %, 명)

향후 피임실천의향	전국			동부			읍·면부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실천할 예정	79.3	48.3	62.1	79.0	49.1	62.4	81.4	42.9	60.5
모르겠음/생각해 보지 않았음	14.9	26.2	21.2	15.1	26.3	21.3	13.6	25.7	20.2
실천하지 않겠음/ 피임할 필요없음	5.8	25.5	16.7	5.9	24.6	16.3	5.1	31.4	1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30)	(534)	(964)	(371)	(464)	(835)	(59)	(70)	(129)
χ^2	106.361***			85.519***			21.66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피임비실천부인 중 향후 피임실천의향을 가지고 있는 부인의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피임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피임을 희망하는 부인의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살펴보면 <표 7-17>과 같다.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으나 향후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26.3%였고, 콘돔도 25.4%로 많아서 정관수술 수용률이 향후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자궁내장치 10.4%, 월경주기법이 9.5%였고 이외에 5% 미만이나 먹는 피임약 3.7%, 기타 피임방법 3.0%, 난관 1.3%, 난관 또는 정관 1.2%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향후 피임실천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인

인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도 1/5이나 해당되었다.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부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두 지역 모두 가장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과 콘돔이었으며 또한 자궁내장치도 선호하였다. 이 외에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월경주기법을 선호하였고,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난관수술 외에 먹는 피임약과 기타 방법 등 일시적 피임방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정관수술에 의한 피임 실천율은 16.7%에 불과하나 피임비실천자의 정관수술 이용희망률이 26.3%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며, 향후 정관수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17〉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희망부인의 선호 피임방법 분포

(단위: %, 명)

선호피임방법	전국	동부	읍·면부
난관수술	1.3	0.8	5.2
정관수술	26.3	23.6	44.2
난관 혹은 정관	1.2	1.2	1.3
자궁내장치	10.4	11.1	5.2
먹는 피임약	3.7	3.6	3.9
콘돔	25.4	25.9	22.1
살정제	0.2	0.2	-
월경주기법	9.5	10.6	2.6
기타	3.0	2.9	3.9
방법미결정	19.1	20.2	11.7
계(수)	100.0(598)	100.0(521)	100.0(77)
χ^2	-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불임수술 및 자궁내장치 등으로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피임실패의 우려가 있

는 콘돔을 이용하겠다는 부인이 25.4%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한 생식건강의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들 일시적 피임방법을 선호하는 부인과 아직 피임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피임사용법에 대한 홍보 및 계몽이 강화되어야 하며, 피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피임을 실천할 의향이 없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18 참조).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자연불임이 82.6%로 가장 많았고, 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는 3.7%에 불과하였으며, 폐경, 습관성 유산, 자연피임, 성생활 안함 등 기타 이유는 13.7%로 많은 편이었다. 즉 전체 피임비실천부인 중 피임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부인(16.7%)의 82.6%가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연불임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보다 약간 많았다. 또한 자궁적출이나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4.4%, 읍·면부지역은 분포를 보이지 않았다.

〈표 7-18〉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분포

(단위: %, 명)

이유	전국	동부	읍·면부
피임 불필요 ¹⁾	3.7	4.4	-
자연불임 ²⁾	82.6	80.9	92.0
기타 ³⁾	13.7	14.7	8.0
계(수)	100.0(161)	100.0(136)	100.0(25)
χ^2	-		

주: 1) 자궁적출,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 됨; 3) 기타에는 폐경, 성생활안함, 습관성 유산, 자연피임, 생리불규칙, 사용상 불편 등이 해당됨;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4절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

가임능력이 있는 유배우부인의 임신가능여부는 일정 시점에서 임신불가능 부인과 임신가능 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은 다시 불임수술에 의하여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은 자연불임상태의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현재 임신 중인 부인, 현재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 중인 부인, 또한 임신은 가능하나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노출상태를 살펴보면 <표 7-19>와 같다. 임신불가능 상태에 있는 부인은 25.9%,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74.1%였다. 임신불가능 부인 중 불임수술 수용 부인은 22.4%, 자연불임 2.9%, 임신불가능 부인은 0.6%였으며, 임신가능부인 중 일시피임실천 부인은 54.5%, 피임비실천 13.6%, 현재 임신 중은 6.0%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부인은 전체 부인의 13.6%로 이는 현재 임신이 가능하면서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부인이다. 그러나 이들 부인 가운데 실제로 피임이 필요하지만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방임상태에 있는 부인은 훨씬 적은 수준이라 하겠다. 이는 현재 피임비실천 부인 중 73.8%가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³⁰⁾ 피임을 중단하거나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일시적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부인도 8.8%³¹⁾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피임이 필요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방임부인집단’은 극히 적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0) 피임중단부인의 58.5%가, 피임무경험부인의 88.0%가 자녀를 위하여 피임을 하지 않았다.

31) 피임중단부인의 1.2%가, 피임무경험부인의 0.4%가 일시적으로 피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

임신노출상태를 2009년과 비교하면, 임신 불가능한 부인은 2009년에 비하여 0.8%pt가 증가한 반면,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0.7%pt 감소하였다.

이를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불임수술수용과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보다 0.2%pt 많았다. 또한 피임비실천중인 경우도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0.8%pt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노출상태 분포

(단위: %, 명)

특성	임신불가능			임신가능			계(수)	χ^2
	불임수술 수용	임신 불가능	자연 불임	현재 임신중	피임 실천중	피임 비실천		
2009	22.7	0.1	2.3	5.0	57.3	12.5	100.0(4,867)	
2012	22.4	0.6	2.9	6.0	54.5	13.6	100.0(4,546)	
지역								
동부	22.4	0.6	2.8	5.9	54.6	13.7	100.0(3,947)	3.214
읍·면부	22.2	0.3	3.8	6.3	54.4	12.9	100.0(599)	
연령								
24세 이하	-	-	-	5.8	58.0	36.2	100.0(69)	917.115 ***
25~29세	2.8	0.5	1.2	20.8	45.1	29.7	100.0(428)	
30~34세	10.5	1.2	1.8	11.5	51.7	23.3	100.0(1,119)	
35~39세	25.0	0.5	3.5	3.1	59.1	8.7	100.0(1,343)	
40~44세	34.8	0.3	3.9	0.4	55.1	5.5	100.0(1,582)	
현존자녀수								
0명	1.0	1.8	11.8	23.8	24.0	37.5	100.0(491)	1452.800 ***
1명	7.2	0.9	4.3	9.2	58.4	19.9	100.0(1,311)	
2명	32.1	0.2	0.8	1.4	59.6	5.9	100.0(2,284)	
3명	41.1	0.2	0.2	0.2	49.4	8.8	100.0(419)	
4명 이상	30.8	-	-	-	66.7	2.6	100.0(39)	

주: 1) 임신불가능은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를 말함; 2) 자연불임은 3년 이상 임신이 안 된 경우임;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7-8>과 동일

연령별 임신노출상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임신 불가능한 상태의 부인이 증가하고,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24세 이하 연령층의 임신가능

한 부인의 비율은 100.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가장 높았고, 25~29세 연령층은 다소 감소한 95.6%로 나타났다. 반면, 35~39세 연령층의 임신가능한 부인 70.9%, 임신불가능한 부인 29.0%로 임신불가능한 부인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40~44세 연령층은 각각 61.0%와 39.0%로 두 집단 간에 간격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자녀수별 임신노출상태는 자녀수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대체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피임정책 대상 부인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피임 관련 홍보·계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피임실천상태를 피임실천과 피임비실천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7-20 참조). 현재 피임비실천 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비실천 이유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 9.2%, 현재 임신 중 6.0%, 자연불임 2.9%,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0.6%였다. 따라서 현재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 중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약 9%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자녀를 원하는 경우는 피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이므로 결과적으로 피임정책 대상자는 기타 이유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4.3%의 부인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산후무월경기간으로 피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인, 남편의 해외출장, 장기입원 등의 이유로 피임이 불필요한 부인을 제외하면 피임이 필요하나 피임을 하고 있지 않는 부인은 4.3%보다는 적은 수준일 것이다. 피임정책고려 대상 부인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1.5%pt 많았으며, 24세 이하와 3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현존자녀수가 1~3명인 경우 피임정책 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7-2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정책 대상자 분포

(단위: %, 명)

특성	피임실천		피임비실천 이유					계(수)	χ^2
	불임 수술 수용	일시적 피임방법 수용	임신 ¹⁾ 불가능	자연 ²⁾ 불임	현재 임신중	자녀 희망	기타		
전체	22.4	54.5	0.6	2.9	6.0	9.2	4.3	100.0(4,546)	
지역									
동부	22.4	54.6	0.6	2.8	5.9	9.1	4.6	100.0(3,947)	4.2
읍·면부	22.2	54.4	0.3	3.8	6.3	9.9	3.1	100.0(599)	
연령									
24세 이하	-	58.0	-	-	5.8	29.0	7.2	100.0(69)	1105.8 ***
25~29세	2.8	45.1	0.5	1.2	20.8	27.6	2.0	100.0(428)	
30~34세	10.5	51.7	1.2	1.8	11.5	18.2	5.0	100.0(1,119)	
35~39세	25.0	59.1	0.5	3.5	3.1	3.9	4.9	100.0(1,343)	
40~44세	34.8	55.1	0.3	3.9	0.4	1.5	4.0	100.0(1,582)	
현존자녀수									
0명	1.0	24.0	1.8	11.8	23.8	37.0	0.6	100.0(491)	1803.6 ***
1명	7.2	58.4	0.9	4.3	9.2	15.6	4.4	100.0(1,311)	
2명	32.1	59.6	0.2	0.8	1.4	1.3	4.5	100.0(2,284)	
3명	41.1	49.4	0.2	0.2	0.2	0.7	8.2	100.0(419)	
4명 이상	30.8	66.7	-	-	-	-	2.5	100.0(39)	

주: 1)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 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7-21>은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노출상태에서 추가자녀 희망여부와 피임실천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불임수술 수용(22.4%), 임신불가능(0.6%), 자연불임(2.9%), 현재 임신 중(6.0%)인 부인 등을 제외한 부인(68.1%)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추가자녀 희망여부에 따른 피임실천여부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표 7-21〉 15~44세 유배우부인¹⁾의 특성별 자녀추가 희망여부 및 피임실천

(단위: %, 명)

특성	자녀희망 피임실천(A)	자녀비희망 피임실천(B)	자녀희망 피임비실천(C)	자녀비희망피 임비실천(D)	계(수)	χ^2
전체	7.6	70.4	5.5	16.5	100.0(4,378)	
지역						
동부	7.6	70.4	5.4	16.6	100.0(3,804)	1.3
읍·면부	7.2	70.5	6.5	15.9	100.0(572)	
연령						
24세 이하	36.4	19.7	9.1	34.8	100.0(66)	1324.9 ***
25~29세	26.1	21.1	14.9	37.8	100.0(402)	
30~34세	14.3	47.9	12.8	25.0	100.0(1,063)	
35~39세	2.9	81.7	1.9	13.4	100.0(1,304)	
40~44세	0.8	91.3	1.1	6.9	100.0(1,54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0	70.9	3.4	19.7	100.0(117)	75.3***
고등학교	5.8	77.2	4.5	12.6	100.0(1,863)	
대학 이상	9.0	65.1	6.5	19.3	100.0(2,392)	
현존자녀수						
0명	20.1	4.5	25.1	50.3	100.0(463)	1881.1 ***
1명	16.0	49.5	9.0	25.4	100.0(1,238)	
2명	1.6	91.5	0.6	6.3	100.0(2,223)	
3명	1.2	90.1	0.2	8.4	100.0(415)	
4명 이상	-	97.4	-	2.6	100.0(39)	

주: 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불가능(0.6%), 불임상태(2.9%), 불임수술을 받은 경우(22.4%) 및 현재 임신중 인 경우(6.0%) 등을 제외한 부인, 즉 자녀를 희망하거나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임신에 노출된 부인(68.1%)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임신의 위험에 노출된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 및 현재 피임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7-1]과 같이 요약된다. 앞으로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5.5%였으며,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16.5%로 나타났다. 반면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경우는 70.4%, 자녀를 원하지만 피임을 하는 경우는 7.6%였다. 따라서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별
피임실천상태

		추가자녀희망여부		
		희망(+)	비희망(-)	
피임 실천 여부	실천(+)	A(7.6%)	B(70.4%)	78.0%
	비실천(-)	C(5.5%)	D(16.5%)	22.0%
		13.1%	86.9%	100.0%

이와 같은 A, B, C, 그리고 D 집단을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표 7-21>과 같다. 피임정책 대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16.6%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0.7%^{pt} 많았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연령층은 자녀를 희망하면서 터울조절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층에 집중되었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25~29세 연령층이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4세 연령층이 34.8%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피임정책 대상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따라서 25~34세 연령층에 대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희망하면서 터울조절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와 자녀를 희망하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출산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자녀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관리대상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19.7%로 가장 많았다.

현존자녀수별로는 연령과 대체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자녀를 희

망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인 피임정책 대상자층은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을 제외하고 대체로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수가 없는 부인은 50.3%,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25.4%가 관리대상으로 나타났다.

제5절 시사점

우리나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2012년 77.1%로 2009년보다 2.9%pt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인 경우와 폐경, 자연불임 등과 같이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피임실천율의 한계수준을 약 80%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는 등 인구자질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높은 수준의 피임실천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혼부부 사이에서 피임실천이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피임방법별 실천율의 변화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과 콘돔 등으로 피임방법이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는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일시적 피임방법은 터울조절에는 유용하지만 단산을 한 부인의 경우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다는 것은 피임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피임실천의 질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출산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에서 일시적 피임방법의 사용이

많았고 또한 단산을 목적으로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일시적 피임에 의한 피임실패가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집단의 경우 생식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피임을 비실천하는 부인 중 불임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특히, 과거에 피임을 실천하다 피임을 중단 이유로 피임불필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불임여성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여 이들 불임집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피임비실천 부인 중 추가자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고연령층 부인의 임신은 그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바로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생식건강상의 위해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배우 부인의 피임행태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임기 여성의 피임행태는 생식건강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생식건강증진교육을 통해 인식이 증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피임방법의 지도 관리는 생식건강증진 측면에서 적합한 피임행태가 이루어지도록 대상자의 연령, 피임목적, 출산계획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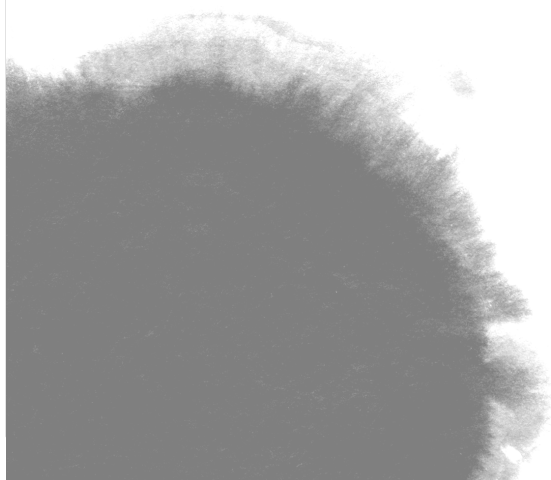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둘째, 임신소모를 최소화하고 피임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피임목적에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홍보·계몽 및 전문적인 상담 등이 생애주기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피임비실천 방임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피임관리 및 지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고연령층 집단의 생식보건 증진과 인구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임기 여성의 불임을 예방하고 불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불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불임을 극복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임환자, 불임 의심자 집단을 대상으로 생식건강과 관련된 건강 정보부터 전문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여 불임자의 정서적·심리적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의료인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8장

난임실태



제8장 난임실태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난임³²⁾은 부부가 자녀를 원하여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여도 1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임신능력은 30대를 기점으로 저하되기 시작하여 35세에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의 경우 45세를 기점으로 임신능력이 낮아지는 점과 (황나미 외, 2010) 만혼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한국사회의 결혼동향을 고려할 때, 향후 난임 증가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난임 및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난임 등도 증가하고 있어서 난임은 저출산 시대에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시대 출산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되었다. 난임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³³⁾으로, 일정수준의 소득기준

32) ‘난임’은 의학용어인 ‘불임’(infertility)의 대체 용어이다. ‘난임’이라는 호명은 ‘불임’이 주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임신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부각하여 임신에 대한 희망과 난임여성의 정상성을 강조한다. 최근 생식 의학의 보편화와 함께 난임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난임여성들과 의료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난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김경례, 2012).

을 충족하는 난임 경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난임진료를 받는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³⁴⁾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난임 실태 파악이 요구되나, 이러한 실태가 시계열적으로 파악되지 않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김승권 외, 2009). 이에 본 조사에서는 2006년부터 15~49세 유배우 부인의 난임실태를 파악하여 왔다. 본 장에서는 유배우 부인의 난임 경험을 및 진료 여부, 원인, 치료경험 등에 대한 실태를 제시하고, 주요 자료들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2012년 조사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개선방향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난임부부의 정책욕구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15~49세 유배우 부인과 난임경험 부인의 입양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살핀다. 이는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인 입양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입양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 선행연구

난임 및 입양 관련 최근 연구의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난임 경험율에 대하여 살핀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의하면 20~44세 유배우부인 중 피임을 실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을 경험 중인 여성의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유배우부인의 난임경험율이 20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였

33) 정책 도입 당시의 명칭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었다.

34) 보건복지부(2012)에 의하면 난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6년 약 14만 8천 명에서 2010년 약 18만 4천명으로 증가하여 4년간 18%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였다.

다(이삼식 외, 2009).

다음은 난임부부의 난임 진찰율 및 난임 원인을 살펴본다. ‘2009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5~49세 난임경험 부인의 난임 진찰 경험율은 15.6%로, 2006년 동 조사의 진찰 경험율인 54.2%에 비하여 급감하였다. 난임의 원인은 부인의 경우 ‘원인불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궁내막장애, 나팔관 장애, 배란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 측 원인 역시 ‘원인불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정자무력증, 희소정자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김승권 외, 2009).

다음으로 난임진단 경험자의 난임 치료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에 의하면 난임진단을 받은 15~49세 유배우부인 중 77.2%가 난임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들의 주된 미치료 이유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37.1%)가 가장 높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22.9%)가 두 번째로 높았다(김승권 외, 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난임진단을 받은 20~44세 유배우부인 중 치료를 받은 여성은 ‘현재 치료 중’(12.4%)과 ‘치료를 받다가 중단’(66.6%)을 합하여 총 79%로, 높은 수준의 난임치료 경험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치료를 중단한 경우 중 25.1%만이 임신에 성공해서 치료를 중단하였고, 그 외의 치료중단 이유로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이삼식 외, 2009).

황나미 외(2010)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기반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사업 수혜자의 대부분(74.1%)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액수를 초과한 시술비용을 지출하고 있었

다. 구체적으로, 2010년 당시 난임시술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국가지원 외 추가의료비로 평균 445만원을 지출하여 지원금 외에도 높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가구소득 심사로 수혜자격을 구분하는 현재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약 80%로 나타나, 소득을 통한 대상자 선정방식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난임치료를 경험한 대부분의 여성(78.9%)이 치료 후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황나미 외(2010)는 난임지원 정책개선 방향으로 난임시술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통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시술비용의 단계적 증액 및 지원횟수 확대, 난임시술 전·후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정책동향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내용을 제시한다. 2012년 사업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³⁵⁾ 받은 만 44세³⁶⁾ 이하의 법적 부부로서, 소득조건으로 가족수를 적용한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로 구분된다³⁷⁾. 체외수정시술은 체외수정, 난자세포질 내 정자주입술 등 약 10여종의 시술을 의미하며, 인공수정시술은 임

35) 난임진단서는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와 전문의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6) 연령 기준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한 부인의 나이(만44세)를 의미하며, 남편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다.

37) 지원가능한 시술은 다음과 같다. 1) 체외수정시술: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정자직접주입술, 배아보조부화술, 집합자난관내이식, 생식세포난관내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내이식, 2) 인공수정시술: 배란유도, 자연주기인공수정

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다. 최대 지원 횟수는 보조생식술이 4회,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3회까지이다.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3회까지는 180만원 범위 내(단,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범위 내), 4회에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인공수정의 경우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2).

제2절 난임경험 및 난임진단 실태

본 연구에서 난임실태는 15~49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출산연령층을 15~49세로 보고 출산을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난임관련 통계로 논의되는 것은 난임경험률, 난임진단 경험률, 난임치료 경험률 등 세 가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난임관련 통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난임경험률」은 임신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인의 비율이고, 「난임진단 경험률」은 난임을 경험한 응답자 중 양방병원에서 난임의 원인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이며, 「난임치료 경험률」은 양방병원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 중 난임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이다.

15~49세 유배우부인의 난임경험률은 34.9%이었다. 읍·면부지역 거주(43.0%),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응답자가 적어 무의미한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면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44.6%), 욕구소득비가 높은 부인일수록 난임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난임진단 경험률은 난임을 경험한 응답자 중 양방병원에서 난임의 원인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이다. 15~49세 유배우부인의 난

임진단 경험률은 33.1%이었다. 동부지역 거주부인(34.1%),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응답자가 적어 무의미한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면 400~5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의 부인(42.4%), 1~2 미만의 욕구소득비 가구 부인(37.3%)의 난임진단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양방병원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 중 난임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인 난임치료 경험률은 62.0%로 높았다. 부인의 특성별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읍·면부지역 거주(64.7%), 가구원 수 5인 이상(75.0%),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75.9%), 욕구소득비 4 이상(77.7%) 부인의 난임치료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1〉 15~49세 유배우부인의 가구 특성별 난임경험, 난임진단 및 난임치료 경험률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	난임경험률 ¹⁾	난임진단 경험률 ²⁾	난임치료 경험률 ³⁾
전체	(1,047)	34.9	33.1	62.0
지역				
동부	(905)	33.6	34.1	61.4
읍·면부	(142)	43.0	28.3	64.7
가구원 수				
2인	(384)	41.9	32.9	66.7
3~4인	(569)	33.9	33.2	56.4
5인 이상	(94)	11.7	40.0	75.0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5)	60.0	50.0	50.0
100~200 미만	(65)	44.6	40.7	50.0
200~300 미만	(264)	28.4	30.7	56.5
300~400 미만	(267)	33.0	25.3	68.2
400~500 미만	(180)	37.8	42.4	48.1
500 이상	(259)	39.0	32.3	75.9
욕구소득비				
1 미만	(17)	29.4	20.0	50.0
1~2 미만	(174)	30.5	37.3	63.1
2~3 미만	(345)	30.7	28.6	61.3
3~4 미만	(211)	38.4	36.7	44.8
4 이상	(294)	40.8	32.7	77.7

주: 1) 조사대상인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인의 비율임; 2) 난임을 경험한 응답자 중 양방병원에서 난임의 원인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임; 3) 양방병원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 중 난임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임.
자료: 본 조사결과

난임, 난임진단, 난임치료의 경험률을 15~49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난임경험률은 40~44세 연령층 부인(71.9%),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 중(38.7%),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양방병원에서의 난임진단 경험률은 45~49세 연령층 부인(42.6%),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인(44.4%),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39.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난임치료 경험률은 25~29세 연령층 부인(100.0%),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가진 부인(64.5%),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72.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2〉 15~49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난임, 난임진단 및 난임치료 경험률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	난임경험률 ¹⁾	난임진단 경험률 ²⁾	난임치료 경험률 ³⁾
연령				
15~24세	(28)	17.9	-	-
25~29세	(218)	14.2	9.7	100.0
30~34세	(402)	22.9	24.2	68.2
35~39세	(201)	49.3	42.4	50.0
40~44세	(121)	71.9	37.6	80.0
45~49세	(77)	67.5	42.6	5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9)	43.6	44.4	42.9
고등학교	(358)	42.5	30.5	64.5
대학 이상	(648)	30.1	34.2	62.9
취업여부				
취업	(486)	38.7	33.3	60.4
비취업	(561)	31.6	32.9	63.6
현존자녀수				
0명	(379)	42.7	33.3	68.6
1명	(449)	33.9	31.1	52.2
2명	(180)	26.1	39.1	72.2
3명 이상	(39)	10.3	20.0	-

주: 1) 조사대상인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인의 비율임; 2) 난임을 경험한 응답자 중 양방병원에서 난임의 원인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임; 3) 양방병원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 중 난임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임.

자료: 본 조사결과

난임진단 및 난임치료를 받은 15~49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난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부인이 원인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원인이 불명확한 비율이 46.3%이었다. 원인이 규명된 경우로는 나팔관 장애 19.1%, 배란장애 16.6%, 자궁내막장애 13.5% 등의 순이었다. 2009년 조사결과 대비 나팔관 장애는 3.6%pt 증가한 것이고, 배란장애와 자궁내막장애는 각각 3.0%pt, 8.8%pt 감소한 것이다.

남편이 원인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원인이 불명확한 비율이 72.9%로 높았다. 원인이 규명된 경우로는 정자무력증 10.7%, 희소정자증 9.8%, 무정자증 8.4%의 순이었다. 2009년 조사결과 대비 무정자증은 6.1%pt, 희소정자증은 0.7%pt 증가한 것이고, 정자무력증은 0.7%p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15~49세 유배우부인의 난임진단 결과 난임의 원인

(단위: 명, %)

구분	2009 ¹⁾		2012 ²⁾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분석대상)	(103)	(88)	(101)	(51)
원인불명	35.9	34.1	46.3	72.9
나팔관장애	15.5	-	19.1	-
배란장애	19.6	-	16.6	-
자궁경관장애	2.0	-	3.1	-
자궁내막장애	22.3	-	13.5	-
조기폐경	-	-	1.2	-
습관성유산	2.9	-	1.2	-
무정자증	-	2.3	-	8.4
희소정자증	-	9.1	-	9.8
정자무력증	-	11.4	-	10.7
염색체 이상	-	1.1	-	-
기타	1.9	-	5.1	-
모르겠음	3.9	-	-	-

주: 난임진단 및 난임치료를 받은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1)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본 조사결과

제3절 난임 치료 실태와 지원정책

현존자녀수별 난임치료 경험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존 자녀가 없음에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경우가 43.1%,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31.4%로 전체의 74.5%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자녀수가 한 명인 부인의 47.8%가 치료를 받지 않았음도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0~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 중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난임치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표 8-4〉 15~49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난임치료 여부

(단위: %, 명)

난임치료 여부	현존자녀수				전체	χ^2
	0명	1명	2명	3명 이상		
치료 받음	25.5	41.3	61.1	-	37.1	-
치료를 받다가 중단함	43.1	10.9	11.1	-	25.0	
치료 받지 않음	31.4	47.8	27.8	100.0(1)	37.9	
계(수)	100.0(51)	100.0(46)	100.0(18)	100.0(1)	100.0(116)	

주: 1) 양방병원에서 난임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한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난임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부인들의 난임 치료기관을 파악하였다. 치료기관은 양방병원이 6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의 병행 27.1%이었으며, 한방병원은 4.3%에 불과하였다. 현존자녀수별로 난임 치료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수와 관계없이 양방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다만, 자녀수가 적은 부인일수록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을 병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특징이 있었다(0명 35.3%, 1명 26.1%, 2명 7.7%).

〈표 8-5〉 15~49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난임 치료기관

(단위: %, 명)

치료기관	현존자녀수			전체	χ^2
	0명	1명	2명		
양방병원	61.8	65.2	92.3	68.6	-
한방병원	2.9	8.7	-	4.3	
양방+한방병원	35.3	26.1	7.7	27.1	
계(수)	100.0(34)	100.0(23)	100.0(13)	100.0(70)	

주: 1)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 중 난임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난임진단을 받았음에도 난임치료를 받지 않은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미치료 이유를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59.6%로 가장 컸고, 다음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3.5%, ‘영구불임판정을 받아서’ 11.5%의 순이었다. 이들 외에도 소수의견으로서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5.8%), ‘시간이 없어서’(1.9%), ‘직장 때문에’(1.9%)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존자녀수에 상관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8-6〉 15~49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난임 미치료 이유

(단위: %, 명)

미치료 및 치료중단 이유	현존자녀수				전체	χ^2
	0명	1명	2명	3명 이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22.2	11.5	60.0	-	13.5	-
시간이 없어서	2.8	-	-	-	1.9	
직장 때문에	2.8	-	-	-	1.9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47.2	73.1	20.0	100.0	59.6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5.6	3.8	-		5.8	
영구불임판정을 받아서	11.1	3.8	20.0		11.5	
입양을 해서	-	-	-		-	
기타	8.3	7.7	-		5.8	
계(수)	100.0(36)	100.0(26)	100.0(5)	100.0(1)	100.0(68)	

주: 1)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 중 난임치료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거나 받다가 중단했다고 응답한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15~49세 유배우부인 중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인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음’이 4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부만 알고 있음’ 35.7%, ‘전혀 모름’ 16.1%의 순이었다. 따라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인지율은 난임치료를 받은 부인은 64.3%로 높았으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부인은 42.9%, 치료를 받지 않은 부인은 35.7%만이 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정확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8-7〉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음	일부만 알고 있음	전혀 모름	계(수)	χ^2
전체	48.2	35.7	16.1	100.0(112)	
난임치료 여부					
치료 받음	64.3	31.0	4.8	100.0(42)	-
치료를 받다가 중단함	42.9	35.7	21.4	100.0(28)	
치료를 받지 않음	35.7	40.5	23.8	100.0(42)	

주: 1) 난임 진단을 받은 부인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난임 진단 경험이 있는 부인 중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출산율 상승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였다. ‘(매우 또는 조금) 도움이 되었음’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81.5%로 많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이 18.5%로 적었다.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난임 치료를 받은 부인이 84.6%로 가장 높았다.

〈표 8-8〉 난임진단 경험 부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출산을 상승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되었음	조금 도움이 되었음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계(수)	χ^2
전체	38.0	43.5	10.9	7.6	100.0(92)	
난임치료 여부						
치료 받음	30.8	53.8	7.7	7.7	100.0(39)	-
치료를 받다가 중단함	34.8	43.5	13.0	8.7	100.0(23)	
치료를 받지 않음	50.0	30.0	13.3	6.7	100.0(30)	

주: 1) 난임 진단 경험이 있는 부인 중 난임(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난임 진단 경험이 있는 부인을 대상으로 「난임 관련 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매우 또는 다소) 필요함’이 90.3%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필요하지 않음’은 9.7%에 불과하였다. ‘필요함’의 비율은 난임치료를 받았거나 받지 않은 부인이 유사한 수준(각각 95.2%, 95.3%)으로 높았으며, 난임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부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75.0%).

〈표 8-9〉 난임진단 경험 부인의 「난임 관련 상담 프로그램」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함	다소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계(수)	χ^2
전체	57.5	32.7	9.7	100.0(113)	
난임치료 여부					
치료 받음	76.2	19.0	4.8	100.0(42)	-
치료를 받다가 중단함	46.4	28.6	25.0	100.0(28)	
치료를 받지 않음	46.5	48.8	4.7	100.0(43)	

주: 1) 난임 진단 경험이 있는 부인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난임 진단 경험이 있고 「난임관련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인을 대상으로 「난임관련 상담 프로그램」 운영 희망기관을 파악하

였다. 가장 희망하는 기관은 ‘난임시술 민간의료기관’으로 31.7%이었고, 다음은 ‘보건소’ 28.7%, ‘국립의과대학병원’ 21.8%, ‘독립적 비영리 의료전문협회’ 17.8%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난임치료 여부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난임치료를 받은 부인은 ‘난임시술 민간 의료기관’(50.0%)을, 난임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부인은 ‘독립적 비영리 의료전문협회’(33.3%)를, 난임치료를 받지 않은 부인은 ‘보건소’(42.9%)를 선호하였다.

〈표 8-10〉 15~49세 유배우부인의 「난임 관련 상담 프로그램」 운영 희망기관

(단위: %, 명)

구분	난임시술 민간의료기관	국립의과 대학병원	독립적 비영리 의료전문협회	보건소	계(수)	χ^2
전체	31.7	21.8	17.8	28.7	100.0(101)	
난임치료 여부						
치료 받음	50.0	15.8	18.4	15.8	100.0(38)	
치료를 받다가 중단함	14.3	28.6	33.3	23.8	100.0(21)	-
치료를 받지 않음	23.8	23.8	9.5	42.9	100.0(42)	

주: 1) 난임 진단 경험이 있는 부인 중 「난임 관련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최소 1년 동안 난임을 경험한 15~49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가 ‘난임치료비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39.4%)와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31.5%)을 답하였다. 그 외에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15.5%,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 8.8%, ‘한방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 4.2% 등을 제시하였다.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은 난임진단 경험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난임치료 여부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난임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난임치료비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를,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는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8-11〉 15~49세 유배우부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개선점

(단위: %, 명)

구분	①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② 난임치료비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 ③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④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 ⑤ 한방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 ⑥ 기타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5.5	39.4	31.5	8.8	4.2	0.6	100.0(330)	
난임진단 경험 ¹⁾								
진단 받은 적 있음	13.0	41.7	32.2	9.6	1.7	1.7	100.0(115)	-
진단 받은 적 없음	16.7	38.1	31.2	8.4	5.6	-	100.0(215)	
난임치료 여부 ²⁾								
치료 받음	26.2	47.6	21.4	2.4	2.4	-	100.0(38)	-
치료를 받다가 중단함	10.7	39.3	25.0	21.4	3.6	-	100.0(23)	
치료를 받지 않음	2.3	37.2	46.5	9.3	-	4.7	100.0(34)	

주: 1)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최소한 1년 동안 난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불임 진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인을 분석 대상으로 함;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난임의 주관적 경험, 난임진단, 난임치료 경험 여부에 따른 입양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입양을 고려하거나 경험이 있는 비율은 15~49세 유배우부인 중 현재 피임을 하고 있지 않은 부인의 13.1%, 난임경험 부인의 25.2%, 난임진단 경험 부인의 30.5%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난임진단을 받은 후의 치료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난임치료를 받은 부인의 28.6%, 난임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부인의 40.0%, 난임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를 받지 않은 부인의 23.8%가 입양을 고려하거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입양경험이 있는 부인은 최소한 1년 동안 난임을 경험한 부인의 1.7%,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의 0.8%, 난임진단을 받지 않은 부인의 2.1%, 난임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를 받지 않은 부인의 2.4%이었다.

〈표 8-12〉 15~49세 유배우부인 중 난임관련 경험 여부별 입양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	고려한 적이 있으나 포기하였다	입양을 적극 고려하였다	입양 경험이 있다	계(수)	χ^2
전체 ¹⁾	86.9	11.0	1.5	0.6	100.0(1,020)	
난임경험 여부 ¹⁾						
경험 한적 있음	74.8	21.3	2.2	1.7	100.0(361)	-
경험 한적 없음	93.6	5.3	1.1	-	100.0(659)	
난임진단 경험 여부 ²⁾						
진단 받은 적 있음	69.5	24.6	5.1	0.8	100.0(118)	-
진단 받은 적 없음	77.4	19.1	1.3	2.1	100.0(235)	
난임치료 여부 ³⁾						
치료 받음	71.4	23.8	4.8	-	100.0(42)	-
치료를 받다가 중단함	60.0	30.0	10.0	-	100.0(30)	
치료를 받지 않음	76.2	19.0	2.4	2.4	100.0(42)	

주: 1) 15~49세 유배우부인 중 현재 피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최소한 1년 동안 난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3) 난임 경험 부인 중 양방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인을 대상으로 함; 4)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4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난임관련 실태와 지원내용을 살펴보았다. 난임경험률이 34.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양방병원에서 난임을 진단받은 비율은 난임경험부인의 33.1%이었다. 따라서 1년간 피임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의 비율인 ‘난임진단률’은 11.6%(34.9%×33.1%)라 하겠다. 결코 적지 않은 부인이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난임치료 경험률이 약 62%로 낮지는 않지만, 계속 치료를 받은 비율이 약 37%에 그치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치료중단 및 미치료 이유에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와 ‘영구불임판정을 받아서’가

71.1%로 높아 무엇보다도 난임치료에 대한 의료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시간이 없어서’, ‘직장 때문에’ 등이 23.1%로 나타나 정책 지원과 직장 배려가 수반된다면 난임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출산을 상승효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으므로, 지원사업의 욕구로 제시된 ‘난임치료비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와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의 전반적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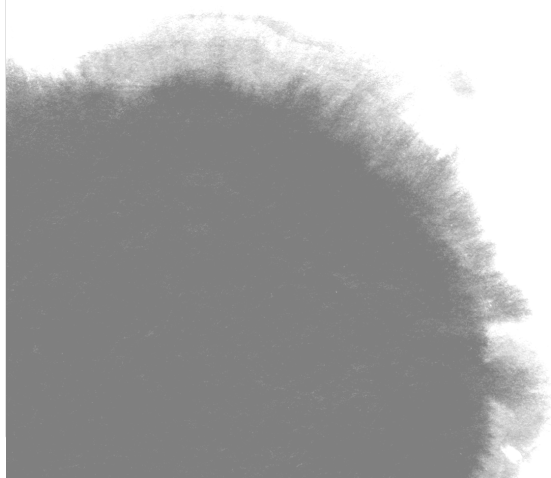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첫째, 난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난임을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을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여야 한다.

둘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난임치료의 정책적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횟수를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무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이므로 상황으로 난임진단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난임치료에 소요되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치료가 가능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원인 발견과 원인에 따른 치료방법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장

모자보건실태



제9장 모자보건실태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본 장에서는 2010년 1월 이후 2012년 조사시점인 2012년 7월까지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산전관리, 분만, 산후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모자보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모자보건 수준은 크게 향상되어 모자보건의 대표적인 지표인 영아사망율은 2000년 출생아 1,000명당 5.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0.2명보다 낮은 수준이다(OECD, 2012).

산전관리 수준도 이미 크게 향상되어 2009년부터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산전관리 수진회수도 WHO 권고기준에 비하여 매우 많은 수준이다. 안전분만을 높이며, 특히 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이 증가하고 있고 의원 분만은 감소하고 있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구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고령 출산, 다태아 출생 증가 등 고위험 임신부의 증가로 저체중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미숙아 분만율도 감소되지 않고 있다.

2.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산전관리 실태는 3년마다 조사되고 있는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산전수진율은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1985년 82.4%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도 조사결과에서는 99.9%로 거의 모든 산모가 산전수진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모든 부인이 임신 중 산전관리를 받았다.

〈표 9-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산전수진율

(단위: %)				
구분	2000 ¹⁾	2003 ²⁾	2006 ³⁾	2009 ⁴⁾
전체	100.0	99.8	99.9	100.0
동부	100.0	99.9	100.0	100.0
읍·면부	100.0	99.6	99.3	100.0

자료: 1)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산후검진을 받은 비율은 2000년 85.0%, 2003년 90.9%, 그리고 2006년과 2009년 각각 9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9-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산후수진율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전체	85.0	90.9	91.9	91.9

자료: <표 9-1>과 동일

시설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99.9%, 2003년 99.3%, 2006년과 2009년 99.9%에 이르러 안전분만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김승권

외, 2000, 2004, 2006, 2009 참조).

〈표 9-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시설분만을 추이

(단위: %)

구분	시설분만					비시설 분만
	소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 보건의료원	
2006 ¹⁾	99.9	14.3	51.3	34.3	-	0.1
2009 ²⁾	99.9	18.4	58.2	23.1	0.2	0.1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건강보험통계』에서 발표한 ‘제왕절개 분만율’은 36.3%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에서도 출생아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34.3%로 건강보험통계나 2009년 조사보다는 감소하였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37.7%, 2003년 3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35.0%, 2009년 36.9%를 보였다.

제왕절개 분만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이유는 ‘의료수가’ 문제, 의료인의 의료소송 회피를 위한 ‘방어적 의료(자연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 ‘산모 자신의 제왕절개 선택’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안형식, 2000). 제왕절개 분만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제왕절개분만 비율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전체	37.7	39.2	35.0	36.9
동부	36.9	39.1	35.1	37.2
읍·면부	46.8	39.8	34.5	35.3

자료: <표 9-1>과 동일

출생아의 체중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정상체중아의 비율이 92.2%였다가 2003년에는 약간 감소한 90.5%로 나타났고, 2006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09년 91.7%이었다.

2.5kg 미만 저체중아의 경우 2000년에는 약 3.9%였으나 2003년에는 이보다 약간 증가한 4.2%로 나타났고, 2006년 3.2%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 2000년과 유사한 수준인 3.8%이었다.

〈표 9-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시 체중¹⁾

(단위: %, 명, g)

구분	2000	2003	2006	2009
1,000~1,500g 미만	0.4	0.4	0.1	0.3
1,500~2,000g 미만	0.6	0.5	0.8	0.9
2,000~2,500g 미만	2.9	3.3	2.3	2.6
2,500~4,000g 미만	92.2	90.5	91.3	91.7
4,000g 이상	3.9	5.3	5.5	4.5
계(수)	100.0 (1,348)	100.0 (1,106)	100.0 (953)	100.0 (975)
출생시 평균체중(g)	-	3,258	3,253	3,234
F				

주: 1) 저체중은 2,500g 미만, 정상체중은 2,500~4,000g 미만, 과체중은 4,000g 이상;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1>과 동일.

3. 정책동향

저출산시대에 고령 산모의 출산이 증가하고, 인공수정의 증가에 따른 다태아 임신 증가로 산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출생아수의 감소에 따라 태아기부터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져 산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산전관리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산전진찰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37.2%로 WHO 최대권고치인 15.0%보다 2배 이상 높다. 『2008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008년 ‘제왕절개 분만율’은 36.3%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OECD Helath Data 2012를 통해 제왕절개 분만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 35.2%로 보고되어 OECD 평균 26.1에 비하여 높으며,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는 미국(32.9%) 보다 높으며, 가장 낮은 네덜란드(14.8%)에 비해서는 약 2배가 넘는 수치이다(OECD, 2012).

제2절 조사대상 출생아의 분포

모자보건실태 조사대상은 2010년 1월 이후 2012년 조사시점인 2012년 7월까지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월령에 속한 아이가 두 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먼저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산전·산후 관리, 분만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모성과 출생아의 주요 모자보건 실태를 파악하였다.

2010년 1월 이후 출생한 최중아는 전체 953명이다.³⁸⁾ 이 중 2010년 출생아가 43.8%, 2011년 출생아가 38.0%, 2012년 출생아가 18.2%를 차지하였다.

대상아에 대한 거주지역, 출생시 모의 연령, 최중아의 출생순위, 모의 교육수준 분포는 다음과 같다.

38)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이후 통계표는 모두 표본추출가중치(weight)를 적용한 결과이다.

〈표 9-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분포

(단위: %, 명)

구분	출생아의 출생연도			계(수)
	2010	2011	2012	
전체	43.8	38.0	18.2	100.0(953)
지역				
동부	43.4	38.0	18.6	100.0(807)
읍·면부	46.2	37.9	15.9	100.0(145)
모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5.8	37.5	16.7	100.0(24)
고등학교	39.6	44.9	15.5	100.0(323)
대학이상	45.8	34.4	19.8	100.0(607)
출생시 모의 연령				
24세 이하	41.9	41.9	16.3	100.0(43)
25~29세	46.0	37.9	16.2	100.0(272)
30~34세	45.3	37.3	17.4	100.0(437)
35세 이상	38.7	38.2	23.1	100.0(199)
출생아의 출생순위				
첫째아	38.6	41.5	19.9	100.0(523)
둘째아	53.5	33.0	13.5	100.0(318)
셋째아 이상	40.4	36.0	23.7	100.0(114)

자료: 본 조사결과

〈표 9-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남아	여아	전체
0~2개월	8.7	5.8	7.3
3~5개월	11.8	11.5	11.7
6~8개월	7.9	6.0	6.9
9~11개월	11.8	8.8	10.3
12~14개월	7.9	10.5	9.2
15~17개월	8.7	14.1	11.4
18~20개월	9.8	10.7	10.2
21~23개월	8.1	10.5	9.3
24~26개월	13.1	12.0	12.5
27~29개월	12.2	10.3	11.3
계(수)	100.0(482)	100.0(468)	100.0(950)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산전관리 실태

산전관리의 목표는 임신부가 임신기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한 아기를 분만하는데 있다. 임신중에는 해부학적·생리학적 변화가 있으므로 태아와 모체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출산과정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태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산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임신기간 중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관리·치료하는 것은 중요한 산전관리의 목적이다. 다른 의학적인 발전들도 모성사망과 주산기사망의 감소에 큰 역할을 했지만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산전관리가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출산시대에 고령 산모의 출산이 증가하고, 인공수정의 증가에 따른 다태아 임신 증가로 산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출생아수의 감소에 따라 태아기부터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져 산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산전관리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산전진찰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도 확대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자녀를 출산한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중 산전관리를 위하여 보건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경험 유무로 산전수진율을 구하였으며, 전 임신기간 중 총 몇 회의 산전수진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동 기간 중 출생아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먼저 출생한 아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산전수진율의 전국 평균은 소수 무응답자를 제외하면 100.0%로 조사대상 부인의 특성 즉,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인이 임신 중 한번이라도 산전수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관리는 임신 후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임신 후 바로 산전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첫 산전관리시기를 주요 지표

로 평가하고 있다. 2010~2012년 동안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인이 산전 관리를 위해 초진을 받은 평균시기는 임신 후 5.38주였으며, 특히 ‘임신 5~8주’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전체 조사대상의 50.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신 4주 이전’이 44.0%를 차지하여, 전체 부인의 94.5%가 임신 후 8주 이내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초진시기가 이전 조사보다 다소 빨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임신 17주 이후’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전체의 1.8%로 2006년,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산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국가로부터 유입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도 한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특성별로는 도시지역 거주부인의 첫산전관리 시기가 약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유배우부인은 상위 소득군에 비하여 임신 4주 이전에 첫 진찰을 받은 비율이 낮았다.

〈표 9-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단위: %, 명, 주)

구분	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χ^2	평균 초진시기	F(T)
	4주 이전	5~8주	9~12주	13~16주	17주 이후	계(수)			
2006 ¹⁾	44.1	49.8	4.7	0.6	0.7	100.0(952)		5.32	
2009 ²⁾	41.1	52.5	3.3	1.9	1.2	100.0(975)		5.53	
2012 ³⁾	44.0	50.5	3.5	0.2	1.8	100.0(943)		5.38	
지역									
동부	45.2	49.8	2.9	0.3	1.9	100.0(797)	8.1 [#]	5.33	(1.5)
읍·면부	37.7	54.1	6.8	-	1.4	100.0(146)		5.65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35.1	50.6	10.4	1.3	2.6	100.0(77)	32.1 [*]	6.45	3.1 [*]
200~300 미만	49.2	44.8	2.8	0.8	2.4	100.0(250)		5.38	
300~400 미만	44.4	52.9	2.2	-	0.4	100.0(223)		5.18	
400~500 미만	42.2	53.3	4.4	-	-	100.0(135)		5.15	
500 이상	42.1	52.8	2.4	-	2.8	100.0(252)		5.35	
육구소득비									
2 미만	36.0	48.0	12.0	-	4.0	100.0(25)	26.7 ^{**}	7.24	7.6 ^{***}
2~3 미만	41.7	50.4	5.1	0.7	2.2	100.0(276)		5.73	
3~4 미만	47.9	47.3	2.1	-	2.7	100.0(330)		5.39	
4 이상	42.6	54.8	2.6	-	-	100.0(305)		4.8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본 조사결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초진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른 평균 초진시기는 25~29세, 30~34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24세 이하 부인과 35세 이상 부인에서 초진시기가 늦음을 볼 수 있다. 임신부의 연령의 어리거나 고령이 될수록 고위험임신에 속하는데도 이들의 초진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임신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아와 둘째아는 같으나 셋째아의 경우 모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평균 초진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9-9〉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단위: %, 명, 주)

구분	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χ^2	평균 초진시기	F(T)
	4주 0전	5~8주	9~12주	13~16주	17주 0후	계(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3.3	33.3	12.5	-	20.8	100.0(24)	73.5***	8.53	20.0
고등학교	44.5	47.3	4.4	0.3	3.4	100.0(319)		5.72	
대학 이상	44.3	52.7	2.5	0.3	0.2	100.0(600)		5.0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35.7	45.2	11.9	-	7.1	100.0(42)	59.7***	7.36	16.7
25~29세	45.4	51.7	3.0	-	-	100.0(269)		5.01	
30~34세	48.6	48.1	2.5	0.5	0.2	100.0(432)		5.01	
35세 이상	35.4	54.5	4.0	-	6.1	100.0(198)		6.24	
가구소득비									
2 미만	36.0	48.0	12.0	-	4.0	100.0(25)	26.7**	7.24	7.6***
2~3 미만	41.7	50.4	5.1	0.7	2.2	100.0(276)		5.73	
3~4 미만	47.9	47.3	2.1	-	2.7	100.0(330)		5.39	
4 이상	42.6	54.8	2.6	-	-	100.0(305)		4.89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45.8	50.7	2.5	0.2	0.8	100.0(517)	78.9	5.09	36.4
둘째아	46.2	50.3	3.2	0.3	-	100.0(314)		5.09	
셋째아 이상	30.1	49.6	8.8	0.9	10.6	100.0(113)		7.5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임신기간 동안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수진을 받은 평균횟수는 13.39회로 2006년 및 2009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임신기간 중 총 ‘11~15회’ 산전수진을 받은 경우가 54.7%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르면 임신기간 중 7회 이상의 산전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권장횟수보다 높은 평균 산전수진횟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산전관리 수준은 국제적 기준인 산전관리 회수 4회 이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98.7%이 이르는 높은 수준의 산전관리율을 보인다.

〈표 9-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산전수진횟수						χ^2	평균 수진횟수	F(T)
	1~ 5회	6~ 10회	11~ 15회	16~ 20회	21회 이상	계(수)			
2006	1.4	22.8	58.4	14.7	2.7	100.0(948)		13.24	
2009	2.6	22.3	57.0	15.5	2.6	100.0(973)		13.49	
2012	3.2	21.6	54.7	18.4	2.2	100.0(946)		13.39	
지역									
동부	3.3	21.8	54.3	18.4	2.4	100.0(800)	0.9	13.39	(0.0)
읍·면부	2.7	20.5	56.8	18.5	1.4	100.0(146)		13.39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6.5	22.1	49.4	19.5	2.6	100.0(77)	67.1***	12.92	7.9***
200~300 미만	4.4	31.3	55.6	7.5	1.2	100.0(252)		12.31	
300~400 미만	2.2	20.9	49.3	22.2	5.3	100.0(225)		14.10	
400~500 미만	2.9	17.6	50.7	26.5	2.2	100.0(136)		13.78	
500 이상	2.4	13.9	61.9	21.4	0.4	100.0(252)		13.76	
육구소득비									
2 미만	12.0	32.0	32.0	16.0	8.0	100.0(25)	58.6***	12.43	6.1***
2~3 미만	5.4	25.0	55.7	13.2	0.7	100.0(280)		12.65	
3~4 미만	0.9	24.8	52.3	17.5	4.5	100.0(331)		13.57	
4 이상	2.9	13.7	58.0	24.4	1.0	100.0(307)		13.95	

주: 1)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8>과 동일

‘5회 미만’의 산전수진을 받은 경우는 3.2%로 2006년의 1.4%, 2009년의 2.6%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15~24세 부인과 35세 이상 부인,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상인 경우 5회 미만의 산전수진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적인 산전관리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적정 수준의 산전검진을 받지 않은 부인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기간 중 수진횟수를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에 따른 수진횟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높은 가구의 부인일수록 산전수진횟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특성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과 출생순위가 낮은 부인일수록 산전수진 횟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평균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학교 학력 이하의 부인은 평균수진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출생아 순위가 높아질수록 수진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산전수진횟수						χ^2	평균 수진횟수	F(T)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수)			
2006	1.4	22.8	58.4	14.7	2.7	100.0(948)		13.24	
2009	2.6	22.3	57.0	15.5	2.6	100.0(973)		13.49	
2012	3.2	21.6	54.7	18.4	2.2	100.0(946)		13.3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3	47.8	43.5	-	4.3	100.0(23)	16.5*	11.64	2.5 [#]
고등학교	3.1	21.6	55.9	18.4	0.9	100.0(320)		13.36	
대학 이상	3.3	20.6	54.4	18.9	2.8	100.0(603)		13.4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7.0	20.9	41.9	25.6	4.7	100.0(43)	32.2***	13.52	.6
25~29세	1.1	25.0	56.0	17.2	0.7	100.0(268)		13.41	
30~34세	3.7	20.9	58.4	14.3	2.8	100.0(435)		13.22	
35세 이상	4.5	18.2	47.5	27.3	2.5	100.0(198)		13.68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1.9	19.7	54.5	20.2	3.7	100.0(519)	29.9***	13.92	11.3***
둘째아	3.5	22.9	58.7	14.3	0.6	100.0(315)		12.84	
셋째아 이상	8.0	26.8	43.8	20.5	0.9	100.0(112)		12.44	

주: 1)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8>과 동일

제4절 분만 및 출생아 실태

1. 분만장소

200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출생아의 98.2%는 병원(의원, 조산소 포함)에서 태어났고, 자택(집)에서 태어난 경우는 1.3%에 그쳐 안전분만율이 높다. 특히 1998년 이후에는 병원·의원 등 시설분만율이 98.0%를 넘고 있다(통계청, 2009). 본 조사에서 2012년 99.8%에 이르러 안전분만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시설분만 장소로는 병원(78.3%)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11.2%), 의원(9.9%) 순이었으며, 조산소(0.3%)에서 분만한 경우는 드물었다.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39.0%)이후부터 감소추세로 바뀌어 2000년 31.5%, 2003년 22.4%, 2006년 14.2%로 낮아졌다가 2009년에 18.4%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2년 11.2%로 낮아졌다. 병원 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43.1%에서 2006년 51.3%, 2009년 58.2%, 2012년 78.3%로 증가하였다. 의원 분만이 감소하고, 병원에서의 분만이 증가하는 이유는 분만을 하지 않는 의원이 지속적으로 줄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9-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시설분만율 및 분만장소

(단위: %, 명)					
구분	2000 ¹⁾	2003 ²⁾	2006 ³⁾	2009 ⁴⁾	2012 ⁵⁾
비시설분만	0.1	0.7	-	0.1	0.2
시설분만					
종합(전문)병원	31.5	22.4	14.2	18.4	11.2
병원	43.1	48.6	51.3	58.2	78.3
의원	24.6	28.3	34.4	23.1	9.9
조산소	0.3	-	0.1	0.2	0.3
보건소 (보건의원)	0.4	-	-	-	0.1
계(수)	100.0(1,338)	100.0(1,106)	100.0(953)	100.0(975)	100.0(953)

자료: 1)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본 조사결과

부인의 특성별 분만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11.8%)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8.3%)에 비하여 ‘종합병원’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원’에서 분만하는 경우는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19.3%)이 동부지역 거주부인(8.2%)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도시와 농촌 지역별 분포가 다르며 거주지역에 따라 의료기관 유형별로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종합병원’ 분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9-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 분만장소

(단위: %, 명)

구분	시설분만					비시설 분만	계(수)	χ^2
	소계	종합병 원	병원	의원	조산소· 보건의료원			
2006	99.9	14.3	51.3	34.3	-	0.1 ¹⁾	100.0(953)	
2009	99.9	18.4	58.2	23.1	0.2	0.1	100.0(975)	
2012	99.8	11.2	78.3	9.9	0.4	0.2	100.0(953)	
지역								
동부	100.0	11.8	79.7	8.2	0.3	-	100.0(808)	30.3***
읍·면부	98.6	8.3	70.3	19.3	0.7	1.4	100.0(145)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97.4	5.1	83.3	7.7	1.3	2.6	100.0(78)	63.5***
200~300 미만	100.0	6.7	85.7	7.5	-	-	100.0(252)	
300~400 미만	100.0	8.3	79.4	12.3	-	-	100.0(228)	
400~500 미만	100.0	18.5	67.4	13.3	0.7	-	100.0(135)	
500 이상	100.0	16.5	74.1	9.0	0.4	-	100.0(255)	
목구소득비								
2 미만	92.0	-	88.0	4.0	-	8.0	100.0(25)	102.7***
2~3 미만	100.0	7.0	84.5	8.1	0.4	-	100.0(284)	
3~4 미만	100.0	10.5	75.4	13.2	0.9	-	100.0(333)	
4 이상	100.0	16.9	74.6	8.5	-	-	100.0(307)	

주: 1) 조산소와 보건소 포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8>과 동일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종합병원’ 분만이 많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35세 이상 연령층 부인의 경우 종합병원

에서 분만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는데, 이는 고령임신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종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 번째 출생아에서 종합병원 분만이 많았다.

〈표 9-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 분만장소

(단위: %, 명)

구분	시설분만					비시설 분만	계(수)	χ^2
	소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 보건의료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0.0	4.2	75.0	20.8	-	-	100.0(24)	14.6
고등학교	99.4	9.3	81.1	8.7	0.3	0.6	100.0(323)	
대학 이상	100.0	12.5	76.9	10.1	0.5	-	100.0(606)	
출산시 부양형태								
15~24세	95.2	2.4	76.2	16.7	-	4.8	100.0(42)	20.7*
25~29세	100.0	7.4	79.0	12.5	1.1	-	100.0(272)	
30~34세	100.0	9.2	82.8	8.0	-	-	100.0(436)	
35세 이상	100.0	22.6	68.3	8.5	0.5	-	100.0(199)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100.0	12.6	77.2	10.2	-	-	100.0(522)	20.7
둘째아	99.4	9.7	80.2	8.5	0.9	0.6	100.0(318)	
셋째아 이상	100.0	9.6	77.2	12.3	0.9	-	100.0(114)	

주: 1) 조산소와 보건소 포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2. 분만형태

제왕절개시 산모의 감염과 이로 인한 사망, 전산적 기능 저하, 골반 통증, 장폐색, 불임, 태반유착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신생아에게도 신생아호흡 곤란증후군 및 모유수유 지연, 천식, 다음 임신기 태아 기형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최근 제왕절개 분만이 당뇨병이나 이토포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

고 등 제왕절개가 산모와 태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왕절개 분만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제왕절개 수술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병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공개하고 제왕절개 분만율에 대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분만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분만 산모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를 보면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제왕절개 분만율(33.9%)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제왕절개 분만율(36.6%) 보다 약간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제왕절개 분만율은 가구소득에 비례하였다.

〈표 9-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

구분	자연분만	제왕절개	계(수)	(단위: %, 명) χ^2
2006	65.0	35.0	100.0(953)	
2009	63.1	36.9	100.0(975)	
2012	65.7	34.3	100.0(950)	
지역				
동부	66.1	33.9	100.0(805)	0.4
읍·면부	63.4	36.6	100.0(145)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60.8	39.2	100.0(79)	13.0*
200~300 미만	73.4	26.6	100.0(252)	
300~400 미만	67.7	32.3	100.0(226)	
400~500 미만	63.0	37.0	100.0(135)	
500 이상	59.3	40.7	100.0(253)	
육구소득비				
2 미만	80.0	20.0	100.0(25)	14.0**
2~3 미만	73.2	26.8	100.0(284)	
3~4 미만	61.0	39.0	100.0(333)	
4 이상	62.6	37.4	100.0(30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8>과 동일

부인의 특성별 분만형태를 제시한다. 중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의 자연 분만율이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부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서 자연분만율은 25~2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제왕절개율이 증가하여 35세 이상에서는 급증하였다. 최종아의 출생순위별로도 첫째아에서 제왕절개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연령일수록, 아이의 출생순위가 첫 번째인 경우 분만시 위험을 고려하여 제왕절개 분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고령 임신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왕절개 분만의 지속적인 감소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9-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

(단위: %, 명)

구분	자연분만	제왕절개	계(수)	χ^2
2006	65.0	35.0	100.0(953)	
2009	63.1	36.9	100.0(975)	
2012	65.7	34.3	100.0(95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8.3	21.7	100.0(23)	1.9
고등학교	64.4	35.6	100.0(323)	
대학 이상	65.9	34.1	100.0(604)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69.0	31.0	100.0(42)	14.8**
25~29세	72.8	27.2	100.0(272)	
30~34세	65.2	34.8	100.0(437)	
35세 이상	55.8	44.2	100.0(197)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63.8	36.2	100.0(520)	1.8
둘째아	68.2	31.8	100.0(318)	
셋째아 이상	67.3	32.7	100.0(11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8>과 동일

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 분만을 ‘의사가 권유’한 경우는 73.7%, ‘본인이 선택’한 경우는 22.3%, ‘가족이 권유’한 경우는 3.7%로 의사

의 권유에 의한 제왕절개가 많았다. 그러나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는 2009년 75.8%보다 2.1%pt 감소하였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제왕절개를 선택한 비율은 2009년의 20.6%보다 1.7%pt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

(단위: %, 명)

	2000	2003	2006	2009	2012		
					전체	동부	읍·면부
의사의 권유	75.0	77.0	78.6	75.8	73.7	73.3	75.9
본인의사	20.7	20.6	18.4	20.6	22.3	23.1	18.5
가족의 권유	4.1	2.4	3.0	3.3	3.7	3.3	5.6
기타	0.2	-	-	0.3	0.3	0.4	-
계(수)	100.0 (508)	100.0 (431)	100.0 (332)	100.0 (360)	100.0 (327)	100.0 (273)	100.0 (54)

자료: <표 9-12>와 동일

제왕절개 분만의 주요 이유는 ‘아두골반 불균형’ 22.4%으로 가장 많았고, ‘반복 제왕절개나 제왕수술 기왕력 및 자궁근종술’ 때문이 21.5%로 그 다음이었다. 그 외 ‘태아긴박증’ 14.4%, ‘태아 둔위’ 12.3%, ‘양수조기파수’ 9.8%, ‘산모고령출산’ 2.1%로 나타났다.

제왕절개분만 권유자별 권유 이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 ‘아두골반 불균형’이 27.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반복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수술 기왕력’ 때문이 20.3%, ‘태아긴박증’ 18.9%, ‘출산고통 두려움’ 16.2% 등이었다. 따라서 제왕절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상지침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임신부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9-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이유

(단위: %, 명)

구분	제왕절개분만 이유										계(수)	χ ²
	① 아두골반불균형 ② 태아긴박증 ③ 태아둔위 ④ 전치태반 ⑤ 반복제왕절개, 자궁근증, 수술기왕력 ⑥ 조산 ⑦ 고령출산 ⑧ 양수조기파수 ⑨ 출산고통두려움 ⑩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22.4	14.4	12.3	2.1	21.5	1.8	2.1	9.8	3.7	9.8	100.0(326)	
지역												
동부	20.1	16.1	11.7	1.8	22.7	1.8	1.5	11.0	2.9	10.3	100.0(273)	18.4 [*]
읍·면부	34.0	5.7	15.1	3.8	15.1	1.9	5.7	3.8	7.5	7.5	100.0(53)	
연령												
15~24세	7.1	21.4	35.7	-	-	-	-	-	7.1	28.6	100.0(14)	96.2 ^{***}
25~29세	24.3	25.7	18.9	1.4	6.8	2.7	-	5.4	5.4	9.5	100.0(74)	
30~34세	24.3	9.2	7.9	3.3	28.3	1.3	-	17.8	3.3	4.6	100.0(152)	
35세 이상	20.5	13.6	10.2	1.1	25.0	1.1	9.1	1.1	2.3	15.9	100.0(88)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26.6	21.8	12.8	2.1	1.6	2.1	1.1	16.0	5.3	10.6	100.0(188)	160.0 ^{***}
둘째아	19.0	4.0	13.0	1.0	53.0	2.0	2.0	2.0	2.0	2.0	100.0(100)	
셋째아 이상	10.8	2.7	8.1	2.7	37.8	-	10.8	-	-	27.0	100.0(3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9-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제왕절개분만 권유자별 권유 이유

권유 이유	의사	본인	가족	전체
아두골반 불균형	20.3	27.0	25.0	22.3
태아의 건강(태아긴박증)	12.9	18.9	16.7	14.3
위치이상(태아둔위)	13.7	2.7	41.7	12.2
위치이상(전치태반)	2.5	1.4	-	2.1
반복 제왕절개, 자궁근증수술 기왕력	22.8	20.3	-	21.3
조산	2.5	-	-	1.8
고령 출산	2.1	2.7	8.3	2.4
양수조기파수	12.0	4.1	-	9.8
출산고통두려움	-	16.2	-	3.7
기타	11.2	6.8	8.3	10.1
계(수)	100.0(241)	100.0(74)	100.0(12)	100.0(327)
χ ²				73.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에 대한 분만장소별 분만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경우 제왕절개 분만율(44.9%)이 분만율이 높다.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것보다 제왕절개 분만율(32.5%)이 낮았다. 의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제왕절개 분만율이 38.3%로 병원에서의 제왕절개 분만율 32.5%에 비하여 높았다.

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고위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위하여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보다 잘 갖추어진 종합병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병원보다 높은데 대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원의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9-2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분만장소별 분만형태

				(단위: %, 명)
구분	자연분만	제왕절개	계(수)	χ^2
2006	64.9	35.1	100.0(952)	
2009	63.1	36.9	100.0(975)	
2012	65.6	34.4	100.0(951)	
분만장소				
종합병원	55.1	44.9	100.0(107)	11.5*
병원	67.5	32.5	100.0(744)	
의원	61.7	38.3	100.0(94)	
조산소, 보건의료원, 기타	83.3	16.7	100.0(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8>과 동일

3. 출생시 임신 주수 및 조산 여부

출생아의 임신 주수(週數, gestation period)는 출산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 산모의 신체상 질병이나, 그밖에 스트레스, 피로, 영양결핍 등이

원인이 되어 아기를 정상분만하지 못하고 조기에 출산을 하게 된다. 조산아의 경우에는 체중미달, 완전하지 못한 발육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임신주수 37주 미만은 조산, 37주 이상은 정상 분만으로 구분된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출생시 임신 주수는 정상분만인 ‘37주 이상’이 95.2%였고, ‘33~36주 이하’가 4.2%, ‘32주 이하’가 0.6%였다. 따라서 전체 출생아 중 4.8%는 조산아로 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의 성별에 따라 조산아는 남아 5.2%, 여아 4.5%로 나타나 남아의 조산 출생률이 다소 높았다.

조산아 출생은 2006년의 4.8%이었으며, 2009년의 6.7%에서 2012년에는 4.8%로 1.9%p 감소하였다. 평균 임신기간은 2009년과 유사하다. 최근 고령출산과 인공수정에 의한 다태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표 9-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시 임신주수

(단위: %, 명, 주)

구분	32주 이하	33~36주	37주 이상	계(수)	출생시 평균 주수	F
2006	0.8	4.0	95.2	100.0(952)	39.19	
2009	1.4	5.2	93.3	100.0(975)	38.91	
2012	0.6	4.2	95.2	100.0(950)	38.94	
출생아 성						
남아	0.8	4.4	94.8	100.0(481)	38.86	2.9 [#]
여아	0.4	4.1	95.5	100.0(469)	39.0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8>과 동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조산율은 4.8%, 만기출산율은 95.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출생아의 조산 여부를 살펴보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조산율이 다소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 읍·면부지역에서 도시지역보다 결혼이주여성의 급증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2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조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조산	만기출산	계(수)	χ^2	평균 임신주수	F
2006	4.8	95.2	100.0(952)	-	-	-
2009	6.7	93.3	100.0(976)	-	-	-
2012	4.8	95.2	100.0(950)	-	38.94	-
지역						
동부	4.7	95.3	100.0(805)	0.2	38.95	0.8
읍·면부	5.5	94.5	100.0(145)		38.84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3.8	96.2	100.0(78)	6.4	38.63	0.3
200~300 미만	3.2	96.8	100.0(252)		38.93	
300~400 미만	4.0	96.0	100.0(227)		38.91	
400~500 미만	5.2	94.8	100.0(135)		38.91	
500 이상	7.5	92.5	100.0(252)		39.02	
육구소득비						
2 미만	8.0	92.0	100.0(25)	0.5	38.63	3.0*
2~3 미만	3.5	96.5	100.0(283)		38.76	
3~4 미만	4.8	95.2	100.0(333)		38.97	
4 이상	5.9	94.1	100.0(304)		39.0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8>과 동일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은 부인에서 조산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15~24세 연령층과 35세 이상의 고령 출산 부인에서 높았다. 조산율은 농촌지역 여성, 높은 학력의 여성, 고령 출산연령 여성에서 높은 양상을 볼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9-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의 조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조산	만기출산	계(수)	χ^2	평균 임신주수	F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2	95.8	100.0(24)	0.4	38.79	10.3***
고등학교	4.7	95.3	100.0(322)		38.65	
대학 이상	5.0	95.0	100.0(604)		39.10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7.0	93.0	100.0(43)	0.1	38.96	0.1
25~29세	4.0	96.0	100.0(272)		38.91	
30~34세	5.0	95.0	100.0(436)		38.94	
35세 이상	5.1	94.9	100.0(197)		38.97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4.6	95.4	100.0(519)	0.1	39.10	7.7**
둘째아	5.1	94.9	100.0(316)		38.71	
셋째아 이상	4.4	95.6	100.0(113)		38.8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4. 신생아 체중

신생아의 체중은 태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저체중아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이다. 출생시 체중은 태내성장의 지표로서 산모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며, 영아기의 사망위험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체중아의 약 2/3는 조산아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재태기간에 비해 체중이 적은 아이가 포함된다. 저체중 관련 요인으로는 다태임신, 임신중독증, 조산 양막파수, 전치태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임신 중 체중 증가가 적고 임신부의 영양상태가 나쁠수록 출생시 저체중아의 체중이 더욱 낮게 나타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저체중아의 체중이 더욱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기술의 발전, 산전관리의 향상에 힘입어 저체중아 출생률이 낮아졌으나, 최근 다시 저체중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생존율이 높아지고, 30세 이상 고령 출산, 임신 중 흡연, 인공수정으로 인한 태아 출산의 증가에 따라 저체중 조산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 중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도 태아기에 영양 공급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체중아는 전체 영아사망율의 약 2/3를 차지하는 신생아 사망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며, 최근 연구결과는 저체중 출생아는 장애나 순환기 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한영자 외, 2009). 인구동태 통계에서 나타난 전국의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07년 4.7%, 2008년 4.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9).

2012년 조사대상아의 출생시 체중은 출생아의 출생시 체중이 1,000~1,500g 미만의 극저체중아 비율은 0.1%, 1,500~2,000g 미만인 비율은 전체 출생아의 0.2%, 2,000~2,500g 미만의 저체중아 비율은 3.3%로 2,500g 미만의 저체중아는 3.6%에 이르렀다. 출생시 체중이 4,000g 이상인 과체중아 비율은 3.0%였다. 출생시 평균체중은 3.250 kg이었다.

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정상체중아의 비율이 92.2%였다가 2003년에는 약간 감소한 90.5%로 나타났고, 2006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09년 91.7%, 2012년에는 93.5%에 이르고 있다.

2.5kg 미만 저체중아의 경우 2000년에는 약 3.9%였으나 2003년에는 이보다 약간 증가한 4.2%로 나타났고, 2006년 3.2%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 2000년과 유사한 수준인 3.8%, 2012년에는 3.6%로

나타나 저체중아의 증감을 계속 보이고 있다. 조사표본 수의 규모가 작은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

〈표 9-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시 체중¹⁾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남아	여아	전체
1,000~1,500g 미만	0.4	0.4	0.1	0.3	-	0.2	0.1
1,500~2,000g 미만	0.6	0.5	0.8	0.9	0.2	0.2	0.2
2,000~2,500g 미만	2.9	3.3	2.3	2.6	3.5	3.0	3.3
2,500~4,000g 미만	92.2	90.5	91.3	91.7	94.6	92.3	93.5
4,000g 이상	3.9	5.3	5.5	4.5	1.7	4.3	3.0
계(수)	100.0 (1,348)	100.0 (1,106)	100.0 (953)	100.0 (975)	100.0 (480)	100.0 (469)	100.0 (949)
출생시 평균체중(g)	-	3,258	3,253	3,234	3,271	3,228	3,250
F					2.8 [#]		

주: 1) 저체중은 2,500g 미만, 정상체중은 2,500~4,000g 미만, 과체중은 4,000g 이상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12>와 동일

유배우부인 특성별로 출생아 체중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에서 저체중아 비율이 높고, 정상체중아의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출생체중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9-2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 체중¹⁾

(단위: %, 명)

구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계(수)	χ^2
2006	3.2	91.3	5.5	100.0(953)	
2009	3.8	91.7	4.5	100.0(975)	
2012	3.7	93.4	2.9	100.0(950)	
지역					
동부	3.6	93.8	2.6	100.0(804)	2.2
읍·면부	4.1	91.1	4.8	100.0(146)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2.6	93.6	3.8	100.0(78)	7.7
200~300 미만	2.8	94.9	2.4	100.0(253)	
300~400 미만	3.1	92.1	4.8	100.0(227)	
400~500 미만	4.5	94.8	0.7	100.0(134)	
500 이상	4.7	92.5	2.8	100.0(253)	
육구소득비					
2 미만	4.0	92.0	4.0	100.0(25)	10.9
2~3 미만	2.8	95.8	1.4	100.0(283)	
3~4 미만	3.6	91.3	5.1	100.0(332)	
4 이상	4.3	94.1	1.6	100.0(304)	

주: 1) 저체중은 2,500g 미만, 정상체중은 2,500~4,000g 미만, 과체중은 4,000g 이상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8>과 동일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에서 저체중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출생체중에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생시 부인 연령이 증가하면서 저체중아 출산율이 높아 35세 이상 부인에서 저체중아 출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9-2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 체중¹⁾

(단위: %, 명)

구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계(수)	χ^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2	83.3	12.5	100.0(24)	8.1
고등학교	3.4	94.1	2.5	100.0(322)	
대학 이상	3.8	93.4	2.8	100.0(604)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	97.6	2.4	100.0(42)	8.1
25~29세	2.9	96.0	1.1	100.0(272)	
30~34세	3.7	92.4	3.9	100.0(435)	
35세 이상	5.1	91.9	3.1	100.0(197)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3.7	93.3	3.1	100.0(519)	2.4
둘째아	4.4	93.4	2.2	100.0(317)	
셋째아 이상	1.8	94.7	3.5	100.0(113)	

주: 1) 저체중은 2,500g 미만, 정상체중은 2,500~4,000g 미만, 과체중은 4,000g 이상임;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제5절 산후관리 실태

1. 산후관리

산후관리는 임신과 분만시의 육체적·정서적 변화로부터 회복하고 신생아의 수유 및 모성의 역할과 전 가족의 조화를 위하여 산모를 건강한 비임신 상태로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 방법과 체계이다(이태균, 2001). 오늘날 경제수준의 향상, 출산빈도의 감소 등으로 산후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자궁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 하혈과 감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산후관리를 받은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91.7%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89.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산후수진율이 높았다. 또한, 출산시 부인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산후수진율이 낮았다. 출생순위가 셋째아 출산이면서 중졸이하의 저학력 부인에서 산후수진율이 특히 낮았다.

〈표 9-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출산후 산후수진율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계(수)	χ^2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체		
전체	85.0	90.9	91.9	91.9	93.9	89.9	85.0	91.4	100.0(953)	
지역										
동부	85.6	91.7	91.6	92.2	93.4	90.1	88.8	91.7	100.0(808)	0.7
읍·면부	78.4	87.4	93.2	89.9	97.0	88.9	70.8	89.7	100.0(14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9.5	85.4	87.5	81.8	80.0	100.0	50.0	79.2	100.0(24)	7.1*
고등학교	82.3	89.3	90.0	89.6	91.9	87.8	87.5	89.8	100.0(322)	
대학 이상	89.6	93.4	93.5	93.9	95.4	90.2	84.8	92.8	100.0(60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77.0	93.7	87.5	93.1	83.8	100.0	-	86.0	100.0(43)	8.1*
25~29세	86.8	89.8	90.6	92.9	95.8	89.6	87.5	94.5	100.0(272)	
30~34세	85.9	92.1	93.4	91.3	92.5	88.8	78.0	89.5	100.0(437)	
35세 이상	-	88.9	92.2	90.4	100.0	92.5	89.1	93.5	100.0(19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12>와 동일

2.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는 출산후 산욕기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회복과 신생아 간호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핵가족 구조로 변화하면서 출산과 산후관리가 과거 가족의 몫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가정 내에서의 전통적인 산후조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설립된 산후조리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용자도 많아지고 있다.

2005년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교육 등과 같은 법적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산후조리업을 신고업으로 전환하였다.³⁹⁾ 그리고 2009년에는 산후조리원 내에 모유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서영준 외, 2009; 전해영, 2008).⁴⁰⁾

2012년 본 조사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조사대상 부인의 50.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9-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경험율

(단위: %, 명)

구분	(분석대상수)	산후조리원 이용경험율
전체	(950)	50.2
지역		
동부	(805)	51.4
읍·면부	(145)	43.4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78)	24.4
200~300 미만	(253)	55.3
300~400 미만	(227)	47.1
400~500 미만	(136)	53.7
500 이상	(253)	53.8
육구소득비		
2 미만	(25)	40.0
2~3 미만	(283)	40.3
3~4 미만	(332)	51.5
4 이상	(30)	58.6

자료: 본 조사결과

39) 모자보건법 제2조는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위생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15조의4).

40) 서영준 외(2009). 산후조리원의 소비자 가격 실태조사, 연세대학교·보건복지부, 전해영 등 (2008). 산후조리원 운용실태 점검 및 감염, 안전사고 관리기준 제고, 아주대병원·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에서 이용기간이나 이용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분만후 의료기관 입원과 연계된 단기 산후 조리나 다양한 형태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응답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은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에서 다소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경험율이 높았다. 소득별로 200만원 이상 소득군의 산후조리원 이용경험율이 대부분 50%를 웃도는 것에 비하여 200만원 미만 가구소득 부인의 이용경험율은 24.6%로 다른 소득군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부인의 특성별 산후조리원 이용경험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출산 연령이 25~29세, 30~34세에서는 이용율이 높았으나 24세 미만 부인에서 가장 낮았고, 35세 이상 부인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9-29〉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경험율

(단위: %, 명)

구분	(분석대상수)	이용률
전체	(950)	50.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	20.8
고등학교	(323)	37.2
대학 이상	(604)	58.4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42)	28.6
25~29세	(272)	53.7
30~34세	(437)	51.9
35세 이상	(198)	47.0

자료: 본 조사결과

제6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태

선천성대사이상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2,000여종에 이르고 있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발생 확률은 낮지만 검사와 치료의 적기를 놓치면 후유증을 남기고, 수시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평생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생 후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평생 장애가 발생하고 정상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하여 1991년부터 출생아의 장애 예방을 위해서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시작하여, 대상 질환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6종(페닐알라닌혈증(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으로 검사가 확대되어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정부 지원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검사결과 환자로 판명된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의 경우 연계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출생아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은 비율은 2000년 88.8%, 2003년 89.7%, 그리고 2006년 95.8%, 2009년 97.3%, 2012년 97.5%로 지속적으로 수준율이 높아지다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대부분의 출생아들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97.3%로 읍·면부지역의 98.6%로 유사하였다. 부인의 학력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율이 낮았고, 25세 이하의 출산 부인의 자

녀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인 부인에서 검사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16.7%로 나타난다. 신생아기에 검사여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의료가관이나 보건소를 통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어 실제 검사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9-3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률

(단위: %, 명)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검사 받음	검사받지 않음	잘 모름	계(수)	χ^2
전체	88.8	89.7	95.8	97.3	97.5	1.8	0.7	100.0(951)	
지역									
동부	88.4	89.3	96.2	97.4	97.3	2.0	0.7	100.0(806)	1.2
읍·면부	93.0	91.3	93.7	96.4	98.6	0.7	0.7	100.0(14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1.5	79.6	71.4	72.7	83.3	-	16.7	100.0(24)	79.6***
고등학교	86.7	89.5	95.0	95.6	99.4	0.6	-	100.0(322)	
대학 이상	92.5	91.0	97.2	99.3	96.9	2.5	0.7	100.0(606)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83.3	87.4	94.6	88.9	92.9	-	7.1	100.0(42)	26.3***
25~29세	90.9	89.2	93.8	98.9	98.9	0.4	0.7	100.0(271)	
30~34세	87.9	92.6	97.0	97.8	97.3	2.3	0.5	100.0(437)	
35세 이상	-	85.2	97.3	96.3	97.0	2.5	0.5	100.0(20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12>와 동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 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종류를 정부의 지원항목인 6종 검사만을 한 경우는 26.6%였고, 정부지원 6종에 추가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71.9%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일수록, 25~34세 부인, 출생아가 첫째아인 경우에 정부 지원항목 외에 추가로 검사를 한 경우가 많았다.

〈표 9-31〉 15~44세 유배우부인 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 종류

(단위: %, 명)

구분	정부지원 6종 검사만	정부지원 6종+ 추가검사	기타	잘 모름	계(수)	χ^2 (P값)
2006	27.1	62.5	-	10.4	100.0(913)	
2009	35.1	63.3	0.1	1.5	100.0(948)	
2012	26.6	71.9	-	1.5	100.0(918)	
지역						
동부	26.3	72.0	-	1.7	100.0(775)	0.9
읍·면부	28.0	71.3	-	0.7	100.0(14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0	75.0	-	-	100.0(20)	26.3***
고등학교	36.9	61.5	-	1.6	100.0(312)	
대학 이상	21.2	77.3	-	1.5	100.0(586)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30.8	69.2	-	-	100.0(39)	3.4
25~29세	25.2	73.3	-	1.5	100.0(262)	
30~34세	25.3	73.0	-	1.7	100.0(423)	
35세 이상	30.4	67.5	-	2.1	100.0(194)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20.5	77.9	-	1.6	100.0(503)	27.7***
둘째아	30.5	67.9	-	1.6	100.0(308)	
셋째아 이상	43.1	55.0	-	1.8	100.0(109)	

주: 1)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9-8>과 동일

제7절 시사점

산전관리, 산후관리, 분만실태 등 모자보건에 대한 최근의 실태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이후 출생아에 대한 산전관리수진율은 2009년에 이어 2012년에도 100%에 이르렀으며, 임신 8주 이내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94.5%로서 대부분의 임신부가 임신 초기에 산전관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24세 이하 부인이나 교

육수준이 낮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부인,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상인 부인에서 산전관리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산전관리회수는 2009년도와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며 국제적 기준인 산전관리 회수 4회 이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98.7%이 이르는 높은 수준의 산전관리율을 보인다.

시설분만율은 99.8%였으며, 99.4%는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분만율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의원에서의 분만이 감소하고 병원 분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분만을 하지 않는 의원이 지속적으로 줄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왕절개분만율은 34.3%로 2009년의 36.9% 보다 다소 낮아져서 정부의 병원별 제왕절개율 공개 등의 시책이 일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임신과 다태아 임신의 증가로 제왕절개분만율을 감소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후조리원 이용경험은 조사대상 부인의 50.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산후조리원 이용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생시 체중은 출생아의 대표적인 건강지표로서 영아기의 사망위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임신부의 연령, 건강과 영양상태가 반영되는 중요한 모자보건지표이다. 저체중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3.7%로 2009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임신주수 37주 미만의 조산아 출생률은 4.8%로 2009년에 비하여 조산아가 감소하였고, 2006년 수준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임신부가 임신 초기에 산전관리를 시작하고 있으나 24세 이하 부인이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부인,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상인 부인에서 산전관리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산전관리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건강취약 인구집단에 대한 관리가 보다 세심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전분만율은 99.4%로 매우 높으나 의원 분만이 줄고 있어 취약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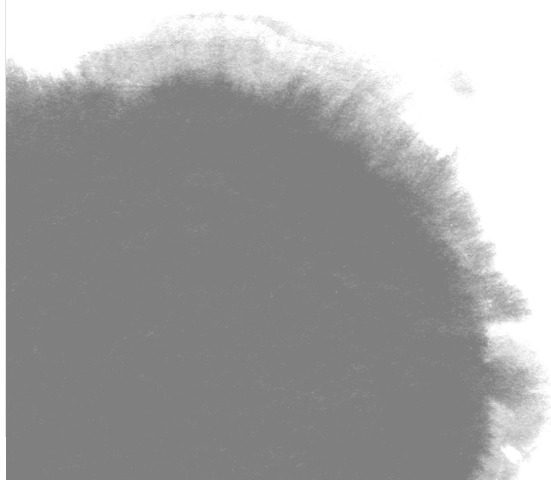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는 분만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 늘고 있음을 볼 때 취약지역 분만의료기관 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모자보건의 취약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분만건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분만의료기관 지원시책이 요구된다.

최근 저체중아와 조산 증가의 주요 요인이 고령출산과 다태아 출산의 증가에 있지만, 임신전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젊은 가임기 여성의 모성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산연령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 가임기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와 교육의 강화 등이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높다.

또한 2012년 출산력조사 결과,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음을 볼 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위생 관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표준적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리와 감독 필요성을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10장

모유수유실태



제10장 모유수유실태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본 장에서는 모유수유율의 출생아 월령별 추이, 모유수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성의 특성별 수유양상의 차이를 생후1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시점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산전관리와 산후관리에서의 모유수유 교육 경험, 모자동실의 이용현황, 모유수유 장애요인 및 모유수유 정책요구 등의 실태, 보충식 도입 실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선행연구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식품으로 영양학적인 물론 면역학적, 감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지닌 수유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모유수유아는 인공수유아에 비하여 호흡기질환, 소화기계 질환, 변비, 알러지의 이환율이 낮으며 성인 후 비만이 낮으며, 성격이 원만하여 안정감을 갖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더불어 모유수유는 수유 여성에게도 이점이 있어 유방암과 난소암, 제2형 당뇨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DC, 2008).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 여부, 모자동실 운영과

모유수유실 확보 등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제도와 환경적 지지,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제왕절개 분만여부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모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혜련, 2011).

‘모유수유’는 ‘모유수유’ 만 경우와 월령 증가에 따라 ‘모유+이유식’을 하는 경우를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 모유수유율을 산출하였다. 국제기준에 따라 영유아의 월령별 모유수유실천율을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매 3년마다 전국규모로 이루어지는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모유수유율은 1970년대 90.0% 정도였으나, 전국표본조사에 의한 모유수유율이 1982년 68.9%, 1985년 59.0%, 1988년 48.1% 1994년 11.4%, 1997년 14.1%, 2000년에는 1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16.5%, 2006년에는 24.2%로 증가하였다(김승권 외, 2006).

3. 정책동향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정책 방향을 WHO 및 여러 국가의 정책을 통해 살펴보면 WHO에서는 모유수유 지지를 위해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기본 지표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6~23개월 영유아를 위한 모유수유와 보충식 가이드라인(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practices, IYCF)를 권장하고 있다. 모유수유 도입 시기, 완전 모유수유율, 모유수유 지속율과 모유수유 기간 등의 지표가 그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모유수유율 감소에 대응하여 WHO와 UNICEF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에서 1980년대부터 모유수유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국가 주도로 모유수유정책과 홍보활동을 전

개하고, 모유수유 보호를 위한 모유대체식품에 대한 판매규제와 광고규제의 입법화를 촉구함. 또한 1989년 의료기관의 모유수유 실행지침인 ‘성공적인 모유먹이기 10단계’의 권장에 이어, 1992년부터 ‘아기에게 친절한 병원’ 만들기(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 지정사업, 모유수유의 보호와 장려 및 지원을 위한 Innocenti Declaration 채택을 각국 정부와 관련단체와 함께 권고하고 있다(김혜련, 2011).

우리나라에서는 모유수유의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법령이나 규정 등 제도적 장치나 직장에서 모유수유 여성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강제적 규정을 없다. 지역사회 보건소의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과 상담 및 교육, 민간단체의 캠페인 등이 전개 되고 있다. UNICEF 한국 대표부에서는 아기에게 친절한 병원 사업(BFHI)을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수유양상

본 조사에서는 2010년 1월 이후부터 2012년 7월까지 출생한 출생아 953명을 대상으로 23개월까지의 수유실태를 파악하였다.

1. 영유아 월령별 모유수유율 추이

모유수유율⁴¹⁾은 2000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2009년에 비하여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영유아의 1~2개월 미만 시점, 3~4개월 미만 시점, 5~6개월 미만 시점, 11~12개월 미만 시점에서도 2009년에 비하여 감소된 양상을 보이는데 2006년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41) 모유수유율은 완전 모유수유를 한 경우만을 말한다.

〈표 10-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월령별 모유수유율 추이

(단위: %)

구분	모유수유율 (A) ¹⁾					모유수유율(B) ¹⁾				
	2000 ¹⁾	2003 ²⁾	2006 ³⁾	2009 ⁴⁾	2012 ⁵⁾	2000 ¹⁾	2003 ²⁾	2006 ³⁾	2009 ⁴⁾	2012 ⁵⁾
1~2개월 미만	35.2	45.6	51.9	65.6	56.7	35.7	45.6	52.0	65.0	56.7
3~4개월 미만	22.1	34.1	43.4	57.0	50.0	26.5	34.1	46.0	57.4	51.6
5~6개월 미만	9.5	29.5	26.8	36.2	32.3	20.7	29.5	42.8	51.0	44.5
11~12개월 미만	1.9	15.5	3.3	1.9	2.0	9.4	15.5	30.9	34.5	33.7

주: 1) 모유수유율(A)은 주로 모유만 먹인 완전 모유수유, (B)은 모유수유와 보충식을 같이 먹인 경우를 합한 모유수유율로 산출함; 2) 2003년에는 모유+보충식에 대한 항목은 조사되지 않고 모유수유에 포함되어 조사됨. 3) 1~2개월에서의 모유수유율(A)과 모유수유율(B)가 같은 것은 1~2개월에서는 보충식을 먹이지 않기 때문임.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4)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5) 본 조사결과

최종아의 월령에 따른 모유수유율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비하여 완전 모유수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출생아의 생후 1주 완전 모유수유율은 26.7%였다가, 생후 2주 완전 모유수유율은 53.0%, 생후 3주 완전 모유수유율은 59.1%로 오히려 생후 1주보다는 생후 2주, 생후 3주 시점에서 모유수유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고, 병원분만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모자동실제를 거의 운영하지 않는 의료환경에 의해서 출생 1~2주 모유수유율이 낮다가 가정에 돌아간 후 모유수유율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다.

생후 1개월~2개월 미만 시점에서는 56.7%로 낮아졌고, 생후 3개월~4개월 미만 시점에서 50.0%, 생후 4개월~5개월 미만 시점에서 40.5%, 생후 5개월~6개월 미만 시점에서 32.3%, 6개월~7개월 미만 시점에서는 11.4%로 모유수유율이 낮아져 영아의 월령 증가와 함께 모유수유율이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표 10-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양상¹⁾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²⁾	인공유	모유+ 보충식	인공유+ 보충식	보충식+ 유아식	계(수)
생후 1주	26.7	66.8	6.6	-	-	-	100.0(951)
생후 2주	53.0	39.7	7.3	-	-	-	100.0(939)
생후 3주	59.1	32.9	8.0	-	-	-	100.0(935)
생후 4주	58.7	31.2	10.1	-	-	-	100.0(932)
1~2월 미만	56.7	29.8	13.2	-	0.3	-	100.0(931)
2~3월 미만	55.0	26.8	17.8	0.1	0.3	-	100.0(910)
3~4월 미만	50.0	25.9	21.7	1.6	0.8	-	100.0(880)
4~5월 미만	40.5	26.1	26.6	3.9	2.8	-	100.0(836)
5~6월 미만	32.3	22.2	22.9	12.2	10.3	0.1	100.0(804)
6~7월 미만	11.4	9.7	10.1	35.7	32.4	0.6	100.0(768)
7~8월 미만	5.2	4.6	6.3	38.0	44.6	1.2	100.0(743)
8~9월 미만	2.8	3.4	5.0	38.4	48.5	1.9	100.0(719)
9~10월 미만	2.7	3.2	3.8	36.9	51.0	2.4	100.0(702)
10~11월 미만	2.7	1.4	2.2	36.1	52.6	5.1	100.0(660)
11~12월 미만	2.0	1.2	1.6	31.7	54.1	9.6	100.0(636)
12~13월 미만	0.6	1.2	1.3	29.5	41.3	26.1	100.0(605)
13~14월 미만	0.4	0.1	1.3	19.3	34.7	44.1	100.0(576)
14~15월 미만	-	0.1	1.4	17.6	30.1	50.7	100.0(542)
15~17월 미만	-	-	0.9	14.4	26.2	58.4	100.0(517)
18~23월 미만	-	-	1.2	9.7	21.6	67.5	100.0(409)

주: 1) 수유상태 무응답자 및 조사당시 출생아 월령이 해당 월령이 미치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출함; 2)

인공유는 조제분유를 칭함

자료: 본 조사결과

2. 생후 1개월시 모유수유율과 관련 요인별 비교

출생후 1개월시의 수유양상은 완전 모유수유율이 56.7%로 2006년과 2009년보다 낮았고, 모유수유와 인공유를 같이 먹이는 혼합영양이 크게 증가한 양상이었다.

출생후 1개월시의 수유양상은 가구소득이 200~300만원미만이거나 300~300만원 미만인 중간 소득 부인에서 모유수유율이 다소 높고 가구소

득이 낮거나 높은 부인에서 모유수유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10-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인공유	인공유	인공유+보충식	계(수)	χ^2
2006 ¹⁾	58.0	16.2	25.8	-	100.0(938)	
2009 ²⁾	65.6	19.0	15.4	-	100.0(964)	
2012 ³⁾	56.7	29.8	13.2	0.3	100.0(931)	
지역						
동부	57.3	29.6	12.8	0.3	100.0(786)	1.3
읍·면부	53.5	31.3	15.3	-	100.0(144)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55.3	34.2	10.5	-	100.0(76)	22.7*
200~300 미만	61.8	21.3	16.1	0.8	100.0(249)	
300~400 미만	61.9	28.9	9.2	-	100.0(218)	
400~500 미만	54.5	32.1	12.7	0.7	100.0(134)	
500 이상	50.2	34.9	14.9	-	100.0(249)	
육구소득비						
2 미만	50.0	33.3	16.7	-	100.0(24)	11.0
2~3 미만	62.1	24.6	13.2	-	100.0(272)	
3~4 미만	57.6	29.7	12.1	0.6	100.0(330)	
4 이상	52.3	33.7	14.0	-	100.0(30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본 조사결과

부인특성별로는 출산연령이 높은 부인, 제왕절개 분만을 한 부인에서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출산후 취업상태와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출산후 비취업부인의 모유수유율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취업부인의 모유수유율은 낮았다. 첫째아인 경우 모유수유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표 10-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인공유	인공유	인공유+보충식	계(수)	χ^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5	34.8	8.7	-	100.0(23)	12.5*
고등학교	52.6	28.5	18.3	0.6	100.0(312)	
대학 이상	58.7	30.4	10.7	0.2	100.0(596)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61.9	23.8	14.3	-	100.0(42)	5.5
25~29세	58.2	28.4	13.4	-	100.0(268)	
30~34세	57.4	28.9	13.2	0.5	100.0(432)	
35세 이상	52.2	34.4	13.4	-	100.0(186)	
분만형태						
자연분만	58.4	27.4	13.9	0.3	100.0(610)	4.9
제왕절개	53.6	34.3	11.8	0.3	100.0(321)	
출산후 취업여부						
취업	39.1	41.4	19.5	-	100.0(133)	26.8***
육아휴직	51.3	35.5	13.2	-	100.0(152)	
비취업	61.6	26.2	11.9	0.3	100.0(645)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55.6	32.7	11.3	0.4	100.0(513)	19.6**
둘째아	58.1	23.0	18.5	0.3	100.0(313)	
셋째아 이상	58.1	35.2	6.7	-	100.0(10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3. 생후 3개월시 모유수유율과 관련 요인별 비교

출생아의 출생직후 3개월시의 수유양상을 살펴보면 완전 모유수유율은 50.0%로 2009년보다 7.0%p^{pt} 낮아졌으며, 모유와 조제분유를 같이 먹이는 혼합영양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수유양상의 차이는 미미하였으나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소득군에서 완전 모유수유율이 다른 소득군에 비하여 낮았으며,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군에서 현저히 낮았다. 상대적으로 모유+인공유 혼합수유와 인공유 수유 비율은 고소득군에서 높았다.

〈표 10-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3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인공유	모유+ 보충식	인공유+ 보충식	계(수)	χ^2
2009 ¹⁾	57.0	14.7	27.7	0.4	0.2	100.0(917)	
2012 ²⁾	50.0	25.9	21.7	1.6	0.8	100.0(880)	
지역							
동부	49.9	26.4	21.2	1.9	0.7	100.0(742)	4.6
읍·면부	50.7	23.2	24.6	-	1.4	100.0(138)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49.3	32.4	18.3	-	-	100.0(71)	67.1***
200~300 미만	51.3	19.5	21.6	5.9	1.7	100.0(236)	
300~400 미만	59.2	24.3	16.0	-	0.5	100.0(206)	
400~500 미만	54.0	23.8	22.2	-	-	100.0(126)	
500 이상	39.7	31.6	27.8	-	0.8	100.0(237)	
육구소득비							
2 미만	40.9	31.8	27.3	-	-	100.0(22)	53.0***
2~3 미만	52.9	21.6	20.1	5.4	-	100.0(259)	
3~4 미만	56.1	23.5	19.0	-	1.3	100.0(310)	
4 이상	42.1	30.9	26.0	-	1.1	100.0(28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1)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 본 조사결과

부인의 특성별로는 출생아의 생후 3개월 시점에서 24세 이하 부인, 취업부인, 첫째아 출생 부인에서 3개월 시점의 모유수유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분만형태별로는 완전 모유수유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3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인공유	모유+ 보충식	인공유+ 보충식	계(수)	χ^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0.0	25.0	25.0	-	-	100.0(20)	36.3***
고등학교	45.3	22.8	26.2	4.7	1.0	100.0(298)	
대학 이상	52.6	27.6	19.3	-	0.5	100.0(561)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39.5	28.9	28.9	2.6	-	100.0(38)	36.6***
25~29세	49.8	24.1	20.3	5.0	0.8	100.0(261)	
30~34세	51.0	24.5	23.3	-	1.2	100.0(404)	
35세 이상	50.6	30.7	18.8	-	-	100.0(176)	
분만형태							
자연분만	49.8	25.1	21.8	2.5	0.9	100.0(570)	8.2 [#]
제왕절개	50.3	27.4	21.6	-	0.6	100.0(310)	
출산후 취업여부							
취업	24.0	40.3	34.1	-	1.6	100.0(129)	53.1***
육아휴직	51.7	25.9	22.4	-	-	100.0(143)	
비취업	55.2	22.9	18.9	2.3	0.7	100.0(607)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47.1	29.7	19.1	2.9	1.2	100.0(488)	29.9***
둘째아	52.7	19.6	27.4	-	0.3	100.0(296)	
셋째아 이상	56.3	26.0	17.7	-	-	100.0(9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4. 생후 5개월시 모유수유율과 관련 요인별 비교

출생아의 출생후 5개월시의 수유양상을 살펴보면 완전 모유수유율은 크게 낮아져서 32.3%이며, 모유와 조제분야를 같이 먹이는 혼합영양이나 또는 조제분유를 먹이는 인공영양이 증가하였다.

출생아의 생후 5개월 시점의 모유수유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 가구소득이 높은 부인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10-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5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인공유	모유+ 보충식	인공유+ 보충식	보충식	계(수)	χ^2
전체	32.3	22.3	22.9	12.1	10.3	0.1	100.0(803)	
지역								
동부	31.1	24.2	21.9	12.5	10.3	-	100.0(681)	17.6*
읍·면부	38.5	11.5	28.7	9.8	10.7	0.8	100.0(122)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15.0	15.0	6.7	26.7	35.0	1.7	100.0(60)	72.4***
200~300 미만	16.8	11.2	10.7	35.5	25.9	-	100.0(197)	
300~400 미만	13.4	8.1	7.0	47.3	24.2	-	100.0(186)	
400~500 미만	9.0	6.0	17.0	42.0	25.0	1.0	100.0(100)	
500 이상	5.0	10.0	10.5	25.1	48.4	0.9	100.0(219)	
육구소득비								
2 미만	11.1	11.1	5.6	38.9	27.8	5.6	100.0(18)	93.8***
2~3 미만	18.5	12.9	6.5	33.2	28.4	0.4	100.0(232)	
3~4 미만	11.5	7.1	13.0	47.6	20.8	-	100.0(269)	
4 이상	4.9	9.7	11.3	23.9	49.0	1.2	100.0(24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부인의 특성별로는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부인에서 완전 모유수유율이 높았으며, 고학력 부인일수록 혼합수유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부인의 모유수유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 이 외에도 분만형태별로는 제왕절개 출산부인이, 출생순위로는 첫째아 출생 부인에서 5개월 시점의 모유수유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부인의 취업상태일 경우 모유수유율이 육아휴직 및 비취업상태의 부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다.

〈표 10-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5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인공유	모유+ 보충식	인공유+ 보충식	보충식	계(수)	χ^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1	19.0	33.3	4.8	4.8	-	100.0(21)	26.3**
고등학교	32.2	15.6	21.7	14.5	15.6	0.4	100.0(276)	
대학 이상	32.1	26.0	23.1	11.0	7.7	-	100.0(50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23.5	17.6	41.2	2.9	14.7	-	100.0(34)	36.9***
25~29세	37.1	16.7	15.1	17.6	13.5	-	100.0(245)	
30~34세	30.1	25.5	25.2	10.3	8.7	0.3	100.0(369)	
35세 이상	32.3	23.2	25.8	10.3	8.4	-	100.0(155)	
분만형태								
자연분만	34.2	17.2	22.6	14.1	11.8	-	100.0(517)	27.4***
제왕절개	28.9	31.0	23.7	8.7	7.3	0.3	100.0(287)	
취업여부								
취업	9.8	28.7	40.2	4.9	16.4	-	100.0(122)	89.6
육아휴직	24.1	35.3	29.3	5.2	6.0	-	100.0(116)	
비취업	38.8	18.2	17.9	15.2	9.7	0.2	100.0(565)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27.1	26.4	20.0	14.8	11.6	-	100.0(439)	43.5***
둘째아	39.5	14.1	30.1	9.1	6.9	0.4	100.0(276)	
셋째아 이상	36.0	27.0	14.6	9.0	13.5	-	100.0(8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5. 생후 6개월시 모유수유율과 관련 요인별 비교

출생후 6개월 시점의 수유양상을 살펴보면 완전 모유수유율은 11.4%로 2006년 및 2009년 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생후 6개월 시점에서는 보충식 도입으로 모유와 보충식을 먹인 경우는 35.7%에 이르면서 모유수유만 하는 경우는 급속하게 줄었다. 따라서 완전 모유수유와 ‘모유+보충식(이유식)’의 경우를 합하면 47.1%가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의 48.3%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6개월 시점에서의 모유수유율은 고소득군과 욕구소득비가 높은 계층에서 완전모유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10-9〉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인공유	모유+ 보충식	인공유+ 보충식	보충식	계(수)	χ^2
2006	14.1	5.5	11.8	25.2	33.3	-	100.0(746)	
2009	13.6	5.5	16.0	34.7	29.8	0.4	100.0(799)	
2012	11.4	9.7	10.1	35.7	32.4	0.6	100.0(768)	
지역								
동부	11.2	10.0	9.6	36.2	32.5	0.5	100.0(649)	2.9
읍·면부	12.7	7.6	13.6	33.1	32.2	0.8	100.0(118)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15.0	15.0	6.7	26.7	35.0	1.7	100.0(60)	72.4***
200~300 미만	16.8	11.2	10.7	35.5	25.9	-	100.0(197)	
300~400 미만	13.4	8.1	7.0	47.3	24.2	-	100.0(186)	
400~500 미만	9.0	6.0	17.0	42.0	25.0	1.0	100.0(100)	
500 이상	5.0	10.0	10.5	25.1	48.4	0.9	100.0(219)	
욕구소득비								
2 미만	11.1	11.1	5.6	38.9	27.8	5.6	100.0(18)	93.8***
2~3 미만	18.5	12.9	6.5	33.2	28.4	0.4	100.0(232)	
3~4 미만	11.5	7.1	13.0	47.6	20.8	-	100.0(269)	
4 이상	4.9	9.7	11.3	23.9	49.0	1.2	100.0(24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0-3>과 동일

한편 개인특성별로는 출산 연령이 24세 미만인 부인, 출산 후 취업활동을 한 부인, 조사대상아의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경우 모유수유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0-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인공유	모유+ 보충식	인공유+ 보충식	보충식 + 유아식	계(수)	χ^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0	20.0	20.0	20.0	15.0	-	100.0(20)	13.3
고등학교	12.0	7.9	9.0	36.0	34.8	0.4	100.0(267)	
대학 이상	10.6	10.2	10.2	36.5	31.9	0.6	100.0(480)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6.1	6.1	21.2	18.2	48.5	-	100.0(33)	32.6**
25~29세	13.3	6.6	6.6	44.7	28.8	-	100.0(226)	
30~34세	10.7	12.1	11.8	30.9	34.0	0.6	100.0(356)	
35세 이상	12.6	8.6	8.6	38.4	30.5	1.3	100.0(151)	
분만형태								
자연분만	13.2	10.0	8.4	35.6	32.2	0.6	100.0(500)	8.3
제왕절개	8.2	9.3	13.4	36.1	32.3	0.7	100.0(269)	
출산후 취업여부								
취업	1.7	14.9	24.0	16.5	41.3	1.7	100.0(121)	98.0***
육아휴직	5.5	3.6	10.0	29.1	51.8	-	100.0(110)	
비취업	14.8	9.7	7.1	41.7	26.2	0.6	100.0(535)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9.0	10.9	8.5	35.4	35.2	1.0	100.0(412)	20.9*
둘째아	13.3	6.7	14.1	36.3	29.3	0.4	100.0(270)	
셋째아 이상	17.2	13.8	5.7	34.5	28.7	-	100.0(8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모유수유에 대한 산전·산후 교육 실태

1. 산전 모유수유 교육

조사대상 유배우부인 중 50.1%의 부인이 임신중 모유수유 교육을 경험하였다. 동부지역 거주부인,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 가구소득이 높은 부인, 출산 연령이 높은 부인들이 산전 모유수유 교육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임신중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곳은 병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보건소, 분유회사, 문화센터, 민간단체 등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부인의 교육경험율이 읍·면부지역 부인의 경험율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200~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부인의 교육경험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을 받은 기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성에 관계없이 병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0-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임신중 모유수유 교육경험율 및 교육받은 기관

(단위: %, 명)

구분	(분석대상수)	교육경험율	산전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받은 기관 ¹⁾						
			병의원	보건소	직장	분유회사	민간단체	문화센터	기타
전체	(951)	50.1	35.2	4.6	0.1	2.1	1.8	3.4	2.1
지역									
동부	(805)	52.4	37.4	4.7	0.1	2.0	1.9	3.0	2.5
읍·면부	(146)	37.0	23.3	4.1	-	2.7	1.4	5.5	-
가구소득(만원)									
200미만	(77)	31.2	23.4	2.6	-	1.3	-	2.6	1.3
200~300 미만	(251)	57.0	33.5	5.2	-	3.2	1.2	6.0	5.2
300~400 미만	(226)	50.9	37.6	6.2	-	0.9	2.2	3.5	0.4
400~500 미만	(135)	38.5	23.0	5.2	-	3.0	3.0	3.7	0.7
500 이상	(255)	54.1	45.9	3.1	0.4	1.6	2.0	0.8	0.4
육구소득비									
2 미만	(24)	29.2	20.8	-	-	4.2	-	4.2	-
2~3 미만	(282)	50.0	31.2	5.0	-	1.1	1.1	3.9	5.3
3~4 미만	(332)	52.6	36.6	4.8	-	3.3	3.0	4.5	0.3
4 이상	(306)	49.7	39.2	4.6	0.3	1.3	1.3	1.3	0.7

주: 1) 모유수유 교육경험이 있으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무응답한 경우는 제시하지 않음;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 부인의 교육경험율이 고등학교 이상의 부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출산시 연령별 교육경험율은 부인의 연령과 비례하여 상승하다가 35세 이상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표 10-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임신중 모유수유 교육경험률 및 교육받은 기관

(단위: %, 명)

구분	(분석대상수)	교육경험률	산전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받은 기관 ¹⁾						
			병의원	보건소	직장	분류회사	민간단체	문화센터	기타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	21.7	17.4	-	-	-	-	-	4.3
고등학교	(321)	52.0	35.5	2.5	-	1.6	1.6	4.4	4.4
대학 이상	(606)	50.0	35.8	5.9	0.2	2.5	2.0	2.8	0.8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43)	27.9	25.6	-	-	-	-	2.3	-
25~29세	(271)	52.0	30.6	4.4	-	1.8	3.0	3.7	5.9
30~34세	(436)	52.3	38.8	4.8	0.2	3.2	0.9	3.7	0.7
35세 이상	(199)	47.7	36.2	5.0	-	1.0	2.5	2.5	0.5

주: 1) 모유수유 교육경험이 있으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무응답한 경우는 제시하지 않음;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임신중 모유수유 교육이 모유수유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를 보면, 대부분 도움이 되거나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 25~29세 출산부인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다.

〈표 10-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중 모유수유 교육의 도움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χ^2
전체	0.4	9.4	17.1	54.5	18.6	100.0(468)	
지역							
동부	0.2	9.7	16.4	54.1	19.6	100.0(414)	6.0
읍·면부	1.9	7.4	22.2	57.4	11.1	100.0(5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16.7	33.3	50.0	-	100.0(6)	13.6 [#]
고등학교	0.6	11.9	18.2	44.7	24.5	100.0(159)	
대학 이상	0.3	7.9	16.5	59.7	15.5	100.0(303)	
출산시부인연령							
15~24세	-	8.3	33.3	50.0	8.3	100.0(12)	31.7 ^{**}
25~29세	0.7	6.7	11.9	55.6	25.2	100.0(135)	
30~34세	0.4	10.1	18.0	61.0	10.5	100.0(228)	
35세 이상	-	11.7	20.2	38.3	29.8	100.0(9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2. 모자동실(rooming-in) 이용 현황

출산후 산모가 신생아와 같이 지내는 모자동실(rooming-in)의 이용은 모자의 정서적 유대를 돕고, 모유수유를 실천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니세프(UNICEF)에서는 모자동실체를 운영하도록 아기에겐 친근한 병원만들기 캠페인(BFHI: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을 통해 모자동실을 장려하고, 산모가 모유수유를 시작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를 실행하도록 권장하여 모유수유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모자동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은 32.0%였다. 모자동실을 거의 하루종일 이용 경험 부인은 10.6%, 1일 8~12시간 이용 경험 부인은 5.5%, 1일 8시간 미만 이용 경험 부인은 15.9%였다.

〈표 10-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산 후 모자동실 이용 수준

(단위: %, 명)

구분	거의 하루종일	8~12시간	8시간미만	이용하지 않음	계(수)	χ^2
전체	10.6	5.5	15.9	68.0	100.0(944)	
지역						
동부	9.9	5.4	16.0	68.7	100.0(798)	2.9
읍·면부	14.4	6.2	15.1	64.4	100.0(146)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7.7	5.1	6.4	80.8	100.0(78)	20.1 [#]
200~300 미만	12.0	3.2	16.8	68.0	100.0(250)	
300~400 미만	12.0	4.9	15.1	68.0	100.0(225)	
400~500 미만	9.6	11.1	16.3	63.0	100.0(135)	
500 이상	9.6	5.2	18.0	67.2	100.0(250)	
육구소득비						
2 미만	4.0	-	12.0	84.0	100.0(25)	13.6
2~3 미만	12.1	3.9	13.2	70.7	100.0(280)	
3~4 미만	12.0	5.1	15.7	67.2	100.0(332)	
4 이상	8.3	7.6	18.6	65.4	100.0(30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특성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의 중간 소득군의 부인이 상대적으로 이용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인의 개인특성별 모자동실 이용수준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시 연령 25~29세인 부인군을 제외하면 출산시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경험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0-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산 후 모자동실 이용 수준

						(단위: %, 명)
구분	거의 하루종일	8~12시간	8시간미만	이용하지 않음	계(수)	χ^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2	-	8.3	87.5	100.0(24)	18.8**
고등학교	8.4	4.0	12.1	75.4	100.0(321)	
대학 이상	12.0	6.5	18.2	63.3	100.0(599)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1.9	2.4	2.4	83.3	100.0(42)	18.9*
25~29세	9.3	4.9	18.7	67.2	100.0(268)	
30~34세	10.6	4.1	17.1	68.2	100.0(434)	
35세 이상	11.8	9.7	12.8	65.6	100.0(19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3. 출산후 모유수유 교육

조사대상부인의 78.8%가 산후에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후 모유수유 교육 경험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 거주부인보다 높았다. 소득별로는 가구소득과 육구소득비가 높을수록 출산후 모유수유 교육율이 높았으며, 2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군의 교육경험율이 다른 소득군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10-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산후 보건의료인에 의한 모유수유 교육경험율

(단위: %, 명)

구분	(분석대상수)	출산후 모유수유 교육경험율
전체	(950)	78.8
지역		
동부	(804)	80.1
읍·면부	(146)	71.9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78)	70.5
200~300 미만	(251)	78.5
300~400 미만	(227)	76.2
400~500 미만	(135)	83.7
500 이상	(253)	81.4
육구소득비		
2 미만	(25)	76.0
2~3 미만	(283)	74.2
3~4 미만	(333)	79.3
4 이상	(304)	82.9

자료: 본 조사결과

부인의 특성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의 출산후 모유수유 교육 경험율이 고등학교 이상 학력 부인보다 낮았고, 출산시 연령 15~24세의 부인의 교육경험율이 25세 이상의 출산연령 부인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10-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산후 보건의료인에 의한 모유수유 교육경험율

(단위: %, 명)

구분	(분석대상수)	출산후 모유수유 교육경험율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	70.8
고등학교	(322)	77.3
대학 이상	(604)	80.0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43)	69.8
25~29세	(272)	82.4
30~34세	(436)	79.4
35세 이상	(197)	75.1

자료: 본 조사결과

제4절 모유수유 장애요인 및 모유수유 정책욕구

1. 모유를 먹이지 않은 이유

15~44세 유배우부인이 2010년 1월 이후 조사 시점까지의 출생아에 대하여 모유를 전혀 먹이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51.0%가 ‘모유량 부족’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엄마의 취업’ 16.3%, ‘유두 및 유방통증’이 10.2%,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8.2% 등으로 나타났다. 모유량 부족과 엄마의 취업으로 인하여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원인임을 볼 수 있다.

〈표 10-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전혀 모유를 먹이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2006	2009	2012		
			동부	읍·면부	전체
모유량 부족	50.8	53.0	51.3	50.0	51.0
유두 및 유방통증	-	8.4	10.3	10.0	10.2
엄마의 질병	24.6	4.8	2.6	20.0	6.1
엄마의 취업	-	16.9	20.5	-	16.3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15.4	10.8	5.1	20.0	8.2
아기의 건강	4.6	4.8	-	-	-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1.5	-	2.6	-	2.0
기타	3.1	1.2	7.7	-	6.1
계(수)	100.0 (65)	100.0 (83)	100.0 (39)	100.0 (10)	100.0 (49)

자료: <표 10-3>과 동일

2. 모유수유를 중단한 이유

모유를 수유하다가 중단한 이유로는 ‘모유량 부족’이 40.2%로 여전히 가장 높았으나, 2003년과 2009년의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다음으로는

‘젖을 뗄 시기가 되어서’ 26.0%, ‘엄마의 취업’ 11.8%, ‘엄마의 질병’ 6.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엄마의 취업’ 때문에의 비율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높아 취업부인의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10-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중단이유

(단위: %, 명)

구분	2003 ¹⁾	2006 ²⁾	2009 ³⁾	2012 ⁴⁾		
				동부	읍·면부	전국
모유량 부족	40.4	49.4	37.6	40.0	41.0	40.2
유두 및 유방통증 ²⁾	-	-	3.5	1.8	5.0	2.3
엄마의 질병	8.1	9.7	3.8	5.8	7.0	6.0
엄마의 취업	7.8	12.0	12.2	12.4	9.0	11.8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7.3	6.6	7.1	6.2	4.0	5.8
아기의 건강	5.6	3.9	6.9	4.7	2.0	4.3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1.9	0.7	0.5	1.3	1.0	1.2
젖을 뗄 시기가 되어서	7.7	17.0	27.6	25.5	29.0	26.0
기타	3.3	0.6	1.4	2.4	2.0	2.3
계(수)	82.1	100.0 (539)	106.1 (637)	100.0 (550)	100.0 (100)	100.0 (650)

주: 1) 2003년도 결과는 중복응답 결과임; 2) 2003년과 2006년 조사에서는 문항에서 제외되어 있음.

자료: 1)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본 조사결과

3. 조제분유에 대한 정보원

모유 대체식품인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나 판촉 활동은 모유수유 실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본 조사에서 모유 대체로 먹이는 조제분유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곳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을 보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가 39.4%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이 20.5%, 가족, 친지, 친구가 18.8%였다. 분유회사 광고는 13.6%, 주로 분유회사

주최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임신교실, 태교음악회, 육아출산박람회가 4.1%로 분유회사의 관측활동은 이들을 합하면 17.7%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분유회사의 지원활동은 육아정보 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모유수유 실천을 저지하고 분유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모유수유의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20〉 조제분유(모유 대체 아기분유)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

(단위: %, 명)

구분	정보 수집 경로									계(수)	χ^2
	① 보건소, 의료기관 ② 인터넷,블로거 ③ 분유회사광고										
	④ 분유회사 주최임산부교실 ⑤ 태교음악회										
	⑥ 육아출산박람회 ⑦ 가족, 친지, 친구 ⑧ 기타,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20.5	39.4	13.6	3.4	0.1	0.6	18.8	3.7	100.0(952)		
지역											
동부	20.7	40.0	13.8	2.7	-	0.7	17.7	4.3	100.0(807)	24.4*	
읍·면부	19.3	35.9	12.4	6.9	0.7	-	24.8	-	100.0(14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2	16.7	25.0	4.2	-	-	20.8	4.2	100.0(24)	26.5*	
고등학교	16.5	37.9	17.4	2.2	-	1.2	22.4	2.5	100.0(322)		
대학 이상	22.2	41.0	11.0	3.8	0.2	0.5	16.8	4.4	100.0(607)		
출산시 부연령											
15~24세	14.0	34.9	11.6	-	-	-	34.9	4.7	100.0(43)	43.5**	
25~29세	20.1	44.7	13.9	1.5	-	1.8	15.8	2.2	100.0(273)		
30~34세	21.4	38.5	13.0	5.5	0.2	-	16.4	5.0	100.0(439)		
35세 이상	20.1	34.7	14.6	2.0	-	0.5	25.1	3.0	100.0(19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4. 모유수유 지원 정책 욕구

모유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가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16.1%,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13.3%,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 시간 제공’ 11.4%, ‘분만 병의원에서의 모자동실 운영’ 5.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은 비율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에 비하여 높았다. 한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에 대해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0-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모유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단위: %, 명)

구분	①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② 상업지역에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③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④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⑤ 분만병의원에 모자동실 운영 ⑥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 ⑦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⑧ 기타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006	43.7	6.4	12.0	12.1	4.3	-	21.1	0.4	100.0(953)	
2009	41.6	6.4	11.9	13.2	7.8	1.1	17.5	0.4	100.0(969)	
2012	41.5	9.6	13.3	11.4	5.9	1.0	16.1	1.2	100.0(953)	
지역										
동부	42.1	9.4	13.5	11.8	6.1	0.7	15.3	1.1	100.0(806)	8.6
읍·면부	38.6	10.3	11.7	9.7	4.8	2.8	20.7	1.4	100.0(145)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55.7	3.8	11.4	7.6	7.6	-	13.9	-	100.0(79)	68.9***
200-300 미만	45.1	13.4	5.5	8.3	5.9	0.4	20.9	0.4	100.0(253)	
300-400 미만	44.1	9.2	12.7	10.0	5.7	1.3	14.8	2.2	100.0(229)	
400-500 미만	32.4	8.8	16.2	12.5	6.6	1.5	20.6	1.5	100.0(136)	
500 이상	36.2	8.3	20.9	16.5	4.3	1.6	10.6	1.6	100.0(254)	
육구소득비										
2 미만	60.9	-	8.7	8.7	4.3	-	17.4	-	100.0(23)	60.3***
2~3 미만	47.5	11.3	9.2	7.8	6.0	0.4	17.0	0.7	100.0(282)	
3~4 미만	44.6	11.1	8.7	10.5	5.7	1.2	17.2	0.9	100.0(332)	
4 이상	32.0	7.2	22.5	15.7	4.9	1.6	14.4	1.6	100.0(306)	

주: *** p<0.001, ** p<0.01, * p<0.05

자료: <표 10-3>과 동일

부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 의견은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에 대해서이다. 대학 이상의 학력인 부인과 취업부인의 경우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취업부인의 경우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비취업부인은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의 필요성을 높이 지적하였다.

〈표 10-22〉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모유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단위: %, 명)

구분	①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② 상업지역에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③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④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⑤ 분만병의원에 모자동실 운영 ⑥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 ⑦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⑧ 기타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8.3	-	8.3	4.2	12.5	-	16.7	-	100.0(24)	35.8**
고등학교	44.3	13.6	7.4	8.4	6.5	0.9	17.6	1.2	100.0(323)	
대학 이상	39.1	7.9	16.4	13.5	5.3	1.2	15.3	1.3	100.0(608)	
부인연령										
15~24세	57.1	-	7.1	4.8	16.7	-	14.3	-	100.0(42)	38.9*
25~29세	46.0	8.5	10.3	9.9	5.1	1.5	18.4	0.4	100.0(272)	
30~34세	38.6	11.4	13.9	13.7	5.7	0.5	14.8	1.4	100.0(438)	
35세 이상	37.5	9.5	17.5	10.0	5.5	2.0	16.0	2.0	100.0(200)	
취업여부										
취업	25.9	9.6	23.7	23.7	3.7	1.5	10.4	1.4	100.0(135)	90.6***
육아휴직	34.8	5.2	22.6	15.5	1.9	1.3	16.8	1.9	100.0(155)	
비취업	46.4	10.8	9.1	8.0	7.3	0.9	17.1	0.5	100.0(660)	

주: *** p<0.001, ** p<0.01, * p<0.05

자료: 본 조사결과

제5절 영유아 보충식 도입시기

아직 보충식을 시작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식 시작시기를 파악한 결과, 평균 보충식 시작시기는 생후 6.31개월로 2009년의 6.46개월보다 미미하나마 빨랐다. 200~4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군의 부인의 보충식 시작시기가 6.19개월로 가장 빨랐고, 육구소득비 2 미만의 경우가 6.52개월로 보충식 도입시기가 늦은 양상을 보였다.

〈표 10-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의 보충식 시작 시기

(단위: %, 명, 개월)

구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15개월 미만	계(수)	평균 보충식 시작시기	χ^2	F
2009	28.8	67.8	3.3	100.0(805)	6.46	-	-
2012	24.4	72.9	2.7	100.0(754)	6.31		
지역							
동부	24.8	72.7	2.5	100.0(638)	6.29	0.6	0.4
읍·면부	22.4	74.1	3.4	100.0(116)	6.40		
가구소득(만원)							
200 미만	18.6	81.4	-	100.0(59)	6.44	22.8**	0.8
200~300 미만	33.3	63.0	3.6	100.0(192)	6.19		
300~400 미만	27.3	69.4	3.3	100.0(183)	6.23		
400~500 미만	18.8	77.2	4.0	100.0(101)	6.51		
500 이상	17.2	80.9	1.9	100.0(215)	6.37		
육구소득비							
2 미만	23.5	76.5	-	100.0(17)	6.52	13.9*	0.2
2~3 미만	28.0	69.8	2.2	100.0(225)	6.26		
3~4 미만	26.7	68.8	4.5	100.0(266)	6.30		
4 이상	17.7	80.7	1.6	100.0(243)	6.3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0-5>와 동일

부인의 개인특성별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일 경우, 부인 출산연령이 낮은 경우, 출생순위 첫째아인 경우 보충식의 시작시기가 유의하게 빠른 경향을 보였다.

〈표 10-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의 보충식 시작 시기

(단위: %, 명, 개월)

구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15개월 미만	계(수)	평균 보충식 시작시기	χ^2	F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1	88.9	-	100.0(18)	7.17	16.7**	7.1**
고등학교	32.6	65.5	1.9	100.0(264)	6.02		
대학 이상	20.3	76.5	3.2	100.0(472)	6.44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9.4	80.6	-	100.0(31)	6.06	22.1**	1.2
25~29세	34.1	61.9	4.0	100.0(226)	6.17		
30~34세	20.9	77.4	1.7	100.0(350)	6.35		
35세 이상	18.6	77.9	3.4	100.0(145)	6.48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29.5	67.5	3.0	100.0(403)	6.18	14.3**	2.3 [#]
둘째아	17.2	80.6	2.2	100.0(268)	6.48		
셋째아 이상	23.2	74.4	2.4	100.0(82)	6.4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제6절 시사점

모유수유율은 2000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2009년에 비하여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영유아의 1~2개월 미만 시점, 3~4개월 미만 시점, 5~6개월 미만 시점에서도 2009년에 비하여 감소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2006년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생후 1주와 2주 이내 모유수유율은 생후 3주 이내 모유수유율 59.1%보다 낮다. 이는 여전히 높은 제왕절개 분만, 병원분만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모자동실제를 거의 운영하지 않는 의료환경에 의해서 출생 1~2주 모유수유율이 낮다가 산모가 가정에 돌아간 후 모유수유율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생후 1개월~2개월 미만 시점에서 모유

수유율은 56.7%, 생후 3개월~4개월 미만 시점에서 50.0%, 생후 4개월~5개월 미만 시점에서 40.5%, 생후 5개월~6개월 미만 시점에서 32.3%, 6개월~7개월 미만 시점에서는 11.4%로 모유수유율이 낮아져 영아의 월령 증가와 함께 모유수유율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2009년에 비하여 혼합영양의 도입이 빨라지면서 완전 모유수유율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유양상은 출산연령이 높은 부인, 제왕절개 분만을 한 부인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출산후 취업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산전 산후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 상담을 받는 부인은 각각 50.1%, 78.8%로 나타나 산전에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모자동실 이용 경험은 32.0%였으며, 하루종일 이용한 경험보다는 분만입원시 8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모유수유율은 2009년에 비하여 낮아지고, 완전모유수유율이 감소하고 혼합영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모유수유를 실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모유수유를 전혀 먹이지 않았거나 중단한 이유 중 취업 때문에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여성의 모유수유율과 비취업여성의 모유수유율 격차가 큼을 볼 수 있다.

모유수유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모유수유 기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여성의 모유수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 확대,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와 모유수유 지원정책의 추진 등 모유수유지지 환경 조성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의원에서의 임신부에 대한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산전후 교육 강화와 모자동실제 채택 등 지지적 환경 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보험수가 보상, 제왕절개 산모에 대한 모유수유 실천기술 제공,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모유수유 실천 제고를 위한 모유수유 권장 정책의 강화와 함께 모유수유 교육과 기술이 제공되도록 관련 시책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취업 여성에 대해서는 모유수유의 장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과 모유수유 실천기술 제공이 확대되어 제공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본 조사결과 조제분유에 대한 정보원으로 분유회사의 광고나 다양한 경로의 판촉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조제분유의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4부 가족복지생활 및 자녀양육

제11장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제12장 가족의 역할 및 관계 실태

제13장 동거 및 비동거 가족 지원

제14장 가족생활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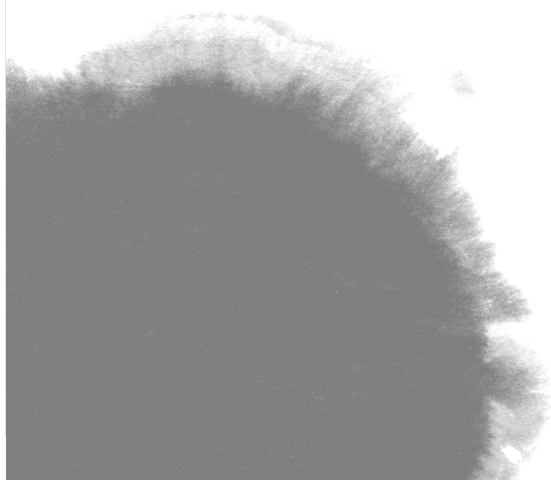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제15장 혼인실태와 가족주기의 변화

제16장 자녀양육 태도 및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제17장 결혼비용 실태

11장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제11장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미흡하고, 가정 내 양육분담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의 과도한 이중부담은 여성으로 하여금 취업지속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수준은 1970년 39.3%에서 2012년 48.5%로 지난 4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통계청, 2012).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취업률 곡선은 M자형이 개선되지 못하고 아직도 잔존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이 결혼 전과 출산완료 및 양육기 단계인 40대는 취업률이 높은 데 비해 결혼·임신·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5~34세 연령층에서는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으로 취업은 생애단계별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 기혼여성은 결혼이나 출산·양육기는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초기 양육기를 지내고 재진입하므로써 노동시장 참여의 불연속성을 보이고 재진입시 여성들의 지위

를 하향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여성의 결혼, 출산 및 양육 같은 생애주기 요인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상태를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실증적 연구에서 일·가정양립에서의 갈등은 여성의 임신·출산 및 양육시기인 20~30대 연령층에서 높았고 이러한 갈등으로 여성은 이직이나 퇴사가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홍승아 외, 2010).

따라서 생애단계별로 여성의 취업은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취업활동과 결혼 및 출산 그리고 양육은 관련이 높기 때문에 생애단계별로 기혼 여성의 취업 및 고용구조의 변동과 취업과 출산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장에서는 기혼여성의 현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취업상의 어려움 및 욕구를 분석한다. 생애단계를 결혼 전·후, 첫째아 출산 전·후, 막내아 출산 전·후, 그리고 막내아 입학 전·후 4단계로 구분하여 기혼여성의 취업 변화를 분석하고 각 생애단계별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변화, 직장변화, 취업중단 이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기혼여성의 취업관련 전반적인 연구동향은 경제활동참여 수준 및 직종·종사상지위 생애주기별 취업실태, 그리고 일·가정양립 갈등 등으로 이루어졌다.

윤옥화(2009)는 최근에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유형이 다양화되고,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구조에 대한 변화를 밝히고 있다. 김승권 외(2009)의 연구결과, 기혼여성의 취업수준

은 50.0%이고, 취업 직종은 서비스판매직이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무직 종사자 18.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4%, 단순노무자 및 기타 15.1%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 판매직의 비율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았다(김승권 외, 2009). 이와 같이 최근 여성 노동시장은 전문직과 같은 경력직 여성이 증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 단순서비스직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노동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황수경, 2003). 기혼여성의 양극적인 현상을 일컬어 금재희(2004)는 연령과 경력단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복합적 이중구조라고 지적한다.

한편, 기혼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에 변화를 보이는 것이 남성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 요인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강이수·신경아, 2009).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생애주기와의 관련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생애주기는 연령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생애사적 요인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성의 역할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욕구가 달라지며, 출산·육아시점을 벗어난 45~49세 연령대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력과 같은 여성 고유의 생애사건이 노동시장 행위를 분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본다(황수경, 2003; 권혜자, 2007; 김가을, 2007).

황수경(2003)은 기혼여성의 생애주기를 결혼→출산 및 육아→집중 양육→양육완료→자녀 결혼 및 경제력 상실 등 5주기로 구분하였다. 1주기는 결혼으로 시작되어 첫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까지, 2주기는 첫 아이의 출산으로 시작되어 막내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3주기는 막내 자녀가 3살이 되는 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이며, 4주기는 막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기혼여성의 양육 부담이 완료되

는 단계로 구분 된다. 5주기는 자녀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 단위가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족이 재편되는 단계로 보았다.

기혼여성의 일·가족 갈등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현대 여성은 오랫동안 여성의 몫이었던 가정에서의 역할과 남성의 몫이라고 여겨졌던 직장에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은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서로 다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가영희, 2005). 한편 남성은 전통적 성역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가정에서의 역할분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대 여성은 과거의 여성보다 가정과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따라서 양영역에서의 역할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일·가정양립에서의 갈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높았고, 20대와 30대에서 타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정의 양립갈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크게 나타났고, 여성들의 갈등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이직이나 퇴사는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척도로 스웨덴과 영국의 여성들에게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갈등의 정도도 아니며 성별로 남성과의 차이도 유의하게 적었다(홍승아 외, 2009).

정명혜(2010)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 측면에서의 정책, 가정 측면에서의 정책 두 가지가 효율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며 직장과 사회, 가정 각각의 영역에서 여성고용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정책동향

기혼여성의 취업은 출산과 양육 등과 관련이 높으므로 하나는 출산·양육으로 경력단절된 기혼여성의 재취업정책과 다른 하나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정책 등으로 접근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고용을 양적으로 보장하는 여성고용정책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으로는 크게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홍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기관 제공, 여성구직자 및 직업훈련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경력단절 여성 훈련 및 취업기회 확대 등이 해당된다.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고용단체 등과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인식을 확산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으로 새일센터 지정 확대 및 새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여성취업지원 기능을 전문화·체계화하고 있다. 일환으로 고용센터, 새일센터 중심으로 여성 취업지원기관 즉 지자체 취업지원관, 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사,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상태에 있는 여성이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에 구직 등록 후 직업훈련을 받거나 패키지형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011년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훈련 및 취업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여성의 특화된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유망 직종 훈련과정에 신생·

이색 직업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전문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20~30대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국제금융연수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국제통상전문가, 금융 및 보험전문가 등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촉진제도 활성화로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기에 이직한 기혼여성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일가정양립 정책

일가정양립정책에는 육아휴직제도, 유연한 근무형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전·후 90일의 보호휴가인 산전후휴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 3일간이 부여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6세 이하 미취학자녀 대상 부모가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급여로 월 50만원 정도 지급되며,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00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 간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연한 근무형태로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해 전일제 1인 담당업무를 시간제 2인이 담당하는 직무공유제(job sharing)를 콜 센터 등 민원업무기관, 휴일·야간 근무가 필요한 도서관·박물관 직종에서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간제 계약직 또는 단시간근로자 채용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사·보수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다른 한편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에 단기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여 신규고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 컨설팅 및 신규 고용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으로는 설치비를 최대 7억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설치하는 경우 무상지원은 총 비용의 80%까지 5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융자시 7억원 한도로 1% 융자비율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전환비는 단독 2억원 공동 5억원을 지원하며, 유구비품비 교체비는 최초 지원은 5천만원, 그 후 3년 단위로 3천만원을 지원한다, 종사자임금은 보육교사 및 취사부를 대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다.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여성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 및 상시 5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남녀 간의 차별적 고용관행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하는 제도이다. 공기업·대기업에 대해 기준 미달 시 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이 제공된다.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처 연도별 임용목표 달성정도를 매년 말에 점검하여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국·

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운영 지원은 평가 지침을 통보하고 추진실적이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장·교감 승진 임용시 임용예정자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시 근무여건 및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임지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신규 채용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며 우수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지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제2절 기혼여성의 현 취업실태

기혼여성의 현 취업실태는 15~64세 기혼가구 내 15~49세 기혼여성 6,2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기혼여성의 현 취업률

15~49세 기혼여성의 현 취업률은 2012년 53.1%로 1/2수준이었으며, 2009년에 비해 3.1%pt 높아졌다.

가구특성별로 기혼여성의 현 취업률을 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현 취업률이 2.7%pt 높았고, 가구원 규모가 2인 이하인 경우가 3인 이상인 경우 보다 부인의 현 취업률이 훨씬 높았다. 이는 가구원 규모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유배우 부부만이 사는 경우이거나 이혼·별거상태의 부인일 가능성이 높아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표 11-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현 취업률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수)	현 취업률
2009 ¹⁾	(6,723)	50.0
2012 ²⁾	(6,218)	53.1
지역		
동부	(5,419)	52.7
읍·면부	(799)	55.4
가구원 수		
1인	(126)	83.3
2인	(882)	64.8
3~4인	(4,319)	50.4
5인 이상	(890)	50.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1)	37.8
100~200 미만	(394)	49.0
200~300 미만	(1,148)	34.3
300~400 미만	(1,420)	48.3
400~500 미만	(1,144)	60.7
500 이상	(2,029)	64.2
육구소득비		
1 미만	(142)	34.5
1~2 미만	(1,183)	37.4
2~3 미만	(2,070)	44.9
3~4 미만	(1,224)	62.9
4 이상	(1,563)	69.6
전혀 자립 못함	(116)	50.0
별로 자립 못함	(653)	52.4
보통임	(1,648)	50.2
약간 자립함	(1,380)	54.8
상당히 자립함	(2,410)	54.4
모르겠음	(6)	100.0

자료: 1)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본 조사결과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으나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부인의 현 취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또한 육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부인의 현 취업률이 높았다. 이는 고소득층은 고학력 부인의 자아성취를 위한 육구가 강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며, 다른 한편 부인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가구소득에 기여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경제적 자립여부에 따른 현 취업률은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기혼여성의 특성별로 현 취업률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연령이 20대에는 현 취업률이 약 30~38% 수준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가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5~49세 연령층의 현 취업률은 61.7%로 20대 연령층과 약 2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결혼 후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시기에는 낮다가 자녀가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기혼여성의 취업에 자녀출산 및 양육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혼인상태별로 현 취업률은 사별부인이 8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이혼·별거부인이 79.0%, 유배우부인이 51.3% 순으로 높았다. 이는 유배우부인에 비해 이혼·별거 또는 사별중인 해혼 부인의 경우는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별로 현 취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학력층인 경우 저학력층에 비해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부인일 가능성이 높아서 고학력층의 젊은 부인의 경우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현존자녀수별로는 현존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부인의 현 취업률이 높았다. 이는 현존자녀가 없는 경우는 현존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자녀양육 부담에서 오는 장애요인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2〉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률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수)	현재 취업률
2009	(6,723)	50.0
2012	(6,218)	53.1
연령		
15~24세	(63)	29.7
25~29세	(430)	37.8
30~34세	(1,120)	45.0
35~39세	(1,406)	52.5
40~44세	(1,697)	56.0
45~49세	(1,502)	61.7
혼인상태		
유배우	(5,834)	51.3
사별	(76)	84.0
이혼·별거	(308)	79.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42)	58.5
고등학교	(2,946)	53.4
대학 이상	(2,926)	52.2
현존자녀수		
0명	(550)	60.9
1명	(1,619)	48.8
2명 이상	(4,050)	53.7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는 남편의 특성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 요인을 중심으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49세 기혼여성 중 유배우 부인의 현 취업률은 2012년 51.2%로 동일한 연령층 전체 기혼여성의 현 취업률에 비해 1.9%pt 낮았으나,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3.2%pt 상승하였다.

남편의 특성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50~5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인의 현 취업률이 높았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이 비취업인 경우에 부인의 현 취업률이 높았다.

〈표 11-3〉 남편특성별 15~49세 기혼여성의 취업률¹⁾

(단위: 명, %)

남편특성	(분석대상수)	취업률
2009	(6,301)	48.0
2012	(5,813)	51.2
연령		
15~29세	(224)	41.1
30~34세	(760)	44.2
35~39세	(1,165)	47.4
40~44세	(1,412)	49.3
45~49세	(1,371)	58.6
50~54세	(775)	55.6
55세 이상	(105)	62.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6)	60.9
고등학교	(2,225)	50.8
대학 이상	(3,321)	50.7
취업여부		
취업	(5,671)	50.7
비취업	(142)	72.5
월평균 근로소득		
99만원 이하	(60)	83.3
100~199만원	(570)	64.6
200~299만원	(1,749)	54.1
300~399만원	(1,442)	50.3
400~499만원	(735)	46.5
500만원 이상	(1,132)	40.2

주: 1) 남편이 있는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별·이혼·별거인 기혼여성 405명은 제외됨.

자료: <표 11-1>과 동일

이 외에 가구소득과는 달리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부인의 현 취업률이 높았다. 즉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경우 부인의 현 취업률은 83.3%이었으나 100~199만원 이하에서는 64.6%이었고, 이후 점차 더 낮아져 남편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일 경우 부인의 현 취업률은 40.2%에 불과하였다⁴²⁾. 이와 같이 남편의 특성에 따른 부인의

42) 장지연 외(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이 출산이후 바로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남편 등 기타 가족원의 수입과 자산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취업확률이 낮다고 함.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은 6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은 경력단절 여성일수록 미취업에 남아있을

현 취업률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 저학력층 그리고 비취업자인 남편의 경우 부인의 생계부담이 높아지는 데서 오는 취업의 필요 때문으로 이해된다.

2. 현 취업 기혼여성 부부의 직종,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

가. 직종 및 종사상 지위

현 취업여성의 직종은 2012년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3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무직 종사자 23.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6%, 단순노무직 및 기타가 11.9%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관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그리고 농·임·어업 등은 미미하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직종사자는 많아진 반면,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은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특성별로 기혼여성의 취업직종을 보면, 동부지역은 읍·면부보다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등이 많았고, 읍·면지역은 농·임·어업과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이 많은 편이었으며, 관리자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다. 가구원 수별로는 모든 가구에서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1인가구와 5인 이상가구는 단순노무직 및 기타, 2인과 3인 이상 가구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직종사자가 많은 편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저소득층에서는 서비스·판매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임·어업,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고소득층에서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서 소득별로

확률이 높았다(오은진, 2009).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욕구소득별로도 가구소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1-4〉 15~49세 기혼여성의 현 취업 직종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 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계(수)	χ^2
2009	0.9	18.4	18.9	35.8	7.4	3.5	15.1	100.0(3,360)	
2012	0.8	21.6	23.4	34.5	6.3	1.5	11.9	100.0(3,301)	
지역									
동부	0.8	22.5	23.9	35.0	6.3	0.2	11.2	100.0(2,858)	252.3
읍·면부	0.5	16.0	20.5	30.9	6.3	9.7	16.0	100.0(443)	***
가구원 수									
1인	0.9	7.5	6.6	63.2	2.8	1.9	17.0	100.0(106)	90.8 ***
2인	1.1	16.1	28.0	35.6	7.7	2.3	9.3	100.0(571)	
3~4인	0.6	23.6	23.3	33.4	6.4	1.1	11.6	100.0(2,177)	
5인 이상	1.3	22.5	22.3	31.3	5.4	2.2	15.0	100.0(44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	9.7	29.0	19.4	9.7	32.3	100.0(31)	517.8 ***
100~200 미만	0.5	5.2	9.8	50.3	8.3	2.6	23.3	100.0(193)	
200~300 미만	0.3	9.4	14.2	43.9	6.9	3.0	22.3	100.0(394)	
300~400 미만	-	14.0	17.8	43.9	7.3	1.5	15.5	100.0(685)	
400~500 미만	0.7	19.5	24.0	34.5	7.2	1.7	12.4	100.0(693)	
500 이상	1.4	33.5	31.3	24.4	4.5	0.5	4.4	100.0(1,302)	
욕구소득비									
1 미만	-	2.1	6.3	45.8	16.7	2.1	27.1	100.0(48)	455.4 ***
1~2 미만	0.2	9.9	12.6	40.6	8.6	3.8	24.2	100.0(443)	
2~3 미만	0.3	14.2	17.5	44.4	5.6	1.9	16.1	100.0(928)	
3~4 미만	1.2	21.1	27.7	31.0	7.9	0.7	10.4	100.0(768)	
4 이상	1.1	34.2	29.5	25.9	4.5	0.7	4.0	100.0(1,08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취업직종을 보면, 연령별로는 15~24세는 분석대상수가 적어 일정하지 않았으며, 25~29세와 30대 연령층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많은 편이었고, 35세 이상 연령층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 40대 연령층은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이 타 연령층보다 많은데 비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는 적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 여성은 사별·이혼·별거 여성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사별·이혼·별거 여성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 사무직 종사자는 유배우와 사별 여성 모두에서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은 고학력층에 비해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이 많았고, 농·임·어업도 일부 있었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많았고, 관리자도 일부 나타났다.

〈표 11-5〉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 직종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 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계(수)	χ^2
2009	0.9	18.4	18.9	35.8	7.4	3.5	15.1	100.0(3,360)	
2012	0.8	21.6	23.4	34.5	6.3	1.5	11.9	100.0(3,301)	
연령									
15~24세	-	10.5	10.5	36.8	10.5	-	31.6	100.0(19)	-
25~29세	-	32.5	35.0	17.8	4.3	2.5	8.0	100.0(163)	
30~34세	0.4	31.6	39.4	22.7	3.8	0.2	2.0	100.0(503)	
35~39세	0.7	26.8	26.8	30.9	5.1	1.6	8.1	100.0(739)	
40~44세	0.7	19.3	21.8	36.4	5.9	1.6	14.3	100.0(950)	
45~49세	1.2	12.9	12.1	44.6	9.4	1.8	18.0	100.0(928)	
혼인상태									
유배우	0.8	23.2	24.4	32.6	5.9	1.5	11.6	100.0(2,993)	-
사별	-	7.8	26.6	43.8	10.9	4.7	6.3	100.0(64)	
이혼·별거	0.4	6.6	11.5	54.5	10.2	-	16.8	100.0(24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0.5	0.5	24.5	19.0	6.5	49.0	100.0(200)	1418.0 ***
고등학교	0.5	4.8	17.4	49.5	8.7	2.1	16.9	100.0(1,571)	
대학 이상	1.1	41.7	32.6	20.3	2.2	0.2	1.8	100.0(1,52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 남편의 현 취업직종은 2012년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무직 종사자 24.7%,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16.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4%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관리자, 농·임·어업과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은 저조하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사무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많아진 반면, 관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인과 남편의 직종을 비교하면 부인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편은 관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이 많았으며, 사무직 종사자와 농·임·어업 등은 차이가 없었다.

가구특성별로 남편의 취업직종을 보면, 동부지역은 읍·면부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많은 편이었고, 읍·면부지역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임·어업 등이 많았으며, 관리자와 서비스·판매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역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구원 수별로는 2인가구는 타 가구에 비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많은 편이었고, 3인 이상 가구는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그리고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자와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은 가구원 수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대체로 서비스·판매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임·어업,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이 많은 편이었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가 많아서 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육구소득별

로도 가구소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가구특성별 부인과 남편의 취업직종은 가구소득별로는 유사하였으나 나머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11-6〉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현 취업 직종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 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계(수)	χ^2
2009	10.2	13.7	19.5	18.1	28.1	2.7	7.8	100.0(6,044)	
2012	6.7	14.4	24.7	16.9	30.1	2.0	5.2	100.0(5,663)	
지역									
동부	6.9	15.5	25.9	17.0	29.0	0.6	5.1	100.0(4,926)	459.8 ***
읍·면부	5.3	6.8	16.3	16.3	37.6	11.5	6.1	100.0(736)	
가구원 수									
1인	-	-	-	-	-	-	-	-	30.4 **
2인	7.3	16.5	20.9	15.6	30.9	2.9	6.0	100.0(729)	
3~4인	6.8	13.9	25.5	17.1	30.2	1.5	5.0	100.0(4,101)	
5인 이상	5.8	15.0	24.0	16.8	28.8	3.5	6.0	100.0(83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9.1	18.2	36.4	9.1	9.1	18.2	100.0(11)	954.0 ***
100~200 미만	2.1	7.4	5.3	19.6	39.2	6.3	20.1	100.0(189)	
200~300 미만	1.9	7.0	17.3	18.3	38.4	3.0	14.1	100.0(1,023)	
300~400 미만	3.9	9.7	22.0	19.2	39.0	1.8	4.4	100.0(1,347)	
400~500 미만	4.2	13.7	28.1	16.6	32.3	1.9	3.2	100.0(1,108)	
500 이상	13.0	22.4	30.2	14.4	17.8	1.2	1.0	100.0(1,987)	
가구소득비									
1 미만	-	10.4	4.2	22.9	25.0	12.5	25.0	100.0(48)	754.0 ***
1~2 미만	2.8	7.7	14.6	19.3	38.9	3.3	13.4	100.0(967)	
2~3 미만	3.9	9.6	24.4	18.9	35.4	2.1	5.7	100.0(1,959)	
3~4 미만	7.4	15.1	28.8	15.7	29.3	1.0	2.7	100.0(1,156)	
4 이상	12.7	23.9	28.9	13.3	18.7	1.5	0.9	100.0(1,50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 남편의 개인특성별로 취업직종을 보면, 연령별로는 2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많은 편이었고, 30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많았다. 40대는 관리

자가 많은 편이었고, 50대 이상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임·어업,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기타직종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11-7〉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취업 직종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 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계수	χ^2
2009	10.2	13.7	19.5	18.1	28.1	2.7	7.8	100.0(6,044)	
2012	6.7	14.4	24.7	16.9	30.1	2.0	5.2	100.0(5,663)	
연령									
15~24세	-	-	-	40.0	46.7	-	13.3	100.0(15)	322.5 ***
25~29세	2.0	14.8	20.7	16.3	39.9	1.0	5.4	100.0(203)	
30~34세	3.4	16.7	31.9	16.6	25.4	0.9	5.1	100.0(743)	
35~39세	4.1	18.9	29.1	18.3	26.4	0.9	2.3	100.0(1,139)	
40~44세	7.5	14.8	26.2	17.7	27.2	1.8	4.8	100.0(1,396)	
45~49세	9.1	10.3	23.0	16.8	33.0	2.2	5.5	100.0(1,336)	
50~54세	9.9	12.3	13.9	13.8	36.4	5.0	8.8	100.0(741)	
55세 이상	5.6	11.1	11.1	15.6	37.8	3.3	15.6	100.0(9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	-	1.2	10.0	56.0	10.8	20.7	100.0(241)	1699.1 ***
고등학교	3.2	2.9	12.9	20.5	48.8	2.7	9.0	100.0(2,149)	
대학 이상	9.4	23.0	34.1	15.0	15.9	0.9	1.7	100.0(3,27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직종이 많았고 일부 농·임·어업에 종사하였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많았고, 일부 관리자도 나타났다(표 11-7 참조).

현 취업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2012년 상용근로자가 5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시근로자 18.7%, 자영업자 11.0%, 무급가족종사자 8.2%, 일용근로자 7.8% 등의 순이었으며, 고용주는 미미하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임시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

은 낮아지고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진 경향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차이가 없었다.

가구특성별로 취업한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지역별로는 모두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동부지역은 읍·면부보다 자영업자가 많은데 비해, 읍·면부지역은 임시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았으며, 고용주와 일용근로자는 지역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구원 수별로는 모두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1인 가구는 타 가구에 비해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가, 2인과 3인 이상 가구는 임시근로자, 그리고 5인 이상가구에서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많은 편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에서는 대체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많았고, 중간 이상 소득층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가, 고소득층에서는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가 많은 경향을 보여서 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옥구소득 별로도 대체로 가구소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1-8〉 15~49세 기혼여성의 현 취업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χ^2
2009	2.0	11.1	42.9	22.2	8.3	13.5	100.0(3,355)	
2012	3.0	11.0	51.3	18.7	7.8	8.2	100.0(3,288)	
지역								
동부	3.0	11.3	52.9	18.1	7.8	7.0	100.0(2,847)	50.5 ***
읍·면부	3.2	9.1	41.5	22.4	8.2	15.6	100.0(441)	
가구원 수								
1인	5.7	30.2	32.1	17.9	14.2	-	100.0(106)	79.7 ***
2인	3.8	10.5	57.2	16.4	6.1	5.9	100.0(572)	
3~4인	2.7	10.4	51.1	19.1	8.1	8.6	100.0(2,167)	
5인 이상	3.2	9.9	49.1	19.8	7.2	10.8	100.0(44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16.1	19.4	29.0	32.3	3.2	100.0(31)	313.8 ***
100~200 미만	1.1	8.9	38.4	30.5	17.4	3.7	100.0(190)	
200~300 미만	1.5	7.7	39.8	27.6	15.6	7.9	100.0(392)	
300~400 미만	1.9	10.1	43.3	22.3	12.2	10.3	100.0(682)	
400~500 미만	2.9	11.0	53.3	16.9	7.1	8.8	100.0(692)	
500 이상	4.5	12.6	60.7	13.1	1.5	7.5	100.0(1,299)	
가구소득비								
1 미만	4.2	18.8	22.9	29.2	22.9	2.1	100.0(48)	362.5 ***
1~2 미만	0.7	6.4	40.0	30.7	14.1	8.2	100.0(440)	
2~3 미만	1.7	8.4	41.8	22.0	14.5	11.6	100.0(924)	
3~4 미만	3.3	13.2	53.6	18.1	4.2	7.7	100.0(767)	
4 이상	4.8	13.2	62.9	11.3	1.7	6.1	100.0(1,08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취업한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종사상 지위를 보면, 연령별로는 15~24세는 분석대상수가 적어 일관되지 않았으며, 25~29세와 30대 연령층은 상용근로자가 상당히 많았고, 이외에 35~39세는 일용근로자도 많은 편이었다. 40대 연령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으나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한 출산이나 가사, 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취업을 중단했다가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임시 및 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은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혼인상태별로는 모두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순이었다. 이외에 유배우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가, 사별·이혼·별거인 여성은 일용근로자가 많았고, 이혼·별거인 여성은 고용주인 경우도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은데 비해, 대학 이상은 고용주와 상용근로자가 많았고, 자영업자는 일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고학력층의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된데 비해 저학력층은 고용이 불안정한 특성을 보여서 종사상 지위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표 11-9 참조).

〈표 11-9〉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χ^2
2009	2.0	11.1	42.9	22.2	8.3	13.5	100.0(3,355)	
2012	3.0	11.0	51.3	18.7	7.8	8.2	100.0(3,288)	
연령								
15~24세	-	11.1	22.2	22.2	38.9	5.6	100.0(18)	208.0 ***
25~29세	0.6	3.7	76.7	10.4	4.3	4.3	100.0(163)	
30~34세	1.2	5.8	70.9	14.7	4.4	3.0	100.0(502)	
35~39세	3.0	10.6	52.5	18.7	7.0	8.2	100.0(733)	
40~44세	3.1	13.0	46.0	20.1	8.5	9.3	100.0(948)	
45~49세	4.5	13.3	41.2	20.8	9.6	10.6	100.0(924)	
혼인상태								
유배우	2.5	10.4	52.2	18.4	7.4	9.0	100.0(2,982)	93.2 ***
사별	1.6	14.5	58.1	14.5	11.3	-	100.0(62)	
이혼·별거	9.5	17.7	38.3	23.5	11.1	-	100.0(24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5	7.5	23.0	26.5	31.5	11.0	100.0(200)	450.6 ***
고등학교	2.9	11.7	40.8	22.8	10.2	11.6	100.0(1,568)	
대학 이상	3.4	10.7	66.0	13.4	2.2	4.2	100.0(1,51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표 11-10>은 기혼여성의 취업 중인 남편의 종사상 지위를 나타낸다. 2012년 기혼여성 남편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66.3%로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 다음은 자영업자가 17.4%로 많았고, 미미하나 고용주,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많았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자영업자와 임시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인과 남편의 종사상 지위를 비교하면 기혼남성은 고용주, 자영업자, 그리고 상용근로자인 경우 기혼여성의 동일 종사상 지위 보다 많았고, 특히 상용근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15.0%p 많았으며,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기혼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가구특성별로 남편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지역 모두 상용근로자가 많았고, 이외에 동부지역은 읍·면부보다 상용근로자가 많은 편이었으며, 읍·면부지역은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고,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지역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가구는 분석대상수가 없었으며, 2인 이상 가구는 공통적으로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영업자가 많았으며, 이외에 미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2인 가구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3인 이상 가구는 고용주가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에서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은 편이었고, 중간 이상 소득층에서는 자영업자가, 고소득층에서는 고용주와 상용근로자가 많아서 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고소득층은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인데 비해, 저소득층은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육구소득 별로도 가구소득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표 11-10〉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현 취업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χ^2
2009	8.4	20.4	59.6	6.4	4.9	0.3	100.0(6,041)	
2012	7.2	17.4	66.3	4.6	4.2	0.3	100.0(5,622)	
지역								
동부	7.3	16.0	68.2	4.3	3.9	0.3	100.0(4,892)	78.4 ***
읍·면부	6.7	27.0	53.6	6.8	5.6	0.3	100.0(730)	
가구원 수								
1인	-	-	-	-	-	-	-	31.8 ***
2인	6.4	14.2	66.4	7.3	5.1	0.6	100.0(724)	
3~4인	7.3	17.3	67.0	4.3	3.9	0.3	100.0(4,069)	
5인 이상	7.6	20.7	62.8	3.9	4.8	0.1	100.0(82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36.4	18.2	27.3	18.2	-	100.0(11)	-
100~200 미만	4.9	16.4	47.5	12.0	18.0	1.1	100.0(183)	
200~300 미만	2.3	14.5	63.5	9.3	10.3	0.2	100.0(1,016)	
300~400 미만	3.2	22.9	64.0	4.9	4.4	0.5	100.0(1,334)	
400~500 미만	7.4	17.8	69.1	3.3	2.2	0.3	100.0(1,098)	
500 이상	12.6	15.1	69.7	1.9	0.6	0.1	100.0(1,981)	
가구소득비								
1 미만	4.3	23.9	23.9	17.4	28.3	2.2	100.0(46)	-
1~2 미만	3.2	17.6	61.2	8.1	9.6	0.2	100.0(958)	
2~3 미만	4.6	20.1	65.0	4.7	5.1	0.4	100.0(1,941)	
3~4 미만	8.0	17.5	68.8	3.5	1.9	0.3	100.0(1,146)	
4 이상	12.4	13.8	70.6	2.6	0.5	0.1	100.0(1,495)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 남편의 개인특성별로 종사상 지위를 보면, 연령별로는 분석 대상수가 적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25세 이상 연령층에서 모두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25~29세 연령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임시근로자가, 30세 이상 연령층은 자영업자가 많았으며, 54세까지는 고연령층일수록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40~54세는 고용주, 55세 이상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도 많은 편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고등학교 이상은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고학력층은 고용주나 상용근로자가 많은데 비해, 저학력층은 자영업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많아서 종사상 지위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11〉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취업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χ^2
2009	8.4	20.4	59.6	6.4	4.9	0.3	100.0(6,041)	
2012	7.2	17.4	66.3	4.6	4.2	0.3	100.0(5,622)	
연령								
15~24세	-	14.3	50.0	28.6	7.1	-	100.0(14)	-
25~29세	2.5	5.1	81.8	8.6	2.0	-	100.0(198)	
30~34세	3.1	8.3	79.6	6.3	2.7	-	100.0(735)	
35~39세	6.6	14.7	73.2	3.0	2.5	0.1	100.0(1,133)	
40~44세	8.0	16.9	67.7	3.0	4.0	0.3	100.0(1,385)	
45~49세	9.6	22.5	58.4	4.1	4.9	0.5	100.0(1,331)	
50~54세	8.2	25.5	51.8	6.9	7.2	0.4	100.0(734)	
55세 이상	4.3	22.8	53.3	9.8	8.7	1.1	100.0(9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8	32.1	25.8	15.8	20.0	0.4	100.0(240)	661.1
고등학교	5.6	23.6	56.9	5.8	7.6	0.5	100.0(2,138)	***
대학 이상	8.4	12.3	75.4	3.0	0.7	0.1	100.0(3,245)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나. 현 취업 기혼여성 부부의 직장유형

현 취업여성의 직장유형을 보면, 2012년 기업체에 다니는 경우는 45.6%로 이 중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다니는 경우가 23.7%였다. 개인사업체 및 기타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41.8%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다니는 경우는

12.6%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공무원,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체 및 기타 직장은 감소하였으며,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특성별로 기혼여성의 현 직장유형을 보면, 지역별로는 모두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이 동부보다 더 높았다(동부: 40.7%, 읍·면부: 48.3%). 나머지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별로는 모든 가구에서 개인사업체 및 기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소기업체와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경우는 미미한 편이었다. 특히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개인사업체 및 기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약 29~32%p까지 높았으며, 2인 이상 가구는 기업체에 다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00만원 미만소득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저소득층은 개인사업체 및 기타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비해, 고소득층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도 많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소득층은 타 소득층에 비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비율이 약 6배까지 높게 나타났다(100~200만원 미만: 3.7%, 500만원 이상: 23.0%). 욕구소득별로도 가구소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1-12〉 15~49세 현 취업 기혼여성의 직장유형

(단위: %, 명)

구분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사업체 및 기타	계(수)	χ^2
2009	6.5	4.6	9.0	9.0	22.9	48.0	100.0(3,360)	
2012	8.7	3.9	8.5	13.4	23.7	41.8	100.0(3,281)	
지역								
동부	9.0	3.8	8.8	14.3	23.4	40.7	100.0(2,838)	23.4
읍·면부	7.0	5.0	6.8	7.7	25.3	48.3	100.0(443)	***
가구원 수								
1인	1.9	0.9	3.8	6.6	16.0	70.8	100.0(106)	55.8
2인	8.8	3.0	9.8	16.0	23.7	38.8	100.0(570)	
3~4인	9.6	4.4	8.4	13.4	23.2	41.0	100.0(2,162)	
5인 이상	6.3	3.6	8.6	11.7	27.7	42.1	100.0(44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2	-	-	3.2	12.9	80.6	100.0(31)	405.6
100~200 미만	0.5	3.2	2.6	6.8	29.5	57.4	100.0(190)	
200~300미만	3.1	1.3	5.9	10.5	32.3	46.9	100.0(390)	
300~400 미만	3.1	2.8	6.6	10.2	25.1	52.3	100.0(685)	
400~500 미만	4.2	3.6	7.0	14.3	31.3	39.6	100.0(690)	
500 이상	17.2	5.8	12.2	16.7	15.7	32.5	100.0(1,296)	
가구소득비								
1 미만	2.0	4.1	-	2.0	20.4	71.4	100.0(49)	363.2
1~2 미만	1.6	1.6	5.5	7.6	34.6	49.2	100.0(437)	
2~3 미만	3.5	3.5	4.7	10.1	27.3	51.0	100.0(923)	
3~4 미만	7.3	4.8	9.2	14.4	25.1	39.1	100.0(764)	
4 이상	17.5	4.7	11.5	18.5	15.9	31.9	100.0(1,08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직장유형을 보면, 연령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25세 이상에서는 모두 개인기업체 및 기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35세 이상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어서 25~29세는 중소기업, 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순으로 많은데 비해, 30세 이상은 소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다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 중에서 30~34세는 다

소 높은데 비해, 40~44세는 더욱 낮았다.

〈표 11-13〉 15~49세 현 취업 기혼여성의 특성별 직장유형

(단위: %, 명)

구분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사업체 및 기타	계(수)	χ^2
2009	6.5	4.6	9.0	9.0	22.9	48.0	100.0(3,360)	
2012	8.7	3.9	8.5	13.4	23.7	41.8	100.0(3,281)	
연령								
15~24세	5.6	-	22.2	5.6	22.2	44.4	100.0(18)	215.0 ***
25~29세	8.8	5.7	18.9	22.6	19.5	24.5	100.0(159)	
30~34세	14.2	4.6	17.6	17.8	20.2	25.6	100.0(500)	
35~39세	7.8	4.4	6.4	15.1	24.8	41.6	100.0(734)	
40~44세	6.9	3.5	6.7	10.4	26.5	46.1	100.0(946)	
45~49세	8.6	3.4	5.1	11.3	22.6	49.1	100.0(922)	
혼인상태								
유배우	9.5	4.1	9.0	14.1	23.3	40.0	100.0(2,976)	85.6 ***
사별	-	3.3	1.6	13.1	42.6	39.3	100.0(61)	
이혼·별거	2.0	2.0	4.1	4.9	23.4	63.5	100.0(24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	0.5	3.0	5.5	26.1	62.8	100.0(199)	370.6 ***
고등학교	2.2	2.7	6.5	11.6	27.4	49.6	100.0(1,566)	
대학 이상	16.4	5.6	11.3	16.3	19.6	30.8	100.0(1,51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와 이혼·별거 여성은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기업과 중소기업 순인데 비해, 사별 여성은 소기업이 다른 여성보다 거의 2배까지 많았으며, 이어서 개인사업체 및 기타는 많았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은 유배우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4배까지 많았다. 또한 사별 여성은 기업체가, 이혼·별거 여성은 개인사업체 및 기타 직장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두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소기업과 중소기업 순으로 많았다. 저학력층은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고

학력층은 기업체,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많은 편이었고, 특히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대학 이상이 타 학력층에 비해 약 9배까지 많았다.

기혼여성 남편의 직장유형은 2012년 기업체는 56.5%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개인사업체 및 기타는 32.1%로 1/3을 차지하였으며, 공무원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은 11.4%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율은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체 및 기타 직장은 감소하였으며, 공무원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소기업은 차이가 미미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직장유형을 비교하면, 부인은 남편에 비해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사업체 및 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편은 부인에 비해 기업체가 높았다.

가구특성별로 기혼남성의 현 직장유형을 보면, 지역별로는 모두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동부지역은 읍·면부보다 기업체, 공무원 그리고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많은 편이었다. 가구원 수별로는 모두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2인과 3~4인 가구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많았으며, 5인 이상 가구는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나머지 공무원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은 미미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100~500만원 미만은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500만원 이상은 대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100~300만원 미만은 소기업, 200~400만원 미만은 중소기업, 그리고 500만원 이상은 공무원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많은 경향을 보여서 직장유형은 소득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욕구소득비별로도 가구소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1-14〉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직장유형

(단위: %, 명)

구분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사업체 및 기타	계(수)	χ^2
2009	7.3	3.7	14.7	16.1	20.8	37.4	100.0(6,046)	
2012	7.3	4.1	16.6	20.9	19.0	32.1	100.0(5,620)	
지역								
동부	7.5	4.4	16.7	21.4	19.5	30.5	100.0(4,886)	50.4 ***
읍·면부	5.7	2.3	15.7	17.7	15.5	43.1	100.0(734)	
가구원 수								
1인	-	-	-	-	-	-	-	52.0 ***
2인	5.7	5.8	13.7	23.4	22.6	28.7	100.0(721)	
3~4인	7.0	4.0	17.3	21.5	18.6	31.5	100.0(4,071)	
5인 이상	9.6	3.4	15.2	16.2	17.3	38.3	100.0(82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	-	10.0	10.0	80.0	100.0(10)	507.0 ***
100~200 미만	-	1.1	4.3	14.1	26.5	54.1	100.0(185)	
200~300 미만	3.3	2.7	7.6	26.0	25.1	35.4	100.0(1,013)	
300~400 미만	5.1	2.8	11.2	23.1	22.1	35.7	100.0(1,333)	
400~500 미만	7.6	3.9	16.2	19.8	20.7	31.8	100.0(1,099)	
500 이상	11.3	6.2	26.2	18.3	12.1	26.0	100.0(1,982)	
육구소득비								
1 미만	-	4.3	2.2	6.5	17.4	69.6	100.0(46)	371.2 ***
1~2 미만	2.8	3.0	7.2	22.2	24.7	40.0	100.0(958)	
2~3 미만	6.7	2.5	12.2	22.4	21.1	35.2	100.0(1,938)	
3~4 미만	8.0	5.7	19.2	20.7	17.1	29.3	100.0(1,147)	
4 이상	10.6	5.7	25.7	19.2	14.4	24.3	100.0(1,49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로 직장유형을 보면, 연령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5~24세를 제외하고, 25~29세는 소기업이 가장 많았고, 30~34세는 중소기업, 그리고 35세 이상에서는 모두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25~29세와 35~44세는 중소기업이 많았고, 30~34세는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45세 이상은 소기업이 많았으며, 특히 55세 이상은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다. 모든 연령층에서 공무원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은 적은 편이었으며, 그중 공무원은 50~54세에서,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은 55세 이상에서 많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는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대학 이상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많았으며, 다음은 대기업, 소기업, 공무원 순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공무원과 정부투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 비율은 고학력층이 저학력층에 비해 약 10배까지 높았다.

〈표 11-15〉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직장유형

(단위: %, 명)

구분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사업체 및 기타	계(수)	χ^2
2009	7.3	3.7	14.7	16.1	20.8	37.4	100.0(6,046)	
2012	7.3	4.1	16.6	20.9	19.0	32.1	100.0(5,620)	
연령								
15~24세	-	-	-	50.0	21.4	28.6	100.0(14)	263.1 ***
25~29세	7.5	2.5	23.1	25.1	27.6	14.1	100.0(199)	
30~34세	4.5	4.5	21.5	28.9	18.3	22.3	100.0(734)	
35~39세	6.6	3.7	19.1	24.4	19.1	27.1	100.0(1,128)	
40~44세	7.2	5.5	16.1	20.6	17.7	32.8	100.0(1,388)	
45~49세	8.4	2.2	14.4	17.9	19.5	37.7	100.0(1,329)	
50~54세	9.1	4.8	12.7	13.5	17.1	42.8	100.0(733)	
55세 이상	7.7	9.9	3.3	9.9	30.8	38.5	100.0(9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	0.4	3.3	13.3	20.7	61.0	100.0(241)	585.2 ***
고등학교	2.8	1.9	10.9	17.8	24.1	42.6	100.0(2,134)	
대학 이상	10.7	5.8	21.3	23.6	15.5	23.2	100.0(3,24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3. 현 취업 기혼여성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소득

현 취업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2012년 43.41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약 3시간 초과하고 있다. 2009년 44.87시간에 비해 2012년 1.46시간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특성별로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을 보면,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 거주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다소 많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가구원 수별로는 1~2인 가구가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평균 근로시간이 많았고, 특히 1인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평균 약 10시간까지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되지 않았으나, 100~200만원 미만은 타 소득층에 비해 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편이었으며, 욕구소득비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혼여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012년 170.39만원으로 남편의 근로소득을 100%로 할 때 부인의 근로소득은 48.5%에 불과하였다. 2009년 134.95만원에 비해 2012년 35.44만원이 늘어났으나 성별 임금격차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구특성별로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을 보면, 동부지역이 읍·면부보다 근로소득이 많은 편이었고, 가구원 수별로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1인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3~4인 가구가 가장 적었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욕구소득비별로는 소득비가 높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많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기혼여성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2012년 50.13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약 1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2009년 52.14시간에 비해 2012년 2.01시간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근무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인과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기혼남성이 기혼여성보다 주당 6.72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 기혼남성의 근로시간을 보면,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 거주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다소 많았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이 많아지는 특성을 보여서 2인 가구의 근로시간이 가장 적었고, 5인 이상 가구의 근로시간이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대체로 100~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은 다른 소득층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은 편이었으며, 500만원 이상은 근로시간이 가장 적었다. 욕구소득비별로도 일관되지 않았으나, 욕구소득비 1~2 미만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았고, 욕구소득비 4 이상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기혼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012년 351.41만원으로 기혼여성보다 약 2배 많았으며, 2009년 300.25만원에 비해 2012년 51.16만원이 늘어나서 물가상승분을 감안할 때 미미하나 임금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특성별로 기혼남성의 근로소득을 보면, 동부지역이 읍·면부보다 근로소득이 많았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근로소득이 많아지는 특성을 보여서 5인 이상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고, 1인 가구에서 가장 적었다. 가구소득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대체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이 많아지는 특성을 보여서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적었다. 욕구소득비별로도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많아서 가구소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1-16〉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시간, 만원)

특성	부인					남편 ¹⁾				
	(분석대상수)	근로시간		근로소득		(분석대상수)	근로시간		근로소득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2009	(3,358)	44.87		134.95		(6,045)	52.14		300.25	
2012	(3,290)	43.41		170.39		(5,652)	50.13		351.41	
지역										
동부	(2,847)	43.24	(-1.7#)	176.48	(7.5 ***)	(4,915)	49.84	(-4.8 ***)	358.30	(6.7 ***)
읍·면부	(443)	44.45		131.49		(736)	52.12		305.58	
가구원 수										
1인	(105)	52.34	29.3 ***	210.01	3.7*	-	-	3.3*	-	21.7 ***
2인	(571)	45.74		170.77		(726)	49.63		306.44	
3~4인	(2,168)	42.42		167.35		(4,093)	50.04		356.64	
5인 이상	(445)	43.09		175.43		(833)	51.00		364.9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1)	43.07	8.5 ***	70.37	136.5 ***	(10)	48.41	25.0 ***	142.68	709.3 ***
100~200 미만	(193)	48.23		122.62		(186)	52.19		139.68	
200~300 미만	(393)	43.72		108.26		(1,022)	52.32		215.50	
300~400 미만	(686)	43.30		120.55		(1,344)	51.40		275.02	
400~500 미만	(693)	44.18		149.07		(1,105)	49.81		323.65	
500 이상	(1,293)	42.24		237.36		(1,984)	48.15		512.42	
교육수준비										
1 미만	(49)	42.96	.5	104.57	227.0 ***	(46)	51.20	32.3 ***	117.29	684.6 ***
1~2 미만	(442)	43.97		104.98		(967)	52.35		209.86	
2~3 미만	(927)	43.53		116.61		(1,954)	51.42		290.36	
3~4 미만	(767)	43.02		158.05		(1,153)	48.95		359.12	
4 이상	(1,080)	43.26		254.57		(1,497)	48.01		523.66	

주: 1) 1) 유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근로시간을 보면, 연령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25~29세의 근로시간은 43.43시간에서 30~34세는 40.87시간으로 줄어들다가, 35세 이후 근로시간이 다시 늘어나서 45~49세의 근로시간은 46.61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이혼·별거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별, 유배우 순으로 근로시간이 많아서 이혼·별거와 유배우 여성 간에 7.7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늘어나

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학력층이 고학력층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특성을 보였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근로소득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25~29세에 165.57만원에서 30세 이후 근로소득이 늘어나다가 40~44세에 160.11만원으로 줄어들었고 45~49세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 여성의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별, 유배우 순으로 근로소득이 많았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많아서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근로소득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로 근로시간을 보면, 연령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25~29세 연령층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았고,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적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학력층이 고학력층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로 근로소득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25세부터 근로소득이 늘어나서 45~49세 연령층에서 384.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세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55세 이상은 274.76만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근로소득이 가장 적었다. 교육수준과 근로소득은 비례하여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근로소득이 많았다.

〈표 11-17〉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시간, 만원)

특성	부인					남편 ¹⁾				
	(분석대상수)	근로시간	F(T)	근로소득	F(T)	(분석대상수)	근로시간	F(T)	근로소득	F(T)
2009	(3,358)	44.87		134.95		(6,045)	52.14		300.25	
2012	(3,290)	43.41		170.39		(5,652)	50.13		351.41	
연령										
15~24세	(19)	48.15		137.92		(15)	49.62		185.11	
25~29세	(160)	43.43		165.57		(201)	51.52		247.33	
30~34세	(490)	40.87	20.0	186.38	4.9	(742)	49.32		281.79	
35~39세	(735)	41.78	***	183.89	***	(1,136)	49.61	2.3*	338.37	36.2
40~44세	(950)	42.77		160.11		(1,392)	50.42		380.33	***
45~49세	(926)	46.61		163.18		(1,337)	50.09		384.58	
50~54세						(736)	51.06		367.94	
55세 이상						(92)	49.12		274.76	
혼인상태										
유배우	(2,983)	42.75		169.11						
사별	(63)	47.39	46.5	180.79	1.5					
이혼·별거	(244)	50.45	***	183.3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0)	47.26		96.56		(242)	55.62		242.51	
고등학교	(1,572)	45.60	73.2	137.37	179.7	(2,143)	52.90	162.5	297.32	205.8
대학교 이상	(1,517)	40.62	***	214.61	***	(3,265)	47.91	***	395.21	***

주: 1) 1) 유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현 직종별로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을 보면 농·임·어업 종사자가 52.46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비스·판매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관리자 순으로 많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38.52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대체로 노동집약적 직종의 경우 근로시간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근로소득과 직종은 관련이 높아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 등 전문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로소득이 많은 편이었고, 농·임·어업과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 등 비전문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종별로 기혼남성의 근로시간은 농·임·어업 종사자가 58.37시간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비스·판매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 순으로 많았으며, 사무직 종사자가 45.13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기혼여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근로소득도 기혼여성과 유사하여 전문직에서 근로소득이 높았고, 노동집약적인 비전문직종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동일직종에서 기혼여성과 남성 간의 근로소득의 차이는 2배 내외로 나타났고, 농·임·어업은 약 27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표 11-18〉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직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시간, 만원)

특성	부인					남편 ¹⁾				
	(분석대상수)	근로시간	F(T)	근로소득	F(T)	(분석대상수)	근로시간	F(T)	근로소득	F(T)
2009	(3,358)	44.87		134.95		(6,045)	52.14		300.25	
2012	(3,290)	43.41		170.39		(5,652)	50.13		351.41	
관리자	(25)	44.11		284.50		(380)	46.72		529.9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08)	38.52		228.38		(811)	46.53		428.12	
사무직 종사자	(772)	41.23		204.11		(1,393)	45.13		361.18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1,134)	47.26	48.8***	148.27	84.1***	(951)	55.43	145.1***	342.76	131.4***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08)	46.00		133.37		(1,700)	52.70		301.68	
농·임·어업	(49)	52.46		10.80		(114)	58.37		288.99	
단순노무직 및 기타	(392)	42.85		97.59		(296)	52.91		207.21	

주: 1) 유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4. 현 취업 기혼여성 부부의 취업기간

취업여성의 현 직장에서의 취업기간을 보면, 2012년 10년 이상이 25.2%로 가장 많았고, 1~3년 미만 24.9%, 5~10년 미만 22.8% 등의 순이었으며, 평균 6.3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취업기간이 1~3년 미만과 10년 이상인 비율은 증가하였고,

1년 미만은 감소하였으며, 평균은 6.3년으로 동일하였다.

가구특성별로 취업여성의 현 취업기간을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10년 이상이, 읍·면부지역은 1~3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취업기간은 동부가 읍·면부보다 0.4년 더 길어서 지역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가구원 수별로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1~3년 미만과 3~5년 미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0년 이상이 많았으며, 평균 취업기간에서도 잘 나타나 1인가구 4.5년, 5인가구 6.3년으로 가구원 수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0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저소득층에서 1~3년 미만이, 고소득층에서 10년 이상이 많은 편이었다. 평균 취업기간은 100~200만원 미만이 4.5년, 500만원 이상이 8.4년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취업기간이 더 긴 경향을 보였다. 욕구소득비별로는 일정하지 않으나 욕구소득비가 낮은 경우 1년 미만,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 10년 이상이 많았으며, 이는 평균 취업기간에서도 잘 나타나 욕구소득비 1 미만은 2.8년, 욕구소득비 4 이상은 8.3년으로 욕구소득비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19〉 15-49세 기혼여성의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단위: %, 명, 년)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χ^2	평균	F(T)
2009	14.5	22.9	17.7	21.8	23.1	100.0(3,194)		6.3	
2012	8.9	24.9	18.2	22.8	25.2	100.0(3,293)		6.3	
지역									
동부	8.8	24.9	18.0	22.7	25.6	100.0(2,850)	1.6	6.3	(1.4)
읍·면·부	9.7	25.3	19.0	23.0	23.0	100.0(443)		5.9	
가구원 수									
1인	5.7	29.5	34.3	17.1	13.3	100.0(105)	52.7 ***	4.5	4.2 **
2인	5.9	28.0	19.1	27.4	19.6	100.0(572)		5.9	
3~4인	9.7	23.9	17.4	21.9	27.0	100.0(2,170)		6.4	
5인 이상	9.4	24.9	16.9	22.2	26.5	100.0(445)		6.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3.3	26.7	13.3	16.7	-	100.0(30)	317.2 ***	1.8	60.8 ***
100~200 미만	9.9	36.5	17.7	22.4	13.5	100.0(192)		4.5	
200~300 미만	15.0	36.9	19.3	14.8	14.0	100.0(393)		4.1	
300~400 미만	11.1	28.6	21.0	21.7	17.6	100.0(686)		4.9	
400~500 미만	10.2	25.0	18.4	26.0	20.3	100.0(695)		5.5	
500 이상	4.3	17.6	16.3	24.2	37.5	100.0(1,297)		8.4	
가구소득비									
1 미만	24.5	30.6	16.3	22.4	6.1	100.0(49)	255.9 ***	2.8	62.4 ***
1~2 미만	15.8	36.9	16.1	18.1	13.1	100.0(442)		4.1	
2~3 미만	11.0	30.7	18.9	19.8	19.5	100.0(927)		5.1	
3~4 미만	8.7	21.1	18.7	25.8	25.6	100.0(766)		6.2	
4 이상	3.8	16.5	18.5	25.6	35.7	100.0(1,084)		8.3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평균 취업기간을 보면, 연령별로는 분석대상 수가 적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저연령층일수록 1년 미만이 많았고, 고연령층일수록 10년 이상이 많았으며, 이는 평균 취업기간에서도 잘 나타나 25~29세 3.7년, 45~49세 8.3년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 여성은 10년 이상이, 사별과 이혼·별거 여성은 1~3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취업기간은 사별과 유배우가 각각 6.4년과 6.5년으로 많았고, 이혼·별거는 4.8년으로 가장 적어서 분

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와 대학 이상은 10년 이상이, 고등학교는 1~3년 미만이 가장 많아서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평균 취업기간은 대학 이상이 7.2년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6.3년과 5.3년으로 대체로 고학력층에서 취업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0〉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단위: %, 명, 년)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χ^2	평균	F(T)
2009	14.5	22.9	17.7	21.8	23.1	100.0(3,194)		6.3	
2012	8.9	24.9	18.2	22.8	25.2	100.0(3,293)		6.3	
연령									
15~24세	33.3	33.3	27.8	5.6	-	100.0(18)	149.918 ***	1.5	37.8 ***
25~29세	13.6	21.6	27.2	33.3	4.3	100.0(162)		3.7	
30~34세	10.3	26.2	17.7	26.2	19.5	100.0(503)		4.9	
35~39세	10.3	26.8	17.9	22.6	22.4	100.0(736)		5.5	
40~44세	8.4	27.4	19.7	20.3	24.2	100.0(951)		6.1	
45~49세	6.4	20.5	15.2	22.1	35.7	100.0(926)		8.3	
혼인상태									
유배우	8.9	24.5	17.7	23.0	25.8	100.0(2,986)	13.740 #	6.4	7.5 **
사별	6.3	31.7	17.5	20.6	23.8	100.0(63)		6.5	
이혼·별거	9.8	27.9	23.8	20.5	18.0	100.0(244)		4.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5	23.0	19.0	21.5	26.0	100.0(200)	98.051 ***	6.3	39.4 ***
고등학교	11.0	30.0	19.0	20.2	19.7	100.0(1,571)		5.3	
대학 이상	6.6	20.0	17.1	25.5	30.8	100.0(1,523)		7.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취업남성의 현 직장에서의 취업기간을 보면, 2012년 10년 이상이 50.4%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21.9%, 1~3년 미만 13.0% 등의 순이었으며, 평균 10.4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취업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율은 증가하였고, 1년 미만은 감소하였으며, 평균은 0.5년 차이를 보여서 미미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평균 취업기간을 비교하면, 부인은 남편보다 10년 미

만이 많았고, 남편은 부인보다 10년 이상이 2배 많았으며, 평균 취업기간도 남편이 부인보다 4.1년이 더 길어서 이를 잘 반영한다.

가구특성별로 취업남성의 현 취업기간을 보면, 지역별로는 모두 전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평균 취업기간은 동부보다 읍·면부가 0.2년 더 길어서 지역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구원 수별로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1~10년 미만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0년 이상이 많았으며, 평균 취업기간은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0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저소득층에서 1~3년 미만이, 고소득층에서 10년 이상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평균 취업기간은 100~200만원 미만이 5.0년, 500만원 이상이 12.7년으로 소득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욕구소득비별로도 가구소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평균 취업기간에서 잘 나타나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은 6.4년, 욕구소득비 4 이상은 12.1년으로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취업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표 11-21〉 15~49세 기혼여성 남편¹⁾의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단위: %, 명, 년)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χ^2	평균	F(T)
2009	7.1	13.6	11.8	21.2	46.4	100.0(5,804)		9.9	
2012	3.7	13.0	11.0	21.9	50.4	100.0(5,646)		10.4	
지역									
동부	3.6	13.2	11.2	21.8	50.2	100.0(4,911)	4.785	10.3	(-.7)
읍·면·부	4.5	11.3	9.8	22.4	52.0	100.0(735)		10.5	
가구원 수									
1인	-	-	-	-	-	-	133.713 ***	-	39.2 ***
2인	4.5	18.5	14.3	31.6	31.0	100.0(728)		10.6	
3~4인	3.6	12.4	10.6	20.8	52.5	100.0(4,087)		11.2	
5인 이상	3.7	11.0	10.0	18.4	56.9	100.0(831)		10.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7.3	36.4	9.1	-	27.3	100.0(11)	466.289 ***	4.9	93.9 ***
100~200 미만	16.4	32.2	14.8	16.9	19.7	100.0(183)		5.0	
200~300 미만	6.4	18.0	15.4	24.1	36.2	100.0(1,022)		7.7	
300~400 미만	3.1	16.2	11.4	24.5	44.8	100.0(1,343)		9.3	
400~500 미만	3.7	11.2	9.2	20.4	55.4	100.0(1,104)		11.0	
500 이상	1.5	7.2	9.2	20.4	61.7	100.0(1,982)		12.7	
교육수준비									
1 미만	21.7	26.1	4.3	17.4	30.4	100.0(46)	255.210 ***	6.4	65.8 ***
1~2 미만	6.7	19.7	16.4	20.4	36.8	100.0(961)		7.5	
2~3 미만	3.7	14.6	10.2	22.3	49.1	100.0(1,953)		10.0	
3~4 미만	4.1	8.8	9.5	21.1	56.6	100.0(1,154)		11.4	
4 이상	1.2	9.5	10.0	22.4	56.8	100.0(1,497)		12.1	

주: 1) 유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로 평균 취업기간을 보면, 연령별로는 분석대상 수가 적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저연령층은 1년 미만이고, 고연령층은 10년 이상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평균 취업기간에도 반영되어 25~29세 평균 3.4년, 55세 이상 14.5년으로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학력층에서 10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 이하 1~3년 미만,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은 5~10년 미만이 많아서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평균 취업기간은 중학교 이하가 12.6년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은 각각 10.2

년과 10.3년으로 대체로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취업기간이 더 긴 경향을 보였다.

〈표 11-22〉 15~49세 기혼여성 남편¹⁾의 특성별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단위: %, 명, 년)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χ^2	평균	F(T)
2009	7.1	13.6	11.8	21.2	46.4	100.0(5,804)		9.9	
2012	3.7	13.0	11.0	21.9	50.4	100.0(5,646)		10.4	
연령									
15~24세	13.3	86.7	-	-	-	100.0(15)	1100.775 ***	1.4	212.0 ***
25~29세	8.9	33.2	25.2	29.2	3.5	100.0(202)		3.4	
30~34세	4.3	22.2	16.8	44.0	12.7	100.0(739)		5.0	
35~39세	5.2	13.0	13.7	28.5	39.6	100.0(1,135)		7.6	
40~44세	3.1	9.8	8.9	16.4	61.8	100.0(1,392)		11.0	
45~49세	2.5	10.2	7.6	12.9	66.8	100.0(1,336)		13.2	
50~54세	2.4	7.9	7.1	16.0	66.6	100.0(736)		15.0	
55세 이상	4.4	11.0	15.4	11.0	58.2	100.0(91)		14.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0	14.9	6.2	13.2	60.7	100.0(242)	36.121 ***	12.6	10.7 ***
고등학교	4.6	14.1	11.6	21.1	48.6	100.0(2,142)		10.2	
대학 이상	3.1	12.1	11.0	23.0	50.8	100.0(3,259)		10.3	

주: 1) 유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5. 현 취업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어려움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2012년 ‘가사부담’과 ‘자녀양육부담’이 각각 25.6%와 24.1%로 높았고, 다음은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11.5%, ‘직장생활과 육아병행’ 8.1%, ‘부부시간 공유부족’ 3.6% 등의 순이었다.⁴³⁾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어려움 중에 미미하나

43) 이삼식 외(2009)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장일과 가정 일을 하면서 겪는 힘든 일로 일·가사병행의 어려움(39.9%), 자녀양육, 대화시간 부족(34.6%), 부인과 함께 하는 시간 부족(8.2%), 직장 일 전념하기 어려움(3.9%), 직장에서의 차별(2.1%) 등을 들고 있다.

가사부담과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은 다소 낮아졌고, 자녀양육 부담, 직장생활과 육아병행은 높아졌으며, 나머지는 차이가 없었다.

가구특성별로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을 보면, 지역별로는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다소 높았다. 어려움으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모두 자녀양육 부담과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자녀양육부담, 부부 및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직장생활과 육아병행 등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가사부담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에서 많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원 수별로는 가구원 수와 어려움은 비례하여 1인 가구에서 어려움이 적었고, 5인 이상 가구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어려움으로는 1~2인가구는 가사부담이, 3인 이상 가구는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구규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저소득층에서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이 적은 편이었고, 고소득층에서 어려움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어려움으로는 모든 소득층에서 전체와 유사하였고, 특히 100만원 미만과 200~500만원 미만은 가사부담이, 100~2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소득층은 자녀양육 부담이 많은 편이었다. 또한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일과 가정생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높아서 가구소득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어려움으로는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자녀양육 부담의 비율이 높았고,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직장생활과 육아병행이 많았다.

〈표 11-23〉 15-49세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없음	자녀 양육 부담	가사 부담	부부 공유시간 부족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직장 생활과 육아병행	노부모 부양	기타	계(수)	χ^2
2009	27.2	23.0	27.2	3.2	12.8	4.9	0.9	0.8	100.0(3,360)	
2012	25.3	24.1	25.6	3.6	11.5	8.1	0.5	1.3	100.0(3,290)	
지역										
동부	25.2	24.4	25.0	3.8	11.6	8.3	0.5	1.2	100.0(2,848)	7.1
읍·면부	26.2	22.4	28.5	2.5	10.4	7.5	0.5	2.0	100.0(442)	
가구원 수										
1인	81.6	2.9	7.8	-	4.9	-	-	2.9	100.0(103)	570.6 ***
2인	45.1	6.2	32.0	8.5	5.1	0.4	0.4	2.5	100.0(568)	
3~4인	19.8	28.1	25.3	2.6	12.8	10.0	0.3	1.0	100.0(2,172)	
5인 이상	13.9	32.3	22.4	3.6	14.6	10.8	1.3	1.1	100.0(446)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9.0	22.6	35.5	-	9.7	-	-	3.2	100.0(31)	-
100~200만	33.3	28.6	15.1	2.6	12.5	4.7	1.0	2.1	100.0(192)	
200~300만	27.7	20.9	27.7	4.1	14.5	3.1	1.0	1.0	100.0(393)	
300~400만	28.9	21.1	29.4	3.4	8.3	6.6	0.7	1.6	100.0(684)	
400~500만	21.8	25.1	29.0	3.6	11.3	7.4	0.1	1.7	100.0(692)	
500 이상	23.2	25.5	22.2	3.8	12.2	11.7	0.2	1.1	100.0(1,298)	
육구소득비										
1 미만	8.2	40.8	28.6	-	10.2	6.1	4.1	2.0	100.0(49)	-
1~2 미만	19.7	29.2	24.2	2.5	15.8	6.1	0.9	1.6	100.0(442)	
2~3 미만	24.1	25.2	27.8	3.8	10.8	6.8	0.5	1.0	100.0(925)	
3~4 미만	23.7	23.5	27.5	3.7	10.8	9.3	0.1	1.4	100.0(765)	
4 이상	30.8	19.8	23.0	4.1	11.0	9.5	0.3	1.5	100.0(1,085)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어려움을 보면, 연령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일정하지 않으나 25~29세와 45~49세는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30대 연령층은 낮았다. 어려움으로는 20대 이하의 연령층은 자녀양육 부담, 부부와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고, 이외에 가사부담을 지적한 경우도 타 연령층보다 많았다. 중장년층은 자녀양육 부담과 자

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직장생활과 육아병행의 어려움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이혼·별거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별, 유배우 순으로 높아서 유배우와 사별 여성이 어려움이 많은 편이었다. 어려움으로는 유배우는 가사부담이, 사별은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그리고 이혼·별거 여성은 자녀양육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혼인상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11-24〉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없음	자녀 양육 부담	가사 부담	부부 공유시간 부족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직장 생활과 육아병행	노부모 부양	기타	계(수)	χ^2
2009	27.2	23.0	27.2	3.2	12.8	4.9	0.9	0.8	100.0(3,360)	
2012	25.3	24.1	25.6	3.6	11.5	8.1	0.5	1.3	100.0(3,290)	
연령										
15~24세	15.8	15.8	47.4	-	10.5	10.5	-	-	100.0(19)	-
25~29세	36.3	19.4	22.5	8.8	1.9	8.8	0.6	1.9	100.0(160)	
30~34세	16.1	36.0	16.5	4.2	7.0	18.5	-	1.8	100.0(503)	
35~39세	16.3	33.5	17.3	3.4	15.7	13.4	0.1	0.3	100.0(737)	
40~44세	24.6	24.2	27.3	3.1	14.2	5.2	0.3	1.2	100.0(950)	
45~49세	36.6	11.1	35.1	3.4	9.3	1.3	1.1	2.2	100.0(921)	
혼인상태										
유배우	24.0	24.0	26.6	4.0	10.9	8.8	0.4	1.3	100.0(2,986)	-
사별	25.4	19.0	20.6	-	28.6	-	1.6	4.8	100.0(62)	
이혼·별거	41.7	26.9	12.8	-	14.5	2.1	0.4	1.7	100.0(2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2	16.1	30.2	5.0	10.1	0.5	0.5	1.5	100.0(199)	151.7
고등학교	27.6	21.9	29.1	3.4	11.2	4.4	0.8	1.5	100.0(1,570)	***
대학 이상	21.4	27.5	21.2	3.7	11.9	13.0	0.2	1.2	100.0(1,521)	
현존자녀수										
0명	51.8	-	34.9	10.3	-	-	-	3.0	100.0(332)	417.7
1명	23.3	33.4	14.1	2.8	12.6	12.0	0.3	1.5	100.0(785)	
2명	22.6	23.4	28.4	3.0	12.8	8.3	0.7	1.0	100.0(1,817)	
3명 이상	19.0	30.0	27.2	2.5	13.0	6.8	0.3	1.1	100.0(353)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높아서 고학력층 여성이 저학력층보다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으로는 저학력층은 가사부담과 부부시간 공유부족을, 고학력층은 자녀양육부담과 공유시간 부족 그리고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있는 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현존자녀수별로는 현존자녀수와 어려움은 비례하여 무자녀인 경우 어려움이 적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어려움이 많았다. 어려움으로는 무자녀는 가사부담이, 자녀 1명은 자녀양육 부담이 높았으며, 자녀 2명 이상에서는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이 높은 편이었다.

다음의 <표 11-25>는 현 취업부인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별 일·가정 병행상 어려움을 나타낸 결과이다.

다른 직종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노무직 및 기타, 서비스·판매종사자 및 사무직 종사자 등은 어려움이 적은 편이었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는 자녀양육 부담과 직장생활·육아병행을, 관리자는 부부와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을,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그리고 농·임·어업 종사자는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 자영업자, 상용 및 임시근로자도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인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자녀양육 부담과 가사부담이 많았고, 이외에 부부와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도 많은 편이었다.

〈표 11-25〉 15-49세 현 취업여성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없음	자녀 양육 부담	가사 부담	부부 공유시간 부족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직장 생활과 육아병행	노부모 부양	기타	계(수)	χ^2
2009	27.2	23.0	27.2	3.2	12.8	4.9	0.9	0.8	100.0(3,360)	
2012	25.3	24.1	25.6	3.6	11.5	8.1	0.5	1.3	100.0(3,290)	
직종										
관리자	20.0	24.0	12.0	12.0	20.0	12.0	-	-	100.0(2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0	27.6	22.6	3.4	13.6	12.4	0.1	0.3	100.0(711)	
사무직 종사자	22.7	27.4	22.4	2.7	9.1	13.5	0.3	1.9	100.0(771)	
서비스·판매직종사자	27.6	22.6	26.5	4.3	11.5	5.7	0.5	1.1	100.0(1,136)	-
기능원·정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0.3	21.3	37.7	2.9	14.0	1.4	1.0	1.4	100.0(207)	
농·임·어업	20.8	14.6	54.2	-	10.4	-	-	-	100.0(48)	
단순노무직 및 기타	36.5	18.8	24.9	4.4	10.0	1.5	1.0	2.8	100.0(389)	
종사상 지위										
고용주	22.0	14.0	26.0	5.0	22.0	8.0	3.0	-	100.0(100)	
자영업자	29.6	22.4	27.7	2.8	12.5	4.2	0.3	0.6	100.0(361)	
상용근로자	23.5	25.1	23.5	3.8	10.4	11.7	0.2	1.9	100.0(1,682)	
임시근로자	24.9	23.6	28.3	3.9	11.8	5.4	1.0	1.1	100.0(611)	-
일용근로자	38.4	28.6	18.0	4.7	5.9	2.7	0.4	1.2	100.0(255)	
무급가족종사자	20.6	21.0	36.3	1.9	17.2	2.6	0.4	-	100.0(267)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6. 현 취업 기혼여성의 일의 만족도

현 취업 기혼여성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매우)만족’이 53.0%였으며, 보통 38.6%, ‘(매우)불만족’은 8.4%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 (매우) 불만족 비율은 낮아졌고, (매우) 만족과 보통은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가구특성별로 기혼여성의 일의 만족도를 보면, 지역별로는 미미하나 (매우) 만족은 동부지역이, (매우) 불만과 보통은 읍·면부지역이 높았으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평균 만족도에도 잘 반영되어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약간 높았다(동부: 3.48점, 읍·면부: 3.46점). 가구원 수별로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3~4인 가구에서 (매우) 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고, 1인 가구에서 (매우) 불만과 보통 비율이 높았다. 평균 만족도는 1인 가구 3.27점, 5인 가구 3.43점으로 가구규모별로 일정하지 않았다.

〈표 11-26〉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2009	1.0	12.3	34.3	48.9	3.5	100.0(3,354)		3.42	
2012	0.5	7.9	38.6	49.9	3.1	100.0(3,287)		3.47	
지역									
동부	0.5	7.8	38.6	49.9	3.3	100.0(2,843)	1.791	3.48	(.4)
읍·면부	0.2	8.6	38.7	50.0	2.5	100.0(444)		3.46	
가구원 수									
1인	-	14.3	48.6	34.3	2.9	100.0(105)		3.27	4.1 **
2인	0.5	7.9	40.4	46.8	4.4	100.0(570)		3.47	
3~4인	0.5	7.3	37.3	52.1	2.7	100.0(2,167)		3.49	
5인 이상	0.9	9.0	40.0	46.3	3.8	100.0(445)		3.4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29.0	41.9	22.6	6.5	100.0(31)		3.06	53.2 ***
100~200만	-	18.7	43.5	36.3	1.6	100.0(193)		3.20	
200~300만	0.3	13.5	54.2	30.3	1.8	100.0(393)		3.20	
300~400만	0.4	10.7	48.5	38.7	1.8	100.0(685)		3.31	
400~500만	0.7	5.4	38.8	53.3	1.9	100.0(691)		3.50	
500 이상	0.5	4.0	27.6	62.6	5.2	100.0(1,295)		3.68	
목구소득비									
1 미만	-	20.0	42.0	34.0	4.0	100.0(50)		3.21	51.5 ***
1~2 미만	0.5	16.1	48.1	33.6	1.8	100.0(441)		3.20	
2~3 미만	0.5	9.5	48.4	39.9	1.6	100.0(925)		3.32	
3~4 미만	0.5	4.8	36.8	53.5	4.3	100.0(766)		3.56	
4 이상	0.6	4.7	28.1	62.3	4.3	100.0(1,082)		3.65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저소득층은 (매우) 불만이, 중간소득층은 보통 이, 고소득층은 (매우) 만족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는 평균 만족도에 잘 나타나서 100만원 미만은 3.06점, 500만원 이상은 3.68점으로 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욕구소득비별로도 가구소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평균 만족도는 욕구소득비 1 미만 3.21점, 4 이상은 3.65점으로 대체로 욕구소득비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일의 만족도를 보면, 연령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저연령층에서 (매우) 만족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고연령층에서 (매우) 불만과 보통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평균 만족도에 잘 반영되어 25~29세 3.57점, 45~49세 3.35점으로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 11-27〉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2009	1.0	12.3	34.3	48.9	3.5	100.0(3,354)		3.42	
2012	0.5	7.9	38.6	49.9	3.1	100.0(3,287)		3.47	
연령									
15~24세	-	15.8	52.6	31.6	-	100.0(19)		3.19	19.5 ***
25~29세	1.2	6.2	30.9	58.6	3.1	100.0(162)		3.57	
30~34세	0.6	3.8	27.7	62.7	5.2	100.0(502)		3.69	
35~39세	0.7	5.4	35.8	55.0	3.1	100.0(738)		3.55	
40~44세	0.3	8.3	43.8	44.6	3.0	100.0(947)		3.41	
45~49세	0.4	11.9	42.4	43.0	2.3	100.0(919)		3.35	
혼인상태									
유배우	0.5	7.2	37.5	51.6	3.1	100.0(2,981)		3.50	16.5 ***
사별	-	9.4	57.8	31.3	1.6	100.0(64)		3.23	
이혼·별거	-	15.2	46.9	33.7	4.1	100.0(243)		3.2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5	13.7	55.8	28.4	1.5	100.0(197)	211.531 ***	3.17	94.5 ***
고등학교	0.3	10.8	44.7	42.7	1.6	100.0(1,567)		3.35	
대학 이상	0.7	4.1	30.1	60.2	4.9	100.0(1,520)		3.65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 여성은 전체와 유사하였고, 사별과 이혼·별거 여성은 보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매우) 만족, (매우) 불만 순으로 많았다. 평균 만족도는 유배우 여성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혼·별거와 사별 여성은 각각 3.26점과 3.23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의 저학력층은 보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매우) 만족, (매우) 불만 순으로 많았으며,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전체와 유사하였다. 이는 평균 만족도에 잘 나타나 중학교 이하 3.17점, 대학 이상 3.65점으로 교육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 기혼여성의 일의 만족도는 대체로 (매우) 만족 비율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등이 높은 편이었다. 보통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이 많았다. (매우) 불만족은 농·임·어업과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이 많았으며, 이 외에도 관리자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도 많은 편이었다. 평균 만족도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75점), 관리자(3.60점)가 높았고, 농·임·어업(3.18점), 단순노무직 및 기타(3.16점)가 낮아서 전문직의 경우 일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비전문 직종은 일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기혼여성의 일의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 비율은 고용주, 자영자 및 상용근로자가 높은 편이었고, 보통과 (매우) 불만족 비율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높았다. 평균 만족도는 고용주(3.61점), 상용근로자(3.57점) 및 자영업자(3.55점) 등 고용안정이 높은 경우 높았고, 임시근로자(3.36점), 무급가족종사자(3.27점) 및 일용근로자(3.12점) 등 고용안정이 불안정한 경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11-28〉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별 현재 일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2009	1.0	12.3	34.3	48.9	3.5	100.0(3,354)		3.42	
2012	0.5	7.9	38.6	49.9	3.1	100.0(3,287)		3.47	
직종									
관리자	-	11.5	23.1	61.5	3.8	100.0(26)		3.60	43.3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	2.1	22.3	69.4	5.1	100.0(709)		3.75	
사무직 종사자	0.4	5.3	35.5	54.1	4.7	100.0(771)		3.57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0.4	10.4	43.5	43.6	2.1	100.0(1,135)		3.37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5	6.8	50.7	40.6	1.4	100.0(207)		3.36	
농·임·어업	2.0	20.4	36.7	40.8	-	100.0(49)		3.18	
단순노무직 및 기타	-	14.9	54.5	29.6	1.0	100.0(389)		3.16	
종사상 지위									
고용주	-	5.1	33.3	57.6	4.0	100.0(99)		3.61	29.5 ***
자영업자	0.3	7.2	33.1	55.8	3.6	100.0(360)		3.55	
상용근로자	0.5	5.2	34.5	55.9	3.9	100.0(1,681)		3.57	
일시근로자	0.7	9.8	45.1	41.2	3.3	100.0(612)		3.36	
일용근로자	0.4	19.1	48.4	31.6	0.4	100.0(256)		3.12	
무급가족종사자	0.4	11.7	48.5	39.5	-	100.0(266)		3.27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7. 기혼여성의 현 취업 계속여부

취업한 기혼여성의 현재의 일 계속여부에 있어서 2012년 ‘당장 그만둘 생각’은 1.1%에 불과하였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가 29.4%, ‘정년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27.0%,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23.1%, ‘쉬고 싶을 때까지’ 16.3% 등의 순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쉬고 싶어질 때까지’는 비율이 높아졌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비율이 낮아졌다.

가구특성별로 현재 일 계속여부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등은 동부지역에서 비율이 높았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읍·면부지역에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표 11-29〉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계속 여부

(단위: %, 명)

특성	당장 그만둘 생각	자녀 출산시까지	경제적 여건 좋아질 때 까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건강 허락할 때 까지	쉬고 싶어질 때 까지	기타	계수	χ^2
2009	1.4	2.7	26.9	21.6	32.2	14.8	0.4	100.0(3,351)	
2012	1.1	2.9	23.1	27.0	29.4	16.3	0.2	100.0(3,285)	
지역									
동부	1.1	2.9	23.4	28.3	27.8	16.5	0.1	100.0(2,842)	-
읍·면부	0.9	3.4	21.2	19.2	39.7	15.3	0.2	100.0(443)	
가구원 수									
1인	3.9	-	21.6	15.7	39.2	19.6	-	100.0(102)	-
2인	1.1	12.4	18.4	25.9	25.9	16.3	-	100.0(571)	
3~4인	1.0	1.1	24.1	27.3	30.0	16.5	0.1	100.0(2,166)	
5인 이상	1.1	0.7	24.2	29.6	28.7	15.0	0.7	100.0(446)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2	3.2	41.9	6.5	32.3	12.9	-	100.0(31)	-
100~200만	1.6	-	38.9	14.2	37.4	7.9	-	100.0(190)	
200~300만	1.8	3.8	36.6	18.3	29.3	9.9	0.3	100.0(393)	
300~400만	1.3	3.4	28.4	22.0	31.5	13.2	0.3	100.0(683)	
400~500만	0.7	4.6	23.0	21.4	33.8	16.5	-	100.0(692)	
500 이상	0.8	2.1	13.3	37.7	24.7	21.1	0.2	100.0(1,296)	
목구소득비									
1 미만	2.1	2.1	43.8	10.4	33.3	8.3	-	100.0(48)	-
1~2 미만	1.4	0.7	41.1	14.8	31.4	10.5	0.2	100.0(440)	
2~3 미만	1.0	1.9	29.2	22.2	32.7	12.8	0.2	100.0(924)	
3~4 미만	1.2	3.0	21.9	25.7	31.4	16.6	0.3	100.0(764)	
4 이상	1.0	4.8	10.4	36.6	24.8	22.1	0.2	100.0(1,084)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가구원 수별로는 1인가구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비율이 높아서 현재 일의 지속과 건강·경제여건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는 모두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비율이 높아서 현재 일의 지속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2인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자녀출산시 까지’라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신혼가구의 경우 출산이 취업지속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외에 3인 이상 가구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도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저소득층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고소득층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쉬고 싶어질 때까지’ 비율이 높은 편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현재 일의 지속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욕구소득비별로도 가구소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현재 일 계속여부를 보면, 연령별로는 분석대상수가 적은 15~24세를 제외하고, 25~39세 연령층에서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비율이 높아서 양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25~29세 연령층은 ‘자녀출산시까지’ 비율이, 35~39세 연령층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비율이 높았다. 40대 연령층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비율이 높아서 현재 일 지속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모두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많았고, 이외에 유배우는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가 많았으며, 사별과 이혼·별거 여성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가 많아서 유배우는 현재 일 지속에 대해 적극적이었으며, 사별과 이혼·별거는 경제요인과 관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두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가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의 저학력층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가 많은 편이었으며,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가 많아서 교육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11-30〉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계속 여부

(단위: %, 명)

특성	당장 그만둘 생각	자녀 출산시 까지	경제적 여건 좋아질 때 까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건강 허락할 때 까지	쉬고 싶어질 때 까지	기타	계(수)	χ^2
2009	1.4	2.7	26.9	21.6	32.2	14.8	0.4	100.0(3,351)	
2012	1.1	2.9	23.1	27.0	29.4	16.3	0.2	100.0(3,285)	
연령									
15~24세	-	31.6	42.1	10.5	5.3	10.5	-	100.0(19)	-
25~29세	3.1	17.4	25.5	26.1	15.5	12.4	-	100.0(161)	
30~34세	1.0	8.7	22.5	38.0	13.9	15.7	0.2	100.0(503)	
35~39세	0.7	2.2	25.5	27.4	25.2	18.9	0.1	100.0(737)	
40~44세	1.0	0.4	24.8	23.7	33.8	15.9	0.4	100.0(946)	
45~49세	1.3	-	18.7	24.6	39.5	15.9	-	100.0(921)	
혼인상태									
유배우	1.1	3.2	22.4	27.7	28.6	16.8	0.2	100.0(2,983)	-
사별	-	1.6	41.3	19.0	31.7	6.3	-	100.0(62)	
이혼·별거	1.3	-	27.1	20.4	38.3	12.9	-	100.0(24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1.5	26.8	9.1	53.0	9.6	-	100.0(198)	265.9 ***
고등학교	1.3	2.3	28.9	19.0	33.0	15.3	0.2	100.0(1,565)	
대학 이상	1.1	3.9	16.4	37.5	22.6	18.3	0.2	100.0(1,52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직종별로는 기혼여성의 현재 일 계속여부를 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는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가 많은 편이었고,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그리고 농·임·어업, 단순노무직 및 기타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가 많았다. 이외에 관리자는 ‘쉬고 싶어질 때까지’, 서비스 판매직과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도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11-31〉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별 현재 일 계속 여부

(단위: %, 명)

구분	당장 그만둘 생각	자녀 출산시 까지	경제적 여건 좋아질 때 까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건강 허락할 때 까지	쉬고 싶어질 때 까지	기타	계(수)	χ^2
2009	1.4	2.7	26.9	21.6	32.2	14.8	0.4	100.0(3,351)	
2012	1.1	2.9	23.1	27.0	29.4	16.3	0.2	100.0(3,285)	
관리자	3.8	7.7	3.8	30.8	26.9	26.9	-	100.0(26)	265.9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7	2.5	11.2	42.6	25.3	17.5	0.1	100.0(707)	
사무직 종사자	1.6	5.6	19.0	37.4	18.1	18.2	0.1	100.0(773)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1.1	1.8	29.4	18.4	32.5	16.7	0.2	100.0(1,129)	
기능원·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2.9	24.8	14.1	43.7	14.6	-	100.0(206)	
농·임·어업	-	-	20.0	2.0	72.0	6.0	-	100.0(50)	
단순노무직 및 기타	1.5	1.8	35.1	13.3	36.9	11.0	0.3	100.0(39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1-1>과 동일

8. 비취업부인의 향후 취업의향 및 이상적인 형태

현재 비취업 중인 부인중에서 향후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는 2012년 58.6%로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 2009년과 비교하면 1.7%pt가 많아졌다.

가구특성별로 비취업부인의 취업의향을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향후 취업의향이 10.7%pt 많았고, 가구원 수별로는 대체로 1인가구의 취업의향이 가장 많았으나 분석대상수가 적어 통계적인 의미가 낮으며, 다음은 3~4인가구, 5인가구, 2인가구 순으로 많아서 대체로 3인 이상 가구가 2인 가구보다 취업의향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은 향후 취업의향의 많은데 비해, 고소득층은 적어서 소득수준별로 비취업부인의 취업의향은 차이를 보였다. 욕구소득 비별로도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비취업부인의 취업의향이 높아서 가구

소득과 욕구소득비는 유사하였다.

〈표 11-32〉 15세~49세 비취업 기혼여성의 향후 취업의향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향후 취업의향
2009	(3,363)	56.9
2012	(2,892)	58.6
지역		
동부	(2,539)	57.3
읍·면부	(353)	68.0
가구원 수		
1인	(21)	76.2
2인	(310)	55.8
3~4인	(2,122)	59.1
5인 이상	(438)	57.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50)	72.0
100~200 미만	(200)	68.0
200~300 미만	(746)	66.8
300~400 미만	(727)	63.1
400~500 미만	(445)	54.8
500 이상	(724)	44.8
욕구소득비		
1미만	(93)	71.0
1~2 미만	(729)	66.7
2~3 미만	(1,133)	62.0
3~4 미만	(449)	54.3
4 이상	(474)	40.1

자료: <표 11-1>과 동일

비취업 부인의 개인특성별로 취업의향을 보면, 연령별로는 15~24세를 제외하고 저연령층에서 취업의향이 많았고, 고연령층에서 취업의향이 적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나 이혼·별거 여성이 유배우 여성보다 취업의향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별이나 이혼·별거인 경우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취업욕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별로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존자녀수별로는 자녀 1명 또는 무자녀인

경우 자녀 2명 이상보다 취업의향이 많았다. 이는 자녀양육 부담이 취업과 관련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11-33〉 15~49세 비취업 기혼여성의 특성별 향후 취업의향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향후 취업의향
2009	(3,363)	56.9
2012	(2,892)	58.6
연령		
15~24세	(44)	70.5
25~29세	(265)	78.9
30~34세	(609)	69.8
35~39세	(662)	60.7
40~44세	(740)	51.2
45~49세	(570)	43.7
혼인상태		
유배우	(2,816)	58.2
사별	(12)	83.3
이혼·별거	(64)	73.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2)	43.7
고등학교	(1,359)	61.5
대학 이상	(1,387)	57.4
현존자녀수		
없음	(215)	59.1
1명	(818)	64.2
2명 이상	(1,859)	56.2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이 희망하는 자녀구성 및 일 형태는 자녀 2명 이상에 시간제 근로 형태가 3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 2명 이상에 전일제가 19.9%, 자녀 2명 이상에 비취업이 15.6%, 자녀 1명에 전일제가 10.7%로 많았다.

가구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특히 동부지역 부인은 읍·면부보다 자녀 1명에 전일제 근무를, 읍·면지역 부인은 자녀 2명 이상에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가구원 수별

로는 1인가구는 자녀 2명 이상에 전일제 근무를, 2인 이상가구는 자녀 2명 이상에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표 11-34〉 15세~64세 기혼가구특성별 15~49세 기혼여성의 이상적인 자녀구성 및 일(직장) 형태

(단위: %, 명)

특성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비취업			계(수)	χ^2
	무자녀	자녀1명	자녀2명 이상	무자녀	자녀1명	자녀2명 이상	무자녀	자녀1명	자녀2명 이상		
전체	1.8	10.7	19.9	0.5	9.4	39.8	0.3	2.0	15.6	100.0(6,164)	
지역											
동부	1.9	11.1	20.0	0.6	9.5	39.3	0.3	2.1	15.3	100.0(5,368)	18.0 *
읍·면부	1.5	7.9	19.1	0.3	8.8	43.6	0.3	1.1	17.5	100.0(796)	
가구원 수											
1인	4.8	16.8	29.6	0.8	6.4	23.2	-	3.2	15.2	100.0(125)	-
2인	3.6	13.9	14.8	1.7	16.1	33.0	0.2	2.6	14.1	100.0(872)	
3~4인	1.5	10.1	20.3	0.4	8.7	41.3	0.2	2.2	15.3	100.0(4,284)	
5인 이상	1.2	9.6	21.4	-	6.7	41.6	0.6	0.5	18.4	100.0(88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3	25.0	10.0	1.3	8.8	30.0	1.3	7.5	15.0	100.0(80)	153.0 ***
100~200만	2.8	11.6	14.5	0.8	11.9	38.5	0.5	2.6	16.8	100.0(387)	
200~300만	2.2	11.0	16.6	1.0	10.9	38.1	0.1	2.4	17.7	100.0(1,145)	
300~400만	2.1	7.7	17.6	0.7	9.7	43.7	0.5	2.1	16.0	100.0(1,404)	
400~500만	1.4	10.0	21.6	0.4	10.2	39.5	0.1	1.1	15.7	100.0(1,132)	
500 이상	1.5	12.2	23.8	-	7.4	38.9	0.2	1.9	13.9	100.0(2,017)	
육구소득											
1 미만	1.4	19.4	10.1	0.7	11.5	31.7	0.7	5.8	18.7	100.0(139)	128.5 ***
1~2 미만	1.9	8.9	16.9	0.3	7.7	44.3	0.6	2.0	17.3	100.0(1,175)	
2~3 미만	1.9	8.6	18.0	0.8	10.9	40.6	0.2	1.6	17.4	100.0(2,055)	
3~4 미만	1.6	11.9	22.0	0.4	8.9	39.6	0.1	1.4	14.1	100.0(1,207)	
4 이상	1.8	13.1	23.6	0.4	9.2	36.1	0.3	2.5	13.0	100.0(1,552)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1명에 전일제 근무와 비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2명 이상에 전일제 근무와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였다. 욕구소득비별로도 대체로 욕구소득비가 낮은 경우 자녀 1명에 비취업과 자녀 2명 이상에 시간제 또는 비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 자녀 2명 이상에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였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20대 연령층은 자녀 2명 이상에 시간제 근무를, 중장년층은 자녀 1명에 전일제 또는 2명 이상에 전일제 근무와 비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와 이혼·별거 여성은 자녀 2명 이상에 시간제 근무를, 사별여성은 자녀 1명에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여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에서는 자녀 2명 이상에 시간제 근무와 비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고학력층은 자녀 1명에 전일제 또는 자녀 2명 이상에 전일제를 희망하였다. 현존 자녀수가 없거나 1명인 경우는 자녀 1명에 시간제 근무를, 현존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자녀 2명 이상에 시간제, 전일제 그리고 비취업 형태 등을 다양하게 희망하였다.

〈표 11-35〉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이상적인 자녀구성 및 일(직장) 형태

(단위: %, 명)

특성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비취업			계(수)	χ^2
	무자녀	자녀1명	자녀2명 이상	무자녀	자녀1명	자녀2명 이상	무자녀	자녀1명	자녀2명 이상		
전체	1.8	10.7	19.9	0.5	9.4	39.8	0.3	2.0	15.6	100.0(6,164)	
연령											
15~24세	-	9.5	7.9	-	15.9	38.1	-	11.1	17.5	100.0(63)	117.8 ***
25~29세	3.3	9.6	17.6	0.5	12.2	40.5	-	1.6	14.6	100.0(425)	
30~34세	1.5	7.8	19.2	0.3	9.8	44.7	-	2.2	14.5	100.0(1,109)	
35~39세	2.3	10.9	19.8	0.9	10.7	39.0	0.4	1.4	14.5	100.0(1,397)	
40~44세	2.1	12.3	18.2	0.5	8.9	38.4	0.2	2.3	17.0	100.0(1,681)	
45~49세	1.0	11.2	23.4	0.4	7.4	38.4	0.4	1.7	16.0	100.0(1,489)	
혼인상태											
유배우	1.8	10.1	19.8	0.5	9.5	40.3	0.2	2.0	15.9	100.0(5,790)	
사별	1.4	33.8	17.6	-	5.4	27.0	2.7	2.7	9.5	100.0(74)	
이혼·별거	3.7	15.3	22.9	1.0	9.6	33.6	-	2.7	11.3	100.0(3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6	9.7	15.3	0.6	10.9	42.2	-	1.5	19.2	100.0(339)	50.5 ***
고등학교	1.9	11.1	18.8	0.8	8.2	39.3	0.2	2.1	17.5	100.0(2,924)	
대학 이상	1.9	10.3	21.4	0.3	10.4	40.1	0.3	2.1	13.2	100.0(2,900)	
현존자녀수											
없음	5.8	12.2	13.7	2.6	17.6	31.5	0.2	3.0	13.4	100.0(539)	693.4 ***
1명	1.1	20.4	14.1	0.7	16.4	30.0	0.1	3.9	13.3	100.0(1,608)	
2명 이상	1.6	6.6	23.0	0.2	5.5	44.9	0.3	1.1	16.8	100.0(4,016)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기혼여성의 현 자녀구성 및 일 형태별로 살펴보면, 현 자녀구성 및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자녀 2명 이상에 시간제 근무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였고, 그 비율은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자녀 2명 이상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일제 취업 또는 비취업이면서 현재 무자녀인 경우는 자녀 1명과 자녀 2명 이상이면서 현 근무형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리고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자녀가 1명 또는 2명 이상 이면서 현재 자녀구성과 근무형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표 11-36〉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구성 및 일 형태별 이상적인 자녀구성 및 일(직장) 형태

(단위: %, 명)

구분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비취업			계(수)	χ^2
	무자녀	자녀1명	자녀2명 이상	무자녀	자녀1명	자녀2명 이상	무자녀	자녀1명	자녀2명 이상		
전체	1.8	10.7	19.9	0.5	9.4	39.8	0.3	2.0	15.6	100.0(6,034)	
전일 취업											
무자녀	5.6	13.2	14.6	2.4	16.7	34.5	-	3.1	9.8	100.0(287)	
자녀 1명	0.6	27.8	19.6	-	12.2	29.1	0.2	1.9	8.6	100.0(616)	
자녀 2명 이상	1.8	6.6	32.3	0.1	4.8	40.7	0.2	0.6	12.7	100.0(1,632)	
시간제 취업											
무자녀	7.4	-	7.4	-	22.2	51.9	-	-	11.1	100.0(27)	
자녀 1명	1.6	20.0	12.8	5.6	24.0	25.6	-	3.2	7.2	100.0(125)	
자녀 2명 이상	1.2	6.9	18.2	-	4.6	57.1	0.2	0.5	11.3	100.0(434)	
비취업											
무자녀	5.6	12.0	13.9	2.8	17.1	25.9	0.5	3.7	18.5	100.0(216)	
자녀 1명	1.5	15.5	10.5	0.5	18.4	31.9	-	5.6	16.2	100.0(827)	
자녀 2명 이상	1.6	6.5	16.6	0.3	6.2	44.7	0.5	1.8	21.8	100.0(1,870)	

주: 1) 현 자녀구성 및 일 형태 구성 과정에서 130사례수 결측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결혼 전·후44)의 취업실태

본 절에서는 결혼 전·후 기혼여성의 취업변화를 분석하고,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고용상과 취업직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취업중단 이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혼여성의 결혼 전·후 취업수준 변화

기혼여성의 결혼 직전에 87.5%였던 취업률은 결혼 직후 47.8%로 39.7%pt 감소하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결혼직전과 결혼직후 취업률은 2012년 각각 4.2%pt와 6.2%pt 높아졌고, 그 차이는 다소 줄었다.

44) 결혼직전과 직후의 기준은 결혼 전·후 3~6개월의 기간을 말하며, 결혼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 경우는 1년이 소요된 경우도 포함한다.

가구특성별로 기혼여성의 결혼직전·직후 취업률을 보면, 지역별로는 결혼직전 취업률은 동부지역 거주여성이 읍·면부지역보다 다소 높았고 결혼직후 취업률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도시지역이 농어촌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았다. 가구원 수별로는 결혼직전 취업률은 1인가구보다 2인 이상 가구에서 높았고, 결혼직후 취업률은 2인 가구가 1인과 3인 이상가구보다 높아서 2인가구가 취업지속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4인 가구로 나타났다.

〈표 11-37〉 기혼여성의 결혼직전·결혼직후 취업률 변화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결혼직전 취업률	결혼직후 취업률
2009	(6,723)	83.3	41.6
2012	(6,218)	87.5	47.8
지역			
동부	(5,419)	87.8	48.8
읍·면부	(799)	85.2	40.8
가구원 수			
1인	(126)	68.3	27.0
2인	(882)	87.5	55.0
3~4인	(4,319)	88.1	48.2
5인 이상	(890)	87.0	41.6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1)	80.2	44.4
100~200미만	(394)	74.1	35.5
200~300미만	(1,148)	82.1	39.5
300~400미만	(1,420)	89.3	46.2
400~500미만	(1,144)	89.2	46.6
500 이상	(2,029)	91.1	56.9
가구소득			
1 미만	(142)	77.5	36.6
1~2 미만	(1,183)	82.0	39.6
2~3 미만	(2,070)	87.1	42.2
3~4 미만	(1,224)	88.3	48.1
4 이상	(1,563)	92.1	62.0

자료: <표 11-1>과 동일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결혼직전단계의 취업률이 높았고 결혼직후에도 대체로 유사하여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은 편이었다. 욕구소득비별로도 가구소득과 유사하여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 취업지속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결혼직전·직후 취업률을 보면, 연령별로는 결혼직전 취업률은 대체로 20대 이후부터 30대 연령층까지 높아지다 40대 이후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결혼직후 취업률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 연령층의 취업지속성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결혼직전 및 결혼직후 취업률은 유배우 여성이 사별 및 이혼·별거 여성보다 다소 높아서 유배우 여성의 취업지속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별, 이혼·별거 여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결혼직전 취업률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결혼직후 취업률도 유사하여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취업지속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존자녀수별로는 결혼직전 취업률은 무자녀가 유자녀보다 높았고, 결혼직후 취업률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무자녀가 유자녀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았고, 자녀 1명이 2명보다 높았다.

〈표 11-38〉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직전·결혼직후 취업률 변화

(단위: %, 명)

특성	(분배대상수)	결혼직전 취업률	결혼직후 취업률
2009	(6,723)	83.3	41.6
2012	(6,218)	87.5	47.8
연령			
15~24세	(63)	55.6	25.4
25~29세	(430)	85.3	49.1
30~34세	(1,120)	91.8	62.9
35~39세	(1,406)	92.9	54.8
40~44세	(1,697)	86.4	43.8
45~49세	(1,502)	82.3	35.1
혼인상태			
유배우	(5,834)	88.0	48.4
사별	(76)	78.9	48.0
이혼·별거	(308)	78.6	36.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342)	70.2	29.2
고등학교	(2,946)	86.2	37.2
대학 이상	(2,926)	90.8	60.7
현존자녀수			
없음	(550)	90.9	67.6
1명	(1,619)	87.2	53.0
2명 이상	(4,049)	87.1	43.0

자료: <표 11-1>과 동일

2. 기혼여성의 결혼 전·후 직종 및 종사상 지위 변화

결혼직전 취업에서 결혼직후 비취업으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결혼 전·후에도 계속 취업 중인 경우 직종 및 종사상 지위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직전 취업 중인 여성 중에서 54.1%만이 결혼 직후에도 계속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5.9%는 결혼 직후 무직으로 나타났다. 결혼 직후 취업지속성은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혼을 계기로 다

수의 여성이 취업을 중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종별로 결혼직후 취업지속비율은 관리자가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71.2%, 사무직 종사자 52.1%,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50.3%로 높은 편이었으며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임·어업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 등은 약 39~42%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전문직에 비해 비전문직의 경우 취업지속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표 11-39〉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직전·직후 취업여부 및 직종¹⁾

(단위: %, 명)

결혼직전 직종	결혼직후 취업여부 및 직종								계(수)	χ^2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어업	단순노무직 및 기타	무직자		
전체	0.2	15.0	22.8	10.2	3.2	0.6	2.1	45.9	100.0(5,435)	
관리자	68.8	-	6.3	-	-	-	-	25.0	100.0(1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70.3	0.3	0.5	-	0.1	-	28.8	100.0(1,143)	
사무직 종사자	0.1	0.3	50.0	1.2	0.1	0.4	0.1	47.9	100.0(2,468)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	0.3	0.4	48.6	0.3	0.2	0.5	49.7	100.0(1,032)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	1.1	35.1	1.9	0.6	61.3	100.0(476)	
농·임·어업	-	-	-	-	-	20.0	20.0	60.0	100.0(5)	
단순노무직 및 기타	-	-	-	5.4	-	2.4	33.9	58.3	100.0(295)	

주: 1) 결혼직전 취업여성, 결혼직후는 취업과 비취업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직전·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직종 간에 연속성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결혼직전 취업했던 직종에 결혼직후에도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 판매종사자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은 90.8~98.6%가 동일 직종에 종사하였다. 이 외에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은 결혼직전과

직후 동일 직종 종사비율이 81.3%였으며, 농·임·어업은 동일직종이 50.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단순 노무직 및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결혼직후 취업지속비율은 고용주가 7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 등은 약 57~60%가 취업을 지속하였고,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약 54%로 다른 종사상 지위에 비해 낮았다.

결혼직전과 직후 종사상지위 간에 연속성을 보면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그리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종사한 경우는 모두 90% 이상이 동일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한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70% 수준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경된 경우가 많았다. 결혼직전 임시근로자였던 경우는 결혼 직후 무급가족종사자가 된 경우가 일부 나타났으며, 결혼직전 무급가족종사자였으나 결혼직후 임시근로자(20.0%), 일용근로자(10.0%)가 된 경우도 일부 있었다.

〈표 11-40〉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직전·직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¹⁾

(단위: %, 명)

결혼직전 종사상 지위	결혼직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계(수)	χ^2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무직자		
전체	1.0	2.9	41.9	6.3	0.7	1.3	45.9	100.0(5,429)	
고용주	73.8	-	1.6	-	1.6	-	23.0	100.0(61)	-
자영업자	0.5	56.7	1.4	0.5	-	1.0	39.9	100.0(208)	
상용근로자	0.2	0.7	51.2	0.4	0.1	1.1	46.4	100.0(4,433)	
임시근로자	0.2	1.4	0.6	48.9	0.3	2.2	46.5	100.0(648)	
일용근로자	-	3.2	-	-	53.2	-	43.5	100.0(62)	
무급가족종사자	-	-	-	11.8	5.9	41.2	41.2	100.0(17)	

주: 1) 결혼 직전은 취업여성, 결혼직후는 취업과 비취업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3. 기혼여성의 결혼 전·후 취업직장의 변화

결혼 직전과 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경우 2012년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91.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5.0%,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에 하게 된 경우 3.4%, 자영업이었다가 직장으로 옮긴 경우 0.2%,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0.1%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높아졌고, 다른 직장 근무, 자영업으로 전직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가구특성별로 결혼 전·후 취업직장의 변화를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와 읍·면부지역 모두 동일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는 동부가 읍·면부보다 많았다. 이외에 읍·면부는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전직한 경우도 많은 편이었다. 가구원 수별로는 모든 가구원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1인가구는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전직한 경우, 5인 이상 가구는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등이 일부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층에서 동일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는 고소득층에서 높은 특성을 보였으며,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자영업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일부 나타났다. 욕구소득비별로도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는데 비해,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비율이 높았다.

〈표 11-41〉 결혼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χ^2
2009	88.5	6.4	4.2	0.2	0.7	100.0(2,693)	
2012	91.3	5.0	3.4	0.2	0.1	100.0(2,942)	
지역							
동부	92.3	5.0	2.3	0.2	0.2	100.0(2,623)	-
읍·면부	82.4	5.0	12.2	0.3	-	100.0(319)	
가구원 수							
1인	87.5	3.1	6.3	3.1	-	100.0(32)	-
2인	89.3	5.0	5.2	0.4	-	100.0(477)	
3~4인	92.1	4.8	3.0	-	0.1	100.0(2,064)	
5인 이상	89.7	6.2	3.0	0.8	0.3	100.0(370)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1.8	9.1	6.1	3.0	-	100.0(33)	-
100~200미만	83.6	10.4	6.0	-	-	100.0(134)	
200~300미만	87.1	8.0	4.5	0.4	-	100.0(449)	
300~400미만	90.1	5.7	3.9	0.3	-	100.0(649)	
400~500미만	91.1	4.9	4.0	-	-	100.0(531)	
500 이상	94.6	2.8	2.2	0.1	0.3	100.0(1,148)	
가구소득							
1 미만	87.5	10.4	2.1	-	-	100.0(48)	-
1~2 미만	88.5	7.0	4.3	0.2	-	100.0(460)	
2~3 미만	88.2	6.7	4.6	0.5	-	100.0(864)	
3~4 미만	92.8	5.2	1.9	-	0.2	100.0(582)	
4 이상	94.5	2.4	2.8	-	0.3	100.0(964)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결혼 전·후 취업직장의 변화를 보면,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저연령층에서 동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도 모두 동일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일직장 유지는 유배우와 이혼·별거 여성이 사별 여성보다 많았으며, 사별여성은 자영업으로 전직한 경우, 이혼·별거여성은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가 일부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학력층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는 고학력층에서 많았다. 미미하나 중학교 이하는 다른 학력층에 비해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자영업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었다.

〈표 11-42〉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χ^2
2009	88.5	6.4	4.2	0.2	0.7	100.0(2,693)	
2012	91.3	5.0	3.4	0.2	0.1	100.0(2,942)	
연령							
15~24세	92.3	7.7	-	-	-	100.0(13)	-
25~29세	94.3	2.9	2.9	-	-	100.0(210)	
30~34세	94.3	4.1	1.4	0.1	-	100.0(700)	
35~39세	90.5	6.1	3.3	-	0.1	100.0(765)	
40~44세	90.7	5.5	3.7	-	0.1	100.0(733)	
45~49세	87.9	4.8	6.0	1.0	0.4	100.0(520)	
혼인상태							
유배우	91.5	4.9	3.4	0.2	0.1	100.0(2,797)	-
사별	77.8	8.3	11.1	2.8	-	100.0(36)	
이혼·별거	90.7	8.3	0.9	-	-	100.0(10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6.3	10.8	11.8	1.1	-	100.0(93)	-
고등학교	86.3	6.9	6.3	0.4	0.1	100.0(1,081)	
대학이상	95.1	3.6	1.2	-	0.1	100.0(1,768)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4. 기혼여성의 결혼 전·후 취업중단 이유

결혼직전 취업 중이었다가 결혼직후 취업을 중단한 이유는 2012년 ‘결혼 때문’이 88.4%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배우자나 기타 가족의 반대’, ‘자녀양육 때문에’ 등의 순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결혼과 자녀양육 때문 비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배우자 및 기타 가족 반대 때문

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결혼직후 취업중단이유를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결혼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45~49세에서 높았다. 15~29세는 다른 연령에 비해 자녀양육 때문이, 35~44세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 반대가 많은 편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두 결혼때문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이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표 11-43〉 15~64세 기혼가구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직후 취업중단 이유

(단위: %, 명)

특성	결혼 때문에	배우자, 기타가 족 반대	회사에 서 나가기 를 원해서	자녀 양육 때문에	부모, 기타 가족부 양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기타 ¹⁾	계(수)	χ^2
2009	89.3	4.4	0.7	3.9	0.3	0.6	0.6	100.0(2,840)	
2012	88.4	5.7	1.0	2.7	0.2	0.7	1.3	100.0(2,489)	
연령									
15~29세	84.2	3.4	2.8	8.5	-	-	1.1	100.0(177)	
30~34세	87.8	4.3	0.9	4.0	0.3	1.8	0.9	100.0(328)	
35~39세	85.3	7.4	0.4	2.8	0.4	1.7	2.0	100.0(539)	
40~44세	87.8	6.4	1.2	2.2	0.1	0.1	2.1	100.0(730)	
45~49세	92.7	4.9	0.7	1.0	0.3	0.1	0.3	100.0(714)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90.0	4.6	0.8	2.3	0.3	0.6	1.3	100.0(1,597)	15.4*
대학 이상	85.5	7.8	1.2	3.3	0.1	0.7	1.5	100.0(889)	
취업직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4.3	9.4	2.1	2.7	-	0.6	0.9	100.0(331)	
사무직·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88.4	5.2	0.9	2.7	0.2	0.8	1.7	100.0(1,688)	
기타 ²⁾	91.4	4.9	0.2	2.4	0.4	0.2	0.4	100.0(467)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양자	90.5	4.2	-	1.1	-	-	4.2	100.0(95)	
상용근로자	88.2	5.9	1.1	2.6	0.2	0.7	1.3	100.0(2,051)	
임시·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88.7	5.7	0.3	2.7	0.6	0.9	1.2	100.0(336)	

주: 1)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기타 등이 포함됨; 2) 취업직종의 기타에는 기능원·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임·어업, 단순노무직 및 기타 등 포함;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취업직종별로는 모든 직종에서 결혼 때문이 가장 많았고, 미미하나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 배우자 및 기타 가족 반대도 많은 편이었다. 종사상지위별로도 결혼 때문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상용근로자는 다른 종사상 지위에 비해 배우자 및 기타 가족 반대도 다소 많았다.

제4절 첫째아 출산 전·후⁴⁵⁾의 취업실태

1.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수준 변화

첫째아 출산전에 31.0%였던 취업률은 첫째아 출산 후 25.4%로 5.6%pt 감소하였고, 2009년과 비교하면 첫째아 출산 전과 출산 후 취업률은 2012년 각각 3.4%pt와 3.6%pt 높아졌으며, 그 차이도 다소 줄었다.

가구특성별로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률을 보면, 지역별로는 첫째아 출산 전 취업률은 동부지역 거주여성이 읍·면부지역보다 다소 높았고 첫째아 출산 후 취업률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도시지역이 농어촌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았다. 가구원 수별로는 첫째아 출산 전 취업률은 1~2인가구보다 3인 이상가구에서 높았고, 첫째아 출산 후 취업률도 유사하여 3인 이상 가구가 1~2인 가구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첫째아 출산 전 취업률은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았으나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첫째아 출산 후 취업률도 유사하

45) 첫째아 출산 직전과 직후의 기준은 첫째아 출산 전·후 3~6개월의 기간을 말하며, 출산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 경우는 1년이 소요된 경우도 포함된다.

여 다른 소득층에 비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취업지속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욕구소득비별로는 첫째아 출산 전 취업률은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 높은 편이었고, 첫째아 출산 후 취업률도 비슷하여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 취업지속성이 높았다.

〈표 11-44〉 15~49세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직전·출산직후 취업률 변화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첫째아 출산전 취업률	첫째아 출산후 취업률
2009	(6,199)	27.6	21.8
2012	(5,668)	31.0	25.4
지역			
동부	(4,937)	31.6	25.9
읍·면부	(730)	26.8	21.9
가구원 수			
1인	(108)	13.9	11.2
2인	(383)	22.5	19.1
3~4인	(4,287)	32.6	26.4
5인 이상	(888)	28.7	2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76)	23.7	17.3
100~200미만	(354)	20.3	13.9
200~300미만	(1,007)	19.6	14.1
300~400미만	(1,283)	25.0	17.2
400~500미만	(1,041)	27.9	23.5
500 이상	(1,907)	44.9	40.3
욕구소득			
1 미만	(135)	23.0	17.8
1~2 미만	(1,145)	20.2	13.8
2~3 미만	(1,933)	24.6	18.5
3~4 미만	(1,091)	32.3	27.3
4 이상	(1,330)	48.6	44.1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률을 보면, 연령별로는 첫째아 출산 전 취업률은 대체로 20대 이후부터 30~34세 연령층까

지 높아지다 35세 이후부터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첫째아 출산 후 취업률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 연령층의 취업지속성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첫째아 출산 전 취업률은 사별여성이 유배우 및 이혼·별거 여성보다 높았고, 첫째아 출산 후 취업률도 유사하여 사별여성의 취업지속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유배우, 이혼·별거 여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45〉 기혼여성의 특성별 첫째아 출산직전·출산직후 취업률 변화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첫째아 출산전 취업률	첫째아 출산후 취업률
2009	(6,199)	27.6	21.8
2012	(5,668)	31.0	25.4
연령			
15~24세	(48)	12.5	12.5
25~29세	(261)	21.1	16.4
30~34세	(932)	43.5	33.8
35~39세	(1,323)	36.1	29.9
40~44세	(1,637)	27.2	23.1
45~49세	(1,464)	24.8	20.7
혼인상태			
유배우	(5,302)	31.5	25.7
사별	(76)	40.8	38.7
이혼·별거	(289)	18.7	15.6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323)	17.0	15.5
고등학교	(2,768)	20.2	15.9
대학 이상	(2,571)	44.4	36.9
현존자녀수			
없음	(12)	25.0	25.0
1명	(1,611)	36.7	30.6
2명 이상	(4,044)	28.7	23.3

자료: <표 11-1>과 동일

교육수준별로는 첫째아 출산 전 취업률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첫째아 출산 후 취업률도 유사하여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취업지

속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존자녀수별로는 첫째아 출산 전 취업률은 유자녀가 무자녀보다 높았고, 첫째아 출산 후 취업률은 자녀 1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무자녀, 2명 이상 순으로 높아서 취업지속성은 자녀 1명, 무자녀, 자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첫째아 출산전·후 직종 및 종사상 지위 변화

첫째아 출산 전 취업에서 출산 후 비취업으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첫째아 출산 전·후에도 계속 취업 중인 경우 직종 및 종사상 지위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아 출산직전 취업 중인 여성 중에서 76.8%가 첫째아 출산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하였고, 23.2%는 첫째아 출산 직후 무직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직후 취업지속성은 2/3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혼직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직종별로 첫째아 출산직후 취업지속비율은 농·임·어업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관리자가 각각 84.0%와 83.3%로 높았고, 또한 서비스·판매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순으로 높았다.

첫째아 출산직전·직후 직종 간의 연속성을 보면, 관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종사자, 농·임·어업,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기타는 첫 자녀 출산 전·후 모두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83.8%가 동일직종에 종사하였고, 일부는 서비스·판매직으로 변경되었으며, 사무직 종사자는 72.8%가 동일직종, 일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로 변경되었다.

〈표 11-46〉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여부 및 직종¹⁾

(단위: %, 명)

첫째아 출산전 직종	첫째아 출산후 취업여부 및 직종								계(수)	χ^2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 판매 직 종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 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무직자		
전체	0.3	26.0	29.8	13.4	3.2	1.8	2.3	23.2	100.0(1,755)	
관리자	83.3	-	-	-	-	-	-	16.7	100.0(6)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83.8	-	0.2	-	-	-	16.0	100.0(544)	
사무직 종사자	-	0.1	72.8	0.1	-	-	-	26.9	100.0(718)	
서비스·판매직종사자	-	-	-	74.9	-	-	-	25.1	100.0(311)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	-	-	64.8	-	-	35.2	100.0(88)	
농·임·어업	-	-	-	-	-	100.0	-	-	100.0(31)	
단순노무직 및 기타	-	-	-	-	-	-	70.2	29.8	100.0(57)	

주: 1) 첫 자녀 출산직전은 취업여성, 출산직후는 취업과 비취업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종사상지위별로 첫째아 출산직후 취업지속비율은 무급가족종사자가 9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영업자, 고용주 및 상용근로자 등이 약 77~87%로 높은 편이었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약 52~63%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첫째아 출산 전·후 종사상 지위의 변화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에서 일부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 전 자영업자였으나 상용근로자로 변경된 경우가 일부 나타났으며, 첫째아 출산 전 상용근로자에서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변경된 경우도 일부 있었다. 그리고 첫째아 출산 전 임시근로자에서 일부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로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표 11-47〉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¹⁾

(단위: %, 명)

첫 자녀 출산직전 종사상 지위	첫 자녀 출산직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계(수)	χ^2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무직자		
전체	1.4	5.5	57.2	6.0	0.9	5.8	23.2	100.0(1,755)	
고용주	79.3	-	-	-	-	-	20.7	100.0(29)	-
자영업자	-	86.0	0.9	-	-	-	13.1	100.0(107)	
상용근로자	-	0.2	75.9	0.1	0.2	0.2	23.5	100.0(1,321)	
임시근로자	0.6	1.2	0.6	60.5	-	-	37.2	100.0(172)	
일용근로자	-	-	-	-	52.2	-	47.8	100.0(23)	
무급가족종사자	-	-	-	-	-	97.1	2.9	100.0(103)	

주: 1) 첫 자녀 출산직전은 취업여성, 출산직후는 취업과 비취업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3.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 전·후 직장의 변화

첫째아 출산 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경우 2012년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95.9%였고, 이 외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3.5%,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 0.4%, 자영업에서 직장은 0.1%,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0.1% 등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높아졌고, 다른 직장 근무, 자영업으로 전직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가구특성별로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직장의 변화를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와 읍·면부지역 모두 동일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는 동부가 읍·면부보다 많았다. 이외에 읍·면부는 미미하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전직한 경우도 일부 나타났다. 가구원 수별로는 모든 가구원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또한 1인가구는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가 다른 가구에 비해 약 6배까지 많았다.

〈표 11-48〉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지속 기혼여성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χ^2
2009	93.9	4.7	0.8	-	0.6	100.0(1,221)	
2012	95.9	3.5	0.4	0.1	0.1	100.0(1,347)	
지역							
동부	96.0	3.4	0.4	0.1	0.1	100.0(1,203)	-
읍·면부	95.1	4.2	0.7	-	-	100.0(144)	
가구원 수							
1인	83.3	16.7	-	-	-	100.0(12)	-
2인	95.7	4.3	-	-	-	100.0(70)	
3~4인	96.8	2.6	0.5	-	0.1	100.0(1,066)	
5인 이상	91.9	7.1	0.5	0.5	-	100.0(19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92.3	7.7	-	-	-	100.0(13)	-
100~200만원	97.8	2.2	-	-	-	100.0(45)	
200~300만원	92.2	7.8	-	-	-	100.0(116)	
300~400만원	91.2	7.8	1.0	-	-	100.0(205)	
400~500만원	95.4	3.2	0.9	-	0.5	100.0(217)	
500 이상	98.0	1.7	0.1	0.1	-	100.0(750)	
옥구소득							
1 미만	95.0	5.0	-	-	-	100.0(20)	-
1~2 미만	87.8	12.2	-	-	-	100.0(139)	
2~3 미만	95.9	3.2	0.6	0.3	-	100.0(314)	
3~4 미만	96.8	2.1	0.7	-	0.4	100.0(281)	
4 이상	97.6	2.3	0.2	-	-	100.0(575)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층에서 동일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는 100~2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이 높아서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100만원 미만에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일부 나타났다. 옥구소득비별로도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옥구소득비가 높은 경우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옥구소득비가 1~2 미만인 경우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다른 옥구소득비에 비해 약 6배까지 많았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직장의 변화를 보면, 연령별로는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30대와 45~49세 연령층에서 높은 편이었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표 11-49〉 기혼여성의 특성별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지속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χ^2
2009	93.9	4.7	0.8	-	0.6	100.0(1,221)	
2012	95.9	3.5	0.4	0.1	0.1	100.0(1,347)	
연령							
15~24세	100.0	-	-	-	-	100.0(5)	-
25~29세	94.3	2.9	2.9	-	-	100.0(35)	
30~34세	97.3	2.7	-	-	-	100.0(296)	
35~39세	96.0	3.8	0.3	-	-	100.0(372)	
40~44세	94.2	5.2	0.3	-	0.3	100.0(346)	
45~49세	96.3	2.4	1.0	0.3	-	100.0(295)	
혼인상태							
유배우	96.1	3.3	0.5	0.1	0.1	100.0(1,276)	-
사별	96.6	3.4	-	-	-	100.0(30)	
이혼·별거	92.7	7.3	-	-	-	100.0(4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3.2	6.8	-	-	-	100.0(44)	-
고등학교	93.4	5.5	1.1	-	-	100.0(380)	
대학 이상	97.1	2.5	0.2	0.1	0.1	100.0(923)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혼인상태별로는 모두 동일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일직장 유지는 사별과 유배우 여성이 이혼·별거 여성보다 많았으며, 이혼·별거 여성은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가 유배우 및 사별여성보다 약 2배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학력층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는 고학력층에서 많았다. 미

미하나 중학교 이하는 다른 학력층에 비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다소 많은 편이었다.

4.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중단 이유

첫째아 출산 전 취업 중이었다가 출산 후 취업을 중단한 이유는 2012년 ‘자녀양육 때문’이 92.7%로 나타나서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취업중단이 주를 이루었다. 미미하나 ‘결혼 때문’, ‘배우자 및 기타 가족 반대’,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등도 일부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 ‘건강이 안 좋아서’와 ‘기타’ 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자녀양육’, ‘결혼’, ‘배우자·기타 가족 반대’,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등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중단이유를 보면,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15~29세와 30~34 연령층에서 높았으며, 회사 때문에 중단한 비율은 15~29세 연령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두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많았고 이는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이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보다 다소 많았으며, 나머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직종별로는 모든 직종에서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관리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 배우자·기타 가족 반대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이,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 등은 결혼 때문에 중단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종사상지위별로도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상용근로자는 결혼 때문과 건강이 안 좋아서가, 임시·일용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 반대 경우도 일부 나타났다.

〈표 11-50〉 15~64세 기혼가구 기혼여성의 특성별 첫째아 출산직후 취업중단 이유

(단위: %, 명)

특성	결혼 때문에	배우자, 기타가 족 반대	회사에 서 나가기 를 원해서	자녀 양육 때문에	부모, 기타 가족부 양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기타 ¹⁾	계(수)	χ^2
2009	0.6	1.7	0.6	92.2	-	2.1	2.8	100.0(482)	
2012	1.7	2.2	1.0	92.7	-	1.7	0.7	100.0(405)	
연령									
15~29세	-	-	4.5	95.5	-	-	-	100.0(22)	
30~34세	0.9	3.7	-	94.5	-	-	0.9	100.0(109)	
35~39세	1.9	1.9	1.9	91.3	-	2.9	-	100.0(104)	
40~44세	1.0	2.0	1.0	92.0	-	3.0	1.0	100.0(100)	
45~49세	4.3	1.4	-	92.8	-	-	1.4	100.0(69)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6	1.1	1.1	94.2	-	0.5	1.6	100.0(190)	
대학 이상	1.9	3.3	0.9	91.6	-	2.3	-	100.0(214)	
취업직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	3.4	-	92.0	-	3.4	-	100.0(88)	
사무직·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1.1	2.2	1.1	94.0	-	0.7	0.7	100.0(267)	
기타 ²⁾	6.1	-	2.0	89.8	-	2.0	-	100.0(49)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	-	-	100.0	-	-	-	100.0(20)	
상용근로자	2.3	1.6	1.0	92.5	-	2.0	0.7	100.0(307)	
임시·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	5.1	1.3	91.0	-	1.3	1.3	100.0(78)	

주: 1)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기타 등이 포함됨; 2) 취업직종의 기타에는 기능원·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임·어업, 단순노무직 및 기타 등 포함;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제5절 막내아 출산 전·후(46)47)의 취업실태

1.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수준 변화

막내아 출산전에 25.8%였던 취업률이 막내아 출산 후 24.8%로 감소하였다.⁴⁸⁾ 2009년과 비교하면 막내아 출산 직전과 출산 직후 취업률은 2012년 각각 2.3%p와 2.4%p 높아졌고, 그 차이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가구특성별로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률을 보면, 지역별로는 막내아 출산직전 취업률은 동부지역 거주여성이 읍·면부지역보다 다소 높았고, 막내아 출산직후 취업률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도시지역이 농어촌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았다. 가구원 수별로는 막내아 출산 직전 취업률은 1~2인가구보다 3인 이상가구에서 높았고, 막내아 출산 후 취업률도 유사하여 3인 이상 가구가 1~2인 가구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막내아 출산 전 취업률은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았으나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막내아 출산 후 취업률도 유사하여 다른 소득층에 비해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취업지속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욕구소득비별로는 막내아 출산 전 취업률은 욕구소득비 4 이상이 가장 높았으나 일관되지 않았고, 막내아 출산 후 취업률은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 높아서 대체로 취업지속성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46) 막내아란 출산을 완료한 경우 마지막 출생아를 말하며,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출산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된다.

47) 막내아 출산 직전과 직후의 기준은 막내아 출산 전·후 3~6개월의 기간을 말하며, 출산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 경우는 1년이 소요된 경우도 포함된다.

48) 여성부 외(2009) 조사에서는 결혼직전과 직후에 전체의 45.6% 정도가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경험이 있었으며, 출산 전·후로는 23.6%가 퇴직하여 결혼 및 출산에 의해 약 69.2%가 취업을 중단하였다.

〈표 11-51〉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률 변화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막내아 출산직전 취업률	막내아 출산직후 취업률
2009	(6,194)	23.5	22.4
2012	(4,931)	25.8	24.8
지역			
동부	(4,307)	26.4	25.3
읍·면부	(624)	22.3	20.7
가구원 수			
1인	(105)	16.2	16.2
2인	(373)	21.7	19.8
3~4인	(3,623)	26.6	25.3
5인 이상	(829)	25.6	25.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7)	29.9	23.9
100~200 미만	(304)	19.1	16.8
200~300 미만	(798)	15.8	15.9
300~400 미만	(1,102)	16.9	15.6
400~500 미만	(944)	23.2	21.6
500 이상	(1,716)	38.8	38.0
육구소득			
1 미만	(116)	19.0	16.2
1~2 미만	(973)	16.2	16.3
2~3 미만	(1,661)	19.6	17.9
3~4 미만	(967)	26.7	26.1
4 이상	(1,180)	41.6	40.4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률을 보면, 연령별로는 막내아 출산 전 취업률은 대체로 25~29세 이후부터 30~34세 연령층까지 높아지다 35세 이후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막내아 출산 직후 취업률은 15~24세 이후부터 35~39세까지 높아지다 40세 이후부터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률 변화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취업지속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 연령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막내아 출산 직전 취업률은 사별여성이 유

배우 및 이혼·별거 여성보다 훨씬 높았고, 막내아 출산 직후 취업률도 유사하여서 사별여성의 취업지속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배우, 이혼·별거 여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52〉 기혼여성의 특성별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률 변화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막내아 출산직전 취업률	막내아 출산직후 취업률
2009	(6,194)	23.5	22.4
2012	(4,931)	25.8	24.8
연령			
15~24세	(16)	-	6.3
25~29세	(93)	10.8	11.8
30~34세	(567)	30.3	27.0
35~39세	(1,202)	29.7	30.0
40~44세	(1,597)	24.9	23.1
45~49세	(1,456)	23.1	22.5
혼인상태			
유배우	(4,573)	25.8	24.7
사별	(76)	40.0	39.5
이혼·별거	(282)	22.0	21.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4)	20.4	24.7
고등학교	(2,509)	17.7	16.9
대학 이상	(2,115)	36.4	34.1
현존자녀수			
없음	(10)	30.0	30.0
1명	(1,009)	33.0	29.2
2명 이상	(3,912)	24.0	23.6

자료: <표 11-1>과 동일

교육수준별로는 막내아 출산직전 취업률은 대학이상의 고학력층이 높았으나 일정하지 않았으며, 막내아 출산직후 취업률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았으며, 저학력층에서는 중학교 이하가 고등학교보다 높았다. 현존자녀수별로는 막내아 출산 직전 취업률은 자녀 1명이 무자녀 및 자녀 2명 이상보다 높았고, 막내아

출산 직후 취업률은 무자녀가 유자녀보다 높아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취업지속성은 무자녀가 유자녀보다 높았고, 자녀 1명이 2명보다 높았다.

2. 막내아 출산 전·후 직종 및 종사상 지위 변화

막내아 출산직전 취업중인 여성 중에서 88.2%인 다수가 막내아 출산 직후에도 계속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1.8%만이 막내아 출산 직후 비취업이어서 결혼직후와 첫째아 출산직후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직종별 취업지속비율은 분석대상수가 적은 관리자를 제외하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농·임·어업이 약 92~97%로 높았고, 다음은 서비스·판매종사자, 사무직,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기타 등이 약 82~87%로 높았으며,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다소 낮았다.

막내아 출산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동일 직종간 취업 여부를 살펴 보면,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종사자, 그리고 농·임·어업은 막내 자녀 출산직전·직후 모두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아 출산전·후 취업직종이 변경된 경우를 보면, 관리자는 사무직 종사자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로, 사무직 종사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로,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로 각각 변경되었다.

〈표 11-53〉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여부 및 직종¹⁾

(단위: %, 명)

막내아 출산 전 직종	막내아 출산후 취업여부 및 직종								계(수)	χ^2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 판매 직 종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 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무직자		
전체	0.3	27.1	31.1	20.3	3.4	2.9	3.1	11.8	100.0(1,273)	
관리자	80.0	-	20.0	-	-	-	-	-	100.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91.5	0.3	0.3	-	-	-	8.0	100.0(375)	
사무직 종사자	-	0.4	86.1	0.2	-	-	-	13.3	100.0(459)	
서비스·판매직종사자	-	-	-	87.0	-	-	-	13.0	100.0(293)	-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	-	-	79.6	-	-	20.4	100.0(54)	
농·임·어업	-	-	-	-	-	97.4	-	2.6	100.0(38)	
단순노무직 및 기타	-	-	-	2.0	-	-	79.6	18.4	100.0(49)	

주: 1) 막내 자녀 출산직전은 취업여성, 출산직후는 취업과 비취업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종사상지위별로 막내아 출산직후 취업지속비율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약 92~98%로 높은 편이었고,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약 84~89%로 높았으며, 임시근로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아 출산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보면,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일부 상용근로자로 변경되었으며, 상용근로자는 고용주와 임시근로자로, 임시근로자는 자영업자로,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임시근로자로 일부 변경되었다.

〈표 11-54〉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¹⁾

(단위: %, 명)

막내아 출산 전 종사상 지위	막내아 출산 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계(수)	χ^2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무직자		
전체	3.5	9.4	57.5	5.7	1.6	10.5	11.8	100.0(1,270)	
고용주	95.0	-	2.5	-	-	-	2.5	100.0(40)	-
자영업자	0.8	89.7	1.6	-	-	-	7.9	100.0(126)	
상용근로자	0.6	-	87.7	0.2	-	-	11.4	100.0(831)	
임시근로자	-	6.4	-	63.3	-	-	30.3	100.0(109)	
일용근로자	-	-	-	4.0	80.0	-	16.0	100.0(25)	
무급가족종사자	-	-	-	-	-	95.7	4.3	100.0(139)	

주: 1) 막내 자녀 출산직전은 취업여성, 출산직후는 취업과 비취업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3.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 전·후 직장의 변화

막내아 출산 전·후에는 동일직장에 근무한 경우가 94.9%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4.7%이었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나 높아졌고, 다른 직장 근무, 자영업으로 전직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가구특성별로 막내아 출산전·후 취업직장의 변화를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와 읍·면부지역 모두 동일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는 동부가 읍·면부보다 많았으며,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는 읍·면부가 동부보다 다소 많았다. 가구원 수별로는 모든 가구원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1인가구는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가 다른 가구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층에서 동일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는 400만원 이상이 많은 편이었으나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100만원 미만에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일부 나타났다. 욕구소득비별로도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욕구소득비가 4 이상인 경우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욕구소득비가 1~2 미만인 경우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다른 욕구소득비에 비해 3.5배까지 높았다.

〈표 11-55〉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지속 부인의 취업직장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χ^2
2009	93.8	5.0	0.6	-	0.6	100.0(1,170)	
2012	94.9	4.7	0.2	-	0.2	100.0(1,124)	
지역							
동부	95.1	4.5	0.2	-	0.2	100.0(1,006)	-
읍·면부	93.2	6.8	-	-	-	100.0(118)	
가구원 수							
1인	66.7	33.3	-	-	-	100.0(15)	
2인	95.9	4.1	-	-	-	100.0(73)	
3~4인	95.6	3.9	0.2	-	0.2	100.0(844)	
5인 이상	93.8	6.3	-	-	-	100.0(19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7.5	12.5	-	-	-	100.0(16)	-
100~200 미만	93.0	7.0	-	-	-	100.0(43)	
200~300 미만	92.2	7.8	-	-	-	100.0(103)	
300~400 미만	90.7	9.3	-	-	-	100.0(151)	
400~500 미만	93.7	5.3	0.5	-	0.5	100.0(190)	
500 이상	97.3	2.6	-	-	0.2	100.0(620)	
욕구소득							
1 미만	94.4	5.6	-	-	-	100.0(18)	-
1~2 미만	89.5	10.5	-	-	-	100.0(124)	
2~3 미만	96.7	3.3	-	-	-	100.0(276)	
3~4 미만	92.4	6.7	0.4	-	0.4	100.0(224)	
4 이상	96.8	3.0	-	-	0.2	100.0(464)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직장의 변화를 보면,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동일

직장 유지는 40대 연령층에서 많은 편이었으며, 35~39세 연령층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다소 많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모두 동일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일직장 유지는 사별과 유배우 여성이 이혼·별거 여성보다 많았으며, 이혼·별거 여성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유배우 및 사별여성보다 약 5배 까지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학력층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는 대학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많았고, 고등학교 이하는 다른 학력층에 비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다소 많은 편이었다.

〈표 11-56〉 기혼여성 특성별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지속 부인의 취업직장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χ^2
2009	93.8	5.0	0.6	-	0.6	100.0(1,170)	
2012	94.9	4.7	0.2	-	0.2	100.0(1,124)	
연령							
15~24세	-	-	-	-	-	-	
25~29세	100.0	-	-	-	-	100.0(7)	
30~34세	95.2	4.8	-	-	-	100.0(146)	
35~39세	93.9	5.8	0.3	-	-	100.0(311)	-
40~44세	95.9	3.8	-	-	0.3	100.0(345)	
45~49세	95.5	4.5	-	-	-	100.0(312)	
혼인상태							
유배우	95.5	4.1	0.2	-	0.2	100.0(1,042)	
사별	96.6	3.4	-	-	-	100.0(29)	-
이혼·별거	84.6	15.4	-	-	-	100.0(5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4.6	5.4	-	-	-	100.0(56)	
고등학교	91.8	7.7	0.5	-	-	100.0(378)	-
대학이상	96.7	3.0	-	-	0.3	100.0(690)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4.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중단 이유

막내아 출산 전 취업 중이었다가 출산 후 중단한 경우는 2012년 ‘자녀양육 때문’이 95.3%로 첫째아 출산 후 중단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 ‘자녀양육’, ‘건강이 안 좋아서’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배우자 및 기타 가족 반대’, ‘회사가 문을 닫아서’를 포함한 기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중단이유를 보면,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높았으며, 회사 때문에 중단한 비율은 35~39세 연령층에서 약간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두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많았고 이는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이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보다 다소 많았으며, 나머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직종별로는 모든 직종에서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관리자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도 일부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도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는 건강이 안 좋아서도 약간 나타났다.

〈표 11-57〉 15~64세 기혼가구 기혼여성 특성별 막내아 출산직후 취업중단 이유

(단위: %, 명)

특성	결혼 때문에	배우자, 기타가 족 반대	회사에 서 나가 기를 원해서	자녀 양육 때문에	부모, 기타 가족부 양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기타 ¹⁾	계(수)	χ^2
2009	1.6	3.1	0.3	91.3	-	2.1	1.6	100.0(278)	
2012	0.7	-	0.7	95.3	-	3.3	-	100.0(150)	
연령									
15~29세	-	-	-	100.0	-	-	-	100.0(3)	
30~34세	-	-	-	100.0	-	-	-	100.0(25)	
35~39세	-	-	2.2	97.8	-	-	-	100.0(46)	
40~44세	-	-	-	92.2	-	7.8	-	100.0(51)	
45~49세	4.3	-	-	95.7	-	-	-	100.0(23)	
교육수준									
고등학교	1.4	-	-	97.2	-	1.4	-	100.0(72)	
대학 이상	-	-	1.3	94.8	-	3.9	-	100.0(77)	
취업직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	93.1	-	6.9	-	100.0(29)	
사무직·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1.0	-	1.0	96.0	-	2.0	-	100.0(100)	
기타	-	-	-	95.2	-	4.8	-	100.0(21)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	-	-	100.0	-	-	-	100.0(11)	
상용근로자	1.1	-	1.1	93.6	-	4.3	-	100.0(94)	
임시·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	-	-	100.0	-	-	-	100.0(43)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제6절 막내아 초교입학 전·후⁴⁹⁾의 취업실태

1.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교입학 전·후 취업수준 변화

결혼과 출산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취업률은 막내아 초등학교 입

49) 막내아 초교 입학 직전과 직후의 기준은 막내아 초교입학 전·후 3~6개월의 기간을 말하며, 초교입학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 경우는 1년이 소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학 직전에는 40.3%로 증가하였고,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43.4%로 더욱 높아졌다. 2009년과 비교하면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직전과 입학직후 취업률은 2012년 각각 3.9%pt와 1.6%pt 높아졌고,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 취업률의 변화는 결혼과 자녀출산이 부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생애주기와 관련이 높으며 이는 연령뿐 아니라 결혼, 출산, 양육 등의 생애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취업지속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가구특성별로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교 입학 전·후 취업률을 보면, 막내아 초교입학 직전 취업률은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 거주여성이 다소 높았고, 막내아 초교입학 직후 취업률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았다. 가구원 수별로는 막내아 초교입학 직전 취업률은 1~2인가구보다 3인 이상가구에서 높았고, 막내아 초교 입학 직후 취업률도 유사하여 3인 이상 가구가 1~2인가구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막내아 초교입학 직전 취업률은 1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았으나, 일관되지 않았으며, 막내아 초교입학 직후 취업률도 비슷하여 다른 소득층에 비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지속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욕구소득비별로도 가구소득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욕구소득비 1 미만이 다른 욕구소득비에 비해서 취업지속성이 가장 높았다.

〈표 11-58〉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교입학 직전·직후 취업을 변화

(단위: %, 명)

특성	(분산비중)	막내아 초교입학 직전 취업률	막내아 초교입학 직후 취업률
2009	(4,139)	36.4	41.8
2012	(3,637)	40.3	43.4
지역			
동부	(3,183)	39.8	42.9
읍·면부	(454)	43.2	46.8
가구원 수			
1인	(106)	35.8	41.9
2인	(364)	39.3	42.3
3~4인	(2,681)	40.6	43.4
5인 이상	(487)	40.0	44.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1)	60.7	59.0
100~200미만	(234)	39.7	46.2
200~300미만	(538)	34.9	37.7
300~400미만	(766)	36.3	40.9
400~500미만	(729)	39.1	42.5
500 이상	(1,308)	44.5	46.4
육구소득			
1 미만	(96)	50.0	53.1
1~2 미만	(630)	37.3	40.0
2~3 미만	(1,173)	37.5	41.6
3~4 미만	(770)	38.4	43.4
4 이상	(956)	46.0	46.7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보면, 막내아 초교입학 전 취업률은 대체로 25~29세 이후부터 35~39세 연령층까지 높아지다 40~44세에 잠시 낮아지고, 다시 45~49세에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막내아 초교입학 직후 취업률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35~39세 연령층의 취업지속성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막내아 초교입학 직전 취업률은 사별 및 이혼·별거 여성이 유배우 여성보다 높았고, 막내아 초교입학 직후 취업률도 비슷하여서 사별 및 이혼·별거 여성이

유배우 여성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막내아 초교입학 직전 취업률은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이 높았으나 일정하지 않았으며, 막내아 초교입학 직후 취업률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취업지속성은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높은 특성을 보였다. 현존자녀수별로는 막내아 초교 입학 직전 취업률은 유자녀가 무자녀보다 높았고, 막내아 초교입학 직후 취업률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유자녀가 무자녀보다 취업지속성이 높았고, 자녀 1명이 2명보다 높았다.

〈표 11-59〉 기혼여성 특성별 막내아 초교입학 전·후 취업률 변화

특성	(분식대상수)	(단위: %, 명)	
		막내아 초교입학 직전 취업률	막내아 초교입학 직후 취업률
2009	(4,139)	36.4	41.8
2012	(3,637)	40.3	43.4
연령			
15~24세	-	-	-
25~29세	(5)	20.0	16.7
30~34세	(118)	41.5	46.2
35~39세	(668)	49.9	51.9
40~44세	(1,400)	37.9	40.6
45~49세	(1,446)	38.0	41.9
혼인상태			
유배우	(3,302)	39.0	41.9
사별	(73)	53.4	61.6
이혼·별거	(262)	51.5	57.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2)	42.9	41.5
고등학교	(2,028)	37.0	41.8
대학 이상	(1,323)	44.7	46.2
현존자녀수			
없음	(10)	30.0	30.0
1명	(709)	42.6	44.7
2명 이상	(2,919)	39.7	43.1

자료: <표 11-1>과 동일

2.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직종 및 종사상 지위 변화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취업 중인 여성 중에서 96.4%인 대다수가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도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생애단계보다 취업지속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취업지속비율은 관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그리고 농·임·어업 등은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기타 등이 약 94~97%로 높았다.

막내아 초교입학 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동일 직종간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종사자, 농·임·어업,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종은 막내 자녀 초교입학 전·후 모두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아 초교입학 전·후 취업직종이 변경된 경우를 보면, 관리자는 일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일부 사무직 종사자로, 사무직 종사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로,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는 일부 사무직과 단순노무직 및 기타 종사자로 각각 변경되었다.

〈표 11-60〉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취업여부 및 직종¹⁾

(단위: %, 명)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 직종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후 취업여부 및 직종								계(수)	χ^2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 ·판매 직 종사자	기능원 ·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 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무직자		
전체	1.1	19.3	24.1	32.0	6.7	2.9	10.3	3.6	100.0(1,463)	
관리자	94.1	-	-	5.9	-	-	-	-	100.0(17)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94.6	1.7	-	-	-	-	3.7	100.0(296)	
사무직 종사자	-	0.5	93.5	0.3	0.3	-	-	5.4	100.0(369)	
서비스·판매직종사자	-	-	0.4	96.9	-	-	0.4	2.3	100.0(483)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	-	-	100.0	-	-	-	100.0(97)	
농·임·어업	-	-	-	-	-	100.0	-	-	100.0(43)	
단순노무직 및 기타	-	-	-	-	-	-	93.7	6.3	100.0(158)	

주: 1) 막내자녀 초등학교 입학직전은 취업여성, 입학직후는 취업과 비취업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종사상지위별로 막내아 초교입학 전·후 취업지속비율은 고용주가 100%로 가장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및 상용근로자도 약 95~99%로 높은 편이었다.

막내아 초교입학 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보면, 고용주, 자영업자 및 임시근로자는 일부 상용근로자로 변경되었으며, 상용근로자는 임시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무급가족종사자는 임시근로자로 일부 변경되었다.

〈표 11-61〉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전·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¹⁾

(단위: %, 명)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 종사상 지위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후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							계(수)	χ^2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무직자		
전체	2.7	15.7	44.7	15.6	6.4	11.3	3.6	100.0(1,458)	
고용주	95.1	-	4.9	-	-	-	-	100.0(41)	-
자영업자	-	96.1	1.3	-	-	-	2.6	100.0(228)	
상용근로자	-	1.4	92.9	0.3	-	0.1	5.2	100.0(694)	
임시근로자	-	-	1.3	95.7	-	-	3.0	100.0(233)	
일용근로자	-	-	-	-	97.9	-	2.1	100.0(95)	
무급가족종사자	-	-	-	1.2	-	98.2	0.6	100.0(167)	

주: 1)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직전은 취업여성, 입학직후는 취업과 비취업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3.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직장의 변화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경우 2012년 동일 직장에 근무한 경우는 94.9%,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4.0% 등이었으며,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옮기거나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다른 생애단계보다는 적은 편이었다.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결혼 전·후보다 약간 적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 동일직장에 근무한 경우와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전직한 경우는 다소 많아졌고, 다른 직장 이동은 감소하였다.

가구특성별로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직장변화를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와 읍·면부지역 모두 동일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는 동부보다 읍·면부 거주여성이 다소 많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는 미미한 차이이나 동부가 읍·면부보다 다소 많았다. 가구원 수별로는 모든 가구원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1인가구는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가 다른 가구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층에서 동일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체로 고소득층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으며, 미미하나 100만원 미만에서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일부 나타났다. 욕구소득비별로도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욕구소득비가 4 이상인 경우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욕구소득비가 1~2 미만인 경우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다른 욕구소득비에 비해 3.8배까지 많았다.

〈표 11-62〉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χ^2
2009	93.8	5.3	0.4	0.3	0.2	100.0(1,443)	
2012	94.9	4.0	0.9	0.1	0.1	100.0(1,411)	
지역							
동부	94.5	4.1	1.1	0.2	0.2	100.0(1,216)	-
읍·면부	96.9	3.1	-	-	-	100.0(195)	
가구원 수							
1인	78.9	18.4	2.6	-	-	100.0(38)	-
2인	88.7	11.3	-	-	-	100.0(141)	
3~4인	96.1	2.4	1.2	0.2	0.2	100.0(1,042)	
5인 이상	94.8	4.7	0.5	-	-	100.0(19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3.3	11.1	2.8	-	2.8	100.0(36)	-
100~200만원	89.1	8.7	2.2	-	-	100.0(92)	
200~300만원	92.7	7.3	-	-	-	100.0(177)	
300~400만원	94.0	5.6	-	0.4	-	100.0(268)	
400~500만원	96.8	2.9	0.4	-	-	100.0(278)	
500 이상	96.4	1.6	1.8	0.2	-	100.0(561)	
욕구소득							
1 미만	91.1	6.7	-	-	2.2	100.0(45)	-
1~2 미만	90.7	8.0	1.3	-	-	100.0(225)	
2~3 미만	97.2	2.3	0.2	0.2	-	100.0(427)	
3~4 미만	91.7	5.6	2.8	-	-	100.0(288)	
4 이상	97.1	2.1	0.5	0.2	-	100.0(421)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보면, 25~29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동일직장 유지는 40대 연령층에서 많은 편이었으며, 30~34세 연령층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다소 많았다.

〈표 11-63〉 기혼여성 특성별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 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χ^2
2009	93.8	5.3	0.4	0.3	0.2	100.0(1,443)	
2012	94.9	4.0	0.9	0.1	0.1	100.0(1,411)	
연령							
15~24세	-	-	-	-	-	-	
25~29세	100.0	-	-	-	-	100.0(1)	
30~34세	91.8	8.2	-	-	-	100.0(49)	-
35~39세	90.7	6.2	3.1	-	-	100.0(324)	
40~44세	96.2	3.2	0.2	0.4	-	100.0(498)	
45~49세	96.1	3.1	0.6	-	0.2	100.0(541)	
혼인상태							
유배우	95.6	3.2	1.0	0.2	-	100.0(1,236)	
사별	92.3	5.1	-	-	2.6	100.0(39)	-
이혼·별거	88.9	10.4	0.7	-	-	100.0(13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1.1	7.1	1.8	-	-	100.0(112)	
고등학교	95.2	4.3	0.3	0.1	-	100.0(736)	-
대학 이상	94.8	2.8	1.8	0.2	0.4	100.0(563)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1-1>과 동일

혼인상태별로는 모두 동일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일직장 유지는 유배우와 사별여성이 이혼·별거 여성보다 많았고, 이혼·별거 여성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유배우 및 사별여성보다 약 3배까지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학력층에서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 비율은 고등학교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대학이상,

중학교 이하 순으로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중학교 이하는 다른 학력층에 비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다소 많은 편이었다.

4.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취업중단 이유

막내아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 취업 중이었다가 입학 직후 중단한 이유는 ‘자녀양육 때문’이 52.9%로 첫째아나 막내아 취업중단이유로 응답한 비율에 1/2에 불과하였다. 이외에 ‘건강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회사가 문을 닫아서’를 포함한 기타 등 다양한 중단이유를 보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취업중단 이유로 배우자 및 기타 가족 반대, 자녀양육, 기타 등은 다소 감소하였고,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등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취업중단이유를 보면, 연령별로는 모두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15~39세 연령층이 40~49세보다 높았다. 이외에 15~39세 연령층은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가, 40~49세 연령층은 건강이 안 좋아서, 회사가 문을 닫아서 등 기타가 다소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두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은 회사가 문을 닫아서 등 기타,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순으로 많았으며,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건강이 안 좋아서에 집중되었다.

취업직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기타 직종은 자녀양육 때문이 대다수를 차지한데 비해, 사무직·서비스·판매 종사자는 건강이 안 좋아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양육 때문,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기타 순으로 다양한 이유를 보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모두 자녀양육 때문이 다수로 나타났고, 이외에 고용주·자영업자는 회사가 문을

단아서 등 기타가, 상용근로자는 건강이 안 좋아서, 임시·일용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는 배우자·기타 가족 반대,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서 등이 많은 편이었다.

〈표 11-64〉 15~64세 기혼가구특성별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고입학 직후 취업중단 이유

(단위: %, 명)

특성	결혼 때문에	배우자, 기타가 족 반대	회사에 서 나가기 를 원해서	자녀 양육 때문에	부모, 기타 가족부 양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기타 ¹⁾	계(수)	χ^2
2009	-	7.1	-	64.2	1.9	16.1	10.8	100.0(43)	
2012	-	2.0	9.8	52.9	-	25.5	9.8	100.0(51)	
연령									
15~39세	-	-	9.1	81.8	-	-	9.1	100.0(11)	
40~49세	-	2.6	7.9	47.4	-	31.6	10.5	100.0(38)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	-	13.0	65.2	-	4.3	17.4	100.0(23)	
대학 이상	-	3.8	3.8	46.2	-	42.3	3.8	100.0(26)	
취업직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	90.0	-	-	10.0	100.0(10)	
사무직·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	3.3	13.3	30.0	-	40.0	13.3	100.0(30)	
기타	-	-	9.1	81.8	-	9.1	-	100.0(11)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	-	-	50.0	-	-	50.0	100.0(4)	
상용근로자	-	-	8.6	51.4	-	31.4	8.6	100.0(35)	
임시·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	10.0	10.0	70.0	-	10.0	-	100.0(10)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7절 시사점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취업률 곡선은 M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인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 취업률과 취업지속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결혼 이후부터 막내아 출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저하되다가 막내아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후 단계부터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지속 비율도 결혼 전·후 약 5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막내아 초교 입학 전·후에는 약 96%의 지속성을 보였다.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 취업변화는 결혼이나 출산 등의 생애과정을 경험하면서 취업을 포기하고 일정 기간 육아를 수행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등이 기혼여성의 취업지속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은 결혼 및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과의 관계는 취업환경과 노동시장 재진입 구조 그리고 양육지원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 취업변화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단계별 기혼여성 취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속의 장애요인인 자녀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과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제를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 유연한 근로형태를 확산하는 한편, 가족친화 기업 및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통해 경력단절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부 여성에서는 타율적인 취업중단이 나타나고 있어서 노동시

장에서 남녀 간의 성차별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혼여성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센티브 등이 강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고용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단일 법률 제정이 요구되며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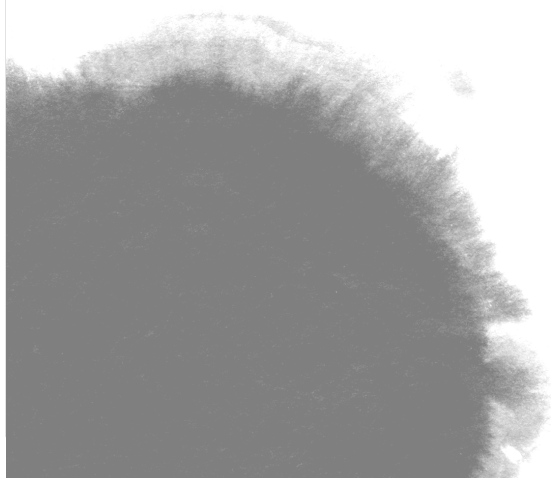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취업은 연령 및 교육 수준 등의 요인에 의해 고용상의 변화를 경험하므로 인적자원수준에 상응하는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요구된다. 일환으로 경력단절 여성 훈련 및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여성의 유망직종 훈련과정 개발·보급, 고학력 여성 특화훈련 등 경력단절여성 특화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적응 지원을 위한 인턴제도 확대, 출산·양육 등으로 이직한 기혼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혼여성은 생애단계별 경력단절로 재취업단계에서 하향직종으로 변화를 보이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취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체계내로 자영업자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혼여성의 취업은 출산 및 양육 등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을 보장하는 지원과 함께 가사부담 완화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간제 고용의 안정이 선행적으로 마련될 때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12장

가족의 역할 및 관계 실태



제12장 가족의 역할 및 관계 실태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본 장에서는 크게 가족의 역할과 가족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의 역할에서 젠더(gender) 관점을 반영한 가사분담의 성평등 실태에 초점을 둔다. 가사분담은 식사요리준비,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 집안청소 등 다양한 가족생활과 관련된 세부 항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족 내 권력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써,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항목에서 의사결정의 성평등 정도를 분석하였고, 또한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다.

가족관계와 관련된 주요 분석의 초점은 우선 부부간의 배우자 만족도가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만족도와 전반적인 가족생활 만족도를 구조화된 모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의 역할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크게 가구특성과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밝히는데도 주목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특성으로 지역과 가구원수 그리고 소득수준을 주요한 변수로 다루었다. 그리고 개인특성으로 연

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을 주요한 변수로 다루었다.

2. 선행연구 고찰

가족의 역할과 관계는 가족 구성원 간에 형성되는 관계와 역할을 의미하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부부간의 성역할에 관한 것이다.

성역할의 초기 연구는 남성보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임을 주장하였다(최규련, 1984; 이형실·옥선화, 1985). 이것은 성역할 태도에서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주장하는 것으로써, 성역할 연구의 기본적 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성역할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이미숙, 1985). 또한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김혜련(1982)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일뿐 아니라 자경심, 자아개념에서도 도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0~2000년 들어 여성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성역할 관계 연구에서 더욱 새로운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었다. 박경숙과 김영혜(2005)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역할의 의미를 질적연구방법론으로 접근하였다. 여성 자신이 경제활동과 가족역할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지 고찰하고 있다. 강이수(2007)는 여성 노동자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문제를 고찰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사회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김혜경(2007) 역시 여성의 노동사를 통해 일과 가족생활이 어떻게 접합되고 있는 지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친족체계, 젠더관계가 어떻게 변천을 거쳐 왔는지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실질적 역할의 변화와 의미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최성경(2010)은 가족관계의 변화와 젠더 문제를 직접 다루었다. 여기서 최성경은 캐나다 혼인 관련 법 형성과정을 고찰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가족법제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동안의 가족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성혼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Civil Marriage Act를 소개하고, 2005년부터 동성커플의 법률혼을 인정한 캐나다의 동성혼 법률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현상의 하나로써 노년기 겪는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조병은(2007)은 노년기 가족관계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각종 조사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양의식과 동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부모 부양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고부관계와 상속에 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가족관계 문제를 거의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노년기 가족관계는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1999년 이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 공개 이후 성역할과 관련하여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가하였다(은기수, 2009; 유성용, 2008; 김수정·김은지, 2007; 손문금, 2005). 기존연구는 성역할이 시간에 따라서 구조화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정책동향

가족의 역할과 가족관계에 관한 정책은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일부 정

책들은 가족의 역할이나 가족관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의 역할과 관련하여 성역할에 대한 정책이 기본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성역할에 관련되는 정책은 기존에 일가정양립을 위해 도입한 휴가 휴직 및 근로형태 유연화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우선 산전후휴가는 법정휴가로서 90일간, 그리고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고 있다. 산전 후휴가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영아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현재 이 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는 제도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그대로 산전후휴가 급여보장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엄마와 아빠 모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휴직기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통상임금의 40%라는 육아휴직 급여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체수준이 낮아 사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한 남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산전후 휴가제도처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잔존하게 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근로형태 유연화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제도가 도입되었다.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락하여야 한다. 급여와 다른 처우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한다. 이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가족의 역할

1. 가사활동 분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 더 이상 가구 운영의 일반적 형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종 가계지출이 확대되면서 가족임금만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 특성이 사회에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교차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가족 내 남녀 성 역할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주요 초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 수준의 가사분담 정도에서 전적으로 부인 하는 가사를 담당하는 비율은 21.8%, 주로 부인이하고 남편이 일부 도움을 주는 비율은 65.8%로 여성의 가사활동 부담이 높았다.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은 87.5%로써, 전통적 성역할이 여전히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가구원 수를 고려한 욕구소득비가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에서 남편의 양육 및 가사참여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욕구소득비 1미만 계층의 경우 반씩 나누어 담당하는 비율이 18.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욕구소득비 4이상 계층의 경우 반씩 나누어 담당하는 비율이 1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욕구소득비 1이상~2미만의 경우 반씩 나누어 담당하는 비율이 7.4%로 가장 낮았으며, 욕구소득비 2이상~3미만 계층에서도 남편의 참여가 낮게 나타났다.

〈표 12-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양육과 가사분담 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 나누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전체	21.8	65.8	10.6	1.7	0.2	100.0(8,309)	
지역							
동부	22.1	65.4	10.7	1.7	0.2	100.0(7,169)	4.0
읍·면부	19.9	68.0	10.2	1.6	0.2	100.0(1,140)	
가구원 수							
1명	59.8	19.7	-	20.5	-	100.0(10)	-
2명	21.2	59.8	15.9	2.6	0.4	100.0(1,738)	
3~4명	21.2	68.0	9.2	1.6	0.1	100.0(5,525)	
5명이상	25.4	64.5	9.5	0.5	0.1	100.0(1,03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4.0	49.6	23.7	2.1	0.6	100.0(96)	-
100~200 미만	29.0	57.5	10.8	2.5	0.2	100.0(584)	
200~300 미만	22.3	68.4	8.3	0.8	0.1	100.0(1,560)	
300~400 미만	22.0	66.4	9.8	1.6	0.2	100.0(1,804)	
400~500 미만	20.2	66.2	11.3	2.0	0.2	100.0(1,456)	
500 이상	20.3	66.2	11.6	1.8	0.1	100.0(2,741)	
육구소득비							
1 미만	26.1	51.3	18.9	3.2	0.5	100.0(183)	-
1~2 미만	24.3	67.0	7.4	1.1	0.1	100.0(1,485)	
2~3 미만	22.5	68.2	8.1	1.0	0.2	100.0(2,677)	
3~4 미만	21.4	64.2	11.9	2.4	0.1	100.0(1,658)	
4 이상	18.8	64.7	14.1	2.1	0.2	100.0(2,238)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 양육과 가사분담 방법에서 남성 응답자와 여성응답자의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부부가 반씩 나누어 양육과 가사분담을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인 반면, 여성은 9.2%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자녀 양육과 가사분담에서 실제 역할에 대한 평가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은 양육 및 가사분담 활동에 대해서 여성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나 남성 본인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양육과 가사분담 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 나누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기혼남성	12.4	62.6	18.8	5.2	1.0	100.0(1,260)	
연령							
15-29세	11.9	41.7	39.2	2.4	4.8	100.0(23)	-
30-39세	7.6	62.2	24.6	4.2	1.4	100.0(216)	
40-49세	7.1	68.0	19.1	5.5	0.3	100.0(369)	
50-59세	17.5	61.6	13.7	6.8	0.4	100.0(471)	
60세 이상	16.1	57.3	22.1	1.6	2.9	100.0(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6	67.2	12.0	5.1	1.2	100.0(212)	33.6***
고등학교	15.3	63.5	16.5	3.9	0.8	100.0(559)	
대학 이상	8.0	59.7	24.5	6.6	1.2	100.0(487)	
취업여부							
취업	12.4	65.3	17.8	3.3	1.1	100.0(1,079)	67.4***
비취업	12.4	46.1	24.8	16.3	0.3	100.0(181)	
기혼여성	23.4	66.3	9.2	1.0	0.0	100.0(7,049)	
연령							
15-29세	10.3	69.4	19.4	0.9	-	100.0(386)	-
30-39세	16.1	71.3	11.3	1.4	-	100.0(2,191)	
40-49세	24.2	67.8	7.1	0.8	0.1	100.0(2,503)	
50-59세	33.2	58.4	7.7	0.7	-	100.0(1,807)	
60세 이상	34.5	57.6	4.2	3.7	-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5	60.6	6.4	0.6	-	100.0(947)	-
고등학교	24.2	67.7	7.2	0.8	0.1	100.0(3,218)	
대학 이상	19.6	66.7	12.3	1.5	-	100.0(2,883)	
취업여부							
취업	16.6	66.9	14.9	1.7	-	100.0(3,298)	-
비취업	29.5	65.8	4.1	0.5	-	100.0(3,751)	

주: 1) *** $p<0.001$, ** $p<0.01$, * $p<0.05$, # $p<0.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다음은 가사활동과 양육활동을 구분하여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가사활동 중에서 식사요리 준비를 부부가 어떻게 분담하는 지 조사 한 결과,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이 58.7%, 주로 부인이 하고 남편이 도와준다는 응답비율이 32.5%로, 부인이 식사요리 준비를 주로 맡는 경

향의 전체 비율이 91.2%로 매우 높았다. 식사 준비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성역할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식사요리 준비」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전체	58.7	32.5	7.6	1.1	0.2	100.0(8,314)	
지역							
동부	58.8	32.4	7.6	1.1	0.2	100.0(7,173)	0.9
읍·면부	57.9	33.4	7.3	1.1	0.3	100.0(1,141)	
가구원 수							
1명	73.5	6.0	-	20.5	-	100.0(10)	-
2명	52.3	32.9	12.8	1.5	0.5	100.0(1,738)	
3~4명	60.4	32.4	6.1	1.0	0.1	100.0(5,529)	
5명이상	60.0	32.7	6.6	0.6	0.1	100.0(1,03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57.1	24.6	16.1	1.4	1.0	100.0(96)	-
100~200 미만	60.7	29.6	8.2	1.5	0.1	100.0(584)	
200~300 미만	58.5	35.2	5.1	0.9	0.2	100.0(1,560)	
300~400 미만	59.0	31.9	7.8	0.9	0.3	100.0(1,806)	
400~500 미만	56.3	34.7	7.9	0.9	0.3	100.0(1,458)	
500 이상	59.8	30.7	8.1	1.3	0.1	100.0(2,743)	
육구소득비							
1 미만	57.7	26.3	13.9	1.4	0.7	100.0(183)	-
1~2 미만	61.0	32.6	5.2	1.1	0.1	100.0(1,487)	
2~3 미만	59.6	33.6	5.7	0.9	0.2	100.0(2,679)	
3~4 미만	57.6	32.6	9.1	0.6	0.1	100.0(1,659)	
4 이상	57.4	31.2	9.6	1.6	0.2	100.0(2,24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식사요리 준비 활동의 경우 부부가 반씩 나누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4.5%, 여성의 경우 6.3%로 나타나 남녀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12-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식사요리 준비」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기혼남성	41.1	40.1	14.5	3.5	0.9	100.0(1,261)	
연령							
15-29세	16.6	38.8	35.7	4.2	4.8	100.0(23)	-
30-39세	37.8	37.9	20.7	3.1	0.5	100.0(216)	
40-49세	35.7	46.3	14.6	2.9	0.4	100.0(370)	
50-59세	45.3	38.0	11.2	5.2	0.4	100.0(471)	
60세 이상	48.0	35.4	12.5	0.6	3.4	100.0(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6.6	36.0	11.6	4.4	1.3	100.0(212)	21.4***
고등학교	42.5	42.4	11.0	3.1	0.9	100.0(559)	
대학이상	36.9	39.2	19.6	3.5	0.7	100.0(488)	
취업여부							
취업	41.9	40.8	14.3	2.0	1.0	100.0(1,080)	54.0***
비취업	35.8	35.9	15.2	12.6	0.5	100.0(181)	
기혼여성	61.8	31.2	6.3	0.6	0.1	100.0(7,053)	
연령							
15-29세	49.0	35.2	15.1	0.3	0.4	100.0(386)	-
30-39세	56.4	34.6	7.8	1.1	0.1	100.0(2,191)	
40-49세	64.8	29.7	5.0	0.5	-	100.0(2,506)	
50-59세	66.0	28.7	4.9	0.4	-	100.0(1,809)	
60세 이상	72.6	25.9	1.4	0.0	0.1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5.2	29.7	4.8	0.2	-	100.0(948)	-
고등학교	63.3	31.1	5.0	0.4	-	100.0(3,221)	
대학이상	59.0	31.7	8.3	1.0	0.1	100.0(2,884)	
취업여부							
취업	52.4	36.4	10.1	1.1	0.1	100.0(3,299)	-
비취업	70.1	26.6	3.0	0.3	-	100.0(3,75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사활동 중에서 설거지를 부부간에 분담하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44.1%,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남편이 도와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였다.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이 총 87.0%로, 식사요리 준비와 함께 부엌일은 주로부인이 담당하

고 있다. 설거지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런 전통적 성역할 의식이 아직도 일반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설거지」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 나누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전체	44.1	42.9	10.6	2.0	0.3	100.0(8,314)	
지역							
동부	43.6	43.5	10.7	1.9	0.3	100.0(7,173)	8.7#
읍·면부	47.4	39.5	10.3	2.5	0.4	100.0(1,141)	
가구원 수							
1명	73.5	6.0	-	20.5	-	100.0(10)	-
2명	38.5	41.0	16.5	3.2	0.8	100.0(1,738)	
3~4명	45.1	43.5	9.3	1.9	0.2	100.0(5,529)	
5명이상	47.8	43.5	7.8	0.7	0.1	100.0(1,03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1.3	35.5	20.8	1.8	0.6	100.0(96)	54.5***
100~200 미만	50.9	36.2	10.2	2.4	0.3	100.0(584)	
200~300 미만	45.5	44.5	8.2	1.6	0.1	100.0(1,560)	
300~400 미만	43.9	43.5	10.0	2.1	0.5	100.0(1,806)	
400~500 미만	42.2	44.5	11.4	1.4	0.5	100.0(1,458)	
500 이상	43.3	42.8	11.3	2.4	0.2	100.0(2,743)	
육구소득비							
1 미만	45.0	34.8	17.5	2.3	0.5	100.0(183)	100.0***
1~2 미만	48.4	41.5	8.3	1.6	0.2	100.0(1,487)	
2~3 미만	46.3	44.3	7.5	1.6	0.3	100.0(2,679)	
3~4 미만	41.4	44.1	12.3	1.9	0.3	100.0(1,659)	
4 이상	40.7	42.5	13.5	2.8	0.5	100.0(2,24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사활동 중에서 설거지의 경우 부부가 반씩 나누어 담당하는 비율에서 남녀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며, 고연령층에서 남성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 고연령층 남성의 보수적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표 12-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설거지」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기혼남성	26.7	48.3	17.9	6.0	1.1	100.0(1,261)	
연령							
15-29세	12.8	42.6	37.4	2.4	4.8	100.0(23)	-
30-39세	18.3	47.6	26.3	6.3	1.5	100.0(216)	
40-49세	22.1	54.9	16.4	5.8	0.8	100.0(370)	
50-59세	31.0	47.6	13.3	7.6	0.4	100.0(471)	
60세 이상	36.8	37.8	20.5	1.9	2.9	100.0(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4.4	49.0	9.3	6.2	1.2	100.0(212)	34.7***
고등학교	29.2	48.6	16.6	4.7	0.9	100.0(559)	
대학이상	20.4	47.6	23.3	7.4	1.4	100.0(488)	
취업여부							
취업	27.7	49.6	17.4	4.0	1.3	100.0(1,080)	56.5***
비취업	21.0	40.1	21.0	17.5	0.3	100.0(181)	
기혼여성	47.2	42.0	9.3	1.3	0.2	100.0(7,053)	
연령							
15-29세	35.2	44.1	18.7	1.6	0.3	100.0(386)	-
30-39세	37.9	47.4	12.5	1.8	0.4	100.0(2,191)	
40-49세	50.0	42.1	6.8	1.0	-	100.0(2,506)	
50-59세	56.0	35.5	7.3	1.1	0.1	100.0(1,809)	
60세 이상	60.1	34.8	4.8	0.2	0.1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4	36.2	6.5	0.8	-	100.0(948)	129.4***
고등학교	50.2	41.3	7.4	1.0	0.1	100.0(3,221)	
대학이상	40.8	44.7	12.4	1.8	0.3	100.0(2,884)	
취업여부							
취업	36.2	46.9	14.5	2.1	0.3	100.0(3,299)	404.4***
비취업	56.8	37.7	4.8	0.6	0.1	100.0(3,75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사활동 중에서 세탁을 부부가 분담하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48.3%,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남편이 도와주는 비율은 37.9%로, 세탁 분담역시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이 86.2%로 매우 높았다. 식사 준비나 설거지와 마찬가지로 세탁

일도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세탁」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전체	48.3	37.9	11.3	2.1	0.3	100.0(8,314)	
지역							
동부	48.0	38.1	11.5	2.1	0.3	100.0(7,173)	2.8
읍·면부	50.1	36.9	10.3	2.4	0.4	100.0(1,141)	
가구원 수							
1명	73.5	6.0	-	20.5	-	100.0(10)	-
2명	41.0	36.9	18.4	3.0	0.7	100.0(1,738)	
3~4명	49.6	38.3	9.7	2.1	0.3	100.0(5,529)	
5명이상	53.3	37.8	8.2	0.6	0.1	100.0(1,03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1.2	32.5	22.9	2.0	1.3	100.0(96)	55.6***
100~200 미만	51.8	33.2	11.9	3.0	0.2	100.0(584)	
200~300 미만	50.7	39.4	8.2	1.5	0.3	100.0(1,560)	
300~400 미만	47.7	38.5	11.6	1.7	0.4	100.0(1,806)	
400~500 미만	46.5	37.7	13.6	1.9	0.4	100.0(1,458)	
500 이상	47.5	38.3	11.3	2.6	0.3	100.0(2,743)	
육구소득비							
1 미만	42.4	35.4	18.3	3.1	0.9	100.0(183)	108.3** *
1~2 미만	53.1	36.5	8.4	1.7	0.3	100.0(1,487)	
2~3 미만	50.7	39.2	8.5	1.3	0.3	100.0(2,679)	
3~4 미만	44.9	38.3	14.1	2.4	0.4	100.0(1,659)	
4 이상	44.9	37.6	14.1	3.0	0.4	100.0(2,24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세탁 활동에서 부부가 반씩 나누어 하는 비율이 20.6%로 남성의 참여는 앞서 살펴본 가사활동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반씩 나누어 한다는 비율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는 세탁활동에서도 나타났다.

〈표 12-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세탁」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기혼남성	29.7	42.9	20.6	5.7	1.1	100.0(1,261)	
연령							
15-29세	14.7	39.5	31.6	9.4	4.8	100.0(23)	-
30-39세	21.7	42.8	29.6	5.5	0.5	100.0(216)	
40-49세	26.1	48.3	18.8	5.8	1.0	100.0(370)	
50-59세	34.2	41.3	17.0	7.0	0.5	100.0(471)	
60세 이상	36.5	36.7	21.7	2.1	2.9	100.0(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5	49.3	13.0	5.9	1.2	100.0(212)	33.9***
고등학교	33.5	43.6	18.0	4.0	1.0	100.0(559)	
대학이상	24.8	39.5	27.0	7.7	1.1	100.0(488)	
취업여부							
취업	30.3	44.5	20.4	3.6	1.1	100.0(1,080)	64.9***
비취업	25.7	33.4	22.0	18.2	0.7	100.0(181)	
기혼여성	51.6	37.0	9.7	1.5	0.2	100.0(7,053)	
연령							
15-29세	37.3	39.6	19.6	2.9	0.6	100.0(386)	-
30-39세	46.5	39.0	12.0	2.4	0.1	100.0(2,191)	
40-49세	53.5	37.8	7.6	0.8	0.2	100.0(2,506)	
50-59세	57.8	33.3	7.7	1.0	0.2	100.0(1,809)	
60세 이상	57.1	33.1	8.2	1.2	0.3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5.9	36.7	6.7	0.7	0.1	100.0(948)	75.7***
고등학교	53.3	37.4	8.2	0.9	0.2	100.0(3,221)	
대학이상	48.4	36.7	12.3	2.4	0.2	100.0(2,884)	
취업여부							
취업	41.3	41.3	14.7	2.5	0.3	100.0(3,299)	368.2** *
비취업	60.7	33.3	5.3	0.6	0.1	100.0(3,75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사활동 중에서 시장보기를 부부가 분담하는 방법을 분석할 결과, 전적으로 부인하는 비율은 30.0%, 주로 부인이 담당하지만 남편이 도와주는 비율은 45.2%였다.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은 75.2%로, 앞서 분석한 다른 가사활동에 비해서 남편이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장보기에 남성의 참여가 다른 가사활동보다도 다소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시장보기」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전체	30.0	45.2	22.4	2.0	0.3	100.0(8,314)	
지역							
동부	29.8	45.6	22.3	1.9	0.3	100.0(7,173)	10.4*
읍·면부	30.9	42.4	23.3	3.0	0.4	100.0(1,141)	
가구원 수							
1명	59.8	19.7	-	20.5	-	100.0(10)	-
2명	29.6	38.9	27.9	3.0	0.6	100.0(1,738)	
3~4명	29.9	46.4	21.6	1.8	0.3	100.0(5,529)	
5명이상	31.1	49.3	18.0	1.4	0.2	100.0(1,03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4.0	39.8	20.9	3.2	2.1	100.0(96)	80.3* **
100~200 미만	38.0	42.9	15.9	2.9	0.3	100.0(584)	
200~300 미만	33.3	45.6	18.5	2.3	0.3	100.0(1,560)	
300~400 미만	28.1	46.9	22.8	1.6	0.6	100.0(1,806)	
400~500 미만	27.2	44.7	25.7	2.1	0.3	100.0(1,458)	
500 이상	28.9	44.8	24.1	1.9	0.2	100.0(2,743)	
육구소득비							
1 미만	37.9	40.0	17.8	3.1	1.3	100.0(183)	97.4* **
1~2 미만	34.5	47.2	16.2	1.7	0.3	100.0(1,487)	
2~3 미만	30.1	47.3	20.5	1.8	0.3	100.0(2,679)	
3~4 미만	28.6	43.5	25.3	2.3	0.4	100.0(1,659)	
4 이상	27.1	43.1	27.3	2.2	0.3	100.0(2,24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시장보기 활동을 부부가 반씩 나누어 담당한다는 응답에서, 다른 가사 활동에 비해서 남녀 인식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보기는 실질적으로 남성의 참여가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1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시장보기」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기혼남성	19.3	47.6	26.8	5.1	1.3	100.0(1,261)	
연령							
15-29세	12.0	31.9	48.7	2.5	4.8	100.0(23)	-
30-39세	11.1	49.0	36.5	2.4	1.1	100.0(216)	
40-49세	14.2	50.4	30.0	5.0	0.4	100.0(370)	
50-59세	25.4	45.8	20.8	7.2	0.8	100.0(471)	
60세 이상	24.8	46.8	21.1	3.3	4.0	100.0(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7	45.6	19.7	7.4	1.6	100.0(212)	42.7***
고등학교	22.8	49.2	23.0	3.8	1.2	100.0(559)	
대학이상	12.3	46.7	34.2	5.5	1.2	100.0(488)	
취업여부							
취업	19.1	48.6	27.1	3.8	1.4	100.0(1,080)	27.2***
비취업	20.2	41.6	24.8	12.7	0.7	100.0(181)	
기혼여성	31.9	44.8	21.7	1.5	0.2	100.0(7,053)	
연령							
15-29세	16.7	45.9	35.2	2.0	0.2	100.0(386)	-
30-39세	24.6	46.6	26.5	2.1	0.2	100.0(2,191)	
40-49세	33.3	45.3	20.2	1.0	0.1	100.0(2,506)	
50-59세	41.7	41.4	15.8	0.9	0.2	100.0(1,809)	
60세 이상	35.9	45.6	12.9	5.2	0.4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0.1	43.9	14.6	1.2	0.2	100.0(948)	152.9** *
고등학교	34.2	46.2	18.2	1.1	0.2	100.0(3,221)	
대학이상	26.6	43.4	27.9	2.0	0.2	100.0(2,884)	
취업여부							
취업	27.0	43.4	27.6	1.9	0.2	100.0(3,299)	157.0** *
비취업	36.2	46.0	16.4	1.1	0.2	100.0(3,75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사활동 중에서 집안청소를 분담하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28.7%, 주로 부인이 담당하지만 남편이 도와주는 비율은 49.6%이었다. 집안청소의 경우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은 78.3%로, 부인집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 없이 나타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1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집안청소」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전체	28.7	49.6	17.8	3.2	0.6	100.0(8,314)	
지역							
동부	28.9	49.4	17.9	3.1	0.7	100.0(7,173)	2.6
읍·면부	27.7	50.9	17.3	3.6	0.4	100.0(1,141)	
가구원 수							
1명	68.8	10.7	-	20.5	-	100.0(10)	-
2명	23.8	46.3	24.0	4.8	1.0	100.0(1,738)	
3~4명	29.3	50.6	16.5	3.0	0.6	100.0(5,529)	
5명이상	33.1	50.4	14.7	1.4	0.3	100.0(1,03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4.9	46.8	22.3	4.7	1.3	100.0(96)	69.9***
100~200 미만	35.2	44.0	16.4	3.3	1.1	100.0(584)	
200~300 미만	31.3	51.7	14.3	2.3	0.3	100.0(1,560)	
300~400 미만	30.6	49.3	17.1	2.4	0.7	100.0(1,806)	
400~500 미만	25.9	50.6	19.5	3.5	0.5	100.0(1,458)	
500 이상	26.2	49.4	19.7	4.0	0.8	100.0(2,743)	
가구소득비							
1 미만	31.7	42.3	20.7	4.5	0.9	100.0(183)	135.4** *
1~2 미만	33.8	49.9	13.7	2.1	0.6	100.0(1,487)	
2~3 미만	30.7	51.7	14.9	2.3	0.5	100.0(2,679)	
3~4 미만	27.1	48.7	20.0	3.8	0.4	100.0(1,659)	
4 이상	23.9	48.2	22.5	4.4	1.0	100.0(2,24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집안청소의 분담에서 여성 응답자에 비해서 남성 응답다자가 남편의 집안청소 참여 정도를 더 많이 응답하는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인식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표 12-1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집안청소」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기혼남성	15.0	51.6	24.7	7.8	1.0	100.0(1,261)	
연령							
15-29세	12.8	30.6	51.8	0.0	4.8	100.0(23)	-
30-39세	11.6	45.4	32.2	9.7	1.0	100.0(216)	
40-49세	14.7	54.5	23.7	6.5	0.6	100.0(370)	
50-59세	15.5	55.0	18.9	10.2	0.4	100.0(471)	
60세 이상	18.7	46.5	29.3	2.6	2.9	100.0(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5	56.1	22.1	5.1	1.2	100.0(212)	49.6***
고등학교	19.6	53.0	21.6	4.9	0.9	100.0(559)	
대학이상	9.3	48.0	29.5	12.2	1.0	100.0(488)	
취업여부							
취업	15.6	53.1	24.0	6.2	1.1	100.0(1,080)	30.4***
비취업	11.5	42.5	28.7	16.9	0.3	100.0(181)	
기혼여성	31.2	49.3	16.6	2.4	0.6	100.0(7,053)	
연령							
15-29세	23.2	43.8	27.5	4.2	1.3	100.0(386)	140.0** *
30-39세	25.2	52.8	18.5	2.7	0.8	100.0(2,191)	
40-49세	32.4	49.5	15.7	2.1	0.3	100.0(2,506)	
50-59세	37.5	46.3	13.8	1.9	0.5	100.0(1,809)	
60세 이상	39.8	44.7	9.6	5.1	0.8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5	46.3	13.6	1.4	0.2	100.0(948)	131.3** *
고등학교	34.0	49.9	13.6	2.0	0.4	100.0(3,221)	
대학이상	25.5	49.6	20.9	3.1	0.9	100.0(2,884)	
취업여부							
취업	23.4	49.6	22.5	3.7	0.8	100.0(3,299)	295.6** *
비취업	38.0	49.0	11.4	1.3	0.4	100.0(3,75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기타 가사활동의 경우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31.7%, 주로 부인이 담당하지만 남편이 도와주는 비율은 49.6%로, 기타 가사활동에서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이 81.3%로 높았다. 기타 가사활동이 일반적인 부부간의 성역할을 함축한다고 할 때, 역시 가사활동의 부인집중 현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1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활동 중 「기타 가사활동」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전체	31.7	49.6	16.1	2.1	0.4	100.0(8,312)	
지역							
동부	32.0	49.6	15.9	2.1	0.4	100.0(7,173)	12.3*
읍·면부	30.0	49.2	17.2	2.6	1.0	100.0(1,139)	
가구원 수							
1명	64.6	14.9	-	20.5	-	100.0(10)	-
2명	28.2	43.9	23.7	3.7	0.5	100.0(1,738)	
3~4명	32.1	51.6	14.1	1.8	0.4	100.0(5,528)	
5명이상	35.6	48.5	14.2	1.3	0.4	100.0(1,03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0.3	39.8	26.5	2.0	1.3	100.0(96)	59.9***
100~200 미만	34.7	44.7	16.9	2.7	1.0	100.0(584)	
200~300 미만	34.2	51.3	12.2	1.9	0.4	100.0(1,558)	
300~400 미만	31.2	50.5	16.2	1.8	0.4	100.0(1,806)	
400~500 미만	29.0	49.8	18.9	1.7	0.6	100.0(1,458)	
500 이상	31.0	49.7	16.4	2.6	0.3	100.0(2,743)	
가구소득비							
1미만	33.8	39.2	22.4	2.8	1.9	100.0(183)	85.2***
10이상~2미만	35.0	50.3	12.3	1.8	0.5	100.0(1,486)	
20이상~3미만	32.0	52.2	14.0	1.5	0.4	100.0(2,677)	
30이상~4미만	29.7	49.9	17.6	2.5	0.3	100.0(1,659)	
40이상~	30.0	47.1	19.7	2.8	0.4	100.0(2,24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기타 가사활동을 부부가 반씩 나누어 하는 비율에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남녀의 인식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저연령층의 가사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사활동 중 「기타 가사활동」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기혼남성	16.8	52.1	23.8	6.1	1.2	100.0(1,261)	
연령							
15-29세	14.2	24.8	56.2	0.0	4.8	100.0(23)	-
30-39세	10.1	51.3	32.4	5.4	0.8	100.0(216)	
40-49세	11.8	59.2	22.7	5.9	0.4	100.0(370)	
50-59세	20.8	50.9	19.0	8.7	0.6	100.0(471)	
60세 이상	24.9	45.3	24.3	1.4	4.1	100.0(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2	52.8	18.3	4.6	2.0	100.0(212)	41.1***
고등학교	18.7	55.9	20.3	4.1	1.0	100.0(559)	
대학이상	12.0	47.6	30.4	9.0	1.0	100.0(488)	
취업여부							
취업	16.5	54.2	23.4	4.6	1.3	100.0(1,080)	34.6***
비취업	18.3	39.7	26.2	15.1	0.6	100.0(181)	
기혼여성	34.4	49.1	14.7	1.4	0.3	100.0(7,052)	
연령							
15-29세	19.8	49.5	29.2	0.8	0.6	100.0(385)	158.9** *
30-39세	31.0	49.8	17.3	1.4	0.5	100.0(2,191)	
40-49세	36.2	50.0	12.1	1.5	0.2	100.0(2,506)	
50-59세	38.5	47.7	12.5	1.1	0.2	100.0(1,808)	
60세 이상	42.4	41.1	10.6	5.8	0.1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7.3	49.6	11.3	1.7	0.1	100.0(947)	80.3***
고등학교	36.3	50.2	11.9	1.4	0.2	100.0(3,221)	
대학이상	31.4	47.7	19.0	1.4	0.5	100.0(2,883)	
취업여부							
취업	28.5	48.5	20.7	2.0	0.4	100.0(3,298)	226.4** *
비취업	39.6	49.7	9.5	1.0	0.3	100.0(3,75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한편, 남성의 가사 참여는 요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 참여는 평일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중이 증가한다. 반면 여성의 가사 참여는 평일에 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간 감소한다. 그러나 주말에 남성의 가사참여 비중이 증가하는 정도에 비해서 주말에 여성의 가사참여 비중의 감소 정도는 크지 않다. 즉 주말에 남성이 가사에 많이 참여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주말가사활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2-1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 및 요일별 가사활동의 분담 방법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평일			토요일			일요일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전체	(8,316)	79.8	15.8	4.4	74.1	22.3	3.5	72.5	24.2	3.3
지역										
동부	(7,176)	79.8	15.7	4.5	74.0	22.4	3.5	72.3	24.3	3.4
읍·면부	(1,141)	79.8	16.6	3.6	75.0	21.6	3.4	73.6	23.3	3.1
가구원 수										
1명	(10)	82.6	17.4	0.0	80.7	19.3	0.0	84.7	15.3	0.0
2명	(1,739)	78.6	20.9	0.5	73.5	26.2	0.3	72.4	27.3	0.3
3~4명	(5,529)	81.6	14.9	3.5	75.3	21.9	2.7	73.4	24.0	2.6
5명이상	(1,038)	72.5	12.1	15.4	68.8	18.0	13.1	67.9	19.9	12.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97)	73.7	22.7	3.7	72.9	24.4	2.6	72.9	24.6	2.5
100~200 미만	(584)	81.0	16.7	2.3	78.1	19.8	2.1	76.8	21.2	2.1
200~300 미만	(1,560)	82.0	15.7	2.3	77.2	20.5	2.3	74.9	22.9	2.2
300~400 미만	(1,806)	81.3	15.6	3.0	75.3	21.8	2.9	73.5	23.7	2.8
400~500 미만	(1,458)	78.3	16.7	4.9	72.0	23.8	4.2	70.0	25.9	4.1
500 이상	(2,744)	78.5	14.9	6.6	72.0	23.4	4.6	70.8	25.0	4.3
육구소득비										
1미만	(184)	74.5	19.8	5.7	72.7	22.3	5.1	73.3	21.9	4.8
1이상~2미만	(1,487)	81.2	14.5	4.4	77.2	18.7	4.1	75.3	20.8	3.9
2이상~3미만	(2,679)	81.2	15.0	3.8	75.2	21.4	3.4	73.2	23.4	3.3
3이상~4미만	(1,660)	79.6	16.4	4.0	73.4	23.3	3.3	71.4	25.6	3.0
4이상~	(2,240)	78.1	16.7	5.2	71.5	25.1	3.4	70.4	26.5	3.1

자료: 본 조사결과

주말에도 여전히 여성의 가사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매우 큰 편이다. 그러나 남성들이 생각하는 남편의 주말 가사참여정도는 실제로 여성들이 생각하는 참여정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1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 및 요일별 가사활동의 분담 방법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평일			토요일			일요일		
		부인	남편	가족/ 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 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 도우미
기혼남성	(1,261)	70.0	26.1	3.9	66.5	30.2	3.3	66.0	30.9	3.1
연령										
15-29세	(23)	62.3	32.8	4.9	56.9	38.2	4.9	55.4	41.1	3.5
30-39세	(216)	67.5	28.9	3.6	62.0	35.1	2.9	61.4	36.5	2.1
40-49세	(370)	68.7	25.4	5.9	64.5	31.1	4.4	64.0	32.0	4.1
50-59세	(471)	71.6	25.4	3.0	69.0	28.2	2.8	69.1	27.9	3.0
60세 이상	(180)	72.3	25.1	2.6	70.5	26.8	2.8	68.9	28.4	2.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2)	71.0	24.6	4.4	69.6	25.7	4.7	69.1	26.1	4.8
고등학교	(559)	72.4	24.3	3.3	69.4	27.6	3.0	68.7	28.7	2.6
대학이상	(488)	66.7	28.8	4.5	61.6	35.3	3.0	61.3	35.7	3.0
취업여부										
취업	(1,080)	71.3	24.6	4.1	67.2	29.3	3.5	66.3	30.5	3.2
비취업	(181)	61.7	35.1	3.2	61.8	35.7	2.5	64.0	33.4	2.6
기혼여성	(7,056)	81.6	14.0	4.5	75.5	20.9	3.5	73.6	23.0	3.4
연령										
15-29세	(386)	75.3	18.7	6.0	66.5	28.8	4.7	63.6	32.3	4.1
30-39세	(2,191)	79.0	15.4	5.6	71.6	25.2	3.2	69.4	27.9	2.7
40-49세	(2,506)	83.1	12.5	4.4	77.3	18.9	3.8	75.5	20.7	3.8
50-59세	(1,811)	83.9	13.1	3.0	79.4	17.0	3.5	78.1	18.4	3.5
60세 이상	(162)	82.3	15.6	2.1	79.0	18.5	2.5	77.2	20.1	2.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48)	83.2	13.3	3.5	80.1	16.1	3.8	78.5	17.9	3.7
고등학교	(3,221)	82.9	13.3	3.9	77.5	18.7	3.8	75.4	20.9	3.7
대학이상	(2,886)	79.6	15.0	5.4	71.8	25.0	3.2	70.1	27.0	2.9
취업여부										
취업	(3,301)	75.3	18.0	6.7	70.5	24.6	4.9	69.1	26.4	4.6
비취업	(3,755)	87.1	10.4	2.5	79.9	17.7	2.4	77.7	20.0	2.3

자료: 본 조사결과

2. 자녀양육 부담

앞에서는 살핀 가사활동에 대한 부부의 분담방법에 이어서 자녀 양육 활동의 부부간 분담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자녀 양육활동 중 에서 학교공부를 분담하는 방법에서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34.8%,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남편이 도와주는 비율은 41.8%로,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이 76.6%로 높았다.

〈표 12-1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양육 활동 중 「학교공부」 분담방법

특성	전적으로	주로부인	반씩나누	주로남편	전적으로	계(수)	χ^2
	부인	남편도움	여함	부인도움	남편		
전체	34.8	41.8	18.9	4.0	0.5	100.0(4,672)	
지역							
동부	35.0	42.2	18.5	3.9	0.4	100.0(4,102)	5.9
읍·면부	33.8	39.0	21.8	4.8	0.7	100.0(571)	
가구원 수							
1명	-	-	-	-	100.0	100.0(2)	-
2명	29.1	30.9	35.1	1.5	3.4	100.0(49)	
3~4명	34.6	42.2	18.8	4.0	0.3	100.0(3,740)	
5명이상	36.2	40.7	18.3	4.0	0.8	100.0(88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9.2	42.5	25.3	3.1	-	100.0(24)	-
100~200 미만	38.3	34.5	22.7	2.3	2.2	100.0(174)	
200~300 미만	33.8	46.5	15.4	3.6	0.6	100.0(828)	
300~400 미만	37.5	43.0	15.8	3.2	0.4	100.0(1,098)	
400~500 미만	32.9	40.5	22.0	4.1	0.4	100.0(892)	
500 이상	34.6	39.4	20.8	4.9	0.3	100.0(1,627)	
육구소득비							
1 미만	29.1	39.3	28.6	1.0	2.0	100.0(71)	-
1~2 미만	36.8	43.6	15.2	3.3	1.0	100.0(939)	
2~3 미만	35.4	42.6	17.8	3.9	0.3	100.0(1,691)	
3~4 미만	35.4	39.5	20.2	4.6	0.3	100.0(894)	
4 이상	32.5	40.0	22.7	4.5	0.3	100.0(1,047)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의 학교공부를 돌볼 때 부부가 반씩 나누어 담당하는 비율은 남성 응답자 33.0%, 여성 응답자 17.2%로 나타나, 가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양육돌봄에서도 현실에 대한 남녀 인식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1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양육 활동 중 「학교공부」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기혼남성	14.4	43.2	33.0	7.9	1.5	100.0(515)	
연령							
15-29세	14.6	39.0	28.2	6.3	11.9	100.0(9)	-
30-39세	14.6	39.8	38.8	6.0	0.7	100.0(149)	
40-49세	14.0	45.2	30.4	9.0	1.3	100.0(289)	
50-59세	13.2	44.5	32.6	7.0	2.6	100.0(64)	
60세 이상	60.3	-	27.4	12.3	-	100.0(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9	38.6	28.8	17.7	-	100.0(28)	-
고등학교	12.2	48.9	34.3	1.9	2.7	100.0(218)	
대학이상	16.1	38.9	32.5	11.8	0.7	100.0(268)	
취업여부							
취업	14.4	43.0	33.6	7.8	1.3	100.0(481)	-
비취업	14.4	45.9	25.4	9.6	4.6	100.0(33)	
기혼여성	37.4	41.6	17.2	3.5	0.3	100.0(4,157)	
연령							
15-29세	30.1	45.8	22.5	1.7	-	100.0(251)	-
30-39세	36.4	42.8	16.7	3.8	0.3	100.0(1,949)	
40-49세	39.1	40.2	16.7	3.5	0.4	100.0(1,813)	
50-59세	42.0	35.7	20.1	2.2	-	100.0(144)	
60세 이상	-	100.0	-	-	-	100.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2.6	30.6	22.3	3.8	0.7	100.0(153)	34.7***
고등학교	38.5	42.0	14.5	4.5	0.5	100.0(1,846)	
대학이상	36.0	42.1	19.1	2.7	0.2	100.0(2,158)	
취업여부							
취업	32.2	40.2	22.3	4.8	0.5	100.0(1,952)	103.3*** *
비취업	41.9	42.8	12.6	2.4	0.3	100.0(2,206)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 양육활동 중에서 자녀와 놀아주기의 부부의 분담방법에서, 전적으로 부인이 하는 비율은 11.8%, 주로 부인이 하고 남편이 돕는 비율은 48.7%의 분포를 보였다. 자녀와 놀아주기에서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체 비율은 60.5%로, 앞서 분석한 가사활동과 다른 자녀 양육활동의 분담 방법에서 부인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활동보다는 크게 낮았다. 즉 자녀와 놀아주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1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양육 활동 중 「놀아주기」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전체	11.8	48.7	30.8	8.0	0.5	100.0(4,686)	
지역							
동부	11.9	49.4	30.5	7.7	0.5	100.0(4,114)	9.4#
읍·면부	11.7	44.1	33.0	10.6	0.6	100.0(571)	
가구원 수							
1명	-	-	-	-	100.0	100.0(2)	-
2명	12.9	42.0	41.7	0.0	3.4	100.0(49)	
3~4명	11.5	49.1	30.7	8.2	0.4	100.0(3,754)	
5명이상	13.1	47.5	30.9	7.6	0.8	100.0(88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2.3	37.4	34.5	5.9	-	100.0(24)	-
100~200 미만	10.6	43.5	39.3	4.3	2.2	100.0(174)	
200~300 미만	13.6	52.0	26.2	7.8	0.3	100.0(833)	
300~400 미만	11.6	49.3	30.0	8.6	0.5	100.0(1,110)	
400~500 미만	11.3	45.9	33.3	9.2	0.3	100.0(893)	
500 이상	11.3	49.5	30.9	7.7	0.6	100.0(1,632)	
육구소득비							
1 미만	17.5	40.3	37.5	2.8	2.0	100.0(71)	32.2**
1~2 미만	13.9	52.0	26.3	7.1	0.7	100.0(941)	
2~3 미만	11.2	47.7	31.6	9.0	0.4	100.0(1,696)	
3~4 미만	11.3	50.5	29.5	8.4	0.3	100.0(898)	
4 이상	10.9	47.3	33.5	7.5	0.8	100.0(1,04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와 놀아주기의 경우 부부가 반씩 나누어 담당한다는 응답에서 남성은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연령층 남편의 참여가 다소 높은 것이다.

〈표 12-2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양육 활동 중 「놀아주기」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기혼남성	5.0	42.2	42.2	10.1	0.5	100.0(516)	
연령							
15-29세	10.1	44.1	34.9	-	10.9	100.0(10)	-
30-39세	2.4	42.1	44.4	11.2	-	100.0(149)	
40-49세	5.6	40.2	42.8	10.9	0.5	100.0(290)	
50-59세	7.6	50.1	36.4	5.9	-	100.0(64)	
60세 이상	-	60.3	27.4	12.3	-	100.0(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46.6	37.2	15.4	-	100.0(28)	-
고등학교	4.4	46.8	41.8	5.7	1.2	100.0(220)	
대학이상	5.9	37.8	43.1	13.2	-	100.0(268)	
취업여부							
취업	5.1	43.0	41.5	9.9	0.4	100.0(483)	-
비취업	2.9	29.5	52.2	14.0	1.4	100.0(33)	
기혼여성	12.7	49.5	29.4	7.8	0.5	100.0(4,170)	
연령							
15-29세	8.1	51.0	33.4	6.9	0.6	100.0(251)	-
30-39세	9.3	50.2	30.6	9.2	0.7	100.0(1,951)	
40-49세	16.2	48.5	28.2	6.7	0.4	100.0(1,813)	
50-59세	22.8	52.1	21.9	3.2	-	100.0(144)	
60세 이상	-	100.0	-	-	-	100.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6	56.1	18.9	6.3	-	100.0(153)	35.9***
고등학교	14.1	51.0	26.4	7.9	0.6	100.0(1,846)	
대학이상	11.1	47.9	32.7	7.8	0.5	100.0(2,160)	
취업여부							
취업	11.3	46.7	32.9	8.4	0.7	100.0(1,953)	30.6***
비취업	13.9	52.1	26.4	7.2	0.4	100.0(2,206)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 양육활동 중에서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등하교 분담방법에서, 전적으로 부인이 전담하는 비율은 41.9%, 주로 부인이 전담하고 남편이 돕는 비율은 36.5%로,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등하교 분담방법에서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체 비율이 78.4%로 매우 높았다. 이것은 취업한 남편들이 출퇴근시간에 자녀의 등하교에 관여하지 않는 경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2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양육활동 중 「보육시설, 학교 등하교」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전체	41.9	36.5	17.5	3.4	0.6	100.0(4,674)	
지역							
동부	42.2	36.6	17.4	3.2	0.6	100.0(4,104)	5.9
읍·면부	40.4	36.2	17.7	5.0	0.7	100.0(571)	
가구원 수							
1명	-	-	-	-	100.0	100.0(2)	-
2명	23.5	32.8	35.3	5.1	3.4	100.0(49)	
3~4명	41.8	36.6	17.7	3.4	0.5	100.0(3,742)	
5명이상	43.5	36.7	15.5	3.5	0.7	100.0(88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6.4	34.7	22.1	5.6	1.2	100.0(24)	59.1***
100~200 미만	42.0	29.6	23.4	3.3	1.7	100.0(174)	
200~300 미만	39.6	43.0	12.8	4.4	0.1	100.0(828)	
300~400 미만	46.4	34.9	15.4	2.7	0.6	100.0(1,098)	
400~500 미만	40.2	35.1	21.1	3.1	0.4	100.0(892)	
500 이상	41.6	35.3	18.6	3.5	0.9	100.0(1,628)	
가구소득비							
1 미만	35.9	34.0	26.4	2.7	1.0	100.0(71)	36.1**
1~2 미만	41.5	40.2	14.4	3.4	0.5	100.0(939)	
2~3 미만	44.9	35.1	16.1	3.4	0.5	100.0(1,691)	
3~4 미만	40.9	36.6	19.3	2.9	0.4	100.0(895)	
4 이상	39.6	34.8	20.4	4.0	1.1	100.0(1,047)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보육시설 및 학교의 등하교 분담에서, 부부가 반씩 나누어 담당하는 비율에서 남성은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등하교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2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양육활동 중 「보육시설 학교 등하교」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기혼남성	22.3	41.5	28.3	6.9	1.0	100.0(515)	
연령							
15-29세	18.2	45.3	24.6	-	11.9	100.0(9)	-
30-39세	23.8	38.9	30.3	7.0	-	100.0(149)	
40-49세	23.2	40.8	27.7	6.9	1.5	100.0(289)	
50-59세	13.6	52.0	27.1	7.4	-	100.0(64)	
60세 이상	60.3	-	27.4	12.3	-	100.0(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9	48.0	19.8	13.2	-	100.0(28)	-
고등학교	23.0	45.8	24.9	4.7	1.6	100.0(218)	
대학이상	22.1	37.2	32.0	8.0	0.7	100.0(268)	
취업여부							
취업	21.5	43.0	28.2	6.3	1.0	100.0(481)	-
비취업	33.4	19.9	30.2	15.1	1.4	100.0(33)	
기혼여성	44.4	35.9	16.1	3.0	0.6	100.0(4,159)	
연령							
15-29세	39.3	38.9	19.2	2.6	-	100.0(251)	-
30-39세	45.2	36.1	15.3	2.9	0.5	100.0(1,951)	
40-49세	44.1	35.3	16.9	2.9	0.8	100.0(1,813)	
50-59세	45.9	35.6	13.0	5.0	0.5	100.0(144)	
60세 이상	-	100.0	-	-	-	100.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6.8	36.2	12.5	4.5	-	100.0(153)	27.7***
고등학교	46.8	35.5	13.6	3.3	0.8	100.0(1,846)	
대학이상	42.1	36.3	18.5	2.5	0.5	100.0(2,160)	
취업여부							
취업	37.1	37.1	20.6	4.4	0.8	100.0(1,953)	118.1***
비취업	50.8	34.9	12.2	1.7	0.4	100.0(2,206)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기타 자녀 양육활동의 분담방법에서, 전적으로 부인이 하는 비율은 22.8%, 주로 부인이 하고 남편이 돕는 비율은 47.6%로,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체 비율이 70.4%로 매우 높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활동의 여성 집중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12-2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양육활동 중 「기타 자녀양육활동」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 나누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전체	22.8	47.6	27.2	2.2	0.3	100.0(4,686)	
지역							
동부	23.0	48.0	26.6	2.1	0.3	100.0(4,114)	7.4
읍·면부	21.6	44.7	30.8	2.9	0.0	100.0(571)	
가구원 수							
1명	-	-	-	-	100.0	100.0(2)	-
2명	20.2	31.6	44.8	-	3.4	100.0(49)	
3~4명	22.5	48.1	26.9	2.4	0.1	100.0(3,754)	
5명이상	24.2	46.2	27.4	1.8	0.4	100.0(88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9.5	28.1	31.0	1.4	-	100.0(24)	-
100~200 미만	19.2	44.9	33.0	1.2	1.7	100.0(174)	
200~300 미만	22.3	52.3	20.9	4.4	0.1	100.0(833)	
300~400 미만	21.8	51.1	24.5	2.3	0.3	100.0(1,110)	
400~500 미만	22.9	45.3	29.7	1.8	0.3	100.0(893)	
500 이상	23.8	45.1	29.4	1.5	0.2	100.0(1,632)	
육구소득비							
1 미만	23.4	40.3	34.3	1.3	0.6	100.0(71)	-
1~2 미만	22.5	50.9	23.0	3.1	0.4	100.0(941)	
2~3 미만	22.8	49.3	25.3	2.4	0.2	100.0(1,696)	
3~4 미만	22.3	46.7	29.2	1.6	0.1	100.0(898)	
4 이상	23.5	43.7	30.6	1.9	0.2	100.0(1,04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2-2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양육활동 중 「기타 자녀양육활동」 분담방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부인	주로부인 남편도움	반씩나누 어함	주로남편 부인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χ^2
기혼남성	8.0	46.5	40.0	4.8	0.7	100.0(516)	
연령							
15-29세	13.4	44.1	31.6	-	10.9	100.0(10)	-
30-39세	4.7	48.5	44.5	2.2	-	100.0(149)	
40-49세	9.6	44.9	38.9	5.8	0.8	100.0(290)	
50-59세	8.2	49.0	36.0	6.8	-	100.0(64)	
60세 이상	-	60.3	27.4	12.3	-	100.0(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9	45.5	32.1	10.6	-	100.0(28)	-
고등학교	6.0	56.6	33.7	2.3	1.4	100.0(220)	
대학이상	9.3	38.3	46.0	6.3	0.1	100.0(268)	
취업여부							
취업	7.7	47.0	40.3	4.4	0.6	100.0(483)	-
비취업	12.9	40.3	34.7	10.9	1.4	100.0(33)	
기혼여성	24.6	47.7	25.6	1.9	0.2	100.0(4,170)	
연령							
15-29세	19.5	41.2	36.7	2.6	-	100.0(251)	-
30-39세	23.8	48.2	25.5	2.3	0.2	100.0(1,961)	
40-49세	26.4	48.2	23.7	1.5	0.2	100.0(1,813)	
50-59세	23.4	44.4	31.1	1.1	-	100.0(144)	
60세 이상	-	100.0	-	-	-	100.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5	42.5	24.1	4.9	-	100.0(153)	-
고등학교	24.6	50.4	22.6	2.0	0.3	100.0(1,849)	
대학이상	24.4	45.7	28.2	1.6	0.1	100.0(2,167)	
취업여부							
취업	20.8	45.3	31.2	2.4	0.2	100.0(1,958)	-
비취업	28.0	49.8	20.6	1.5	0.2	100.0(2,212)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 양육활동의 부부 분담비율에서 요일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남편의 참여비율은 평일 18.8%, 토요일 28.4%, 일요일 31.2%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부인의 참여비율은 평일

76.7%, 토요일 69.1%, 일요일 66.6%로 점차 감소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욕구소득비 1미만 집단이 평일에 비해 일요일의 증가폭이 가장 적었고, 욕구소득비 4이상 집단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저소득층 남편의 주말 양육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 및 요일별 자녀양육활동의 분담 방법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평일			토요일			일요일		
		부인	남편	가족/ 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 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 도우미
전체	(4,685)	76.7	18.8	4.6	69.1	28.4	2.5	66.6	31.2	2.2
지역										
동부	(4,113)	76.9	18.5	4.6	69.2	28.4	2.4	66.6	31.2	2.1
읍·면·부	(571)	74.7	20.9	4.4	68.3	28.6	3.1	66.0	31.7	2.3
가구원 수										
1명	(2)	61.0	39.0	0.0	61.0	39.0	0.0	68.8	31.2	0.0
2명	(48)	55.4	21.3	23.3	56.3	29.9	13.8	57.1	31.8	11.0
3~4명	(3,753)	78.3	18.9	2.8	69.9	29.1	1.0	67.1	32.1	0.8
5명이상	(882)	71.0	18.0	11.0	66.3	25.4	8.3	64.9	27.7	7.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4)	75.4	20.8	3.8	73.1	23.5	3.4	70.1	27.3	2.6
100~200 미만	(174)	74.3	21.8	3.9	69.4	27.1	3.4	67.6	29.0	3.4
200~300 미만	(833)	79.1	18.3	2.6	72.5	26.1	1.4	68.4	30.3	1.1
300~400 미만	(1,098)	78.9	17.9	3.2	71.3	26.6	2.1	68.9	29.2	1.8
400~500 미만	(894)	75.2	20.1	4.7	67.4	29.6	2.9	65.0	32.3	2.7
500 이상	(1,632)	75.2	18.3	6.5	66.8	30.3	2.9	64.8	32.7	2.4
욕구소득비										
1 미만	(71)	72.5	22.2	5.3	70.3	24.6	5.2	69.9	25.7	4.4
1~2 미만	(941)	78.4	17.6	4.1	72.1	24.7	3.2	68.5	28.4	3.0
2~3 미만	(1,695)	77.6	18.9	3.5	69.9	28.1	2.0	67.4	30.8	1.8
3~4 미만	(899)	76.3	18.5	5.2	68.5	28.7	2.8	66.1	31.7	2.2
4 이상	(1,048)	74.6	19.3	6.0	65.6	32.2	2.2	63.8	34.5	1.8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 양육활동의 요일별 변화에서 남성이 인식하는 참여 정도보다 여성이 인식하는 남편 참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말의 남편 참여가 여성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2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 및 요일별 자녀양육활동의 부담 방법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평일			토요일			일요일		
		부인	남편	가족/ 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 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 도우미
기혼남성	(516)	65.6	29.7	4.7	61.0	36.5	2.5	60.0	38.0	2.0
연령										
15-29세	(23)	62.9	29.2	8.0	58.4	34.7	6.9	58.2	35.4	6.3
30-39세	(149)	63.6	30.0	6.4	61.0	36.3	2.7	60.6	38.0	1.4
40-49세	(290)	66.3	29.1	4.5	60.5	37.1	2.4	59.1	38.7	2.2
50-59세	(64)	66.6	31.9	1.5	63.1	35.0	2.0	62.7	35.4	2.0
60세 이상	(3)	76.9	23.1	0.0	74.1	25.9	0.0	75.4	24.6	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	67.1	30.0	2.9	63.5	33.9	2.6	62.2	35.9	1.9
고등학교	(220)	66.8	29.2	4.1	63.2	33.7	3.1	62.1	35.5	2.5
대학이상	(268)	64.5	30.0	5.5	59.0	38.9	2.1	58.1	40.2	1.6
취업여부										
취업	(483)	66.0	29.3	4.7	61.2	36.4	2.4	60.0	38.1	1.9
비취업	(33)	59.3	35.5	5.1	58.0	37.3	4.7	60.2	36.2	3.6
기혼여성	(4,169)	78.0	17.4	4.5	70.1	27.4	2.5	67.4	30.4	2.2
연령										
15-29세	(251)	73.8	18.4	7.7	66.7	27.4	5.9	63.4	31.6	5.0
30-39세	(1,961)	76.4	17.7	5.9	67.6	29.6	2.8	64.5	33.0	2.4
40-49세	(1,812)	80.2	16.9	2.9	73.0	25.3	1.7	70.8	27.6	1.5
50-59세	(143)	80.3	18.4	1.3	73.5	25.0	1.6	69.6	27.8	1.6
60세 이상	(1)	90.0	10.0	0.0	90.0	10.0	0.0	90.0	10.0	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3)	77.0	18.4	4.6	75.2	21.9	2.9	72.5	24.5	3.0
고등학교	(1,848)	78.8	17.3	3.9	71.9	25.3	2.8	68.7	28.8	2.4
대학이상	(2,167)	77.4	17.5	5.1	68.2	29.6	2.2	65.9	32.2	1.9
취업여부										
취업	(1,959)	71.5	20.5	8.0	65.9	30.2	3.9	63.9	32.7	3.3
비취업	(2,209)	83.8	14.7	1.5	73.8	25.0	1.2	70.5	28.4	1.1

자료: 본 조사결과

3. 부부간 의사결정

가족의 역할에서 가족 내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부부간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일상생활비 지출의 경우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43.7%,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21.9%로, 부인이 중심의 의사결정의 전체 비율이 65.6%의 높은 비율이었다.

〈표 12-2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①

(단위: %, 명)

특성	일상생활비 지출					계(수)	χ^2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전체	1.0	4.3	28.9	43.7	21.9	100.0(8,315)	
지역							
동부	1.0	4.0	29.4	43.6	21.9	100.0(7,174)	15.9**
읍·면부	1.2	6.3	26.1	44.3	22.1	100.0(1,141)	
가구원 수							
1명	-	-	6.0	46.3	47.7	100.0(10)	-
2명	1.1	5.2	34.8	40.2	18.8	100.0(1,739)	
3~4명	1.1	4.0	26.5	45.4	23.0	100.0(5,528)	
5명이상	0.8	4.7	32.2	40.8	21.6	100.0(1,03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8.9	37.2	35.3	18.6	100.0(97)	110.1***
100~200 미만	1.3	7.5	29.7	41.8	19.7	100.0(584)	
200~300 미만	1.7	7.2	27.4	43.6	20.1	100.0(1,560)	
300~400 미만	1.2	3.8	26.9	45.2	22.8	100.0(1,805)	
400~500 미만	0.9	3.9	31.4	44.3	19.6	100.0(1,458)	
500 이상	0.6	2.5	29.3	43.6	24.0	100.0(2,745)	
가구소득비							
1 미만	1.5	8.6	37.4	32.8	19.6	100.0(184)	95.6***
1~2 미만	0.9	7.0	27.9	42.6	21.6	100.0(1,487)	
2~3 미만	1.4	4.8	27.2	45.4	21.2	100.0(2,678)	
3~4 미만	1.2	3.1	28.8	46.5	20.4	100.0(1,660)	
4 이상	0.6	2.6	31.0	41.7	24.0	100.0(2,24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일상생활비 지출의 의사결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36.7%, 여성의 경우는 27.6%로 9.1%pt 격차가 나고 있다.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2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①

특성	일상생활비 지출					계(수)	χ^2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남편결정	남편결정	결정	부인결정	부인결정		
기혼남성	1.5	7.6	36.7	40.4	13.8	100.0(1,261)	
연령							
15-29세	6.2	10.3	59.4	12.2	11.9	100.0(23)	-
30-39세	0.2	7.8	32.4	42.2	17.4	100.0(216)	
40-49세	1.6	8.7	40.2	36.9	12.6	100.0(370)	
50-59세	1.0	7.3	33.4	45.8	12.6	100.0(471)	
60세 이상	3.4	5.9	40.6	34.9	15.2	100.0(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	9.0	33.8	40.0	15.5	100.0(212)	12.6
고등학교	1.8	8.0	33.5	44.1	12.7	100.0(559)	
대학이상	1.0	6.7	41.7	36.2	14.4	100.0(488)	
취업여부							
취업	1.6	7.8	35.0	41.2	14.3	100.0(1,080)	10.6*
비취업	0.5	6.6	47.1	35.3	10.5	100.0(181)	
기혼여성	1.0	3.7	27.6	44.3	23.4	100.0(7,055)	
연령							
15-29세	0.3	5.0	39.7	43.2	11.8	100.0(386)	87.9***
30-39세	1.4	4.0	28.8	43.4	22.5	100.0(2,191)	
40-49세	0.7	2.7	24.6	47.2	24.8	100.0(2,507)	
50-59세	0.8	4.6	27.4	41.9	25.3	100.0(1,809)	
60세 이상	2.0	5.2	29.7	42.0	21.2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8.3	27.6	41.5	21.6	100.0(948)	97.0***
고등학교	1.3	3.7	25.2	45.2	24.6	100.0(3,221)	
대학이상	0.5	2.3	30.1	44.3	22.6	100.0(2,885)	
취업여부							
취업	0.8	3.7	30.3	43.4	21.8	100.0(3,300)	25.2***
비취업	1.1	3.8	25.2	45.1	24.8	100.0(3,755)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부부간 의사결정에서 주택매매 및 이사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75.7%로 매우 높았다. 남편중심 결정비율이나 부인중심 결정비율은 10%내외로 낮은 수준이었다. 주택매매 또는 이사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었다.

〈표 12-2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②

(단위: %, 명)

특성	주택매매 및 이사					계(수)	χ^2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전체	2.3	10.9	75.7	8.4	2.8	100.0(8,315)	
지역							
동부	2.0	10.4	76.2	8.6	2.8	100.0(7,174)	26.3***
읍·면부	3.7	13.8	72.6	7.5	2.4	100.0(1,141)	
가구원 수							
1명	-	-	64.5	-	35.5	100.0(10)	-
2명	2.4	10.9	77.4	7.0	2.4	100.0(1,739)	
3~4명	2.2	10.6	75.1	9.1	2.9	100.0(5,528)	
5명이상	2.2	12.2	75.8	7.6	2.2	100.0(1,03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4	15.2	64.8	8.6	8.0	100.0(97)	69.1***
100~200 미만	2.8	11.6	72.9	7.7	5.0	100.0(584)	
200~300 미만	3.0	14.1	72.9	6.9	3.1	100.0(1,560)	
300~400 미만	2.1	10.8	75.7	8.7	2.6	100.0(1,805)	
400~500 미만	1.5	9.7	77.3	9.4	2.1	100.0(1,458)	
500 이상	2.1	9.5	77.2	8.7	2.4	100.0(2,745)	
옥구소득비							
1 미만	5.0	11.6	68.4	7.0	7.9	100.0(184)	77.9***
1~2 미만	2.6	11.9	73.8	7.4	4.2	100.0(1,487)	
2~3 미만	2.2	12.9	74.5	8.4	2.1	100.0(2,678)	
3~4 미만	2.2	10.3	76.1	8.9	2.6	100.0(1,660)	
4 이상	1.9	8.4	78.4	9.0	2.3	100.0(2,24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주택매매 및 이사 결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남성 73.4%, 여성 76.1%로 나타남으로써, 주택 매매 및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체로 부부가 공동으로 하며, 남녀의 인식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12-3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②

특성	주택매매 및 이사					계(수)	χ^2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기혼남성	3.3	13.9	73.4	7.2	2.2	100.0(1,261)	
연령							
15-29세	6.2	4.6	85.9	1.3	2.0	100.0(23)	-
30-39세	3.4	13.7	74.3	7.9	0.7	100.0(216)	
40-49세	3.1	15.6	70.1	8.1	3.1	100.0(370)	
50-59세	2.9	13.8	74.6	7.0	1.8	100.0(471)	
60세 이상	4.6	12.5	74.6	5.5	2.9	100.0(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	18.5	68.8	6.8	3.5	100.0(212)	9.8
고등학교	3.6	14.6	73.1	6.8	2.0	100.0(559)	
대학이상	3.2	11.3	75.9	7.8	1.7	100.0(488)	
취업여부							
취업	3.3	14.8	72.3	7.3	2.2	100.0(1,080)	5.8
비취업	3.5	8.6	80.1	6.1	1.6	100.0(181)	
기혼여성	2.1	10.3	76.1	8.7	2.9	100.0(7,055)	
연령							
15-29세	1.0	15.9	76.2	5.4	1.5	100.0(386)	67.3***
30-39세	2.5	10.3	77.1	7.9	2.1	100.0(2,191)	
40-49세	1.7	9.8	75.4	9.9	3.1	100.0(2,507)	
50-59세	1.8	9.9	76.4	8.2	3.7	100.0(1,809)	
60세 이상	7.5	10.0	68.1	11.7	2.7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	16.0	70.3	6.3	4.7	100.0(948)	73.0***
고등학교	2.4	9.1	76.2	9.4	2.9	100.0(3,221)	
대학이상	1.5	9.9	77.8	8.6	2.3	100.0(2,885)	
취업여부							
취업	1.6	8.5	77.5	9.4	3.0	100.0(3,300)	34.5***
비취업	2.5	12.0	74.9	8.0	2.7	100.0(3,755)	

주: 1) *** $p < .001$, ** $p < .01$, * $p < .05$, # $p < .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부부간 의사결정에서 투자 및 재산증식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70.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주택매매 및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 및 재산증식 역시 가족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규모가 큰 경제적 변화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3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③

(단위: %, 명)

특성	투자 및 재산증식					계(수)	χ^2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전체	3.1	13.4	70.0	10.3	3.3	100.0(8,314)	
지역							
동부	2.9	12.8	70.6	10.4	3.3	100.0(7,173)	19.1**
읍·면부	4.1	16.7	66.1	10.1	2.9	100.0(1,141)	
가구원 수							
1명	-	-	57.0	7.5	35.5	100.0(10)	-
2명	2.8	12.1	73.1	9.3	2.6	100.0(1,738)	
3~4명	2.9	13.4	69.4	10.7	3.6	100.0(5,528)	
5명이상	4.4	15.3	67.8	10.1	2.5	100.0(1,03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5	12.7	69.3	7.6	7.0	100.0(96)	44.4**
100~200 미만	3.3	13.0	67.8	10.5	5.4	100.0(584)	
200~300 미만	3.7	16.1	66.8	9.7	3.7	100.0(1,560)	
300~400 미만	3.0	12.6	70.4	11.0	3.0	100.0(1,805)	
400~500 미만	2.1	12.3	70.6	11.9	3.0	100.0(1,458)	
500 이상	3.2	13.2	71.3	9.6	2.7	100.0(2,745)	
옥구소득비							
1 미만	4.4	11.8	68.0	7.7	8.1	100.0(183)	45.1**
1~2 미만	3.3	14.4	67.0	10.3	4.9	100.0(1,487)	
2~3 미만	3.2	14.0	69.7	10.6	2.6	100.0(2,678)	
3~4 미만	2.8	12.8	70.0	11.4	3.0	100.0(1,660)	
4 이상	2.8	12.7	72.1	9.6	2.9	100.0(2,24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의 투자 및 재산증식 결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남성 69.7%, 여성 70.0%로 나타남으로써, 의사결정은 대체로 부부가 공동으로 하며, 남녀의 인식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12-3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③

특성	투자 및 재산증식					계(수)	χ^2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남편결정	남편결정	결정	부인결정	부인결정		
기혼남성	3.8	15.7	69.7	8.4	2.3	100.0(1,261)	
연령							
15-29세	6.2	4.6	85.1	2.1	2.0	100.0(23)	-
30-39세	7.0	14.8	69.6	7.7	0.9	100.0(216)	
40-49세	3.1	18.2	64.6	10.8	3.3	100.0(370)	
50-59세	2.5	13.9	73.3	8.4	1.9	100.0(471)	
60세 이상	4.8	17.5	68.9	5.6	3.2	100.0(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	17.1	67.8	8.3	4.0	100.0(212)	10.4
고등학교	4.6	17.8	67.5	8.1	2.0	100.0(559)	
대학이상	3.3	12.7	73.2	8.9	2.0	100.0(488)	
취업여부							
취업	4.0	15.6	70.0	8.0	2.4	100.0(1,080)	2.5
비취업	2.9	15.9	68.1	11.1	2.0	100.0(181)	
기혼여성	2.9	13.0	70.0	10.7	3.4	100.0(7,054)	
연령							
15-29세	3.1	15.6	71.5	8.6	1.2	100.0(386)	46.1***
30-39세	3.7	13.1	70.2	9.9	3.2	100.0(2,191)	
40-49세	2.7	12.7	69.3	12.1	3.3	100.0(2,507)	
50-59세	2.0	12.6	70.9	10.0	4.5	100.0(1,808)	
60세 이상	7.2	12.5	64.7	12.9	2.7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	16.8	65.7	9.6	5.1	100.0(948)	34.8***
고등학교	3.2	11.8	70.0	11.7	3.4	100.0(3,221)	
대학이상	2.7	13.0	71.5	9.9	2.9	100.0(2,885)	
취업여부							
취업	2.2	10.6	71.7	12.0	3.6	100.0(3,300)	51.8***
비취업	3.6	15.0	68.6	9.5	3.3	100.0(3,75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부부간 의사결정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 사항은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59.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비율은 31.5%,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비율은 5.9%였다. 결과적으로 부인이 중심으로 결정하는 전체 비율은 37.4%인 반면, 남편이 중심으로 결정하는 전체 비율은 3.0%수준에 그쳤다. 이는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에 있어 부인 결정권의 우선시되는 경향을 시사한다.

〈표 12-3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④

(단위: %, 명)

특성	자녀양육 및 교육					계(수)	χ^2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전체	0.7	2.3	59.5	31.5	5.9	100.0(6,062)	
지역							
동부	0.8	2.0	59.8	31.4	6.0	100.0(5,335)	21.0***
읍·면·부	0.6	4.7	57.1	32.2	5.4	100.0(727)	
가구원 수							
1명	-	15.6	26.6	-	57.7	100.0(5)	-
2명	1.1	4.4	67.9	22.9	3.7	100.0(420)	
3~4명	0.8	1.9	59.0	32.5	5.8	100.0(4,677)	
5명이상	0.5	3.4	58.5	30.6	7.0	100.0(960)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13.0	60.4	12.6	13.9	100.0(39)	91.1***
100~200 미만	1.1	5.9	55.9	29.1	8.0	100.0(250)	
200~300 미만	1.6	2.8	53.1	36.0	6.5	100.0(1,019)	
300~400 미만	0.5	2.5	58.3	32.5	6.2	100.0(1,337)	
400~500 미만	0.5	2.4	60.8	31.2	5.1	100.0(1,142)	
500 이상	0.6	1.4	63.3	29.2	5.6	100.0(2,229)	
가구소득비							
1 미만	1.2	8.1	65.4	16.7	8.5	100.0(104)	83.0***
1~2 미만	0.6	3.9	52.6	34.6	8.2	100.0(1,076)	
2~3 미만	1.1	2.4	58.3	33.0	5.3	100.0(2,027)	
3~4 미만	0.4	1.6	63.1	29.0	5.8	100.0(1,208)	
4 이상	0.7	1.4	63.1	29.8	5.1	100.0(1,601)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의사결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남성 67.4%, 여성 58.3%로, 9.1%pt 차이를 나타낸다.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의사결정에서 현실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12-3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④

(단위: %, 명)

특성	자녀양육 및 교육					계(수)	χ^2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기혼남성	1.3	3.5	67.4	23.8	4.0	100.0(790)	
연령							
15-29세	12.3	-	78.8	-	8.8	100.0(12)	-
30-39세	0.4	0.7	60.6	33.5	4.7	100.0(155)	
40-49세	1.5	4.6	68.7	21.0	4.1	100.0(340)	
50-59세	0.6	3.1	69.2	24.1	3.0	100.0(248)	
60세 이상	3.8	8.6	68.9	12.6	6.1	100.0(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	8.2	60.8	26.1	3.7	100.0(89)	-
고등학교	1.7	3.4	68.2	21.3	5.5	100.0(350)	
대학이상	0.9	2.4	68.3	25.7	2.7	100.0(351)	
취업여부							
취업	1.4	3.0	66.3	25.0	4.3	100.0(717)	-
비취업	-	8.4	78.5	11.8	1.3	100.0(74)	
기혼여성	0.7	2.2	58.3	32.7	6.2	100.0(5,272)	
연령							
15-29세	0.1	3.1	60.1	33.0	3.7	100.0(254)	-
30-39세	0.9	1.7	56.0	35.4	6.0	100.0(1,983)	
40-49세	0.6	2.1	58.2	32.7	6.4	100.0(2,268)	
50-59세	0.4	3.1	64.1	25.7	6.7	100.0(740)	
60세 이상	1.3	3.2	62.8	21.0	11.7	100.0(2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9	9.8	53.2	27.0	9.1	100.0(347)	132.1** *
고등학교	1.0	1.8	60.2	30.9	6.1	100.0(2,446)	
대학이상	0.3	1.4	57.1	35.3	5.9	100.0(2,479)	
취업여부							
취업	0.7	2.5	61.0	29.6	6.1	100.0(2,513)	23.5***
비취업	0.6	1.8	55.9	35.5	6.3	100.0(2,75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의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부부간 의사결정에서 기타 가정일의 경우 절반이상인 52.0%가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었다.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37.3%,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7.7%로, 부인 중심으로 결정하는 전체 비율은 45.0%이었다. 결과적으로 기타 가정일의 경우 남편 결정권보다 부인결정권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2-3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⑤

(단위: %, 명)

특성	기타 가정 일					계(수)	χ^2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전체	0.6	2.4	52.0	37.3	7.7	100.0(8,315)	
지역							
동부	0.5	2.2	51.5	37.8	8.0	100.0(7,174)	29.9***
읍·면부	1.0	3.9	55.2	34.4	5.5	100.0(1,141)	
가구원 수							
1명	-	-	14.9	42.1	43.0	100.0(10)	-
2명	1.0	3.1	57.7	33.2	5.1	100.0(1,739)	
3~4명	0.5	2.0	50.7	38.7	8.1	100.0(5,528)	
5명이상	0.3	4.0	49.5	36.8	9.5	100.0(1,03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6	7.1	51.9	29.6	8.9	100.0(97)	55.1***
100~200 미만	0.4	4.5	51.3	36.1	7.7	100.0(584)	
200~300 미만	0.7	2.7	50.6	37.7	8.3	100.0(1,560)	
300~400 미만	0.6	2.2	51.3	36.9	9.0	100.0(1,805)	
400~500 미만	0.5	3.0	51.2	38.4	7.0	100.0(1,458)	
500 이상	0.5	1.6	53.7	37.7	6.5	100.0(2,745)	
옥구소득비							
1 미만	1.4	5.3	55.0	28.8	9.5	100.0(184)	54.9***
1~2 미만	0.5	2.7	48.9	38.5	9.4	100.0(1,487)	
2~3 미만	0.7	3.2	50.4	37.9	7.8	100.0(2,678)	
3~4 미만	0.5	1.8	53.2	36.9	7.6	100.0(1,660)	
4 이상	0.5	1.6	54.7	37.2	6.0	100.0(2,240)	

주: 1) *** $p < .001$, ** $p < .01$, * $p < .05$, # $p < .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기타 가정일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남성 59.6%, 여성 50.6%로, 9.0%pt 차이를 나타낸다. 대체로 앞서 살펴본 항목의 의사결정권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인식차이를 따르고 있다.

〈표 12-3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⑤

(단위: %, 명)

특성	기타 가정 일					계(수)	χ^2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기혼남성	1.3	5.1	59.6	29.9	4.1	100.0(1,261)	
연령							
15-29세	6.2	3.5	82.6	1.3	6.4	100.0(23)	-
30-39세	0.5	2.4	62.9	30.8	3.4	100.0(216)	
40-49세	1.1	9.4	61.1	24.6	3.7	100.0(370)	
50-59세	0.5	3.8	55.1	37.1	3.5	100.0(471)	
60세 이상	3.9	3.6	61.1	24.4	7.0	100.0(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	6.5	52.9	35.2	3.8	100.0(212)	20.3**
고등학교	1.8	6.0	57.3	29.5	5.4	100.0(559)	
대학이상	0.6	3.6	65.2	28.1	2.5	100.0(488)	
취업여부							
취업	1.3	5.0	58.5	31.1	4.1	100.0(1,080)	6.3
비취업	0.9	6.2	66.3	22.3	4.2	100.0(181)	
기혼여성	0.4	2.0	50.6	38.7	8.3	100.0(7,055)	
연령							
15-29세	0.1	3.4	57.0	35.6	3.9	100.0(386)	46.6***
30-39세	0.5	1.3	53.1	37.5	7.6	100.0(2,191)	
40-49세	0.3	2.0	48.3	40.7	8.6	100.0(2,507)	
50-59세	0.6	2.2	49.3	38.1	9.8	100.0(1,809)	
60세 이상	1.0	3.9	53.2	35.5	6.4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4.4	49.3	36.5	9.0	100.0(948)	44.2***
고등학교	0.5	1.9	49.6	39.8	8.3	100.0(3,221)	
대학이상	0.3	1.2	52.2	38.1	8.1	100.0(2,885)	
취업여부							
취업	0.3	2.4	52.9	37.3	7.0	100.0(3,300)	30.6***
비취업	0.5	1.5	48.6	39.9	9.4	100.0(3,755)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4. 성역할에 대한 태도

일반적으로 부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57.9%,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8.5%로 나타나, 긍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3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①

특성	아내는 남편의 경력 쌓기에 도움을 주어야 함				계(수)	χ^2
	전혀찬성 하지않음	별로찬성 하지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3.3	30.3	57.9	8.5	100.0(10,052)	
지역						
동부	3.4	31.3	57.3	8.0	100.0(8,676)	50.7***
읍·면부	2.5	24.0	61.4	12.1	100.0(1,377)	
가구원 수						
1명	3.3	26.0	61.9	8.9	100.0(851)	40.5***
2명	4.0	26.5	59.7	9.7	100.0(2,238)	
3~4명	2.9	32.3	56.7	8.1	100.0(5,909)	
5명이상	3.6	31.3	56.9	8.2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9	22.6	63.3	10.1	100.0(456)	76.6***
100~200 미만	3.0	27.5	60.4	9.1	100.0(1,238)	
200~300 미만	2.6	29.0	59.3	9.0	100.0(1,950)	
300~400 미만	2.1	28.5	61.4	8.0	100.0(1,979)	
400~500 미만	3.2	33.0	55.6	8.3	100.0(1,540)	
500 이상	4.6	33.4	53.8	8.1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3.8	27.7	60.6	8.0	100.0(422)	68.9***
1~2 미만	2.1	27.9	59.9	10.1	100.0(2,085)	
2~3 미만	2.9	28.5	60.4	8.3	100.0(3,137)	
3~4 미만	3.2	31.8	57.1	7.9	100.0(1,910)	
4 이상	4.7	34.0	53.2	8.1	100.0(2,428)	

주: 1)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남녀 응답자의 차이에서 전체적 찬성의 비율은 남성 65.1%, 여성은 66.7%로 나타났다. 아내는 남편의 경력 쌓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에 대체로 긍정하며 남녀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12-3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①

(단위: %, 명)

특성	아내는 남편의 경력 쌓기에 도움을 주어야 함				계(수)	χ^2
	전혀찬성 하지않음	별로찬성 하지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기혼남성	3.0	31.9	56.4	8.7	100.0(1,818)	
연령						
15-29세	-	34.5	56.1	9.4	100.0(24)	61.7***
30-39세	4.6	42.8	45.1	7.5	100.0(248)	
40-49세	3.5	38.2	52.9	5.4	100.0(553)	
50-59세	3.1	25.6	60.5	10.8	100.0(729)	
60세 이상	0.3	25.4	63.1	11.2	100.0(26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6	24.7	62.5	12.2	100.0(413)	64.9***
고등학교	2.8	28.4	60.0	8.8	100.0(814)	
대학이상	4.9	41.6	47.3	6.2	100.0(590)	
취업여부						
취업	3.2	32.7	55.5	8.7	100.0(1,514)	4.5
비취업	2.1	27.8	61.0	9.1	100.0(304)	
기혼여성	3.3	30.0	58.2	8.5	100.0(8,234)	
연령						
15-29세	3.0	38.7	50.2	8.2	100.0(389)	144.1***
30-39세	4.7	35.1	53.0	7.2	100.0(2,278)	
40-49세	3.1	31.3	57.5	8.1	100.0(2,798)	
50-59세	2.6	23.8	64.0	9.6	100.0(2,361)	
60세 이상	1.6	20.1	66.3	12.1	100.0(40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19.9	66.5	11.4	100.0(1,475)	273.2***
고등학교	2.6	26.6	61.7	9.1	100.0(3,742)	
대학이상	4.7	39.1	49.8	6.3	100.0(3,017)	
취업여부						
취업	4.6	32.6	55.9	6.9	100.0(4,121)	89.4***
비취업	2.1	27.4	60.4	10.1	100.0(4,113)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성역할 태도에서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도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41.0%,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5.7%로 나타났다. 전체 긍정의 비율이 46.7%로 절반보다 낮은 비율인 것으로 보아, 남편의 역할은 경제활동이고 부인은 가족돌봄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특성이 보편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전통적 성역할 규범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3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②

(단위: %, 명)

특성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봐야 함				계(수)	χ^2
	전혀찬성 하지않음	별로찬성 하지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7.0	46.3	41.0	5.7	100.0(10,052)	
지역						
동부	7.0	46.4	41.0	5.5	100.0(8,675)	2.3
읍·면부	7.0	45.6	40.8	6.5	100.0(1,377)	
가구원 수						
1명	3.8	36.5	50.4	9.3	100.0(851)	134.6***
2명	7.2	41.9	44.7	6.3	100.0(2,238)	
3~4명	6.8	49.2	39.2	4.9	100.0(5,909)	
5명이상	10.5	47.7	36.0	5.8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5.3	32.0	53.6	9.1	100.0(456)	252.0***
100~200 미만	5.0	39.7	46.4	8.9	100.0(1,238)	
200~300 미만	4.9	43.3	45.6	6.2	100.0(1,950)	
300~400 미만	6.0	45.5	43.0	5.5	100.0(1,979)	
400~500 미만	7.9	49.0	38.0	5.0	100.0(1,540)	
500 이상	10.0	52.4	33.9	3.8	100.0(2,817)	
육구소득비						
1 미만	5.8	38.6	48.1	7.5	100.0(422)	157.9***
1~2 미만	5.5	42.1	45.0	7.5	100.0(2,085)	
2~3 미만	5.4	45.5	43.6	5.5	100.0(3,137)	
3~4 미만	8.5	45.9	39.9	5.7	100.0(1,909)	
4 이상	9.7	52.2	34.2	3.9	100.0(2,428)	

주: 1)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전체적 찬성의 비율은 남성 52.1%, 여성 45.4%로 나타났다.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 성역할 구분을 남성의 찬성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2-4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②

(단위: %, 명)

특성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봐야 함				계(수)	χ^2
	전혀찬성 하지않음	별로찬성 하지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기혼남성	4.7	43.2	45.0	7.1	100.0(1,818)	
연령						
15-29세	5.9	52.3	38.2	3.6	100.0(24)	33.4**
30-39세	6.9	46.8	40.8	5.6	100.0(248)	
40-49세	5.4	47.4	43.2	3.9	100.0(553)	
50-59세	4.5	39.5	47.6	8.4	100.0(729)	
60세 이상	2.1	39.9	46.2	11.8	100.0(26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	35.8	50.9	11.9	100.0(413)	74.0***
고등학교	4.3	40.5	48.6	6.5	100.0(814)	
대학이상	7.7	51.8	35.9	4.5	100.0(590)	
취업여부						
취업	5.3	43.5	44.0	7.2	100.0(1,514)	7.3 [#]
비취업	2.3	41.6	49.8	6.3	100.0(304)	
기혼여성	7.5	47.0	40.1	5.3	100.0(8,234)	
연령						
15-29세	13.5	49.1	33.8	3.6	100.0(389)	342.6***
30-39세	10.3	54.5	31.6	3.6	100.0(2,278)	
40-49세	7.2	49.7	38.2	4.8	100.0(2,797)	
50-59세	5.3	39.4	47.8	7.6	100.0(2,361)	
60세 이상	1.4	28.7	62.2	7.6	100.0(40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0	34.2	53.5	8.3	100.0(1,475)	370.7***
고등학교	5.8	46.2	42.3	5.7	100.0(3,742)	
대학이상	11.5	54.3	30.8	3.4	100.0(3,016)	
취업여부						
취업	9.8	52.6	33.5	4.1	100.0(4,121)	224.2***
비취업	5.2	41.5	46.7	6.6	100.0(4,113)	

주: 1)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성역할 태도에서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61.5%,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은 13.9%로 나타났다. 남편의 현재 가사분담 정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전체 비율이 75.4%로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가사분담에서 부부간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반영되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4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③

특성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분담해야 함				계(수)	χ^2
	전혀찬성 하지않음	별로찬성 하지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1.2	23.4	61.5	13.9	100.0(10,049)	
지역						
동부	1.2	22.9	61.6	14.3	100.0(8,672)	13.0**
읍·면부	1.2	26.3	61.0	11.5	100.0(1,377)	
가구원 수						
1명	1.8	27.9	60.9	9.4	100.0(849)	60.1***
2명	1.2	24.5	63.2	11.2	100.0(2,236)	
3~4명	1.1	22.2	61.7	15.1	100.0(5,909)	
5명이상	1.8	24.1	57.2	16.9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0.5	31.7	56.3	11.5	100.0(456)	49.6***
100~200 미만	1.3	25.2	63.3	10.2	100.0(1,238)	
200~300 미만	0.9	23.0	63.1	13.0	100.0(1,948)	
300~400 미만	1.3	21.9	62.0	14.8	100.0(1,979)	
400~500 미만	1.6	22.6	60.2	15.6	100.0(1,539)	
500 이상	1.2	23.2	60.5	15.1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0.4	28.7	59.7	11.1	100.0(422)	28.3**
1~2 미만	1.4	24.1	62.1	12.3	100.0(2,085)	
2~3 미만	0.9	23.9	60.0	15.3	100.0(3,137)	
3~4 미만	1.5	21.8	62.9	13.8	100.0(1,907)	
4 이상	1.3	22.7	61.7	14.2	100.0(2,427)	

주: 1)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전체적인 찬성의 비율이 남성 68.4%, 여성 76.9%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의 가사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표 12-4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③

(단위: %, 명)

특성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분담해야 함				계(수)	χ^2
	전혀찬성 하지않음	별로찬성 하지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기혼남성	1.7	29.9	62.6	5.8	100.0(1,816)	
연령						
15-29세	-	31.8	46.2	22.0	100.0(24)	-
30-39세	0.8	30.7	63.9	4.6	100.0(248)	
40-49세	2.4	25.4	66.7	5.5	100.0(553)	
50-59세	1.5	31.3	60.6	6.6	100.0(727)	
60세 이상	1.3	34.8	59.7	4.2	100.0(26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	32.7	61.7	4.2	100.0(411)	14.7*
고등학교	2.4	31.3	60.8	5.6	100.0(814)	
대학이상	0.8	26.1	65.8	7.3	100.0(590)	
취업여부						
취업	1.7	30.4	61.9	5.9	100.0(1,512)	2.4
비취업	1.1	27.6	66.0	5.4	100.0(304)	
기혼여성	1.1	21.9	61.2	15.7	100.0(8,232)	
연령						
15-29세	1.2	20.2	62.3	16.3	100.0(387)	91.8***
30-39세	1.2	17.8	62.4	18.6	100.0(2,278)	
40-49세	0.8	23.4	59.3	16.6	100.0(2,797)	
50-59세	1.1	23.9	61.9	13.1	100.0(2,361)	
60세 이상	3.5	25.0	63.6	7.9	100.0(40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	25.8	60.0	12.5	100.0(1,475)	47.0***
고등학교	1.2	22.8	60.0	16.0	100.0(3,742)	
대학이상	0.8	18.9	63.4	16.9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1.3	19.0	63.3	16.5	100.0(4,121)	43.4***
비취업	1.0	24.9	59.2	14.9	100.0(4,112)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서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는 주장에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20.0%,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1.5%로, 이 주장에 긍정하는 전체 비율은 21.5%에 그쳤다. 경제활동의 단위를 가족 단위로 보던 전통적 인식에서는 이런 주장에 사회적인 동의가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개인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4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④

(단위: %, 명)

특성	불경기에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 해고시켜야 함				계(수)	χ^2
	전혀찬성 하지않음	별로찬성 하지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전체	33.0	45.5	20.0	1.5	100.0(10,050)	
지역						
동부	32.7	45.0	20.6	1.7	100.0(8,673)	24.7***
읍·면부	34.7	48.4	16.3	0.6	100.0(1,377)	
가구원 수						
1명	22.9	49.3	25.6	2.2	100.0(849)	69.1***
2명	31.9	45.2	21.7	1.2	100.0(2,238)	
3~4명	34.0	45.3	19.2	1.5	100.0(5,909)	
5명이상	37.7	43.9	16.5	1.9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4.1	44.9	28.1	2.8	100.0(456)	93.4***
100~200 미만	27.8	47.5	23.1	1.6	100.0(1,238)	
200~300 미만	33.2	44.2	21.0	1.6	100.0(1,948)	
300~400 미만	33.4	43.0	22.4	1.2	100.0(1,979)	
400~500 미만	34.5	46.3	18.1	1.1	100.0(1,540)	
500 이상	35.3	46.9	16.1	1.7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30.9	42.9	24.5	1.6	100.0(422)	62.8***
1~2 미만	29.9	46.3	21.6	2.2	100.0(2,085)	
2~3 미만	32.9	44.6	21.6	1.0	100.0(3,137)	
3~4 미만	33.6	44.4	19.8	2.1	100.0(1,907)	
4 이상	35.5	47.2	16.1	1.2	100.0(2,428)	

주: 1)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전체적인 찬성의 비율이 남성 25.2%, 여성 20.7%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경쟁하고 있는 남성의 경우도 찬성비율이 낮은 수준으로써, 전통적 관념의 큰 변화로 해석된다.

〈표 12-4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성역할에 대한 태도 ④

(단위: %, 명)

특성	불경기에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 해고시켜야 함				계(수)	χ^2
	전혀찬성 하지않음	별로찬성 하지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기혼남성	23.2	51.6	23.1	2.1	100.0(1,816)	
연령						
15-29세	22.3	65.6	12.1	-	100.0(24)	38.2***
30-39세	30.0	53.7	14.7	1.6	100.0(248)	
40-49세	24.3	51.1	21.3	3.4	100.0(553)	
50-59세	22.4	51.3	25.3	1.0	100.0(727)	
60세 이상	17.0	50.2	30.0	2.9	100.0(26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3	56.4	24.0	2.3	100.0(411)	28.8***
고등학교	21.9	49.5	26.4	2.2	100.0(814)	
대학이상	29.1	51.0	18.0	1.8	100.0(590)	
취업여부						
취업	23.3	51.4	23.0	2.3	100.0(1,512)	2.3
비취업	22.7	52.6	23.7	1.0	100.0(304)	
기혼여성	35.2	44.1	19.3	1.4	100.0(8,234)	
연령						
15-29세	45.2	41.4	12.3	1.1	100.0(389)	216.2***
30-39세	42.8	42.2	14.3	0.6	100.0(2,278)	
40-49세	34.5	44.2	19.8	1.5	100.0(2,797)	
50-59세	29.4	46.4	22.6	1.6	100.0(2,361)	
60세 이상	20.4	43.9	32.0	3.6	100.0(40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2	47.0	25.7	2.2	100.0(1,475)	173.8***
고등학교	34.4	42.9	21.3	1.5	100.0(3,742)	
대학이상	41.0	44.3	13.8	0.9	100.0(3,016)	
취업여부						
취업	38.9	42.3	17.7	1.1	100.0(4,121)	56.0***
비취업	31.4	46.0	20.9	1.7	100.0(4,11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가족관계

1.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

본 절에서는 결혼생활만족도를 남편과 아내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53.1%,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7.8%로, 전체 만족의 비율은 70.9% 수준이었다.

〈표 12-4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전체	0.1	1.8	27.2	53.1	17.8	100.0(1,489)	
지역							
동부	0.1	1.5	27.3	54.0	17.2	100.0(1,241)	-
읍·면·부		3.7	26.9	48.7	20.7	100.0(248)	
가구원 수							
1명	-	-	100.0	-	-	100.0(3)	-
2명	-	2.9	31.1	46.1	19.9	100.0(478)	
3~4명	0.1	1.4	26.8	56.4	15.4	100.0(860)	
5명이상	-	1.1	15.7	57.9	25.3	100.0(14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4.8	42.3	41.8	11.1	100.0(30)	-
100~200 미만	-	2.4	42.6	43.7	11.3	100.0(150)	
200~300 미만	-	2.5	31.5	52.4	13.6	100.0(300)	
300~400 미만	0.1	1.4	30.5	54.6	13.4	100.0(308)	
400~500 미만	-	2.4	24.0	53.7	19.8	100.0(270)	
500 이상	0.1	0.9	17.6	55.5	25.9	100.0(420)	
육구소득비							
1 미만	-	3.2	39.1	47.3	10.4	100.0(46)	-
1~2 미만	-	1.6	34.2	49.6	14.7	100.0(287)	
2~3 미만	-	2.5	28.3	55.7	13.5	100.0(459)	
3~4 미만	0.1	1.3	29.9	51.9	16.7	100.0(294)	
4 이상	0.1	1.6	17.8	53.3	27.2	100.0(393)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연령별로 불만족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남편의 결혼생활 불만족 정도가 다소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고교육수준층보다 저교육수준층의 남편 결혼생활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따라서 남편을 기준으로 저연령층에 비해서 고연령층, 그리고 고교육수준층에 비해서 저교육수준층의 경우 부부간의 갈등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남성보다 비취업 남성의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인의 비취업 상태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2-4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기혼남성	0.0	2.2	28.1	53.1	16.6	100.0(1,231)	
연령							
15-29세	-	-	12.7	45.6	41.7	100.0(21)	-
30-39세	-	1.0	11.5	60.4	27.1	100.0(209)	
40-49세	-	1.0	28.3	57.8	12.9	100.0(362)	
50-59세	0.1	2.3	33.8	48.2	15.5	100.0(463)	
60세 이상	-	6.2	34.0	48.6	11.2	100.0(17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2	1.3	41.1	46.8	10.7	100.0(210)	-
고등학교	-	2.6	33.5	52.1	11.8	100.0(547)	
대학이상	-	2.1	16.1	57.1	24.6	100.0(474)	
취업여부							
취업	-	2.0	27.2	53.5	17.2	100.0(1,055)	-
비취업	-	3.7	33.4	50.4	12.5	100.0(176)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한편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54.3%,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8.4%로,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에서 전체 만족의 정도는 72.7%로 높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생활만족도에서 전체 만족의 비율이 70.9%였던 점과 비교하면 배우자 만족도가 2.2%pt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배우자 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4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전체	0.0	2.3	25.0	54.3	18.4	100.0(1,489)	
지역							
동부	-	2.0	24.8	55.2	18.0	100.0(1,241)	-
읍·면·부	-	3.7	26.0	50.1	20.3	100.0(248)	
가구원 수							
1명	-	-	71.8	28.2	-	100.0(3)	-
2명	-	3.3	28.1	49.9	18.8	100.0(478)	
3~4명	-	1.9	25.2	55.7	17.1	100.0(860)	
5명이상	-	1.0	12.7	61.3	25.0	100.0(14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	50.9	38.0	11.1	100.0(30)	-
100~200 미만	-	3.8	35.2	44.6	16.4	100.0(150)	
200~300 미만	-	3.1	28.5	54.0	14.4	100.0(300)	
300~400 미만	-	1.7	26.6	57.1	14.6	100.0(308)	
400~500 미만	-	2.4	24.1	51.3	22.2	100.0(270)	
500 이상	0.1	1.6	16.4	59.1	22.9	100.0(420)	
가구소득비							
1 미만	-	-	45.7	43.8	10.4	100.0(46)	-
1~2 미만	-	3.0	24.9	55.7	16.4	100.0(287)	
2~3 미만	-	2.5	27.8	52.5	17.3	100.0(459)	
3~4 미만	-	1.5	27.8	54.4	16.3	100.0(294)	
4 이상	0.1	2.4	17.3	56.6	23.6	100.0(393)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에서 불만족의 정도는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즉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는 저연령층에 비해서 고연령층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가 더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 비해 낮은층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에서 연령과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 남성보다 비취업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비취업 상태가 결혼생활에서 배우자 만족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12-4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남편의 배우자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기혼남성	-	2.8	25.8	55.3	16.1	100.0(1,231)	
연령							
15-29세	-	-	9.9	61.2	28.9	100.0(21)	-
30-39세	-	1.5	12.6	57.0	28.8	100.0(209)	
40-49세	-	1.8	25.5	56.9	15.8	100.0(362)	
50-59세	-	3.0	29.7	56.8	10.5	100.0(463)	
60세 이상	-	5.5	33.8	45.7	15.0	100.0(17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3.2	38.7	50.9	7.1	100.0(210)	-
고등학교	-	2.7	31.2	52.6	13.4	100.0(547)	
대학이상	-	2.5	13.8	60.5	23.2	100.0(474)	
취업여부							
취업	-	2.4	24.5	57.0	16.1	100.0(1,055)	-
비취업	-	4.7	33.8	45.6	16.0	100.0(176)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하는 비율은 51.2%,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8.4%로, 만족하는 전체 비율은 69.6%의 높은 수준이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8%였고, 불만을 표시한 비율은 3.6%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아내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된다.

〈표 12-4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남편의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전체	0.0	3.6	26.8	51.2	18.4	100.0(1,489)	
지역							
동부	0.1	3.7	25.9	52.2	18.2	100.0(1,241)	-
읍·면부	-	3.0	31.1	46.5	19.4	100.0(248)	
가구원 수							
1명	-	-	100.0	-	-	100.0(3)	-
2명	-	4.2	29.3	48.0	18.6	100.0(478)	
3~4명	0.1	2.6	27.5	52.8	17.0	100.0(860)	
5명이상	-	7.3	12.6	53.9	26.2	100.0(14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8.3	41.5	35.6	14.7	100.0(30)	-
100~200 미만	-	3.2	40.5	48.0	8.3	100.0(150)	
200~300 미만	-	4.4	29.9	51.6	14.1	100.0(300)	
300~400 미만	-	4.7	27.9	51.5	16.0	100.0(308)	
400~500 미만	-	5.2	22.4	50.8	21.7	100.0(270)	
500 이상	0.2	1.1	20.8	52.9	25.0	100.0(420)	
가구소득비							
1 미만	-	7.1	43.2	32.5	17.3	100.0(46)	-
1~2 미만	-	2.1	28.3	55.4	14.2	100.0(287)	
2~3 미만	-	7.0	29.0	49.4	14.6	100.0(459)	
3~4 미만	-	2.2	25.9	53.6	18.2	100.0(294)	
4 이상	0.2	1.4	22.0	50.3	26.1	100.0(393)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남편들이 생각하는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저연령층에 비해서 고연령층의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고교육수준층에 비해서 저교육수준층의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에 연령과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앞서 살펴본 일반적 결혼만족도, 배우자 만족도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에서, 취업 남성보다 비취업 남성의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낮았다. 남편의 비취업 상태가 결혼생활에서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2-5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남편의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기혼남성	-	3.9	28.1	51.9	16.1	100.0(1,231)	
연령							
15-29세	-	-	2.7	58.4	38.9	100.0(21)	-
30-39세	-	1.8	13.7	56.5	28.1	100.0(209)	
40-49세	-	4.9	26.8	53.5	14.8	100.0(362)	
50-59세	-	4.2	32.5	50.4	12.9	100.0(463)	
60세 이상	-	4.3	39.4	46.7	9.6	100.0(17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3.2	41.9	47.9	7.1	100.0(210)	-
고등학교	-	4.6	30.7	53.9	10.7	100.0(547)	
대학이상	-	3.5	18.9	51.5	26.1	100.0(474)	
취업여부							
취업	-	3.5	26.5	53.1	17.0	100.0(1,055)	-
비취업	-	6.7	37.8	45.2	10.3	100.0(176)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남편이 인식하는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58.9%,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1.6%로, 전체 만족의 비율이 80.5%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전체적인 결혼만족도, 배우자 만족도,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 수준보다도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가 높은 점도 특징적이다. 남편들은 아내의 현재 어머니 역할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51〉 기혼가구(15~64세)의 가구특성별 남편의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전체	0.1	2.7	16.7	58.9	21.6	100.0(1,376)	
지역							
동부	-	2.8	16.3	58.5	22.4	100.0(1,140)	-
읍·면부	0.1	2.5	18.5	61.2	17.7	100.0(236)	
가구원 수							
1명	-	-	81.2	18.8	-	100.0(3)	-
2명	0.1	2.5	19.7	56.9	20.9	100.0(372)	
3~4명	-	2.5	15.8	60.7	21.0	100.0(853)	
5명이상	-	4.8	12.9	54.8	27.5	100.0(14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	52.1	36.6	11.3	100.0(27)	-
100~200 미만	-	3.2	24.5	53.6	18.7	100.0(141)	
200~300 미만	-	1.8	20.2	61.1	16.9	100.0(278)	
300~400 미만	-	1.5	19.5	61.4	17.6	100.0(275)	
400~500 미만	0.1	5.2	11.4	62.0	21.4	100.0(245)	
500 이상	-	2.9	10.4	56.8	29.9	100.0(403)	
육구소득비							
1 미만	-	3.5	41.3	43.4	11.9	100.0(43)	-
1~2 미만	-	2.3	18.3	58.8	20.5	100.0(277)	
2~3 미만	-	2.5	19.8	60.3	17.3	100.0(433)	
3~4 미만	-	2.7	14.5	61.0	21.7	100.0(267)	
4 이상	0.1	3.3	10.1	57.0	29.4	100.0(347)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남편들이 생각하는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저연령층에 비해서 고연령층의 남편이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고교육수준층에 비해서 저교육수준층의 남편이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에 연령과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 남성보다 비취업 남성의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성의 비취업 상태가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2-5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남편의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기혼남성	0.0	3.1	17.7	58.2	21.0	100.0(1,140)	
연령							
15-29세	-	-	17.0	64.5	18.5	100.0(13)	-
30-39세	0.2	0.2	11.3	55.7	32.6	100.0(159)	
40-49세	-	5.8	18.0	56.1	20.2	100.0(343)	
50-59세	-	2.3	18.0	61.7	17.9	100.0(453)	
60세 이상	-	3.4	21.9	54.7	20.0	100.0(17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2.4	24.2	58.5	14.9	100.0(204)	-
고등학교	0.1	3.8	19.5	60.0	16.6	100.0(512)	
대학이상	-	2.9	12.3	55.8	29.1	100.0(424)	
취업여부							
취업	-	2.5	17.3	59.3	20.7	100.0(972)	-
비취업	-	7.1	19.4	51.2	22.2	100.0(169)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남편이 인식하는 며느리로서의 아내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는 비율은 49.6%,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1.3%로, 전체 만족 비율이 70.9%로 높은 수준이었다. 며느리로서의 아내 만족도에서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24.7%, 불만을 표시한 비율은 4.4%에 그쳤다. 따라서 대체로 며느리로서의 아내 역할에 현재의 남편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5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남편의 며느리로서의 아내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전체	0.3	4.1	24.7	49.6	21.3	100.0(922)	
지역							
동부	0.2	3.9	25.5	49.6	20.8	100.0(764)	-
읍·면·부	0.6	5.3	20.9	49.6	23.6	100.0(157)	
가구원 수							
1명	-	-	100.0	-	-	100.0(1)	-
2명	0.4	4.4	30.1	44.2	20.9	100.0(227)	
3~4명	0.3	4.1	25.2	50.2	20.2	100.0(578)	
5명이상	-	3.7	11.1	57.8	27.5	100.0(11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	17.8	49.6	32.6	100.0(8)	-
100~200 미만	-	6.4	29.5	40.0	24.2	100.0(62)	
200~300 미만	-	4.2	36.1	45.7	14.0	100.0(185)	
300~400 미만	0.3	4.2	25.4	51.3	18.9	100.0(222)	
400~500 미만	0.4	3.6	18.9	52.3	24.7	100.0(177)	
500 이상	0.5	4.0	18.9	51.3	25.3	100.0(265)	
가구소득비							
1 미만	-	19.6	18.8	37.6	24.0	100.0(18)	-
1~2 미만	-	2.3	26.5	51.4	19.8	100.0(171)	
2~3 미만	-	3.3	29.3	49.1	18.4	100.0(304)	
3~4 미만	0.7	7.1	21.4	51.6	19.2	100.0(187)	
4 이상	0.6	3.0	20.4	48.3	27.7	100.0(238)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남편이 인식하는 며느리로서의 아내 만족도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30대 남편이 인식하는 며느리로서의 아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50대 남편이 인식하는 며느리로서의 아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런 결과는 세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가족주기의 관점에서 연령층에 따른 실질적 생활양식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후자의 측면에서 50대 남편의 가족생활은 경제적으로 가계 지출이 크게 확대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가계지출의 측면에서 원가족과 신생가족의 비중을 두고 부부간의 기대가 불일치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아내역할에 남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2-5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남편의 며느리로서의 아내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기혼남성	0.4	4.8	26.0	48.9	19.9	100.0(749)	
연령							
15-29세	-	-	21.4	40.2	38.4	100.0(19)	-
30-39세	-	3.4	15.6	55.7	25.3	100.0(193)	
40-49세	0.4	6.9	29.4	45.5	17.8	100.0(267)	
50-59세	0.5	4.8	33.5	46.7	14.5	100.0(227)	
60세 이상	1.3	1.0	14.7	54.9	28.1	100.0(4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5.1	24.0	55.0	15.9	100.0(84)	-
고등학교	0.3	5.2	34.1	46.3	14.1	100.0(312)	
대학이상	0.5	4.5	19.4	49.9	25.8	100.0(353)	
취업여부							
취업	0.4	4.5	25.6	49.2	20.3	100.0(683)	-
비취업	-	8.6	30.3	45.9	15.2	100.0(66)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2. 아내의 배우자 만족도

부인의 남편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부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46.3%,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3.5%의 분포를 보여, 부인의 전체적인 결혼생활 만족 비율은 59.8%로 나타났다. 대체로 현재의 결혼생활에서 부인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5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아내의 결혼생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전체	0.5	5.2	34.5	46.3	13.5	100.0(7,144)	
지역							
동부	0.5	4.8	34.2	46.6	13.9	100.0(6,190)	22.2***
읍·면부	0.6	7.7	36.5	44.4	10.8	100.0(954)	
가구원 수							
1명	-	25.1	31.2	25.5	18.2	100.0(7)	-
2명	0.4	6.5	34.9	43.0	15.2	100.0(1,352)	
3~4명	0.6	4.8	34.3	47.5	12.8	100.0(4,851)	
5명이상	0.5	5.0	35.1	45.0	14.4	100.0(93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5	15.6	47.1	27.1	8.7	100.0(70)	375.8***
100~200 미만	0.6	14.7	46.7	31.4	6.6	100.0(463)	
200~300 미만	0.4	8.1	39.7	42.2	9.7	100.0(1,314)	
300~400 미만	0.7	4.5	38.7	45.6	10.6	100.0(1,576)	
400~500 미만	0.8	3.7	34.0	47.5	14.0	100.0(1,251)	
500 이상	0.4	2.7	26.7	52.1	18.2	100.0(2,415)	
가구소득비							
1 미만	0.7	16.9	48.0	25.8	8.5	100.0(144)	313.8***
1~2 미만	0.6	8.9	42.9	39.2	8.4	100.0(1,255)	
2~3 미만	0.5	5.4	37.5	45.5	11.1	100.0(2,327)	
3~4 미만	0.7	3.8	31.9	50.4	13.1	100.0(1,439)	
4 이상	0.4	2.6	26.6	50.7	19.7	100.0(1,92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부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의 경우 부인의 결혼생활의 불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고교육수준층에 비해 저교육수준 층의 아내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이것은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나타난 연령별 차이와 동일한 경향성이다. 따라서 여성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일반적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결혼생활 만족도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비취업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불평등성과, 과중한 가사부담으로 인해 취업여성이 겪는 일가정양립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12-5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아내의 결혼생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기혼여성	0.5	5.2	34.5	46.4	13.5	100.0(7,044)	
연령							
15-29세	-	4.9	17.7	52.5	24.9	100.0(386)	383.7***
30-39세	0.7	3.2	26.1	51.2	18.9	100.0(2,190)	
40-49세	0.8	4.9	35.8	47.2	11.3	100.0(2,500)	
50-59세	0.2	7.4	45.8	38.7	7.9	100.0(1,806)	
60세 이상	0.3	12.6	39.1	39.1	9.0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6	11.3	50.2	32.8	5.1	100.0(947)	569.2***
고등학교	0.6	5.4	39.5	45.6	8.9	100.0(3,213)	
대학이상	0.5	2.9	23.7	51.7	21.2	100.0(2,883)	
취업여부							
취업	0.6	5.6	35.1	43.9	14.8	100.0(3,293)	20.6***
비취업	0.5	4.8	33.9	48.6	12.3	100.0(3,75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배우자 만족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인의 배우자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46.1%,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3.2%로, 부인이 전체 만족 비율은 59.3%이었다. 부인의 배우자 만족도는 앞서 분석한 부인의 결혼생활 만족도의 비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결혼생활 만족도는 곧 배우자 만족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5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아내의 배우자로서의 남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전체	0.8	6.3	33.5	46.1	13.2	100.0(7,143)	
지역							
동부	0.9	5.9	33.7	46.0	13.5	100.0(6,190)	15.8**
읍·면·부	0.5	8.9	32.7	46.3	11.6	100.0(953)	
가구원 수							
1명	-	33.5	22.8	25.5	18.2	100.0(7)	-
2명	0.2	6.4	33.0	43.3	17.1	100.0(1,352)	
3~4명	0.9	6.3	34.2	47.0	11.7	100.0(4,850)	
5명이상	1.3	6.5	31.1	45.6	15.5	100.0(93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	18.5	41.3	33.1	7.1	100.0(70)	266.0***
100~200 미만	0.8	14.7	42.2	33.7	8.6	100.0(463)	
200~300 미만	1.3	9.5	37.1	42.0	10.1	100.0(1,314)	
300~400 미만	1.2	6.2	35.8	47.0	9.8	100.0(1,575)	
400~500 미만	0.5	4.8	32.6	47.2	14.9	100.0(1,251)	
500 이상	0.5	3.6	28.8	49.6	17.5	100.0(2,415)	
가구소득비							
1 미만	0.6	19.2	41.1	30.8	8.2	100.0(144)	257.2***
1~2 미만	1.2	9.7	40.9	39.5	8.6	100.0(1,255)	
2~3 미만	1.0	7.7	33.9	46.6	10.9	100.0(2,326)	
3~4 미만	0.6	4.3	32.2	48.8	14.0	100.0(1,439)	
4 이상	0.5	3.1	28.9	48.4	19.0	100.0(1,92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부인의 배우자 만족도에서 불만족 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부인의 배우자 불만족 정도는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에서 높았다. 고연령층 부인의 경우 저연령층 부인에 비해서 남편과 많은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가구 경제와 문화생활 등이 확대되면서 갈등의 요소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배우자로서의 남편과의 갈등 요인이 저연령층 부인보다 고연령층 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비취업자보다 취업자의 경우 부인의 배우자 불만족 정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결혼 만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업부인이 겪는 현실적인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12-5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아내의 배우자로서의 남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기혼여성	0.8	6.3	33.6	46.1	13.1	100.0(7,043)	
연령							
15-29세	-	5.1	16.0	49.9	29.0	100.0(386)	451.4***
30-39세	1.2	3.8	25.4	51.4	18.2	100.0(2,190)	
40-49세	0.9	7.1	34.5	46.0	11.6	100.0(2,499)	
50-59세	0.3	8.1	45.8	39.8	6.0	100.0(1,806)	
60세 이상	3.4	11.2	37.8	39.5	8.0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9	11.9	49.6	33.0	4.6	100.0(947)	495.7***
고등학교	0.9	7.0	37.8	44.7	9.6	100.0(3,212)	
대학이상	0.7	3.7	23.7	52.1	19.8	100.0(2,883)	
취업여부							
취업	1.0	7.5	33.1	44.5	13.8	100.0(3,293)	23.8***
비취업	0.6	5.2	34.1	47.6	12.5	100.0(3,75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아내의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46.7%,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2.8%의 분포를 보인다. 아내의 전체적인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는 59.5% 수준으로 나타남으로써, 대체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가구원 수를 고려한 욕구소득비가 1미만 계층의 경우는 특히 불만족 정도가 18.5%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소득수준이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2-5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아내의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전체	0.5	5.5	34.5	46.7	12.8	100.0(7,143)	
지역							
동부	0.5	5.1	34.6	46.8	13.0	100.0(6,190)	15.0**
읍·면부	0.5	8.0	34.0	45.9	11.5	100.0(953)	
가구원 수							
1명	-	33.5	22.8	7.0	36.7	100.0(7)	-
2명	0.2	6.1	35.1	42.1	16.5	100.0(1,352)	
3~4명	0.5	5.2	35.1	47.3	11.8	100.0(4,850)	
5명이상	1.0	5.7	30.5	50.5	12.3	100.0(93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0.2	20.7	35.8	35.0	8.3	100.0(70)	246.1** *
100~200 미만	0.9	12.1	46.4	32.0	8.5	100.0(463)	
200~300 미만	0.4	8.3	37.4	43.0	10.9	100.0(1,314)	
300~400 미만	0.9	4.9	36.5	48.1	9.6	100.0(1,575)	
400~500 미만	0.5	3.8	35.6	46.3	13.8	100.0(1,251)	
500 이상	0.3	3.5	29.0	50.9	16.3	100.0(2,415)	
욕구소득비							
1 미만	0.1	18.5	41.3	31.0	9.0	100.0(144)	218.4** *
1~2 미만	1.1	8.1	39.1	42.2	9.6	100.0(1,255)	
2~3 미만	0.5	5.9	37.8	45.8	10.0	100.0(2,326)	
3~4 미만	0.4	4.1	32.0	50.3	13.1	100.0(1,439)	
4 이상	0.4	3.3	29.2	48.8	18.2	100.0(1,924)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아내의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에서 연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연령층보다도 고연령층의 경우 아내의 남편과의 관계 불만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고교육수준층에 비해 저교육수준 층의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남편의 아내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나타난 연령별, 교육수준별 차이와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과 교육수준이 아내의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2-6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아내의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기혼여성	0.5	5.4	34.7	46.7	12.6	100.0(7,042)	
연령							
15-29세	-	4.1	18.2	48.1	29.7	100.0(386)	468.8***
30-39세	0.6	3.0	26.1	53.2	17.1	100.0(2,189)	
40-49세	0.6	5.6	35.6	47.2	11.0	100.0(2,499)	
50-59세	0.3	8.1	46.8	38.3	6.5	100.0(1,806)	
60세 이상	3.4	8.4	40.6	41.0	6.6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10.7	50.9	33.6	3.9	100.0(947)	486.1***
고등학교	0.5	5.9	38.4	46.1	9.1	100.0(3,212)	
대학이상	0.4	3.1	25.3	51.7	19.5	100.0(2,883)	
취업여부							
취업	0.5	6.3	33.8	46.1	13.3	100.0(3,293)	13.3 **
비취업	0.6	4.6	35.5	47.2	12.1	100.0(3,749)	

주: 1)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아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45.5%,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8.8%로, 전체적인 만족도는 64.3%이었다. 대체로 현재의 결혼생활에서 아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욕구소득비 1 미만 계층의 경우, 아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도에서 불만족 정도가 14.4%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남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표 12-6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아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전체	0.9	6.3	28.6	45.5	18.8	100.0(6,744)	
지역							
동부	0.9	6.2	28.7	45.2	19.1	100.0(5,846)	4.2
읍·면부	1.0	6.8	28.2	47.3	16.6	100.0(897)	
가구원 수							
1명	-	28.2	9.3	49.1	13.3	100.0(6)	-
2명	0.5	4.9	36.2	45.7	12.7	100.0(973)	
3~4명	0.9	6.5	27.5	46.1	19.0	100.0(4,832)	
5명이상	1.1	6.3	26.7	41.9	23.9	100.0(93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0	7.8	40.9	35.8	11.4	100.0(61)	220.9*** *
100~200 미만	0.9	11.5	38.2	38.3	11.2	100.0(434)	
200~300 미만	1.2	8.6	33.7	43.9	12.6	100.0(1,217)	
300~400 미만	1.3	7.0	28.4	48.7	14.6	100.0(1,469)	
400~500 미만	0.6	5.6	28.3	44.1	21.4	100.0(1,186)	
500 이상	0.5	3.9	24.2	46.8	24.5	100.0(2,324)	
욕구소득비							
1 미만	1.8	14.4	42.9	30.0	10.9	100.0(133)	159.6*** *
1~2 미만	1.2	9.1	33.5	42.1	14.0	100.0(1,227)	
2~3 미만	1.1	6.7	29.0	46.5	16.6	100.0(2,229)	
3~4 미만	0.5	5.7	27.1	47.9	18.7	100.0(1,342)	
4 이상	0.6	3.6	24.9	46.1	24.9	100.0(1,760)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아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도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저연령층보다도 고연령층의 경우 아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한 불만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고교육수준층에 비해 저교육수준 층의 아내가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남편의 어머니로 아내 만족도에서 나타난 연령별, 교육수준별 차이와 동일한 경향성이다. 아내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도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만족의 정도는 차이가 없었지만, 만족의 강도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취업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본인 취업으로 인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6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아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기혼여성	0.9	6.2	28.8	45.4	18.7	100.0(6,651)	
연령							
15-29세	-	7.6	17.7	48.2	26.6	100.0(267)	133.6***
30-39세	1.0	6.1	24.7	44.5	23.6	100.0(1,999)	
40-49세	1.1	6.6	28.2	46.1	18.0	100.0(2,439)	
50-59세	0.5	5.6	35.1	45.3	13.5	100.0(1,783)	
60세 이상	3.4	7.0	33.8	42.1	13.7	100.0(1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	9.0	38.1	42.2	9.2	100.0(921)	233.6***
고등학교	1.0	6.6	31.9	44.6	15.9	100.0(3,107)	
대학이상	0.6	4.8	21.7	47.5	25.3	100.0(2,623)	
취업여부							
취업	1.3	6.1	28.9	43.6	20.0	100.0(3,078)	22.6***
비취업	0.5	6.3	28.6	47.0	17.6	100.0(3,57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아내의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39.5%,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7.5%로, 전체적인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는 57.0%였다. 대체로 현재의 결혼생활에서 아내의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데, 욕구소득비가 올라갈수록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2-6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아내의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전체	1.6	8.9	32.5	39.5	17.5	100.0(5,445)	
지역							
동부	1.5	8.8	32.5	39.6	17.6	100.0(4,759)	2.0
읍·면부	2.1	9.7	33.0	38.8	16.5	100.0(687)	
가구원 수							
1명	-	-	55.6	44.4	0.0	100.0(3)	-
2명	1.2	6.0	29.0	41.7	22.2	100.0(809)	
3~4명	1.7	9.3	33.2	39.3	16.6	100.0(3,865)	
5명이상	1.7	10.2	32.9	38.1	17.1	100.0(76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6	17.8	34.3	27.9	16.4	100.0(29)	108.7***
100~200 미만	2.1	13.3	37.4	33.2	14.0	100.0(263)	
200~300 미만	2.7	12.3	36.4	36.5	12.1	100.0(959)	
300~400 미만	1.8	9.0	33.2	40.2	15.8	100.0(1,220)	
400~500 미만	1.2	7.5	33.7	40.1	17.4	100.0(996)	
500 이상	1.0	7.1	28.5	41.6	21.8	100.0(1,934)	
욕구소득비							
1 미만	1.4	20.7	41.5	26.3	10.0	100.0(76)	120.6***
1~2 미만	2.6	11.9	36.9	36.6	11.9	100.0(918)	
2~3 미만	1.9	9.6	33.5	39.2	15.8	100.0(1,806)	
3~4 미만	1.0	7.6	32.0	41.4	17.9	100.0(1,099)	
4 이상	1.1	6.5	28.1	41.3	23.1	100.0(1,502)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아내의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이는데, 저연령 층보다도 고연령층의 경우 아내의 사위로서의 남편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고교육수준층에 비해 저교육수준 층의 아내가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인다. 이것은 남편의 며느리로서의 아내 만족도에서 나타난 연령별, 교육수준별 차이와 동일한 경향성이다. 즉 고연령층의 경우와 저교육수준층의 경우 남녀 배우자 모두 상대방이 서로의 원가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의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를 예측할 경우 아내의 연령과 학력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2-6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아내의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기혼여성	1.6	8.8	32.7	39.5	17.4	100.0(5,378)	
연령							
15-29세	3.7	4.8	17.5	49.1	24.9	100.0(354)	107.6***
30-39세	0.9	8.3	31.4	39.6	19.8	100.0(2,070)	
40-49세	2.1	9.6	34.7	39.0	14.7	100.0(2,020)	
50-59세	1.2	10.0	36.8	36.4	15.6	100.0(899)	
60세 이상	-	7.5	38.2	48.8	5.4	100.0(3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	11.4	39.0	35.4	12.6	100.0(419)	82.2***
고등학교	1.7	9.4	36.9	36.7	15.3	100.0(2,399)	
대학이상	1.5	7.9	27.7	42.9	20.2	100.0(2,560)	
취업여부							
취업	1.6	10.0	32.2	38.4	17.8	100.0(2,515)	10.1*
비취업	1.5	7.7	33.1	40.5	17.1	100.0(2,86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3. 배우자와의 비동거율

현재 배우자와의 비동거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분석대상자 중에서 현재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비율은 3.8%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가구원 수를 고려한 욕구소득비가 1미만인 경우와 욕구소득비가 4이상인 경우에 떨어져 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직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6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배우자와의 비동거율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배우자와의 비동거율
전체	(8,316)	3.8
지역		
동부	(7,175)	3.9
읍·면부	(1,141)	3.1
가구원 수		
1명	(10)	100.0
2명	(1,740)	3.9
3~4명	(5,529)	3.5
5명이상	(1,037)	4.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97)	5.0
100~200 미만	(584)	2.2
200~300 미만	(1,560)	2.5
300~400 미만	(1,806)	2.7
400~500 미만	(1,458)	4.3
500 이상	(2,744)	5.3
욕구소득비		
1 미만	(184)	3.4
1~2 미만	(1,485)	2.1
2~3 미만	(2,679)	3.2
3~4 미만	(1,661)	4.0
4 이상	(2,239)	5.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2-6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와 비동거율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배우자와의 비동거율
기혼남성	(1,259)	1.8
연령		
15-29세	(22)	-
30-39세	(216)	2.1
40-49세	(370)	2.0
50-59세	(471)	2.1
60세 이상	(180)	0.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2)	0.5
고등학교	(558)	1.3
대학이상	(488)	2.9
취업여부		
취업	(1,079)	2.0
비취업	(181)	0.3
기혼여성	(7,057)	4.1
연령		
15-29세	(386)	1.2
30-39세	(2,191)	3.6
40-49세	(2,506)	4.9
50-59세	(1,812)	4.4
60세 이상	(162)	2.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48)	3.8
고등학교	(3,222)	4.2
대학이상	(2,885)	4.1
취업여부		
취업	(3,301)	5.2
비취업	(3,755)	3.2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4. 자녀 만족도

자녀 만족도를 측정하는 여러 문항 중에서 우선 자녀와의 대화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만족하는 비율이 52.9%,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14.2%로, 전체 만족 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만족도의 수준에서 볼 때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12-6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만족도 ①

(단위: %, 명)

특성	자녀와의 대화정도					계(수)	χ^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6	4.6	27.7	52.9	14.2	100.0(9,347)	
지역							
동부	0.6	4.5	27.9	52.7	14.3	100.0(8,070)	3.9
읍·면부	0.6	5.4	26.8	54.0	13.2	100.0(1,277)	
가구원 수							
1명	5.5	16.8	31.0	39.8	6.9	100.0(741)	726.1***
2명	0.4	4.2	34.1	51.4	9.9	100.0(1,680)	
3~4명	0.2	3.1	26.7	53.9	16.2	100.0(5,876)	
5명이상	-	4.9	21.2	59.0	15.0	100.0(1,04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6	15.0	28.5	43.4	8.5	100.0(393)	446.9***
100~200 미만	1.7	8.9	34.6	45.5	9.3	100.0(1,149)	
200~300 미만	0.1	4.2	31.7	52.6	11.3	100.0(1,784)	
300~400 미만	0.4	4.1	27.4	53.4	14.8	100.0(1,830)	
400~500 미만	0.4	2.6	23.4	58.1	15.5	100.0(1,433)	
500 이상	0.2	2.7	24.5	55.0	17.6	100.0(2,694)	
가구소득비							
1 미만	2.9	11.1	34.8	41.2	10.0	100.0(367)	194.9***
1~2 미만	1.2	5.6	32.3	49.2	11.7	100.0(2,012)	
2~3 미만	0.2	4.2	26.5	55.6	13.5	100.0(2,963)	
3~4 미만	0.3	3.9	25.4	56.7	13.8	100.0(1,758)	
4 이상	0.6	3.4	25.8	52.2	18.0	100.0(2,18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와의 대화정도 만족도에서 남성은 전체 54.7%, 여성은 69.7%로 만족도 수준은 높은 편이다. 그리고 고연령층 남성의 경우 자녀와의 대화 정도에 불만족이 많았다.

〈표 12-6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만족도 ①

(단위: %, 명)

특성	자녀와의 대화정도					계(수)	χ^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기혼남성	2.3	9.5	33.5	45.2	9.5	100.0(1,636)	
연령							
15-29세	-	-	16.2	69.5	14.4	100.0(9)	-
30-39세	0.9	5.2	15.7	58.4	19.9	100.0(178)	
40-49세	1.3	7.7	32.7	49.1	9.2	100.0(509)	
50-59세	2.8	10.8	36.9	41.6	7.8	100.0(686)	
60세 이상	3.9	12.8	39.0	37.0	7.2	100.0(25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	14.2	37.9	40.3	5.9	100.0(372)	65.6***
고등학교	3.4	9.8	36.6	41.5	8.7	100.0(751)	
대학이상	1.0	5.8	25.7	54.3	13.3	100.0(513)	
취업여부							
취업	2.3	9.1	31.8	46.5	10.3	100.0(1,357)	16.1**
비취업	2.4	11.5	41.7	38.8	5.6	100.0(278)	
기혼여성	0.3	3.5	26.5	54.5	15.2	100.0(7,711)	
연령							
15-29세	0.4	0.8	13.6	60.6	24.8	100.0(253)	194.0***
30-39세	0.3	2.8	19.7	56.7	20.5	100.0(2,052)	
40-49세	0.1	3.9	28.4	54.0	13.5	100.0(2,711)	
50-59세	0.2	3.7	30.6	53.1	12.4	100.0(2,300)	
60세 이상	1.2	5.7	32.9	51.4	8.8	100.0(3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5.8	34.4	51.0	8.0	100.0(1,422)	286.6***
고등학교	0.1	3.7	29.0	53.7	13.4	100.0(3,580)	
대학이상	0.1	2.1	19.0	57.4	21.3	100.0(2,709)	
취업여부							
취업	0.3	3.8	28.0	52.1	15.8	100.0(3,839)	20.7***
비취업	0.2	3.3	25.0	57.0	14.5	100.0(3,872)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와의 문화생활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만족하는 비율은 34.9%,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9.4%로, 전체 만족하는 전체 비율이 44.3%로 나타났다. 자녀 만족도 4개 문항 중에서 가장 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이는 학교생활과 기타 학습활동이 자녀의 일상 활동을 규정하는 상황에서, 함께 문화생활을 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12-6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만족도 ②

(단위: %, 명)

특성	자녀와의 문화생활					계(수)	χ^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6	16.7	37.2	34.9	9.4	100.0(9,344)	
지역							
동부	1.7	16.2	37.1	35.1	9.9	100.0(8,067)	27.4***
읍·면부	2.0	20.0	38.1	33.7	6.2	100.0(1,276)	
가구원 수							
1명	9.0	33.7	33.9	21.0	2.5	100.0(741)	685.2***
2명	2.8	23.4	40.3	28.1	5.4	100.0(1,678)	
3~4명	0.7	12.6	37.3	38.2	11.1	100.0(5,875)	
5명이상	0.5	16.6	34.4	37.4	11.1	100.0(1,04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9.9	30.2	33.2	22.4	4.3	100.0(393)	540.0***
100~200 미만	4.3	24.9	38.6	27.5	4.8	100.0(1,149)	
200~300 미만	1.4	19.9	38.3	32.9	7.5	100.0(1,783)	
300~400 미만	1.5	15.8	37.9	35.0	9.8	100.0(1,829)	
400~500 미만	0.7	13.4	38.9	35.6	11.3	100.0(1,433)	
500 이상	0.5	11.1	35.0	41.1	12.4	100.0(2,692)	
가구소득비							
1 미만	8.8	28.2	32.3	24.8	6.0	100.0(367)	267.3***
1~2 미만	2.4	19.7	40.1	30.4	7.4	100.0(2,012)	
2~3 미만	1.3	17.5	36.3	35.3	9.6	100.0(2,963)	
3~4 미만	0.8	13.5	38.4	38.2	9.0	100.0(1,758)	
4 이상	1.2	13.1	35.6	38.0	12.2	100.0(2,17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와의 문화생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연령층의 경우 문화생활 불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서, 앞서 살펴본 항목과 달리 본 항목에서는 남녀가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표 12-7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만족도 ②

(단위: %, 명)

특성	자녀와의 문화생활					계(수)	χ^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기혼남성	4.6	24.0	37.7	26.9	6.8	100.0(1,636)	
연령							
15-29세	-	23.1	9.7	34.0	33.2	100.0(9)	-
30-39세	4.4	10.6	26.3	42.2	16.5	100.0(178)	
40-49세	2.8	19.6	37.2	33.1	7.4	100.0(509)	
50-59세	5.3	27.9	41.4	21.3	4.2	100.0(686)	
60세 이상	7.2	31.8	37.9	18.3	4.8	100.0(25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0	32.1	39.3	19.8	3.7	100.0(372)	81.2***
고등학교	5.6	26.1	38.7	24.5	5.1	100.0(751)	
대학이상	3.0	15.1	35.1	35.4	11.4	100.0(513)	
취업여부							
취업	4.4	23.2	37.2	27.7	7.6	100.0(1,357)	14.1**
비취업	6.1	27.9	40.4	22.8	2.7	100.0(278)	
기혼여성	1.1	15.1	37.1	36.6	10.0	100.0(7,708)	
연령							
15-29세	0.8	9.3	23.2	48.8	17.9	100.0(253)	379.6***
30-39세	1.0	7.9	31.8	44.9	14.5	100.0(2,051)	
40-49세	0.8	15.0	39.5	35.1	9.7	100.0(2,711)	
50-59세	1.5	20.6	39.9	31.7	6.3	100.0(2,298)	
60세 이상	2.1	25.5	41.9	25.5	5.1	100.0(3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	23.7	42.8	27.1	4.0	100.0(1,422)	461.4***
고등학교	0.9	17.2	38.4	35.6	7.8	100.0(3,580)	
대학이상	0.7	7.9	32.5	42.9	16.0	100.0(2,706)	
취업여부							
취업	1.0	16.0	38.2	34.6	10.1	100.0(3,837)	15.6**
비취업	1.2	14.3	36.1	38.6	9.8	100.0(3,871)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다음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성적, 취업 등)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만족하는 비율은 47.3%,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0.8%로 전체 만족도는 58.1%이었다. 이는 일반적 만족 수준을 고려할 때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우리사회의 경쟁적 풍조 속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과도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표 12-7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만족도 ③

(단위: %, 명)

특성	자녀들의 기대충족 정도(성적, 취업 등)					계(수)	χ^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7	6.4	34.8	47.3	10.8	100.0(9,343)	
지역							
동부	0.7	6.4	34.8	47.0	11.1	100.0(8,066)	6.2
읍·면부	0.7	6.6	35.0	48.9	8.8	100.0(1,277)	
가구원 수							
1명	5.8	18.7	37.8	32.5	5.2	100.0(741)	582.9***
2명	0.6	6.1	38.6	46.5	8.2	100.0(1,680)	
3~4명	0.2	5.4	33.3	49.0	12.1	100.0(5,872)	
5명이상	0.2	4.5	35.0	49.1	11.3	100.0(1,04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5.6	17.1	37.2	35.5	4.7	100.0(393)	439.8***
100~200 미만	1.7	9.7	41.4	39.2	8.0	100.0(1,147)	
200~300 미만	0.3	6.4	40.5	44.4	8.3	100.0(1,784)	
300~400 미만	0.4	6.6	33.8	47.3	11.8	100.0(1,830)	
400~500 미만	0.5	3.8	33.2	51.0	11.4	100.0(1,432)	
500 이상	0.1	4.5	29.7	52.1	13.6	100.0(2,692)	
육구소득비							
1 미만	3.5	13.2	42.8	33.8	6.7	100.0(366)	223.6***
1~2 미만	1.3	8.2	39.0	42.2	9.4	100.0(2,012)	
2~3 미만	0.4	5.0	36.9	47.6	10.1	100.0(2,963)	
3~4 미만	0.4	6.7	32.8	49.4	10.7	100.0(1,758)	
4 이상	0.4	5.1	28.8	51.7	13.9	100.0(2,17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기대충족 만족도에서 남성은 50.1%, 여성은 59.7%로 나타남으로써, 기대충족 만족도의 남녀 인식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7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만족도 ③

특성	자녀들의 기대충족 정도(성적, 취업 등)					계(수)	χ^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기혼남성	2.4	8.5	39.0	41.0	9.1	100.0(1,634)	
연령							
15-29세	-	-	51.4	34.2	14.4	100.0(9)	-
30-39세	0.9	3.3	21.9	53.7	20.2	100.0(176)	
40-49세	1.5	6.9	37.4	46.6	7.6	100.0(509)	
50-59세	3.0	9.5	43.6	35.7	8.1	100.0(686)	
60세 이상	3.7	12.8	41.4	35.3	6.9	100.0(25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9	13.6	47.5	32.2	4.8	100.0(372)	87.3***
고등학교	3.4	7.9	41.5	39.8	7.4	100.0(749)	
대학이상	1.2	5.7	29.2	49.2	14.7	100.0(513)	
취업여부							
취업	2.5	8.4	36.7	42.4	10.0	100.0(1,356)	20.9***
비취업	1.9	9.0	50.0	34.1	5.0	100.0(278)	
기혼여성	0.4	6.0	33.9	48.6	11.1	100.0(7,709)	
연령							
15-29세	0.4	1.1	15.6	64.6	18.3	100.0(253)	291.1***
30-39세	0.2	2.8	27.9	52.4	16.8	100.0(2,050)	
40-49세	0.3	7.9	35.7	46.3	9.8	100.0(2,710)	
50-59세	0.4	6.5	37.8	47.4	7.9	100.0(2,300)	
60세 이상	1.4	10.2	41.5	41.4	5.5	100.0(3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10.9	41.1	41.6	5.3	100.0(1,422)	411.4***
고등학교	0.3	6.2	38.2	46.2	9.2	100.0(3,580)	
대학이상	0.1	3.2	24.4	55.5	16.8	100.0(2,706)	
취업여부							
취업	0.4	6.9	34.3	47.1	11.3	100.0(3,837)	15.5**
비취업	0.3	5.1	33.5	50.1	10.9	100.0(3,871)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만족 비율은 67.2%로, 만족이 55.4%, 매우 만족이 11.8%이었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 항목별 자녀관계 만족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징적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이다. 즉 자녀관계의 전반적 만족도에서 불만족 정도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저소득층의 자녀관계에서 많은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12-7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만족도 ④

(단위: %, 명)

특성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계(수)	χ^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6	3.2	29.0	55.4	11.8	100.0(9,348)	
지역							
동부	0.6	3.1	29.0	55.2	12.1	100.0(8,070)	7.9 [#]
읍·면부	0.6	4.0	29.3	56.4	9.7	100.0(1,277)	
가구원 수							
1명	5.9	15.5	37.3	38.1	3.3	100.0(742)	967.3 ^{***}
2명	0.4	3.6	33.8	54.3	8.0	100.0(1,680)	
3~4명	0.1	1.8	27.4	57.0	13.7	100.0(5,876)	
5명이상	-	2.2	24.5	60.2	13.0	100.0(1,04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5.1	14.6	32.2	43.7	4.4	100.0 (394)	664.0 ^{***}
100~200 미만	1.6	7.1	37.9	45.5	7.8	100.0(1,149)	
200~300 미만	0.2	2.3	35.1	53.7	8.8	100.0(1,784)	
300~400 미만	0.4	3.4	27.7	55.9	12.7	100.0(1,830)	
400~500 미만	0.4	1.1	24.6	61.2	12.8	100.0(1,433)	
500 이상	0.0	1.5	23.9	59.0	15.5	100.0(2,694)	
가구소득비							
1 미만	3.3	10.5	38.5	40.6	7.2	100.0(367)	270.4 ^{***}
1~2 미만	1.1	4.8	33.5	50.9	9.8	100.0(2,013)	
2~3 미만	0.3	2.2	29.7	56.9	10.8	100.0(2,963)	
3~4 미만	0.1	2.7	26.2	58.6	12.3	100.0(1,758)	
4 이상	0.4	2.3	24.5	57.3	15.4	100.0(2,18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전체 만족도는 57.1%, 여성의 전체 만족도는 69.3%로 나타나남으로써, 아버지가 자녀관계 전반에서 불만족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7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만족도 ④

(단위: %, 명)

특성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계(수)	χ^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기혼남성	2.2	5.8	34.9	48.5	8.6	100.0(1,636)	
연령							
15-29세	-	-	45.2	21.6	33.2	100.0(9)	-
30-39세	0.9	2.2	16.0	60.7	20.3	100.0(178)	
40-49세	1.3	4.8	31.7	53.1	9.1	100.0(509)	
50-59세	2.8	5.4	40.3	45.4	6.0	100.0(686)	
60세 이상	3.7	11.8	39.2	40.2	5.1	100.0(25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	10.7	41.2	41.9	4.5	100.0(372)	82.8***
고등학교	3.5	4.6	38.1	46.5	7.2	100.0(751)	
대학이상	0.8	4.0	25.4	56.4	13.4	100.0 513)	
취업여부							
취업	2.3	5.5	33.1	49.5	9.6	100.0(1,357)	21.5***
비취업	2.1	7.5	43.4	43.7	3.3	100.0(278)	
기혼여성	0.2	2.7	27.8	56.9	12.4	100.0(7,712)	
연령							
15-29세	0.4	0.5	10.5	62.7	25.9	100.0(253)	328.0***
30-39세	0.1	1.7	18.5	61.8	17.9	100.0(2,052)	
40-49세	0.1	3.0	30.5	54.9	11.4	100.0(2,711)	
50-59세	0.3	3.0	33.4	54.7	8.6	100.0(2,300)	
60세 이상	1.2	5.6	35.4	53.1	4.6	100.0(3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9	5.5	38.3	49.7	5.6	100.0(1,422)	437.2***
고등학교	0.1	2.5	30.6	57.0	9.8	100.0(3,581)	
대학이상	-	1.5	18.6	60.4	19.5	100.0(2,709)	
취업여부							
취업	0.3	2.9	28.6	55.6	12.6	100.0(3,839)	6.8
비취업	0.2	2.5	27.0	58.1	12.3	100.0(3,873)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5. 가족관계 만족도

다음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태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5개의 문항을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3%로, 긍정의 전체 비율은 59.1%로 낮았다.

〈표 12-7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①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6	5.9	34.4	50.8	8.3	100.0(10,002)	
지역							
동부	0.5	5.6	34.7	50.5	8.6	100.0(8,637)	20.3***
읍·면부	0.3	8.0	32.8	52.4	6.6	100.0(1,366)	
가구원 수							
1명	4.3	19.1	40.8	34.0	1.8	100.0(802)	630.4***
2명	0.3	5.2	32.9	50.6	11.0	100.0(2,236)	
3~4명	0.1	4.6	34.5	52.5	8.3	100.0(5,911)	
5명이상	0.1	5.0	32.1	54.6	8.1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8	19.2	34.5	40.3	2.2	100.0(432)	696.3***
100~200 미만	1.5	11.5	43.8	39.1	4.1	100.0(1,220)	
200~300 미만	0.2	8.0	40.0	45.9	6.0	100.0(1,942)	
300~400 미만	0.3	3.6	35.9	51.1	9.2	100.0(1,980)	
400~500 미만	0.3	3.2	30.1	57.1	9.4	100.0(1,539)	
500 이상	0.0	3.2	27.4	57.7	11.5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2.8	17.6	38.2	36.9	4.5	100.0(403)	450.5***
1~2 미만	1.1	8.7	41.6	44.1	4.5	100.0(2,066)	
2~3 미만	0.2	5.7	35.7	51.1	7.3	100.0(3,132)	
3~4 미만	0.2	3.9	30.7	56.2	9.0	100.0(1,907)	
4 이상	0.3	3.5	28.4	54.9	12.9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끼리 대화가 잘된다는 항목에서 남녀 응답자의 차이는 크기 않았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남녀 모두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의 찬성비율이 낮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7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①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4	9.5	37.4	44.6	7.1	100.0(1,789)	
연령							
15-29세	-	-	10.0	71.6	18.4	100.0(22)	-
30-39세	0.6	3.0	25.0	59.5	11.9	100.0(247)	
40-49세	0.9	9.2	37.7	46.2	6.1	100.0(551)	
50-59세	1.7	10.2	42.3	38.9	7.0	100.0(706)	
60세 이상	2.7	15.1	37.7	40.5	4.0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6	18.2	44.0	33.2	3.9	100.0(400)	140.8***
고등학교	2.7	8.9	38.6	45.8	3.9	100.0(801)	
대학이상	0.3	4.3	31.2	50.8	13.5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6	7.6	37.1	46.2	7.5	100.0(1,496)	44.7***
비취업	0.6	19.2	39.0	36.4	4.8	100.0(292)	
기혼여성	0.3	5.2	33.8	52.1	8.6	100.0(8,213)	
연령							
15-29세	0.1	5.0	19.7	56.5	18.8	100.0(389)	170.4***
30-39세	0.1	3.7	30.3	55.4	10.6	100.0(2,278)	
40-49세	0.3	5.2	35.9	51.1	7.5	100.0(2,788)	
50-59세	0.5	6.0	36.1	50.1	7.3	100.0(2,355)	
60세 이상	1.1	8.9	38.4	48.2	3.5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9.4	40.5	45.5	3.6	100.0(1,467)	463.6***
고등학교	0.2	5.3	38.8	49.8	5.9	100.0(3,732)	
대학이상	0.2	2.9	24.3	58.2	14.5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4	5.1	33.8	52.1	8.6	100.0(4,115)	1.6
비취업	0.2	5.3	33.7	52.2	8.6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에서,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전체 비율은 67.6%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7.4%,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2%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고소득층에보다 저소득층의 경우 찬성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 간의 문제해결 노력의 어려움에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7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②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5	4.8	27.1	57.4	10.2	100.0(10,002)	
지역							
동부	0.5	4.7	27.1	56.8	10.9	100.0(8,637)	32.2***
읍·면부	0.4	5.3	27.2	61.1	6.0	100.0(1,366)	
가구원 수							
1명	4.9	19.3	36.3	36.1	3.4	100.0(802)	885.8***
2명	0.1	3.6	27.5	57.7	11.0	100.0(2,236)	
3~4명	0.1	3.5	26.1	59.1	11.2	100.0(5,911)	
5명이상	0.0	3.3	24.5	63.8	8.4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8	16.8	30.6	43.2	4.7	100.0(432)	818.0***
100~200 미만	1.4	10.3	36.8	46.8	4.6	100.0(1,220)	
200~300 미만	0.2	6.8	32.8	52.8	7.5	100.0(1,942)	
300~400 미만	0.3	2.9	26.5	57.6	12.7	100.0(1,980)	
400~500 미만	-	2.3	22.8	63.6	11.2	100.0(1,539)	
500 이상	0.0	1.8	21.1	64.0	13.1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3.1	14.0	36.1	41.0	5.8	100.0(403)	449.9***
1~2 미만	1.2	7.7	34.0	51.0	6.1	100.0(2,066)	
2~3 미만	0.2	4.4	27.5	58.0	9.9	100.0(3,132)	
3~4 미만	0.1	3.6	23.3	61.5	11.6	100.0(1,907)	
4 이상	0.2	2.3	21.9	61.8	13.8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문제 해결 노력에서 남녀 응답자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나 학력에 의한 차이에서도 남녀 모두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연령층과 저학력층의 문제해결 노력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표 12-7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②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6	8.3	31.0	51.1	8.0	100.0(1,789)	
연령							
15-29세	-	1.3	2.1	72.1	24.5	100.0(22)	-
30-39세	0.6	3.2	20.3	58.7	17.2	100.0(247)	
40-49세	0.9	7.0	34.8	50.8	6.5	100.0(551)	
50-59세	2.3	10.0	31.6	49.5	6.6	100.0(706)	
60세 이상	1.6	11.9	34.2	47.2	5.0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	16.6	33.7	43.9	4.3	100.0(400)	112.5***
고등학교	2.4	6.8	34.6	50.2	5.9	100.0(801)	
대학이상	0.3	4.6	24.2	57.3	13.6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6	7.1	29.8	52.9	8.6	100.0(1,496)	31.1***
비취업	1.3	14.7	37.1	41.8	5.1	100.0(292)	
기혼여성	0.3	4.0	26.2	58.8	10.7	100.0(8,213)	
연령							
15-29세	0.2	6.9	15.2	54.8	23.0	100.0(389)	178.2***
30-39세	-	3.8	22.6	60.5	13.1	100.0(2,278)	
40-49세	0.3	3.6	27.8	58.7	9.5	100.0(2,788)	
50-59세	0.4	3.8	27.9	59.2	8.7	100.0(2,355)	
60세 이상	0.8	6.9	36.0	51.6	4.6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6.5	33.4	54.0	5.3	100.0(1,467)	315.8***
고등학교	0.2	4.2	29.0	58.4	8.2	100.0(3,732)	
대학이상	0.1	2.6	19.3	61.6	16.4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3	4.3	26.2	58.7	10.5	100.0(4,115)	3.2
비취업	0.2	3.8	26.3	58.9	10.9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4.2%,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1.0%로, 가족이 서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하는 전체 비율은 65.2%로 다소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경향성에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찬성비율이 뚜렷하게 일관성 있게 낮았다.

〈표 12-7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③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3	4.7	29.8	54.2	11.0	100.0(10,002)	
지역							
동부	0.4	4.6	29.8	53.9	11.3	100.0(8,637)	7.0
읍·면부	0.3	5.0	29.6	56.1	9.1	100.0(1,366)	
가구원 수							
1명	3.9	18.2	38.1	34.3	5.5	100.0(802)	750.1***
2명	0.1	3.5	29.6	53.9	12.9	100.0(2,236)	
3~4명	0.1	3.4	29.2	56.0	11.3	100.0(5,911)	
5명이상	-	3.9	26.8	59.6	9.7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6	15.3	36.0	41.0	5.0	100.0(432)	573.2***
100~200 미만	1.6	9.4	37.5	43.9	7.6	100.0(1,220)	
200~300 미만	0.1	5.2	35.0	50.9	8.8	100.0(1,942)	
300~400 미만	0.0	4.8	29.5	54.0	11.6	100.0(1,980)	
400~500 미만	0.1	2.2	25.8	59.4	12.5	100.0(1,539)	
500 이상	0.0	2.0	23.6	60.7	13.7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2.4	13.3	37.6	40.8	5.9	100.0(403)	348.6***
1~2 미만	0.8	7.3	34.7	49.7	7.5	100.0(2,066)	
2~3 미만	0.2	4.5	31.0	53.5	10.8	100.0(3,132)	
3~4 미만	0.2	3.4	25.8	58.3	12.3	100.0(1,907)	
4 이상	0.0	2.3	25.1	58.5	14.1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서로 잘 알고 있다는 태도에서 찬성의 정도가 성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항목과 달리 연령이나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일관된 경향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표 12-8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③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3	8.1	33.2	46.6	10.8	100.0(1,789)	
연령							
15-29세	-	-	24.5	55.9	19.6	100.0(22)	-
30-39세	0.6	3.5	22.7	58.1	15.1	100.0(247)	
40-49세	0.4	11.5	30.9	50.0	7.1	100.0(551)	
50-59세	2.1	8.1	37.7	41.2	10.9	100.0(706)	
60세 이상	2.0	5.7	36.6	42.5	13.3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13.3	36.3	42.9	6.5	100.0(400)	94.3***
고등학교	2.1	7.2	39.8	40.7	10.2	100.0(801)	
대학이상	0.6	5.6	22.1	57.2	14.5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4	7.3	31.4	49.1	10.8	100.0(1,496)	27.4***
비취업	0.9	12.0	42.3	34.2	10.7	100.0(292)	
기혼여성	0.2	3.9	29.0	55.8	11.0	100.0(8,213)	
연령							
15-29세	-	1.1	20.5	57.2	21.2	100.0(389)	-
30-39세	0.1	3.0	25.6	59.5	12.0	100.0(2,278)	
40-49세	0.1	4.2	29.4	55.3	10.9	100.0(2,788)	
50-59세	0.3	4.3	32.1	53.9	9.4	100.0(2,355)	
60세 이상	0.4	8.2	36.4	47.9	7.0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5	6.9	36.6	50.1	5.8	100.0(1,467)	291.1***
고등학교	0.1	4.3	31.2	55.5	8.9	100.0(3,732)	
대학이상	0.1	2.1	22.6	59.0	16.2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2	3.9	29.3	55.7	10.9	100.0(4,115)	0.5
비취업	0.1	3.9	28.8	55.9	11.2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면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에서,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4.8%,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다른 항목과 달리, 가족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에 대하여 긍정하는 전체 비율은 55.5%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8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④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7	8.6	35.2	44.8	10.7	100.0(10,002)	
지역							
동부	0.7	8.4	35.6	44.4	10.8	100.0(8,637)	13.1 [#]
읍·면부	0.3	9.6	32.5	47.8	9.8	100.0(1,366)	
가구원 수							
1명	5.4	22.4	37.4	31.6	3.1	100.0(802)	587.2 ^{***}
2명	0.1	8.2	31.7	47.2	12.8	100.0(2,236)	
3~4명	0.2	7.1	36.1	45.5	11.1	100.0(5,911)	
5명이상	0.9	7.1	35.7	46.2	10.1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7	22.5	33.6	36.5	3.7	100.0(432)	520.4 ^{***}
100~200 미만	2.1	15.4	38.8	37.8	5.9	100.0(1,220)	
200~300 미만	0.4	11.1	38.6	41.7	8.2	100.0(1,942)	
300~400 미만	0.7	6.7	35.1	45.4	12.1	100.0(1,980)	
400~500 미만	0.3	4.9	34.6	47.4	12.8	100.0(1,539)	
500 이상	0.1	4.8	31.9	49.8	13.5	100.0(2,817)	
옥구소득비							
1 미만	3.0	20.6	35.5	33.9	7.0	100.0(403)	329.5 ^{***}
1~2 미만	1.4	12.3	38.2	41.3	6.8	100.0(2,066)	
2~3 미만	0.4	8.4	37.0	44.0	10.1	100.0(3,132)	
3~4 미만	0.4	5.8	34.7	47.2	12.0	100.0(1,907)	
4 이상	0.3	5.5	30.6	49.1	14.4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솔직한 대화에 긍정히는 비율에서 남녀의 격차는 크지 않았고, 학력별로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고학력자의 찬성비율이 더 높았다.

〈표 12-8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④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6	11.6	40.2	38.5	8.0	100.0(1,789)	
연령							
15-29세	-	3.4	18.3	46.2	32.1	100.0(22)	-
30-39세	0.6	5.7	29.2	51.7	12.8	100.0(247)	
40-49세	1.0	12.6	43.7	36.1	6.6	100.0(551)	
50-59세	2.4	11.4	44.0	34.4	7.9	100.0(706)	
60세 이상	2.0	16.5	34.8	41.8	4.9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9	19.1	42.9	33.5	3.5	100.0(400)	111.1***
고등학교	2.7	11.7	44.3	35.3	6.0	100.0(801)	
대학이상	0.6	6.5	32.6	46.5	13.9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7	10.5	39.7	39.4	8.8	100.0(1,496)	19.3**
비취업	1.4	17.5	42.8	34.2	4.2	100.0(292)	
기혼여성	0.5	7.9	34.1	46.2	11.3	100.0(8,213)	
연령							
15-29세	2.5	3.0	22.2	51.5	20.8	100.0(389)	182.5***
30-39세	0.1	7.9	29.6	48.5	13.8	100.0(2,278)	
40-49세	0.3	7.7	37.4	44.1	10.5	100.0(2,788)	
50-59세	0.7	8.6	35.1	46.4	9.3	100.0(2,355)	
60세 이상	0.6	10.9	41.4	41.3	5.9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12.3	40.3	41.2	5.2	100.0(1,467)	268.8***
고등학교	0.5	8.7	35.4	45.9	9.5	100.0(3,732)	
대학이상	0.2	4.8	29.5	49.0	16.4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6	8.3	33.7	46.5	10.9	100.0(4,115)	3.5
비취업	0.4	7.6	34.4	45.9	11.7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에서,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이었다. 서로 도움을 청하는 항목에 대해 긍정하는 전체 비율은 71.8%로 다소 높았는데, 이는 가족간 서로 도움을 청하는 데에 있어 크게 주저함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8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⑤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5	4.6	23.1	58.6	13.2	100.0(10,002)	
지역							
동부	0.6	4.3	23.3	58.3	13.5	100.0(8,637)	22.5***
읍·면·부	0.4	6.4	21.6	60.8	10.7	100.0(1,366)	
가구원 수							
1명	5.6	20.9	36.2	33.3	4.1	100.0(802)	1148.2***
2명	0.1	4.7	23.8	57.9	13.4	100.0(2,236)	
3~4명	0.1	2.5	21.6	61.3	14.5	100.0(5,911)	
5명이상	0.2	3.2	19.9	64.4	12.3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5.6	15.1	32.7	42.3	4.3	100.0(432)	911.5***
100~200 미만	1.7	10.7	34.5	45.5	7.6	100.0(1,220)	
200~300 미만	0.1	5.3	27.5	57.5	9.7	100.0(1,942)	
300~400 미만	0.2	3.3	23.1	60.0	13.4	100.0(1,980)	
400~500 미만	0.2	2.6	17.6	64.7	14.8	100.0(1,539)	
500 이상	0.1	1.7	16.6	63.4	18.2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4.1	11.9	34.6	42.5	6.9	100.0(403)	482.2***
1~2 미만	1.2	5.9	31.2	53.1	8.7	100.0(2,066)	
2~3 미만	0.2	4.8	23.4	59.4	12.2	100.0(3,132)	
3~4 미만	0.3	3.6	18.5	63.5	14.1	100.0(1,907)	
4 이상	-	2.6	17.5	61.3	18.6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비율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로 여성은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이 더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2-8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⑤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3	8.4	26.4	54.7	9.2	100.0(1,789)	
연령							
15-29세	-	-	26.3	43.6	30.2	100.0(22)	-
30-39세	0.6	6.0	13.0	65.4	14.9	100.0(247)	
40-49세	0.4	8.2	24.6	56.8	9.9	100.0(551)	
50-59세	1.9	8.2	29.6	53.3	7.0	100.0(706)	
60세 이상	2.3	12.1	34.1	45.0	6.5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	13.9	31.1	48.9	4.6	100.0(400)	103.9***
고등학교	2.0	8.5	30.1	52.6	6.8	100.0(801)	
대학이상	0.3	4.5	18.1	61.6	15.6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3	8.0	23.5	57.4	9.8	100.0(1,496)	45.4***
비취업	1.5	10.2	41.2	41.1	6.0	100.0(292)	
기혼여성	0.4	3.7	22.4	59.5	14.0	100.0(8,213)	
연령							
15-29세	0.3	2.0	11.9	62.1	23.8	100.0(389)	259.1***
30-39세	0.1	2.6	17.9	60.1	19.3	100.0(2,278)	
40-49세	0.3	3.7	23.5	60.0	12.5	100.0(2,788)	
50-59세	0.7	4.9	24.4	59.8	10.2	100.0(2,355)	
60세 이상	1.5	5.4	38.0	47.9	7.3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	6.9	30.0	54.9	6.9	100.0(1,467)	406.0 ***
고등학교	0.2	3.9	24.7	60.2	11.0	100.0(3,732)	
대학이상	0.2	2.1	15.7	60.8	21.2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5	4.2	23.1	58.6	13.7	100.0(4,115)	7.6
비취업	0.3	3.3	21.7	60.3	14.3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에 대해 긍정적 응답의 전체 비율은 47.5%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7.2%,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이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들이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전체 가족관계 만족도 항목 중에서 이 항목의 찬성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8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⑥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1	16.0	35.4	37.2	10.3	100.0(10,002)	
지역							
동부	1.0	15.4	35.7	37.2	10.6	100.0(8,637)	27.9***
읍·면부	1.6	19.9	33.6	37.0	7.9	100.0(1,366)	
가구원 수							
1명	8.5	38.3	34.3	15.9	2.9	100.0(802)	909.1***
2명	0.5	18.0	37.0	33.1	11.3	100.0(2,236)	
3~4명	0.5	12.8	34.8	41.0	10.8	100.0(5,911)	
5명이상	0.2	12.5	35.9	40.9	10.5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3	31.6	36.0	20.0	4.0	100.0(432)	858.6***
100~200 미만	3.5	27.9	38.5	24.9	5.1	100.0(1,220)	
200~300 미만	0.9	20.3	37.2	34.5	7.1	100.0(1,942)	
300~400 미만	0.3	12.5	34.4	42.3	10.5	100.0(1,980)	
400~500 미만	0.4	11.6	36.1	38.8	13.2	100.0(1,539)	
500 이상	0.2	9.9	33.0	43.1	13.8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7.2	27.8	36.7	23.5	4.9	100.0(403)	438.1***
1~2 미만	2.1	21.6	36.6	33.2	6.5	100.0(2,066)	
2~3 미만	0.9	15.6	36.5	37.7	9.3	100.0(3,132)	
3~4 미만	0.5	13.4	35.9	39.0	11.3	100.0(1,907)	
4 이상	0.1	11.4	32.4	41.4	14.7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또한 앞서 살펴본 다른 항목과 달리, 남녀 간의 격차도 비교적 더 크게 나타나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8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⑥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2.9	24.8	34.9	29.2	8.2	100.0(1,789)	
연령							
15-29세	-	1.3	30.4	41.8	26.5	100.0(22)	208.3***
30-39세	0.6	10.0	21.0	48.6	19.7	100.0(247)	
40-49세	1.3	20.0	39.2	33.3	6.2	100.0(551)	
50-59세	3.5	31.4	36.6	22.2	6.3	100.0(706)	
60세 이상	6.9	33.4	34.6	19.9	5.2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6	38.8	30.9	19.0	4.7	100.0(400)	199.9***
고등학교	2.8	25.6	40.8	26.2	4.6	100.0(801)	
대학이상	0.4	14.3	29.6	40.2	15.5	100.0(588)	
취업여부							
취업	2.7	22.1	34.5	31.6	9.1	100.0(1,496)	55.1***
비취업	3.8	38.7	36.9	16.8	3.7	100.0(292)	
기혼여성	0.7	14.1	35.5	39.0	10.7	100.0(8,213)	
연령							
15-29세	-	9.1	19.3	47.0	24.6	100.0(389)	702.0***
30-39세	0.2	6.8	26.4	48.9	17.7	100.0(2,278)	
40-49세	0.9	14.6	38.1	37.5	8.9	100.0(2,788)	
50-59세	1.2	19.9	42.3	31.6	5.1	100.0(2,355)	
60세 이상	1.1	22.8	44.4	27.9	3.7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	23.6	41.5	27.9	4.4	100.0(1,467)	695.9***
고등학교	0.4	15.7	39.1	37.6	7.2	100.0(3,732)	
대학이상	0.2	7.5	28.2	46.0	18.2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8	15.1	35.7	37.3	11.1	100.0(4,115)	14.0**
비취업	0.7	13.0	35.3	40.6	10.4	100.0(4,09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1.9%로, 긍정의 전체 비율이 68.3%로 다소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경우 긍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가족 간의 주관적 친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2-8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⑦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3	4.2	27.2	56.4	11.9	100.0(10,002)	
지역							
동부	0.4	4.0	27.4	56.0	12.2	100.0(8,637)	12.0 [#]
읍·면부	0.2	5.3	25.8	58.5	10.2	100.0(1,366)	
가구원 수							
1명	4.3	16.6	38.5	37.4	3.1	100.0(802)	824.3 ^{***}
2명	-	3.6	27.0	56.5	12.9	100.0(2,236)	
3~4명	0.1	3.1	26.0	58.3	12.5	100.0(5,911)	
5명이상	0.0	2.0	25.3	59.7	12.9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0	13.9	33.2	46.1	3.8	100.0(432)	723.2 ^{***}
100~200 미만	1.7	9.3	37.0	46.0	6.0	100.0(1,220)	
200~300 미만	0.1	5.4	33.8	51.4	9.2	100.0(1,942)	
300~400 미만	0.0	3.3	26.3	57.4	13.1	100.0(1,980)	
400~500 미만	0.1	1.9	23.6	60.1	14.3	100.0(1,539)	
500 이상	0.0	1.5	19.6	63.6	15.3	100.0(2,817)	
육구소득비							
1 미만	2.0	11.3	37.4	43.8	5.5	100.0(403)	385.0 ^{***}
1~2 미만	1.0	6.5	33.9	49.8	8.8	100.0(2,066)	
2~3 미만	0.2	4.3	28.0	56.8	10.8	100.0(3,132)	
3~4 미만	0.3	2.7	23.5	61.2	12.4	100.0(1,907)	
4 이상	0.0	2.0	21.0	60.3	16.6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의 친밀성에 긍정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친밀성의 인식과 표현에서 남성이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8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⑦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3	7.5	34.3	48.0	8.9	100.0(1,789)	
연령							
15-29세	-	-	32.1	45.3	22.6	100.0(22)	-
30-39세	0.6	2.4	20.6	53.5	22.9	100.0(247)	
40-49세	0.4	7.7	33.4	50.5	8.0	100.0(551)	
50-59세	2.0	8.0	37.1	47.7	5.2	100.0(706)	
60세 이상	1.6	11.2	42.0	38.8	6.3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14.1	39.7	40.2	5.2	100.0(400)	148.5***
고등학교	2.1	7.2	41.0	43.6	6.1	100.0(801)	
대학이상	0.4	3.4	21.5	59.4	15.2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4	6.4	32.5	49.8	10.0	100.0(1,496)	43.1***
비취업	0.6	13.2	43.9	38.9	3.5	100.0(292)	
기혼여성	0.2	3.5	25.6	58.2	12.5	100.0(8,213)	
연령							
15-29세	-	4.5	14.2	53.2	28.1	100.0(389)	240.0***
30-39세	0.1	2.7	20.1	60.7	16.4	100.0(2,278)	
40-49세	0.2	3.5	27.8	57.9	10.7	100.0(2,788)	
50-59세	0.3	3.7	28.5	58.1	9.5	100.0(2,355)	
60세 이상	0.8	5.2	36.1	50.9	6.9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7	4.6	36.4	52.2	6.1	100.0(1,467)	437.1***
고등학교	0.1	4.1	27.7	59.2	8.8	100.0(3,732)	
대학이상	0.1	2.1	17.7	59.8	20.3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3	3.4	25.4	58.7	12.3	100.0(4,115)	4.0
비취업	0.1	3.5	25.8	57.7	12.8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전체 비율은 66.2%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5.1%,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의 분포를 보인다. 특히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수준으로 욕구소득비에 따른 차이는 일관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가족간 솔직함에 긍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표 12-8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⑧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4	4.3	29.1	55.1	11.1	100.0(10,002)	
지역							
동부	0.5	3.9	29.4	55.2	11.1	100.0(8,637)	24.6***
읍·면부	0.4	6.7	27.5	54.6	10.8	100.0(1,366)	
가구원 수							
1명	4.7	17.3	37.4	37.6	3.1	100.0(802)	832.6***
2명	0.1	3.3	28.8	55.5	12.3	100.0(2,236)	
3~4명	0.1	3.2	27.8	57.0	11.9	100.0(5,911)	
5명이상	-	2.1	30.8	57.3	9.7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1	13.6	35.7	43.6	3.0	100.0(432)	618.3***
100~200 미만	1.8	8.8	35.9	47.4	6.1	100.0(1,220)	
200~300 미만	0.1	5.2	33.2	52.3	9.2	100.0(1,942)	
300~400 미만	0.1	3.4	28.9	55.7	11.9	100.0(1,980)	
400~500 미만	0.1	2.9	24.2	60.0	12.7	100.0(1,539)	
500 이상	0.0	1.5	24.6	59.7	14.2	100.0(2,817)	
욕구소득비							
1 미만	2.6	12.8	38.4	39.9	6.4	100.0(403)	366.9***
1~2 미만	1.3	6.1	34.6	50.2	7.9	100.0(2,066)	
2~3 미만	0.2	4.1	28.6	57.2	9.9	100.0(3,132)	
3~4 미만	0.1	3.5	27.7	56.7	12.0	100.0(1,907)	
4 이상	0.0	2.1	23.9	58.6	15.3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남녀 간의 태도 차이는 크지 않았고, 남녀 모두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 어렵지만,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일관된 경향성을 나타냈다.

〈표 12-9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⑧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2	7.7	32.2	50.1	8.8	100.0(1,789)	
연령							
15-29세	-	-	11.1	69.2	19.6	100.0(22)	-
30-39세	0.6	3.6	18.4	61.5	15.8	100.0(247)	
40-49세	0.4	7.6	31.7	51.0	9.4	100.0(551)	
50-59세	1.8	8.4	37.2	45.9	6.6	100.0(706)	
60세 이상	2.0	10.5	34.8	47.0	5.8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15.5	35.2	44.4	4.0	100.0(400)	134.7***
고등학교	1.9	6.9	38.5	45.6	7.1	100.0(801)	
대학이상	0.6	3.4	21.6	60.1	14.3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3	6.8	30.7	51.7	9.5	100.0(1,496)	26.0***
비취업	1.0	12.4	39.9	41.7	5.1	100.0(292)	
기혼여성	0.3	3.5	28.4	56.2	11.5	100.0(8,213)	
연령							
15-29세	-	1.9	22.7	54.2	21.2	100.0(389)	134.3***
30-39세	0.2	3.0	23.8	58.6	14.5	100.0(2,278)	
40-49세	0.2	4.1	29.5	55.8	10.4	100.0(2,788)	
50-59세	0.4	3.5	30.8	55.8	9.5	100.0(2,355)	
60세 이상	0.8	3.7	39.0	51.1	5.4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6.2	34.9	51.6	6.4	100.0(1,467)	287.7***
고등학교	0.2	3.5	31.0	56.2	9.0	100.0(3,732)	
대학이상	0.1	2.1	22.0	58.5	17.2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4	2.8	28.7	56.5	11.7	100.0(4,115)	13.8**
비취업	0.2	4.2	28.1	56.0	11.4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하는 전체 비율은 69.3%로 다소 높았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5.5%,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3.8%이었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체로 가족간 지지도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9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⑨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6	3.7	26.4	55.5	13.8	100.0(10,002)	
지역							
동부	0.5	3.6	26.6	55.3	14.0	100.0(8,637)	6.2
읍·면부	0.4	4.5	25.4	57.2	12.5	100.0(1,366)	
가구원 수							
1명	5.4	13.7	38.9	37.2	4.9	100.0(802)	798.4***
2명	-	3.3	25.2	55.3	16.2	100.0(2,236)	
3~4명	0.1	2.7	25.2	57.6	14.3	100.0(5,911)	
5명이상	0.0	2.3	26.2	58.3	13.2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5	12.2	32.0	45.2	6.1	100.0(432)	733.9***
100~200 미만	1.7	8.3	37.3	44.4	8.3	100.0(1,220)	
200~300 미만	0.1	4.8	31.1	54.4	9.6	100.0(1,942)	
300~400 미만	0.2	2.0	26.2	58.1	13.6	100.0(1,980)	
400~500 미만	0.2	2.7	23.8	55.8	17.5	100.0(1,539)	
500 이상	0.0	1.4	19.2	60.8	18.6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3.5	10.2	35.5	42.0	8.8	100.0(403)	449.4***
1~2 미만	1.2	5.8	33.4	50.5	9.1	100.0(2,066)	
2~3 미만	0.2	3.4	27.7	56.3	12.4	100.0(3,132)	
3~4 미만	0.1	2.7	23.2	59.6	14.4	100.0(1,907)	
4 이상	0.2	2.0	19.8	57.8	20.2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 간 지지도는 남녀모두 교육수준의 중요성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다. 즉 고학력자의 가족 간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며, 이것은 학력수준이 가족 간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표 12-9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⑨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4	5.9	30.6	51.0	11.1	100.0(1,789)	
연령							
15-29세	-	-	23.5	52.4	24.1	100.0(22)	-
30-39세	0.6	3.2	16.6	59.9	19.6	100.0(247)	
40-49세	0.8	6.4	29.4	54.7	8.8	100.0(551)	
50-59세	2.0	5.8	34.5	47.5	10.3	100.0(706)	
60세 이상	2.4	8.1	36.3	44.1	9.2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7.7	45.1	41.7	4.5	100.0(400)	150.7***
고등학교	2.4	6.0	32.7	50.9	8.0	100.0(801)	
대학이상	0.4	4.5	17.7	57.5	19.9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5	5.5	28.6	52.6	11.7	100.0(1,496)	22.9***
비취업	0.9	7.7	40.9	42.4	8.0	100.0(292)	
기혼여성	0.3	3.2	25.5	56.5	14.4	100.0(8,213)	
연령							
15-29세	-	1.7	21.6	49.7	27.0	100.0(389)	147.9***
30-39세	0.2	2.3	22.1	58.6	16.7	100.0(2,278)	
40-49세	0.3	3.7	26.4	55.7	13.9	100.0(2,788)	
50-59세	0.4	3.5	26.2	57.9	12.0	100.0(2,355)	
60세 이상	0.8	4.8	38.9	48.9	6.6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5.4	32.8	53.3	7.5	100.0(1,467)	318.5***
고등학교	0.2	3.5	28.6	55.3	12.3	100.0(3,732)	
대학이상	0.2	1.8	18.1	59.6	20.4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3	3.4	25.3	55.6	15.4	100.0(4,115)	8.4 [#]
비취업	0.4	3.0	25.7	57.5	13.4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하는 전체 비율은 66.2%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4.5%, 매우 그렇다가 11.7%이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서로의 생각 표현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표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9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⑩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5	4.9	28.4	54.5	11.7	100.0(10,002)	
지역							
동부	0.5	4.6	28.5	54.5	11.9	100.0(8,637)	16.2**
읍·면부	0.2	6.8	27.9	54.6	10.4	100.0(1,366)	
가구원 수							
1명	5.2	15.6	40.7	34.6	3.9	100.0(802)	758.5***
2명	-	5.0	28.0	54.4	12.5	100.0(2,236)	
3~4명	0.1	3.8	26.9	56.9	12.3	100.0(5,911)	
5명이상	0.1	2.9	28.6	56.2	12.1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1	15.7	31.4	44.6	4.2	100.0(432)	657.4***
100~200 미만	1.5	9.7	37.3	45.1	6.3	100.0(1,220)	
200~300 미만	0.1	6.1	33.9	51.0	9.0	100.0(1,942)	
300~400 미만	0.2	3.5	29.3	54.9	12.0	100.0(1,980)	
400~500 미만	0.1	2.7	25.2	57.1	14.8	100.0(1,539)	
500 이상	0.1	2.6	21.5	60.8	15.0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3.2	14.4	32.9	42.5	7.0	100.0(403)	383.1***
1~2 미만	1.0	7.5	33.7	50.3	7.5	100.0(2,066)	
2~3 미만	0.2	4.3	30.1	53.8	11.5	100.0(3,132)	
3~4 미만	0.1	3.3	26.8	57.8	11.9	100.0(1,907)	
4 이상	0.2	3.2	22.2	58.3	16.0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 간 생각과 느낌이 표현에서 긍정의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9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⑩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6	7.0	35.7	47.4	8.5	100.0(1,789)	
연령							
15-29세	-	2.6	26.5	47.7	23.1	100.0(22)	-
30-39세	0.6	2.7	22.2	56.4	18.1	100.0(247)	
40-49세	1.1	7.3	34.5	49.7	7.4	100.0(551)	
50-59세	1.9	6.2	40.6	44.6	6.7	100.0(706)	
60세 이상	2.3	12.5	38.3	41.7	5.2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	11.3	46.1	37.7	3.8	100.0(400)	146.0***
고등학교	2.4	7.5	39.9	44.0	6.2	100.0(801)	
대학이상	0.4	3.3	22.8	58.7	14.9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7	5.9	33.5	49.5	9.3	100.0(1,496)	41.2***
비취업	0.6	12.1	46.5	36.4	4.3	100.0(292)	
기혼여성	0.3	4.5	26.9	56.0	12.4	100.0(8,213)	
연령							
15-29세	0.1	1.5	17.6	57.1	23.8	100.0(389)	177.1***
30-39세	0.1	3.5	22.9	57.9	15.6	100.0(2,278)	
40-49세	0.2	4.8	27.6	55.8	11.6	100.0(2,788)	
50-59세	0.4	5.0	29.8	55.2	9.5	100.0(2,355)	
60세 이상	0.8	7.3	36.2	50.7	5.0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9	7.4	34.3	51.6	5.8	100.0(1,467)	416.3***
고등학교	0.1	5.1	30.2	55.2	9.3	100.0(3,732)	
대학이상	0.1	2.2	19.1	59.2	19.3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3	4.6	25.7	57.3	12.2	100.0(4,115)	7.4
비취업	0.3	4.3	28.1	54.8	12.5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에서, ‘가족 일을 계획할 때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6.9%,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이었다.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전체 비율은 69.6%로 다소 높았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2-9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⑪

(단위: %, 명)

특성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6	4.4	25.4	56.9	12.7	100.0(10,002)	
지역							
동부	0.6	4.2	25.3	56.8	13.1	100.0(8,637)	17.1**
읍·면부	0.4	5.7	26.3	57.8	9.8	100.0(1,366)	
가구원 수							
1명	5.5	13.9	37.7	39.8	3.0	100.0(802)	737.1***
2명	0.1	4.2	24.3	57.3	14.1	100.0(2,236)	
3~4명	0.1	3.4	24.4	58.3	13.8	100.0(5,911)	
5명이상	0.1	3.4	24.4	61.2	10.9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8	14.1	31.8	44.3	5.0	100.0(432)	763.1***
100~200 미만	1.9	8.6	36.2	48.1	5.2	100.0(1,220)	
200~300 미만	0.1	4.6	31.0	55.4	8.9	100.0(1,942)	
300~400 미만	0.2	3.9	25.5	56.8	13.5	100.0(1,980)	
400~500 미만	0.1	2.8	22.0	60.4	14.7	100.0(1,539)	
500 이상	0.1	2.3	17.3	62.4	17.8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3.6	12.3	32.4	45.1	6.8	100.0(403)	487.8***
1~2 미만	1.2	6.0	34.1	51.5	7.2	100.0(2,066)	
2~3 미만	0.2	4.4	26.4	57.5	11.6	100.0(3,132)	
3~4 미만	0.2	3.9	22.5	59.3	14.1	100.0(1,907)	
4 이상	0.3	2.4	17.4	61.5	18.5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 간 발언권 인정의 긍정비율에서 남녀의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학력층의 경우 발언권 인정에 긍정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96〉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①

특성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4	6.6	29.5	52.7	9.8	100.0(1,789)	
연령							
15-29세	-	-	31.7	48.4	19.9	100.0(22)	-
30-39세	0.6	2.1	19.5	60.3	17.6	100.0(247)	
40-49세	1.1	6.8	30.1	53.2	8.9	100.0(551)	
50-59세	1.9	7.1	29.5	51.8	9.6	100.0(706)	
60세 이상	2.0	9.4	37.0	47.3	4.3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	8.5	37.8	48.5	4.0	100.0(400)	116.9***
고등학교	2.4	6.5	32.0	53.1	6.1	100.0(801)	
대학이상	0.4	5.3	20.4	54.9	18.9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5	5.9	27.6	54.6	10.5	100.0(1,496)	26.2***
비취업	1.3	10.0	39.0	43.0	6.7	100.0(292)	
기혼여성	0.3	4.0	24.6	57.8	13.3	100.0(8,213)	
연령							
15-29세	0.8	1.9	14.6	56.3	26.4	100.0(389)	195.4***
30-39세	0.1	2.7	23.4	56.7	17.1	100.0(2,278)	
40-49세	0.2	4.1	24.2	58.9	12.5	100.0(2,788)	
50-59세	0.6	4.9	26.2	58.8	9.5	100.0(2,355)	
60세 이상	0.8	6.6	33.5	52.6	6.5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	6.1	32.1	55.2	5.4	100.0(1,467)	395.3***
고등학교	0.2	4.8	26.7	57.8	10.6	100.0(3,732)	
대학이상	0.1	1.9	18.3	59.1	20.6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3	4.3	24.5	57.6	13.3	100.0(4,115)	2.4
비취업	0.4	3.7	24.6	58.0	13.4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하는 전체 비율은 69.4%로 다소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7.6%,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1.8%이었다.

〈표 12-9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⑫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4	3.3	26.9	57.6	11.8	100.0(10,002)	
지역							
동부	0.5	3.1	27.3	57.3	11.9	100.0(8,637)	15.8**
읍·면·부	0.4	4.8	24.4	59.6	10.9	100.0(1,366)	
가구원 수							
1명	4.5	12.3	32.6	46.6	4.0	100.0(802)	606.0***
2명	0.1	2.9	24.3	58.3	14.4	100.0(2,236)	
3~4명	0.1	2.4	27.1	58.4	11.9	100.0(5,911)	
5명 이상	0.0	2.6	26.6	59.6	11.1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2	9.3	28.7	51.7	6.1	100.0(432)	491.5***
100~200 미만	1.6	6.7	34.7	50.2	6.8	100.0(1,220)	
200~300 미만	0.1	3.3	31.5	56.7	8.4	100.0(1,942)	
300~400 미만	0.0	2.3	25.6	60.2	11.9	100.0(1,980)	
400~500 미만	0.2	2.4	24.3	58.9	14.3	100.0(1,539)	
500 이상	0.0	2.2	22.3	59.7	15.7	100.0(2,817)	
육구소득비							
1 미만	2.9	9.1	30.0	49.7	8.3	100.0(403)	349.3***
1~2 미만	1.1	4.1	33.4	54.0	7.4	100.0(2,066)	
2~3 미만	0.2	2.6	28.7	58.0	10.5	100.0(3,132)	
3~4 미만	0.2	3.9	23.0	60.7	12.3	100.0(1,907)	
4 이상	0.1	2.1	21.5	59.0	17.3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 간 상호인정의 태도에서 남녀 응답자의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상호인정 긍정비율이 연령에 따라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12-98〉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⑫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1	5.4	27.9	53.5	12.1	100.0(1,789)	
연령							
15-29세	-	-	17.3	63.9	18.9	100.0(22)	-
30-39세	0.6	5.0	15.1	56.4	22.9	100.0(247)	
40-49세	0.2	4.5	29.9	54.3	11.1	100.0(551)	
50-59세	1.9	5.0	29.9	53.1	10.1	100.0(706)	
60세 이상	1.8	9.2	30.9	49.1	9.1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6	9.0	35.9	48.4	6.1	100.0(400)	101.0***
고등학교	2.1	5.0	29.3	54.6	9.0	100.0(801)	
대학이상	0.3	3.5	20.4	55.3	20.5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3	5.4	26.2	54.7	12.4	100.0(1,496)	12.7*
비취업	0.6	5.6	36.1	46.9	10.8	100.0(292)	
기혼여성	0.3	2.9	26.7	58.5	11.7	100.0(8,213)	
연령							
15-29세	-	1.6	21.0	55.7	21.7	100.0(389)	114.3***
30-39세	-	2.3	23.7	60.7	13.4	100.0(2,278)	
40-49세	0.3	3.4	27.8	57.4	11.1	100.0(2,788)	
50-59세	0.6	2.9	27.6	58.8	10.2	100.0(2,355)	
60세 이상	0.8	3.3	35.8	54.5	5.6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	3.5	32.8	55.6	7.1	100.0(1,467)	211.9***
고등학교	0.1	3.3	27.8	59.5	9.3	100.0(3,732)	
대학이상	0.1	2.1	22.3	58.6	16.9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3	3.0	27.4	57.2	12.0	100.0(4,115)	5.4
비취업	0.3	2.7	26.0	59.7	11.3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에서,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8.4%,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전체 긍정의 비율은 70.3%로 높았으며, 가족관계 만족도의 다른 문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12-9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⑬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5	2.9	26.3	58.4	11.9	100.0(10,002)	
지역							
동부	0.5	3.0	26.2	58.1	12.3	100.0(8,637)	9.6*
읍·면부	0.5	2.7	26.9	60.4	9.5	100.0(1,366)	
가구원 수							
1명	5.3	9.1	39.5	42.5	3.6	100.0(802)	686.1***
2명	-	2.4	25.2	58.0	14.5	100.0(2,236)	
3~4명	0.1	2.5	25.0	60.1	12.3	100.0(5,911)	
5명이상	0.1	1.9	26.0	61.5	10.5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3	8.5	33.7	49.0	4.5	100.0(432)	587.8***
100~200 미만	1.6	6.0	35.6	49.2	7.5	100.0(1,220)	
200~300 미만	0.1	4.0	30.5	56.9	8.6	100.0(1,942)	
300~400 미만	0.2	2.3	25.7	60.0	11.8	100.0(1,980)	
400~500 미만	0.2	1.6	22.6	62.2	13.5	100.0(1,539)	
500 이상	0.1	1.1	20.3	62.0	16.6	100.0(2,817)	
육구소득비							
1 미만	3.3	8.7	35.1	45.1	7.8	100.0(403)	380.6***
1~2 미만	1.1	4.0	32.9	54.8	7.3	100.0(2,066)	
2~3 미만	0.2	3.1	26.5	59.3	10.9	100.0(3,132)	
3~4 미만	0.2	2.2	22.7	62.3	12.6	100.0(1,907)	
4 이상	0.2	1.2	21.3	59.9	17.4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책임의식의 긍정 비율에서 남녀 모두 학력이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고학력층의 긍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간 책임의식에 학력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100〉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⑬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3	4.7	30.9	53.0	10.1	100.0(1,789)	
연령							
15-29세	-	-	29.7	50.3	20.0	100.0(22)	-
30-39세	0.6	2.5	12.3	67.3	17.3	100.0(247)	
40-49세	0.8	4.5	30.6	55.3	8.9	100.0(551)	
50-59세	1.8	4.8	36.0	49.1	8.2	100.0(706)	
60세 이상	2.4	7.3	35.2	45.1	10.1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	7.5	41.7	42.9	6.8	100.0(400)	108.1***
고등학교	2.4	4.5	31.7	55.0	6.4	100.0(801)	
대학이상	0.3	3.0	22.3	56.9	17.5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4	4.5	29.4	54.5	10.3	100.0(1,496)	11.2*
비취업	1.6	5.5	38.5	45.1	9.3	100.0(292)	
기혼여성	0.3	2.5	25.3	59.6	12.3	100.0(8,213)	
연령							
15-29세	-	4.3	16.3	58.3	21.1	100.0(389)	118.3***
30-39세	0.2	1.6	21.7	62.0	14.4	100.0(2,278)	
40-49세	0.3	2.9	27.7	57.3	11.9	100.0(2,788)	
50-59세	0.4	2.4	26.6	60.1	10.5	100.0(2,355)	
60세 이상	0.8	4.4	29.5	59.2	6.1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9	4.3	31.4	56.5	6.8	100.0(1,467)	255.8***
고등학교	0.2	2.6	27.7	59.4	10.1	100.0(3,732)	
대학이상	0.1	1.5	19.3	61.3	17.8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3	2.2	25.6	59.3	12.6	100.0(4,115)	3.4
비취업	0.3	2.8	25.0	59.8	12.1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 ‘우리 가족은 가족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7.4%,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로, 긍정의견의 전체 비율이 68.2%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 의견 존중의 태도에 찬성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10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⑭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가족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4	4.0	27.4	57.4	10.8	100.0(10,002)	
지역							
동부	0.4	3.8	27.2	57.4	11.1	100.0(8,637)	11.8*
읍·면부	0.3	5.2	28.5	57.0	9.0	100.0(1,366)	
가구원 수							
1명	4.5	12.0	36.4	43.4	3.7	100.0(802)	580.9***
2명	0.0	3.3	26.2	58.8	11.6	100.0(2,236)	
3~4명	0.1	3.3	26.5	58.2	11.9	100.0(5,911)	
5명이상	0.1	3.6	27.5	60.2	8.7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1	11.8	35.4	46.0	3.6	100.0(432)	543.2***
100~200 미만	1.6	6.7	38.0	48.1	5.6	100.0(1,220)	
200~300 미만	0.1	5.3	31.7	55.0	8.0	100.0(1,942)	
300~400 미만	0.2	2.4	26.6	59.1	11.7	100.0(1,980)	
400~500 미만	0.1	3.6	24.7	58.2	13.5	100.0(1,539)	
500 이상	0.1	2.2	20.6	63.1	14.1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2.1	11.2	34.3	46.7	5.6	100.0(403)	342.9***
1~2 미만	1.0	4.7	35.8	52.2	6.4	100.0(2,066)	
2~3 미만	0.2	4.2	28.1	57.1	10.5	100.0(3,132)	
3~4 미만	0.1	3.4	24.2	60.0	12.3	100.0(1,907)	
4 이상	0.2	2.6	20.6	61.7	14.8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 간 상호의견 존중에서 남녀의 격차는 크지 않았으며, 남녀 모두 학력에 따른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 즉 고학력자의 경우 남녀 모두 상호의견 존중의 긍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2-102〉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⑭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가족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3	6.5	30.2	52.7	9.3	100.0(1,789)	
연령							
15-29세	-	-	16.8	54.5	28.7	100.0(22)	-
30-39세	0.6	3.1	19.7	59.8	16.7	100.0(247)	
40-49세	0.8	7.0	32.3	50.3	9.7	100.0(551)	
50-59세	1.9	6.4	31.0	52.8	7.9	100.0(706)	
60세 이상	1.9	9.6	34.6	50.6	3.4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10.9	37.3	45.9	5.1	100.0(400)	120.1***
고등학교	2.3	6.3	31.4	54.9	5.0	100.0(801)	
대학이상	0.3	3.9	23.8	54.2	17.9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4	6.0	28.5	53.8	10.3	100.0(1,496)	26.4***
비취업	0.9	9.1	39.0	47.1	3.9	100.0(292)	
기혼여성	0.2	3.5	26.7	58.4	11.2	100.0(8,213)	
연령							
15-29세	-	5.9	20.8	50.8	22.5	100.0(389)	154.4***
30-39세	0.1	1.9	24.9	58.7	14.3	100.0(2,278)	
40-49세	0.2	3.9	27.3	58.8	9.9	100.0(2,788)	
50-59세	0.4	3.9	27.3	59.8	8.6	100.0(2,355)	
60세 이상	0.8	4.6	35.2	52.4	6.9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7	5.3	34.4	54.3	5.2	100.0(1,467)	293.8***
고등학교	0.2	3.6	28.6	59.1	8.6	100.0(3,732)	
대학이상	0.1	2.4	20.7	59.5	17.3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2	3.4	27.4	57.6	11.3	100.0(4,115)	2.5
비취업	0.2	3.5	26.1	59.1	11.1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하는 전체 비율은 69.7%였다. 세부적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0.5%이었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로써, 고소득층에서 상호 감정존중의 긍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가족 간의 내밀한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2-10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⑮

(단위: %, 명)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5	3.6	26.2	59.2	10.5	100.0(10,002)	
지역							
동부	0.5	3.4	26.0	59.1	10.9	100.0(8,637)	21.1***
읍·면부	0.4	5.0	27.1	59.7	7.7	100.0(1,366)	
가구원 수							
1명	4.8	12.2	35.4	44.6	3.0	100.0(802)	619.6***
2명	0.1	3.3	25.2	59.7	11.7	100.0(2,236)	
3~4명	0.1	2.7	25.6	60.4	11.2	100.0(5,911)	
5명이상	0.2	3.0	24.3	62.7	9.7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4	10.4	33.1	49.1	4.0	100.0(432)	606.2***
100~200 미만	1.6	7.6	36.5	48.5	5.9	100.0(1,220)	
200~300 미만	0.3	5.8	30.5	55.9	7.4	100.0(1,942)	
300~400 미만	0.3	1.9	24.9	62.4	10.5	100.0(1,980)	
400~500 미만	0.1	2.3	23.1	60.8	13.7	100.0(1,539)	
500 이상	0.1	1.4	19.7	65.1	13.8	100.0(2,817)	
가구소득비							
1 미만	2.4	9.3	33.3	48.8	6.2	100.0(403)	357.1***
1~2 미만	1.1	5.8	33.2	53.4	6.6	100.0(2,066)	
2~3 미만	0.2	3.6	27.3	59.4	9.4	100.0(3,132)	
3~4 미만	0.2	2.4	23.0	62.3	12.1	100.0(1,907)	
4 이상	0.3	1.9	19.5	63.8	14.5	100.0(2,42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 간 상호 감정존중의 긍정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큰 격차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분석한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상호 감정 존중의 긍정에도 학력이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12-104〉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⑮

특성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계(수)	χ^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혼남성	1.2	5.9	31.6	52.3	9.0	100.0(1,789)	
연령							
15-29세	-	-	28.7	50.2	21.1	100.0(22)	-
30-39세	1.0	3.0	17.9	58.4	19.6	100.0(247)	
40-49세	0.8	6.7	33.2	49.9	9.5	100.0(551)	
50-59세	1.8	4.7	33.8	53.4	6.3	100.0(706)	
60세 이상	1.6	10.3	35.2	48.9	3.9	100.0(2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9.8	38.6	46.1	4.7	100.0(400)	114.5***
고등학교	2.3	5.2	36.1	50.3	6.1	100.0(801)	
대학이상	0.3	4.1	20.7	59.2	15.8	100.0(588)	
취업여부							
취업	1.4	5.2	30.0	53.5	9.8	100.0(1,496)	22.1***
비취업	0.9	9.1	39.4	46.0	4.6	100.0(292)	
기혼여성	0.3	3.2	25.0	60.7	10.8	100.0(8,213)	
연령							
15-29세	0.1	6.9	16.8	52.9	23.2	100.0(389)	179.5***
30-39세	0.1	2.4	22.0	62.3	13.1	100.0(2,278)	
40-49세	0.2	2.6	25.5	61.8	9.9	100.0(2,788)	
50-59세	0.5	3.7	27.1	60.1	8.6	100.0(2,355)	
60세 이상	1.1	4.8	33.4	55.9	4.7	100.0(4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5.1	32.8	56.3	4.9	100.0(1,467)	315.6***
고등학교	0.3	3.4	27.1	60.9	8.3	100.0(3,732)	
대학이상	0.2	1.9	18.5	62.7	16.8	100.0(3,015)	
취업여부							
취업	0.4	3.1	24.6	61.1	10.8	100.0(4,115)	1.1
비취업	0.3	3.2	25.3	60.4	10.8	100.0(4,099)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4절 시사점

현대 사회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급격히 변해왔다. 이런 사회의 변화는 가족의 형태와 가족생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유인해왔다. 이런 변화 속에서 현재의 부부역할과 결혼생활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사활동의 분담에서 여전히 부인의 과중한 역할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사활동 전반에 걸쳐 약 70% 수준의 부인집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 성역할의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사활동 중에서 식사요리 준비, 설거지, 세탁, 집안청소 등의 역할도 여전히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다만 시장보기의 경우 남성의 참여가 다른 가사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 집중성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의 참여가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여성이 부엌일과 대부분의 가사일을 전담하고, 시장보기와 같은 일부 활동에서만 남성의 참여가 다소 많은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거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저연령층 부부의 경우 남편의 참여가 고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많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성역할 인식에 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성역할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사활동 뿐만 자녀양육활동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성은 동일하게 관찰된다. 즉, 자녀양육활동의 전반에 대해서 여성 집중성은 70~80% 수준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양육활동 중에서 자녀와 놀아주기의 경우만 여성 중심 비율이 60%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성역할의 관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의 학교 공부를 돌보거나 자녀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일은 여전히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만 자녀와 놀

아주기 활동에서만 남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다소 많이 나타날 뿐이다. 가사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활동에서도 일부 역할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여성의 역할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생활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방법에서 부인 중심의 결정권이 가장 크게 행사되는 항목은 일상생활비 지출이었다. 반면 부부간의 공동 참여가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주택매매 및 이사 결정과 투자 및 재산 증식에 관한 결정이었다. 이 두 항목은 가구경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여성의 권한이 과거에 비해서 강화된 측면을 볼 수 있었다. 자녀양육 및 교육 결정과 기타 가정일의 결정 항목에서는 부부 공동결정 형태와 부인 중심 결정형태가 절반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요컨대 부부간 의사결정에서 가구 경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에 관한 사항은 부인의 참여가 많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역할 특성에 대한 태도에서 기혼여성의 인식 변화도 관찰된다. 즉, 전통적으로 부부의 성역할을 명확히 특성화던 관념에 대해서 기혼여성의 반대정도가 비교적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본다는 관념, 그리고 불경기에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 해고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한 반대 입장은 비교적 분명히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들이 지금보다 가사를 더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이로써 기혼여성들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부의 역할과 결혼생활에서 양성평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부부의 가사활동과 자녀양육활동에서 권력관계는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가부장주의의 전통이 강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서 전통과 현대적 변화의 불일치

가 발생하고 가족 갈등의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양성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수준이 개선되면서, 가족생활과 같은 사적 영역의 양성평등 수준과 격차가 발생하고, 공사영역의 양성평등 수준의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저출산 경향이 관찰된다는 것이다(McDonald, 2000). 따라서 양성불평등에 따른 가족 갈등을 방지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 근로시간의 축소, 남성의 육아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경우, 2008년 도입되어 현재는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인증에 참여하고 있어 전 기업으로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인증에 통과하기 위한 기업 내 여건조성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고,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증의 단계를 다양화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낮은 수준의 인증단계를 도입하여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중심의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함으로써 지방정부를 통한 제도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실질적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남성의 가사참여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연간 2,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10). 장시간 근로 관행은 남성의 가사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5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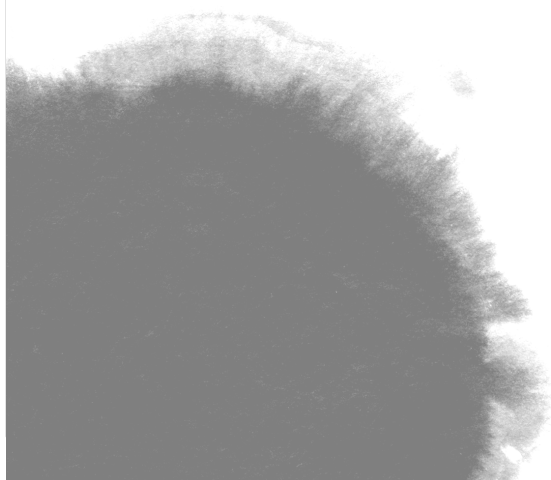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주 40시간을 지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이나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남녀 특성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40%이며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여건에서 남성들이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을 포기하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극히 일부의 좋은 일자리 맞벌이 가구만 활용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성의 통상임금을 80%이상 지급하는 남성육아휴직을 단기간 동안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1~3개월 정도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통상임금의 80%이상을 보장한다면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홍보사업은 어린이 학교교육부터 고등교육 및 사회교육과 기업대상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및 사회에서 인구교육의 다각화가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예산의 규모나 활동 내용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향후에 각 단위별 양성평등 교육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3장

동거 및 비동거 가족 지원



제13장 동거 및 비동거 가족 지원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우리나라의 세대간 지원은 대체로 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경제적 상향식 이전이 주를 이루어 왔다(강유경·박승희, 2011). 이는 부모가 성인 자녀를 지원하는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부모 봉양’이 문화의 일부처럼 여겨질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실시한 ‘한국인이 생각하는 2030년 가족의 미래⁵⁰⁾’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25.9%가 2030년에는 복지제도가 발달해 성인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부모자녀 관계로 바뀌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여, 한국인 4명 중 1명은 미래 가족의 모습으로 ‘부양부담 없는 부모자녀 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성인자녀와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는 과거의 일방적 ‘부양의존 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6년간 사회조사 결과⁵¹⁾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님을 부

50)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실시된 조사로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 연구(2011~2014)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은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1500명이었다.

51) 통계청의 사회조사 가족부분에서 가족이 부모님을 부양해야한다고 보는 견해는 2006년 63.4%에서 2008년에는 40.7%로, 2010년에는 36%로 감소하였고, 가족과 국가가 함께

양해야한다고 보는 견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해 온 반면, 가족과 국가가 함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크게 증가했다. 부모 생활비의 주 제공자로는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와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제공받는 경우로 나뉘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생활비 제공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보다는 가구주 본인의 부모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2011년 사회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의 부모와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독립이 불가능해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불가능해서’, ‘손자녀 양육 등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서’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부모의 독립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은 점차 감소한 반면, ‘자녀의 독립이 불가능해서’와 ‘자녀의 가사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었다. 또한 손자녀의 양육 때문에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부모도 늘고 있는데, 비동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전체의 10.2%에 그쳤으나, 동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30.7%로 나타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성인자녀 독립시기의 지연에 따라 부모-자녀 세대 간 지원의 유형 및 정도와 지원 방향이 과거와는 달리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대 간 지원을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성인자녀와 부모 간의 지원을 동거 여부, 접촉의 방법 및 빈도, 지원의 유형(금전, 비금전, 서비스 등) 및 수준, 정기적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남편의 부모와 부인의 부모 모두를 조사 및 분석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성평등적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부양해야한다고 보는 견해는 2006년 26.4%에서 2008년 43.6%, 2010년 47.4%로 증가하였다.

2. 선행연구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로부터 당연히 지원을 받으나 성장한 이후에는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비동거시라도 부모의 경제적·도구적 필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부양관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가족지원 또는 세대간 지원에 관한 국내연구의 대다수가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왔다.

성인자녀의 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부양동기 및 부모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즉 부양하는 대상이 자기 부모인지 배우자의 부모인지에 따라 부양동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감 동기가,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친밀감 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김운정·최유호, 2007). 또한 기혼 성인자녀와 그들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라 부모부양에 차이가 있었는데, 정서적 결속도가 높은 집단에서 정서적, 서비스적, 경제적 부양행동이 높았고, 특히 정서적 부양행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김명자·손서희, 2005).

배우자간 교섭력으로 볼 수 있는 여성의 경제력과 교육수준도 양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정도를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원아, 2010). 가구 총소득 중 아내의 기여율이 커질수록 남편의 부모에게만 지원하는 비율은 낮아진 동시에 아내의 부모에게만 지원하는 비율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교육수준도 시간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최근까지 한국가족의 세대 간 지원교환과 관련된 연구들은 세대 간 지원을 양방향으로 보지 않고 노부모를 세대간 지원의 수혜자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자녀의 독립이 늦어짐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도 늘어가고 있다.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세대 간 지원의 하향이전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노인이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질수록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유경·박승희, 2011).

가족 내의 세대 간 지원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세대 간 지원의 양방향성, 즉 호혜성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2006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에 의하면, 세대 간 접촉에 있어서는 아내부모에 비해 남편부모와 보다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었으며, 세대 간 지원교환에서 부모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모두에서 아내부모보다 남편부모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수혜는 남편부모나 아내부모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도구적 지원 수혜는 아내부모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김상욱, 2010).

지원의 종류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지원은 정서적 지원, 신체적 지원, 재정적 지원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지원은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지원 순으로 많았다. 건강, 경제력, 자녀 수 등과 같은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접촉빈도나 동거여부 등과 같은 관계적인 측면도 세대간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정병은, 2007).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 보고서⁵²⁾는 자녀와의 동

52) 고령화연구패널은 전국단위 규모로 설계된 패널조사로 45세 이상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것이 고령화 연구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이며 제3장 가족부분에 가족 간 교류와 지원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나있다. 금전 및 비금전 지원의 유형은 본 조사의 유형구분과 동일하여 결과 비교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여부와 세대 간 접촉과 지원에 관한 보다 상세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한해동안 동거자녀로부터 부모가 금전 지원을 받는 비율은 21.2%였고 동거자녀에게 금전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45.0%로 자녀로부터 금전 지원 수혜율보다 2배가량 높았다.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은 ‘일년에 서너번’이 가장 많았고, 전화, 편지, email 등을 통한 연락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이 가장 많았다. 2007년 한해동안 부모가 비동거자녀로부터 금전 또는 비금전 지원을 받은 경우는 62.3%이었고, 전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

지원유형은 비정기적 금전 지원, 정기적 비금전 지원, 정기적 금전 지원의 순으로 많았으며, 정기적 비금전 지원의 유형 중 외식 및 음식물 지원이 가장 많았다. 반대로 2007년 한해동안 부모가 비동거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한 비율은 21.0%였고, 제공하지 않은 비율은 79.0%로 나타나 부모의 수혜율이 제공률보다 훨씬 높았다. 부모가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한 지원은 비금전 지원, 비정기적 금전 지원, 정기적 금전 지원 순이었고, 대체로 자녀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부모가 제공한 비금전 지원도 외식 및 음식물 지원이 가장 많았다.

3. 정책동향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조에 의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혜택의 대상이 된다.

제2절 비동거부모와의 접촉 및 상호 지원

1. 비동거부모와의 접촉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대면접촉’, 즉 ‘만남’의 빈도를 파악하였다. 빈도는 9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②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 한달에 두번 정도, ⑤ 한달에 한번 정도, ⑥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 일년에 서너번 정도, ⑧ 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 거의 볼 수 없음 또는 만나지 않음 등이다. 응답자가 남편인 경우와 부인인 경우가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남편의 부모와 부인의 부모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만남 빈도는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가 2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달에 한번 정도’ 20.0%, ‘한달에 두번 정도’ 18.2%의 순이었다.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만남 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 2인 이상의 가구,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의 가구, 2 미만 또는 3 이상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가구는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의 가구, 2~3 미만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가구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는 ‘한달에 두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특히, 1주일에 1번 이상(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모두 합한 것)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만나는 가구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29.8%),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21.9%), 욕구소득비 4 이상의 가구(22.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3-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만남 빈도

(단위: %, 명)

특성	①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②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한달에 두번 정도 ⑤한달에 한번 정도 ⑥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일년에 서너번 정도 ⑧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4.4	5.0	11.4	18.2	20.0	20.6	13.4	5.5	1.5	100.0(5,566)	
지역											
동부	3.8	4.8	10.9	18.4	19.8	21.4	14.0	5.4	1.5	100.0(4,888)	66.2
읍·면·부	8.3	6.5	15.0	16.8	21.5	14.5	9.3	6.3	1.8	100.0(678)	***
가구원 수											
1인	5.1	3.7	6.6	21.3	12.5	10.3	19.1	16.9	4.4	100.0(136)	91.5
2인	4.1	5.2	11.2	19.4	20.2	20.9	11.6	4.8	2.6	100.0(957)	
3~4인	4.5	5.0	11.4	18.2	20.1	20.4	14.1	5.3	1.1	100.0(3,980)	
5인 이상	3.5	5.1	14.1	15.5	20.8	23.8	10.0	5.5	1.8	100.0(49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9	4.3	1.4	8.7	11.6	21.7	17.4	21.7	10.1	100.0(69)	262.1
100~200 미만	5.3	7.1	8.6	16.6	13.9	16.9	14.2	12.4	5.0	100.0(338)	
200~300 미만	4.5	4.9	11.6	17.0	17.8	17.6	15.5	8.3	2.8	100.0(1,050)	
300~400 미만	3.8	5.9	11.0	19.5	21.4	18.6	14.1	5.0	0.7	100.0(1,248)	
400~500 미만	3.6	5.4	11.4	19.2	21.1	23.2	11.7	3.9	0.5	100.0(980)	
500 이상	5.1	4.2	12.6	17.7	21.1	23.0	12.4	3.2	0.9	100.0(1,852)	
교육소득비											
1 미만	3.0	15.2	3.0	9.1	13.1	18.2	14.1	16.2	8.1	100.0(99)	196.4
1~2 미만	4.2	5.0	11.2	17.0	16.5	18.7	14.3	10.2	3.0	100.0(938)	
2~3 미만	3.9	5.7	10.6	18.2	20.2	20.0	14.7	5.5	1.3	100.0(1,815)	
3~4 미만	4.1	4.0	12.0	19.0	21.4	21.9	13.1	3.5	1.0	100.0(1,138)	
4 이상	5.3	4.5	12.9	18.4	21.2	21.8	11.7	3.5	0.7	100.0(1,54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만남 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구주의 성에 관계없이, 50세 이상 가구주, 유배우 및 사별상태의 가구주, 고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가구주,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40대 가구주, 이혼·별거 상태 가구주,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가

구주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40세 미만의 가구주는 ‘한달에 두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특히, 1주일에 1번 이상(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모두 합한 것) 비동거 남편부모와 만나는 경우는 남성가구주, 가구주의 연령이 적을수록, 유배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중인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3-2〉 가구주 특성별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만남 빈도

(단위: %, 명)

특성	①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②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한달에 두번 정도 ⑤한달에 한번 정도 ⑥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일년에 서너번 정도 ⑧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											
남자	4.4	5.1	11.6	18.4	20.3	20.5	13.4	4.9	1.2	100.0(5,450)	296.1 ***
여자	2.6	-	2.6	10.4	5.2	21.7	12.2	31.3	13.9	100.0(115)	
연령											
15~29세	4.0	6.5	17.0	29.0	18.0	14.0	6.0	5.5	-	100.0(200)	269.6 ***
30~39세	5.5	6.6	15.3	22.1	20.0	17.4	9.0	3.0	1.0	100.0(1,723)	
40~49세	3.9	4.2	10.2	17.0	21.4	20.9	15.6	5.1	1.6	100.0(2,217)	
50~59세	3.9	4.5	8.2	13.5	17.6	24.6	17.3	8.3	2.2	100.0(1,233)	
60세 이상	2.6	2.6	5.7	17.6	20.2	25.9	10.9	13.0	1.6	100.0(193)	
혼인상태											
유배우	4.4	5.0	11.7	18.4	20.3	20.8	13.4	4.8	1.2	100.0(5,283)	215.5 ***
사별	1.0	2.0	8.9	12.9	7.9	20.8	10.9	30.7	5.0	100.0(101)	
이혼·별거	6.0	7.7	5.5	15.8	19.1	13.1	15.3	9.8	7.7	100.0(1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	3.4	7.0	14.8	16.3	18.1	15.3	16.8	4.7	100.0(386)	224.1 ***
고등학교	4.4	5.4	10.6	16.0	17.5	21.9	15.3	6.7	2.0	100.0(2,069)	
대학 이상	4.4	5.0	12.5	20.1	22.1	19.9	11.9	3.3	0.7	100.0(3,108)	
취업여부											
취업	4.5	5.2	11.6	18.6	20.2	20.4	13.2	5.1	1.4	100.0(5,282)	69.6 ***
비취업	2.1	2.8	8.5	11.3	16.5	23.9	17.6	13.4	3.9	100.0(28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만남 빈도는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달에 한번 정도’ 17.8%, ‘일년에 서너번 정도’ 15.1%의 순이었다. 이는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만남 빈도 보다는 다소 적은 것이다.

〈표 13-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만남 빈도

(단위: %, 명)

특성	①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②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한달에 두번 정도 ⑤한달에 한번 정도 ⑥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일년에 서너번 정도 ⑧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5.6	4.9	9.5	15.0	17.8	19.6	15.1	9.5	2.9	100.0(6,646)	
지역											
동부	5.8	4.8	9.4	15.3	17.9	19.8	14.9	9.3	2.7	100.0(5,782)	23.0 **
읍·면부	4.6	5.7	10.3	12.6	16.8	17.9	16.7	10.6	4.7	100.0(864)	
가구원 수											
1인	9.0	2.7	13.5	14.0	10.8	12.6	12.2	13.5	11.7	100.0(222)	139.5 ***
2인	3.6	5.3	11.3	13.8	18.0	18.7	14.5	11.2	3.6	100.0(1,211)	
3~4인	6.3	5.3	8.6	15.2	18.0	20.0	15.7	8.6	2.3	100.0(4,459)	
5인 이상	4.2	2.9	10.9	16.0	18.3	20.3	13.5	10.6	3.2	100.0(7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4	8.8	4.8	13.6	12.0	8.0	14.4	17.6	14.4	100.0(125)	369.5 ***
100~200 미만	7.1	5.2	8.6	13.4	12.1	14.1	15.8	16.2	7.6	100.0(538)	
200~300 미만	5.1	3.6	10.8	11.8	17.1	16.1	16.4	13.9	5.1	100.0(1,235)	
300~400 미만	5.4	6.6	11.2	15.1	18.1	19.1	15.0	8.1	1.6	100.0(1,415)	
400~500 미만	4.2	5.4	9.1	15.7	18.9	20.6	13.8	9.0	3.3	100.0(1,152)	
500 이상	6.0	4.1	8.5	16.8	19.3	23.6	15.2	6.1	0.5	100.0(2,129)	
가구소득비											
1 미만	5.3	7.6	7.6	12.4	11.8	9.4	17.6	18.8	9.4	100.0(170)	231.9 ***
1~2 미만	4.8	4.4	10.5	12.5	15.3	16.7	15.9	14.3	5.6	100.0(1,219)	
2~3 미만	6.1	5.6	9.0	14.4	18.0	17.9	16.0	9.8	3.2	100.0(2,144)	
3~4 미만	4.3	4.7	9.7	14.9	18.8	23.2	14.6	7.4	2.4	100.0(1,300)	
4 이상	6.0	4.4	9.6	17.7	19.3	22.1	13.8	6.5	0.6	100.0(1,76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만남 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구원 수 2인 이상의 가구,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구, 1~2 미만 또는 3 이상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가구는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는 ‘한달에 두번 정도’가 가장 많았고,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과 욕구소득비 2~3 미만인 가구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이와는 달리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와 욕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가구는 ‘일년에 한두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특히, 1주일에 1번 이상(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모두 합한 것) 비동거 부인부모와 만나는 가구는 1인 가구, 300~4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23.2%), 욕구소득비 2~3 미만의 가구(20.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만남 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성가구주(20.1%), 40~59세 가구주, 유배우 및 사별상태의 가구주,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가구주, 취업 가구자는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20세 이하 가구주는 ‘한달에 두번 정도’가 가장 많았고(26.2%), 30대 가구주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여성가구주(17.1%), 60세 이상 연령층(22.1%), 이혼·별거상태의 가구주(15.0%), 비취업 가구주(23.0%)는 ‘일년에 서너번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가구주는 ‘일년에 한두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표 13-4〉 가구주 특성별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만남 빈도

(단위: %, 명)

특성	①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②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한달에 두번 정도 ⑤한달에 한번 정도 ⑥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일년에 서너번 정도 ⑧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											
남자	5.5	4.9	9.4	15.1	18.2	20.1	14.9	9.3	2.6	100.0(6,084)	61.6
여자	7.4	5.0	10.7	14.2	12.6	14.6	17.1	11.4	7.1	100.0(563)	***
연령											
15~29세	4.3	13.6	14.1	26.2	15.0	12.1	8.7	3.9	1.9	100.0(206)	477.0
30~39세	9.7	6.7	13.7	17.5	20.1	16.7	9.9	4.5	1.3	100.0(1,830)	
40~49세	4.3	4.6	8.3	13.7	18.7	21.0	14.4	10.7	4.1	100.0(2,630)	
50~59세	4.1	2.9	7.2	13.3	14.3	21.5	21.3	12.4	2.9	100.0(1,673)	
60세 이상	1.9	2.9	5.2	12.3	16.2	18.8	22.1	16.9	3.6	100.0(308)	
혼인상태											
유배우	5.5	4.9	9.4	15.1	18.3	20.2	15.1	9.3	2.1	100.0(6,071)	241.0
사별	3.9	1.5	4.4	13.3	16.3	18.7	16.3	16.3	9.4	100.0(203)	***
이혼·별거	9.1	7.0	13.7	14.2	10.2	9.7	15.0	8.3	12.9	100.0(37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7	3.0	5.8	11.6	10.2	14.4	21.6	21.6	8.2	100.0(570)	337.3
고등학교	5.0	4.8	9.1	15.6	15.7	19.1	15.7	11.2	4.0	100.0(2,618)	***
대학 이상	6.4	5.4	10.5	15.1	20.6	20.8	13.6	6.2	1.3	100.0(3,459)	
취업여부											
취업	5.8	5.1	9.7	15.2	17.9	19.7	14.6	9.1	2.8	100.0(6,240)	53.8
비취업	3.4	3.2	6.4	12.2	14.9	17.1	23.0	14.9	4.9	100.0(409)	***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의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비대면 접촉(전화, 편지, 이메일 등) 빈도는 전술한 대면에 의한 접촉 빈도보다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한달에 두번 정도’ 19.5%,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18.3% 등의 순이었다.

이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특성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 가장 많았으며, 다만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와 욕구소득비 1 미만의 가구는 ‘한달에 두번 정도’가 가장 많았고, 1인 가구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특성은 대면 접촉 빈도와 연계하여 비대면 접촉 빈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13-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비대면 접촉 빈도

(단위: %, 명)

특성	①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②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한달에 두번 정도 ⑤한달에 한번 정도 ⑥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일년에 서너번 정도 ⑧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계(수)	χ ²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8.5	18.3	27.3	19.5	15.5	5.0	2.2	1.7	1.9	100.0(5,565)	
지역											
동부	8.0	18.8	27.3	19.5	15.7	5.1	2.2	1.6	1.8	100.0(4,887)	24.0
읍·면·부	12.2	14.7	27.3	19.5	14.3	4.6	2.4	2.5	2.5	100.0(678)	**
가구원 수											
1인	10.9	8.7	15.2	9.4	18.1	9.4	7.2	14.5	6.5	100.0(138)	233.6 ***
2인	9.1	15.7	26.9	19.1	15.2	6.0	3.0	1.7	3.3	100.0(956)	
3~4인	8.2	19.2	27.5	20.1	15.6	4.6	2.0	1.3	1.4	100.0(3,980)	
5인 이상	8.9	18.9	29.7	18.1	15.4	4.9	0.8	1.4	1.8	100.0(49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0.0	10.0	14.3	18.6	15.7	11.4	7.1	8.6	4.3	100.0(70)	249.5 ***
100~200 미만	9.8	12.5	18.7	19.6	17.5	6.8	3.0	6.2	5.9	100.0(337)	
200~300 미만	6.4	17.7	26.0	17.9	16.1	6.3	3.9	1.9	3.7	100.0(1,048)	
300~400 미만	7.9	17.2	28.6	21.0	15.9	5.9	1.4	1.5	0.6	100.0(1,248)	
400~500 미만	7.4	19.2	26.9	21.3	17.1	4.4	1.7	0.8	1.0	100.0(980)	
500 이상	10.4	20.4	29.5	18.0	13.9	3.5	1.8	1.0	1.4	100.0(1,850)	
욕구소득비											
1 미만	11.1	14.1	20.2	22.2	9.1	9.1	5.1	5.1	4.0	100.0(99)	129.3 ***
1~2 미만	8.4	16.9	23.9	18.7	18.4	5.2	2.6	2.2	3.7	100.0(937)	
2~3 미만	5.9	17.7	27.9	21.6	15.4	6.0	2.5	1.3	1.8	100.0(1,813)	
3~4 미만	9.4	17.4	28.6	17.3	17.6	5.1	1.5	2.2	0.9	100.0(1,136)	
4 이상	10.8	20.9	28.4	18.6	13.0	3.4	2.1	1.2	1.6	100.0(1,54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비대면 접촉 빈도를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부분의 특성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다만 비취업 가구주는 ‘한달에 두번 정도’가 가장 많았고, 여성 가구주, 사별상태의 가구주,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가구주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아 전체 평균수준보다 접촉 빈도가 적었다.

〈표 13-6〉 가구주 특성별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비대면접촉 빈도

(단위: %, 명)

특성	① 거의 매일 일주일에 4회 이상 ②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 한달에 두번 정도 ⑤ 한달에 한번 정도 ⑥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 일년에 세번 정도 ⑧ 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 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											
남자	8.6	18.6	27.7	19.5	15.2	4.8	2.2	1.5	1.7	100.0(5,449)	139.4
여자	2.6	5.2	7.8	18.1	31.0	13.8	3.4	8.6	9.5	100.0(116)	***
연령											
15~29세	12.9	23.9	36.3	10.0	11.4	1.0	2.0	2.5	-	100.0(201)	341.6 ***
30~39세	10.8	24.5	29.1	20.0	10.5	2.7	0.9	0.6	0.9	100.0(1,722)	
40~49세	7.0	17.3	27.9	20.2	16.5	5.2	2.4	1.9	1.5	100.0(2,219)	
50~59세	7.5	12.5	21.9	19.6	20.1	8.4	3.6	2.6	3.9	100.0(1,231)	
60세 이상	6.7	6.7	28.5	17.1	24.9	6.2	3.1	1.6	5.2	100.0(193)	
혼인상태											
유배우	8.5	18.8	28.0	19.9	15.2	4.8	2.0	1.3	1.6	100.0(5,281)	-
사별	3.0	9.0	10.0	15.0	34.0	12.0	5.0	5.0	7.0	100.0(100)	
이혼·별거	12.0	9.8	14.8	11.5	14.2	9.3	8.2	12.0	8.2	100.0(1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	10.1	18.6	18.3	20.7	11.9	4.1	6.7	5.9	100.0(387)	303.6 ***
고등학교	7.5	16.9	23.0	21.5	18.0	5.9	2.9	1.9	2.4	100.0(2,068)	
대학 이상	9.7	20.3	31.3	18.3	13.3	3.6	1.5	0.9	1.1	100.0(3,107)	
취업여부											
취업	8.5	18.7	27.7	19.4	15.3	4.9	1.9	1.7	1.8	100.0(5,282)	73.4 ***
비취업	7.4	11.0	19.9	21.3	19.5	6.4	7.8	2.1	4.6	100.0(282)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의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비대면 접촉(전화, 편지, 이메일 등) 빈도는 전술한 대면에 의한 접촉 빈도보다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2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20.8%, ‘한달에 두번 정도’ 16.4% 등의 순이었다.

〈표 13-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비대면접촉 빈도

(단위: %, 명)

특성	①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②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한달에 두번 정도 ⑤한달에 한번 정도 ⑥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일년에 세번 정도 ⑧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15.6	20.8	24.2	16.4	13.8	4.0	2.1	1.5	1.6	100.0(6,647)	
지역											
동부	15.7	21.0	24.3	16.2	13.8	4.0	2.1	1.5	1.4	100.0(5,781)	14.3#
읍·면·부	14.7	19.2	23.2	17.7	14.1	4.2	2.2	2.0	2.9	100.0(866)	
가구원 수											
1인	19.4	20.3	18.5	9.9	9.5	5.9	2.7	5.0	9.0	100.0(222)	166.6 ***
2인	14.5	17.7	21.5	19.2	15.8	4.4	2.1	2.6	2.1	100.0(1,212)	
3~4인	15.8	21.2	25.1	16.2	13.3	3.6	2.2	1.2	1.3	100.0(4,458)	
5인 이상	14.3	23.1	24.6	15.4	15.0	5.2	1.2	0.4	0.8	100.0(7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2.0	22.4	15.2	15.2	8.6	4.0	4.8	10.4	7.2	100.0(125)	267.0 ***
100~200 미만	16.3	14.5	20.6	15.2	16.3	7.1	3.2	2.8	4.1	100.0(539)	
200~300 미만	14.6	20.0	22.0	16.5	14.4	4.6	3.0	2.5	2.4	100.0(1,233)	
300~400 미만	16.1	21.8	22.5	18.0	13.1	3.9	2.6	1.1	0.9	100.0(1,415)	
400~500 미만	13.4	18.6	25.7	17.6	17.0	4.2	1.0	1.0	1.6	100.0(1,153)	
500 이상	16.9	22.5	27.4	15.4	12.0	2.9	1.4	0.8	0.8	100.0(2,129)	
육구소득비											
1 미만	11.2	20.7	15.4	17.8	14.2	4.7	5.3	5.3	5.3	100.0(169)	136.1 ***
1~2 미만	14.2	20.1	20.8	15.8	15.4	5.7	3.3	2.4	2.2	100.0(1,219)	
2~3 미만	15.9	18.8	25.0	16.9	14.0	4.2	2.1	1.5	1.5	100.0(2,144)	
3~4 미만	12.9	22.1	24.8	17.6	14.0	4.0	1.8	1.2	1.5	100.0(1,299)	
4 이상	18.3	21.7	26.2	15.5	12.5	2.7	1.2	0.9	1.0	100.0(1,76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이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특성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다만 1인 가구,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 육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가구는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가 가장 많아 전체 평균보다 더 자주 비대면 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면 접촉인 직접 만남의 빈도와 연계하여 비대면 접촉 빈도가 이루어지는데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8〉 가구주 특성별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비대면접촉 빈도

(단위: %, 명)

특성	① 거의 매일 일주일에 4회 이상 ②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 한달에 두번 정도 ⑤ 한달에 한번 정도 ⑥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 일년에 서너번 정도 ⑧ 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 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											
남자	15.4	21.0	24.6	16.4	13.9	3.8	2.0	1.3	1.5	100.0(6,084)	39.2
여자	17.8	18.5	19.5	16.5	12.4	6.0	2.7	3.6	2.8	100.0(563)	***
연령											
15~29세	30.6	23.3	21.8	8.7	11.7	1.0	0.5	0.5	1.9	100.0(206)	412.9 ***
30~39세	23.4	25.1	21.7	14.8	10.6	2.5	0.8	0.6	0.5	100.0(1,830)	
40~49세	12.3	22.1	26.8	15.9	13.6	4.2	2.4	1.1	1.4	100.0(2,630)	
50~59세	11.3	15.0	23.3	20.4	16.1	5.3	2.9	2.9	2.9	100.0(1,671)	
60세 이상	9.4	14.3	22.4	14.3	23.1	6.5	3.9	3.2	2.9	100.0(308)	
혼인상태											
유배우	15.4	21.1	24.7	16.6	13.9	3.8	2.1	1.3	1.1	100.0(6,069)	230.7 ***
사별	9.4	11.9	18.8	12.9	19.8	11.9	2.0	4.0	9.4	100.0(202)	
이혼·별거	21.2	20.7	18.8	15.6	8.1	3.8	2.2	3.2	6.5	100.0(37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12.8	15.8	19.3	18.6	8.1	5.3	5.1	6.5	100.0(571)	343.6 ***
고등학교	14.2	20.2	23.0	16.6	15.7	4.6	2.4	1.8	1.5	100.0(2,617)	
대학 이상	17.7	22.5	26.5	15.8	11.5	2.9	1.3	0.7	1.0	100.0(3,459)	
취업여부											
취업	15.8	20.9	24.6	16.2	13.8	3.9	2.0	1.3	1.5	100.0(6,238)	52.5 ***
비취업	11.8	19.6	17.2	19.9	14.5	6.4	3.4	4.2	3.2	100.0(408)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비대면 접촉 빈도를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많은 특성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다만 이혼·별거상태의 가구주는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이, 39세 이하 가구주는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가 가장 많아 전체 평균보다 많은 비대면 접촉 빈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가구주와 비취업 가구주는 ‘한달에 두번 정도’가, 60세 이상 가구주와 사별상태의 가구주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아 전체 평균보다 적은 비대면 접촉 빈도를 보였다.

2.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지원

15~64세 기혼가구가 생존하고 계시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파악하였다. 특히, 금전적 지원은 정기적 금전지원과 비정기적 금전지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정기적 금전지원은 월평균 금액으로, 비정기적 금전지원은 조사당시 최근 1년간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전체 정보는 남편부모와 부인부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1년간 비동거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부모 30.9%, 부인부모 20.2%이었다. 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의 월평균 제공금액은 남편부모 8만 2천원, 부인부모 4만 5천원이었다. 따라서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비율과 금액은 큰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가구특성별 제공률 및 제공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남편부모에게의 제공률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1인 가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200~300만원 미만 제외),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높았다. 정기적 금전 지원의 평균 금액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1인 가구, 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100~200만원 미만 제외),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많았다. 이어서 부인부모에게의 제공률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3~4인 가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높았다. 정기적 금전 지원의 평균 금액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1인 가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1 미만 제외) 많았다.

〈표 13-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에게				부인부모에게			
	(분석대상)	제공률	월평균 제공금액 ¹⁾	F(T)	(분석대상)	제공률	월평균 제공금액 ²⁾	F(T)
전체	(5,536)	30.9	8.2		(6,614)	20.2	4.5	
지역								
동부	(4,856)	31.3	8.4	(2.0)	(5,753)	20.9	4.8	(5.1)
읍·면부	(680)	28.2	6.7	***	(861)	15.8	2.8	***
가구원 수								
1인	(139)	33.1	13.1	4.8**	(224)	15.2	7.0	3.0*
2인	(952)	29.4	8.1		(1,209)	20.0	4.1	
3~4인	(3,951)	31.9	8.3		(4,433)	20.6	4.5	
5인 이상	(490)	24.9	6.1		(753)	19.9	4.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9)	11.6	1.9	72.0 ***	(124)	7.3	1.0	61.0 ***
100~200 미만	(337)	22.6	5.8		(537)	8.8	1.1	
200~300 미만	(1,034)	15.8	2.5		(1,221)	10.3	1.7	
300~400 미만	(1,244)	26.7	5.0		(1,412)	16.1	3.1	
400~500 미만	(978)	28.8	6.9		(1,152)	21.8	3.4	
500 이상	(1,839)	44.9	14.6		(2,121)	30.9	7.9	
욕구소득비								
1 미만	(98)	14.3	2.3	98.3 ***	(169)	7.7	1.5	100.3 ***
1~2 미만	(924)	16.6	2.8		(1,205)	10.3	1.4	
2~3 미만	(1,812)	24.8	4.5		(2,143)	14.9	2.3	
3~4 미만	(1,133)	32.9	8.8		(1,297)	22.0	4.0	
4 이상	(1,536)	45.6	15.5		(1,755)	32.8	9.0	

주: 1) 남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 특성별 제공률 및 제공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체적으로 남편부모에게 정기적 금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은 앞에서도 밝혀졌다. 그렇지만 부인부모에게 더 많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만이였다.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에 상관없이 남성가구주, 40대 연령층 가구주, 유배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주, 취업중인 가구주가 양가 부모에게 정기적 금전의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기적 금전 지원의 평균 금액은 남성, 30~50대, 유배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중인 가구주가 많았다.

〈표 13-10〉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에게				부인부모에게			
	(분석대상)	제공률	월평균 제공금액 ¹⁾	F(T)	(분석대상)	제공률	월평균 제공금액 ²⁾	F(T)
성								
남자	(5,418)	31.2	8.3	(10.1)	(6,053)	20.9	4.6	(1.4)
여자	(117)	18.8	2.3	***	(563)	13.0	3.8	
연령								
15~29세	(187)	8.6	2.7	7.0 ***	(194)	9.3	2.0	4.3**
30~39세	(1,714)	24.5	7.0		(1,819)	17.3	4.8	
40~49세	(2,210)	35.5	8.9		(2,626)	22.7	5.0	
50~59세	(1,232)	35.1	9.6		(1,671)	21.2	3.8	
60세 이상	(192)	29.2	7.3		(307)	18.6	3.5	
혼인상태								
유배우	(5,251)	31.2	8.2	2.2	(6,040)	21.1	4.6	4.9**
사별	(99)	22.2	5.1		(204)	13.7	1.6	
이혼·별거	(182)	25.3	10.1		(372)	9.9	4.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5)	24.9	5.4	37.9 ***	(572)	11.4	1.7	48.3 ***
고등학교	(2,055)	25.4	5.7		(2,602)	16.2	3.1	
대학 이상	(3,090)	35.2	10.2		(3,442)	24.7	6.0	
취업여부								
취업	(5,251)	31.2	8.4	(5.7)	(6,207)	20.5	4.6	(4.1)
비취업	(283)	25.8	4.8	***	(406)	15.0	2.7	***

주: 1) 남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최근 1년간 비동거 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부모 89.5%, 부인부모 85.0%이었다. 따라서 비정기적 금전지원율이 정기적 금전지원율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정기적 금전지원율: 남편부모 30.9%, 부인부모 20.2%). 비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의 1년간 제공금액은 남편부모 72만 3천원, 부인부모 58만 4천원이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정기적 금전지원과 비교하면, 남편부모에게의 제공금액은 적었으나, 부인부모에게의 제공금액은 정기적 금전지원금액 보다 오히려 많음을 알 수 있다(월평균 정기적 금전지원은 남편부모 8만 2천원, 부인부모 4만 5천원).

가구특성별 제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부분의 가구주 특성에서 80% 이상의 높은 비정기적 금전 제공률을 보였다. 그렇지만 일부 특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공률을 보였다. 욕구소득비 2 미만의 가구가 양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 1인 가구와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부인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특성별 제공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가구(73만 4천원), 가구원 수 3~4인 가구(73만 6천원), 가구소득과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남편부모에게 제공하는 연평균 금액이 컸다. 이러한 경향은 부인부모에게 제공하는 금액에서도 유사하였는데, 동부지역 거주가구(58만 7천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과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부인부모에게 제공하는 연평균 금액이 컸다.

〈표 13-1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에게				부인부모에게			
	(분석대상)	제공률	연평균 제공금액 ¹⁾	F(T)	(분석대상)	제공률	연평균 제공금액 ²⁾	F(T)
전체	(7,702)	89.5	72.3		(6,617)	85.0	58.4	
지역								
동부	(6,705)	89.5	73.4	(2.8)	(5,754)	84.8	58.7	(.8)
읍·면부	(997)	89.8	64.6	**	(863)	86.4	56.8	
가구원 수								
1인	(329)	89.1	54.2	2.1 [#]	(224)	71.4	38.4	7.9 ***
2인	(1,449)	89.0	70.1		(1,208)	83.2	57.5	
3~4인	(5,041)	89.0	73.6		(4,434)	85.7	59.3	
5인 이상	(886)	93.2	70.8		(753)	88.2	60.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64)	80.5	30.5	72.2 ***	(123)	52.0	22.8	112.3 ***
100~200 미만	(675)	87.1	36.6		(541)	73.0	28.7	
200~300 미만	(1,459)	89.1	47.9		(1,221)	83.1	44.3	
300~400 미만	(1,607)	89.9	59.5		(1,410)	87.0	50.2	
400~500 미만	(1,297)	90.3	71.7		(1,150)	87.0	58.2	
500 이상	(2,444)	90.4	103.6		(2,118)	89.2	82.1	
육구소득비								
1 미만	(97)	61.9	29.1	76.1 ***	(168)	58.9	23.1	146.3 ***
1~2 미만	(921)	79.4	44.2		(1,205)	78.1	35.5	
2~3 미만	(1,812)	87.9	59.9		(2,142)	87.6	50.7	
3~4 미만	(1,136)	87.3	77.6		(1,297)	85.1	61.6	
4 이상	(1,536)	86.3	103.3		(1,752)	89.7	85.1	

주: 1) 남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 특성별 제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 부모에게의 제공률은 남성가구주(86.1%), 60대 연령층 가구주(82.6%), 유배우 가구주(86.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중인 가구주(86.0%)가 높았다. 부인부모에게의 제공률도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남성가구주(86.3%), 30대 연령층 가구주(88.0%), 유배우 가구주(86.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중인 가구주(85.8%)가 높았다.

가구주 특성별 제공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부모에게의 제공금액은 남성가구주(73만 2천원), 40대 연령층(79만원), 유배우 가구주(74만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구주(73만 6천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부인부모에게의 제공금액은 남성가구주(60만 2천원), 30대 연령층(62만 6천원), 유배우 가구주(60만 7천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구주(59만 8천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3-12〉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에게				부인부모에게			
	(분석대상)	제공률	연평균 제공금액 ¹⁾	F(T)	(분석대상)	제공률	연평균 제공금액 ²⁾	F(T)
성								
남자	(5,421)	86.1	73.2	(6.7)	(6,055)	86.3	60.2	(9.0)
여자	(115)	51.3	32.3	***	(563)	71.2	39.6	***
연령								
15~29세	(187)	86.4	56.1	8.0 ***	(194)	84.5	57.4	4.9 **
30~39세	(1,715)	89.0	73.3		(1,819)	88.0	62.6	
40~49세	(2,216)	89.5	79.0		(2,624)	84.1	59.2	
50~59세	(1,229)	89.7	63.9		(1,670)	83.7	54.3	
60세 이상	(191)	92.6	54.7		(307)	82.7	50.4	
혼인상태								
유배우	(5,252)	86.5	74.0	18.1 ***	(6,042)	86.7	60.7	46.5 ***
사별	(98)	50.0	27.3		(203)	77.0	26.2	
이혼·별거	(183)	73.8	47.2		(372)	66.9	39.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5)	81.0	42.5	72.5 ***	(570)	75.8	35.0	144.2 ***
고등학교	(2,053)	84.7	57.9		(2,599)	84.0	47.3	
대학 이상	(3,092)	86.4	85.6		(3,445)	87.3	70.7	
취업여부								
취업	(5,252)	86.0	73.6	(7.4)	(6,210)	85.8	59.8	(9.8)
비취업	(287)	74.6	48.6	***	(407)	73.7	38.0	***

주: 1) 남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2012년 조사에서 나타난 15~64세 기혼가구의 비동거부모에 대한 비금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외식/음식물 제공률이 남편부모에게 85.7%, 부인부모에게 8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건강용품과 생활용품의 제공이었는데, 남편부모에게 각각 37.1%, 36.9%이었고, 부인부모에게 각각 34.4%, 36.2%이었다. 그 외에도 여가, 전자제품의 제공률이 10%대를 보였다.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에게 제공하는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인 가구,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 육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공률을 보였다. 그렇지만 다른 특성의 가구는 유사한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표 13-1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금전

(단위: 명, %)

특성	남편부모에게 제공률							부인부모에게 제공률						
	(분석 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 음식물	기타	(분석 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 음식물	기타
전체	(5,561)	15.3	37.1	36.9	13.7	85.7	1.2	(6,641)	13.9	34.4	36.2	10.7	84.4	1.2
지역														
동부	(4,883)	15.6	37.2	36.5	13.7	85.4	1.4	(5,776)	14.1	34.2	36.1	10.8	84.3	1.2
읍·면부	(678)	13.3	36.6	39.7	13.5	87.6	0.1	(865)	12.5	35.5	36.9	10.2	84.4	1.6
가구원 수														
1인	(138)	8.7	19.6	18.1	6.5	66.9	1.4	(224)	5.8	15.7	40.8	7.2	74.1	0.9
2인	(951)	15.0	38.8	33.2	12.8	84.9	1.2	(1,208)	13.2	31.8	34.8	9.4	82.4	1.2
3~4인	(3,980)	15.8	37.2	38.1	14.2	86.6	1.3	(4,457)	14.6	35.4	36.0	11.0	85.4	1.2
5인 이상	(491)	14.3	37.9	39.4	12.8	85.5	0.6	(753)	13.1	38.2	38.5	11.9	84.2	1.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9)	4.3	7.2	8.7	4.3	58.0	-	(125)	3.2	18.4	25.6	8.9	65.6	-
100~200 미만	(337)	6.2	19.3	18.6	5.3	75.7	1.2	(538)	5.9	17.1	27.7	5.8	70.4	1.3
200~300 미만	(1,049)	8.1	29.6	30.3	11.2	81.0	0.5	(1,234)	6.8	25.0	29.7	6.9	81.8	0.6
300~400 미만	(1,245)	13.4	35.5	38.6	11.0	86.6	1.0	(1,413)	11.5	33.0	36.2	9.5	85.2	1.1
400~500 미만	(979)	17.0	39.7	37.4	12.0	87.7	1.0	(1,153)	14.8	38.1	37.2	10.0	84.6	0.7
500 이상	(1,849)	21.1	45.3	44.2	19.8	89.5	1.8	(2,126)	20.7	43.8	42.7	15.5	89.9	1.8
육구소득비														
1 미만	(98)	3.1	9.2	10.2	4.1	64.3	-	(169)	2.4	15.9	20.1	6.5	63.3	1.2
1~2 미만	(938)	6.9	27.3	30.7	11.4	80.5	0.7	(1,219)	5.4	24.0	28.2	8.2	78.3	0.8
2~3 미만	(1,815)	13.6	34.8	36.6	10.6	84.8	0.7	(2,144)	12.0	31.9	35.2	8.2	84.0	0.7
3~4 미만	(1,135)	15.5	40.8	37.4	14.7	88.4	2.2	(1,298)	13.4	38.6	37.7	12.1	85.9	1.8
4 이상	(1,543)	22.2	44.6	43.0	18.7	89.3	1.4	(1,759)	22.4	42.9	44.0	14.9	90.1	1.5

주: 분석대상은 비금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외식/음식물은 남성가구주, 30대 연령층 가구주, 유배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제공률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제공률을 보인 건강용품과 생활용품도 외식/음식물과 가구주 특성별 차이에 있어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건강용품은 40대 가구주(38.6%)가 30대 가구주(37.7%) 보다 제공률이 미미하게 높은 점만 달랐다.

〈표 13-14〉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금전

(단위: 명, %)

특성	남편부모에게 제공률							부인부모에게 제공률						
	(분석 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 음식물	기타	(분석 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 음식물	기타
성														
남자	(5,444)	15.5	37.6	37.4	13.9	86.2	1.2	(6,077)	14.6	35.8	36.7	11.0	85.3	1.3
여자	(117)	6.8	16.2	15.5	3.4	60.3	0.9	(563)	5.5	19.0	30.7	7.1	73.7	0.7
연령														
15~29세	(201)	6.0	20.9	36.0	9.5	86.0	0.5	(207)	6.3	20.8	36.7	16.9	87.4	0.5
30~39세	(1,719)	19.5	37.7	39.2	14.0	88.9	0.9	(1,826)	16.3	35.2	37.6	11.6	87.7	1.1
40~49세	(2,218)	15.9	38.6	38.2	15.2	84.9	1.4	(2,630)	15.6	34.6	35.8	11.0	82.9	1.4
50~59세	(1,233)	10.9	36.4	33.2	11.8	82.5	1.5	(1,671)	10.5	35.1	35.9	9.3	82.8	1.3
60세 이상	(192)	9.4	35.9	26.4	10.4	85.5	1.0	(307)	7.2	33.0	32.6	5.5	82.7	1.3
혼인상태														
유배우	(5,277)	15.8	38.3	38.1	14.2	86.8	1.2	(6,064)	14.7	36.1	36.9	11.1	85.7	1.3
사별	(100)	3.0	13.0	16.0	4.0	67.0	1.0	(204)	5.4	13.8	20.6	2.5	71.9	0.5
이혼·별거	(184)	8.2	17.4	14.2	4.9	62.8	1.6	(373)	4.3	18.0	33.3	8.8	69.4	0.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7)	4.1	27.1	19.9	10.9	76.7	0.3	(570)	6.1	21.4	25.0	3.9	75.5	1.1
고등학교	(2,071)	10.2	31.3	33.1	10.1	83.7	1.1	(2,617)	8.2	30.3	26.3	8.8	81.3	0.8
대학 이상	(3,103)	20.1	42.2	41.6	16.4	88.1	1.5	(3,452)	19.4	39.7	38.7	13.2	88.1	1.6
취업여부														
취업	(5,278)	15.6	37.5	37.7	14.0	86.0	1.3	(6,233)	14.4	35.0	36.8	11.0	85.1	1.3
비취업	(284)	9.5	29.9	23.2	8.4	79.6	0.4	(408)	5.4	24.5	26.5	5.9	72.3	0.7

주: 분석대상은 비금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3. 비동거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15~64세 기혼가구가 생존하고 계시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양가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파악하였다. 특히, 금전적 지원은 정기적 금전지원과 비정기적 금전지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정기적 금전지원은 월평균 금액으로, 비정기적 금전지원은 조사 당시 최근 1년간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전체 정보는 남편부모와 부인부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1년간 비동거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받은 비율은 남편부모로부터 0.7%, 부인부모로부터 0.7%로 동일하였다. 이는 전술한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지원(남편부모에게 30.9%, 부인부모에게 20.2%)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정기적 금전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의 월평균 수혜금액은 남편부모로부터 5천원, 부인부모로부터 3천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지원(남편부모 8만 2천원, 부인부모 4만 5천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가구특성별 수혜율 및 수혜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양가 부모로부터의 정기적 금전 수혜율이 낮고, 수혜금액이 적어 특성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 1 미만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빈곤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편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은 가구의 평균 금액은 가구특성에 따라 월평균 최저 2천원, 최고 9천원에 불과하였다.

부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 1~2 미만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은 가구의 평균 금액은 가구특성에 따라 월평균 최저 1천원, 최고 8천원에 불과하였다.

〈표 13-1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부인부모로부터			
	(분석대상)	수혜율	월평균 수혜 금액 ¹⁾	F(T)	(분석대상)	수혜율	월평균 수혜 금액 ²⁾	F(T)
전체	(5,547)	0.7	0.5		(6,627)	0.7	0.3	
지역								
동부	(4,869)	0.7	0.5	(.5)	(5,761)	0.7	0.3	(2.1)*
읍·면부	(678)	0.3	0.3		(866)	0.5	0.1	
가구원 수								
1인	(138)	-	-	.1	(223)	0.4	0.4	.8
2인	(952)	0.3	0.4		(1,209)	0.6	0.2	
3~4인	(3,963)	0.7	0.5		(4,440)	0.7	0.4	
5인 이상	(491)	1.2	0.4		(754)	0.8	0.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9)	-	-	.6	(125)	0.8	0.5	2.0 [#]
100~200 미만	(337)	1.2	0.3		(540)	1.7	0.4	
200~300 미만	(1,035)	0.7	0.7		(1,222)	1.1	0.8	
300~400 미만	(1,247)	0.7	0.4		(1,415)	0.8	0.2	
400~500 미만	(978)	0.7	0.9		(1,150)	0.4	0.1	
500 이상	(1,844)	0.4	0.2		(2,123)	0.2	0.2	
육구소득비								
1 미만	(98)	3.1	0.8	.4	(170)	1.2	0.5	2.5*
1~2 미만	(924)	0.5	0.4		(1,206)	1.6	0.8	
2~3 미만	(1,814)	0.8	0.4		(2,145)	0.8	0.2	
3~4 미만	(1,137)	0.7	0.8		(1,299)	0.4	0.2	
4 이상	(1,540)	0.5	0.2		(1,755)	0.2	0.3	

주: 1) 남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 특성별 수혜율 및 수혜금액의 차이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수혜율은 남편부모와 부인부모로부터

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가구주 연령이 15~29세, 비취업 가구주의 경우는 부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이 남편부모로부터의 수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여성가구주는 남편부모로부터 정기적 금전 지원을 받지 않고 있었으며, 그들 부모로부터 1.8%의 수혜율을 보였고, 수혜자는 월평균 1만 1천원을 받았다.

〈표 13-16〉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부인부모로부터			
	(분석대상)	수혜율	월평균 수혜 금액 ¹⁾	F(T)	(분석대상)	수혜율	월평균 수혜 금액 ²⁾	F(T)
성								
남자	(5,429)	0.7	0.5	(4)	(6,061)	0.6	0.2	(-1.9) [#]
여자	(117)	-	-		(564)	1.8	1.1	
연령								
15~29세	(188)	2.7	2.8	2.2 [#]	(193)	4.1	0.4	3.2 [*]
30~39세	(1,717)	1.2	0.5		(1,826)	1.2	0.7	
40~49세	(2,216)	0.5	0.3		(2,627)	0.4	0.2	
50~59세	(1,232)	0.1	0.5		(1,673)	0.3	0.1	
60세 이상	(192)	-	-		(307)	-	-	
혼인상태								
유배우	(5,263)	0.7	0.5	.2	(6,048)	0.6	0.2	6.5 ^{**}
사별	(100)	-	-		(204)	0.5	0.5	
이혼·별거	(183)	-	-		(373)	2.4	1.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7)	-	-	1.6	(571)	0.4	0.1	.7
고등학교	(2,057)	0.5	0.2		(2,605)	0.7	0.3	
대학 이상	(3,100)	0.8	0.7		(3,452)	0.8	0.4	
취업여부								
취업	(5,262)	0.7	0.4	(-.7) [*]	(6,217)	0.6	0.3	(-1.1)
비취업	(284)	0.4	1.1		(408)	1.2	1.0	

주: 1) 남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최근 1년간 비동거 부모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받은 비율은 남편부모로부터 19.8%, 부인부모로부터 18.8%이었다. 따라서 비정기적

금전 수혜율이 정기적 금전 수혜율보다 높았고(정기적 금전 수혜율: 남편부모 0.7%, 부인부모 0.7%), 양가 부모에게 비정기적 금전 제공률보다 현저히 낮았다(비정기적 금전 제공률: 남편부모 89.5%, 부인부모 85.0%). 부모로부터 지난 1년간 비정기적 금전을 수혜받은 가구의 평균 금액은 남편부모로부터는 43만 1천원, 부인부모로부터는 31만 9천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구특성별 수혜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가구특성에 따라 최저 7.2%, 최고 27.1%의 차이를 보였다. 수혜율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21.4%),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가구(20.9%), 욕구소득비 1~2 미만의 가구(22.9%)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년간 수혜금액은 가구특성에 따라 격차가 다소 컸는데, 최저 11만 5천원, 최고 60만 5천원이었다. 읍·면부지역 거주가구(45만 3천원), 1인 가구(60만 5천원),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의 가구(51만 6천원), 욕구소득비 4 이상의 가구(54만 2천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가구특성에 따라 최저 4.9%, 최고 23.5%의 차이를 보였다. 수혜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9.1%),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 가구(20.8%), 욕구소득비 1~2 미만 가구(21.2%)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년간 수혜금액은 가구특성에 따라 격차가 다소 컸는데, 최저 8만 8천원, 최고 47만 3천원이었다. 동부지역 거주가구(32만 6천원), 가구원 수 3~4인 가구(34만 3천원),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의 가구(47만 3천원), 욕구소득비 4 이상의 가구(39만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1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부인부모로부터			
	(분석대상)	수혜율	연평균 수혜 금액 ¹⁾	F(T)	(분석대상)	수혜율	연평균 수혜 금액 ²⁾	F(T)
전체	(5,545)	19.8	43.1		(6,623)	18.8	31.9	
지역								
동부	(4,864)	19.6	42.8	(-.2)	(5,760)	19.1	32.6	(.7)
읍·면부	(681)	21.4	45.3		(863)	17.1	27.0	
가구원 수								
1인	(139)	7.2	60.5	1.5	(223)	4.9	10.9	1.1
2인	(954)	13.9	23.0		(1,207)	14.1	27.1	
3~4인	(3,959)	20.6	47.8		(4,439)	20.0	34.3	
5인 이상	(487)	27.1	39.3		(753)	23.5	31.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9)	11.6	50.6	1.2	(124)	10.5	8.8	2.7*
100~200 미만	(337)	14.8	11.5		(538)	18.2	19.7	
200~300 미만	(1,034)	20.7	51.6		(1,221)	20.8	47.3	
300~400 미만	(1,248)	18.7	31.1		(1,415)	18.3	30.1	
400~500 미만	(979)	20.9	50.2		(1,148)	17.6	20.6	
500 이상	(1,844)	20.9	48.9		(2,122)	19.1	34.3	
육구소득비								
1 미만	(96)	11.5	35.3	.9	(169)	14.2	15.0	1.5
1~2 미만	(923)	22.9	40.3		(1,205)	21.2	25.0	
2~3 미만	(1,812)	19.1	33.2		(2,143)	19.9	34.8	
3~4 미만	(1,138)	20.0	47.9		(1,298)	15.8	25.2	
4 이상	(1,538)	19.1	54.2		(1,755)	18.5	39.0	

주: 1) 남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 특성별 수혜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 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남성가구주(20.0%),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60세 이상 제외), 유배우 가구주(20.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중인 가구주(20.2%)가 높았다. 부인부모로부터의 수혜율도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남성가구주(19.5%),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60세 이상 제외), 유배우 가구주(19.6%),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중인 가구주(19.0%)가 높았다.

가구주 특성별 수혜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부모로부터의 수혜금액은 남성가구주(43만 7천원),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가구주(42만 8천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구주(44만 1천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부인부모로부터의 수혜금액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남성가구주(33만 3천원),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60세 이상 제외), 유배우 가구주(33만 4천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구주(33만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3-18〉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부인부모로부터			
	(분석대상)	수혜율	연평균 수혜 금액 ¹⁾	F(T)	(분석대상)	수혜율	연평균 수혜 금액 ²⁾	F(T)
성								
남자	(5,425)	20.0	43.7	(.9)	(6,060)	19.5	33.3	(3.1)
여자	(117)	9.4	15.7		(564)	11.5	16.4	
연령								
15~29세	(187)	33.7	74.6	5.8 ***	(194)	30.4	45.4	5.7 ***
30~39세	(1,712)	31.7	69.3		(1,821)	29.1	48.9	
40~49세	(2,214)	17.3	38.7		(2,628)	17.1	28.7	
50~59세	(1,231)	6.8	15.5		(1,671)	10.1	16.0	
60세 이상	(194)	8.2	4.6		(307)	12.1	35.6	
혼인상태								
유배우	(5,259)	20.4	42.8	.7	(6,047)	19.6	33.4	1.9
사별	(100)	11.0	16.7		(203)	10.8	10.9	
이혼·별거	(183)	6.0	66.1		(372)	11.0	1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7)	8.3	6.4	7.7 ***	(572)	8.4	12.6	3.5*
고등학교	(2,055)	14.2	27.1		(2,604)	15.1	29.5	
대학 이상	(3,098)	24.9	58.3		(3,451)	23.5	36.8	
취업여부								
취업	(5,258)	20.2	44.1	(.9)	(6,214)	19.0	33.0	(4.2)
비취업	(284)	12.0	24.6		(407)	15.2	15.0	

주: 1) 남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의 비동거부모로부터의 비금전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외식/음식물 수혜율은 남편부모로부터 56.4%, 부인부모로부터 59.7%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생활용품이었는데, 남편부모로부터 10.8%, 부인부모로부터 13.9%이었다. 그 외에도 건강용품, 전자제품, 여가 등이 10% 미만의 수혜율을 보였다. 비금전 지원의 제공률이 수혜율보다 현저히 높았다(외식/음식물: 남편부모에게 85.7%, 부인부모에게 84.4%; 생활용품: 남편부모에게 36.9%, 부인부모에게 36.2%; 건강용품: 남편부모에게 37.1%, 부인부모에게 34.4%).

〈표 13-1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금전

(단위: 명, %)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수혜율							부인부모로부터 수혜율						
	(분석 대상)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분석 대상)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전체	(5,561)	1.2	5.0	10.8	2.7	56.4	0.4	(6,641)	1.5	6.7	13.9	2.5	59.7	0.3
지역														
동부	(4,882)	1.2	5.0	11.1	2.8	56.8	0.5	(5,776)	1.6	6.8	14.4	2.4	60.3	0.3
읍·면부	(679)	1.0	5.0	8.8	1.8	53.8	-	(865)	0.9	6.1	10.8	2.7	56.2	0.2
가구원 수														
1인	(138)	-	4.3	5.1	3.6	36.0	-	(223)	0.4	1.8	8.1	2.7	33.5	-
2인	(953)	1.3	4.1	8.6	2.3	53.1	0.1	(1,209)	1.2	5.5	11.4	1.6	53.0	0.2
3~4인	(3,978)	1.3	5.2	11.3	2.7	57.6	0.5	(4,455)	1.6	7.3	14.5	2.7	63.1	0.4
5인 이상	(492)	0.8	5.1	12.8	3.5	59.3	-	(754)	1.6	6.2	16.0	2.4	58.5	0.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9)	-	1.4	-	1.4	30.4	-	(125)	1.6	7.2	10.4	3.2	36.8	-
100~200 미만	(338)	0.3	1.8	6.8	0.9	45.6	-	(538)	0.6	3.5	13.9	1.3	49.1	0.2
200~300 미만	(1,049)	0.6	5.2	16.7	5.1	57.7	0.1	(1,235)	0.6	6.6	18.1	4.3	60.4	0.2
300~400 미만	(1,247)	1.5	5.4	12.4	3.2	58.2	0.6	(1,415)	1.4	7.3	15.2	2.1	62.9	0.2
400~500 미만	(979)	1.6	5.1	8.8	2.1	56.1	0.2	(1,152)	1.8	6.4	12.8	2.0	58.9	0.2
500 이상	(1,847)	1.1	5.4	8.8	1.7	58.0	0.6	(2,126)	1.9	7.2	11.5	2.2	62.2	0.5
육구소득비														
1 미만	(98)	1.0	1.0	5.1	2.0	46.9	-	(169)	1.2	5.9	12.9	1.8	43.2	-
1~2 미만	(939)	0.7	4.4	14.1	3.8	55.7	0.1	(1,219)	0.7	5.9	17.1	2.3	58.7	0.2
2~3 미만	(1,814)	1.0	5.5	13.0	3.3	56.0	0.4	(2,144)	1.1	6.8	15.7	3.1	60.3	0.3
3~4 미만	(1,137)	1.4	4.6	8.6	2.0	58.0	0.6	(1,300)	1.8	6.5	11.2	2.0	60.5	0.3
4 이상	(1,541)	1.4	5.6	8.6	1.9	57.3	0.5	(1,759)	2.1	7.4	11.7	2.2	61.3	0.4

주: 분석대상은 비금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1인 가구,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 욕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혜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다른 특성의 가구는 유사한 수준에서 양가 부모로부터 비금전 지원을 수혜하고 있었다. 이는 양가 부모에게의 비금전 제공률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1인 가구와 빈곤가구와 그들의 양가 부모가구는 상호 교류(제공 및 수혜)할만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가장 많이 수혜하는 외식/음식물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공통적으로 남성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20〉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금전

(단위: 명, %)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수혜율							부인부모로부터 수혜율						
	(분석 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분석 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성														
남자	(5,444)	1.2	5.0	11.0	2.7	56.8	0.4	(6,078)	1.6	6.9	14.0	2.5	60.7	0.3
여자	(117)	0.9	6.8	2.6	-	39.3	-	(563)	0.5	4.6	12.4	2.1	49.0	-
연령														
15~29세	(200)	0.5	6.0	21.0	18.0	78.5	0.5	(206)	1.5	11.6	30.6	9.2	73.3	0.5
30~39세	(1,719)	1.9	8.0	18.8	4.1	70.7	0.6	(1,828)	2.5	9.3	22.3	4.4	72.8	0.5
40~49세	(2,217)	1.0	4.6	8.0	1.3	56.0	0.2	(2,628)	1.4	6.7	11.5	2.1	61.1	0.2
50~59세	(1,232)	0.8	2.0	3.2	0.7	38.3	0.4	(1,672)	0.8	4.1	8.4	0.6	46.6	0.2
60세 이상	(192)	-	2.6	9.8	3.1	26.6	0.5	(307)	-	1.3	3.3	-	32.7	0.3
혼인상태														
유배우	(5,278)	1.2	5.1	11.0	2.7	57.3	0.4	(6,065)	1.6	7.0	14.1	2.5	61.0	0.3
사별	(101)	1.0	5.0	3.0	-	38.0	-	(204)	1.0	2.9	8.8	1.5	40.2	-
이혼·별거	(183)	-	3.3	10.4	3.8	42.6	-	(373)	0.3	4.0	12.6	2.4	49.2	-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7)	-	2.3	6.2	0.3	36.1	-	(570)	0.2	2.5	4.4	0.7	38.7	0.2
고등학교	(2,070)	0.2	4.0	10.2	2.2	51.4	0.2	(2,617)	0.6	5.7	14.8	2.3	56.8	0.1
대학 이상	(3,103)	1.9	6.1	11.8	3.3	62.3	0.5	(3,453)	2.3	8.1	14.8	3.0	65.4	0.5
취업여부														
취업	(5,277)	1.2	5.1	10.9	2.8	57.4	0.4	(6,234)	1.5	6.9	14.0	2.6	60.8	0.3
비취업	(284)	0.4	3.9	9.9	0.4	38.7	-	(408)	1.0	3.4	11.8	0.5	42.6	-

주: 분석대상은 비금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4. 비동거 부모와의 상호지원 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비동거 양가 부모와의 상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수혜받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간병, 집안일, 기타에 의해, 양가 부모로부터 수혜받은 서비스는 자녀돌봄, 집안일, 기타에 의해 파악하였다. 상호지원 서비스를 비동거 남편부모와 부인부모를 구분하고, 양가의 부와 모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비동거 남편부모와의 상호지원 서비스

비동거 남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집안일이 가장 많았는데, 남편의 부(父)에게 39.2%, 남편의 모(母)에게 44.3%이었다. 다음은 간병으로 남편의 부(父)에게 11.6%, 남편의 모(母)에게 14.6%의 제공률을 보였다.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제공률을 보인 ‘집안일’의 경우,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300~400만원 미만의 가구, 욕구소득비 3~4 미만의 가구(남편의 부(父)에게는 1~2 미만의 가구도 포함)가 남편의 부(父) 및 모(母)에게의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제공률을 보인 ‘간병’의 경우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 5인 이상 가구, 욕구소득비 4 이상의 가구가 남편의 부(父) 및 모(母)에게의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편의 부(父)에게는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인 가구, 남편의 모(母)에게는 가구소득 400~5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인 가구의 ‘간병’ 서비스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2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남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

(단위: 명, %)

특성	남편의 부(父)에게				남편의 모(母)에게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전체	(3,213)	11.6	39.2	2.0	(5,267)	14.6	44.3	2.5
지역								
동부	(2,844)	10.9	38.2	2.0	(4,631)	14.3	43.8	2.5
읍·면부	(369)	16.9	46.5	1.9	(636)	16.7	48.0	2.4
가구원 수								
1인	(50)	8.0	8.0	2.0	(131)	12.2	12.2	0.8
2인	(497)	10.3	36.0	1.8	(919)	14.6	40.7	2.4
3~4인	(2,377)	11.4	40.2	1.9	(3,761)	14.4	45.9	2.5
5인 이상	(289)	15.9	41.2	2.8	(456)	16.9	47.7	3.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8)	3.6	20.7	-	(63)	3.2	12.9	-
100~200 미만	(158)	7.0	25.2	2.5	(318)	13.8	30.6	3.1
200~300 미만	(587)	11.2	40.8	1.4	(992)	12.8	42.4	2.7
300~400 미만	(752)	11.8	43.4	2.3	(1,176)	13.4	47.9	2.6
400~500 미만	(562)	10.5	39.6	1.2	(947)	16.4	45.3	2.4
500 이상	(1,098)	13.2	38.4	2.5	(1,740)	16.3	46.6	2.4
육구소득비								
1 미만	(41)	7.3	22.0	-	(91)	15.4	24.4	1.1
1~2 미만	(556)	10.8	41.5	2.9	(873)	12.6	44.2	4.4
2~3 미만	(1,018)	12.1	40.2	1.6	(1,726)	13.8	44.3	2.1
3~4 미만	(651)	11.1	41.5	1.1	(1,080)	15.1	46.5	1.9
4 이상	(923)	12.4	36.8	2.6	(1,466)	16.6	44.8	2.4

주: 1) 주: 분석대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제공률을 보인 ‘집안일’의 경우, 남성가구주, 15~29세 연령층 가구주, 유배우 가구주,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가구주가 남편의 부(父) 및 모(母)에게의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편의 부(父)에게는 비취업 가구주가, 남편의 모(母)에게는 취업 가구주가 ‘간병’ 서비스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제공률을 보인 ‘간병’의 경우를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가구주,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유배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 가구주가 남편의 부(父) 및 모(母)에게의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22〉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남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

(단위: 명, %)

특성	남편의 부(父)에게				남편의 모(母)에게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성								
남자	(3,174)	11.7	39.5	2.0	(5,153)	14.7	44.8	2.3
여자	(39)	7.7	7.7	-	(114)	8.8	20.2	9.7
연령								
15~29세	(186)	2.2	42.5	0.5	(193)	2.6	46.6	0.5
30~39세	(1,338)	7.6	37.4	2.0	(1,667)	10.0	44.9	2.9
40~49세	(1,249)	15.1	41.4	2.1	(2,081)	15.1	46.0	2.5
50~59세	(392)	17.6	36.3	2.3	(1,143)	20.7	39.5	2.2
60세 이상	(48)	20.8	39.6	-	(183)	26.2	47.0	2.2
혼인상태								
유배우	(3,111)	11.9	40.2	1.9	(4,998)	15.0	45.9	2.4
사별	(28)	3.6	14.3	-	(97)	9.3	24.7	11.5
이혼·별거	(74)	4.1	2.7	4.1	(173)	7.5	8.1	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2)	24.5	34.3	-	(367)	21.8	37.4	1.9
고등학교	(1,031)	13.2	42.1	2.2	(1,939)	15.6	46.1	2.7
대학 이상	(2,078)	10.2	38.0	1.9	(2,961)	13.1	44.0	2.4
취업여부								
취업	(3,100)	11.2	39.1	1.9	(4,997)	14.2	44.8	2.6
비취업	(113)	23.9	42.1	2.6	(270)	22.6	34.7	1.1

주: 분석대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비동거 남편부모로부터 수혜한 서비스는 ‘자녀돌봄’이 가장 많았는데, 남편의 부(父)로부터 8.7%, 남편의 모(母)로부터 11.9%이었다. 다음은 ‘집안일’로 남편의 부(父)로부터 2.4%, 남편의 모(母)로부터 8.8%의 수혜율을 보였다.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인 ‘자녀돌봄’은 읍·면 부지역 거주가구, 1인 가구,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의 가구, 육구

소득비 1~2 미만의 가구는 남편의 부(父)로부터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5인 이상 가구, 가구소득 300~400만원 미만의 가구, 욕구소득비 1~2 미만의 가구는 남편의 모(母)로부터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2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남편부모로부터 받은 서비스

(단위: 명, %)

특성	남편의 부(父)로부터 수혜율				남편의 모(母)로부터 수혜율			
	(분석대상)	자녀 돌봄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자녀 돌봄	집안일	기타
전체	(3,213)	8.7	2.4	0.2	(5,263)	11.9	8.8	0.2
지역								
동부	(2,644)	8.3	2.4	0.2	(4,628)	11.5	8.2	0.2
읍·면부	(369)	11.6	3.0	0.3	(635)	14.9	13.1	-
가구원 수								
1인	(50)	14.6	2.0	-	(131)	7.9	6.1	-
2인	(497)	1.1	2.8	-	(917)	2.1	6.0	0.1
3~4인	(2,376)	9.4	2.3	0.3	(3,760)	13.0	9.3	0.3
5인 이상	(290)	9.7	3.1	0.3	(455)	17.4	11.0	0.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8)	-	-	-	(63)	8.2	4.8	-
100~200 미만	(158)	7.5	5.1	-	(317)	9.9	11.4	0.6
200~300 미만	(587)	10.9	1.9	-	(992)	13.0	9.9	0.1
300~400 미만	(752)	9.6	3.7	-	(1,177)	14.1	10.1	0.2
400~500 미만	(563)	8.4	1.6	0.7	(947)	10.6	6.9	0.4
500 이상	(1,097)	7.8	2.0	0.3	(1,738)	11.2	8.2	0.2
욕구소득비								
1 미만	(41)	5.0	2.4	-	(90)	15.9	11.1	2.2
1~2 미만	(556)	11.3	3.2	-	(872)	16.3	11.5	-
2~3 미만	(1,018)	8.8	2.9	0.2	(1,726)	12.2	9.3	0.3
3~4 미만	(651)	8.1	2.0	0.5	(1,081)	9.8	7.8	0.3
4 이상	(923)	7.8	2.0	0.2	(1,463)	10.4	7.3	0.1

주: 분석대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인 ‘자녀돌봄’은 연령이 낮을수록, 사별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구주가 상대

적으로 남편의 부(父) 및 모(母)로부터의 수혜율이 높았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사별 가구주,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구주가 남편의 부(父) 및 모(母)로부터의 수혜율이 높았다. 또한 남편의 부(父)로부터 ‘자녀돌봄’ 서비스의 수혜율은 남성가구주가, 남편의 모(母)로부터 ‘자녀돌봄’ 서비스의 수혜율은 여성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24〉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남편부모로부터 받은 서비스

(단위: 명, %)

특성	남편의 부(父)로부터 수혜율				남편의 모(母)로부터 수혜율			
	(분석대상)	자녀 돌봄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자녀 돌봄	집안일	기타
성								
남자	(3,174)	8.8	2.4	0.2	(5,151)	11.9	8.9	0.2
여자	(39)	7.5	2.6	-	(113)	12.4	2.7	-
연령								
15~29세	(186)	17.4	4.3	-	(193)	25.2	13.0	0.5
30~39세	(1,338)	13.8	2.7	0.2	(1,666)	23.7	13.8	0.3
40~49세	(1,250)	5.7	2.1	0.3	(2,079)	9.0	7.4	0.2
50~59세	(391)	1.0	0.5	0.3	(1,142)	1.9	3.8	0.1
60세 이상	(48)	-	12.5	-	(183)	0.6	5.5	-
혼인상태								
유배우	(3,110)	8.7	2.4	0.2	(4,995)	11.8	8.6	0.2
사별	(28)	10.7	3.6	-	(96)	16.7	8.3	1.1
이혼·별거	(74)	9.7	1.4	-	(173)	10.7	13.3	-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2)	2.0	-	-	(366)	2.6	3.8	-
고등학교	(1,031)	8.7	2.8	0.1	(1,937)	10.3	8.3	0.2
대학 이상	(2,078)	9.1	2.4	0.3	(2,961)	14.2	9.7	0.3
취업여부								
취업	(3,099)	9.0	2.4	0.2	(4,993)	12.3	9.0	0.2
비취업	(114)	1.9	2.6	-	(270)	3.5	4.4	-

주: 분석대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나. 비동거 부인부모와의 상호지원 서비스

비동거 부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집안일이 가장 많았는데, 부인의 부(父)에게 31.9%, 부인의 모(母)에게 37.9%이었다. 이는 전술한 남편의 부(父)에게 39.2%, 남편의 모(母)에게 44.3%의 제공률을 보인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표 13-21 참조). 다음은 간병으로 부인의 부(父)에게 8.3%, 부인의 모(母)에게 14.0%의 제공률을 보였다. 이 또한 전술한 남편의 부(父)에게 11.6%, 남편의 모(母)에게 14.6%의 제공률을 보인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표 13-21 참조).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제공률을 보인 ‘집안일’의 경우,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2인 가구, 가구소득 300~400만원 미만의 가구, 욕구소득비 2~3 미만의 가구가 부인의 부(父)에게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3~4인 가구, 가구소득 300~400만원 미만의 가구, 욕구소득비 3~4 미만의 가구가 부인의 모(母)에게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제공률을 보인 ‘간병’의 경우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1인 가구,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가 부인의 부(父) 및 모(母)에게 제공률이 다른 가구특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렇지만 간병서비스는 욕구소득비에 따라서는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부인의 부(父)에게는 욕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가구가, 부인의 모(母)에게는 욕구소득비 4 이상의 가구가 ‘간병’ 서비스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2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부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

(단위: 명, %)

특성	부인의 부(父)에게 제공률				부인의 모(母)에게 제공률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전체	(3,838)	8.3	31.9	1.9	(6,336)	14.0	37.9	2.3
지역								
동부	(3,367)	7.8	31.3	2.0	(5,521)	13.4	37.8	2.3
읍·면부	(471)	12.1	36.1	1.7	(815)	18.2	39.1	2.5
가구원 수								
1인	(98)	17.3	23.2	-	(209)	19.6	28.7	1.9
2인	(594)	9.9	34.3	1.3	(1,152)	14.9	36.5	2.0
3~4인	(2,693)	7.5	32.0	2.0	(4,266)	13.7	38.8	2.4
5인 이상	(452)	9.5	30.1	2.7	(708)	12.4	37.8	2.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9)	20.5	30.8	-	(119)	17.6	29.4	-
100~200 미만	(245)	13.8	26.5	0.8	(515)	16.9	34.6	2.1
200~300 미만	(731)	7.8	32.7	2.5	(1,181)	12.5	38.4	2.4
300~400 미만	(842)	7.5	34.2	2.0	(1,366)	13.1	40.4	2.3
400~500 미만	(668)	7.0	32.9	1.2	(1,082)	13.7	37.4	1.8
500 이상	(1,279)	8.4	31.0	2.2	(2,023)	14.7	38.2	2.7
육구소득비								
1 미만	(77)	13.0	27.3	-	(162)	14.2	27.2	1.2
1~2 미만	(682)	10.7	30.3	3.1	(1,160)	14.1	37.6	2.9
2~3 미만	(1,235)	7.4	34.1	1.5	(2,059)	13.1	39.2	1.9
3~4 미만	(759)	6.2	31.6	2.4	(1,232)	12.7	39.4	2.2
4 이상	(1,051)	9.1	31.7	1.5	(1,670)	15.9	37.2	2.6

주: 분석대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제공률을 보인 ‘집안일’의 경우, 남성가구주, 60세 이상 가구주, 사별 가구주,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가구주, 비취업 가구주가 부인의 부(父)에게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가구주, 30대 연령층 가구주, 유배우 가구주,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가구주, 취업 가구주가 부인의 모(母)에게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제공률을 보인 ‘간병’의 경우를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취

업 가구주가 부인의 부(父) 및 모(母)에게의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인의 부(父)에게의 제공률은 사별 가구주가, 부인의 모(母)에게의 제공률은 이혼·별거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26〉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부인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

(단위: 명, %)

특성	부인의 부(父)에게 제공률				부인의 모(母)에게 제공률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성								
남자	(3,635)	7.9	32.0	1.8	(5,798)	13.6	38.2	2.2
여자	(202)	16.3	29.7	5.4	(538)	18.0	35.7	3.5
연령								
15~29세	(170)	1.8	34.3	-	(191)	5.2	37.7	-
30~39세	(1,417)	6.1	32.7	2.1	(1,772)	9.4	39.4	2.7
40~49세	(1,561)	8.7	29.6	2.2	(2,504)	13.6	37.4	2.3
50~59세	(621)	13.5	33.8	1.5	(1,583)	18.6	37.9	2.3
60세 이상	(70)	17.1	44.3	1.4	(288)	26.0	33.8	1.7
혼인상태								
유배우	(3,616)	8.0	32.2	1.8	(5,785)	13.7	38.3	2.2
사별	(69)	15.9	34.8	14.7	(189)	14.3	32.8	7.4
이혼·별거	(153)	13.7	23.5	-	(361)	18.5	35.2	1.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9)	12.6	30.8	1.2	(542)	18.3	35.7	2.0
고등학교	(1,368)	10.3	33.2	2.3	(2,480)	15.6	39.8	2.6
대학 이상	(2,308)	6.8	31.2	1.7	(3,313)	12.1	36.9	2.2
취업여부								
취업	(3,694)	8.0	31.9	2.0	(5,943)	13.9	38.4	2.4
비취업	(143)	18.2	32.2	0.7	(392)	14.8	30.5	1.5

주: 분석대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비동거 부인부모로부터 수혜한 서비스는 ‘자녀돌봄’이 가장 많았는데, 부인의 부(父)로부터 10.6%, 부인의 모(母)로부터 17.6%이었다. 이는 전술한 남편의 부(父)로부터 8.7%, 남편의 모(母)로부터 11.9%의 수혜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것이다(표 13-23 참조).

다음은 ‘집안일’로 부인의 부(父)로부터 4.6%, 부인의 모(母)로부터

15.5%의 수혜율을 보였다. 이 또한 전술한 남편의 부(父)로부터 2.4%, 부인의 모(母)로부터 8.8%의 수혜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것이다(표 13-23 참조).

〈표 13-2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부인부모로부터 받은 서비스

(단위: 명, %)

특성	부인의 부(父)로부터 수혜율				부인의 모(母)로부터 수혜율			
	(분석대상)	자녀 돌봄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자녀 돌봄	집안일	기타
전체	(3,838)	10.6	4.6	0.3	(6,336)	17.6	15.5	0.5
지역								
동부	(3,367)	10.2	4.5	0.3	(5,521)	17.4	15.1	0.6
읍·면부	(471)	13.7	5.1	-	(815)	19.0	18.5	0.2
가구원 수								
1인	(99)	2.1	2.0	-	(210)	13.1	6.2	-
2인	(595)	2.8	2.9	0.2	(1,152)	2.3	7.3	0.1
3~4인	(2,692)	11.8	5.2	0.3	(4,266)	20.5	18.0	0.6
5인 이상	(452)	11.7	3.3	0.7	(709)	19.9	16.9	0.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9)	-	-	-	(119)	7.8	9.2	0.8
100~200 미만	(245)	8.2	2.9	0.4	(515)	11.2	12.3	-
200~300 미만	(731)	11.1	7.0	0.1	(1,180)	17.8	14.3	0.2
300~400 미만	(842)	12.7	4.3	0.4	(1,365)	22.5	18.0	1.0
400~500 미만	(668)	8.7	3.6	0.3	(1,082)	16.5	15.3	0.5
500 이상	(1,279)	10.7	4.3	0.2	(2,203)	17.0	16.1	0.5
가구소득비								
1 미만	(76)	9.5	1.3	-	(162)	12.2	11.7	0.6
1~2 미만	(683)	12.6	5.4	0.7	(1,160)	18.9	16.0	0.4
2~3 미만	(1,235)	9.7	4.7	0.2	(2,059)	19.0	16.5	0.7
3~4 미만	(758)	11.5	3.7	0.3	(1,232)	16.3	14.2	0.3
4 이상	(1,052)	9.7	4.7	0.2	(1,671)	16.3	15.7	0.4

주: 분석대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인 ‘자녀돌봄’은 읍·면 부지역 거주가구, 3~4인 가구, 가구소득 300~400만원 미만의 가구가 부인의 부(父) 및 모(母)로부터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인의

부(父)로부터의 돌봄서비스 수혜율은 욕구소득비 1~2 미만의 가구, 부인의 모(母)로부터의 돌봄서비스 수혜율은 욕구소득비 2~3 미만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인 ‘자녀돌봄’은 남성가구주가,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부인의 부(父) 및 모(母)로부터의 수혜율이 높았다. 또한 부인의 부(父)로부터의 수혜율은 사별 가구주가, 부인의 모(母)로부터의 수혜율은 유배우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28〉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비동거 부인부모로부터 받은 서비스

(단위: 명, %)

특성	부인의 부(父)로부터 수혜율				부인의 모(母)로부터 수혜율			
	(분석대상)	자녀 돌봄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자녀 돌봄	집안일	기타
성								
남자	(3,635)	10.7	4.4	0.3	(5,798)	18.0	15.9	0.6
여자	(202)	10.2	7.4	-	(538)	13.1	11.3	0.2
연령								
15~29세	(169)	22.6	7.7	0.6	(191)	46.2	24.1	-
30~39세	(1,417)	17.3	6.6	0.5	(1,771)	36.2	28.6	1.0
40~49세	(1,560)	7.8	3.5	0.2	(2,504)	15.4	14.0	0.6
50~59세	(620)	2.9	1.9	0.2	(1,583)	2.8	4.5	0.1
60세 이상	(69)	3.2	-	-	(288)	0.7	3.8	-
혼인상태								
유배우	(3,616)	10.7	4.4	0.3	(5,785)	18.1	16.0	0.6
사별	(68)	20.6	17.6	-	(189)	8.5	10.6	-
이혼·별거	(153)	4.1	2.0	-	(362)	14.8	11.3	0.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0)	2.6	1.2	-	(542)	3.1	4.6	0.2
고등학교	(1,369)	9.5	5.0	0.1	(2,480)	15.2	13.0	0.2
대학 이상	(2,308)	12.0	4.5	0.4	(3,313)	21.9	19.2	0.8
취업여부								
취업	(3,694)	10.9	4.6	0.3	(5,944)	18.2	16.0	0.5
비취업	(143)	3.8	2.8	-	(392)	8.3	8.7	0.3

주: 분석대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동거부모와의 상호 지원

1.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지원

15~64세 기혼가구가 함께 살고 계신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파악하였다. 특히, 금전적 지원은 정기적 금전지원과 비정기적 금전지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정기적 금전지원은 월평균 금액으로, 비정기적 금전지원은 조사당시 최근 1년간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전체 정보는 남편부모와 부인부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부모 44.7%, 부인부모 41.9%이었다. 이는 비동거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남편부모 30.9%, 부인부모 20.2%)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의 월평균 제공금액은 남편부모 10만 7천 2백원, 부인부모 12만 5천 6백원이었다. 이 역시 비동거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의 월평균 제공금액(남편부모 8만 2천원, 부인부모 4만 5천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비동거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에게 제공하는 격차보다는 매우 작은 금액 차이를 보였다.

가구특성별 제공률 및 제공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남편부모에게의 제공률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3~4인 가구, 5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 욕구소득비 3~4 미만의 가구가 높았고, 부인부모에게의 제공률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5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 가구소득 400~500만원인 가구, 욕구소득비 4 이상인 가구가 높았다. 정기적 금전 지원의 평균 금액은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에 상관없이 동부지역 거주가구, 5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 500만원 이

상의 고소득 가구,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많았다.

〈표 13-2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에게				부인부모에게			
	(분석 대상)	제공률	월평균 제공금액 ¹⁾	F(T)	(분석 대상)	제공률	월평균 제공금액 ²⁾	F(T)
전체	(635)	44.7	10.72		(198)	41.9	12.56	
지역								
동부	(500)	49.0	12.0	3.3**	(180)	45.6	13.8	(2.3*)
읍·면부	(135)	28.9	6.0		(18)	5.6	0.3	
가구원 수								
1인	-	-	-	1.0	-	-	-	5.7**
2인	(27)	37.0	10.8		(11)	9.1	2.0	
3~4인	(230)	47.0	9.3		(72)	34.7	6.9	
5인 이상	(377)	44.0	11.6		(115)	49.6	17.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3)	23.1	1.8	4.7***	(4)	-	-	5.1***
100~200 미만	(74)	32.4	7.6		(26)	19.2	2.6	
200~300 미만	(123)	46.3	7.8		(27)	14.8	2.3	
300~400 미만	(94)	35.1	7.2		(36)	38.9	9.1	
400~500 미만	(127)	51.2	12.2		(36)	63.9	14.6	
500 이상	(199)	51.3	15.2		(69)	53.6	22.0	
욕구소득비								
1 미만	(36)	27.8	6.5	6.7***	(6)	16.7	1.6	4.8**
1~2 미만	(189)	37.0	6.6		(63)	22.2	4.5	
2~3 미만	(240)	46.3	10.9		(65)	55.4	13.9	
3~4 미만	(91)	58.2	14.3		(37)	43.2	17.0	
4 이상	(75)	54.7	18.6		(27)	63.0	25.3	

주: 1) 남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 특성별 동거부모에게 정기적 금전지원의 제공률 및 제공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에 상관 없이 남성가구주, 40대 연령층 가구주, 사별 가구주, 취업중인 가구주가 양가 부모에게 정기적 금전의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편부모에

계의 제공률은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가구주가, 부인부모에게의 제공률은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가구주가 높았다.

동거 부모에게 하는 정기적 금전 지원의 평균 금액은 남성가구주, 30대 연령층 가구주,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가구주, 취업중인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남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월 평균 금액은 이혼·별거 가구주가 부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월 평균 금액은 유배우 가구주가 많았다.

〈표 13-30〉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에게				부인부모에게			
	(분석 대상)	제공률	월평균 제공금액 ¹⁾	F(T)	(분석 대상)	제공률	월평균 제공금액 ²⁾	F(T)
성								
남자	(622)	44.9	10.9	(1.3)	(147)	48.0	15.5	(-3.1**)
여자	(13)	38.5	3.7		(51)	23.5	4.1	
연령								
15~29세	(13)	23.1	6.8	(3.5*)	(8)	42.9	14.1	1.3 [#]
30~39세	(117)	36.8	15.7		(70)	31.4	16.5	
40~49세	(282)	49.8	10.9		(63)	50.8	13.2	
50~59세	(171)	45.3	9.0		(54)	44.4	7.3	
60세 이상	(52)	38.5	5.5		(5)	40.0	3.6	
혼인상태								
유배우	(547)	44.8	10.4	0.6	(149)	48.3	15.4	4.4*
사별	(28)	70.4	12.1		(8)	50.0	5.7	
이혼·별거	(59)	33.3	13.2		(42)	19.0	3.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1)	35.8	4.8	7.9***	(14)	57.1	5.7	7.1**
고등학교	(259)	41.7	9.3		(96)	27.1	7.3	
대학 이상	(295)	49.8	13.6		(89)	55.1	19.4	
취업여부								
취업	(586)	46.7	11.0	(2.2**)	(169)	46.2	14.2	(2.4*)
비취업	(48)	41.7	6.7		(30)	16.7	3.1	

주: 1) 남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최근 1년간 동거 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 부모 70.5%, 부인부모 67.8%이었다. 이는 정기적 금전지원 보다 높은 것이다(정기적 금전지원: 남편부모 44.7%, 부인부모 41.9%). 그렇지만 비동거 부모에게 한 비정기적 금전 제공률(남편부모 89.5%, 부인부모 85.0%)보다는 크게 낮은 것이다.

〈표 13-31〉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에게				부인부모에게			
	(분석 대상)	제공률	월평균 제공금액 ¹⁾	F(T)	(분석 대상)	제공률	월평균 제공금액 ²⁾	F(T)
전체	(634)	70.5	48.29		(198)	67.8	49.43	
지역								
동부	(500)	69.0	49.0	(0.5)	(180)	69.1	50.3	(-)
읍·면부	(134)	76.1	45.7		(18)	55.6	40.3	
가구원 수								
1인	-	-	-	8.2***	-	-	-	5.2**
2인	(27)	59.3	31.8		(12)	33.3	20.6	
3~4인	(231)	62.3	48.1		(72)	58.3	38.9	
5인 이상	(377)	76.1	83.1		(116)	77.6	58.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4)	57.1	16.8	8.1***	(4)	25.0	5.0	9.4***
100~200 미만	(74)	62.2	24.7		(25)	32.0	16.5	
200~300 미만	(124)	60.5	33.3		(27)	55.6	25.9	
300~400 미만	(94)	73.4	48.1		(36)	58.3	33.2	
400~500 미만	(127)	82.7	44.4		(35)	94.3	72.3	
500 이상	(199)	73.4	72.0		(69)	79.7	70.1	
옥구소득비								
1 미만	(36)	61.1	24.0	15.8***	(6)	16.7	3.11	10.0***
1~2 미만	(189)	65.6	33.0		(62)	51.6	24.9	
2~3 미만	(239)	73.2	45.6		(65)	75.4	53.5	
3~4 미만	(91)	78.0	53.5		(37)	81.1	68.2	
4 이상	(75)	74.7	103.4		(26)	80.8	82.7	

주: 1) 남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4)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동거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의 최근 1년간 제공금액은 남편부모 48만 2천 9백원, 부인부모 49만 4천 3백원으로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 이는 비동거 부모에게 한 비정기적 금전제공의 평균 금액(남편부모 72만 3천원, 부인부모 58만 4천원)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가구특성별 제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400~500만원 미만의 가구, 욕구소득비 3~4 미만의 가구가 남편 및 부인의 부모에게의 제공률이 모두 높았다. 동거하는 남편부모에게의 제공률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부인부모에게의 제공률은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높았다.

가구특성별 제공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에게 제공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편부모에게의 제공금액은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가, 부인부모에게의 제공금액은 400~5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가구주 특성별 제공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부모에게의 제공률은 남성가구주(70.5%), 30대 연령층 가구주(80.2%), 사별 가구주(77.8%),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가구주(73.3%), 취업중인 가구주(72.2%)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인부모에게의 제공률은 남성가구주(77.7%), 60세 이상 가구주(80.0%), 유배우 가구주(76.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중인 가구주(72.0%)가 높았다.

가구주 특성별 제공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부모에게의 제공금액은 남성가구주(48만 6천원), 30대 연령층(55만 9천원), 사별 가구주(53만 9천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구주(49만 3천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부인부모에게의 제공금액은 남성

가구주(58만 4천원), 40대 연령층(60만 3천원), 유배우 가구주(57만 6천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구주(51만 5천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3-32〉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에게				부인부모에게			
	(분석 대상)	제공률	연평균 제공금액 ¹⁾	F(T)	(분석 대상)	제공률	연평균 제공금액 ²⁾	F(T)
성								
남자	(621)	70.5	48.6	(1.5)	(147)	77.7	58.4	(4.3 ^{***})
여자	(13)	69.2	31.9		(51)	39.2	23.5	
연령								
15~29세	(13)	46.2	24.7	2.0 [#]	(8)	62.5	46.5	1.7
30~39세	(117)	80.2	55.9		(70)	74.3	52.1	
40~49세	(282)	73.1	52.2		(63)	74.2	60.3	
50~59세	(171)	67.6	44.1		(54)	52.7	43.7	
60세 이상	(52)	51.0	29.2		(5)	80.0	17.8	
혼인상태								
유배우	(547)	70.6	48.7	0.4	(149)	76.5	57.6	7.7 ^{**}
사별	(28)	77.8	53.9		(8)	50.0	31.0	
이혼·별거	(59)	66.7	41.6		(42)	40.5	24.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1)	66.7	26.9	7.2 ^{**}	(14)	35.7	28.4	9.5 ^{***}
고등학교	(259)	73.3	43.5		(96)	64.6	41.5	
대학 이상	(295)	69.2	58.3		(89)	77.3	60.8	
취업여부								
취업	(586)	72.2	49.3	1.5	(169)	72.0	51.5	(1.5)
비취업	(48)	48.9	35.6		(30)	46.7	37.8	

주: 1) 남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2012년 조사에서 나타난 15~64세 기혼가구의 동거부모에 대한 비금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외식/음식물 제공률이 남편부모에게 88.5%, 부인부모에게 8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건강용품과 생활용품의 제공이었는데, 남편부모에게 각각 54.6%, 48.9%이었고, 부인부모에게 모두 55.8%이었다. 그 외에도 여가, 전자제품의 제공률이 10~20%대를

보였다. 이는 비동거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금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에게 제공하는 수준은 대부분의 가구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인 가구,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 육구소득비 1 미만의 빈곤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공률을 보였다.

〈표 13-33〉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금전

(단위: 명, %)

특성	남편부모에게 제공률							부인부모에게 제공률						
	(분석 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 음식물	기타	(분석 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 음식물	기타
전체	(636)	19.0	54.6	48.9	14.3	88.5	2.0	(199)	23.7	55.8	55.8	15.1	87.9	3.0
지역														
동부	(501)	16.8	52.7	48.3	14.2	87.6	2.0	(181)	25.4	55.8	56.4	16.0	87.3	3.3
읍·면부	(135)	27.4	61.9	51.1	14.8	91.8	2.2	(18)	5.9	55.6	50.0	5.6	94.4	-
가구원 수														
2인	(29)	3.4	24.1	37.9	3.4	82.8	-	(11)	-	16.7	27.3	8.3	54.5	-
3~4인	(230)	17.0	51.3	47.2	9.5	87.4	3.5	(72)	13.9	66.7	50.0	8.3	87.5	-
5인 이상	(377)	21.5	59.2	50.9	18.1	89.7	1.3	(115)	31.3	53.0	62.6	20.0	92.2	4.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3)	23.1	38.5	42.9	7.1	84.6	-	(4)	25.0	50.0	25.0	-	25.0	-
100~200 미만	(75)	6.7	43.4	47.4	9.2	85.3	2.7	(25)	4.0	60.0	38.5	3.8	84.6	-
200~300 미만	(123)	13.0	48.0	39.8	7.3	85.4	0.8	(28)	10.7	55.6	40.7	10.7	85.2	-
300~400 미만	(94)	24.5	53.2	44.7	18.1	91.5	3.2	(36)	13.9	47.2	61.1	11.1	88.9	-
400~500 미만	(127)	15.7	67.5	50.0	14.2	94.4	1.6	(35)	45.7	77.8	69.4	33.3	91.7	-
500 이상	(199)	25.6	56.3	56.3	19.6	86.9	2.5	(69)	31.9	47.8	62.3	14.5	92.8	8.7
육구소득비														
1 미만	(36)	13.9	48.6	44.4	16.7	80.6	-	(7)	14.3	57.1	42.9	-	57.1	-
1~2 미만	(191)	10.5	49.5	44.0	6.3	86.8	1.6	(62)	6.5	52.4	41.9	9.5	83.9	-
2~3 미만	(239)	21.3	58.6	46.9	20.0	88.3	2.1	(65)	36.9	69.2	63.1	20.0	92.3	4.5
3~4 미만	(91)	17.6	61.5	50.5	16.5	92.3	1.1	(38)	36.8	37.8	68.4	10.5	91.9	5.4
4 이상	(75)	34.7	48.6	68.0	14.7	93.2	4.1	(26)	15.4	53.8	57.7	26.9	96.2	3.8

주: 분석대상은 비금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외식/음식물은 남성가구주, 30대 연령층 가구주, 유배우 가구주,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가구주, 취업중인 가구주가 남편부모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었고, 부인부모에게는 남성가구주, 60세 이상 가구주, 유배우 가구주, 대학 이상 고학력 가구주,

취업중인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표 13-34〉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에게 제공한 비금전

(단위: 명, %)

특성	남편부모에게 제공률							부인부모에게 제공률						
	(분석 대상)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와식/음식물	기타	(분석 대상)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와식/음식물	기타
성														
남자	(623)	19.1	55.0	49.3	14.6	88.6	2.1	(147)	29.1	58.1	61.5	18.2	90.5	4.1
여자	(13)	15.4	38.5	30.8	-	76.9	-	(51)	9.8	49.0	41.2	5.9	80.4	-
연령														
15~29세	(13)	23.1	38.5	61.5	7.7	91.7	-	(8)	-	42.9	37.5	12.5	87.5	-
30~39세	(117)	26.5	59.8	41.9	15.5	92.2	2.6	(70)	31.4	52.9	58.6	11.4	88.6	5.7
40~49세	(283)	17.3	56.9	55.5	18.0	88.7	1.1	(62)	19.4	57.1	62.9	12.7	90.3	3.2
50~59세	(172)	19.8	50.6	42.1	9.4	86.0	3.5	(54)	24.1	57.4	50.0	22.2	83.3	-
60세 이상	(52)	9.6	48.1	49.0	7.7	86.3	1.9	(5)	20.0	80.0	25.0	20.0	100.0	-
혼인상태														
유배우	(547)	21.0	56.9	49.2	15.0	89.4	2.2	(149)	28.9	57.7	60.4	18.1	89.3	4.0
사별	(27)	7.4	66.7	57.1	-	85.7	-	(8)	-	75.0	75.0	-	87.5	-
이혼·별거	(61)	6.6	30.6	44.3	14.8	82.0	-	(42)	9.5	45.2	38.1	7.1	83.3	-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0)	21.3	46.9	44.4	7.4	86.4	1.2	(13)	14.3	50.0	42.9	-	71.4	-
고등학교	(260)	11.5	57.7	46.9	17.6	83.5	2.3	(97)	17.5	51.0	52.1	4.1	88.5	3.1
대학 이상	(295)	25.1	54.1	52.0	13.3	93.2	2.0	(89)	32.6	61.4	62.5	29.5	89.9	3.4
취업여부														
취업	(587)	19.9	55.2	49.1	15.0	89.4	2.0	(169)	21.9	58.9	57.1	16.7	90.5	3.6
비취업	(48)	8.3	49.0	47.9	6.1	77.1	2.0	(30)	33.3	36.7	50.0	3.3	76.7	-

주: 분석대상은 비금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2. 동거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15~64세 기혼가구가 함께 동거하고 계신 양가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파악하였다. 특히, 금전적 지원은 정기적 금전 지원과 비정기적 금전지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정기적 금전지원은 월평균 금액으로, 비정기적 금전지원은 조사당시 최근 1년간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전체 정보는 남편부모와 부인부모를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받은 비율은 남편 부모로부터 3.5%, 부인부모로부터 3.5%로 동일하였다. 이는 비동거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받는 비율(남편부모로부터 0.7%, 부인 부모로부터 0.7%)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다. 정기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의 월평균 수혜금액은 남편부모로부터 2만 1천원, 부인부모로부터 3만 5천원으로 비동거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많았다.

〈표 13-3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부인부모로부터			
	(분석 대상)	수혜율	월평균 수혜금액 ¹⁾	F(T)	(분석 대상)	수혜율	월평균 수혜금액 ²⁾	F(T)
전체	(634)	3.5	2.1		(198)	3.5	3.5	
지역								
동부	(500)	4.0	2.2	(0.3)	(180)	3.9	3.8	(0.9)
읍·면부	(134)	1.5	1.8		(18)	-	-	
가구원 수								
1인	-	-	-	0.9	-	-	-	6.1**
2인	(27)	3.7	0.6		(12)	-	-	
3~4인	(230)	2.2	1.3		(71)	9.9	9.3	
5인 이상	(375)	4.0	2.7		(116)	0.9	0.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4)	21.4	6.9	0.8	(4)	-	-	3.9**
100~200 미만	(74)	1.4	1.4		(26)	23.1	17.5	
200~300 미만	(123)	2.4	1.3		(27)	0.0	-	
300~400 미만	(94)	1.1	1.1		(36)	2.8	0.9	
400~500 미만	(127)	5.5	2.1		(36)	0.0	-	
500 이상	(197)	3.0	3.2		(68)	1.5	3.1	
육구소득비								
1 미만	(36)	11.1	5.4	0.7	(7)	-	-	1.9
1~2 미만	(189)	2.6	1.4		(63)	9.5	7.1	
2~3 미만	(239)	3.8	2.1		(66)	1.5	0.5	
3~4 미만	(90)	2.2	2.4		(37)	-	-	
4 이상	(75)	2.7	2.4		(25)	4.0	8.3	

주: 1) 남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특성별로 수혜율 및 수혜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5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 1 미만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빈곤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은 가구의 평균 금액은 가구특성에 따라 월평균 최저 6천원, 최고 6만 9천원이었다.

부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 3~4인 가구,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 1~2 미만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은 가구의 평균 금액은 가구특성에 따라 월평균 최저 2천원, 최고 17만 5천원으로 격차가 컸다.

가구주 특성별 수혜율 및 수혜금액의 차이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구주는 남편부모로부터 정기적 금전을 받은 경우가 없었던 반면 부인부모(본인 부모)로부터는 12.0%의 높은 수혜율을 보였다. 월평균 수혜금액은 12만 1천원이었다.

30대 연령층을 제외한 15~29세 및 40~59세 연령층의 가구주는 동거하고 있는 남편부모로부터 정기적 금전 수혜를 하고 있었으나, 부인부모로부터는 전혀 수혜를 하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사별 가구주는 동거하고 있는 남편부모또는 부인부모로부터 정기적 금전을 전혀 수혜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는 함께 살기 때문에 별도의 금전지급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부모의 연령이 많아 소득원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13-36〉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부인부모로부터			
	(분석대상)	수혜 율	월평균 수혜금액 ¹⁾	F(T)	(분석대상)	수혜 율	월평균 수혜금액 ²⁾	F(T)
성								
남자	(621)	3.5	2.2	(3.9****)	(147)	0.7	0.5	(-4.1****)
여자	(13)	-	-		(51)	12.0	12.1	
연령								
15~29세	(13)	16.7	14.15	3.9**	(8)	-	-	1.4
30~39세	(117)	6.0	3.8		(70)	10.0	7.2	
40~49세	(282)	3.9	2.4		(63)	-	-	
50~59세	(171)	1.2	0.3		(54)	-	-	
60세 이상	(52)	-	-		(5)	-	-	
혼인상태								
유배우	(547)	3.3	2.2	0.4	(149)	0.7	0.5	9.2
사별	(28)	-	-		(8)	-	-	
이혼·별거	(59)	6.7	2.0		(42)	14.3	11.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1)	-	-	2.0	(14)	-	-	0.7
고등학교	(259)	2.3	1.6		(96)	6.3	5.0	
대학 이상	(295)	5.4	3.2		(89)	1.1	2.4	
취업여부								
취업	(586)	2.7	1.8	(-2.2*)	(169)	1.2	1.5	(-3.8****)
비취업	(48)	10.6	6.2		(30)	19.4	14.7	

주: 1) 남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최근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받은 비율은 남편부모로부터 16.4%, 부인부모로부터 21.2%이었다. 따라서 비정기적 금전 수혜율이 정기적 금전 수혜율보다 크게 높았다. 부모로부터 지난 1년간 비정기적 금전을 수혜받은 가구의 평균 금액은 남편부모로부터는 14만 1천원, 부인부모로부터는 18만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구특성별 비정기적 금전 수혜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가구특성에 따라 최저 3.7%, 최고 22.7%의 차이를 보였다. 수혜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

을수록, 가구소득 400~500만원 미만 가구, 욕구소득비 2~3 미만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년간 수혜금액은 가구특성에 따라 격차가 다소 컸는데, 최저 7천원, 최고 34만 4천원이었다. 동부지역 거주 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300~400만원 미만의 가구, 욕구소득비 2~3 미만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3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부인부모로부터			
	(분석대상)	수혜율	연평균 수혜금액 ¹⁾	F(T)	(분석대상)	수혜율	연평균 수혜금액 ²⁾	F(T)
전체	(633)	16.4	14.1		(198)	21.2	18.0	
지역								
동부	(499)	17.4	16.1	(1.9)	(180)	22.8	19.6	(3.2) **
읍·면부	(134)	12.7	6.4		(18)	5.6	2.2	
가구원 수								
1인	-	-	-	8.3***	-	-	-	1.6
2인	(27)	3.7	0.7		(12)	-	-	
3~4인	(230)	7.4	4.2		(72)	15.3	10.5	
5인 이상	(375)	22.7	21.1		(115)	27.0	24.6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3)	7.7	3.4	4.2**	(4)	-	-	0.4
100~200 미만	(74)	12.2	3.8		(26)	23.1	10.9	
200~300 미만	(123)	13.8	7.7		(28)	14.3	10.5	
300~400 미만	(94)	19.1	34.4		(36)	19.4	15.2	
400~500 미만	(127)	20.5	12.2		(35)	20.0	27.8	
500 이상	(198)	15.2	11.4		(68)	26.5	21.4	
욕구소득비								
1 미만	(36)	8.3	2.8	2.2 [#]	(7)	-	-	1.1
1~2 미만	(189)	17.5	8.9		(62)	16.1	10.5	
2~3 미만	(239)	19.2	20.8		(65)	26.2	24.6	
3~4 미만	(90)	7.8	9.0		(37)	29.7	30.7	
4 이상	(75)	14.7	10.0		(26)	15.4	6.9	

주: 1) 남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부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가구특성에 따라 최저 5.6%, 최고 29.7%의 차이를 보였다. 수혜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 욕구소득비 3~4 미만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년간 수혜금액은 가구특성에 따라 격차가 다소 컸는데, 최저 2만 2천원, 최고 30만 7천원이었다.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400~500만원 미만의 가구, 욕구소득비 3~4 미만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3-38〉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정기적 금전

(단위: 명, %, 만원)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부인부모로부터			
	(분석대상)	수혜율	연평균 수혜금액 ¹⁾	F(T)	(분석대상)	수혜율	연평균 수혜금액 ²⁾	F(T)
성								
남자	(621)	16.3	14.3	(-2.3 [*])	(147)	21.8	20.6	(-1.4)
여자	(13)	15.4	5.2		(51)	17.6	10.7	
연령								
15~29세	(13)	16.7	6.8	17.2 ^{***}	(8)	-	-	(3.8 ^{**})
30~39세	(117)	32.5	48.8		(70)	42.0	40.4	
40~49세	(282)	14.9	7.7		(63)	16.1	7.5	
50~59세	(171)	8.2	4.2		(54)	3.7	3.1	
60세 이상	(52)	13.7	4.8		(5)	20.0	29.6	
혼인상태								
유배우	(547)	17.8	15.6	1.8	(149)	21.6	20.4	0.4
사별	(28)	3.7	1.5		(8)	12.5	12.7	
이혼·별거	(59)	8.5	5.7		(42)	19.0	10.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1)	9.9	5.0	7.5 ^{***}	(14)	7.1	9.6	0.1
고등학교	(259)	14.7	7.1		(96)	26.8	18.5	
대학 이상	(295)	19.7	22.7		(89)	17.0	18.8	
취업여부								
취업	(586)	17.1	14.9	(-1.5 ^{***})	(169)	15.6	13.5	(-2.4)
비취업	(48)	6.4	3.4		(30)	50.0	43.2	

주: 1) 남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주 특성별 수혜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성 가구주, 30대 연령층 가구주, 유배우 가구주가 남편부모와 부인부모로부터의 비정기적 금전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비례하였으나, 부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가구주가 가장 높았다. 또한 남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취업중인 가구주가 비취업 가구주보다 높았으나, 부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비취업 가구주가 취업중인 가구주보다 높았다.

가구주 특성별 수혜금액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성가구주, 30대 연령층의 가구주, 유배우 상태의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부모와 부인부모 모두로부터의 비정기적 금전지원의 수혜금액이 많았다. 그렇지만 가구주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상이하였는데, 남편부모로부터의 수혜금액은 취업 가구주가 많았고, 부인부모로부터의 수혜금액은 비취업 가구주가 많았다.

15~64세 기혼가구의 동거부모로부터의 비금전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외식/음식물 수혜율이 남편부모로부터 38.3%, 부인부모로부터 58.6%로 가장 높았으며, 부인부모로부터 훨씬 높은 수혜율을 보였다. 다음은 생활용품이었는데, 남편부모로부터 19.1%, 부인부모로부터 35.7%로 큰 격차를 보였다. 그 외에도 건강용품, 전자제품, 여가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가구특성 중에서 2인 가구,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구, 욕구소득 비 2 미만의 빈곤가구는 동거하고 있는 남편부모 또는 부인부모로부터 비금전 지원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부모가 금전적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을 할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13-39〉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금전

(단위: 명, %)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수혜율							부인부모로부터 수혜율						
	(분석 대상)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분석 대상)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전체	(634)	3.9	10.7	19.1	5.0	38.3	1.3	(198)	3.5	11.1	35.7	4.5	58.6	1.0
지역														
동부	(499)	4.0	11.6	17.4	5.8	36.5	1.2	(180)	3.3	11.6	36.5	5.0	58.6	1.1
읍·면부	(135)	3.7	7.4	25.2	2.2	45.2	1.5	(18)	5.6	5.6	27.8	-	58.8	-
가구원 수														
1인	-	-	-	-	-	-	-	-	-	-	-	-	-	-
2인	(27)	-	7.4	11.1	3.7	48.1	3.7	(12)	-	-	9.1	-	9.1	-
3~4인	(230)	1.3	3.5	12.2	0.9	29.4	0.9	(72)	-	5.6	22.2	1.4	45.8	-
5인 이상	(376)	5.6	15.4	23.9	7.7	43.2	1.3	(115)	5.2	15.7	47.0	6.1	71.3	1.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3)	-	14.3	30.8	7.7	38.5	7.7	(4)	-	-	25.0	-	25.0	-
100~200 미만	(73)	1.4	4.1	13.5	-	29.7	1.4	(25)	-	-	24.0	-	48.0	-
200~300 미만	(124)	0.8	3.2	9.8	1.6	35.0	1.6	(27)	-	3.7	22.2	-	46.4	-
300~400 미만	(94)	10.6	10.6	18.1	9.6	46.8	1.1	(36)	5.6	16.7	27.8	11.1	59.5	-
400~500 미만	(127)	3.1	17.3	26.2	8.7	42.1	0.8	(36)	5.6	22.2	58.3	5.6	86.1	-
500 이상	(199)	4.5	12.6	20.6	3.0	36.4	0.5	(69)	2.9	10.1	40.6	4.3	55.1	2.9
육구소득비														
1 미만	(36)	-	5.6	16.7	2.8	41.7	5.6	(7)	-	-	14.3	-	33.3	-
1~2 미만	(189)	2.6	5.3	14.3	2.1	36.0	1.6	(62)	3.2	7.9	25.4	3.2	57.1	-
2~3 미만	(239)	5.4	12.9	21.3	8.4	42.1	1.3	(66)	4.5	20.0	43.9	7.7	64.6	-
3~4 미만	(91)	5.5	18.7	23.1	2.2	29.7	-	(37)	2.7	8.1	54.1	2.6	63.2	2.7
4 이상	(74)	2.7	5.4	18.7	2.7	40.5	-	(26)	3.8	3.8	23.1	3.8	50.0	-

주: 분석대상은 비금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가장 많이 수혜하는 외식/음식물의 경우, 남편부모로부터의 수혜율은 남성가구주,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별거상태의 가구주, 대학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의 가구주, 취업중인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편부모로부터 보다 훨씬 높은 수혜율을 보인 부인부모로부터의 비금전 수혜율은 남성가구주,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상태의 가구주,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가구주, 비취업 가구주가 높았다.

〈표 13-40〉 가구주 특성별 1년간 동거부모로부터 받은 비금전

(단위: 명, %)

특성	남편부모로부터 수혜율							부인부모로부터 수혜율						
	(분석 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분석 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성														
남자	(621)	4.0	11.0	19.5	5.2	38.8	1.3	(147)	2.7	11.5	38.1	4.1	60.8	1.4
여자	(13)	-	-	-	-	15.4	-	(51)	3.9	9.8	29.4	5.9	52.9	-
연령														
15~29세	(13)	15.4	23.1	38.5	15.4	92.3	7.7	(8)	-	25.0	50.0	-	75.0	-
30~39세	(116)	9.5	12.9	31.9	12.8	56.9	1.7	(70)	8.6	18.6	52.9	8.6	75.7	1.4
40~49세	(282)	3.2	13.8	22.0	4.6	37.2	0.4	(62)	-	8.1	25.8	3.2	56.5	-
50~59세	(171)	0.6	5.3	9.4	1.2	26.9	1.8	(54)	-	1.9	22.2	1.9	38.9	-
60세 이상	(51)	2.0	2.0	1.9	2.0	26.9	-	(4)	-	-	25.0	-	25.0	-
혼인상태														
유배우	(547)	4.4	11.3	20.1	5.7	38.8	1.1	(148)	4.1	12.8	39.2	5.4	61.1	1.3
사별	(28)	-	7.4	3.6	-	14.3	-	(8)	-	12.5	12.5	12.5	50.0	-
이혼·별거	(60)	1.7	6.7	16.9	1.7	45.8	1.7	(42)	-	4.8	28.6	-	50.0	-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1)	-	4.9	8.6	-	34.6	2.5	(14)	-	-	-	-	28.6	-
고등학교	(259)	1.9	13.1	21.6	5.4	32.0	1.2	(96)	3.1	11.5	38.1	2.1	62.5	-
대학 이상	(294)	6.8	10.2	19.7	6.1	44.9	1.0	(88)	3.4	12.4	39.3	7.9	58.4	1.1
취업여부														
취업	(586)	4.1	11.1	19.8	5.1	38.7	1.2	(168)	2.4	11.3	31.5	4.1	56.8	1.2
비취업	(48)	2.1	6.4	10.6	4.2	31.9	2.1	(30)	6.7	10.0	60.0	6.7	66.7	-

주: 분석대상은 비금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사함.

자료: 본 조사결과

제4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15~64세 조사완료가구가 비동거 및 가구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상호 지원관계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를 직접 대면과 비대면 접촉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어서 비동거 가구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게 제공한 지원과 제공받은 지원을 정기적 금전, 비정기적 금전, 비금전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비동거 가구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상호지원 서비스를 집안일, 간병, 자녀돌봄, 기타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동거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에게 제공한 지원과 제공받은 지원을 정기적 금전, 비정기적 금전, 비금전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이들 모든 정기적 금전, 비정기적 금전, 비금전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가구주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가구주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여부에 따라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 남편의 부모인지, 부인의 부모인지로 분류하였다.

많은 분석결과를 보다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의 접촉빈도는 비대면 접촉이 대면접촉보다 현저히 많았는데, 비대면 접촉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았고, 대면접촉은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가 가장 많았다. 남편부모 및 부인부모와의 접촉은 대면, 비대면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다. 대면접촉은 남편부모가 다소 많고, 비대면 접촉은 부인부모와 다소 많았다.

〈표 13-41〉 15-64세 기혼가구의 비동거 양가 부모와의 대면 및 비대면 접촉 빈도

(단위: %, 명)

특성		①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②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한달에 두번 정도 ⑤한달에 한번 정도 ⑥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⑦일년에 서너번 정도 ⑧일년에 한두번 정도 ⑨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면	비동거 남편부모	4.4	5.0	11.4	18.2	20.0	20.6	13.4	5.5	1.5	100.0(5,566)
	비동거 부인부모	5.6	4.9	9.5	15.0	17.8	19.6	15.1	9.5	2.9	100.0(6,646)
비대면	비동거 남편부모	8.5	18.3	27.3	19.5	15.5	5.0	2.2	1.7	1.9	100.0(5,565)
	비동거 부인부모	15.6	20.8	24.2	16.4	13.8	4.0	2.1	1.5	1.6	100.0(6,647)

자료: 본 조사결과

비동거 부모와의 정기적 금전 교류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부모로부터 받는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정기적 금전은 남편부모에게 제

공하는 비율이 부인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비동거 부모와의 비정기적 금전 교류 또한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부모로부터 받는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비정기적 금전은 남편부모와 부인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도 유사한 수준이었고, 제공을 받는 비율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기적 금액과 비정기적 금액이 많지는 않았으며, 부모로부터 제공을 받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제공 및 수혜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전체 가구가 비동거 부모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과 비동거부모로부터 제공받는 금전적 지원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3-42〉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비동거 양가 부모와의 금전적 교류

(단위: 명, %, 만원)

특성	비동거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금전					
	남편부모에게			부인부모에게		
	(분석대상)	제공률	평균 제공금액 ¹⁾	(분석대상)	제공률	평균 제공금액 ²⁾
정기적 금전	(5,536)	30.9	월 8.2	(6,614)	20.2	월 4.5
비정기적 금전	(7,702)	89.5	연 72.3	(6,617)	85.0	연 58.4
	비동거 양가 부모로부터 수혜한 금전					
	남편부모로부터			부인부모로부터		
	(분석대상)	수혜율	평균 수혜금액 ³⁾	(분석대상)	수혜율	평균 수혜금액 ⁴⁾
정기적 금전	(5,547)	0.7	월 0.5	(6,627)	0.7	월 0.3
비정기적 금전	(5,545)	19.8	연 43.1	(6,623)	18.8	연 31.9

주: 1) 남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남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4) 부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비동거 부모와의 비금전 교류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부모로부터 수혜받는 비율도 낮지는 않았다. 또한 금전적 교류와는 달리, 비금전 교류는 남편부모와 부인부모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도 특징이다.

비금전 교류 중에서 외식/음식물 제공이 상호간에 매우 강하게 나타났

는데, 이는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건강제 품이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매우 강하였음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13-43〉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비동거 양가 부모와의 비금전 교류

(단위: 명, %)

특성	부모에게 제공률							부모로부터 수혜율						
	(분석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 음식물	기타	(분석대상)	여가	건강 용품	생활 용품	전자 제품	외식/ 음식물	기타
남편부모	(5,561)	15.3	37.1	36.9	13.7	85.7	1.2	(5,561)	1.2	5.0	10.8	2.7	56.4	0.4
부인부모	(6,641)	13.9	34.4	36.2	10.7	84.4	1.2	(6,641)	1.5	6.7	13.9	2.5	59.7	0.3

주: 분석대상은 비금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비동거 부모에게 집안일을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인자녀의 집 안일을 도와주는 부인부모님들도 다수 있었다. 부모님에 대한 간병서비스는 남편부모와 부인부모 간에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음에서 집안 부모 님이 편찮을 시 비동거 자녀가 도움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딸, 아들 구분없이 유사한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44〉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비동거 양가 부모와 상호 교류한 서비스

(단위: 명, %)

특성	비동거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							
	부(父)에게 제공률				모(母)에게 제공률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간병	집안일	기타
남편부모	(3,213)	11.6	39.2	2.0	(5,267)	14.6	44.3	2.5
부인부모	(3,838)	8.3	31.9	1.9	(6,336)	14.0	37.9	2.3
	비동거 양가 부모로부터 수혜한 서비스							
	부(父)로부터 수혜율				모(母)로부터 수혜율			
	(분석대상)	자녀돌봄	집안일	기타	(분석대상)	자녀돌봄	집안일	기타
남편부모	(3,213)	8.7	2.4	0.2	(5,263)	11.9	8.8	0.2
부인부모	(3,838)	10.6	4.6	0.3	(6,336)	17.6	15.5	0.5

주: 분석대상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양가 부모님에게의 정기적 금전 제공은 비동거 양가 부모님에게의 정기적 금전 제공보다 많았으며, 지원금액도 많았다. 대신에 비정기적 금전은 비동거 양가 부모님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며, 지원금액도 많았다. 동거부모님이 성인자녀에게 비정기적 금전을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지원금액도 많았다. 그렇지만 비동거부모님이 성인자녀에게 비정기적 금전을 지원하는 금액은 동거부모님보다 적었으나 지원율은 높았다.

〈표 13-45〉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동거 양가 부모와의 금전적 교류

(단위: 명, %, 만원)

특성	동거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금전					
	남편부모에게			부인부모에게		
	(분석대상)	제공률	평균 제공금액 ¹⁾	(분석대상)	제공률	평균 제공금액 ²⁾
정기적 금전	(635)	44.7	월 10.72	(198)	41.9	월 12.56
비정기적 금전	(634)	70.5	연 48.29	(198)	67.8	연 49.43
	동거 양가 부모로부터 수혜한 금전					
	남편부모로부터			부인부모로부터		
	(분석대상)	수혜율	평균 수혜금액 ³⁾	(분석대상)	수혜율	평균 수혜금액 ⁴⁾
정기적 금전	(634)	3.5	월 2.13	(198)	3.5	월 3.48
비정기적 금전	(633)	16.4	연 14.07	(198)	21.2	연 18.01

주: 1) 남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남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4) 부인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동거부모와의 비금전 교류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부모로부터 수혜받는 비율도 결코 낮지는 않았다. 또한 금전적 교류와는 달리, 비금전 교류는 비금전 유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남편부모와 부인부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도 특징이다. 비금전 교류 중에서 외식/음식물 제공이 상호간에 매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함께 살면서도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은 가족의 화목과 응집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46〉 15~64세 기혼가구의 1년간 동거 양가 부모와의 비금전 교류

(단위: 명, %)

특성	부모에게 제공물							부모로부터 수혜물						
	(분석 대상)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분석 대상)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음식물	기타
남편부모	(636)	19.0	54.6	48.9	14.3	88.5	2.0	(634)	3.9	10.7	19.1	5.0	38.3	1.3
부인부모	(199)	23.7	55.8	55.8	15.1	87.9	3.0	(198)	3.5	11.1	35.7	4.5	58.6	1.0

주: 분석대상은 비금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가장 많은 수(數)를 제시함.
 자료: 본 조사결과

본 장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우리나라 성인자녀와 노부모는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지만 강한 가족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면접촉인 ‘만남’이 대체로 자주 있으며, 비대면 접촉은 더 자주 있음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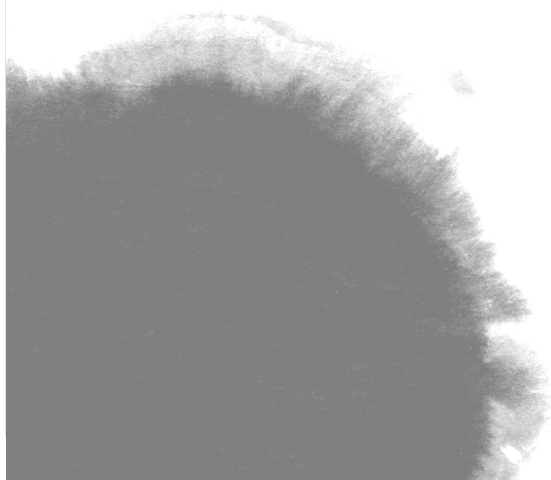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둘째, 비동거 노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기혼가구의 비동거 부모와의 금전적 교류는 부모에게의 제공이 부모로부터의 제공보다는 많았으나 실제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이는 기혼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서 기인되는 것이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비금전 교류가 매우 강하였으며, 특히 직접 만남을 통한 비금전 교류와 함께 만나지 못하더라도 택배를 통한 선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님댁 방문과 부모님이 기혼자녀 집을 방문할 때 많이 발생되는 외식 및 음식물 대접이 많았고,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교류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넷째, 비동거 부모와의 돌봄서비스와 가사 지원이 상호 있음은 강한 가족유대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자원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집안일을 상호 지원하고, 간병 및 자녀돌봄 서비스를 상호 지원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14장

가족생활의 질



제14장 가족생활의 질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은 한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가족생활의 질’(Family Quality Of Life)은 한 개인이 가족생활 내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이라 볼 수 있다.

생활의 질 또는 가족생활의 질이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장애를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가진 가족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정서적 안녕을 파악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가족과 개인의 삶을 분리할 수 없으며, 가족생활의 질이 개인의 삶에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문제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모든 가족에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장되었다.

2008년에 실시된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생활만족도가 꼽혔다(김승권, 2008). 이는 가정에서의 생활의 질이 개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행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

설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가족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을 살피는 동시에 전년 대비 가족생활 및 각 영역에서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성공, 안정, 재산, 권력, 배우자나 자식의 잘됨, 자녀의 효성, 가족원의 건강 등을 가족의 행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조사하였고,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정에서의 지위 및 역할, 가사노동분담, 대화, 친밀도, 이웃과의 관계, 의식주수준, 갈등문제해결, 가족문화, 여가활동, 건강, 개인의 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금까지의 출산력 조사의 항목과 동일한 것으로 시계열자료를 구축하여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가족 행복의 요건을 규명하고자 26개의 요인을 찾아 이 항목들이 각각 가족의 행복에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판단하게 한 결과, 가족 성원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가족간의 믿음과 신뢰, 이해, 인정, 존중, 편안함 등도 행복한 가족을 위한 주요 요건임이 확인되었다(박민자, 2006). 또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생활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은 가족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박민자, 2006; 임재현, 2011).

한편 가족과의 교류가 중년기의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존재한다(김경미·류승아·최인철, 2012).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40-6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족(배우자와 자녀)과의 식사빈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통화가 잦을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시간이 많을수록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개인의 정신적 건강과 성숙정도가 개개인의 집합인 가족의 행복과 만족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다수있다 (Bandura, Caprara & Barbaranelli, et al., 2011; 이은정, 2011; 박경환, 2010). 이들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분화의 수준 등이 높을수록 가족의 행복도 높으며 가족이 건강성도 높았다.

3. 정책동향

가족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의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11~’15)인 ‘2015 가족행복 더하기’에서 계획 및 제안하고 있는 정책 과제들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추진계획 중 ‘가족가치의 확산’이라는 정책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여가문화 활성화와 남성의 가정내 역할 교육 강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등은 가족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1) 가족단위 여가 활성화 기반 구축

여성가족부는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생활권내 가족여가 정보 제공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 문화기반시설 확대 지원,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단위 자연 체험형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등의 추진을 통하여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2) 취약계층 문화체험 기회 확대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도 중 하나는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한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이다. 특히, 문화바우처 및 관광바우처를 통하여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약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여 소외가족들이 가족여가를 누릴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

제2절 가족 행복의 요건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의 건강’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정이 안정되어야 함’ 41.7%이었다.

〈표 14-1〉 15~64세 기혼가구의 가족 행복의 중요요건

(단위: %, 명)

요건	비율
가족원 모두 일에 성공하여야 함	3.0
가정이 안정되어야 함	41.7
권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함	3.9
배우자가 사회에 나가 제 구실을 하려면 함	3.5
자식이 사회에 나가 제 구실을 하려면 함	2.8
효성이 뛰어난 자식들이 있어야 함	0.4
가족의 건강	44.4
기타	0.1
계(수)	100.0(10,049)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 행복의 중요요건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 2인인 가구,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2 미만과 4 이상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가구는 ‘가족의 건강’이 가장 많았다. 동부지역 거주가구, 1인 가구, 가구소득이 많은 가구, 2~4 미만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가구는 ‘가정의 안정’이 가장 많았다.

〈표 14-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 행복의 중요요건

(단위: %, 명)

특성	① 가족원 모두 일에 성공				② 가정의 안정				③ 권력이나 재산		
	④ 배우자의 경제·사회활동				⑤ 자식의 경제·사회활동						
	⑥ 효성이 뛰어난 자식들				⑦ 가족의 건강				⑧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χ^2	
전체	3.0	41.7	3.9	3.5	2.8	0.4	44.4	0.1	100.0(10,049)		
지역											
동부	3.1	42.6	3.9	3.6	2.7	0.4	43.6	0.1	100.0(8,672)	26.8***	
읍·면부	2.6	36.2	4.1	3.3	3.4	0.6	49.7	0.1	100.0(1,377)		
가구원 수											
1인	2.6	47.0	4.9	3.4	3.8	0.8	37.5	-	100.0(853)	70.3***	
2인	2.8	38.4	2.9	2.9	3.2	0.2	49.6	0.1	100.0(2,242)		
3~4인	3.2	41.7	4.1	3.9	2.6	0.5	43.9	0.2	100.0(5,901)		
5인 이상	2.8	44.7	4.5	3.1	2.5	0.4	42.0	-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6	38.4	3.1	3.3	4.2	0.4	48.0	0.0	100.0(456)	83.6***	
100~200 미만	2.8	40.8	5.0	4.0	3.4	0.3	43.6	0.0	100.0(1,240)		
200~300 미만	3.1	41.6	5.0	5.0	2.3	0.1	42.8	0.0	100.0(1,950)		
300~400 미만	2.8	40.5	3.7	3.8	2.8	0.2	45.8	0.2	100.0(1,981)		
400~500 미만	3.3	42.3	2.7	3.2	2.7	0.5	45.1	0.2	100.0(1,538)		
500 이상	3.2	43.6	3.7	2.3	2.8	0.8	43.6	0.2	100.0(2,815)		
욕구소득비											
1 미만	2.4	40.0	3.3	4.7	3.3	-	46.3	-	100.0(423)	97.6***	
1~2 미만	2.8	39.8	5.0	3.6	2.9	0.1	45.7	-	100.0(2,082)		
2~3 미만	3.4	42.5	3.9	5.2	2.3	0.4	42.4	0.1	100.0(3,134)		
3~4 미만	2.9	43.5	3.5	2.0	3.5	0.5	43.9	0.3	100.0(1,911)		
4 이상	3.0	41.6	3.5	2.3	2.9	0.8	45.6	0.2	100.0(2,428)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 행복의 중요요건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여성 응답자, 연령이 많을수록, 유배우 및 사별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의 건강’이 가장 많았다. ‘가정의 안정’은 남성 응답자, 연령이 적을수록, 이혼·별거 및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4-3〉 응답자 특성별 가족 행복의 중요요건

특성	(단위: %, 명)									χ ²
	① 가족원 모두 일에 성공				② 가정의 안정				③ 권력이나 재산	
	④ 배우자의 경제·사회활동				⑤ 자식의 경제·사회활동					
	⑥ 효성이 뛰어난 자식들				⑦ 가족의 건강				⑧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성										
남자	3.1	47.5	4.1	1.3	2.6	0.2	41.0	0.2	100.0(1,820)	56.9***
여자	3.0	40.5	3.9	4.0	2.9	0.5	45.2	0.1	100.0(8,229)	
연령										
15~29세	2.7	50.6	6.1	7.3	0.2	-	33.1	-	100.0(411)	228.5***
30~39세	3.5	45.3	4.6	4.1	1.3	0.4	40.8	0.1	100.0(2,527)	
40~49세	3.3	42.1	4.1	3.7	2.2	0.5	43.9	0.1	100.0(3,346)	
50~59세	2.4	39.2	3.3	2.8	4.5	0.3	47.3	0.3	100.0(3,089)	
60세 이상	3.0	33.1	1.8	1.5	5.5	0.7	54.5	-	100.0(674)	
혼인상태										
유배우	3.2	41.0	3.7	3.8	2.5	0.4	45.3	0.1	100.0(8,306)	194.6***
사별	2.3	31.4	2.7	0.6	6.4	0.8	55.9	-	100.0(641)	
이혼·별거	2.2	53.4	6.2	3.4	3.3	0.2	31.4	-	100.0(1,10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	35.5	2.8	2.2	3.4	0.4	52.7	0.1	100.0(1,886)	120.0***
고등학교	3.0	40.4	4.4	4.1	3.0	0.3	44.7	0.1	100.0(4,557)	
대학 이상	3.1	46.6	3.9	3.4	2.3	0.6	39.8	0.2	100.0(3,605)	
취업여부										
취업	3.2	42.5	3.6	3.2	2.8	0.5	44.1	0.1	100.0(5,630)	15.0***
비취업	2.9	40.8	4.4	3.9	2.8	0.3	44.8	0.1	100.0(4,417)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가족생활 만족도

1. 가족생활 비교(1년전 대비)

가족생활을 1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동일함’이 6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더 좋아짐’ 20.3%, ‘더 나빠짐’ 15.0%의 순이었다.

〈표 14-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생활 비교(1년 전 대비)

(단위: %, 명)						
특성	더 나빠짐	동일함	더 좋아짐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15.0	63.9	20.3	0.8	100.0(10,040)	
지역						
동부	14.9	64.3	19.9	0.8	100.0(8,665)	7.8*
읍·면부	15.5	61.6	22.5	0.4	100.0(1,375)	
가구원 수						
1인	31.2	60.9	6.5	1.4	100.0(850)	286.6***
2인	15.6	65.4	18.3	0.6	100.0(2,234)	
3~4인	12.7	64.4	22.3	0.7	100.0(5,904)	
5인 이상	13.9	60.5	24.4	1.1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6.8	55.7	6.6	0.9	100.0(454)	649.5***
100~200 미만	27.3	60.9	10.8	1.0	100.0(1,241)	
200~300 미만	19.0	64.4	15.7	0.9	100.0(1,948)	
300~400 미만	13.1	65.5	20.5	0.9	100.0(1,977)	
400~500 미만	11.0	64.0	23.9	1.0	100.0(1,537)	
500 이상	6.9	65.1	27.5	0.4	100.0(2,814)	
가구소득비						
1 미만	36.4	53.2	9.5	0.9	100.0(423)	499.7***
1~2 미만	23.5	61.2	14.4	0.9	100.0(2,084)	
2~3 미만	14.1	66.2	18.6	1.1	100.0(3,131)	
3~4 미만	12.5	64.8	21.8	0.9	100.0(1,911)	
4 이상	7.2	64.5	28.1	0.3	100.0(2,423)	

주: * p<.05,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1년 전과 비교한 가족생활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 2~3인의 가구,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의 가구, 2 이상의 욕구소득비를 가진 가구는 ‘동일함’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더 좋아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년 전 대비 가족생활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여성 응답자, 연령이 많을수록, 사별 상태의 응답자,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응답자, 비취업 상태의 응답자는 ‘동일함’이 가장 많았다. 이와 다르게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는 ‘더 좋아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4-5〉 응답자 특성별 가족생활 비교(1년 전 대비)

						(단위: %, 명)
특성	더 나빠짐	동일함	더 좋아짐	모르겠음	계(수)	χ^2
성						
남자	22.9	62.7	13.6	0.9	100.0(1,813)	141.2 ***
여자	13.4	64.2	21.8	0.8	100.0(8,227)	
연령						
15~29세	11.7	50.9	35.5	1.9	100.0(411)	524.4 ***
30~39세	10.3	56.7	31.9	1.1	100.0(2,519)	
40~49세	14.3	65.1	19.7	0.8	100.0(3,349)	
50~59세	18.8	68.7	12.1	0.3	100.0(3,089)	
60세 이상	20.8	70.6	7.6	1.0	100.0(674)	
혼인상태						
유배우	12.3	64.3	22.7	0.7	100.0(8,298)	401.0 ***
사별	21.9	68.9	8.1	1.1	100.0(639)	
이혼·별거	31.2	58.2	9.3	1.3	100.0(1,10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7	64.1	8.5	0.7	100.0(1,886)	452.0 ***
고등학교	16.8	64.7	17.9	0.7	100.0(4,552)	
대학 이상	8.9	63.1	27.0	1.0	100.0(3,602)	
취업여부						
취업	15.3	62.9	21.0	0.7	100.0(5,624)	6.8 [#]
비취업	14.7	65.1	19.3	0.9	100.0(4,41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년 전 대비 가족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더 나빠진 가장 큰 이유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80.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원의 건강상의 어려움’ 8.5%, ‘가족간의 대화나 공유시간 부족’ 6.7%의 순이었다.

〈표 14-6〉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생활이 더 나빠진 주된 이유(1년 전 대비)

(단위: %, 명)

특성	① 가족간의 대화나 공유시간 부족 ② 가족원이 함께 하는 문화생활 거의 없음 ③ 경제적 어려움 ④ 가족이 사회에 부적응 ⑤ 가족문제를 가족 밖에서 해결 ⑥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제가 거의 없음 ⑦ 가족원의 건강상의 어려움 ⑧ 기타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6.7	1.9	80.5	0.4	0.7	0.4	8.5	0.9	100.0(1,497)	
지역										
동부	6.6	1.9	81.1	0.3	0.8	0.4	8.1	0.8	100.0(1,283)	-
읍·면부	7.0	1.9	77.1	0.9	0.5	0.5	10.7	1.4	100.0(214)	
가구원 수										
1인	6.4	0.4	75.8	-	3.0	1.1	11.3	1.9	100.0(265)	-
2인	3.4	1.4	84.8	0.3	-	0.9	9.2	-	100.0(348)	
3~4인	8.5	2.6	80.4	0.7	0.1	0.1	6.4	1.0	100.0(739)	
5인 이상	4.8	3.4	78.2	-	0.7	-	12.9	-	100.0(14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2	0.6	75.4	-	1.2	-	17.4	1.2	100.0(167)	-
100~200 미만	5.0	0.6	86.1	0.6	0.3	0.3	5.9	1.2	100.0(339)	
200~300 미만	6.2	2.2	82.4	0.5	1.1	0.8	6.5	0.3	100.0(370)	
300~400 미만	8.8	1.2	78.0	-	-	0.8	10.0	1.2	100.0(250)	
400~500 미만	5.9	4.1	80.5	0.0	0.6	0.0	8.9	0.0	100.0(169)	
500 이상	10.3	4.6	74.2	0.5	1.5	-	7.2	1.5	100.0(194)	
육구소득비										
1 미만	3.2	0.6	77.3	1.3	-	-	16.9	0.6	100.0(154)	-
1~2 미만	3.7	1.2	86.5	0.2	0.4	-	7.2	0.8	100.0(489)	
2~3 미만	10.4	1.6	79.9	0.2	0.2	0.7	6.3	0.7	100.0(432)	
3~4 미만	5.9	4.6	80.7	-	0.4	1.3	6.3	0.8	100.0(238)	
4 이상	8.7	2.3	68.8	0.6	4.0	-	13.9	1.7	100.0(173)	

주: 1) 가족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생활이 더 나빠진 주된 이유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성 응답자, 15~29세 응답자, 이혼·별거 및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응답자, 취업 상태의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한편, ‘가족원의 건강상의 어려움’은 여성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사별 상태의 응답자,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응답자, 비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4-7〉 응답자 특성별 가족생활이 더 나빠진 주된 이유(1년 전 대비)

(단위: %, 명)

특성	① 가족간의 대화나 공유시간 부족 ② 가족원이 함께 하는 문화생활 거의 없음 ③ 경제적 어려움 ④ 가족이 사회에 부적응 ⑤ 가족문제를 가족 밖에서 해결 ⑥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제가 거의 없음 ⑦ 가족원의 건강상의 어려움 ⑧ 기타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										
남자	4.8	1.7	81.1	0.5	1.7	0.7	8.0	1.5	100.0(413)	-
여자	7.3	2.0	80.4	0.3	0.3	0.3	8.8	0.6	100.0(1,082)	
연령										
15~29세	0.0	12.5	85.4	-	-	-	2.1	-	100.0(48)	-
30~39세	12.4	2.8	76.9	0.4	2.4	0.4	3.6	1.2	100.0(251)	
40~49세	9.4	1.7	82.7	-	0.2	0.4	4.8	0.8	100.0(479)	
50~59세	2.9	1.2	82.6	0.9	0.5	0.5	10.3	1.0	100.0(582)	
60세 이상	5.0	1.4	67.9	-	-	0.7	24.3	0.7	100.0(140)	
혼인상태										
유배우	7.3	2.3	81.2	0.6	0.3	0.2	7.7	0.4	100.0(1,013)	-
사별	5.0	-	70.2	-	-	1.4	20.6	2.8	100.0(141)	
이혼·별거	5.2	1.7	82.6	-	2.3	0.6	5.8	1.7	100.0(34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	0.9	80.5	-	0.6	0.2	13.0	1.5	100.0(462)	-
고등학교	7.0	1.4	82.7	0.4	0.3	0.7	6.9	0.7	100.0(715)	
대학 이상	10.6	4.7	75.6	0.6	1.9	0.3	5.9	0.3	100.0(320)	
취업여부										
취업	6.4	1.9	81.4	0.5	1.0	0.5	7.2	1.2	100.0(858)	-
비취업	6.9	2.0	79.5	0.3	0.2	0.3	10.3	0.5	100.0(638)	

주: 1) 가족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만 대상으로 분석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2. 가족생활 만족도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생활 만족도를 ‘본인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 분담 정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 ‘가족의 의식주 수준’,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가족원의 건강수준’, ‘삶에서의 성취 정도’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54.2%가 만족하고 있었고, 만족도는 가구원 수 3~4인의 가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14-8〉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 내에서 「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전체	0.4	5.5	39.9	49.8	4.4	100.0(10,020)		3.52	
지역									
동부	0.4	5.3	40.2	49.8	4.3	100.0(8,654)	9.9*	3.52	0.134
읍·면부	0.4	7.1	37.9	49.6	5.0	100.0(1,366)		3.52	
가구원 수									
1인	2.7	16.3	50.6	28.9	1.6	100.0(824)	426.9***	3.10	115.5***
2인	0.2	4.7	39.9	49.7	5.5	100.0(2,241)		3.56	
3~4인	0.3	4.3	38.1	53.0	4.4	100.0(5,899)		3.57	
5인 이상	0.2	5.4	41.3	48.5	4.6	100.0(1,054)		3.5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8	18.8	45.2	32.6	1.6	100.0(444)	780.3***	3.14	139.5***
100~200 미만	1.5	10.0	53.5	33.5	1.5	100.0(1,230)		3.24	
200~300 미만	0.2	5.9	48.5	42.0	3.3	100.0(1,942)		3.42	
300~400 미만	0.3	4.0	39.6	52.2	3.9	100.0(1,981)		3.55	
400~500 미만	0.2	4.7	36.9	54.9	3.3	100.0(1,538)		3.56	
500 이상	0.1	2.7	29.1	60.1	7.9	100.0(2,815)		3.73	
욕구소득비									
1 미만	1.0	18.1	48.4	31.1	1.5	100.0(409)	624.2***	3.14	138.6***
1~2 미만	1.2	7.1	50.7	39.0	2.0	100.0(2,072)		3.34	
2~3 미만	0.1	5.7	42.5	48.1	3.6	100.0(3,133)		3.49	
3~4 미만	0.4	4.2	36.2	55.3	3.9	100.0(1,910)		3.58	
4 이상	0.2	2.8	28.9	59.6	8.5	100.0(2,423)		3.73	

주: * $p<.05$,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만족도는 여성 응답자, 연령이 적을수록,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상태의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도는 남성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별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상태의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9〉 응답자 특성별 가족 내에서 「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성									
남자	1.1	9.5	40.3	44.9	4.2	100.0(1,801)	97.8***	3.42	53.2***
여자	0.3	4.6	39.8	50.8	4.5	100.0(8,217)		3.53	
연령									
15~29세	0.0	3.2	27.7	60.7	8.5	100.0(412)	154.4***	3.75	36.0***
30~39세	0.4	4.1	35.5	54.8	5.2	100.0(2,523)		3.60	
40~49세	0.3	5.4	39.9	50.0	4.4	100.0(3,340)		3.53	
50~59세	0.5	6.5	43.6	45.4	3.9	100.0(3,075)		3.46	
60세 이상	1.0	7.8	46.7	43.0	1.5	100.0(668)		3.36	
혼인상태									
유배우	0.2	4.2	37.4	53.2	5.0	100.0(8,306)	249.0***	3.59	250.0***
사별	0.2	4.4	53.8	39.5	2.2	100.0(638)		3.40	
이혼·별거	2.3	16.3	50.7	29.2	1.4	100.0(1,074)		3.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	7.7	53.6	36.5	1.9	100.0(1,876)	484.9***	3.32	221.0***
고등학교	0.6	6.0	42.8	47.1	3.5	100.0(4,540)		3.47	
대학 이상	0.3	3.7	29.0	60.1	6.9	100.0(3,601)		3.70	
취업여부									
취업	0.5	5.6	40.0	49.2	4.7	100.0(5,615)	4.9***	3.52	0.1
비취업	0.3	5.4	48.9	39.1	1.8	100.0(4,403)		3.53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하여 만족도 43.5%, 불만족도 15.7%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가

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 한편, 불만족도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1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전체	1.2	14.5	40.7	39.3	4.2	100.0(9,147)		3.31	
지역									
동부	1.2	14.3	41.1	39.1	4.3	100.0(7,932)	6.4	3.31	0.2
읍·면부	1.4	15.8	38.1	41.0	3.7	100.0(1,215)		3.30	
가구원 수									
2인	0.5	10.8	39.5	44.3	4.9	100.0(2,211)	74.4***	3.42	31.6***
3~4인	1.4	15.2	41.5	37.6	4.2	100.0(5,886)		3.28	
5인 이상	1.7	18.3	38.9	38.3	2.8	100.0(1,053)		3.2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0.6	16.5	47.6	34.8	0.6	100.0(164)	85.8***	3.19	8.6***
100~200 미만	0.5	16.5	47.6	32.5	2.9	100.0(849)		3.21	
200~300 미만	0.9	16.0	43.6	36.2	3.3	100.0(1,839)		3.25	
300~400 미만	1.4	14.4	39.4	40.7	4.3	100.0(1,916)		3.32	
400~500 미만	1.8	13.8	39.9	39.3	5.1	100.0(1,518)		3.32	
500 이상	1.3	13.2	37.8	42.7	5.0	100.0(2,794)		3.37	
욕구소득비									
1 미만	0.7	20.7	46.1	30.4	2.1	100.0(280)	137.3***	3.13	23.7***
1~2 미만	0.8	17.2	46.3	33.4	2.4	100.0(1,793)		3.19	
2~3 미만	1.6	15.1	40.2	39.7	3.5	100.0(2,929)		3.29	
3~4 미만	1.2	12.7	40.5	39.7	5.8	100.0(1,774)		3.36	
4 이상	1.2	12.2	36.8	44.2	5.6	100.0(2,302)		3.41	

주: 1) 1인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2) *** $p < .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사노동 분담 정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만족도는 남성 응답자, 15~39세 응답자,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높았다. 한편, 불만족도는 여

성 응답자, 30~49세 응답자,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고등학교 이하 교육 수준의 응답자, 비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11〉 응답자 특성별 「가사노동 부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성									
남자	0.2	3.7	44.3	47.8	4.0	100.0(1,482)	194.1***	3.52	117.2***
여자	1.4	16.6	40.1	37.7	4.3	100.0(7,666)		3.27	
연령									
15~29세	0.2	14.8	32.4	42.1	10.5	100.0(411)	132.3***	3.47	7.6***
30~39세	1.4	15.7	37.0	40.4	5.5	100.0(2,490)		3.33	
40~49세	1.9	14.7	42.3	37.7	3.5	100.0(3,158)		3.26	
50~59세	0.5	14.1	42.7	39.6	3.2	100.0(2,642)		3.31	
60세 이상	0.7	8.5	47.3	41.0	2.5	100.0(446)		3.36	
혼인상태									
유배우	1.3	15.0	39.0	40.1	4.6	100.0(8,293)	130.9***	3.32	3.5*
사별	0.3	8.9	57.6	33.4	0.6	100.0(337)		3.25	
이혼·별거	0.4	9.3	57.9	31.3	1.0	100.0(518)		3.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6	15.5	48.6	34.5	0.8	100.0(1,448)	156.6***	3.19	31.2***
고등학교	1.0	15.4	40.9	39.2	3.5	100.0(4,192)		3.29	
대학 이상	1.7	13.0	37.3	41.5	6.6	100.0(3,507)		3.38	
취업여부									
취업	1.2	13.3	41.1	39.7	4.7	100.0(4,990)	19.0**	3.34	11.8**
비취업	1.2	16.0	40.3	38.9	3.6	100.0(4,157)		3.28	

주: 1) 1인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2) * $p<.05$,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기혼가구의 58.2%가 만족하고 있는 반면, 6.3%는 불만족하고 있었다. 만족도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불만족도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1인 가구,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욕구소득비

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1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전체	0.5	5.8	35.6	50.4	7.8	100.0(10,022)		3.59	
지역									
동부	0.5	5.7	35.9	49.9	8.0	100.0(8,653)	9.6***	3.59	0.2
읍·면부	0.5	6.4	33.6	53.1	6.4	100.0(1,369)		3.58	
가구원 수									
1인	3.7	21.2	43.9	29.4	1.8	100.0(830)	724.2***	3.04	176.4***
2인	0.1	4.4	35.9	50.2	9.3	100.0(2,241)		3.64	
3~4인	0.3	4.4	35.2	52.0	8.2	100.0(5,900)		3.63	
5인 이상	0.1	4.1	30.6	58.1	7.1	100.0(1,054)		3.6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5	18.7	38.7	36.5	3.6	100.0(444)	725.4***	3.20	130.0***
100~200 미만	1.6	12.0	46.2	37.1	3.1	100.0(1,232)		3.28	
200~300 미만	0.3	6.6	42.3	44.3	6.5	100.0(1,944)		3.50	
300~400 미만	0.2	4.4	36.8	51.1	7.5	100.0(1,980)		3.61	
400~500 미만	0.3	3.7	31.6	55.9	8.5	100.0(1,537)		3.69	
500 이상	0.1	2.5	26.6	59.7	11.1	100.0(2,815)		3.79	
육구소득비									
1 미만	1.7	15.6	44.8	34.1	3.9	100.0(411)	418.9***	3.23	99.6***
1~2 미만	1.1	8.7	43.0	42.3	4.9	100.0(2,075)		3.41	
2~3 미만	0.3	5.6	36.2	51.3	6.6	100.0(206)		3.58	
3~4 미만	0.4	4.2	32.2	54.7	8.5	100.0(162)		3.67	
4 이상	0.1	3.0	28.9	56.3	11.8	100.0(286)		3.77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만족도는 여성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상태의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도는 남성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별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상태의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13〉 응답자 특성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성									
남자	1.3	10.4	38.0	44.0	6.3	100.0(1,802)	139.1***	3.44	98.0***
여자	0.3	4.7	35.1	51.8	8.1	100.0(8,221)		3.63	
연령									
15~29세	-	2.2	25.7	51.1	21.1	100.0(413)	314.2***	3.91	68.1***
30~39세	0.2	4.0	29.1	57.1	9.6	100.0(2,526)		3.72	
40~49세	0.5	5.5	36.6	49.7	7.7	100.0(3,342)		3.59	
50~59세	0.7	7.1	39.1	47.4	5.7	100.0(3,074)		3.50	
60세 이상	0.7	9.6	45.7	41.0	3.0	100.0(668)		3.36	
혼인상태									
유배우	0.2	4.1	33.8	53.0	8.9	100.0(8,306)	641.5***	3.66	267.1***
사별	0.2	6.9	42.7	47.7	2.5	100.0(639)		3.46	
이혼·별거	2.9	17.6	45.0	32.0	2.5	100.0(1,078)		3.1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5	10.4	45.7	40.9	2.6	100.0(1,875)	544.1***	3.34	262.1***
고등학교	0.6	5.6	39.4	48.2	6.2	100.0(4,544)		3.54	
대학 이상	0.3	3.5	25.6	58.0	12.6	100.0(3,601)		3.79	
취업여부									
취업	0.5	6.1	36.1	49.8	7.5	100.0(5,616)	6.4	3.58	6.3*
비취업	0.5	5.3	34.9	51.1	8.2	100.0(4,407)		3.61	

주: * p<.05,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의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혼가구의 44.7%는 만족을, 7.5%는 불만족을 보여주었다.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만족도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1인 가구,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낮

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1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전체	0.4	7.1	47.7	40.6	4.1	100.0(10,025)		3.41	
지역									
동부	0.4	7.1	48.5	39.8	4.1	100.0(8,656)	19.1**	3.40	8.0**
읍·면부	0.2	7.5	42.7	45.5	4.1	100.0(1,369)		3.46	
가구원 수									
1인	1.4	20.0	51.7	26.0	0.8	100.0(830)	319.2***	3.05	82.9***
2인	0.4	6.7	46.0	43.1	3.8	100.0(2,240)		3.43	
3~4인	0.3	5.8	47.9	41.4	4.6	100.0(5,899)		3.44	
5인 이상	0.1	5.3	47.2	42.8	4.6	100.0(1,054)		3.46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8	14.3	46.0	37.0	0.9	100.0(446)	365.9***	3.21	141.0***
100~200 미만	0.7	14.1	50.5	32.3	2.4	100.0(1,233)		3.21	
200~300 미만	0.5	8.6	53.0	34.7	3.2	100.0(1,943)		3.32	
300~400 미만	0.2	6.3	49.2	40.1	4.3	100.0(1,981)		3.42	
400~500 미만	0.3	3.7	47.8	43.0	5.2	100.0(1,536)		3.49	
500 이상	0.2	4.3	42.0	48.0	5.4	100.0(2,814)		3.54	
육구소득비									
1 미만	1.9	14.5	46.4	34.8	2.4	100.0(414)	193.5	3.21	36.6***
1~2 미만	0.5	10.5	50.1	36.3	2.6	100.0(2,075)		3.30	
2~3 미만	0.3	6.5	50.3	38.7	4.2	100.0(3,134)		3.40	
3~4 미만	0.3	5.8	46.3	42.7	4.9	100.0(1,909)		3.46	
4 이상	0.2	4.8	43.7	46.2	5.1	100.0(2,422)		3.5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여성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상태의 응답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불만족도는 남성 응답자, 15~29세와 50세 이상인 응답자, 이혼·별거 상
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상태의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타
났다.

〈표 14-15〉 응답자 특성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성									
남자	0.8	11.8	47.6	36.2	3.5	100.0(1,802)	91.7***	3.30	57.3***
여자	0.3	6.1	47.8	41.6	4.3	100.0(8,222)		3.43	
연령									
15~29세	0.2	8.5	42.8	42.6	5.8	100.0(411)	36.2**	3.45	4.8**
30~39세	0.2	5.9	47.4	42.1	4.4	100.0(2,527)		3.45	
40~49세	0.5	7.2	47.1	40.4	4.8	100.0(3,343)		3.42	
50~59세	0.4	7.8	48.8	39.5	3.5	100.0(3,076)		3.38	
60세 이상	0.7	7.3	50.0	39.7	2.2	100.0(670)		3.36	
혼인상태									
유배우	0.2	5.4	46.3	43.3	4.7	100.0(8,306)	516.8***	3.47	210.6***
사별	0.2	6.7	56.4	35.4	1.3	100.0(638)		3.31	
이혼·별거	1.8	20.3	53.7	22.7	1.6	100.0(1,080)		3.0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6	10.2	50.8	36.2	2.2	100.0(1,878)	114.0***	3.29	51.7***
고등학교	0.3	7.0	49.5	39.1	4.0	100.0(4,545)		3.39	
대학 이상	0.4	5.6	43.9	44.8	5.3	100.0(3,600)		3.49	
취업여부									
취업	0.4	7.9	48.4	39.2	4.0	100.0(5,619)	19.8**	3.38	17.0***
비취업	0.4	6.1	46.8	42.4	4.3	100.0(4,407)		3.4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15~64세 기혼가구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혼가구의 45.7%가 만족하였고, 10.2%는 불만족 상태로 나타났다.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가족의 의식주 수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 불만족도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1인 가구,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14-16〉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전체	0.7	9.5	44.1	41.6	4.1	100.0(10,023)		3.39	
지역									
동부	0.7	9.5	43.7	41.7	4.2	100.0(8,654)	8.2 [#]	3.39	3.1 [#]
읍·면·부	0.8	9.3	46.5	40.6	2.8	100.0(1,369)		3.35	
가구원 수									
1인	3.1	28.1	49.9	17.9	1.0	100.0(828)		2.86	
2인	0.7	8.9	45.2	40.7	4.4	100.0(2,240)	566.7 ^{***}	3.39	165.0 ^{***}
3~4인	0.5	7.5	43.2	44.4	4.4	100.0(5,899)		3.45	
5인 이상	0.3	7.5	42.3	46.4	3.5	100.0(1,054)		3.4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1	32.7	42.1	20.5	0.7	100.0(444)		2.81	
100~200 미만	1.5	23.3	54.1	20.0	1.2	100.0(1,232)		2.96	
200~300 미만	1.2	13.4	52.5	30.5	2.4	100.0(1,943)	1658.5 ^{***}	3.19	333.6 ^{***}
300~400 미만	0.3	7.4	49.0	39.8	3.4	100.0(1,981)		3.39	
400~500 미만	0.5	4.8	41.9	49.7	3.2	100.0(1,536)		3.50	
500 이상	0.0	1.2	32.4	58.5	7.8	100.0(2,814)		3.73	
육구소득비									
1 미만	3.6	31.2	43.6	21.1	0.5	100.0(413)		2.84	
1~2 미만	1.2	19.3	51.5	26.0	2.0	100.0(2,074)	1313.8 ^{***}	3.08	318.3 ^{***}
2~3 미만	0.9	8.3	50.2	37.4	3.2	100.0(3,133)		3.34	
3~4 미만	0.1	6.6	43.1	46.4	3.9	100.0(1,909)		3.47	
4 이상	0.2	1.3	31.2	59.6	7.6	100.0(2,423)		3.7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여성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남성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별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14-17〉 응답자 특성별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성									
남자	1.4	15.3	44.5	35.0	3.8	100.0(1,802)	114.5***	3.24	81.9***
여자	0.6	8.2	44.0	43.0	4.1	100.0(8,222)		3.42	
연령									
15~29세	-	3.2	36.2	52.2	8.5	100.0(412)	260.7***	3.66	63.1***
30~39세	0.6	6.2	39.0	48.9	5.3	100.0(2,525)		3.52	
40~49세	0.8	9.4	45.0	40.7	4.1	100.0(3,342)		3.38	
50~59세	0.8	11.6	47.7	36.9	3.0	100.0(3,075)		3.30	
60세 이상	1.3	16.5	47.6	33.5	1.0	100.0(668)		3.16	
혼인상태									
유배우	0.3	6.7	42.6	45.7	4.7	100.0(8,305)	941.6***	3.48	437.4***
사별	0.9	15.0	53.8	28.8	1.4	100.0(639)		3.15	
이혼·별거	4.1	27.7	50.4	17.2	0.6	100.0(1,078)		2.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	18.1	51.8	27.6	1.1	100.0(1,877)	868.2***	3.09	445.3***
고등학교	0.7	10.6	49.4	36.7	2.7	100.0(4,544)		3.30	
대학 이상	0.4	3.7	33.5	55.0	7.4	100.0(3,602)		3.65	
취업여부									
취업	0.9	9.7	44.7	40.5	4.1	100.0(5,615)	7.9#	3.37	4.2*
비취업	0.6	9.2	43.4	42.9	3.9	100.0(4,407)		3.4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의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보았다. 기혼가구의 45.7%가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반면, 10.2%는 불만족하였다.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 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불만족도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1인 가구,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높았다.

〈표 14-18〉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전체	0.7	9.5	44.1	41.6	4.1	100.0(10,023)		3.49	
지역									
동부	0.7	9.5	43.7	41.7	4.2	100.0(8,654)	8.2 [#]	3.50	2.6
읍·면부	0.8	9.3	46.5	40.6	2.8	100.0(1,369)		3.46	
가구원 수									
1인	3.1	28.1	49.9	17.9	1.0	100.0(828)		2.97	
2인	0.7	8.9	45.2	40.7	4.4	100.0(2,240)	566.7 ^{***}	3.54	160.9 ^{***}
3~4인	0.5	7.5	43.2	44.4	4.4	100.0(5,899)		3.54	
5인 이상	0.3	7.5	42.3	46.4	3.5	100.0(1,054)		3.56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1	32.7	42.1	20.5	0.7	100.0(444)		3.12	
100~200 미만	1.5	23.3	54.1	20.0	1.2	100.0(1,232)		3.16	
200~300 미만	1.2	13.4	52.5	30.5	2.4	100.0(1,943)	1658.5 ^{***}	3.36	140.7 ^{***}
300~400 미만	0.3	7.4	49.0	39.8	3.4	100.0(1,981)		3.56	
400~500 미만	0.5	4.8	41.9	49.7	3.2	100.0(1,536)		3.60	
500 이상	0.0	1.2	32.4	58.5	7.8	100.0(2,814)		3.68	
육구소득비									
1 미만	3.6	31.2	43.6	21.1	0.5	100.0(413)		3.13	
1~2 미만	1.2	19.3	51.5	26.0	2.0	100.0(2,074)	1313.8 ^{***}	3.29	105.6 ^{***}
2~3 미만	0.9	8.3	50.2	37.4	3.2	100.0(3,133)		3.50	
3~4 미만	0.1	6.6	43.1	46.4	3.9	100.0(1,909)		3.55	
4 이상	0.2	1.3	31.2	59.6	7.6	100.0(2,423)		3.6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여성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불만족도는 남성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별거 상태의 응답자, 취업 상태의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19〉 응답자 특성별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성									
남자	1.4	15.3	44.5	35.0	3.8	100.0(1,802)	114.5***	3.37	65.7***
여자	0.6	8.2	44.0	43.0	4.1	100.0(8,221)		3.52	
연령									
15~29세	-	3.2	36.2	52.2	8.5	100.0(412)	260.7***	3.71	40.7***
30~39세	0.6	6.2	39.0	48.9	5.3	100.0(2,525)		3.61	
40~49세	0.8	9.4	45.0	40.7	4.1	100.0(3,342)		3.49	
50~59세	0.8	11.6	47.7	36.9	3.0	100.0(3,075)		3.41	
60세 이상	1.3	16.5	47.6	33.5	1.0	100.0(668)		3.34	
혼인상태									
유배우	0.3	6.7	42.6	45.7	4.7	100.0(8,305)	941.6***	3.57	308.3***
사별	0.9	15.0	53.8	28.8	1.4	100.0(639)		3.40	
이혼·별거	4.1	27.7	50.4	17.2	0.6	100.0(1,078)		3.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	18.1	51.8	27.6	1.1	100.0(1,877)	868.2***	3.29	181.3***
고등학교	0.7	10.6	49.4	36.7	2.7	100.0(4,544)		3.44	
대학 이상	0.4	3.7	33.5	55.0	7.4	100.0(3,602)		3.66	
취업여부									
취업	0.9	9.7	44.7	40.5	4.1	100.0(5,615)	7.9***	3.48	2.4***
비취업	0.6	9.2	43.4	42.9	3.9	100.0(4,407)		3.51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의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기혼가구의 37.6%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한 반면, 20.4%는 불만족하고 있었다.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 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높은 불만족도를 보였다.

〈표 14-2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전체	1.6	18.8	42.0	32.8	4.8	100.0(10,022)		3.20	
지역									
동부	1.6	17.9	42.2	33.4	5.0	100.0(8,653)	38.4***	3.22	28.6***
읍·면·부	1.5	24.3	41.1	29.7	3.4	100.0(1,369)		3.09	
가구원 수									
1인	8.1	35.9	40.7	14.1	1.2	100.0(829)		2.64	
2인	1.1	21.9	38.8	31.8	6.4	100.0(2,240)	563.7***	3.20	139.2***
3~4인	1.1	15.6	43.3	35.6	4.4	100.0(5,901)		3.27	
5인 이상	0.8	16.2	42.8	34.1	6.2	100.0(1,054)		3.2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8.6	36.6	40.4	13.1	1.4	100.0(443)		2.62	
100~200 미만	3.8	34.1	42.2	18.3	1.5	100.0(1,231)		2.80	
200~300 미만	2.0	24.4	44.4	26.1	3.1	100.0(1,943)	1019.0***	3.04	199.1***
300~400 미만	0.9	16.5	42.3	36.2	4.1	100.0(1,981)		3.26	
400~500 미만	0.5	14.4	44.9	34.7	5.6	100.0(1,538)		3.30	
500 이상	0.5	9.4	38.7	43.7	7.9	100.0(2,815)		3.49	
육구소득비									
1 미만	7.0	36.7	41.5	13.6	1.2	100.0(412)		2.66	
1~2 미만	3.0	26.5	44.9	23.5	2.1	100.0(2,074)	685.8***	2.95	169.2***
2~3 미만	1.4	19.8	42.4	32.4	4.1	100.0(3,133)		3.18	
3~4 미만	0.5	16.2	43.4	34.9	5.0	100.0(1,909)		3.28	
4 이상	0.7	9.9	37.8	43.2	8.4	100.0(2,422)		3.49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여성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별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도를 보였다.

〈표 14-21〉 응답자 특성별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성									
남자	3.1	26.1	39.9	26.6	4.3	100.0(1,800)	123.5***	3.03	93.0***
여자	1.3	17.1	42.5	34.2	4.9	100.0(8,223)		3.24	
연령									
15~29세	0.5	11.4	29.4	45.9	12.9	100.0(412)	457.2***	3.59	107.7***
30~39세	1.1	12.0	38.9	41.4	6.5	100.0(2,524)		3.40	
40~49세	1.6	17.1	43.7	32.9	4.7	100.0(3,342)		3.22	
50~59세	2.0	24.8	44.0	26.2	3.0	100.0(3,075)		3.04	
60세 이상	2.5	28.9	44.0	22.8	1.8	100.0(668)		2.92	
혼인상태									
유배우	1.0	15.8	41.4	36.3	5.5	100.0(8,306)	650.5***	3.30	319.9***
사별	2.6	26.6	47.0	21.6	2.0	100.0(638)		2.94	
이혼·별거	6.2	36.5	43.3	13.3	0.6	100.0(1,079)		2.6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	33.5	44.8	17.8	1.2	100.0(1,877)	873.0***	2.81	442.8***
고등학교	1.6	19.8	45.2	29.8	3.6	100.0(4,544)		3.14	
대학 이상	1.1	9.8	36.5	44.5	8.1	100.0(3,601)		3.49	
취업여부									
취업	1.9	20.4	41.3	31.6	5.0	100.0(5,616)	31.3***	3.17	16.3***
비취업	1.3	16.7	43.0	34.5	4.6	100.0(4,407)		3.24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의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기혼가구의 55.5%는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하는 가구는 전체의 8.7%로 나타났다.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반면, 불만족도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2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전체	0.9	7.8	35.8	50.6	4.9	100.0(10,023)		3.51	
지역									
동부	0.8	7.2	36.2	50.7	5.1	100.0(8,653)	51.8***	3.52	23.3***
읍·면부	2.0	11.3	33.5	49.7	3.5	100.0(1,370)		3.42	
가구원 수									
1인	4.0	19.1	50.4	25.8	0.7	100.0(829)	531.3***	3.00	172.5***
2인	1.4	9.7	38.1	46.0	4.7	100.0(2,240)		3.43	
3~4인	0.4	6.0	33.7	54.2	5.6	100.0(5,900)		3.59	
5인 이상	0.4	4.7	31.3	59.3	4.3	100.0(1,055)		3.62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9.2	26.4	40.5	22.7	1.1	100.0(444)	1232.1***	2.80	212.4***
100~200 미만	1.8	17.0	48.9	30.4	1.8	100.0(1,232)		3.13	
200~300 미만	0.6	7.9	41.1	46.7	3.8	100.0(1,943)		3.45	
300~400 미만	0.4	5.8	35.6	53.5	4.7	100.0(1,980)		3.56	
400~500 미만	0.4	3.7	32.8	56.7	6.4	100.0(1,537)		3.65	
500 이상	0.2	4.5	27.7	60.9	6.8	100.0(2,816)		3.70	
육구소득비									
1 미만	8.7	23.2	42.9	23.0	2.2	100.0(413)	807.4***	2.86	165.0***
1~2 미만	1.4	13.0	43.2	39.8	2.7	100.0(2,074)		3.30	
2~3 미만	0.4	6.5	35.8	52.7	4.6	100.0(3,133)		3.55	
3~4 미만	0.6	4.9	33.7	55.3	5.5	100.0(1,910)		3.60	
4 이상	0.2	4.7	30.2	57.9	6.9	100.0(2,423)		3.67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여성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불만족도는 남성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별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23〉 응답자 특성별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성									
남자	1.6	11.5	38.5	44.4	4.0	100.0(1,801)	73.2***	3.38	66.6***
여자	0.8	7.0	35.2	51.9	5.1	100.0(8,223)		3.53	
연령									
15~29세	0.5	2.2	23.3	62.6	11.4	100.0(412)	563.3***	3.83	140.3***
30~39세	0.4	4.0	31.8	57.3	6.5	100.0(2,525)		3.65	
40~49세	0.4	5.9	35.0	53.5	5.2	100.0(3,341)		3.57	
50~59세	1.7	11.3	39.3	44.5	3.3	100.0(3,075)		3.36	
60세 이상	2.5	19.2	46.6	31.0	0.6	100.0(667)		3.08	
혼인상태									
유배우	0.6	6.2	33.2	54.4	5.6	100.0(8,305)	549.7***	3.58	281.5***
사별	2.3	14.4	43.1	38.7	1.4	100.0(638)		3.23	
이혼·별거	3.1	16.3	51.6	28.1	1.0	100.0(1,079)		3.0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	16.8	44.4	35.0	0.9	100.0(1,877)	729.9***	3.14	368.8***
고등학교	0.6	6.8	38.5	49.7	4.4	100.0(4,545)		3.50	
대학 이상	0.3	4.4	28.0	59.8	7.6	100.0(3,602)		3.70	
취업여부									
취업	0.6	7.4	37.5	49.8	4.6	100.0(5,617)	31.9***	3.50	0.42
비취업	1.4	8.3	33.7	51.6	5.2	100.0(4,407)		3.51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의 ‘삶에서의 성취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41.3%, 불만족도는 14.1%이다. ‘삶에서의 성취 정도’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도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1인 가구,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욕구 소득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2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삶에서의 성취 정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전체	1.1	13.0	44.7	38.4	2.9	100.0(10,026)		3.29	
지역									
동부	1.1	12.5	45.0	38.6	2.8	100.0(8,657)	11.7*	3.30	3.5 [#]
읍·면부	1.2	15.6	42.7	37.2	3.2	100.0(1,369)		3.25	
가구원 수									
1인	4.2	33.5	48.1	13.8	0.4	100.0(832)	570.4***	2.73	174.7***
2인	0.6	12.2	46.9	36.8	3.4	100.0(2,241)		3.30	
3~4인	0.8	11.0	43.8	41.4	3.1	100.0(5,899)		3.35	
5인 이상	1.4	9.4	42.5	44.1	2.7	100.0(1,055)		3.3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5	36.9	42.1	15.9	0.7	100.0(447)	1183.0***	2.71	233.4***
100~200 미만	2.3	26.2	51.3	19.4	0.9	100.0(1,231)		2.90	
200~300 미만	1.2	16.3	52.0	28.3	2.2	100.0(1,943)		3.14	
300~400 미만	0.9	9.8	48.1	39.3	1.9	100.0(1,981)		3.32	
400~500 미만	0.7	8.4	44.0	43.5	3.4	100.0(1,537)		3.40	
500 이상	0.3	5.9	35.4	53.5	4.9	100.0(2,814)		3.57	
육구소득비									
1 미만	3.6	33.3	46.4	15.7	1.0	100.0(414)	795.7***	2.77	199.8***
1~2 미만	2.1	20.2	50.8	25.6	1.3	100.0(2,073)		3.04	
2~3 미만	0.7	13.9	46.2	36.9	2.2	100.0(3,133)		3.26	
3~4 미만	0.7	9.0	45.0	42.3	3.0	100.0(1,910)		3.38	
4 이상	0.5	5.4	37.3	51.6	5.2	100.0(2,423)		3.5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삶에서의 성취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여성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불만족도는 남성 응답자, 50세 이상 응답자, 이혼·별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표 14-26〉 응답자 특성별 「삶에서의 성취 정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성									
남자	1.9	18.7	46.7	30.8	1.9	100.0(1,803)	110.4***	3.12	105.6***
여자	0.9	11.7	44.3	40.0	3.1	100.0(8,222)		3.33	
연령									
15~29세	1.9	9.7	31.3	50.0	7.0	100.0(412)	315.2***	3.51	61.8***
30~39세	1.2	8.8	38.6	47.5	3.8	100.0(2,526)		3.44	
40~49세	1.0	13.0	45.1	38.2	2.8	100.0(3,343)		3.29	
50~59세	0.8	15.7	49.2	32.1	2.1	100.0(3,077)		3.19	
60세 이상	1.6	17.9	53.6	26.3	0.6	100.0(670)		3.06	
혼인상태									
유배우	0.6	9.8	43.0	43.2	3.3	100.0(8,306)	958.8***	3.39	482.6***
사별	1.3	18.3	56.8	22.5	1.1	100.0(639)		3.05	
이혼·별거	4.4	34.1	50.4	10.7	0.4	100.0(1,082)		2.6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	19.6	55.5	23.3	0.4	100.0(1,878)	701.4***	3.02	316.1***
고등학교	1.1	14.1	48.5	34.2	2.0	100.0(4,546)		3.22	
대학 이상	0.9	8.0	34.4	51.5	5.2	100.0(3,601)		3.52	
취업여부									
취업	1.2	13.3	45.1	37.4	2.9	100.0(5,618)	8.8 [#]	3.27	6.3 [*]
비취업	0.9	12.5	44.2	39.7	2.9	100.0(4,408)		3.3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의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기혼가구의 50.5%가 ‘전반적인 가족생활’을 만족하는 반면, 6.3%는 불만족하였다. ‘전반적인 가족생활’ 만족도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가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았다. 반면, 불만족도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1인 가구,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2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전체	0.4	5.9	43.2	47.8	2.7	100.0(10,038)		3.47	
지역									
동부	0.4	5.7	43.2	48.0	2.7	100.0(8,666)	5.4	3.47	2.9 [#]
읍·면부	0.4	7.2	43.4	46.5	2.6	100.0(1,372)		3.44	
가구원 수									
1인	2.7	26.3	54.0	16.4	0.6	100.0(843)	1038.0***	2.86	278.0***
2인	0.3	4.8	45.1	46.2	3.7	100.0(2,240)		3.48	
3~4인	0.2	3.7	41.6	51.9	2.6	100.0(5,900)		3.53	
5인 이상	0.1	4.2	39.4	53.6	2.7	100.0(1,055)		3.5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5	25.9	49.0	20.6	0.9	100.0(451)	1554.3***	2.89	559.8***
100~200 미만	0.5	16.1	56.5	26.3	0.6	100.0(1,237)		3.10	
200~300 미만	0.4	7.0	54.3	36.3	1.9	100.0(1,945)		3.32	
300~400 미만	0.2	3.5	45.1	49.2	2.0	100.0(1,981)		3.50	
400~500 미만	0.2	1.9	39.9	54.7	3.3	100.0(1,537)		3.59	
500 이상	0.1	1.4	29.3	64.7	4.6	100.0(2,814)		3.72	
육구소득비									
1 미만	2.6	23.8	52.0	20.9	0.7	100.0(421)	983.9***	2.93	233.6***
1~2 미만	0.6	10.7	54.3	33.4	1.0	100.0(2,079)		3.23	
2~3 미만	0.1	5.2	45.8	47.0	2.0	100.0(3,132)		3.45	
3~4 미만	0.2	3.5	40.7	52.3	3.3	100.0(1,909)		3.55	
4 이상	0.2	1.6	31.0	62.2	5.0	100.0(2,424)		3.70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자료: 본 조사결과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여성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 상태의 응답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불만족도는 남성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별거 상태의 응답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 상태의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28〉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T)
성									
남자	0.9	11.5	45.8	39.2	2.5	100.0(1,812)	174.0***	3.31	124.7***
여자	0.3	4.7	42.6	49.7	2.7	100.0(8,226)		3.50	
연령									
15~29세	0.2	6.3	24.3	60.2	9.0	100.0(412)	448.5***	3.72	96.6***
30~39세	0.4	3.1	34.4	58.1	4.0	100.0(2,525)		3.62	
40~49세	0.3	5.4	43.9	47.9	2.5	100.0(3,343)		3.47	
50~59세	0.4	7.7	50.1	40.5	1.3	100.0(3,083)		3.35	
60세 이상	1.2	10.2	52.6	35.1	0.9	100.0(675)		3.25	
혼인상태									
유배우	0.2	3.4	39.9	53.4	3.1	100.0(8,305)	1228.3***	3.56	592.0***
사별	0.5	9.2	60.3	29.1	0.9	100.0(640)		3.21	
이혼·별거	1.9	23.3	58.4	16.2	0.2	100.0(1,091)		2.9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7	11.4	58.0	29.7	0.3	100.0(1,884)	885.6***	3.18	428.3***
고등학교	0.2	6.1	48.2	43.8	1.7	100.0(4,548)		3.41	
대학 이상	0.5	2.9	29.2	62.4	5.1	100.0(3,605)		3.69	
취업여부									
취업	0.4	6.3	44.2	46.0	3.1	100.0(5,623)	25.5***	3.45	5.8*
비취업	0.4	5.3	41.9	50.2	2.1	100.0(4,413)		3.48	

주: * p<.05,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제4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가족생활의 질(質)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 행복의 요건과 가족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가족생활 만족도는 먼저 1년 전과 비교하여 가족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살펴보았고, 이어서 10개 항목에 의하여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족 행복의 요건으로 ‘가족의 건강’과 ‘가정 안

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전체 응답자의 86.1%). 다른 어떤 성공, 권력, 재산 보다도 이를 우선시하고 있음은 가족 개개인의 중요성과 제도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개 항목 모두에서 '(매우) 불만족'보다는 '(매우) 만족'이 현저하게 많았다. 만족률이 높은 것으로는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58.2%), '가족원의 건강수준'(55.5%), '가족 내에서 본인의 지위와 역할'(54.2%), '전반적인 가족생활'(50.5%) 등이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만족률이 낮은 것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37.6%)이었다.

〈표 14-29〉 가족생활 만족도

특성	(단위: %, 명)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 가족 내에서 본인의 지위와 역할	5.9	39.9	54.2
• 가사노동 분담 정도	15.7	40.7	43.5
•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6.3	35.6	58.2
•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	7.5	47.7	44.7
• 가족의 의식주 수준	10.2	44.1	45.7
•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10.2	44.1	45.7
•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20.4	42.0	37.6
• 가족원의 건강수준	8.7	35.8	55.5
• 삶에서의 성취 정도	14.1	44.7	41.3
• 전반적인 가족생활	6.3	43.2	50.5

자료: 본 조사결과

본 장에서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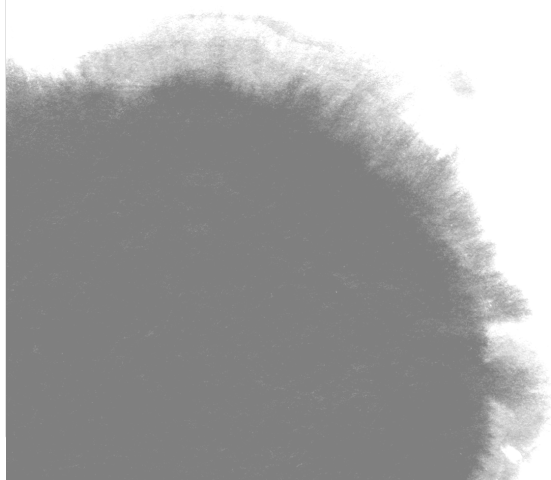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첫째,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더욱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지출이 소요되는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문화와 여가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가족단위의 문화 및 여가 활

동을 즐길 수 있는 장(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토요일무제가 도입된지 몇 년이 지난 지금, 가족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15장

혼인실태와 가족주기의 변화



제15장 혼인실태와 가족주기의 변화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가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개인과 가족의 안녕 및 복지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최근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만혼과 비혼 현상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결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출산은 혼인 부부에서 발생되므로 저출산 문제는 혼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속한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로 개인주의 확대와 가족결속력 약화, 이혼을 허용하는 가치가 확대되면서 이혼·별거가정 및 재혼가정 등 다양한 혼인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가족주기란 사람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결혼·출산·양육·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의미한다. 핵가족의 경우 결혼으로 형성이 되고, 자녀출산으로 확대되었다가 자녀의 결혼과 분가를 통해 축소되면서 사망으로 해체하게 된다.

가족주기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최근 저출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가족주기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자녀화로 인해 부부가 자녀출산 및 양육에 투자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상대적으로 부부만의 생

활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가족형성부터 해체까지 가족주기의 전 생애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소자녀화로 여성의 가임기간이 급속도로 단축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만혼화 및 결혼기피 등으로 자녀의 독립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치 않는 경향이 증가하여 자녀들을 분가 시킨 후 부부만이 남게 되는 빈둥우리 시기부터 은퇴 후 부부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 기간이 이전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부부 후기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최근 초혼연령의 상승, 미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가족주기가 변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변화되는 혼인실태와 가족주기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혼인실태는 기혼여성의 결혼 및 해혼 실태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자료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본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양상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2 선행연구

가. 혼인실태 관련 선행연구

혼인행태 관련 전반적인 연구동향으로는 크게 결혼가치와 결혼행위와의 관련성 연구, 결혼과 해혼 등 결혼행태의 변화로 인한 가족형태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혼인행태 결정요인과 영향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삼식 외(2007)는 결혼과 인구변화와의 관련성을 도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변화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를 가져왔으며 취업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크게 변화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취업을 독립적 생애과업으로 수용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출산·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여성과 개별가족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의 선택은 결혼기피와 출산연기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결혼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는 결혼을 언제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김혜산·이정음(2003)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가진 경우에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결혼을 더 꺼려하는 부정적인 결혼관을 가지나, 우리나라 남자는 여자보다 오히려 결혼을 중요시하고, 결혼생활 유지에 중점을 둔다고 연구결과 밝히고 있다. 조운정(2007)은 우리나라는 결혼이 보편성을 갖는 사회였으나, 1990년대 이후 미혼율이 늘어나면서 결혼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으로 변화하였고, 초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가족형태 변화 관련 선행연구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가족의 변화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안정성의 약화와 이혼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송정아(2004)는 그의 연구에서 초혼연령의 상승과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제도적 결혼생활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인격 존중, 부부결속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로 해석하면서 이러한 가족변화 현상들은 가족의 기능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옥라(1986)는 우리나라 여성의 재혼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의 재혼율은 1995년 이후 남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재혼이 보다 활발해지는 것은 재혼하는 여성의 배우자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의 재혼에 대해

더 부정적이던 사회적 관념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옥(1999)도 그의 연구에서 40대 이상 중년들은 혼자 남게 되었을 경우 남자 53%, 여자 50%가 재혼의사를 밝혀 재혼에 대한 가치관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결혼행태 변화의 결정요인과 영향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긍정적·부정적인 두 방향에서 이혼한 이들을 또 다시 결혼으로 이끄는 요인과 그것은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재혼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친밀성에 대한 욕구(Smart, 1977), 동료애와 성적 접근(Westoff, 1975; Hunt & Hunt, 1977)은 이혼자들로 하여금 재혼하도록 이끄는 긍정적 이유인 반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지지 부족(Spanier & Casto, 1979)은 이혼자들이 서둘러 재혼하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밝혔다.

특히, 이혼한 여성에 대한 낙인(Brandwein, 1974)은 그들의 삶에 억압적인 영향을 미쳐 여성들이 서둘러 재혼하도록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안전(Hunt & Hunt, 1977)은 이혼한 여성의 다수가 빈곤한 상황에서, 많은 여성에게 재혼동기가 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들을 재혼을 하도록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혼이 부부의 행복을 향한 여정이기보다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의 탈출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힘이 개인들에게 동시에 결합하여 작동한 결과로 행해지는 재혼은 하나의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아가치의 회복(Duberman, 1976) 혹은 승인된 사회제도에 재진입하기 위한 시도(Schlesinger, 1970)인지도 모른다고 설명되었다.

나. 가족주기 관련 선행연구

가족주기의 개념과 관련하여 윤현숙 외(2002)는 가족은 결혼에 의해 형성되고 부부의 사망으로 해체될 때까지 수직적 스트레스와 수평적 스

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발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가족생활주기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서적 발달의 기본단위이며, 특유의 단계와 경과를 가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움직임과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준거틀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자들의 가족생활주기 구분기준을 보면, 대부분 자녀의 여부와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녀여부가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과 개인의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생활주기는 사회변화로 인하여 형성되는 이혼, 별거 혹은 재혼 등으로 해체된 가정, 확대가정, 동거부부 가정 등의 특수한 상황은 거론되지 않고 있어 가정생활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겠다. 이에 스탬플(Stampfl, 1979)은 가족구성원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이혼율의 증가, 가족 수의 감소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가족생활주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혼 외 다른 형태의 가정을 포함할 수 있는 가족생활주기의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주(1984)가 가족생활주기를 처음 시도하였는데, ‘첫 자녀’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누었다. 국내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할 경우 대부분 유영주의 6단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자녀의 연령이나 가구주의 연령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김승권 외(2000)에서는 가족생활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족형성기는 결혼으로부터 시작하여 첫 자녀를 출생하기까지의 기간이며, 가족확대기는 첫 자녀의 출생에서부터 막내 자녀의 출생까지를 말하며, 가족확대완료기는 막내자녀의 출산부터 자녀의 첫 번째 결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축소기는 자녀의 첫 결혼시점부터 모든 자녀를 결혼시키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가족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떠나보내고 노부부만 남는 빈둥지 시기이며, 가족해체기는 배우자 사망 이후 혼

자서 살아가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생활주기 변화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표영희(1997)는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주기의 변천은 초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늦게 결혼하여 첫 자녀 출산 연령도 늦어졌으나 더 일찍 자녀 출산을 시작하고 자녀수가 줄고 터울을 짧게 함으로써 단산연령이 빨라지게 되었고, 평균 기대 수명의 증가와 남편과 아내의 사망 연령이 높아지고 마지막 자녀의 결혼 연령이 빨라짐으로써 마지막 자녀의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는 가족관계면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여 증가된 탈 양육기 단계에서 부부관계의 재적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시기는 점차 증가되는 핵가족화 영향으로 자식들과 떨어져 노부부만이 함께 살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및 노년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 출산기 단축 등과 더불어 현대문물의 발달로 가사노동이 간소화되어지고 30대 여성이 갖게 되는 자유재량의 시간이 증가되어짐에 따라서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이외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혼여성의 직업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 및 요구의 증가와 취미교육, 평생교육, 여가활동 등에서의 활발한 참여에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자녀양육에만 평생을 바치던 과거의 주부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발휘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도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겠다(표영희, 1997; 김승권 외, 2000; 윤형숙 외, 2002).

3. 정책동향

가. 결혼실태 관련 정책동향

혼인행태 관련 정책동향으로는 결혼장려 정책, 이혼·사별 등으로 해체된 이혼가족 및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되며 세부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장려 정책

결혼기피를 최소화하고 결혼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과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등이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을 위해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결혼 5년 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를 분양하고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에는 군복무 기간 중 출산 및 자녀양육 등이 곤란하여 결혼 및 출산을 연기하는 단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교육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 부부의 주거생활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기혼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 이혼가족 정책

이혼가족의 사회심리적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자립시설, 민간

단체,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혼 전 상담부터 자립의지 및 자존감 향상교육, 취업상담, 자조모임, 각종 사회복지자원 연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 연구소, 한부모가정센터 등에서 이혼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현실적응과 편견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외적 인식개선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3)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 지원 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제공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지원은 소득지원으로 복지급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주거지원으로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영구임대주택사업에서 일정비율을 확보하여 우선입주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고용 및 자립지원으로는 한부모 창업지원 복지자금 대여가 제공되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소득층인 한부모에게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1,200만원, 보증금 대출의 경우 2천만원,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5천만을 대여한다. 또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층인 한부모 가족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가능하다. 이는 취업지원계획에 따른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가 취업계획 수립시 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월 20만원 생계지원, 취업에 성공하여 근로상태를 유지할 경우 100만원

의 취업성공수당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며 자립에 성공하여 탈수급 할 경우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의료지원으로 월소득 360만원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10~30% 감면해주고 있다. 정서적 지원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취약가족역량강화 사업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약가족의 결속력 및 자생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위로금으로 2만원~5만원까지 제공되며, 중고생 자녀에게 교복과 참고서 구입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자체 단위의 정책은 대부분이 일회성의 행사적 성격을 가지며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실정이다.

나. 가족주기 관련 정책동향

가족주기는 가족형성기부터 해체기까지 6단계로 구분되며 최근 두드러진 가족주기상의 특징은 청년층의 만혼화 및 결혼기피 등으로 자녀의 독립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부부만이 남게 되는 빈 둥지 시기부터 은퇴 후 부부모두 사망하기 전까지 가족축소기부터 해체기까지가 길어지면서 은퇴 후 노인 삶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주기 정책은 노인 은퇴 후 노후생활설계 및 안정적인 활기찬 노후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설계 기반 조성

고령층이 스스로 제3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후(재무·건강·여

가 등) 설계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후설계교육 개요를 보면 베이비붐세대 등 중장년층,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제3기 인생설계를 위한 재무, 건강, 시간 및 여가, 취미, 배움, 정서 봉사활동 등 노후설계 영역별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있다. 노후체무설계에는 다층소득보장체계, 세금, 부채관리 등이 포함되고, 노후경력관리설계에는 일자리연계-훈련, 소규모 지역 NPO창업 등, 노후건강설계에는 생활건강관리, 질병정보, 요양관리 등, 노후여가설계에는 은퇴 전 여가준비, 취미·여가, 자원봉사 등, 노후생활 설계에는 가족 및 대인관계, 시간관리, 배움, 정서, 주거, 전원생활 등이다.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체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직장교육 등에 교양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및 신규교육에 교양과목으로 편성하고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의·추진하고 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원, 종합복지관 등을 주체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노후설계서비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노후설계프로그램 개발·보급,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설계서비스 제공 및 수요처 발굴 등을 지원할 총괄전담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참여욕구 증대로 공공과 민간분야에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 추진되고 있다. 공공분야에 공익형 일자리로 거리·자연환경지킴이, 교통안전, 방범순찰 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교육형으로는 숲생태·문화재해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등이 해당된다. 복지형으로는 노-노케어, 노인주거개선, 독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 등이다. 민간분야에 시장형 일자리로

는 택배, 세탁방, 밑반찬 판매, 재활용품점, 농산물 판매 등이며, 인력과 전형으로는 시험감독관, 주유원, 기사도우미, 건물관리 등이 해당된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추진되고 있다.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보험을 적용하고, 골다공증, 당뇨병 및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치료제 급여를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고, 노인 다빈도질환을 국가종합대책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 및 노인 불소 도포·스케일링 사업 등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를 확대추진하고 있다.

노인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별로 ‘어르신자원봉사단’을 확대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우수자를 선정하여 기념패를 수여하고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프로그램으로 금융·보건의료·교육상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퇴직 교사, 기업인 등 전문퇴직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여 노령전문인 지원봉사를 조직화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 정보망을 연계 구축하여 자원봉사 등록, 수요처 조회, 자원봉사 신청·배치, 교육정보, 분야별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형성 등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2절 혼인실태의 변화

우리나라와 같이 미혼에 의한 출산이 극히 낮은 사회에서는 결혼여부가 재생산 가능성을 결정하며 다른 한편 결혼의 지속여부 또한 재생산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혼과 출산력과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기혼여성의 결혼양상과 해혼실태를 살펴보고, 최근 가족변화 및 이혼율의 상승 등으로 해체가족의 자녀돌봄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혼·별거가족의 자녀양육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행태의 변화 분석은 15~64세 기혼가구 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기혼여성 9,50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결혼상태

본 조사 대상자인 15~64세 기혼가구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기혼 여성은 9,501명⁵³⁾으로 동부지역 8,213명, 읍·면부지역 1,288명이었다. 기혼여성의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87.5%, 사별 5.8%, 이혼·별거 6.7%로 대다수의 부인이 유배우 상태였다. 지역별로는 유배우 부인은 차이가 없었고, 사별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다소 높은 반면, 이혼·별거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높았다. 이는 동부지역은 읍·면부지역보다 젊은 층 부인들의 거주비율이 높고, 읍·면부지역은 고연령층 부인들의 거주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표 15-1〉 15~64세 기혼가구의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지역별 결혼상태

(단위: %, 명)			
결혼상태	전국	동부	읍·면부
유배우	87.5	87.4	88.4
사별	5.8	5.6	7.1
이혼·별거 ¹⁾	6.7	7.0	4.5
계(수)	100.0(9,501)	100.0(8,213)	100.0(1,288)
χ^2	15.69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53) 15~64세 기혼가구 내에 거주하는 15~64세 여성은 9,493명이고, 65세 이상은 8명으로 추정된다.

결혼경력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부인이 초혼(97.9%)으로 재혼부인의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2.1%)이었다. 이를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초혼은 0.1%pt 감소하였으며, 재혼비율은 0.1%pt 증가하였다⁵⁴⁾.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의 재혼부인 비율은 동부지역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동부 1.9%, 읍·면부 3.6%). 기혼여성 남편의 초혼 및 재혼비율은 부인과 유사하였다. 지역별로는 부인과 마찬가지로 초혼비율은 동부 지역에서, 그리고 재혼비율은 읍·면부지역에서 다소 높았다.

〈표 15-2〉 15~64세 기혼가구의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

(단위: %, 명)			
결혼경력	전국	동부	읍·면부
부인			
초혼	97.9	98.1	96.4
재혼	2.1	1.9	3.6
계(수)	100.0(9,501)	100.0(8,213)	100.0(1,288)
χ^2	15.250***		
남편			
초혼	97.8	98.0	96.7
재혼	2.2	2.0	3.3
계(수)	100.0(9,483)	100.0(8,199)	100.0(1,284)
χ^2	8.23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부부의 결혼경력별 결합 형태를 살펴보면, 부부가 모두 초혼인 경우가 97.1%였으며,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 1.4%, 부인 초혼·남편 재혼 0.8%, 그리고 부인 재혼·남편 초혼은 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여성보다는 남성의 재혼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2000~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2000년 97.3%에서 2003년 96.9%, 그리고 2006년 96.0%로 다소 낮아

54) 2009년 조사결과 부인의 초혼비율은 98.0%이었으며, 재혼비율은 2.0%이었다(김승권 외, 2009).

졌으며, 2009년 다시 97.3%로 높아졌다가 2012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과 남편이 초혼이고 부인이 재혼인 비율은 점차 높아지다가 2009년 조사결과에서는 다소 낮아졌으며 2012년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부인이 초혼이고 남편이 재혼인 비율은 2006년과 2009년에 증감하다가 2012년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표 15-3〉 15~64세 기혼가구의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의 비교

(단위: %, 명)

결혼경력	2000 ¹⁾	2003 ²⁾	2006 ³⁾	2009 ⁴⁾	2012 ⁵⁾
부인, 남편 모두 초혼	97.3	96.9	96.0	97.3	97.1
부인 재혼, 남편 초혼	0.3	0.6	0.9	0.7	0.7
부인 초혼, 남편 재혼	0.9	0.9	1.0	0.7	0.8
부인, 남편 모두 재혼	1.5	1.6	2.2	1.3	1.4
계(수)	100.0(10,700)	100.0(11,200)	100.0(9,707)	100.0(10,367)	100.0(9,483)

자료: 1)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본 조사결과

이러한 변화양상은 15~49세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부부간 결혼 경력별 결합 형태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초혼인 결합형태의 비율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재혼인 결합형태의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편, 부인 모두 초혼인 비율은 2000년 98.0%, 2003년 97.4%, 그리고 2006년 96.3%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09년 다시 증가하다 2012년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남편 초혼, 부인 재혼비율은 동일 연도별로 0.4%, 0.7%, 그리고 0.9%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에 약간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다시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남편 재혼, 부인 초혼인 비율은 2000년 1.6%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06년 0.8%에서 2009년에 소폭으로 감소하여 2012년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남편 부인 모두 재혼인 비율은 2000년 1.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2.0%

에 달하였고,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2년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15-4〉 15~49세 기혼여성과 남편의 결혼경력

(단위: %, 명)

부인의 결혼경력	남편의 결혼경력		계(수)
	초혼	재혼	
2000	98.4	1.6	100.0(7,961)
초혼	98.0	0.6	98.6(7,852)
재혼	0.4	1.0	1.4(109)
2003	98.0	2.0	100.0(8,890)
초혼	97.4	0.7	98.1(8,719)
재혼	0.7	1.3	1.9(171)
2006	97.2	2.8	100.0(7,357)
초혼	96.3	0.8	97.1(7,144)
재혼	0.9	2.0	2.9(213)
2009	98.3	1.7	100.0(6,723)
초혼	97.6	0.6	98.2(6,602)
재혼	0.7	1.1	1.8(121)
2012	98.2	1.8	100.0(6,212)
초혼	97.4	0.6	98.0(6,085)
재혼	0.8	1.2	2.0(127)

자료: <표 15-3>과 동일

2. 남녀 특성별 초혼연령

남편과 부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27.84세, 부인 24.84세로 남녀 간에 3세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읍·면부지역 거주자보다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았으며, 남녀 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읍·면부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동부 2.91세, 읍·면부 3.58세).

남편의 초혼연령을 보면, 동부지역 거주자는 27.94세,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27.21세로 0.73세의 차이를 보였으며, 부인의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자

는 25.03세,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23.63세로 부인의 초혼연령의 지역 간 차이는 1.4세로 남성보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편은 39세 이하까지 높아지다가 40세 이후부터 점차 낮아지고, 부인은 34세 이하까지는 증가추세이나 35세 이상부터 점차 감소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초혼연령은 낮아졌다. 남편과 부인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져 2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0.93세로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0대 초반부터는 3.39세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녀 간의 연령 차이는 고학력일수록 감소하였다. 즉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인 남편의 초혼연령은 26.49세, 동일한 교육수준인 부인의 초혼연령은 22.19세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초혼연령도 점차 높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인 남편의 초혼연령은 28.70세, 부인은 26.55세였으며, 남녀 간의 연령 차이는 중학교 이하 학력의 경우 4.30세에서 대학 이상 학력의 경우 2.15세로 감소하였다.

또한 초혼연도별로는 최근에 결혼한 남녀일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지고, 남녀별 초혼연령간의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남편의 초혼연령은 24.93세, 부인의 초혼연령은 21.52세로 남녀 간의 초혼연령의 차이는 3.41세였으나 2000년대에 결혼한 남편은 30.32세, 부인은 27.60세로 그 차이는 2.72세로 감소하여 최근에 결혼한 젊은 부부일수록 남녀 간에 초혼연령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5-5〉 15~64세 기혼가구의 부부특성별 부부의 평균 초혼연령¹⁾

(단위: 세, 명)

특성	남편			부인			차이(남편 -부인)
	(분석대상수)	초혼연령	F(T)	(분석대상수)	초혼연령	F(T)	
전체	(9,180)	27.84		(9,202)	24.84		3.00
지역							
동부	(7,955)	27.94	(6.0	(7,973)	25.03	(12.1	2.91
읍·면부	(1,225)	27.21	***)	(1,229)	23.63	***)	3.58
연령							
15~24세	(17)	21.37		(61)	20.44		0.93
25~29세	(206)	25.83		(428)	25.13		0.70
30~34세	(755)	28.14		(1,103)	26.46		1.68
35~39세	(1,154)	29.12	82.8	(1,370)	26.33	194.0	2.79
40~44세	(1,367)	29.04	***)	(1,641)	25.65	***)	3.39
45~49세	(1,372)	28.40		(1,440)	24.58		3.82
50세 이상	(3,153)	27.12		(3,158)	23.38		3.7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30)	26.49		(1,643)	22.19		4.30
고등학교	(3,217)	27.53	149.6	(4,177)	24.51	897.5	3.02
대학 이상	(3,976)	28.70	***)	(3,376)	26.55	***)	2.15
초혼연도							
1979년 이전	(909)	24.93		(1,351)	21.52		3.41
1980~1989년	(2,124)	26.46	758.2	(2,541)	23.44	1,337.7	3.02
1990~1999년	(2,355)	27.99	***)	(2,595)	25.07	***)	2.92
2000~2012년	(2,637)	30.32		(2,714)	27.60		2.72

주: 1) 남편과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3. 남녀 특성별 결합형태

가. 초혼연령별 결합형태

부인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결합 형태를 보면, 초혼연령이 낮은 경우는 남성이 연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나,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남녀 동갑이거나 여성이 연상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5-6〉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초혼연령별 남편의 초혼연령 분포¹⁾

(단위: %, 명)

부인	남편					계(수)	χ^2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전체	1.2	15.8	55.4	21.9	5.7	10000(9,180)	
19세 이하	13.8	47.0	33.1	3.7	2.4	100.0(574)	5,906.4 ***
20~24세	0.7	26.6	62.0	9.4	1.3	100.0(3,950)	
25~29세	-	3.5	63.0	30.6	2.9	100.0(3,688)	
30~34세	-	0.8	14.8	57.5	26.9	100.0(798)	
35세 이상	-	-	2.9	15.9	81.2	100.0(170)	

주: 1)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남녀의 초혼연령별 결합 형태를 살펴보면, 19세 이하 여성이 20~24세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47.0%, 25~29세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33.1%로 약 80%의 여성이 20대의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에 결혼한 여성이 25~29세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6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같은 연령층인 20~24세 연령층과 결혼한 비율이 26.6%로 높았다. 이에 비해 25~29세에 결혼한 여성이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63.0%였으며, 30~34세에 결혼한 여성이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57.5%, 그리고 35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이 같은 35세 이상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81.2%에 달했다.

이는 비슷한 연령대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결혼연령상의 동질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남녀 결혼연령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연하의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최근의 초혼연령별 남녀 결합형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⁵⁵⁾.

55) 통계청 자료에 의한 초혼부부의 연령차이별 구성비를 보면,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2005년 72.8%에서 2008년 70.4%, 2011년 68.4%로 감소하였으며, 남녀 동갑인 경우는 2005년 15.1%에서 2008년 15.8%, 2011년 16.4%로, 그리고 여성이 연상인 경우는 동일 년도에 각각 12.1%, 13.7%, 그리고 15.3%로 점차 증가 추세이다(통계청, 2011).

나. 교육수준별 결합형태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의 교육수준별 결합 형태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본인보다 높은 수준의 상향 혼인을 선택하는 경향이다. 이는 본 조사대상 부인의 남편과의 교육수준별 결합 형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이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 같은 학력을 가진 남성과의 결합률이 가장 높아 60.4%를 차지하였으나 부인보다 높은 학력의 남편과 결혼한 비율도 39.6%나 되었으며,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의 동일 학력의 남성과의 결합률은 68.0%였으며, 대학 이상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28.3%로 고등학교 이상의 남성과의 결합률이 96.3%였다. 또한 대학 이상 부인의 동일학력 남성과의 결합률은 더욱 높아서 88.9%에 달했다. 반대로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의 결합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표 15-7〉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남편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 명)

부인	남편			계(수)	χ^2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10.7	40.6	48.7	100.0(8,262)	
중학교 이하	60.4	35.3	4.3	100.0(1,207)	6592.5***
고등학교	3.6	68.0	28.3	100.0(3,799)	
대학 이상	0.6	10.5	88.9	100.0(3,25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4. 혼인지속기간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평균 혼인지속 기간은 18.4년으로 동부지역 거주자가 18.2년인데 비해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19.8년으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혼인지속기간이 1.6년이 더 길었다. 2009과 2012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2012년이 2009년에 비해 평균 혼인지속기간이 1.4년 단축되었으며, 동부지역에 비해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훨씬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동부지역 1.0년, 읍·면부지역 3.1년).

〈표 15-8〉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평균 혼인지속기간¹⁾

조사연도	(분석대상수)	전국	(단위: 년, 명)	
			동부	읍·면부
2009 ¹⁾	(9,117)	19.8	19.2	22.8
2012 ²⁾	(8,117)	18.4	18.2	19.8

주: 1) 초혼 유배우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1)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본 조사결과

혼인지속기간은 부인의 연령, 학력 및 초혼연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고연령층, 저학력층 그리고 초혼연도가 빠를수록 혼인지속기간은 길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초혼이 20대에서 이루어져서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지속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며,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혼연령이 빠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초혼연도별로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혼인지속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들의 혼인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동부지역은 저연령층, 고학력층 부인들의 비율이 높아 최근에 결혼한 부인이 많은 반면, 읍·면부지역은 고연령층, 저학력층 부인들의 비율이 더 높아 초혼연령이 낮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15-9〉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특성별 평균 혼인지속기간¹⁾

(단위: 년, 명)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지역						
동부	18.18	(-4.5	-		-	
읍·면부	19.75	***)	-		-	
연령						
15~24세	2.43		2.53		2.11	
25~29세	2.60		2.39		3.57	
30~34세	5.57		5.43		6.47	
35~39세	10.61	7265.4	10.52	6128.0	11.18	1249.0
40~44세	16.21	***	16.06	***	17.46	***
45~49세	22.33		22.18		23.48	
50세 이상	30.95		30.63		32.7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04		29.54		31.45	
고등학교	19.66	1611.4	19.96	1211.0	17.81	445.7
대학 이상	12.78	***	12.99	***	10.52	***
초혼연도						
1979년 이전	35.72		35.54		36.42	
1980~1989년	27.50	28395.5	27.44	23797.6	27.88	4565.7
1990~1999년	17.38	***	17.37	***	17.47	***
2000~2012년	6.10		6.10		6.08	
(분석대상수)	(8,117)		(7,025)		(1,092)	

주: 1) 초혼 유배우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5. 해혼 실태

가. 해혼 부인의 일반특성

최근 급증하는 가족해체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등을 들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전체 응답대상 부인 중 12.5%가 해혼상태로(사별 5.8%, 이혼·별거 6.7%), 2009년 조사대상인

10.2%에 비해 해혼 대상 부인이 2.3%p¹ 증가하였다.

이들 해혼 부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는 7.8%에 불과하였으며, 40대 이후는 92.2%(40대 24.6%, 50대 이상 67.6%)로 해혼의 대부분이 장년층 이후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0대 이하와 40대는 동부지역이, 30대와 50대 이상은 읍·면부지역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5-10〉 사별·이혼·별거부인의 일반특성

(단위: %, 명)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연령			
29세 이하	0.3	0.3	-
30~39세	7.5	6.9	11.3
40~49세	24.6	25.7	17.3
50세 이상	67.6	67.1	71.3
계(수)	100.0(1,186)	100.0(1,036)	100.0(150)
χ^2	-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4.6	42.7	58.0
고등학교	44.0	45.4	34.7
대학 이상	11.4	12.0	7.3
계(수)	100.0(1,186)	100.0(1,036)	100.0(150)
χ^2	12.791**		
취업여부			
취업	69.6	68.7	75.3
비취업	30.4	31.3	24.7
계(수)	100.0(1,186)	100.0(1,036)	100.0(150)
χ^2	2.702		
현존자녀수			
0명	5.7	6.1	2.3
1명	37.4	36.9	40.9
2명	45.4	46.2	38.6
3명	9.8	9.0	15.9
4명 이상	1.8	1.7	2.3
계(수)	100.0(388)	100.0(344)	100.0(44)
χ^2	-		

주: 1) 해혼부인(사별, 이혼, 별거)만을 대상으로 함; 2) 현존자녀수의 응답대상은 15~49세 기혼여성으로 비해당 798명이 제외됨; 3) *** p<.001, ** p<.01, * p<.05, # p<.1; 4)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의 저학력층에서 해혼비율이 높았고(중학교 이하 44.6%, 고등학교 44.0%), 동부지역은 유사하였으나 읍·면부 지역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중학교 이하의 해혼비율은 58.0%로 가장 높았다.

해혼 부인 중 취업부인은 69.6%로서 읍·면부지역 해혼부인의 취업률은 75.3%로 동부지역의 취업률(68.7%) 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해혼부인들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⁵⁶⁾ 대부분 생계책임자이던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별거에 따라 가구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됨으로써 가구원의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대부분 가정에서 남성부양자를 통해 경제적인 자원이 유입되고 분배되어 왔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소멸은 해혼 부인들에게 있어 직접적인 소득상실로 이어져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존자녀수별로는 2명인 부인의 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명이 37.4%로 많았으며, 특히 동부지역 거주자는 전체와 유사하였고,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현존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2명보다 많았다.

해혼 유형별로 부인들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분포는 동부지역 거주자는 읍·면부지역보다 해혼 비율이 약 7배 높았고, 연령별 분포는 사별부인의 경우 50대에 86.3%로 대부분이 집중된 반면, 이혼·별거 부인은 50대에 절반이 분포하였으며, 40대 연령층도 1/3 이상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연령은 사별부인은 56.06세, 이혼·별거부인은 48.86세로 사별부인이 이혼·별거부인보다 7.2세 많았다.

사별부인은 고등학교 이상 비율이 40.0%인데 비해 이혼·별거부인은 68.7%로 이혼·별거 부인의 경우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56) 본 조사결과에 의한 유배우부인의 취업률은 49.1%이었다.

사별의 경우 저학력의 고연령층 부인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해된다.

〈표 15-11〉 사별 및 이혼·별거부인의 해혼유형별 특성

(단위: %, 명, 세)

특성	사별	이혼·별거	전체
지역			
동부	83.2	90.9	87.4
읍·면부	16.8	9.1	12.6
계(수)	100.0(549)	100.0(637)	100.0(1,186)
χ^2	15.630***		
연령			
29세 이하	-	0.5	0.3
30~39세	2.9	11.5	7.5
40~49세	10.7	36.6	24.6
50세 이상	86.3	51.5	67.6
계(수)	100.0(549)	100.0(637)	100.0(1,186)
χ^2			
평균 연령	56.06	48.86	52.20
T	(17.89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0.0	31.3	44.6
고등학교	30.7	55.5	44.0
대학 이상	9.3	13.2	11.4
계(수)	100.0(550)	100.0(636)	100.0(1,186)
χ^2	99.653***		
취업여부			
취업	62.1	76.1	69.6
비취업	37.9	23.9	30.4
계(수)	100.0(549)	100.0(637)	100.0(1,186)
χ^2	28.7***		
현존자녀수			
0명	-	7.4	6.0
1명	20.8	41.4	37.3
2명	64.9	40.5	45.3
3명	9.1	10.0	9.8
4명 이상	5.2	0.6	1.6
계(수)	100.0(77)	100.0(309)	100.0(386)
χ^2	-		

주: 1) 해혼부인(사별, 이혼, 별거)만을 대상으로 함; 2) 현존자녀수의 응답대상은 15~49세 기혼여성으로 비해당 800명이 제외됨; 3) *** p<.001, ** p<.01, * p<.05, # p<.1; 4)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취업률은 사별부인이 62.1%, 이혼·별거부인이 76.1%로 사별부인보다는 이혼·별거부인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이혼·별거부인이 사별부인보다 젊은 연령층으로 어린 자녀의 양육부담과 생계 및 부양책임자로서 취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되며, 한편으로는 이혼·별거 전 이미 취업 중인 부인이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혼·별거를 선택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존자녀수는 사별부인은 2명 이하 85.7%, 3명 이상이 14.3%였으나 이혼·별거 부인은 동일자녀수에서 각각 89.3%, 10.6%로 사별부인의 현존자녀수가 다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해혼시기

해혼유형별 해혼시기를 보면, 사별부인의 해혼연령은 45.77세로 이혼·별거 부인의 38.53세보다 7.24세가 더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12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사별과 이혼·별거 부인 모두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소폭 늘어났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남편의 경우 사별과 이혼·별거 모두 부인과 유사하였으며, 2009년과의 비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5-12〉 해혼유형별 해혼당시 부인 및 남편의 평균연령

(단위: 세, 명)				
조사연도	(분석대상수)	사별	이혼·별거	전체
2009				
부인	(1,057)	44.73	38.23	41.22
남편	(1,057)	49.55	41.40	45.14
2012				
부인	(1,144)	45.77	38.53	41.82
남편	(1,116)	50.17	41.66	45.55

자료: <표 15-8>과 동일

해혼유형별 해혼시기를 살펴보면, 사별부인은 사별당시 50세 이상인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 36.6%, 30대가 20.4%였다. 이에 비해 이혼·별거부인은 30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대가 32.5%로 많아서 주로 30~40대 연령층에서 이혼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해혼당시 평균연령은 사별부인은 45.77세, 이혼·별거부인은 38.53세로 사별부인이 이혼·별거부인보다 7.24세 많았다.

남편의 경우도 사별은 40~50대(62.7%)에서, 이혼·별거는 30~40대(72.9%)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해혼당시 남편의 평균연령은 사별은 50.17세, 이혼·별거는 41.66세로 사별이 이혼·별거보다 8.51세 많았다.

〈표 15-13〉 해혼유형별 해혼당시 부인 및 남편의 연령분포

(단위: %, 명, 세)			
해혼당시 연령	사별	이혼·별거	전체
부인			
15~29세	2.7	11.6	7.5
30~39세	20.4	47.7	35.1
40~49세	36.6	32.5	34.4
50세 이상	40.3	8.2	23.0
계(수)	100.0(549)	100.0(637)	100.0(1,186)
χ^2	227.156***		
평균연령	45.77	38.53	41.82
T	14.581***		
남편			
15~29세	0.5	5.0	3.0
30~39세	14.8	36.7	26.6
40~49세	25.7	36.2	31.3
50~59세	37.0	16.1	25.8
60세 이상	21.9	6.0	13.3
계(수)	100.0(548)	100.0(638)	100.0(1,186)
χ^2	189.616***		
평균연령	50.17	41.66	45.55
T	16.10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사별의 경우 부인, 남편 모두 40~50대에서, 이혼·별거는 30~40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해체의 비의도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 사망에 의한 해혼은 남녀 모두 40~50대에서, 의도적인 요인인 이혼·별거는 남녀 각각 30대와 40대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부인의 경우 20대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11.6%에 이르며, 남편의 경우에는 50세 이후가 22.1%나 되어 결혼 초기나 황혼기 이혼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 해혼이유

이혼·별거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해혼이유를 살펴본 결과, 경제문제 26.1%, 배우자의 외도 24.2%, 성격차이 22.2%, 학대·폭력 12.9%,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⁵⁷⁾ 2009년과 2012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해혼이유로 성격차이는 줄어든 반면, 학대·폭력과 경제문제에 의한 해혼이 늘어났으며, 나머지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혼·별거 부인의 특성별로 해혼이유를 보면, 지역별로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기타에 의한 해혼비율은 동부지역이 높았고, 배우자 외도, 학대·폭력,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에 의한 해혼비율은 읍·면부 지역에서 높았다. 특히, 성격차이와 경제문제에 의한 이혼·별거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각각 7.4%pt, 9.9%pt 많았다.

이혼·별거 당시 부인의 연령별 해혼이유를 보면, 20대 이하와 30대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 이상은 경제문제가 해혼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연령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57) 통계청 자료(2011)에 의하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44.9%), 경제문제(12.3%), 배우자 부정(8.1%), 가족간 불화(7.1%)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부인의 교육수준별 이혼·별거의 이유를 보면,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은 배우자 외도, 경제문제, 성격차이, 학대·폭력 등의 순이었고,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들은 경제문제, 성격차이, 외도,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순이었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의 부인들은 경제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격차이, 외도, 학대·폭력 등이었다.

부부의 이혼·별거의 이유는 결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부인은 배우자 외도에 의한 해혼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제문제와 성격차이로 인한 해혼이 많았다. 10~19년은 성격차이, 경제문제 및 외도로 인한 해혼이 많은 편이었으며, 가족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혼·별거 비율은 12.5%로 다른 결혼기간에 비해 높았다. 결혼기간이 20년이상 된 부인은 경제문제로 인한 해혼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도, 성격차이로 인한 해혼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혼·별거시 18세 미만 자녀유무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여서 무자녀 부인은 경제문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차이, 외도 그리고 학대·폭력이 많은 편이었다. 유자녀 부인은 경제문제와 외도가 많았고, 다음은 성격차이가 많았으며 가족부양의무 불이행도 많은 편으로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혼·별거 이유는 부부의 결혼연도별로도 차이를 보여 1979년 이하에 결혼한 부인들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가 36.0%로 다른 결혼연도에 비해 많았으며, 1980년대 결혼한 부인은 경제문제, 외도, 성격차이, 학대·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결혼한 부인은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경제문제, 외도, 학대·폭력과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경제문제,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이혼·별거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였다.

〈표 15-14〉 이혼·별거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특성	외도	학대·폭력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부양 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기타 ¹⁾	계(수)	χ^2
전체	24.2	12.9	22.2	26.1	11.1	2.3	1.2	100.0(604)	
지역									
동부	23.6	12.5	22.9	27.1	10.6	2.0	1.3	100.0(546)	8.999
읍·면부	29.3	17.2	15.5	17.2	15.5	5.2	-	100.0(58)	
이혼·별거당시 연령									
29세 이하	30.6	11.1	23.6	23.6	8.3	2.8	-	100.0(72)	
30~39세	25.2	14.0	24.8	21.3	10.1	2.4	2.1	100.0(286)	
40~49세	21.6	13.6	18.1	31.7	13.6	1.5	-	100.0(199)	
50세 이상	19.6	4.3	23.9	37.0	10.9	2.2	2.2	100.0(4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4.8	13.0	15.8	21.7	11.4	1.6	1.6	100.0(184)	
고등학교	20.4	12.1	24.9	26.0	13.0	2.4	1.2	100.0(338)	
대학 이상	17.1	14.6	25.6	37.8	2.4	2.4	-	100.0(82)	
결혼기간									
10년 미만	29.3	11.0	19.5	25.6	9.8	3.0	1.8	100.0(164)	
10~19년	22.6	13.7	24.6	23.4	12.5	2.0	1.2	100.0(248)	
20년 이상	22.1	13.3	19.9	32.0	11.0	1.1	0.6	100.0(181)	
이혼·별거시 18세 미만 자녀유무									
없었음	21.1	16.4	23.0	26.3	6.6	2.6	3.9	100.0(152)	20.725 **
있었음	25.5	11.5	21.7	26.4	12.6	2.0	0.2	100.0(451)	

주: 1) 건강상 이유, 가출 등이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4)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5-15〉 이혼·별거부인의 결혼연도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결혼연도	외도	학대·폭력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부양 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기타 ¹⁾	계(수)	χ^2
2009	25.2	7.4	28.6	22.8	10.6	3.2	2.3	100.0(503)	-
2012	24.2	12.9	22.2	26.1	11.1	2.3	1.2	100.0(601)	
1979년 이하	36.0	13.7	20.9	16.5	10.8	0.7	1.4	100.0(139)	
1980~1989년	19.7	15.9	16.7	33.5	10.7	2.6	0.9	100.0(233)	
1990~1999년	22.2	7.0	32.7	24.0	10.5	1.2	2.3	100.0(171)	
2000~2009년	20.7	17.2	12.1	27.6	17.2	5.2	-	100.0(58)	

주: 1) 건강상의 이유, 가출 등이 포함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5-8>과 동일

라. 해혼부인의 평균 혼인지속기간

해혼부인들의 결혼 시부터 배우자의 사별, 이혼·별거시까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18.9년으로 이 중 사별부인은 23.8년, 이혼·별거부인은 14.7년으로 사별부인의 혼인지속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혼·별거부인보다는 사별부인 중에 고연령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2009년과 2012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사별과 이혼·별거 모두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평균 혼인지속기간이 각각 12.1년과 5.7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도별로는 사별이나 이혼·별거부인 모두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혼인지속기간이 짧았으며, 특히 이혼·별거부인의 혼인지속기간이 짧았다. 1979년까지 결혼한 부인들 중 사별한 부인은 27.4년 동안 결혼이 지속되었으며, 이혼·별거부인은 20.6년 동안 지속되었다.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각각 19.7년과 16.7년 동안 결혼이 지속되었으며,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0.8년과 10.2년 동안, 그리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각각 8.3년과 5.5년 동안 지속되었다.

〈표 15-16〉 해혼부인의 결혼연도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단위: 년, 명)

결혼연도	사별		이혼·별거		전체	
	평균	F	평균	F	평균	F
2009	11.7		9.0		10.2	
(분석대상수)	(480)		(561)		(1,041)	
2012	23.8		14.7		18.9	
1979년 이하	27.4	68.747***	20.6	118.135***	25.2	269.446***
1980~1989년	19.7		16.7		17.9	
1990~1999년	10.8		10.2		10.3	
2000~2012년	8.3		5.5		5.6	
(분석대상수)	(518)		(623)		(1,14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5-8>과 동일

이러한 결혼연도별 혼인지속기간의 변화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젊은 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저연령층의 경우 사별보다는 이혼·별거에 의한 해혼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마. 이혼·별거 제의자

이혼·별거 제의자는 부인이 82.9%로 가장 많았고, 남편이 15.1%였으며, 그 외에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은 2.0%로 남편보다는 부인에 의해 이혼·별거를 제의한 비율이 높았다. 2009년과 2012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2009년에 비해 남편에 의한 제의는 줄어든 반면, 부인에 의한 제의가 늘어났고, 기타 부모 및 가족원에 의한 제의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혼·별거부인의 특성별로 이혼·별거 제의자를 보면, 해혼당시 연령별로 는 전체적으로 부인에 의한 제의가 많았으며, 특히 40대와 50대 이상에서 타 연령층보다 많았다(40대 86.5%, 50대 이상 86.4%).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많았다(20대 이하 16.2%, 30대 17.5%).

교육수준별로도 전체적으로 부인에 의한 제의가 많았으며, 특히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의 저학력층에서 많았다(중학교 이하 84.9%, 고등학교 83.2%).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많았다. 결혼기간별로는 일정하지 않으나 결혼기간이 20년인 경우 부인이 제의한 비율이 높았으며,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결혼기간이 10~19년인 경우 많았으며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은 자녀 1명인 경우 가장 높았으며, 자녀 2명 이상인 경우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일정하지 않았다. 부부간의 연령 차이에 따른 부인

의 이혼·별거 제외율은 1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남편이 제외한 경우는 동갑을 제외하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적은 경우에 오히려 많아서 1~2세 차이가 나는 경우 17.6%의 제외율을 보였으나 1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제외율은 4.2%에 불과하였다.

〈표 15-17〉 이혼·별거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제외자

(단위: %, 명)

특성	남편	부인	기타 ¹⁾	계(수)	χ^2
2009	25.2	73.4	1.4	100.0(567)	
2012	15.1	82.9	2.0	100.0(609)	
이혼·별거당시 연령					
29세 이하	16.2	79.7	4.1	100.0(74)	-
30~39세	17.5	80.8	1.7	100.0(291)	
40~49세	11.5	86.5	2.0	100.0(200)	
50세 이상	13.6	86.4	-	100.0(4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1	84.9	-	100.0(186)	-
고등학교	15.0	83.2	1.8	100.0(339)	
대학 이상	15.9	78.0	6.1	100.0(82)	
결혼기간					
10년 미만	16.0	81.1	3.0	100.0(169)	-
10~19년	18.5	79.8	1.6	100.0(248)	
20년 이상	10.4	88.5	1.1	100.0(183)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없음	15.7	81.7	2.6	100.0(153)	-
1명	8.7	88.5	2.8	100.0(252)	
2명 이상	23.3	76.7	-	100.0(202)	
부부간 연령차이					
동갑	9.5	87.3	3.2	100.0(63)	-
1~2세	17.6	79.0	3.4	100.0(176)	
3~4세	16.8	82.1	1.1	100.0(190)	
5~9세	14.8	83.7	1.5	100.0(135)	
10세 이상	4.2	95.8	-	100.0(24)	

주: 1) 사부모·친정부모 및 기타 가족원;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바. 이혼·별거 부인의 자녀양육

1) 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별거는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 이혼·별거당시의 18세 미만 자녀수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에 이혼·별거한 부인들의 경우 12.3%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였으며, 나머지 87.7%는 자녀를 둔 상태였다. 30대에 이혼·별거한 부인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90.9%였으며, 40대에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비율은 59.2%였다. 그러나 50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비율은 23.0%에 불과하였다.

이는 18세 미만의 평균 자녀수에서도 나타났는데, 이혼·별거당시 29세 이하인 경우 자녀수는 평균 1.30명이었으며, 30대는 1.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40대는 0.86명, 50대는 0.25명으로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18세 미만 자녀수가 적은 편이었다. 이는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아져 성인자녀를 가진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15-18〉 이혼·별거부인의 이혼·별거 당시 연령별 18세 미만 자녀수

(단위: %, 명)

이혼·별거 당시 연령	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χ^2	평균 자녀수	F
	없음	1명	2명 이상	계(수)			
전체	25.3	41.3	33.4	100.0(622)		1.14	
29세 이하	12.3	49.3	38.4	100.0(73)	145.633 ***	1.30	42.325 ***
30~39세	9.2	46.8	44.1	100.0(295)		1.44	
40~49세	40.8	35.9	23.3	100.0(206)		0.86	
50세 이상	77.1	18.8	4.2	100.0(48)		0.2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인 중 현재에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인은 전체 이혼·별거부인 중 46.5%나 되었다. 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수를 살펴보면, 이혼·별거 당시 1명이었던 부인 중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인은 49.6%, 1명은 49.6%, 2명 이상은 0.8%였다. 이혼·별거 당시 2명이었던 부인 중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인은 58.5%, 1명 13.0%, 2명 이상 28.5%로 현재에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인은 각각 50.4%와 41.5%였다.

〈표 15-19〉 15~64세 기혼·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현재 18세 미만 자녀수

(단위: %, 명)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수				χ^2
	없음	1명	2명 이상	계(수)	
전체	53.5	33.3	13.2	100.0(463)	114.439***
1명	49.6	49.6	0.8	100.0(256)	
2명 이상	58.5	13.0	28.5	100.0(207)	

주: 1) 이혼·별거부인 중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자료: 본 조사결과

2) 자녀와의 동거자 및 양육비 제공자

조사당시 이혼·별거부인의 18세 미만의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와의 동거자는 자녀의 모가 76.4%, 자녀의 부는 13.9%로 대부분이 부모 중 한 쪽과 동거하였으며, 9.7%는 조부모 및 기타 친척 등과 동거하였다. 2009년과 2012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2009년에 비해 자녀의 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7.7%p¹ 줄어든 반면, 조부모 및 기타 친척과 동거하는 비율은 늘어났으며, 자녀의 부는 동일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는 전체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읍·면 부지역 거주자는 자녀의 모 외에 부와 동거하는 비율이 27.8%로 높았

고 조부모 및 친척과 동거하는 경우도 11.1%로 높은 편이었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주 동거자가 자녀의 모인 경우는 92.3%로 대부분이었고, 자녀의 부는 7.7%에 불과하였으며, 조부모 및 기타 친척인 경우는 없었다. 만 6~11세의 자녀를 둔 경우는 자녀의 모가 주 동거자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자녀의 부모 일부 나타났다. 만 12~17세 자녀를 둔 경우는 자녀의 모 외에 자녀의 부와 동거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고,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조부모 및 기타 친척과 동거하는 비율이 16.3%로 높았다.

〈표 15-20〉 현재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특성별 동거자¹⁾

(단위: %, 명)

구분	자녀의 부	자녀의 모	조부모 및 기타 친척	계(수)	χ^2
2009	13.9	84.1	2.0	100.0(251)	
2012	13.9	76.4	9.7	100.0(216)	
지역					
동부	12.6	77.8	9.6	100.0(198)	-
읍·면부	27.8	61.1	11.1	100.0(18)	
자녀의 연령					
0~5세	7.7	92.3	-	100.0(26)	-
6~11세	21.2	77.3	1.5	100.0(66)	
12~17세	10.6	73.2	16.3	100.0(123)	

주: 1) 이혼·별거부인 중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5-8>과 동일

다음은 자녀의 연령 및 동거자별 주 양육비 제공자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자녀의 주 양육비 제공자는 자녀의 모가 46.2%였고, 그 다음은 국가(25.5%)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이다.⁵⁸⁾ 이 외에 조부모 및 기타 친척이 18.1%, 자녀의

58)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노동능력이 있어도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족과 그 가족구성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

부가 10.2%였다. 2009년과 2012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2009년에 비해 국가에 의한 지원은 6.2%pt 줄어든 반면, 자녀의 모와 조부모 및 기타 친척에 의한 지원이 다소 늘어났으며, 자녀의 부는 차이가 없었다.

〈표 15-21〉 현재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및 동거자별 주 양육비 제공자¹⁾

(단위: %, 명)

동거자	주 양육비 제공자						X ²
	자녀의 부	자녀의 모	조부모/기타 친척	국가	기타	계(수)	
2009	11.2	44.2	11.2	31.7	1.6	100.0(249)	
2012	10.2	46.2	18.1	25.5	-	100.0(216)	
자녀의 연령							
0~5세	14.8	29.6	3.7	51.9		100.0(27)	19.6**
6~11세	9.0	41.8	17.9	31.3		100.0(67)	
12~17세	9.8	52.5	21.3	16.4		100.0(122)	
자녀와의 동거자							
자녀의 부	69.0	13.8	17.2	-		100.0(29)	-
자녀의 모	1.2	56.7	9.1	32.9		100.0(164)	
조부모 및 기타 친척	-	9.5	90.5	-		100.0(21)	

주: 1) 이혼·별거부인 중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²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5-8>과 동일

자녀의 연령별로는 만 0~5세 이하는 국가가 51.9%이었고, 다음은 자녀의 모 29.6%, 자녀의 부 14.8%, 조부모 및 기타 친척 3.7% 순이었다. 만 6~11세는 자녀의 모가 4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국가, 조부모 및 기타 친척, 자녀의 부 순으로 나타났다. 만 12~17세는 자녀의 모가 52.5%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은 조부모 및 기타 친척, 국가,

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많은 한부모가족이 수혜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와 그 가족에 한해 지원이 제공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이거나 18세 미만 (취학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배우자와 사별, 이혼한 자, 미혼자, 조손가족 및 외국인임. 일부 유배우자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있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복역 중인 경우,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가족 내 불화로 인해 가출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김승권 외, 2009).

자녀의 부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모가 주 양육비 제공자인 비율이 높았으며, 조부모 및 기타 친척은 낮았다. 자녀의 부는 자녀연령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만 0~5세일 때 양육비 제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3절 가족주기의 변화

가족주기에 있어서 결혼과 자녀의 출산은 각 가족주기 단계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으로서 가족주기 단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분석은 자녀 출산경험이 있는 초혼부인으로서 유배우이거나 사별 상태인 부인 8,6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15~64세 초혼부인 중 93.3%가 자녀출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혼연도별로 보면, 1970년대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99.3%가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들이었으며, 1980년대에 결혼한 부인들은 98.5%, 1990년대는 98.2%,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들 중에서는 81.7%가 출산경험이 있었다. 이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 중 일부 저연령층의 경우 출산계획은 있으나 아직 출산하지 않은 부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5-22〉 15~64세 초혼부인의 초혼연도별 출생아 유무¹⁾

출생아 유무	초혼연도				전체
	1979년 이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12년	
없음	0.7	1.5	1.8	18.3	6.7
있음	99.3	98.5	98.2	81.7	93.3
계(수)	100.0(1,211)	100.0(2,328)	100.0(2,440)	100.0(2,680)	100.0(8,659)
χ^2	847.4***				

주: 1) 초혼 유배우·사별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들의 초혼연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젊은 층이어서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30대 이하가 89.8%인데 비해 1990년대 결혼한 부인은 20.7%이었으며, 1980년대 결혼한 부인은 모두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해당되었다. 또한 1970년대 결혼한 부인은 대부분이 50세 이상이었다.

교육수준 역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서 1970년대 이하는 중학교 이하가 60.5%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결혼한 부인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은 점차 감소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높아지는 추세였으며, 특히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62.2%로 다른 연도에 결혼한 부인에 비해 학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산자녀수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1~2명인 비율이 92.7%로 높았고, 2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결혼한 부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3명 이상인 비율은 1970년대 이전에 결혼한 부인인 경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산완료율은 68.9~100.0%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낮았다.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 분석대상 부인 중 17.6%였으며, 이 중 자녀의 결혼이 완료된 부인의 비율은 1970년대 이하에 결혼한 부인의 36.3%와 1980년대 결혼한 부인의 3.9%뿐이었다.

〈표 15-23〉 15-64세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¹⁾

(단위: %, 명)

특성	1979년 이하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12년	전체
연령					
29세 이하	-	-	-	14.0	3.8
30~39세	-	-	20.7	75.8	26.7
40~49세	0.2	33.8	75.4	10.2	34.7
50세 이상	99.8	66.2	3.9	0.1	34.8
계(수)	100.0(1,203)	100.0(2,294)	100.0(2,396)	100.0(2,191)	100.0(8,084)
χ^2	9,229.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0.5	25.4	3.9	1.7	17.9
고등학교	34.0	54.5	52.3	36.1	45.8
대학 이상	5.5	20.1	43.8	62.2	36.3
계(수)	100.0(1,201)	100.0(2,294)	100.0(2,394)	100.0(2,189)	100.0(8,078)
χ^2	2,945.8***				
출산자녀수					
1명	8.2	13.7	17.2	44.3	22.2
2명	53.2	70.3	68.3	48.4	61.2
3명	29.0	13.4	13.4	6.8	13.9
4명 이상	9.6	2.6	1.1	0.5	2.7
계(수)	100.0(1,202)	100.0(2,294)	100.0(2,396)	100.0(2,190)	100.0(8,082)
χ^2	1,367.0***				
출산완료 여부					
출산완료	100.0	99.9	98.7	68.9	90.6
출산 중	-	0.1	1.3	31.1	9.4
계(수)	100.0(887)	100.0(2,131)	100.0(2,353)	100.0(2,177)	100.0(7,548)
χ^2	1,694.3***				
자녀혼인여부					
모두 혼인	36.3	3.9	-	-	6.5
일부 혼인, 일부 미혼	44.1	16.1	-	-	11.1
모두 미혼	19.6	80.0	100.0	100.0	82.4
계(수)	100.0(1,202)	100.0(2,287)	100.0(2,396)	100.0(2,190)	100.0(8,075)
χ^2	4,445.5***				

주: 1)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하면서 출산자녀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이들의 초혼연도별 평균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58.17세였으며,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50.99세,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42.44세, 그리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34.13세였

다. 이들의 평균 출생아 수는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42명,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6명,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99명,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들은 1.64명으로 최근 결혼한 부인일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균출생아수의 감소양상은 자녀관의 변화 등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평균 현존자녀수는 총 출생자녀 중 사망자녀를 제외한 자녀수로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평균 2.39명이었으나,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3명,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98명, 그리고 2000~2012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63명이었다. 따라서 평균 출산자녀수와 평균 현존자녀수와의 차이는 그 간의 사망률 개선에 의한 영향으로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추가희망자녀수는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부인들이 일부 포함된 1990년대에 결혼한 부인들부터 살펴보면,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05명, 그리고 2000~2012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15명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많았다. 출산완료율은 1979년 이전과 198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각각 100.0%와 99.9%로 거의 출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90~1999년에도 98.7%로 대부분이 출산을 완료한 경향을 보였으나, 2000~2012년에는 68.9%로 낮았다.

기혼자녀를 둔 부인은 연령이 높고 결혼연도가 빠를수록 비율이 높아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80.4%로 4/5에 해당되었으나,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은 20.0%에 불과하였다. 평균 기혼자녀수 역시 결혼연도가 빠른 부인일수록 많아서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1.82명,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은 1.19명, 그리고 1990~1999년과 2000~2012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아직 기혼자녀가 없었다.

가족주기의 각 단계별 시작 및 종료시점을 결정짓는 가족생애사건을 살펴보면, 제1단계인 형성기는 결혼부터 첫째아 출산시점까지, 제2단계

인 확대기는 첫째아 출산부터 막내아 출산시점까지이며, 제3단계인 확대 완료기는 막내아 출산시부터 자녀의 결혼시작 시까지, 제4단계인 축소기는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녀의 결혼이 완료된 시점, 제5단계인 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6단계인 해체기는 배우자 사망으로부터 본인 사망 시까지의 기간으로 하였다.

〈표 15-24〉 15~64세 초혼 출산경험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단위: 세, 명, %)

특성	초혼연도				전체
	1979년 이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12년	
평균 연령(세)	58.17	50.99	42.44	34.13	44.95
(분석대상수)	(1,203)	(2,294)	(2,396)	(2,190)	(8,083)
F	12,624.8***				
평균 출생아수(명)	2.42	2.06	1.99	1.64	1.98
(분석대상수)	(1,203)	(2,294)	(2,396)	(2,190)	(8,083)
F	385.5***				
평균 현존자녀수(명)	2.39	2.03	1.98	1.63	1.96
(분석대상수)	(1,203)	(2,294)	(2,396)	(2,190)	(8,083)
F	362.7***				
출산완료 여부					
출산완료: 완료율(%) ¹⁾	100.0	99.9	98.7	68.9	90.6
(분석대상수)	(887)	(2,131)	(2,353)	(2,177)	(7,548)
χ^2	1,694.3***				
출산미완: 평균 추가희망자녀수(명)	1.00	1.00	1.05	1.15	1.14
(분석대상수)	(3)	(3)	(23)	(467)	(496)
F	.8				
기혼자녀 여부					
기혼자녀 둔 비율(%)	80.4	20.0	-	-	17.6
(분석대상수)	(1,202)	(2,287)	(2,396)	(2,190)	(8,075)
χ^2	4,249.5***				
평균 기혼자녀수(명)	1.82	1.19	-	-	1.61
(분석대상수)	(966)	(457)	-	-	(1,422)
F	239.3***				

주: 1) 추가자녀 희망 여부에서 '생각 중'인 경우를 완료에 포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 가족형성기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의 초혼연령은 21.61세였으나,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은 23.42세,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은 25.00세, 그리고 2000~2012년에 결혼한 부인은 27.24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25〉 가족형성기 부인¹⁾의 평균연령

(단위: 세)			
초혼연도	(분석대상수)	초혼연령	F
전체	(8,083)	24.65	
1979년 이전	(1,203)	21.61	1,058.5***
1980~1989년	(2,294)	23.42	
1990~1999년	(2,396)	25.00	
2000~2012년	(2,190)	27.24	

주: 1)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 $p < .1$

자료: 본 조사결과

2. 가족확대기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도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아져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23.14세였으나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은 24.84세,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은 26.57세, 그리고 2000~2012년에 결혼한 부인은 28.70세였다.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26.87세, 1980~1989년에 결혼

한 부인은 28.17세로 높아졌다.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은 29.78세, 2000~2012년에 결혼한 부인은 31.07세에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아 출산과 막내아 출산간의 소요 기간은 초혼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3.73년의 차이를 보였고, 1980년대는 3.33년, 1990년대 3.21년,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2.37년으로 결혼연도가 최근으로 오면서 첫째아와 막내아 사이의 출산 간격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5-26〉 가족확대기 부인¹⁾의 평균연령

(단위: 세)

초혼연도	첫째아 출산			막내아 출산		
	(분석대상수)	평균	F	(분석대상수)	평균	F
1979년 이전	(1,199)	23.14		(1,199)	26.87	
1980~1989년	(2,294)	24.84	819.2	(2,294)	28.17	338.3
1990~1999년	(2,396)	26.57	***	(2,396)	29.78	***
2000~2012년	(2,190)	28.70		(2,190)	31.07	

주: 1)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3. 가족축소기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 시 부인의 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의 경우는 자녀결혼 시작이 54.78세였으나, 2000~2012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59.45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자녀출산완료 후 자녀결혼 시작 시까지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완료 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59.47세, 2000~2012년에 결혼한 부인은 63.90세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부인의 결혼연도가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이 상승하고는 있으며 그 간격이 다소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자녀수 감소로 출산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자녀의 결혼연령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따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설명된다.

자녀결혼 시작과 자녀결혼 완료 간의 소요기간은 초혼연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4.69년의 차이를 보였고, 1980년대는 3.28년, 1990년대 3.33년,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4.45년으로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부인의 결혼연도가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의 결혼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혼인가치관의 약화, 대학원 진학 및 취업 등으로 인한 만혼화 및 결혼기피 등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표 15-27〉 가족축소기 부인¹⁾의 평균연령

(단위: 세)

초혼연도	자녀결혼 시작			자녀결혼완료		
	(분석대상수)	평균	F	(분석대상수)	평균	F
1979년 이전	(1,199)	54.78	3.1 [#]	(1,199)	59.47	59.3***
1980~1989년	(2,294)	56.73		(2,294)	60.01	
1990~1999년	(2,396)	58.18		(2,396)	61.51	
2000~2012년	(2,190)	59.45		(2,190)	63.90	

주: 1)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4. 가족해체기

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사망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76.14세, 2000년~2012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85.92세로 추정되었다. 해체기의 종료시점인 부인 본인 사망시 연령은 같은 기간에 결혼한 부인들 간에 각각 78.10세와 90.62세로 추정되었다. 남편사망시 부인연령과 부인 본인 사망연령은 결혼년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사망시 부인연령과 부인 본인 사망시 연령 간의 잔여기간은 초혼 연도별로 차이를 보여서,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1.96년, 1980년대 2.96년, 1990년대 3.82년,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4.70년으로 결혼년도가 최근으로 오면서 남편사망 후 부인 혼자 남게 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남녀간에 평균수명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만혼화 등으로 부인의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가족주기 내에서 자녀출산 및 결혼 완료 후 부부만이 함께 지내는 잔여기간이 단축되고는 있으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가족해체기가 연장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표 15-28〉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¹⁾의 평균연령

(단위: 세)

초혼연도	남편사망		본인사망	
	(분석대상수)	평균	(분석대상수)	평균
1979년 이전	(1,193)	76.14	(1,203)	78.10
1980~1989년	(2,287)	85.19	(2,294)	88.15
1990~1999년	(2,396)	85.56	(2,396)	89.38
2000~2012년	(2,190)	85.92	(2,190)	90.62

주: 1)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하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길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즉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56.49년이었으나 2000~2012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63.38년으로 추정되어 약 30여 년 동안 6.89년 정도 더 연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은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추세는 지속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4절 시사점

1. 혼인실태 변화의 시사점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은 교육수준 및 취업률의 향상으로 인한 교육기간 및 취업기간의 확대, 그리고 자아성취 욕구 증대와 함께 결혼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만혼화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고연령층의 출산으로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

남녀의 결혼연령 및 결혼경력도 뚜렷한 변화추세를 보인다. 남녀의 결혼연령별 결합형태는 점차 남녀가 동갑이거나 여성이 연상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경력별 남녀 결합형태는 초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미한 변화이나 초혼남녀의 결합이 점차 감소하고, 초혼남성과 재혼여성의 결합과 재혼남녀의 결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혼의 증가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취업 증대 등으로 경제력이 향상되고, 이혼허용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한편, 급속한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로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대와 가족 결속력의 약화, 사회적·법적·도덕적으로 이혼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약화로, 이혼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허용적으로 전환되면서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혼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는 주 생계부양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가족해체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결혼행태 변화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혼화 및 결혼기피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결혼 부담의 주요 원인인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자리 분양과 임대주택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구입 대출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미혼인구의 결혼의향은 청년 실업과도 관련이 높으므로 결혼적령기 인구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턴사원제를 확대하고 맞춤형 취업능력 강화를 위해 청년층의 학력 및 기술 등에 적합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청소년 고용확대를 위해 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청년채용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이혼을 최소화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지지를 높이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직전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지지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교환 및 친교활동을 통한 유대망 형성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혼인해소를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이혼중재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환으로 이혼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혼·사별 등으로 해체된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의 일환으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고용안정과 자녀양육 부담완화 등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일환으로 한부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며, 현실수준의 자녀양육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 환경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근로형태 및 직장보육시설 마련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혼가족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재혼가족 등의 다양한 자조모임을 통하여 재혼가족의 어려움, 갈등 및 위기극복 사례, 자녀양육 정보 등을 공유하고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가정 및 사회적응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2. 가족주기 변화의 시사점

가족주기란 부부를 중심으로 결혼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가족생애 사건발생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인구사회적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최근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자녀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만혼화 및 결혼기피 등으로 자녀결혼 완료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사망률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각 가족주기 단계별로 기간 상에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초혼연령 상승으로 가족형성시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첫째아 출산 시작인 가족확대기는 지연되고 있으나 소자녀 출산으로 부인의 가임기간이 단축되면서 첫째아와 막내아 출산 간에 간격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자녀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양육부담이 과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청년층의 만혼화 및 결혼기피 등으로 가족축소기가 늦어지

고, 자녀결혼 시작부터 완료까지 간격이 벌어져서 가족축소 완료가 지연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성인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지내는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여 성인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결혼부터 사망까지 부부가 함께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배우자 없이 지내는 나홀로 노인의 급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주기의 변화양상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자녀가 독립하는 가족축소기가 늦어지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에 새로운 관계 모색이 요구된다. 세대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서 일방적인 의존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 교육 및 소통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 중심의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확립을 위해 가족유형 및 가족주기별로 부부관계, 부모역할 관련 교육·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인식을 개선하고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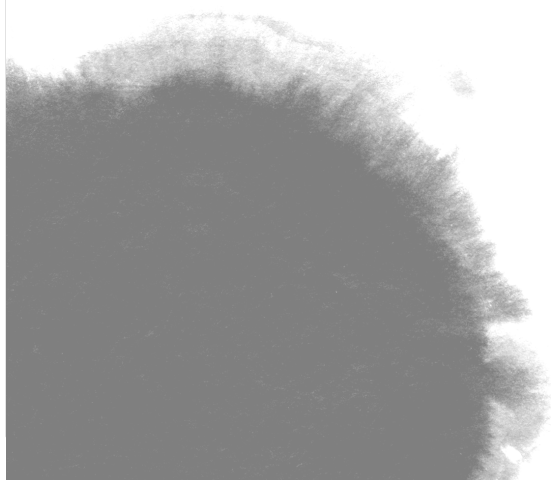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셋째,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반을 통해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비 노인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및 여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은퇴설계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한다. 또한 현 은퇴제도는 급변하는 가족

주기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은퇴제도의 개선과 함께 근로를 희망하는 건강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해체기의 연장은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해 노인부부 가구 및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증가현상을 보여 이들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나홀로 노인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보호기반의 일환으로 사회적 지지층 형성과 함께 노인친화적 돌봄망 구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일환으로 민간자원봉사자와의 1:1 결연, 독거노인 자조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층을 확보하고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족유대감 유지와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 개발과 소규모 노인클럽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정경희 외, 2012).

16장

자녀양육 태도 및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제16장 자녀양육 태도 및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지대하다. 특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노력은 희생에 가까울 정도이다. 이러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이룩하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이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는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한계를 크게 느끼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한국부모의 상당수가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차츰 증가하고 있다.⁵⁹⁾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평생 가져야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부모도 5%에 달하여, 이는 한국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의식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통계청의 2008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70%가 넘는 부모가 미취업 성인자녀(미혼)의 용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

59) 3년 단위로 실시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2003~2009년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68호(2012-51)에 게재되어 있는 결과를 인용하였다.

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자녀의 대학교육비는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부모가 전혀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매우 미미하였다. 심지어는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를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도 19.4%에 달해 자녀양육에 대하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20~39세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출산 중단 이유 중 큰 부분이 자녀교육비 부담과 자녀양육비 부담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느끼는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심한 부담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동시에 상당한 자원과 노력,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며, 최근 자녀양육 질의 향상과 사교육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현상을 배경으로 하여 본 장에서는 자녀양육책임에 관한 부모의 태도와 자녀양육책임 한계를 살피고, 자녀양육비의 각 항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자녀양육비란 출산 이후 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총괄하며, 정확한 자녀양육비 산출을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이론적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이를 크게 구분하면 market basket 방식과 가계지출조사 방식으로 나뉘는데(이성림, 2007), 먼저 market basket 방식은 전문가들의 판단하에 자녀양육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표준 예산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한 가지는 실제 가계지출조사 자료를 통하여 자녀양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Engel 방식, Rothbarth 방식, Barten-Gorman 방식 등이

있다. Engel 방식은 엥겔법칙에 근거하여 자녀 출산 전후의 소득에 대한 식비 비율을 비교하여 이를 실제 비용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자녀양육비를 산출한다. Rothbarth 방식은 자녀의 출생에 따라 성인의 생활복지수준을 반영하는 성인재화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녀 출생 전후의 성인재화 지출수준을 비교하여 자녀양육비를 추정한다. Barten-Gorman 방식도 다른 두 방식과 유사하게 부모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기준으로 자녀 출산 전후를 비교한다. 이러한 이론적 추정 방식 외에도 자녀양육에 사용된 실제 소비금액을 직접 조사하여 파악하는 방식도 종종 사용된다(이성립, 2007).

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각 가구에서 자녀양육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조사하는 방법을 택한다. 지출세부항목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피복 및 신발비, 공교육비 및 관련 비용, 보충교육비 및 관련비용,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비소비지출의 10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누락되는 소비지출항목이 없도록 하였다. 이 중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피복 및 신발비, 공교육비 및 관련 비용, 보충교육비 및 관련비용이 자녀양육비용으로 책정된다.

3. 정책동향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0~'15)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며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한다.

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0~2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며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만 3~4세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2) 5세 누리과정

2011년에는 소득 하위 70%에만 제공되었던 보육·교육비를 2012년 3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제공하도록 확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원단가도 '12년 20만원, '13년 22만원, '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만5세아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장애 아동·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유아학비를 전액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특수교육학비를 전액지원하고 있다.

나. 양육수당 지원 확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11년부터 양육수당 수혜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을 실시하였으며, '12년부

터 취학전 등록장애 아동(소득수준 무관)과 농어촌 아동(소득 일정기준 미만)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다자녀가정 학생 학비를 지원은 자녀 양육 비용을 줄여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 되던 고등학교 수업료를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에 대하여 전면지원토록 확대되었으며, 현재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에 대하여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시행중이다.

제2절 자녀양육 태도 및 책임한계

1. 자녀양육 태도

본 연구에서는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태도』에 태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세 항목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 등이다.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과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은 찬성률(다 소 또는 매우 그렇다)이 각각 90.4%, 95.1%로 매우 높았다.

그렇지만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은

반대율 57.6%, 찬성률 42.3%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입양에 대한 닫혀진 의식이 강한 점은 부정적이지만, 이혼후 비양육 자녀에 대한 이혼부부의 ‘분담양육’에 대한 강한 의식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표 16-1〉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태도’

(단위: %, 명)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①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	21.5	36.1	33.0	9.3	100.0 (10,049)
②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8.2	56.2	34.2	100.0 (10,054)
③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	0.9	4.1	52.7	42.4	100.0 (10,054)

자료: 본 조사결과

다음은 이들 세 항목의 자녀양육 태도를 응답자의 성(性)에 따른 가구 및 개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에 대하여 기혼남성은 반대율(56.7%)이 찬성률(47.2%)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6년 찬성률 64.6%, 2009년 찬성률 53.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즉, 입양에 대한 폐쇄된 의식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 항목에 대한 찬성률은 읍·면부지역 거주(47.2%), 1인 가구(46.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욕구소득비 4 이상 가구(51.4%)의 기혼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6-2〉 기혼남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①

(단위: %, 명)

특성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06 ¹⁾	9.1	26.2	54.1	10.5	100.0(1,319)	
2009 ²⁾	2.7	43.5	41.9	11.9	100.0(787)	
2012 ³⁾	22.0	34.7	39.4	7.8	100.0(1,811)	
지역						
동부	22.6	34.9	35.3	7.3	100.0(1,529)	2.6
읍·면부	19.1	33.7	39.4	7.8	100.0(282)	
가구원 수						
1인	28.1	25.7	41.7	4.5	100.0(331)	28.5**
2인	21.0	38.0	34.6	6.4	100.0(518)	
3~4인	20.1	36.2	34.7	9.0	100.0(835)	
5인 이상	22.8	34.6	33.9	8.7	100.0(12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7.5	30.5	32.8	9.2	100.0(131)	33.2**
100~200 미만	27.4	35.1	32.3	5.1	100.0(350)	
200~300 미만	23.7	36.6	31.6	8.1	100.0(396)	
300~400 미만	23.3	33.9	36.3	6.5	100.0(292)	
400~500 미만	19.6	34.7	38.4	7.3	100.0(245)	
500 이상	14.2	34.5	42.8	8.5	100.0(388)	
육구소득비						
1 미만	24.8	37.2	28.1	9.9	100.0(121)	48.3***
1~2 미만	28.7	37.3	26.5	7.6	100.0(408)	
2~3 미만	22.6	31.8	38.3	7.3	100.0(522)	
3~4 미만	22.8	34.7	35.6	6.8	100.0(337)	
4 이상	13.5	35.1	44.7	6.7	100.0(41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본 조사결과

또한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에 대한 찬성률은 40대 연령층(46.8%), 유배우(44.3%), 취업중(44.2%)인 기혼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6-3〉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①

(단위: %, 명)

특성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15~29세	20.8	62.5	16.7	-	100.0(24)	20.0 [#]
30~39세	19.3	36.9	38.2	5.6	100.0(249)	
40~49세	21.0	32.3	37.7	9.1	100.0(539)	
50~59세	24.6	34.0	34.4	7.0	100.0(744)	
60세 이상	19.6	36.9	36.1	7.5	100.0(255)	
혼인상태						
유배우	19.5	36.1	35.7	8.6	100.0(1,249)	22.5 ^{**}
사별	25.3	35.8	34.7	4.2	100.0(95)	
이혼·별거	27.9	30.5	36.7	4.9	100.0(46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5	32.3	37.4	5.8	100.0(412)	12.4 [#]
고등학교	23.3	32.5	36.3	8.0	100.0(800)	
대학 이상	18.7	39.1	34.4	7.8	100.0(599)	
취업여부						
취업	22.1	33.7	36.8	7.4	100.0(1,515)	5.1
비취업	21.6	39.9	31.1	7.4	100.0(29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에 대하여 기혼여성은 반대율(57.9%)이 찬성률(42.1%)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6년 찬성률 59.3%, 2009년 찬성률 54.9%보다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이는 기혼남성의 찬성률보다 낮다(표 16-2 참조).

특히, 이 항목에 대한 찬성률은 읍·면부지역 거주(45.3%), 2인 가구(44.5%),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43.8%), 욕구소득비 4 이상 가구(44.1%)의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6-4〉 기혼여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①

(단위: %, 명)

특성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06	9.0	31.7	49.4	9.9	100.0(8,660)	
2009	4.2	40.9	43.7	11.2	100.0(8,287)	
2012	21.4	36.5	32.4	9.7	100.0(8,236)	
지역						
동부	22.0	36.4	31.9	9.7	100.0(7,144)	12.4**
읍·면부	18.0	36.7	36.1	9.2	100.0(1,092)	
가구원 수						
1인	22.8	34.5	35.1	7.6	100.0(527)	30.0***
2인	19.4	36.1	33.2	11.3	100.0(1,719)	
3~4인	21.0	36.9	32.6	9.6	100.0(5,066)	
5인 이상	26.6	36.1	28.8	8.5	100.0(92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4.5	36.1	32.1	7.3	100.0(327)	27.4*
100~200 미만	23.8	34.4	32.7	9.1	100.0(890)	
200~300 미만	23.1	33.1	34.6	9.2	100.0(1,552)	
300~400 미만	20.4	39.1	30.6	9.9	100.0(1,689)	
400~500 미만	21.2	37.8	31.0	10.0	100.0(1,292)	
500 이상	20.0	37.3	32.6	10.1	100.0(2,425)	
옥구소득비						
1 미만	28.3	35.3	27.3	9.0	100.0(300)	42.2***
1~2 미만	23.4	34.3	34.1	8.2	100.0(1,682)	
2~3 미만	22.8	37.1	29.9	10.2	100.0(2,609)	
3~4 미만	19.1	37.9	33.2	9.8	100.0(1,574)	
4 이상	18.8	37.1	34.0	10.1	100.0(2,01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6-2>와 동일

또한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에 대한 찬성률은 60세 이상 연령층(47.3%), 사별(43.2%),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43.5%), 취업중(42.4%)인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6-5〉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①

(단위: %, 명)

특성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15~29세	23.8	31.8	35.9	8.5	100.0(387)	45.0 ***
30~39세	20.9	39.6	30.8	8.7	100.0(2,276)	
40~49세	22.9	36.5	31.0	9.7	100.0(2,801)	
50~59세	20.4	34.6	33.7	11.3	100.0(2,360)	
60세 이상	18.1	34.5	40.3	7.0	100.0(414)	
혼인상태						
유배우	21.2	36.7	32.2	9.8	100.0(7,052)	8.0
사별	21.5	35.2	35.9	7.3	100.0(548)	
이혼·별거	23.4	34.7	31.6	10.4	100.0(6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8	35.4	32.9	9.8	100.0(1,479)	9.0
고등학교	22.5	36.8	31.5	9.2	100.0(3,743)	
대학 이상	19.9	36.6	33.3	10.2	100.0(3,014)	
취업여부						
취업	20.8	36.8	32.7	9.7	100.0(4,143)	1.9
비취업	22.1	36.2	32.1	9.6	100.0(4,09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두 번째로,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대하여 기혼남성은 찬성률(89.9%)이 반대율(10.1%)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이는 기혼남성의 가구특성에 관계없이 모두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동부지역 거주가구(90.1%), 2인 가구(90.9%),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93.8%), 욕구소득비 4 이상 가구(92.3%)의 기혼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6-6〉 기혼남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②

(단위: %, 명)

특성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7	8.4	57.3	32.6	100.0(1,811)	
지역						
동부	1.8	8.0	58.4	31.7	100.0(1,529)	6.5*
읍·면부	1.1	10.3	51.4	37.2	100.0(282)	
가구원 수						
1인	3.0	12.4	59.5	25.1	100.0(331)	21.9**
2인	1.3	7.7	56.9	34.0	100.0(520)	
3~4인	1.4	7.8	57.1	33.7	100.0(835)	
5인 이상	2.3	4.7	53.9	39.1	100.0(12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5.3	12.2	54.2	28.2	100.0(131)	64.1***
100~200 미만	2.0	12.0	64.1	21.9	100.0(351)	
200~300 미만	3.0	6.3	52.9	37.7	100.0(395)	
300~400 미만	1.0	10.3	54.8	33.9	100.0(292)	
400~500 미만	-	6.9	61.1	32.0	100.0(247)	
500 이상	0.3	5.9	55.9	37.9	100.0(388)	
육구소득비						
1 미만	3.3	13.2	62.8	20.7	100.0(121)	48.2***
1~2 미만	4.7	9.8	55.3	30.2	100.0(407)	
2~3 미만	1.0	6.9	56.8	35.3	100.0(521)	
3~4 미만	0.3	8.8	59.3	31.6	100.0(339)	
4 이상	0.5	7.2	56.5	35.8	100.0(41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또한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대한 찬성률은 기혼남성의 개인특성에 상관없이 높았다. 그럼에도 40대 연령층(90.5%), 유배우(91.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중(90.4%)인 기혼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6-7〉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②

(단위: %, 명)

특성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15~29세	-	8.0	68.0	24.0	100.0(25)	16.8
30~39세	3.2	7.2	53.8	35.9	100.0(251)	
40~49세	1.7	7.8	54.4	36.1	100.0(540)	
50~59세	1.7	8.2	59.2	30.8	100.0(743)	
60세 이상	0.8	11.3	60.2	27.7	100.0(256)	
혼인상태						
유배우	1.4	6.9	56.3	35.4	100.0(1,251)	34.5***
사별	4.2	5.3	67.4	23.2	100.0(95)	
이혼·별거	2.1	13.2	57.9	26.7	100.0(46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	11.2	62.1	25.2	100.0(412)	20.9**
고등학교	1.9	7.6	53.5	37.0	100.0(802)	
대학 이상	1.7	7.7	59.1	31.6	100.0(599)	
취업여부						
취업	1.7	7.9	56.2	34.2	100.0(1,518)	12.5**
비취업	2.0	11.1	62.6	24.2	100.0(29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대하여 기혼여성도 기혼남성과 마찬가지로 찬성률(90.5%)이 반대율(9.5%)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 항목에 대한 찬성률은 기혼여성의 가구특성에 관계없이 모두가 높았다. 특히, 3~4인 가구원을 가진 가구(91.2%),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91.5%), 욕구소득비가 높은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6-8〉 기혼여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②

(단위: %, 명)

특성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3	8.2	55.9	34.6	100.0(8,241)	
지역						
동부	1.4	8.1	55.8	34.7	100.0(7,148)	1.6
읍·면부	1.0	8.4	57.0	33.6	100.0(1,093)	
가구원 수						
1인	1.9	10.2	57.9	30.0	100.0(527)	22.2**
2인	1.2	8.8	57.4	32.6	100.0(1,717)	
3~4인	1.2	7.6	55.9	35.3	100.0(5,070)	
5인 이상	1.9	9.3	52.2	36.6	100.0(92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5	13.2	50.9	34.4	100.0(326)	36.5**
100~200 미만	1.8	9.8	54.0	34.5	100.0(891)	
200~300 미만	1.4	7.5	59.5	31.6	100.0(1,552)	
300~400 미만	1.6	7.3	55.2	36.0	100.0(1,691)	
400~500 미만	1.2	8.4	53.3	37.1	100.0(1,293)	
500 이상	1.0	7.5	56.9	34.6	100.0(2,427)	
육구소득비						
1 미만	2.0	13.6	46.5	37.9	100.0(301)	31.8**
1~2 미만	1.8	8.3	57.1	32.8	100.0(1,681)	
2~3 미만	1.6	8.0	55.3	35.1	100.0(2,610)	
3~4 미만	1.0	7.8	55.5	35.7	100.0(1,575)	
4 이상	0.9	7.4	57.4	34.3	100.0(2,01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또한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대한 찬성률은 기혼여성의 개인특성에 상관없이 높았다. 그럼에도 40대 연령층(91.7%), 유배우(91.0%),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92.2%), 비취업(92.0%)인 기혼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6-9〉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②

(단위: %, 명)

특성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15~29세	1.0	7.7	55.3	36.0	100.0(389)	25.0*
30~39세	1.6	9.0	53.9	35.5	100.0(2,278)	
40~49세	1.3	7.0	56.0	35.7	100.0(2,802)	
50~59세	1.2	8.8	56.7	33.2	100.0(2,359)	
60세 이상	0.7	8.5	63.0	27.8	100.0(414)	
혼인상태						
유배우	1.2	7.8	55.8	35.2	100.0(7,058)	20.2**
사별	1.3	10.3	58.6	29.9	100.0(546)	
이혼·별거	2.0	11.0	55.4	31.6	100.0(6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	8.5	59.3	30.9	100.0(1,481)	36.3***
고등학교	1.5	9.3	55.9	33.3	100.0(3,743)	
대학 이상	1.2	6.7	54.3	37.9	100.0(3,016)	
취업여부						
취업	1.4	9.5	56.8	32.3	100.0(4,144)	31.6***
비취업	1.2	6.9	55.1	36.9	100.0(4,09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마지막으로,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에 대하여 기혼남성은 찬성률(94.0%)이 반대율(6.0%)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 항목에 대한 찬성률은 기혼남성의 가구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가구(96.9%),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대체로 가구소득이 많은 가구, 욕구소득비 4 이상 가구(97.1%)의 기혼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6-10〉 기혼남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③

(단위: %, 명)

특성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	5.0	49.6	44.4	100.0(1,814)	
지역						
동부	1.2	5.4	49.0	44.5	100.0(1,530)	6.5 [#]
읍·면부	-	3.2	53.2	43.7	100.0(284)	
가구원 수						
1인	1.2	9.4	57.9	31.5	100.0(330)	47.6 ^{***}
2인	0.8	5.8	48.9	44.5	100.0(519)	
3~4인	1.0	3.2	48.4	47.4	100.0(837)	
5인 이상	1.6	2.3	39.1	57.0	100.0(12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8	13.0	51.1	32.1	100.0(131)	60.3 ^{***}
100~200 미만	0.9	7.1	55.1	36.9	100.0(350)	
200~300 미만	1.0	4.3	47.8	46.8	100.0(395)	
300~400 미만	1.7	4.1	47.3	46.9	100.0(292)	
400~500 미만	-	3.7	50.8	45.5	100.0(246)	
500 이상	0.3	2.3	47.3	50.1	100.0(389)	
육구소득비						
1 미만	4.1	14.0	51.2	30.6	100.0(121)	49.7 ^{***}
1~2 미만	1.5	5.1	51.2	42.2	100.0(408)	
2~3 미만	1.2	3.8	49.5	45.5	100.0(521)	
3~4 미만	0.6	5.6	47.5	46.3	100.0(339)	
4 이상	-	2.9	49.5	47.6	100.0(41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또한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에 대한 찬성률은 기혼남성의 개인특성에 상관없이 높았다. 특히, 40대 연령층(94.8%), 사별(99.0%), 고등학교 및 대학 이상 교육수준(94.8%), 취업중(94.8%)인 기혼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11〉 기혼남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③

(단위: %, 명)

특성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15~29세	4.2	8.3	54.2	33.3	100.0(24)	22.1*
30~39세	2.8	3.2	47.8	46.2	100.0(251)	
40~49세	0.6	4.6	46.7	48.1	100.0(540)	
50~59세	0.8	5.2	51.0	42.9	100.0(743)	
60세 이상	0.4	6.3	53.1	40.2	100.0(256)	
혼인상태						43.3***
유배우	1.0	3.8	46.8	48.3	100.0(1,250)	
사별	-	1.1	57.9	41.1	100.0(95)	
이혼·별거	1.1	9.0	55.4	34.5	100.0(469)	
교육수준						15.4*
중학교 이하	1.0	7.8	52.6	38.7	100.0(411)	
고등학교	0.9	4.4	50.3	44.5	100.0(803)	
대학 이상	1.2	4.0	46.6	48.2	100.0(599)	
취업여부						19.2***
취업	1.0	4.2	48.7	46.1	100.0(1,517)	
비취업	1.0	9.1	54.1	35.8	100.0(29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에 대하여 기혼여성도 기혼남성과 마찬가지로 찬성률(95.3%)이 반대율(4.7%)보다 현저히 높으며, 이는 기혼남성보다도 높은 수치이다(표 16-10 참조).

이 항목에 대한 찬성률은 기혼여성의 가구특성에 관계없이 모두가 높았다. 특히, 3~4인 가구원을 가진 가구(96.0%),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96.8%), 욕구소득비 4 이상의 가구(97.0%)의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6-12〉 기혼여성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③

(단위: %, 명)

특성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8	3.9	53.3	42.0	100.0(8,242)	
지역						
동부	0.9	3.9	52.8	42.4	100.0(7,148)	6.0
읍·면부	0.5	3.6	56.5	39.4	10.00(1,094)	
가구원 수						
1인	1.1	5.9	61.1	31.9	100.0(527)	43.2***
2인	1.2	4.4	54.6	39.8	100.0(1,717)	
3~4인	0.7	3.3	52.5	43.5	100.0(5,070)	
5인 이상	0.9	4.6	50.9	43.6	100.0(928)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2	7.7	56.1	35.0	100.0(326)	71.9***
100~200 미만	0.7	6.3	54.0	39.0	100.0(890)	
200~300 미만	1.4	3.3	53.9	41.4	100.0(1,552)	
300~400 미만	1.1	4.1	54.3	40.5	100.0(1,691)	
400~500 미만	0.3	4.3	54.3	41.1	100.0(1,292)	
500 이상	0.6	2.6	50.8	46.0	100.0(2,427)	
육구소득비						
1 미만	0.7	7.6	48.5	43.2	100.0(301)	43.0***
1~2 미만	1.2	4.9	54.8	39.1	100.0(1,682)	
2~3 미만	0.9	3.8	54.3	41.0	100.0(2,610)	
3~4 미만	0.8	4.1	52.0	43.2	100.0(1,573)	
4 이상	0.6	2.4	52.2	44.8	100.0(2,01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또한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에 대한 찬성률은 기혼여성의 개인특성에 상관없이 높았다. 특히, 40대 연령층(96.3%), 유배우(95.6%), 교육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

〈표 16-13〉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자녀양육 태도」 ③

(단위: %, 명)

특성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				계(수)	χ^2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15~29세	2.3	3.6	52.1	42.0	100.0(388)	36.2***
30~39세	1.0	3.8	51.7	43.5	100.0(2,278)	
40~49세	0.7	3.0	53.2	43.1	100.0(2,801)	
50~59세	0.7	4.8	54.1	40.4	100.0(2,359)	
60세 이상	0.7	4.3	59.9	35.0	100.0(414)	
혼인상태						
유배우	0.9	3.6	52.4	43.2	100.0(7,058)	36.4***
사별	1.1	4.4	58.2	36.3	100.0(546)	
이혼·별거	0.8	6.0	59.9	33.3	100.0(6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7	4.4	58.1	36.8	100.0(1,481)	36.6***
고등학교	0.6	4.1	53.5	41.8	100.0(3,744)	
대학 이상	1.2	3.3	50.8	44.7	100.0(3,016)	
취업여부						
취업	1.0	3.5	54.7	40.8	100.0(4,143)	9.2*
비취업	0.7	4.1	51.9	43.2	100.0(4,09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2. 자녀양육 책임한계

자녀양육 책임의 한계에 대해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최근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인하여 자녀관이 변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3회의 조사(2003년, 2006년, 2009년)와 동일한 질문항과 답변항을 유지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양육의 책임 한계는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혼인할 때까지, ⑤ 언제(까지)라도 등의 5가지 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응답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⑥ 기타, ⑦ 생각해 보지 않음 또는 모르겠음도 답변항으로 마련하였다.

15~64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된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 졸업 할 때까지’가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0.4%, ‘취업할 때까지’ 15.7%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9%, ‘언제(까지)라도’ 4.6% 등이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 책임을 최소한 자녀의 ‘대학 졸업’때까지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와는 달리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가치관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은 다자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소자녀관 정착이 되는 원인이라 판단되며, 결국 낮은 출산율과 연결되는 것이라 하겠다.

자녀양육 책임한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은 2003년과 2006년 조사결과보다 2009년에 증가하였다가 2012년에는 정체를 보였다. 둘째, ‘취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셋째, ‘혼인할 때까지’ 또는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가 취업하면 양육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징후가 다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지고, 노후생활 준비를 염두에 둔 가치관 변화가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가구특성에 관계없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육책임을 의미하는 ‘혼인할 때까지’와 ‘언제(까지)라도’의 비율은 2인 가구(28.9%),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26.1%), 4 이상의 높은 욕구소득비를 가진 가구(27.1%)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6-14〉 기혼부부의 가구특성별 자녀양육 책임한계

(단위: %, 명)

구분	①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③취업할 때까지			χ^2	
	④혼인할 때까지	⑤언제(까지)라도	⑥기타	⑦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2003 ¹⁾	8.3	40.2	11.5	32.1	6.3	0.6	1.0	100.0(11,106)	
2006 ²⁾	8.6	46.3	11.9	27.0	5.5	0.1	0.5	100.0(10,117)	
2009 ³⁾	9.6	49.6	12.2	23.1	5.0	0.1	0.4	100.0(9,075)	
2012 ⁴⁾	8.9	49.6	15.7	20.4	4.6	0.0	0.8	100.0(10,058)	
지역									
동부	8.8	49.9	15.5	20.3	4.7	0.0	0.8	100.0(8,682)	9.4
읍·면부	9.5	47.5	17.2	20.7	4.2	0.1	0.7	100.0(1,376)	
가구원 수									
1인	13.7	42.7	17.8	17.7	5.0	-	3.2	100.0(855)	153.3***
2인	8.8	45.5	16.2	24.0	4.9	0.1	0.6	100.0(2,238)	
3~4인	8.0	52.1	15.1	19.8	4.5	0.0	0.5	100.0(5,909)	
5인 이상	10.3	50.0	16.5	17.8	4.4	0.1	0.9	100.0(1,05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7.1	41.7	13.6	21.3	4.6	-	1.8	100.0(456)	165.6***
100~200 미만	11.8	43.4	17.3	21.1	4.5	-	2.0	100.0(1,242)	
200~300 미만	10.2	48.4	16.3	19.3	5.2	-	0.7	100.0(1,949)	
300~400 미만	9.4	51.6	14.6	20.1	3.8	-	0.5	100.0(1,983)	
400~500 미만	7.3	50.6	17.2	19.8	4.4	0.1	0.6	100.0(1,540)	
500 이상	6.0	52.3	15.1	21.1	5.0	0.1	0.4	100.0(2,817)	
육구소득비									
1 미만	17.7	44.3	12.7	19.9	4.1	-	1.4	100.0(418)	162.0***
1~2 미만	12.4	48.0	15.2	18.8	3.9	-	1.6	100.0(2,090)	
2~3 미만	8.4	49.5	17.4	19.0	5.3	0.0	0.4	100.0(3,135)	
3~4 미만	6.6	51.7	14.8	22.5	3.8	0.1	0.4	100.0(1,915)	
4 이상	6.8	50.1	15.4	22.0	5.1	0.1	0.5	100.0(2,427)	

주: 1) 2003~2009년 조사는 15~59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 조사는 15~64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됨; 2) 기타에는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까지, 대학원 졸업까지 등이 있음; 3) *** p<.001, ** p<.01, * p<.05, # p<.1

자료: 1)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본 조사결과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응답자의 개인특성(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 여부 등)에 관계없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육책임을 의미하는 ‘혼인할 때까지’

와 ‘언제(까지)라도’의 비율은 남성 응답자(25.8%), 30세 이상의 연령계층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별자(31.7%), 중학교 이하의 낮은 학력소지자(32.5%)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

〈표 16-15〉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자녀양육 책임한계

(단위: %, 명)

구분	①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③취업할 때까지		χ^2
	④혼인할 때까지		⑤언제(까지)라도		⑥기타	⑦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성										
남자	8.7	46.3	17.7	20.7	5.1	0.1	1.5	100.0(1,814)		28.4**
여자	8.9	50.3	15.3	20.3	4.5	0.0	0.6	100.0(8,246)		
연령										
15~29세	22.6	46.1	8.3	16.3	5.3	-	1.5	100.0(412)		459.0***
30~39세	12.7	53.7	13.8	14.2	5.0	0.0	0.6	100.0(2,530)		
40~49세	6.2	55.7	15.3	17.8	4.1	0.1	0.8	100.0(3,342)		
50~59세	6.6	42.2	18.6	27.4	4.3	0.1	0.9	100.0(3,103)		
60세 이상	10.0	40.3	16.3	26.3	6.9	-	0.1	100.0(668)		
혼인상태										
유배우	8.3	50.5	15.6	20.5	4.6	0.0	0.5	100.0(8,311)		112.6***
사별	10.7	41.4	15.4	25.3	6.4	-	0.8	100.0(643)		
이혼·별거	12.5	47.4	16.8	16.8	3.9	-	2.6	100.0(1,1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5	39.9	15.5	26.8	5.7	-	0.5	100.0(1,892)		146.5***
고등학교	7.7	50.5	16.9	19.7	4.2	0.0	1.0	100.0(4,547)		
대학 이상	9.1	53.5	14.3	17.7	4.6	0.1	0.6	100.0(3,619)		
취업여부										
취업	8.2	50.0	16.1	19.8	5.0	0.1	0.9	100.0(5,665)		16.1*
비취업	9.8	49.0	15.3	21.0	4.2	0.0	0.6	100.0(4,394)		

주: 1) 기타에는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까지, 대학원 졸업까지 등이 있음; 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양육비 지출 실태

1. 양육비 지출항목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출발에서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출산을 저하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가계의 자녀양육비 지출규모와 양육비가 실제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본 조사는 2003년부터 양육비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시계열 비교분석을 위하여 과거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가구원 모두의 소비지출 항목으로 10개를 분류하였는데,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비소비지출비,⁶⁰⁾ 식료품비, 피복비,⁶¹⁾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등이다. 전자 5개 항목은 가족 공동비용이며, 후자 5개 항목은 자녀 개인비용이다. 자녀 개인비용인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는 자녀순위별 지출액을 각각 질문하여 자녀의 소비지출 규모를 파악하였다. 각 소비지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 조사대상은 본 조사의 대상가구가 책임지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이다. 동거자녀뿐만 아니라 비동거자녀도 포함하였으며, 가구가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면, 조손가정의 손자녀도 조사대상이다. 아동이 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재수생과 대학생을 포함하였으며, 휴학 중인 경우도

60) 가계소비지출은 응답자 가구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으로 계산되며, 소비지출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비소비지출, 즉 법적 또는 제도에 의한 의무적 지출로써 소득세, 재산세 등의 각종 조세와 기여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가구소비 지출조사에서 제외하였다.

61) 일반적으로 피복비라 함은 신발이나 장신구까지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16-16〉 지출항목별 세부 내용

항목	내용
주거 및 광열수도비	•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연료비(도시가스, 기름) 등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식기 주방용품, 침구 및 직물제품, 실내장식품(커튼 등 포함)
교양오락비	• 신문, 잡지, 도서, 교양오락가구(TV, 오디오, 컴퓨터 등)구입, 극장입장료, 스포츠관람료, 스포츠시설 이용료, 문화시설 입장료, 교양오락강습료, 사진대, 단체여행비 등/(완구, 오락기기 구입)
교통통신비	•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자동차구입, 연료비, 정비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통신비(일반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및 PC 통신이용료, 기타 통신(스콜버스비))
기타 소비· 비소비지출	• 담배, 술, 이·미용비(목욕비 포함), 장신구(가방, 핸드백 등)구입비, 종교관제비, 회비 및 교제비, 경조금, 기타 잡비(용돈 등)
식료품비	• 곡류, 육류, 낙농류,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일류,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외식비(학교급식비 포함), (각종 이유식)
피복비	• 의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 기타 피복, 신발 등(양말, 모자, 운동화, 교복, 종이기저귀, 세탁비, 수선비 등)
보건의료비	•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안경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비 및 입원비 등)/ (영양제, 한약제)
교육비 (공교육비)	• 유치원비, 초·중·고등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교과서 및 기타 학교교재, 참고서, 학습용 테이프), 문방구비
보충교육비 (사교육비)	•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

2. 개별아동의 특성별 양육비 구조 및 규모

가. 개별아동의 특성별 양육비 구조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인 가족공동비용은 가구의 전체 지출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것이다. 이 비용은 2003년 29만 4천원에서, 2006년 35만 6천원, 2009년 41만원, 2012년 50만 2천원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가족 공동비용의 5개 항목 모두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적게는 5천원, 많게는 4만 7천원 증가하였다.

가구특성별 가족 공동비용 지출을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50만 4천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소득비가 높을수록, 취학전 자녀는 0~2세의 영아(47만 6천원)가, 취학자녀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6-17〉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족 공동비용 중 개인자녀 몫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아동수)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 비소비지출	전체
2003	(14,221)	4.8	0.9	1.7	8.2	13.8	29.4
2006	(11,816)	5.6	1.1	2.6	10.6	15.7	35.6
2009	(11,496)	5.5	1.3	2.6	11.2	20.4	41.0
2012	(10,515)	7.4	1.8	3.2	12.7	25.1	50.2
지역							
동부	(9,195)	7.3	1.8	3.3	12.6	25.4	50.4
읍·면부	(1,320)	7.7	1.6	2.9	13.4	22.8	48.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24)	7.2	1.0	1.2	7.2	8.6	25.2
100~200 미만	(597)	6.5	1.1	1.3	7.4	9.6	25.9
200~300 미만	(1,800)	6.0	1.2	1.5	9.4	13.7	31.8
300~400 미만	(2,289)	6.6	1.5	2.2	11.3	18.8	40.4
400~500 미만	(1,964)	6.6	1.7	2.7	12.5	22.9	46.4
500 이상	(3,675)	9.1	2.5	5.4	16.4	38.2	71.6
욕구소득비							
1 미만	(292)	5.6	0.8	1.0	6.1	7.4	20.9
1~2 미만	(2,297)	5.3	1.1	1.4	8.1	11.6	27.5
2~3 미만	(3,553)	6.2	1.5	2.2	11.2	18.8	39.9
3~4 미만	(1,968)	7.2	1.9	3.2	13.9	26.6	52.8
4 이상	(2,338)	11.5	2.9	6.9	19.5	48.7	89.5
자녀연령							
0~2세	(1,319)	6.3	2.0	2.9	11.9	24.5	47.6
3~5세	(1,226)	6.3	1.8	3.0	11.1	23.7	45.9
6~11세	(2,666)	6.0	1.7	2.9	11.1	23.1	44.8
12~14세	(1,586)	6.6	1.6	2.8	11.8	23.7	46.5
15~17세	(1,620)	7.3	1.6	3.0	13.4	24.3	49.6
18세 이상	(2,105)	11.0	2.1	4.4	16.2	30.3	64.0

주: 1) 가족공동비용은 모든 가구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가구소득, 자녀의 성 및 연령의 무응답으로 인해 특성별 양육비 오차가 있음.

자료: <표 16-14>와 동일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로 구성된 자녀 개인비용은 2003년 45만 4천원에서, 2006년 55만 6천원, 2009년 59만 9천원, 2012년 68만 7천원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자녀 개인비용의 5개 항목 중 사교육비만 2천원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4개 항목이 적게는 6천원, 많게는 4만 8천원 증가하였다.

〈표 16-18〉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비용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아동수)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전체
2003	(14,221)	12.7	3.7	1.7	12.1	15.2	45.4
2006	(11,816)	15.4	4.8	2.1	13.1	20.3	55.6
2009	(11,496)	15.6	4.4	1.6	15.3	23.0	59.9
2012	(10,482)	20.4	6.8	2.2	16.5	22.8	68.7
지역							
동부	(9,164)	20.4	6.9	2.2	17.1	23.9	70.5
읍·면부	(1,317)	20.0	6.5	2.1	12.8	15.1	56.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24)	16.8	3.5	1.2	9.1	7.7	38.3
100~200 미만	(591)	15.9	4.1	1.3	8.2	8.0	37.5
200~300 미만	(1,792)	17.2	5.0	2.0	10.6	11.5	46.3
300~400 미만	(2,285)	18.6	6.0	1.9	13.5	17.0	57.0
400~500 미만	(1,955)	20.2	6.7	1.8	16.3	22.3	67.3
500 이상	(3,671)	24.0	8.8	2.8	22.4	34.9	92.9
육구소득비							
1 미만	(292)	15.2	3.3	1.3	8.3	15.9	44.0
1~2 미만	(2,289)	16.5	4.7	1.9	7.7	14.6	45.4
2~3 미만	(3,544)	19.1	6.1	1.8	14.4	20.1	61.5
3~4 미만	(1,957)	21.5	7.6	2.3	18.2	27.7	77.3
4 이상	(2,337)	26.0	9.8	3.0	27.0	43.1	108.9
자녀연령							
0~2세	(1,318)	17.1	8.8	5.2	0.5	5.9	37.5
3~5세	(1,221)	18.1	6.0	2.3	12.7	17.4	56.5
6~11세	(2,664)	18.9	5.8	1.8	4.2	30.0	60.7
12~14세	(1,584)	20.0	6.4	1.5	4.9	35.2	68.0
15~17세	(1,616)	22.2	6.7	1.7	16.1	34.8	81.5
18세 이상	(2,079)	24.6	7.8	1.5	53.9	8.8	96.6

자료: <표 16-14>와 동일

가구특성별 자녀 개인비용 지출을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70만 5천원),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육구소득비가 높을수록,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나. 개별아동의 특성별 양육비 규모

자녀에게 지출되는 가족 공동비용과 자녀 개인비용을 모두 합한 자녀 1인당 지출되는 월평균 양육비는 2003년 74만 8천원, 2006년 91만 2천원, 2009년 100만 9천원, 2012년 118만 9천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03~2006년 기간의 증가율은 21.9%이었고, 2006~2009년 증가율은 10.6%이었으며, 2009~2012년 증가율은 17.8%이었다.

한 자녀당 월평균 양육비를 자녀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양육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2세(영아) 85만 1천원, 3~5세(유아) 102만 4천원, 6~11세(초등학생) 105만 5천원, 12~14세(중학생) 114만 5천원, 15~17세(고등학생) 131만 1천원, 18세 이상(대학생) 160만 6천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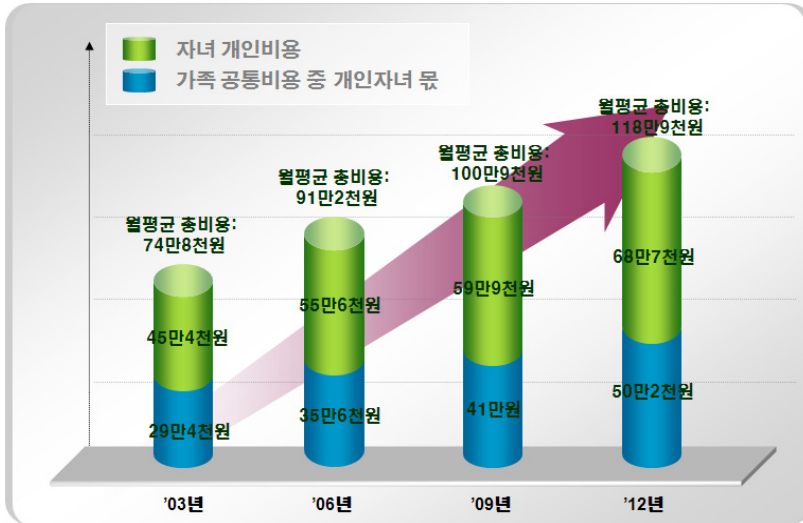
〈표 16-19〉 자녀연령별 1인당 월평균 양육비

(단위: 만원)

특성	가족 공동비용 중 개인자녀 몫	자녀 개인비용	계
2003	29.4	45.4	74.8
2006	35.6	55.6	91.2
2009	41.0	59.9	100.9
2012	50.2	68.7	118.9
자녀연령			
0~ 2세	47.6	37.5	85.1
3~ 5세	45.9	56.5	102.4
6~11세	44.8	60.7	105.5
12~14세	46.5	68.0	114.5
15~17세	49.6	81.5	131.1
18세 이상	64.0	96.6	160.6

자료: <표 16-14>와 동일

[그림 16-1]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자료: <표 16-14>와 동일

다. 자녀의 출생~대학 졸업까지의 총비용

<표 16-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대학 졸업 때까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출생~대학 졸업 때까지의 자녀양육비를 추정하였다.

영아기(0~2세) 3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3,063만 6천원이었고, 유아기(3~5세) 3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3,686만 4천원이었다. 따라서 취학전 6년간 자녀 1인당 6,750만원이 지출되었다. 초등학교 학생(6~11세)에게 6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7,596만원이었고, 중학교 학생(12~14세)에게 3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4,122만원이었으며, 고등학교 학생(15~17세)에게 3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4,719만 6천원이었다. 4년제 대학생(18~21세)에게 4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7,708만 8천원이었다. 자녀의 연령단계의 모

두에서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출생~대학 졸업시까지 22년간 자녀 1인당 지출되는 총비용을 추정하면 2003년 1억 9,702만 8천원 → 2006년 2억 3,199만 6천원 → 2009년 2억 6,204만 4천원 → 2012년 3억 896만 4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3, 2006, 2009 참조). 이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전혀 중단이 없이 또는 재수하지 않고 다닌다는 가정(假定)을 한 것이다. 따라서 재수, 휴학, 어학연수 등을 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표 16-20〉 자녀 1인당 각 단계별 및 전체 양육비용 추정

(단위: 만원)

자녀의 연령	양육비용 추정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영아기(0~2세)	1,803.6	2,264.4	2,466.0	3,063.6
유아기(3~5세)	2,160.0	2,692.8	2,937.6	3,686.4
초등학교(6~11세)	4,744.8	5,652.0	6,300.0	7,596.0
중학교(12~14세)	2,761.2	3,132.0	3,535.2	4,122.0
고등학교(15~17세)	3,135.6	3,592.8	4,154.4	4,719.6
대학교(18~21세)	5,097.7	5,865.6	6,811.2	7,708.8
전체	1억 9,702만	2억 3,199만	2억 6,204만	3억 896만
(출생~대학 졸업까지)	8천원	6천원	4천원	4천원

자료: <표 16-14>와 동일

제4절 시사점

자녀양육 태도 중 ‘이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음’에 대한 찬성 의견이 기혼남성 94.0%, 기혼 여성 95.3%로 높이 나타났다. 이는 이혼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부 또는 모에게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태도이다. 다시 말해 비양육 한부모가 양육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스스로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양육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의 국민 감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의 책임한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미미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취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혼인할 때까지’ 또는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자녀가 취업하면 양육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징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그 이유는 부모의 경제력이 좋지 않아지고, 노후생활 준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은 엄청난 양육비 지출로 귀결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한 자녀를 대학 졸업시까지 지출하는 비용은 3억 896만 4천원으로 추정되며, 두 자녀를 두었다면 6억 1,792만 8천원이나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와 양육비 지출 실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한국사회에 ‘양육비 제도’의 도입이 성숙되었으므로 양육비 산정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이행강제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⁶²⁾

둘째,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가치는 부모의 노후생활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자녀양육을 적절한 수준에서 하려는 부모의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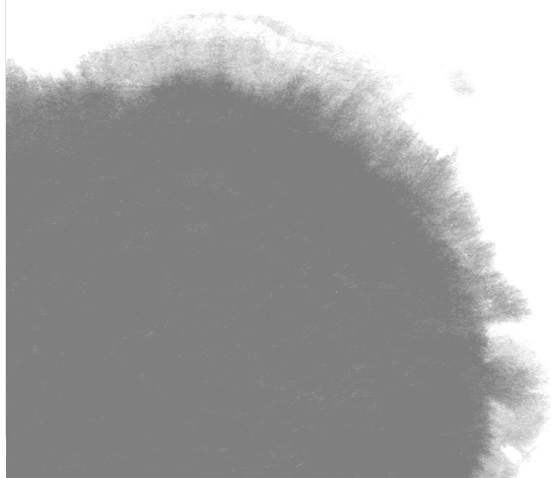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62) ‘양육비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김승권 외, 2011)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라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양육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부모의 노후생활 준비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국가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취학전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급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다. 그렇지만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자녀와 대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의 인하 및 지원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7장

결혼비용 실태



제17장 결혼비용 실태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결혼은 가족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출산의 대부분은 결혼을 한 부부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혼은 자녀출산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갖는다. 그렇지만 최근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가난해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허니문 푸어(Honeymoon Poor)’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결혼적령기의 성인들이 결혼을 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그들 스스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치솟는 신혼주택 비용과 호화스러운 결혼식 비용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본 장에서는 2010년 이후 결혼한 가족원이 가구 내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결혼한 가구원의 전체 결혼비용과 결혼당사자가 충당한 결혼비용, 가정의 경제능력 대비 결혼비용, 결혼비용 중 부담이 된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2. 선행연구

결혼비용관련 선행연구는 개인의 경제수준이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결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와 결혼비용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류를 이룬다.

전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눈에 띄는 선행연구들을 제시한다. 단순노무직, 농림어업근로자 등 경제적 자원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에 비해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경제적 자원이 결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남녀간의 성차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일수록 결혼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에 여성에게서는 그러한 직업군에 속할수록 결혼을 미루거나 적절한 배우자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홍준·현성민, 2010). 이는 경제적 자원이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이유만이 결혼시기 결정의 요인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권위 신장 및 사회활동으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 등 또 다른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취업상태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남성은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결혼의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은 취업상태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정석, 2006).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며,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남성이 가족부양의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2007년부터 2009년 실태조사 시점까지 결혼한 가구의 결혼비용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결혼비용은 평균 4,492만원이었으며, 전체 결혼비용 중에서 결혼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은 1,8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결혼비용의 상당부분을 결혼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능력 대비 결혼비용 정도에 대한 의견은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라는 응답이 9.8%, ‘경제능력에 맞게 적당’이라는 응답이 50.4%, ‘최소한으로 감소하게’라는 응답이 39.7%였다. 결혼관련 비용이 부담스러웠다는 비용은 약 75에 이르렀고,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약 25%에 그쳤다. 결혼비용으로 지출한 각종 항목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꼽힌 항목은 ‘신혼주택 비용’으로 우리 사회의 높은 집값이 결혼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2012년 KTV 주관으로 진행된 결혼비용에 관한 조사⁶³⁾에서는 부모의 도움 없이 결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73.2%의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가장 큰 이유로는 높은 결혼비용을 꼽았다. 결혼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체면과 주위 시선 때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높은 집값과 과도한 혼수욕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사회조사⁶⁴⁾에서도 자녀의 결혼비용을 주로 부모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결혼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크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3) 2012년 6월 KTV(한국정책방송)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화조사로, 이 결과는 2012년 7월 2일자 굿모닝 투데이에서 보고된 바 있다.

64) 2008년 사회조사 가족부문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 결혼비용의 부모부담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및 신혼집 마련)비용을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5%, 부모가 일부 지원하는 경우는 79.3%, 부모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1.3%로 나타났다.

3. 정책동향

가.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0~'15)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세부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이며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그 대표적 예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인 신혼부부이며,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공공건설 국민주택의 15%, 민영주택의 10%, 국민임대주택의 30%이다.

2)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사업의 대상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2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로,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저금리 및 분할상환 등이며, 그 종류로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이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결혼지원 사업

1)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농어촌에 거주중인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시 일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담당기관은 해당 군청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의뢰를 받아 선발하여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지원금액은 500만원 안팎이며, 지원조건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남성 중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2) 시민 합동결혼식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활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시민 합동결혼식을 열고 있다. 수혜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부가 주 지원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에게 우선 순위를 주고 있다.

제2절 본인 및 자녀의 결혼비용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15~64세인 가구 중에서 2010년 이후 조사시점까지 결혼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비용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가구주 부부 또는 가구주의 자녀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 하겠으며, 전체 973건의 결혼이 조사되었다.

결혼당사자 한명당 평균 5,691만 3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09년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4,492만원보다 26.7% 증가한 것이다. 결혼비용 중 결혼당사자(신랑 및 신부)가 부담한 비율은 40.8%이었는데, 이는 2009년 조사의 42.0%보다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결혼비용은 증가한 관계로 결혼당사자의 부담금액은 증가(2009년 1,884만 8천원, 2012년 2,319만 5천원)하였지만, 결혼당사자가 부담한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7-1〉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결혼비용¹⁾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대상수)	총 결혼비용		결혼당사자 부담비용		결혼비용 중 결혼당사자 부담비율(%)
		비용	F(T)	비용	F(T)	
2009 ¹⁾	(1,372)	4,492.0		1,884.8		42.0
2012 ²⁾	(973)	5,691.3		2,319.5		40.8
지역						
동부	(829)	5,773.3	(3.4 [#])	2,296.2	(0.3)	39.8
읍·면부	(144)	4,894.5		2,446.6		50.0
가구원 수						
1인	(96)	3,962.6	11.9***	2,069.4	5.7**	52.2
2인	(508)	6,591.5		2,652.2		40.2
3~4인	(337)	5,103.0		2,011.9		39.4
5인 이상	(32)	2,832.4		1,011.3		35.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4)	3,969.4	21.6***	2,810.6	1.3	70.8
100~200 미만	(138)	3,930.3		2,141.8		54.5
200~300 미만	(247)	4,627.1		2,114.4		45.7
300~400 미만	(205)	5,924.5		2,601.7		43.9
400~500 미만	(132)	4,656.3		2,030.4		43.6
500 이상	(204)	8,819.0		2,483.7		28.2
육구소득비						
1 미만	(30)	4,122.4	16.4***	2,883.5	0.5	69.9
1~2 미만	(173)	3,894.2		2,203.8		56.6
2~3 미만	(285)	5,216.7		2,260.3		43.3
3~4 미만	(189)	5,092.7		2,226.3		43.7
4 이상	(293)	7,649.7		2,445.4		32.0

주: 1) 결혼비용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1)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본 조사결과

동부지역 거주가구(5,773만 3천원), 2인 가구원 수의 가구(6,591만 5천원),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8,819만원), 4 이상의 높은 욕구소득비를 가진 가구(7,649만 7천원)의 결혼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총 결혼비용 중 결혼당사자가 부담한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50.0%),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의 빈곤가구(69.9%)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7-2〉 15~64세 기혼가구 내 가장 최근 결혼당사자의 결혼당시 특성별 결혼비용¹⁾

특성	(분석대상수)	총 결혼비용		결혼당사자 부담비용		결혼비용 중 결혼당사자 부담비율(%)
		비용	F(T)	비용	F(T)	
결혼당사자의 성						
남성	(195)	7,545.6	27.5***	2,915.3	(10.0)**	38.6
여성	(778)	5,226.6		2,168.9		41.5
결혼당시 연령						
24세 이하	(83)	2,294.8	26.7***	585.5	38.5***	25.5
25~29세	(524)	5,053.5		1,801.8		35.7
30~34세	(309)	7,613.3		3,283.6		43.1
35세 이상	(58)	6,079.1		4,323.5		71.1
결혼당시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714.6	39.8***	256.7	15.0***	35.9
고등학교	(225)	3,083.0		1,489.7		48.3
대학 이상	(738)	6,558.0		2,600.1		39.6
결혼당시 취업여부						
비취업	(69)	3,025.3	18.3***	522.7	24.7***	17.3
취업	(866)	6,064.7		2,547.2		42.0
학생 및 군복무	(38)	2,066.6		355.0		17.2
결혼년도						
2010	(370)	5,044.8	14.0***	1,966.0	5.2**	39.0
2011	(442)	5,478.9		2,438.4		44.5
2012	(161)	7,750.0		2,802.0		36.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113)	8,631.1	134.7***	3,923.5	30.8***	45.5
배우자	(310)	2,901.4		1,528.1		52.7
아들	(238)	10,735.0		3,496.7		32.6
딸	(310)	3,539.9		1,623.9		45.9
기타 ¹⁾	(2)	6,903.7		2,165.3		31.4

주: 1) 가구주와의 관계가 기타인 경우는 가구주의 여동생, 가구주 배우자의 여자형제가 포함됨; 2)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지출된 총 결혼비용을 결혼당사자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총 결혼비용은 신랑측(7,545만 6천원)이 신부측(5,226만 6천원)보다 많이 지출하였고, 30~34세 연령층(7,613만 3천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중(6,064만 7천원), 최근 결혼일수록, 가구주와의 관계가 아들(1억 735만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결혼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결혼당사자의 교육수준과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른 결혼비용 지출이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는 불과 714만 6천원을 결혼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대학 이상 고학력자는 6,558만원이 지출되어 9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가구주의 딸 결혼에 지출한 비용은 3,539만 9천원이었으나, 아들 결혼에 지출한 비용은 10,735만원으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17-1]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



자료: <표 17-1>와 동일

총 결혼비용 중 결혼당사자의 부담률은 여성(41.5%), 연령이 높을수

록, 고등학교 교육수준(48.3%), 취업중(42.0%), 2011년 결혼자(44.5%), 가구주의 배우자(52.7%)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결혼당사자가 가구주의 아들과 딸인 경우이다. 아들인 결혼당사자는 본인부담이 3,496만 7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결혼비용이 많아 32.6%의 본인부담률을 보인 반면에, 딸인 결혼당사자는 본인부담이 아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23만 9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결혼비용의 45.9%를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아들보다 훨씬 높았다.

제3절 결혼비용의 부담수준

전술한 바와 같이 총 결혼비용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혼비용이 가구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부담수준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경제능력에 맞게 적당했음’은 2009년 조사결과(50.4%)와 유사한 수준인 50.7%이었다. 다음은 ‘최소한으로 감소하게 함’ 43.0%,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 6.3% 등이었다. ‘최소한으로 감소하게 함’은 2009년(39.7%) 보다 3.3%pt 증가한 것이고,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는 2009년(9.8%) 보다 3.5%pt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결혼비용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결혼비용의 ‘과도한’ 지출이 응답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혼례문화에 적응되어 결혼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현실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한 가구는 낮은 비율이었지만, 가구원 수 2인 가구,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구(9.1%), 육구소득비 4 이상의 가구(9.3%)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7-3〉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가정의 경제능력 대비 결혼비용 정도

(단위: %, 명)

특성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	경제능력에 맞게 적당했음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함	기타	계(수)	χ^2
2009	9.8	50.4	39.7	0.1	100.0(1,377)	
2012	6.3	50.7	43.0	-	100.0(1,000)	
지역						
동부	6.4	51.8	41.8	-	100.0(849)	3.28
읍·면부	6.0	44.4	49.7	-	100.0(151)	
가구원 수						
1인	6.0	32.0	62.0	-	100.0(100)	-
2인	7.1	56.5	36.3	-	100.0(520)	
3~4인	5.7	49.4	44.9	-	100.0(350)	
5인 이상	-	29.0	71.0	-	100.0(3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2	33.3	62.5	-	100.0(48)	45.7***
100~200 미만	4.9	38.7	56.3	-	100.0(142)	
200~300 미만	4.3	45.9	49.8	-	100.0(257)	
300~400 미만	5.7	53.1	41.1	-	100.0(209)	
400~500 미만	8.3	62.1	29.5	-	100.0(132)	
500 이상	9.1	59.3	31.6	-	100.0(209)	
육구소득비						
1 미만	-	29.4	70.6	-	100.0(34)	59.4***
1~2 미만	3.9	35.8	60.3	-	100.0(179)	
2~3 미만	6.5	54.1	39.4	-	100.0(292)	
3~4 미만	4.7	47.4	47.9	-	100.0(192)	
4 이상	9.3	60.8	29.9	-	100.0(301)	

주: 1) *** $p < .001$, ** $p < .01$, * $p < .05$, # $p < .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7-1>과 동일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한 가구의 응답자 특성을 보면, 남성(9.9%), 60세 이상(9.1%)과 30대 연령층(8.8%), 이혼·별거자(6.7%),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응답자(7.7%)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결혼비용이 얼마나 지출되었느냐에 따른 결혼비용의 부담수준을 살펴보면, 결혼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즉, 1000만원 미만을 지출한 경우는 ‘체면유지를 위

해 계획초과'하였다는 경우가 없었으나 5,0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는 13.0%가 '채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 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17-4〉 15~64세 기혼가구 내 응답자 특성별 가정의 경제능력 대비 결혼비용 정도

(단위: %, 명)

특성	채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	경제능력에 맞게 적당했음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함	기타	계(수)	χ^2
응답자의 성						
남자	9.9	46.0	44.1	-	100.0(202)	6.9*
여자	5.3	52.0	42.7	-	100.0(798)	
응답자의 연령						
15~29세	5.4	50.5	44.0	-	100.0(183)	8.1
30~39세	8.8	49.8	41.4	-	100.0(226)	
40~49세	4.0	42.0	54.0	-	100.0(50)	
50~59세	5.1	52.0	43.0	-	100.0(453)	
60세 이상	9.1	52.3	38.6	-	100.0(88)	
응답자의 혼인상태						
유배우	6.3	53.3	40.4	-	100.0(855)	-
사별	5.6	35.2	59.2	-	100.0(71)	
이혼·별거	6.7	36.0	57.3	-	100.0(74)	
응답자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9	41.3	52.8	-	100.0(254)	15.6**
고등학교	5.2	54.7	40.1	-	100.0(381)	
대학 이상	7.7	53.2	39.1	-	100.0(363)	

주: 1) ***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7-5〉 전체 결혼비용별 결혼비용의 부담수준

(단위: %, 명)

전체 결혼비용	부담수준			계(수)	χ^2
	채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	경제능력에 맞게 적당했음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함		
전체	6.4	51.1	42.5	100.0(969)	
1,000만원 미만	-	14.5	85.5	100.0(69)	167.3***
1,000~2,000만원 미만	1.2	29.1	69.8	100.0(86)	
2,000~3,000만원 미만	1.8	40.9	57.3	100.0(171)	
3,000~4,000만원 미만	2.3	57.0	40.7	100.0(172)	
4,000~5,000만원 미만	6.4	64.2	29.4	100.0(109)	
5,000만원 이상	13.0	61.3	25.7	100.0(36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비용으로 지출한 전체 항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결혼지출 항목은 ‘신혼주택 비용’과 ‘신혼살림’으로 각각 37.5%, 29.3%이었다. 이 외에도 ‘배우자 측 예단’(8.6%), ‘결혼식비’(7.4%), ‘배우자 예물’(2.2%), ‘신혼여행비’(0.5%), ‘함값’(0.2%) 등이 있었다.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신혼살림’(10.8%pt 증가), ‘신혼주택 비용’(7.3%pt 증가), ‘결혼식비’(1.0%pt 증가)이었고, 그 외의 항목은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부담스러운 항목을 신랑측과 신부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신랑측은 ‘신혼주택 비용’(81.8%)이 절대적으로 큰 부담스러운 항목이었고, 신부측은 ‘신혼살림’(44.8%), ‘배우자 측 예단’(12.5%), ‘신혼주택 비용’(12.4%) 등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스러운 항목이라고 밝혔다.

〈표 17-6〉 15~64세 기혼가구의 결혼관련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

(단위: %, 명)

요건	2009년	2012년		
		전체	신랑측	신부측
부담스럽지 않았음	25.2	14.0	6.6	18.2
부담스러웠음	74.8	86.0	93.4	81.8
결혼식비	6.4	7.4	5.0	8.8
배우자 예물	3.4	2.2	1.9	2.4
배우자 측 예단	14.1	8.6	1.7	12.5
신혼살림	18.5	29.3	1.9	44.8
신혼여행비	1.5	0.5	0.3	0.6
함값	-	0.2	0.6	-
신혼주택 비용	30.2	37.5	81.8	12.4
기타	0.4	0.3	0.3	0.3
계(수)	100.0(1,380)	100.0(1,000)	100.0(362)	100.0(638)

주: 1) 2009년 조사자료의 분석은 15~64세 기혼가구의 가장 최근 결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 1순위를 제시하였음; 2) 2012년 조사에는 ‘결혼중개(중매) 수수료’ 응답항이 없음.

자료: <표 17-1>과 동일

제4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2010년 이후 결혼한 가구원을 가진 15~64세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결혼비용 부담은 매우 컸다. 그렇지만 혼례문화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는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이는 결혼이 우리사회에서 가족형성을 의미하고, 출산이 가능토록 하는 사회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가장 큰 결혼비용 부담항목인 ‘신혼주택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구입, 임대차 등의 비용을 최대한 융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금액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소득제한 없이 상환능력의 최대한까지 융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대상과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저소득 신혼부부를 우선대상으로 포함토록 하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 몫으로 반드시 할당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결혼비용의 또 다른 부담항목인 신혼살림, 예단 및 예물, 결혼식비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혼례간소화’를 위한 범 시민운동과 결혼식장의 공공기관 무료대여 등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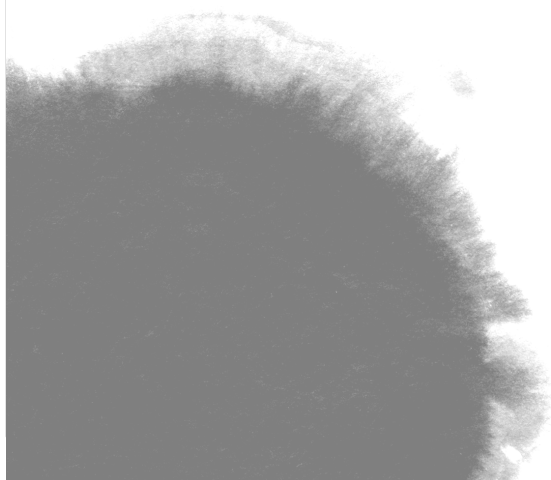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제5부 결론부

제18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제19장 정책제언

18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제18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제1 절 개요

1. 전반적 개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TFR 2.1)이하로 내려간 이후 현재까지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들어 합계출산율이 1.3이하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초저출산(lowest fertility)수준을 나타내었고, 현재까지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단순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지만, 이 지표는 한 사회의 총체적 상태를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출산율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출산율을 결정하는 사회기제는 실제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에 대한 연구는 인구학과 사회학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적 관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힘들다. 따라서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정책적 연구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개인가치관의 확대와 자아욕구 등이 증대되면서 혼인가치관이

약화되고,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등이 심화되면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사회적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만혼화와 결혼기피는 저출산고령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세계화, 혼인시장의 불균형 등으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정책,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및 다문화가족정책 욕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가. 출산정책욕구 관련 선행연구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이후에도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한동안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했다. 순수한 학술적 연구는 인구학과 사회학, 가족학 등의 분야에서 일부 연구성과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정책연구의 측면에서 연구성과가 활발하게 발표된 시기는 대략 2005년 이후로 볼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일부 선도적 연구가 발표되었을 뿐이었다.

2000년대 초기에는 저출산현상이 점차 심화되던 단계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하락하던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정책적 연구가 활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김승권 외(2001; 2002; 2004)의 몇몇 연구가 초기 저출산 정책 연구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승권 외(2001) 연구는 구체적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인구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것으로, 인구정책

의 방향을 출산을 저하방지와 인적자원 능력향상에 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초기 연구는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저출산 현상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2005년 경 정부부처 합동으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일례로 2005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이삼식 외, 2005)를 실시한 바 있다.

이삼식 외(2005) 연구는 당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의 정책적 쟁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이론적 논의를 거쳐 현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현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하여 생애경로별 결혼 및 출산 이행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미혼에서 결혼으로, 무자녀에서 한자녀로, 한자녀에서 두자녀로 이행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을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의 측면, 자녀양육 비용의 문제, 주거의 문제, 경제적 환경, 일가정 양립 환경, 노동시장, 생식보건의 문제까지 폭넓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이후, 2008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조남훈 외(2008) 연구는 기 시행중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과 보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의 기본계획 세 분야에 대한 중간점검 이후 구체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삼식 외(2010) 연구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 완료이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제1차 기본계획의 부족한 점을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할 새로운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가정양립 영역을 특히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현재까지 큰 정책방향은 이 연구의 결과에 토대하고 있다.

나. 가족정책육구 관련 선행연구

가족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동향은 가족문제의 책임소재 인식부터, 동거가구원별 가족정책, 건강가족 형성의 주요 요건,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여건, 다문화가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문제 책임소재가 중요한 요인이다. 김승권 외(2003)의 연구에서 파악된 가족문제 책임소재는 국가 또는 사회와 가족의 공동책임이 약 68%로 가장 많았고,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약 29%였으며, 전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 책임은 3.0%에 불과하였다. 건강가족 형성의 주요 요건은 가족건강이 5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심리·정서적 유대강화가 34.3%로 높은 편이었다. 미미하나 경제적 자립, 가족공유 문화생활 등도 일부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는 김승권 외(2006)의 연구결과, 1순위는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이 2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영유아 1 보육비지원, 아동·양육수당 지급 등이었다. 이외에 소수의견으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제공,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임신·출산 비용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자녀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 사교육비 경감이 약 25%로 가장 많았고, 다

음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18.4%), 공교육 강화(11.4%), 경기활성화(10.3%), 질 높은 교육(10.0%) 순이었다.

가족정책욕구 관련 연구동향을 보면 김승권 외(2003)의 연구결과, 동거가구원에 따른 가족정책 욕구는 차별을 보여서 영유아 가구는 보육정책,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의 욕구가 높았고, 초중고생가구는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에 과반수가 편중되었으며, 취업부인 및 중년기남성가구는 자녀교육 및 양육정책, 노인복지정책 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우선순위가 높은 가족정책은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이 1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취업지원정책, 의료비 지원 및 보조정책이 많은 편이었고 이외에 노인보호서비스, 아동보육시설 확충, 생계비지원의 욕구가 높았다.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권 외(2009)의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언어통역서비스가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양육지원(24.9%),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17.9%), 경제적 지원(15.2%) 순으로 욕구가 높았다.

3. 정책동향

가. 출산관련 정책동향

출산지원 정책은 그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출산 행태를 결정짓는 작동기제 자체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및 가족정책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 영역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존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정부 종합대책이다.

200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로 급감하면서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우리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파장은 정부에 그대로 전달되었고, 정부는 본격적으로 출산율 하락에 대한 대응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05년부터 준비하여 2006년 8월 시행된 것으로,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5개년 종합계획이었다. 현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중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포괄되는 핵심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5년간 4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분야 95개 과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분야 78개 과제,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분야 58개 과제를 포함하는 방대한 정부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1~2015년까지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과 “2016년~2030년까지 OECD 평균수준의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이라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크게 4개 영역을 두고 있다. 우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분야, 마지막으로 추진기반 분야이다.

출산 및 가족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분야 95개 과

제에 두루 포함되어 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환경 조성 분야의 기본 방향은 일가정양립 확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정부합동, 2010,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먼저 출산 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양립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아휴직제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자녀양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경력단절 위험은 완화 등이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야간보육 및 유치원 종일반 확대 등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등 가족친화 경영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출산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는 주택자금 지원 등 결혼을 장려하고, 세제지원 등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양육수당 확대 등 자녀 양육비용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방과후 돌봄 확충,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보육시설 평가인증결과 공개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진 중인 분야는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다. 여기에는 드림스타트 확대 및 내실화 등을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 진로교육 활성화 등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동학대, 성범죄, 학교폭력 등 아동 안전 위협요인에 적극 대처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가족관련 정책동향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제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가족관련 인프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1차 및 제2차 건강가족기본계획에 근거한 가족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하나는 가족돌봄 정책, 둘째 직장·가정의 양립정책, 셋째,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1) 가족돌봄정책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간 당 1~5천원을 지원한다. 또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차등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료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을 파견하고 있으며 전자바우처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2) 직장·가정의 양립 정책

남성의 가정생활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등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출산·육아기 여성의 계속 취업 지원으로 유·사산 휴가 법제화, 육아휴직 요건을 6세까지 확대하고 급여를 50만원까지 인상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방안으로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신설 및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여 기반을 조성하였다.

3)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

한부모 가족의 법령을 정비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 최저생계비 150% 소득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의료비 월24천원, 검정고시 학습비 1,155천원, 가구자산형성계좌 지원 월 200천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2010년 하반기부터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등 일부 생활 공과금을 면제·감면하고 있다.

이혼가족 등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으로 2007년부터 자활이 가능한 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임파워링(empowering), 욕구에 역점을 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민·관 합동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수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자조모임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08년부터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2절 저출산 현상에 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최근의 출생아수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응답자 중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비율은 31.7%, 다소 심각하다는 비율은 51.7%로 나타났다. 출생아수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전체 비율은 83.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18-1〉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출생아수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매우심각	다소심각	별로 심각한 문제아님	전혀 심각한 문제아님	모름	계(수)	χ^2
전체	31.7	51.7	12.5	0.7	3.4	100.0(10,066)	
지역							
동부	31.8	51.6	12.5	0.7	3.4	100.0(8,689)	2.3
읍·면부	30.5	52.2	12.5	0.8	4.0	100.0(1,377)	
가구원 수							
1인	26.6	50.6	16.0	1.2	5.6	100.0(860)	46.6***
2인	34.2	48.6	13.2	0.6	3.5	100.0(2,243)	
3~4인	31.6	52.7	11.7	0.7	3.2	100.0(5,910)	
5인 이상	30.8	53.0	12.6	0.7	2.8	100.0(1,053)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1.1	45.2	15.3	1.4	7.1	100.0(460)	184.0***
100~200 미만	29.7	49.7	14.7	1.0	4.9	100.0(1,244)	
200~300 미만	26.5	52.6	15.2	0.7	5.0	100.0(1,952)	
300~400 미만	29.0	54.4	13.3	0.5	2.8	100.0(1,981)	
400~500 미만	32.3	53.1	10.9	1.0	2.7	100.0(1,539)	
500 이상	38.1	49.9	9.6	0.5	1.9	100.0(2,816)	
가구소득비							
1 미만	32.3	47.5	12.2	1.3	6.6	100.0(423)	169.6***
1~2 미만	26.9	51.3	15.6	1.0	5.2	100.0(2,091)	
2~3 미만	29.1	53.7	13.4	0.6	3.2	100.0(3,137)	
3~4 미만	31.9	52.3	11.9	1.0	2.9	100.0(1,912)	
4 이상	39.2	49.2	9.3	0.4	2.0	100.0(2,42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대체로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심각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동의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고 소득계층에서는 이런 일관성이 유지되지는 않았다. 소득계층을 크게 저, 중, 고 소득계층으로 구분해보면, 중간계층이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응답자 개인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태도에서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심각성의 정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에서 출생아수 감소 현상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40대의 경우 출생아수 감소 현상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연령층으로 드러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가 출생아수 감소를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이하 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대학이상 졸업자가 출생아수 감소 현상을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고학력자가 사회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특히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비맞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출생아수 감소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가정양립의 문제로 인하여 남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 인식이 출생아수 감소의 심각성으로 대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8-2〉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출생아수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매우심각	다소심각	별로 심각한 문제아님	전혀 심각한 문제아님	모름	계(수)	χ^2
성별							
남자	34.4	49.5	11.7	1.5	2.9	100.0(1,844)	32.0***
여자	31.0	52.1	12.7	0.5	3.7	100.0(8,222)	
연령							
15~29세	24.4	54.1	17.7	0.3	3.5	100.0(408)	66.0***
30~39세	29.0	53.4	13.9	0.9	2.8	100.0(2,528)	
40~49세	31.5	53.4	11.3	0.7	3.1	100.0(3,348)	
50~59세	34.6	48.5	12.2	0.6	4.0	100.0(3,110)	
60세 이상	33.2	49.8	11.4	0.5	5.2	100.0(673)	
혼인상태							
유배우	32.2	52.0	12.1	0.6	3.1	100.0(8,308)	39.4***
사별	30.0	50.8	12.0	1.4	5.8	100.0(648)	
이혼·별거	28.9	49.7	16.0	0.8	4.6	100.0(1,11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9	51.3	14.1	0.7	6.1	100.0(1,898)	127.1***
고등학교	29.4	52.6	14.0	0.8	3.2	100.0(4,554)	
대학이상	36.5	50.7	9.9	0.6	2.4	100.0(3,613)	
취업여부							
취업	33.5	51.5	11.0	0.8	3.1	100.0(5,676)	45.4***
비취업	29.3	51.9	14.5	0.5	3.8	100.0(4,39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3	52.6	9.8	0.8	2.6	100.0(3,837)	52.4***
비맞벌이	30.3	51.5	14.1	0.5	3.6	100.0(4,47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출생아수 감소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래 표에 제시한 9개의 항목 중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이었다. 다음은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자녀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의 증가,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의식의 확산 등의 순이었다.

국민들이 느끼는 출생아수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인 것이었다. 그리고 경기 상황과 고용안정의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에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와 같은 부양부담이 출생아수 감소의 이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이혼한 부부의 증가, 아동보육시설의 부족과 같은 이유는 긍정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다른 이유에 비해서 상대적 중요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3〉 15~64세 기혼가구의 출생아수 감소 이유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0.8	6.6	56.5	36.1	100.0(10,069)
취업여성의 증가	1.0	17.0	61.5	20.5	100.0(10,067)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0.3	3.6	35.1	61.0	100.0(10,067)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2.0	27.3	49.0	21.7	100.0(10,067)
주택미련의 어려움과 주거공간 부족	1.4	20.2	50.1	28.3	100.0(10,067)
이혼한 부부의 증가	3.7	39.1	46.9	10.3	100.0(10,066)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의 확산	0.7	12.7	62.7	23.9	100.0(10,067)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의식의 확산	0.5	10.9	63.8	24.8	100.0(10,065)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 증가	0.7	9.6	58.9	30.8	100.0(10,066)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기혼가구의 출산정책 선호도

주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20~44세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선호도를 살펴 보았다. 우선 세부 정책 선호도에 앞서 분야별 우선순위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분야는 결혼, 임신 및 출산, 양육의 경제적 지원, 양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일·가정양립, 기타 가족생활

의 6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응답은 각 분야에 우선순위를 숫자 1~6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분석 결과는 이 점수의 평균으로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양육의 경제적 지원 분야로 2.00점이었
다. 다음으로 임신 및 출산지원 분야(2.94점), 양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분야(3.25점)의 순이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는 결혼지원
분야(3.86점), 기타 가족생활 지원(5.41점) 등이었다.

〈표 18-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분야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결혼지원	임신 및 출산지원	양육의 경제적 지원	양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기타 가족생활 지원
전체	(10,057)	3.86	2.94	2.00	3.25	3.55	5.41
지역							
동부	(8,680)	3.87	2.96	2.02	3.22	3.54	5.40
읍·면부	(1,377)	3.78	2.82	1.90	3.42	3.63	5.46
가구원 수							
1인	(853)	3.32	2.95	2.16	3.53	3.65	5.39
2인	(2,242)	3.67	2.82	2.05	3.37	3.60	5.49
3~4인	(5,910)	3.95	2.98	1.97	3.18	3.53	5.38
5인 이상	(1,052)	4.17	2.93	1.91	3.13	3.48	5.3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55)	3.33	2.98	1.99	3.50	3.77	5.43
100~200 미만	(1,241)	3.42	2.89	2.02	3.47	3.70	5.50
200~300 미만	(1,952)	3.73	2.85	1.97	3.45	3.63	5.36
300~400 미만	(1,980)	3.86	2.93	1.99	3.27	3.54	5.41
400~500 미만	(1,540)	3.93	2.99	1.95	3.19	3.54	5.40
500 이상	(2,815)	4.18	2.99	2.04	2.99	3.40	5.40
육구소득비							
1 미만	(423)	3.42	3.04	1.89	3.46	3.73	5.46
1~2 미만	(2,084)	3.70	2.86	1.98	3.43	3.64	5.39
2~3 미만	(3,134)	3.85	2.93	1.92	3.30	3.58	5.41
3~4 미만	(1,914)	3.83	2.96	2.04	3.21	3.55	5.41
4 이상	(2,428)	4.10	2.99	2.09	3.02	3.40	5.4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지원 분야의 경우 소득계층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지원 분야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지원 분야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여성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업자의 일·가정 양립지원 분야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게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5〉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분야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분석대상수)	결혼지원	임신 및 출산지원	양육의 경제적 지원	양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일·가정양 립 지원	기타 가족생활 지원
성별							
남자	(1,836)	3.67	2.93	2.03	3.30	3.66	5.42
여자	(8,221)	3.90	2.94	1.99	3.24	3.53	5.40
연령							
15~29세	(407)	4.01	2.85	1.75	3.51	3.51	5.37
30~39세	(2,529)	4.17	2.94	1.88	3.11	3.48	5.42
40~49세	(3,345)	3.98	3.00	2.05	3.14	3.45	5.39
50~59세	(3,105)	3.54	2.90	2.07	3.40	3.68	5.41
60세 이상	(671)	3.40	2.88	2.02	3.47	3.73	5.49
혼인상태							
유배우	(8,308)	3.94	2.94	1.98	3.22	3.52	5.40
사별	(648)	3.25	2.75	2.14	3.52	3.83	5.52
이혼·별거	(1,101)	3.55	3.05	2.09	3.34	3.57	5.4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92)	3.34	2.82	2.03	3.53	3.81	5.46
고등학교	(4,549)	3.79	2.92	1.97	3.34	3.58	5.40
대학이상	(3,614)	4.21	3.02	2.02	2.98	3.38	5.39
취업여부							
취업	(5,668)	3.82	2.96	2.05	3.25	3.52	5.41
비취업	(4,389)	3.91	2.91	1.94	3.25	3.59	5.4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38)	3.94	2.98	2.03	3.17	3.47	5.41
비맞벌이	(4,474)	3.95	2.90	1.93	3.25	3.57	5.39

자료: 본 조사결과

각 분야별 세부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지원 분야와 관련, 응답자의 58.4%가 결혼지원 분야의 세 가지 정책 중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지목하였고, 다음으로 결혼정착 비용 지원(31.0%)을 꼽았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선호도가 저소득계층에서 높았던 반면, 결혼가정 소득공제와 결혼정착비용 지원은 고소득층에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표 18-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결혼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단위: %, 명)

특성	신혼부부 주거 지원	결혼가정 소득공제	결혼 정착비용 지원	계(수)	χ^2
전체	58.4	10.6	31.0	100.0(10,061)	
지역					
동부	57.8	10.8	31.4	100.0(8,686)	9.5**
읍·면부	62.2	9.5	28.2	100.0(1,375)	
가구원 수					
1인	62.1	5.5	32.3	100.0(858)	66.9***
2인	63.7	10.6	25.7	100.0(2,240)	
3~4인	56.2	11.2	32.6	100.0(5,908)	
5인 이상	56.5	11.3	32.2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1.7	7.4	30.9	100.0(459)	54.4***
100~200 미만	63.7	7.7	28.6	100.0(1,239)	
200~300 미만	62.0	9.0	29.0	100.0(1,952)	
300~400 미만	55.8	12.9	31.3	100.0(1,981)	
400~500 미만	56.1	11.4	32.5	100.0(1,540)	
500 이상	56.7	11.4	31.8	100.0(2,815)	
육구소득비					
1 미만	62.5	9.1	28.4	100.0(422)	24.4**
1~2 미만	61.5	8.4	30.1	100.0(2,091)	
2~3 미만	56.8	11.9	31.4	100.0(3,132)	
3~4 미만	58.4	10.4	31.3	100.0(1,913)	
4 이상	57.7	11.3	31.0	100.0(2,42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신혼부부 주거 지원은 50~60대 고연령 층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결혼정착비용 지원은 30~40대 연령 층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50~60대는 자녀의 결혼과 관련하여 결혼자녀에 대한 주거지원의 부담이 큰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0~40대는 혼인 직후 결혼생활을 겪는 당사자로서 정착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은 일반적 결과로 해석된다.

〈표 18-7〉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결혼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단위: %, 명)

특성	신혼부부 주거 지원	결혼가정 소득공제	결혼 정착비용 지원	계(수)	χ^2
성별					
남자	59.4	10.2	30.4	100.0(1,845)	0.9
여자	58.2	10.7	31.1	100.0(8,216)	
연령					
15~29세	60.0	14.0	26.0	100.0(408)	112.9***
30~39세	53.7	12.8	33.5	100.0(2,530)	
40~49세	54.9	11.2	33.8	100.0(3,348)	
50~59세	64.2	8.0	27.8	100.0(3,102)	
60세 이상	65.6	8.9	25.5	100.0(673)	
혼인상태					
유배우	57.5	11.5	31.0	100.0(8,308)	44.2***
사별	64.1	5.9	30.0	100.0(647)	
이혼·별거	62.2	6.6	31.2	100.0(1,10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6.5	7.0	26.5	100.0(1,896)	94.9***
고등학교	59.0	10.7	30.3	100.0(4,548)	
대학이상	53.5	12.3	34.2	100.0(3,616)	
취업여부					
취업	58.4	10.0	31.6	100.0(5,674)	5.2 [#]
비취업	58.4	11.3	30.3	100.0(4,387)	
맞벌이 여부					
맞벌이	56.7	11.0	32.3	100.0(3,837)	5.2 [#]
비맞벌이	58.1	11.9	30.0	100.0(4,47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임신 및 출산지원 분야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69.8%)이었다. 한편, 산전 진찰비지원 또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비율은 각각 16.4%, 13.8%로 낮았다. 임신 및 출산지원 분야는 소득계층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산전 진찰비와 같은 현금지원 은 저소득층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서비스 체계와 관련된 산후지원 정책은 고소득층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8-8〉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임신 및 출산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단위: %, 명)

특성	산전 진찰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계(수)	χ^2
전체	16.4	13.8	69.8	100.0(10,060)	
지역					
동부	16.4	13.8	69.8	100.0(8,685)	-
읍·면부	16.3	13.8	69.9	100.0(1,375)	
가구원 수					
1인	16.2	14.7	69.0	100.0(858)	23.3***
2인	16.1	15.6	68.2	100.0(2,241)	
3~4인	16.5	13.8	69.7	100.0(5,906)	
5인 이상	16.2	9.6	74.2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8.5	15.0	66.4	100.0(459)	31.8***
100~200 미만	14.8	13.4	71.9	100.0(1,238)	
200~300 미만	18.3	13.7	68.0	100.0(1,952)	
300~400 미만	17.9	12.9	69.2	100.0(1,981)	
400~500 미만	16.4	12.9	70.7	100.0(1,540)	
500 이상	13.9	15.2	70.9	100.0(2,815)	
육구소득비					
1 미만	18.8	14.8	66.4	100.0(422)	33.0***
1~2 미만	16.7	12.4	70.9	100.0(2,089)	
2~3 미만	17.9	13.3	68.8	100.0(3,132)	
3~4 미만	15.6	13.1	71.3	100.0(1,913)	
4 이상	14.0	16.3	69.7	100.0(2,429)	

주: 1)*** p<.001, ** p<.01, * p<.05, # p<.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산후 도우미 지원 욕구가 크게 나타나는데, 남성의 경우 70.6%, 여성은 69.6%로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산후 도우미 등 지원의 필요성이 남녀 모두에게 일반화된 욕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맞벌이 가구에서는 산후도우미 지원의 선호도가, 비맞벌이 가구에서는 산전 진찰비 지원의 선호도가 높았다.

〈표 18-9〉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임신 및 출산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단위: %, 명)

특성	산전 진찰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계(수)	χ^2
성별					
남자	16.3	13.1	70.6	100.0(1,843)	0.9
여자	16.4	14.0	69.6	100.0(8,217)	
연령					
15~29세	21.6	6.4	72.0	100.0(408)	61.3***
30~39세	18.4	12.0	69.6	100.0(2,530)	
40~49세	14.6	16.3	69.1	100.0(3,347)	
50~59세	15.8	13.2	71.0	100.0(3,102)	
60세 이상	17.1	15.4	67.6	100.0(673)	
혼인상태					
유배우	16.5	13.8	69.8	100.0(8,308)	1.3
사별	16.6	14.3	69.0	100.0(648)	
이혼·별거	15.3	14.2	70.5	100.0(1,1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1	14.1	69.8	100.0(1,894)	1.1
고등학교	16.1	13.6	70.2	100.0(4,549)	
대학 이상	16.8	14.0	69.3	100.0(3,616)	
취업여부					
취업	15.7	13.8	70.5	100.0(5,672)	3.8
비취업	17.2	13.9	69.0	100.0(4,387)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9	13.3	70.8	100.0(3,837)	3.7
비맞벌이	17.0	14.1	68.9	100.0(4,47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양육의 경제적 지원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보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전체 응답자의 67.8%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시설 미이용아동의 양육비 지원으로 32.2%이었다. 현금지원의 성격을 띠는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보육·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18-10〉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양육의 경제적 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단위: %, 명)

특성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계(수)	χ^2
전체	67.8	32.2	100.0(9,497)	
지역				
동부	68.0	32.0	100.0(8,202)	1.7
읍·면부	66.2	33.8	100.0(1,295)	
가구원 수				
1인	60.7	39.3	100.0(808)	44.1***
2인	64.3	35.7	100.0(2,075)	
3~4인	69.3	30.7	100.0(5,594)	
5인 이상	72.1	27.9	100.0(1,020)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62.7	37.3	100.0(435)	21.0***
100~200 미만	63.4	36.6	100.0(1,159)	
200~300 미만	68.0	32.0	100.0(1,853)	
300~400 미만	67.6	32.4	100.0(1,874)	
400~500 미만	69.7	30.3	100.0(1,463)	
500 이상	69.4	30.6	100.0(2,643)	
가구소득비				
1 미만	61.8	38.2	100.0(396)	7.8#
1~2 미만	67.5	32.5	100.0(1,985)	
2~3 미만	68.4	31.6	100.0(2,986)	
3~4 미만	68.7	31.3	100.0(1,799)	
4 이상	67.4	32.6	100.0(2,26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양육의 경제적 지원분야 세부 정책욕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보육·교육비 지원정책은 고연령층보다 저연령층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정책은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11〉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양육의 경제적 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단위: %, 명)

특성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계(수)	χ^2
성별				
남자	64.4	35.6	100.0(1,730)	11.0**
여자	68.5	31.5	100.0(7,767)	
연령				
15~29세	72.7	27.3	100.0(397)	24.9***
30~39세	70.2	29.8	100.0(2,424)	
40~49세	68.2	31.8	100.0(3,136)	
50~59세	64.6	35.4	100.0(2,907)	
60세 이상	67.8	32.2	100.0(634)	
혼인상태				
유배우	68.7	31.3	100.0(7,835)	21.5***
사별	67.1	32.9	100.0(613)	
이혼·별거	61.5	38.5	100.0(1,04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4.6	35.4	100.0(1,784)	11.9**
고등학교	67.9	32.1	100.0(4,288)	
대학이상	69.3	30.7	100.0(3,423)	
취업여부				
취업	67.9	32.1	100.0(5,354)	0.1
비취업	67.6	32.4	100.0(4,14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9.6	30.4	100.0(3,615)	2.4
비맞벌이	67.9	32.1	100.0(4,22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양육의 인프라 및 프로그램 분야의 우선순위는 직장보육시설(29.4%), 국·공립보육시설(26.7%), 방과후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20.1%)의 순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였다. 국공립보육시설 선호도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높았던 반면, 종일제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녀의 시설 의존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12〉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양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분야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방과후 보육 및 교육	종일제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계(수)	χ^2
전체	20.1	18.8	5.0	29.4	26.7	100.0(10,052)	
지역							
동부	19.7	18.5	5.0	29.9	26.9	100.0(8,678)	13.0*
읍·면부	22.2	21.0	5.0	26.6	25.3	100.0(1,374)	
가구원 수							
1인	16.0	22.7	5.0	28.1	28.2	100.0(855)	68.1***
2인	17.5	21.4	5.3	31.7	24.1	100.0(2,240)	
3~4인	21.3	17.9	4.7	29.4	26.7	100.0(5,903)	
5인 이상	21.9	16.0	5.8	25.6	30.9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8.3	26.8	7.7	29.1	18.2	100.0(457)	168.8***
100~200 미만	19.9	21.1	4.6	27.8	26.6	100.0(1,234)	
200~300 미만	23.7	19.6	5.2	24.5	27.0	100.0(1,952)	
300~400 미만	21.5	20.9	4.5	26.1	27.0	100.0(1,981)	
400~500 미만	22.4	17.2	5.1	29.7	25.6	100.0(1,540)	
500 이상	15.9	15.7	4.8	35.5	28.2	100.0(2,815)	
육구소득비							
1 미만	20.4	23.0	7.1	28.5	21.0	100.0(419)	166.2***
1~2 미만	24.1	21.2	4.8	23.6	26.3	100.0(2,088)	
2~3 미만	22.9	18.8	5.3	26.9	26.1	100.0(3,131)	
3~4 미만	16.8	19.1	5.3	31.3	27.4	100.0(1,913)	
4 이상	15.7	16.2	4.0	35.9	28.2	100.0(2,428)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 양육 인프라와 프로그램 욕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특히 취업자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자와 비맞벌이 가구는 직장보육시설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비취업 여성과 비맞벌이 여성이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때문에 노동시장을 이탈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8-13〉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양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분야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방과후 보육 및 교육	종일제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계(수)	χ^2
성별							
남자	22.7	20.0	5.4	22.9	29.0	100.0(1,838)	47.1***
여자	19.5	18.6	4.8	30.9	26.2	100.0(8,214)	
연령							
15~29세	19.8	21.8	4.7	24.5	29.2	100.0(408)	105.3***
30~39세	23.8	17.9	5.0	27.3	26.1	100.0(2,528)	
40~49세	22.5	16.9	4.6	29.3	26.7	100.0(3,345)	
50~59세	15.4	20.6	5.6	31.7	26.7	100.0(3,098)	
60세 이상	15.9	22.6	4.0	30.1	27.4	100.0(673)	
혼인상태							
유배우	20.4	18.2	5.1	29.2	27.1	100.0(8,305)	22.4**
사별	17.4	23.9	5.3	30.2	23.2	100.0(647)	
이혼·별거	19.2	20.7	4.0	30.3	25.7	100.0(1,1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8	22.0	6.0	29.4	26.8	100.0(1,889)	73.9***
고등학교	22.7	19.3	4.4	27.6	26.1	100.0(4,547)	
대학이상	18.9	16.8	5.2	31.7	27.4	100.0(3,615)	
취업여부							
취업	19.6	19.2	4.7	30.8	25.7	100.0(5,668)	17.9**
비취업	20.7	18.4	5.3	27.6	28.0	100.0(4,38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2	19.0	4.7	31.3	25.9	100.0(3,837)	23.6***
비맞벌이	21.4	17.6	5.4	27.4	28.2	100.0(4,47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일·가정양립 분야의 지원의 우선순위는 육아휴직(32.2%), 근로형태 유연화(22.5%), 노동시장 복귀(17.9%),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17.0%)의 순이었다. 특성별 차이에서 지역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이로써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구분 없는 일반적 어려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육구소득비의 중간층에서 근로형태 유연화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꼽을 수 있다.

〈표 18-1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일가정양립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단위: %, 명)

특성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근로 유연화	유사산 휴가	노동시장 복귀	계(수)	χ^2
전체	9.2	32.2	17.0	22.5	1.2	17.9	100.0(10,050)	
지역								
동부	9.0	32.0	17.3	22.6	1.2	17.9	100.0(8,676)	12.4*
읍·면부	10.9	33.1	15.0	21.7	1.8	17.6	100.0(1,375)	
가구원 수								
1인	10.2	38.1	18.0	17.2	1.2	15.3	100.0(854)	52.0***
2인	10.4	33.6	16.2	20.9	1.3	17.6	100.0(2,241)	
3~4인	9.2	31.1	17.0	23.3	1.3	18.2	100.0(5,901)	
5인 이상	6.6	30.3	17.8	25.5	.9	18.8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2.4	30.4	19.8	16.3	1.4	19.7	100.0(456)	72.5***
100~200 미만	10.5	36.1	15.3	18.1	1.5	18.5	100.0(1,234)	
200~300 미만	10.0	30.7	17.1	24.3	1.4	16.5	100.0(1,952)	
300~400 미만	9.7	30.3	17.9	23.3	1.0	17.9	100.0(1,981)	
400~500 미만	9.2	31.5	14.9	24.2	1.1	19.1	100.0(1,540)	
500 이상	7.3	33.7	17.3	22.7	1.3	17.8	100.0(2,813)	
육구소득비								
1 미만	12.3	30.5	19.6	17.0	1.4	19.3	100.0(419)	54.9***
1~2 미만	9.9	30.1	17.0	21.6	1.6	19.9	100.0(2,087)	
2~3 미만	9.4	32.7	16.5	24.3	1.1	16.0	100.0(3,131)	
3~4 미만	9.7	30.8	17.3	22.8	1.3	18.1	100.0(1,913)	
4 이상	7.5	35.0	16.4	21.7	1.0	18.3	100.0(2,42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 개인 특성별 일가정양립분야 정책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았게 나타남으로써,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욕구가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형태 유연화와 같은 경우 20~30대 연령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출산이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의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15〉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일가정양립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단위: %, 명)

특성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근로 유연화	유사산 휴가	노동시장 복귀	계(수)	χ^2
성별								
남자	10.3	34.4	16.6	22.6	1.2	14.9	100.0(1,840)	17.2**
여자	9.0	31.7	17.1	22.4	1.3	18.5	100.0(8,211)	
연령								
15~29세	6.7	32.1	18.0	23.3	1.5	18.5	100.0(408)	65.1***
30~39세	9.0	30.7	17.1	24.7	1.0	17.5	100.0(2,527)	
40~49세	8.7	29.8	17.4	23.6	1.4	19.1	100.0(3,345)	
50~59세	10.3	35.9	16.5	19.8	1.0	16.5	100.0(3,100)	
60세 이상	9.9	32.3	15.8	20.6	2.2	19.2	100.0(671)	
혼인상태								
유배우	9.1	31.7	17.1	22.9	1.2	18.0	100.0(8,304)	14.8
사별	10.6	35.6	14.6	20.6	1.8	16.9	100.0(645)	
이혼·별거	9.6	33.8	17.6	20.1	1.0	17.9	100.0(1,10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6	35.7	17.1	18.2	1.6	17.7	100.0(1,889)	77.3***
고등학교	10.5	30.2	17.7	21.7	1.0	18.9	100.0(4,546)	
대학이상	7.5	32.8	15.9	25.7	1.3	16.7	100.0(3,614)	
취업여부								
취업	9.0	31.6	17.1	23.3	1.2	17.8	100.0(5,665)	6.5
비취업	9.5	32.9	16.8	21.4	1.3	18.0	100.0(4,385)	
맞벌이 여부								
맞벌이	8.6	30.2	17.5	24.0	1.2	18.5	100.0(3,835)	13.1*
비맞벌이	9.5	33.1	16.7	22.0	1.3	17.5	100.0(4,473)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기타 가족생활 지원 분야 중 다자녀 가정 주택 지원과 다자녀 가정 취업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가구원 수 1명과 5명 이상의 경우 다자녀 가정 주택지원 선호도가, 가구원 수 2~3명의 경우 다자녀 가정 취업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른 특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8-1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기타 가족생활 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단위: %, 명)
특성	다자녀 가정주택	다자녀 가정취업	계(수)	χ^2
전체	49.2	50.8	100.0(10,033)	
지역				
동부	49.4	50.6	100.0(8,662)	0.4
읍·면부	48.5	51.5	100.0(1,371)	
가구원 수				
1인	50.3	49.7	100.0(854)	10.5*
2인	47.8	52.2	100.0(2,237)	
3~4인	48.9	51.1	100.0(5,888)	
5인 이상	53.5	46.5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44.7	55.3	100.0(456)	5.5
100~200 미만	48.8	51.2	100.0(1,233)	
200~300 미만	49.3	50.7	100.0(1,950)	
300~400 미만	50.3	49.7	100.0(1,974)	
400~500 미만	50.0	50.0	100.0(1,538)	
500 이상	48.6	51.4	100.0(2,808)	
가구소득비				
1 미만	43.9	56.1	100.0(419)	6.1
1~2 미만	49.7	50.3	100.0(2,084)	
2~3 미만	49.8	50.2	100.0(3,127)	
3~4 미만	49.5	50.5	100.0(1,909)	
4 이상	48.4	51.6	100.0(2,421)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개인특성별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다자녀 가정 주택 지원의 선호도의 경우 고연령층보다 주된 출산 연령인 20~30대에서 높은 반면, 다자녀 가정취업지원 선호도는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18-17〉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기타 가족생활 지원 분야 최우선 지원 정책

(단위: %, 명)

특성	다자녀 가정주택	다자녀 가정취업	계(수)	χ^2
성별				
남자	50.0	50.0	100.0(1,836)	0.5
여자	49.1	50.9	100.0(8,197)	
연령				
15~29세	60.1	39.9	100.0(407)	59.7***
30~39세	54.0	46.0	100.0(2,522)	
40~49세	47.2	52.8	100.0(3,338)	
50~59세	46.1	53.9	100.0(3,095)	
60세 이상	49.1	50.9	100.0(670)	
혼인상태				
유배우	49.5	50.5	100.0(8,287)	1.1
사별	48.2	51.8	100.0(644)	
이혼·별거	48.0	52.0	100.0(1,10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3.7	56.3	100.0(1,889)	30.9***
고등학교	49.7	50.3	100.0(4,538)	
대학이상	51.5	48.5	100.0(3,605)	
취업여부				
취업	48.4	51.6	100.0(5,651)	3.6 [#]
비취업	50.3	49.7	100.0(4,38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8.5	51.5	100.0(3,825)	2.8 [#]
비맞벌이	50.3	49.7	100.0(4,46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정도에 대한 태도와 관련, 응답자의 70%가 본인에게 영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있다 51%, 매우 있다 19%의 비율이었다. 가구특성별로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즉,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저출산 현상이 미칠 영향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며, 욕구소득비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표 18-18〉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 정도

(단위: %, 명)

특성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대체로 있음	매우 있음	계(수)	χ^2
전체	3.0	27.0	51.0	19.0	100.0(9,558)	
지역						
동부	2.5	26.8	51.5	19.3	100.0(8,286)	70.9***
읍·면·부	6.6	28.6	47.9	16.9	100.0(1,272)	
가구원 수						
1인	4.9	28.1	51.7	15.3	100.0(796)	71.2***
2인	3.8	29.2	49.3	17.7	100.0(2,144)	
3~4인	2.2	25.9	52.8	19.1	100.0(5,623)	
5인 이상	4.3	27.6	44.2	23.8	100.0(99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7.3	31.6	45.4	15.7	100.0(413)	128.4***
100~200 미만	3.2	30.3	50.4	16.2	100.0(1,178)	
200~300 미만	3.6	26.7	55.2	14.5	100.0(1,824)	
300~400 미만	2.9	27.8	51.8	17.4	100.0(1,886)	
400~500 미만	2.3	26.6	51.5	19.6	100.0(1,478)	
500 이상	2.2	25.0	48.7	24.1	100.0(2,713)	
욕구소득비						
1 미만	6.2	30.1	44.1	19.5	100.0(388)	126.8***
1~2 미만	3.6	28.5	51.8	16.0	100.0(1,955)	
2~3 미만	2.8	28.9	52.0	16.3	100.0(2,973)	
3~4 미만	2.7	27.6	52.3	17.4	100.0(1,840)	
4 이상	2.3	22.7	49.4	25.6	100.0(2,33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 개인 특성별 차이에서, 연령별로 30~50대 연령층이 영향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2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은 영향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작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출산과 양육에 직면한 연령층의 경우 저출산 현상의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30~40대 연령층이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19〉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 정도

(단위: %, 명)

특성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대체로 있음	매우 있음	계(수)	χ^2
성별						
남자	3.8	25.6	51.4	19.2	100.0(1,763)	6.7 [#]
여자	2.9	27.3	50.9	18.9	100.0(7,794)	
연령						
15~29세	5.8	37.5	44.7	12.0	100.0(372)	82.2 ^{***}
30~39세	2.2	26.6	52.4	18.8	100.0(2,391)	
40~49세	2.2	27.2	49.3	21.3	100.0(3,194)	
50~59세	3.7	26.0	52.3	18.0	100.0(2,972)	
60세 이상	5.4	26.2	51.8	16.6	100.0(629)	
혼인상태						
유배우	2.6	26.8	50.8	19.7	100.0(7,905)	55.9 ^{***}
사별	4.8	23.9	58.9	12.4	100.0(611)	
이혼·별거	4.8	30.3	47.6	17.3	100.0(1,0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9	27.9	53.5	13.8	100.0(1,772)	107.9 [*]
고등학교	2.8	27.9	51.8	17.4	100.0(4,342)	
대학이상	2.3	25.4	48.7	23.6	100.0(3,443)	
취업여부						
취업	2.9	24.6	52.0	20.4	100.0(5,415)	42.7 [*]
비취업	3.1	30.1	49.7	17.1	100.0(4,14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	23.3	52.3	21.7	100.0(3,663)	48.3 ^{***}
비맞벌이	2.6	29.9	49.5	18.0	100.0(4,24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출산과 양육의 국가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69.5%,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26.2%로 전체 95.7%의 압도적 비율이 지원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육구소득비에 따른 차이에서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지원필요성 인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간계층의 경우 국가지원 필요성 인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8-20〉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출산 및 양육의 국가지원에 대한 생각

특성	(단위: %, 명)					χ^2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어느정도 지원	전적으로 지원	계(수)	
전체	0.5	3.8	69.5	26.2	100.0(9,980)	
지역						
동부	0.5	3.9	69.4	26.2	100.0(8,621)	0.9
읍·면부	0.5	3.4	70.3	25.8	100.0(1,359)	
가구원 수						
1인	1.0	6.1	72.2	20.7	100.0(845)	41.8***
2인	0.4	4.4	70.3	24.9	100.0(2,225)	
3~4인	0.5	3.4	69.2	26.9	100.0(5,860)	
5인 이상	0.7	2.7	67.4	29.3	100.0(1,049)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0	6.0	71.1	21.9	100.0(450)	49.0***
100~200 미만	0.4	4.7	70.3	24.6	100.0(1,227)	
200~300 미만	0.4	3.4	66.7	29.5	100.0(1,934)	
300~400 미만	0.4	2.9	67.6	29.2	100.0(1,967)	
400~500 미만	0.6	3.7	70.0	25.6	100.0(1,532)	
500 이상	0.7	3.9	71.6	23.8	100.0(2,800)	
육구소득비						
1 미만	1.1	4.7	67.5	26.8	100.0(414)	22.3*
1~2 미만	0.4	3.9	68.4	27.4	100.0(2,067)	
2~3 미만	0.4	3.4	68.6	27.6	100.0(3,111)	
3~4 미만	0.5	3.5	69.9	26.2	100.0(1,897)	
4 이상	0.8	4.2	71.3	23.7	100.0(2,41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출산 및 양육의 국가지원 필요성에서 응답자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고연령층보다 저연령층에서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직면한 젊은 연령층의 정책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 취업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취업자 또는 비취업자 모두에게 출산과 양육의 정책욕구가 높다는 점을 말해 준다.

〈표 18-21〉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출산 및 양육의 국가지원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어느정도 지원	잔적으로 지원	계(수)	χ^2
성별						
남자	1.0	5.7	70.2	23.1	100.0(1,823)	37.9***
여자	0.5	3.3	69.4	26.8	100.0(8,157)	
연령						
15~29세	0.5	2.2	51.2	46.2	100.0(406)	295.2***
30~39세	0.2	2.2	62.4	35.1	100.0(2,515)	
40~49세	0.7	3.7	71.6	24.0	100.0(3,318)	
50~59세	0.6	5.0	74.3	20.1	100.0(3,079)	
60세 이상	0.7	5.3	75.1	18.8	100.0(662)	
혼인상태						
유배우	0.5	3.5	69.2	26.8	100.0(8,245)	47.5***
사별	0.5	3.7	78.7	17.1	100.0(644)	
이혼·별거	0.7	6.0	66.4	26.9	100.0(1,09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5	3.5	75.3	20.8	100.0(1,879)	57.6***
고등학교	0.6	4.6	68.2	26.6	100.0(4,512)	
대학이상	0.5	2.9	68.2	28.4	100.0(3,588)	
취업여부						
취업	0.7	3.8	69.4	26.1	100.0(5,628)	5.1
비취업	0.3	3.8	69.7	26.2	100.0(4,351)	
맞벌이 여부						
맞벌이	0.6	3.2	68.8	27.3	100.0(3,809)	3.3
비맞벌이	0.4	3.7	69.6	26.2	100.0(4,440)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출산 및 양육의 직장 지원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71.9%,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25%로 전체 96.9%의 높은 긍정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국가지원 필요성(95.7%)보다도 직장지원 필요성의 인정비율이 다소 높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직장의 지원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직장지원 필요성의 긍정 정도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없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18-22〉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출산 및 양육의 직장지원에 대한 생각

특성	(단위: %, 명)					χ^2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어느정도 지원	전적으로 지원	계(수)	
전체	0.4	2.7	71.9	25.0	100.0(9,944)	
지역						
동부	0.4	2.6	71.9	25.1	100.0(8,589)	0.7
읍·면부	0.5	2.9	71.9	24.7	100.0(1,355)	
가구원 수						
1인	0.4	4.1	72.2	23.2	100.0(837)	25.3**
2인	0.5	2.9	73.7	22.9	100.0(2,224)	
3~4인	0.4	2.4	71.8	25.4	100.0(5,842)	
5인 이상	0.4	2.3	68.4	29.0	100.0(1,041)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1	4.7	73.5	20.7	100.0(450)	30.8**
100~200 미만	0.2	3.1	72.3	24.3	100.0(1,218)	
200~300 미만	0.4	2.8	70.9	26.0	100.0(1,923)	
300~400 미만	0.3	1.6	71.9	26.2	100.0(1,964)	
400~500 미만	0.4	3.0	71.3	25.2	100.0(1,530)	
500 이상	0.5	2.5	72.3	24.7	100.0(2,791)	
육구소득비						
1 미만	1.2	4.2	71.7	22.9	100.0(414)	23.7*
1~2 미만	0.5	3.0	72.6	24.0	100.0(2,059)	
2~3 미만	0.2	2.2	71.5	26.1	100.0(3,098)	
3~4 미만	0.3	2.4	71.0	26.2	100.0(1,892)	
4 이상	0.6	2.8	72.4	24.2	100.0(2,41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 특성별 출산 및 양육의 직장 지원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 보았다. 출산 및 양육의 직장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고연령층보다 저연령 층의 긍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또한 젊은 층의 직장에 대한 지 원 미충족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층이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기 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취업여부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출산 및 양 육의 직장지원 필요성을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23〉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출산 및 양육의 직장지원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어느정도 지원	전적으로 지원	계(수)	χ^2
성별						
남자	0.9	4.1	71.9	23.1	100.0(1,810)	33.5***
여자	0.3	2.3	71.9	25.5	100.0(8,134)	
연령						
15~29세	-	2.3	62.6	35.1	100.0(404)	101.1***
30~39세	0.1	1.8	67.9	30.1	100.0(2,513)	
40~49세	0.5	2.7	73.0	23.7	100.0(3,302)	
50~59세	0.5	3.1	73.9	22.5	100.0(3,069)	
60세 이상	0.6	3.4	78.0	17.9	100.0(656)	
혼인상태						
유배우	0.4	2.5	72.0	25.2	100.0(8,224)	17.7**
사별	0.2	4.0	75.5	20.4	100.0(638)	
이혼·별거	0.5	3.4	69.2	27.0	100.0(1,08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5	2.4	75.1	21.9	100.0(1,871)	46.5***
고등학교	0.5	3.2	72.8	23.6	100.0(4,493)	
대학이상	0.3	2.2	69.0	28.6	100.0(3,579)	
취업여부						
취업	0.6	2.8	71.3	25.3	100.0(5,600)	8.6*
비취업	0.2	2.4	72.6	24.7	100.0(4,3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0.5	2.5	71.5	25.4	100.0(3,799)	4.0
비맞벌이	0.3	2.4	72.4	24.9	100.0(4,42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세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63.1%, 매우 찬성하는 비율은 15.8%로 전체 78.9%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욕구소득비에 따른 차이에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고소득 계층의 조세저항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2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다자녀 가정에 국가세금 지원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 하지 않음	별로 찬성 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계(수)	χ^2
전체	2.0	19.1	63.1	15.8	100.0(9,753)	
지역						
동부	1.9	19.4	63.4	15.4	100.0(8,419)	10.7*
읍·면부	2.4	17.8	61.4	18.3	100.0(1,333)	
가구원 수						
1인	2.0	20.5	61.3	16.3	100.0(816)	138.8***
2인	2.4	19.9	63.4	14.3	100.0(2,167)	
3~4인	1.7	19.5	64.7	14.1	100.0(5,730)	
5인 이상	2.7	14.7	55.0	27.6	100.0(1,040)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3.0	19.4	61.5	16.1	100.0(435)	45.4***
100~200 미만	0.9	21.7	61.7	15.6	100.0(1,196)	
200~300 미만	2.4	19.5	62.4	15.6	100.0(1,881)	
300~400 미만	1.4	16.4	64.2	18.0	100.0(1,930)	
400~500 미만	1.4	19.3	63.7	15.6	100.0(1,503)	
500 이상	2.7	19.2	63.4	14.7	100.0(2,743)	
욕구소득비						
1 미만	2.4	19.5	60.1	18.0	100.0(405)	36.6***
1~2 미만	1.7	17.4	63.0	18.0	100.0(2,020)	
2~3 미만	1.8	20.7	62.6	14.9	100.0(3,047)	
3~4 미만	1.5	17.6	64.4	16.6	100.0(1,850)	
4 이상	2.8	19.4	63.5	14.3	100.0(2,365)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 개인 특성별로 다자녀 가정의 국가세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연령별 특성에서 40~50대 연령층의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 연령층에서 조세 저항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 취업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 없이 국가세금 지원의 필요성이 정책욕구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18-25〉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다자녀 가정에 국가세금 지원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 하지 않음	별로 찬성 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계(수)	χ^2
성별						
남자	1.5	16.7	65.5	16.3	100.0(1,781)	12.0**
여자	2.0	19.7	62.6	15.7	100.0(7,972)	
연령						
15~29세	1.2	15.3	59.7	23.8	100.0(392)	72.2***
30~39세	1.1	17.5	63.1	18.2	100.0(2,463)	
40~49세	2.1	20.7	61.8	15.4	100.0(3,257)	
50~59세	2.7	19.7	64.3	13.3	100.0(2,989)	
60세 이상	1.6	17.6	66.1	14.7	100.0(651)	
혼인상태						
유배우	2.0	19.0	63.1	15.8	100.0(8,090)	28.1***
사별	1.9	14.7	70.7	12.7	100.0(624)	
이혼·별거	1.5	22.7	58.8	17.1	100.0(1,03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	18.2	64.4	15.5	100.0(1,824)	9.6
고등학교	2.0	20.4	62.1	15.4	100.0(4,442)	
대학이상	1.9	18.0	63.7	16.3	100.0(3,486)	
취업여부						
취업	1.9	18.9	63.4	15.8	100.0(5,490)	1.1
비취업	2.1	19.4	62.8	15.7	100.0(4,26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	19.5	62.8	15.7	100.0(3,737)	1.2
비맞벌이	2.1	18.6	63.3	15.9	100.0(4,35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마지막으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있다. 가장 우선시되는 항목은 안전한 자녀양육환경(23.8%)이었고,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17.8%), 경기 활성화(13.2%), 복지수준 향상(10.4%)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비용의 문제보다 안전한 사회환경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었다는 점은 최근의 아동대상 범죄로 인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2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출산 양육의 바람직한 사회여건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① 양성평등 ② 학벌문화타파 ③ 공교육강화 ④ 사교육비경감 ⑤ 경기 활성화 ⑥ 가족친화직장문화 ⑦ 한부모가족편견해소 ⑧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⑨ 육아지원시설 ⑩ 복지수준향상 ⑪ 경쟁사회지양 ⑫ 기타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19	51	94	178	132	26	17	238	91	104	50	0.0	100.0(10,059)	
지역														
동부	20	51	95	177	133	27	16	238	90	101	52	-	100.0(8,688)	14.3
읍·면부	15	56	86	182	123	21	18	242	96	120	41	0.0	100.0(1,371)	
가구원 수														
1인	16	73	81	171	213	12	61	130	86	130	29	-	100.0(853)	333.7***
2인	19	45	89	178	157	25	18	198	103	101	67	-	100.0(2,241)	
3~4인	20	51	98	174	117	28	11	266	90	98	47	0.0	100.0(5,910)	
5인 이상	21	50	88	203	94	28	9	257	79	123	48	-	100.0(1,054)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6	88	100	147	156	19	45	177	87	125	40	-	100.0(459)	321.2***
100~200 미만	25	55	96	178	202	23	28	153	85	117	37	-	100.0(1,237)	
200~300 미만	15	59	82	165	155	19	24	255	68	110	49	-	100.0(1,951)	
300~400 미만	14	44	86	193	120	31	15	265	91	97	44	-	100.0(1,981)	
400~500 미만	19	46	80	187	128	31	9	243	111	93	54	0.0	100.0(1,540)	
500 이상	26	47	114	174	92	27	7	252	99	100	61	-	100.0(2,817)	
육구소득비														
1 미만	16	93	122	116	159	23	46	192	91	106	36	-	100.0(422)	179.9***
1~2 미만	20	52	90	186	149	22	20	232	76	114	40	-	100.0(2,089)	
2~3 미만	14	60	86	183	146	25	16	248	76	100	47	-	100.0(3,131)	
3~4 미만	23	43	84	177	121	30	12	243	105	107	55	0.0	100.0(1,914)	
4 이상	24	40	112	174	103	27	14	234	113	97	63	-	100.0(2,429)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한 우선순위는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안전의식을 우선순위로 꼽은 비율은 고연령층에 비해 저연령층에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지목한 비율은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에서 특히 높았다.

〈표 18-27〉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출산 양육의 바람직한 사회여건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① 양성평등 ② 학벌문화타파 ③ 공교육강화 ④ 사교육비경감 ⑤ 경기 활성화 ⑥ 가족친화직장문화 ⑦ 한부모가족편견해소 ⑧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⑨ 육아지원시설 ⑩ 복지수준향상 ⑪ 경쟁사회지양 ⑫ 기타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성별														
남자	17	64	103	190	204	23	17	153	73	117	39	-	100.0(1,845)	186.8***
여자	20	49	91	175	116	27	16	257	95	101	53	0.0	100.0(8,214)	
연령														
15~29세	13	39	41	126	122	20	.7	366	117	106	43	-	100.0(408)	518.6***
30~39세	14	44	62	168	69	34	14	321	126	101	46	0.0	100.0(2,529)	
40~49세	26	58	117	182	121	26	22	222	72	99	56	-	100.0(3,347)	
50~59세	19	52	101	185	181	23	15	194	79	100	51	-	100.0(3,104)	
60세 이상	16	48	94	185	200	14	14	135	99	159	36	-	100.0(672)	
혼인상태														
유배우	20	50	95	180	120	27	.7	256	92	101	52	0.0	100.0(8,309)	428.4***
사별	22	40	77	176	176	26	43	167	102	144	29	-	100.0(646)	
이혼·별거	18	72	94	159	197	21	71	147	76	98	46	-	100.0(1,1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	59	94	174	185	15	19	169	82	128	57	-	100.0(1,892)	280.0***
고등학교	19	57	94	196	139	22	21	233	79	100	40	-	100.0(4,550)	
대학이상	21	40	93	156	95	37	10	281	111	96	59	0.0	100.0(3,616)	
취업여부														
취업	19	49	89	178	142	27	19	229	94	103	50	-	100.0(5,672)	24.4**
비취업	20	54	99	177	119	24	14	250	87	105	51	-	100.0(4,387)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	47	89	186	123	29	.4	262	96	95	51	-	100.0(3,839)	21.4*
비맞벌이	20	52	100	175	118	25	10	250	89	107	54	-	100.0(4,474)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제4절 가족정책 욕구

1. 혼인장려정책에 대한 견해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데 결혼연령 상승, 혼인 및 출산기피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미혼남녀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자아성취욕구의 상승,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비롯하여 양성불평등적인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형성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요인들로 작용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결혼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자아욕구 충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결혼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미혼남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규범은 미혼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관이므로 결혼은 출산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혼인장려를 위해 제 공되어야 할 국가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혼인장려정책 1순위로 ‘청년실업 해소’가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민층의 주택용자’ 17.1%,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12.9%,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11.9%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결혼자금 용자 확대’ 9.0%, ‘건전혼례 문화 조성’이 6.1% 등도 혼인장려를 위해 필요한 국가정책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2009년에 비해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청소년실업 해소에 대한 의견은 다소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결혼자금 용자 확대에 대한 의견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 필요한 혼인장려책을 보면, 동부와 읍·면부지역 거주자 모두 ‘청년실업 해소’, ‘서민층의 주택용자’, ‘혼인 및 출산가치관의 확립’,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 동부지역 거주자는 ‘모기지제도 확대’,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이 많았고,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결혼자금 용자 확대’, ‘소득공제’가 많았다.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는 ‘서민층의 주택용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결혼자금 용자 확대’를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소득공제’,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이 많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서민층의 주택용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이 많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건전혼례 문화조성’,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 사회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욕구가 많은 편이었다. 최저생계비 대비 실제소득의 비율인 욕구소득비로 보면 욕구소득비가 낮은 경우는 ‘서민층의 주택용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등이 많았고,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건전혼례 문화 조성’, ‘청년실업해소’,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표 18-28〉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반드시 필요한 혼인장려정책

(단위: %, 명)

특성	1.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2. 건전혼례 문화 조성 3. 모기지제도 확대 4. 서민층의 주택용자 5. 청년실업 해소 6.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7. 결혼자금 용자 확대 8. 소득공제(결혼비용, 주택자금) 9.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10. 기타										계(수)	χ^2
	1	2	3	4	5	6	7	8	9	10		
2009 ¹⁾	17.8	7.1	1.7	18.9	36.1	6.3	5.4	2.9	3.7	0.2	100.0(10,678)	
2012 ²⁾	12.9	6.1	1.1	17.1	34.3	11.9	9.0	3.5	4.0	0.1	100.0(10,048)	
지역												
동부	12.9	6.1	1.2	17.2	34.5	11.6	8.8	3.4	4.2	0.1	100.0(8,681)	24.7 **
읍·면부	13.0	5.6	0.7	16.9	32.0	13.9	10.5	4.5	3.0	-	100.0(1,367)	
가구원 수												
1인	10.6	6.8	0.9	19.5	34.8	14.7	10.3	1.4	1.1	-	100.0(853)	111.8 ***
2인	11.2	5.3	1.2	18.9	35.9	11.5	9.3	3.0	3.2	0.4	100.0(2,240)	
3~4인	13.4	6.1	1.1	16.2	34.2	11.7	8.8	3.9	4.5	0.1	100.0(5,900)	
5인 이상	15.4	6.5	1.1	16.9	29.6	11.9	8.7	3.9	5.9	0.1	100.0(1,055)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2.5	5.9	0.7	19.3	34.6	15.6	8.1	1.8	1.5	-	100.0(456)	304.9 ***
100~200 미만	8.8	5.3	1.3	20.4	32.3	17.2	10.7	2.7	1.4	-	100.0(1,237)	
200~300 미만	11.5	4.5	1.0	19.0	34.9	11.8	10.5	3.5	2.8	0.4	100.0(1,949)	
300~400 미만	11.8	6.4	1.2	19.3	33.5	12.7	7.9	3.8	3.3	0.1	100.0(1,979)	
400~500 미만	12.9	6.0	1.4	17.9	32.9	10.4	9.2	4.1	4.9	0.1	100.0(1,539)	
500 이상	16.3	7.2	0.9	12.3	35.5	9.4	8.2	3.6	6.5	0.1	100.0(2,887)	
육구소득비												
1 미만	11.9	5.5	0.7	22.2	32.5	14.1	8.4	2.4	2.4	-	100.0(419)	220.8 ***
1~2 미만	9.0	5.6	1.1	18.8	32.8	15.0	11.2	3.9	2.5	-	100.0(2,089)	
2~3 미만	13.5	5.8	1.1	18.3	33.0	13.1	8.0	3.4	3.4	0.4	100.0(3,132)	
3~4 미만	13.1	6.4	1.4	17.4	34.6	10.7	9.3	2.7	4.3	0.1	100.0(1,910)	
4 이상	15.4	6.5	0.9	13.3	36.3	8.4	8.7	4.1	6.3	0.1	100.0(2,427)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1)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본 조사결과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한 혼인장려책을 보면, 성별로는 남녀 모두 전체와 비슷하여 ‘청년실업 해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민층의 주택용자’, ‘혼인 및 출산가치관의 확립’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서민층의 주택용자’와 ‘청년실업해소’가 많았고, 이외에 고연령층은 ‘건전혼례문화 조성’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저연령층은 ‘소득공제’가 많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대체로 유배우인 경우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결혼자금 용자 확대’, ‘소득공제’,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인 경우는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이혼·별거인 경우는 ‘건전혼례 문화 조성’, ‘서민층의 주택용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등을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표 18-29〉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반드시 필요한 혼인장려정책

(단위: %, 명)

특성	1.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2. 건전혼례 문화 조성 3. 모기지제도 확대 4. 서민층의 주택용자 5. 청년실업 해소 6.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7. 결혼자금 용자 확대 8. 소득공제(결혼비용, 주택자금) 9.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10. 기타										계(수)	χ^2
	1	2	3	4	5	6	7	8	9	10		
2009	17.8	7.1	1.7	18.9	36.1	6.3	5.4	2.9	3.7	0.2	100.0(10,678)	
2012	12.9	6.1	1.1	17.1	34.3	11.9	9.0	3.5	4.0	0.1	100.0(10,048)	
응답자 성												
남성	10.8	6.8	1.2	18.7	36.5	10.5	8.7	3.9	2.2	0.5	100.0(1,845)	70.1 ***
여성	13.4	5.9	1.1	16.8	33.6	12.3	9.1	3.4	4.4	-	100.0(8,204)	
응답자 연령												
15~29세	15.2	2.7	1.0	26.5	21.1	9.8	11.8	8.6	3.2	-	100.0(407)	373.6 ***
30~39세	17.2	5.0	1.1	18.6	24.9	12.1	10.7	4.3	5.9	0.2	100.0(2,521)	
40~49세	12.5	6.5	1.1	15.0	36.8	11.8	8.2	3.6	4.6	-	100.0(3,346)	
50~59세	10.7	6.7	1.2	16.9	39.0	12.2	7.8	2.7	2.6	0.3	100.0(3,101)	
60세 이상	7.9	7.0	0.7	17.3	41.7	12.1	11.0	0.7	1.6	-	100.0(672)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13.4	6.0	1.0	16.8	33.8	11.4	9.3	3.8	4.4	0.2	100.0(8,301)	88.2 ***
사별	9.6	6.2	1.6	16.3	42.8	13.2	7.8	1.1	1.4	-	100.0(643)	
이혼·별거	11.2	6.7	1.3	20.2	32.2	15.1	8.3	2.5	2.6	-	100.0(1,102)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6	4.7	1.0	18.5	39.9	14.0	11.4	2.4	1.5	-	100.0(1,892)	335.4 ***
고등학교	11.5	6.6	1.1	18.1	34.1	12.8	8.6	3.7	3.1	0.2	100.0(4,547)	
대학 이상	18.0	6.0	1.2	15.2	31.2	9.7	8.3	3.9	6.5	0.1	100.0(3,607)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2.5	6.0	1.2	17.5	34.2	12.3	9.0	3.3	4.0	0.2	100.0(5,667)	8.0
비취업	13.4	6.2	1.0	16.7	34.2	11.4	9.2	3.8	4.1	0.1	100.0(4,380)	

주: *** p<.001, ** p<.01, * p<.05, # p<.1(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8-28>과 동일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청년실업 해소’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하 학력소지자는 ‘서민층의 주택용자’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이외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결혼자금 용자 확대’, ‘건전혼례 문화

조성’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의 확립’이 우선순위가 높았고, 이외에도 ‘소득공제’와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에 대한 정책 욕구가 다소 많았다.

정리하면 혼인장려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책으로 ‘청년실업 해소’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민층의 주택용자’, ‘혼인 및 출산가치관의 확립’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아서 국가 차원에서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을 위한 주택용자 정책’ 등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에 대하여 ‘(매우) 찬성’과 ‘그저 그럼’이 동일하게 41.6%로 많았고, ‘(매우) 반대’가 16.8%로 국제결혼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반대보다 2.5배 높았다. 2009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2009년에 비해 국제결혼에 대한 반대의견이 낮아졌고, 그저 그럼과 찬성하는 의견은 미미하나 높아져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특성별로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를 보면, 지역별로는 국제결혼에 (매우) 찬성하는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42.0%로 동부지역 거주자보다 다소 높았고, 국제결혼에 (매우) 반대하는 비율도 읍·면부지역이 22.0%로 높았다. 가구규모별로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으나 대체로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는 국제결혼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경향이 많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저 그럼’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욕구소득비별로는 욕구소득비가 낮은 경우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고,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는 ‘그저 그럼’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서 가구소득과 욕구소득비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가구여부별로는 다문화가구인 경우는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의견과 ‘그저 그럼’이라는 중립적인 의견이 많았고, 다문화가구가 아닌 경우는 국제결혼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경우 국제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표 18-30〉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분포 및 평균

(단위: %, 명, 점)

특성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분포					계(수)	χ^2	평균	F(T)
	매우 반대	반대	그저 그럼	찬성	매우 찬성				
2009	1.6	17.9	39.0	40.6	0.9	100.0(10,681)		3.21	
2012	1.7	15.1	41.6	39.0	2.6	100.0(10,047)		3.26	
지역									
동부	1.7	14.3	42.5	38.9	2.6	100.0(8,670)	39.6***	3.27	(2.4*)
읍·면·부	1.8	20.2	36.0	39.2	2.8	100.0(1,377)		3.21	
가구원 수									
1인	2.7	18.8	40.6	35.9	2.1	100.0(858)	54.1***	3.16	4.8**
2인	2.0	16.8	36.7	41.4	3.0	100.0(2,239)		3.27	
3~4인	1.5	14.0	43.5	38.4	2.6	100.0(5,905)		3.27	
5인 이상	1.1	14.8	42.4	39.0	2.8	100.0(1,043)		3.27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6	22.5	34.5	38.4	2.0	100.0(458)	95.7***	3.14	8.1***
100~200 미만	2.9	18.1	40.2	36.4	2.5	100.0(1,240)		3.17	
200~300 미만	1.3	17.6	39.2	39.4	2.5	100.0(1,950)		3.24	
300~400 미만	1.7	14.5	42.9	38.6	2.4	100.0(1,981)		3.25	
400~500 미만	1.5	14.9	42.4	38.0	3.2	100.0(1,539)		3.27	
500 이상	1.4	11.4	43.8	40.6	2.8	100.0(2,877)		3.32	
욕구소득비									
1 미만	2.6	23.2	38.4	33.9	1.9	100.0(422)	54.9***	3.10	8.4***
1~2 미만	1.9	16.4	40.7	38.4	2.6	100.0(2,090)		3.23	
2~3 미만	1.6	15.7	41.2	39.0	2.5	100.0(3,121)		3.25	
3~4 미만	1.8	15.6	41.6	38.5	2.6	100.0(1,913)		3.25	
4 이상	1.4	11.7	43.6	40.4	3.0	100.0(2,429)		3.32	
다문화가구여부									
해당	1.7	15.2	41.9	38.7	2.5	100.0(9,898)	-	3.25	(-7.1***)
비해당	0.7	9.5	21.6	54.1	14.2	100.0(148)		3.72	

주: *** p<.001, ** p<.01, * p<.05, # p<.1(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8-28>과 동일

응답자 특성별로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를 보면, 성별로는 국제결혼에 (매우)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9.0%pt 많았고, (매우) 반대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3%pt 더 높았으며, ‘그저 그럼’이라는 응답도 여성이 남성보다 7.9%pt 많았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와 30대~40대 연령층에서 찬성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특히 30~39세 연령층에서 44.4%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국제결혼의 반대의견은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았다.

〈표 18-31〉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분포 및 평균

(단위: %, 명, 점)

특성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분포					계(수)	χ^2	평균	F(T)
	매우 반대	반대	그저 그럼	찬성	매우 찬성				
2009	1.6	17.9	39.0	40.6	0.9	100.0(10,681)		3.21	
2012	1.7	15.1	41.6	39.0	2.6	100.0(10,047)		3.26	
응답자 성									
남성	1.8	13.9	35.2	45.1	3.9	100.0(1,843)	60.5 ***	3.35	(5.6 ***)
여성	1.7	15.3	43.1	37.6	2.4	100.0(8,203)		3.24	
응답자 연령									
15~29세	1.2	16.5	40.7	36.3	5.2	100.0(405)	185.3 ***	3.28	21.4 ***
30~39세	1.1	9.6	45.0	41.9	2.5	100.0(2,525)		3.35	
40~49세	1.3	14.0	42.8	38.9	3.0	100.0(3,345)		3.28	
50~59세	2.3	18.9	38.8	38.2	1.8	100.0(3,096)		3.18	
60세 이상	3.0	23.0	37.0	33.4	3.6	100.0(673)		3.12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1.5	14.5	41.8	39.5	2.7	100.0(8,296)	71.5 ***	3.27	30.4 ***
사별	3.6	24.4	40.4	30.0	1.7	100.0(644)		3.02	
이혼·별거	2.0	14.5	41.3	39.6	2.6	100.0(1,105)		3.26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	21.9	35.1	37.6	2.5	100.0(1,886)	182.0 ***	3.15	47.9 ***
고등학교	1.7	16.1	42.5	37.4	2.3	100.0(4,548)		3.23	
대학 이상	1.1	10.3	44.0	41.5	3.2	100.0(3,613)		3.35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8	15.8	40.3	39.3	2.8	100.0(5,661)	11.5*	3.25	(-.4)
비취업	1.5	14.3	43.3	38.5	2.4	100.0(4,383)		3.26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8-28>과 동일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는 국제결혼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로

다 2.6배 많았고, ‘그저 그럼’인 중립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사별인 경우는 ‘그저 그럼’인 중립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찬성이 많았으며, 반대는 28.0%로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가장 많았다. 이혼·별거인 경우는 유배우인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찬성하는 의견은 대학 이상이 44.7%로 가장 많았으나 일관되지 않았고, 반대하는 의견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는 비취업자보다 국제결혼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다소 많았으며, ‘그저 그럼’인 중립적인 의견은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많았다.

정리하면 국제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 다문화 가족이 아닌 경우, 20~30대 연령층인 경우,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인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견해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정책과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별도로 필요함의 비율이 6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정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면 되므로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은 필요 없다는 비율이 23.2%이었다. 이외에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비율은 7.7%, 모르겠음 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도를 보면, 지역별로는 다문화가족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이 필요 없다는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나머지는 동부지역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원 수별로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비율은 53.6~63.9%로 가구원 수가 많아

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고,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이 필요 없다는 비율은 21.8~25.7%로 대체로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층에서 전체와 유사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이 필요 없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미미하나 ‘어떻게든 상관없다’, ‘모르겠다 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비율은 고소득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8-32〉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정책과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도

(단위: %, 명)

특성	가족정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면 되므로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은 필요 없음	가족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필요함	어떻게든 상관없음	모르겠음/ 생각해보지 않았음	계(수)	χ^2
전체	23.2	62.2	7.7	6.9	100.0(10,059)	
지역						
동부	22.6	62.3	8.0	7.1	100.0(8,682)	15.8
읍·면부	26.7	61.1	6.2	5.9	100.0(1,377)	**
가구원 수						
1인	24.2	53.6	11.8	10.5	100.0(859)	78.6
2인	25.7	60.5	8.3	5.6	100.0(2,243)	***
3~4인	22.4	63.7	6.7	7.2	100.0(5,906)	
5인 이상	21.8	63.9	9.0	5.3	100.0(1,050)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25.5	52.9	11.5	10.0	100.0(459)	100.7
100~200 미만	26.3	55.9	8.9	8.9	100.0(1,241)	***
200~300 미만	24.1	59.7	9.0	7.2	100.0(1,952)	
300~400 미만	24.3	60.5	7.7	7.5	100.0(1,979)	
400~500 미만	22.6	64.6	6.6	6.3	100.0(1,535)	
500 이상	20.6	67.8	6.3	5.3	100.0(2,890)	
가구소득비						
1 미만	27.1	51.7	10.6	10.6	100.0(424)	90.8
1~2 미만	23.3	59.5	9.1	8.0	100.0(2,090)	***
2~3 미만	23.9	60.9	8.3	6.9	100.0(3,131)	
3~4 미만	24.8	61.9	6.5	6.7	100.0(1,912)	
4 이상	20.3	68.7	5.6	5.4	100.0(2,429)	
다문화가구여부						
해당	23.3	61.9	7.8	7.0	100.0(9,909)	20.9
비해당	16.1	79.2	3.4	1.3	100.0(149)	***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욕구소득비별로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욕구소득비가 낮은 경우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이 필요 없다는 비율이 높았고, 이외에도 ‘어떻게든 상관없다’, ‘모르겠다 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 다문화가족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아서 가구소득과 욕구소득비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가구 여부별로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다문화가구보다 아닌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으며, 다문화가구인 경우는 별도로 다문화가족정책이 필요 없다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도를 보면, 성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고 남녀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여성은 다문화가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전체와 비슷하였고, 대체로 저연령층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고, 고연령층에서는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혼인상태별로도 전체와 유사하였고, 유배우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고, 사별 및 이혼·별거인 경우는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특히 저학력층에서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이 필요 없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고학력층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18-33〉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가족정책과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도

(단위: %, 명)

특성	가족정책 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면 되므로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은 필요 없음	가족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필요함	어떻게든 상관없음	모르겠음/ 생각해보지 않았음	계(수)	χ^2
전체	23.2	62.2	7.7	6.9	100.0(10,059)	
응답자 성						
남성	25.6	58.2	10.3	5.9	100.0(1,841)	33.7
여성	22.7	63.1	7.1	7.1	100.0(8,217)	***
응답자 연령						
15~29세	16.0	63.9	10.3	9.8	100.0(407)	
30~39세	20.3	66.3	6.5	6.8	100.0(2,527)	99.8
40~49세	22.1	65.0	6.9	6.0	100.0(3,344)	***
50~59세	27.1	56.6	8.9	7.4	100.0(3,107)	
60세 이상	25.7	57.5	9.1	7.7	100.0(673)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22.4	63.8	7.2	6.6	100.0(8,307)	81.2
사별	29.1	56.5	6.2	8.2	100.0(643)	***
이혼·별거	26.0	53.2	12.6	8.2	100.0(1,107)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2	55.4	8.3	7.1	100.0(1,896)	133.8
고등학교	23.8	59.6	9.0	7.6	100.0(4,548)	***
대학 이상	19.4	68.9	5.8	6.0	100.0(3,613)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23.9	62.0	8.1	6.1	100.0(5,673)	18.5
비취업	22.3	62.4	7.2	8.0	100.0(4,385)	***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결과, ‘언어통역서비스’가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양육 지원’ 24.9%, ‘취업교육 및 훈련’ 20.9%, ‘경제적 지원’ 13.3%의 순으로 많았다. 2009년과 2012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2009년에 비해 경제적 지원과 언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다소 줄어들었고,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에 대한 의견은 늘어난 특성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특성별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면, 동부지역 거주자

는 읍·면부지역보다 ‘자녀양육 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이 많은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경제적 지원’, ‘언어통역서비스’,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이 많았다.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는 대체로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언어통역 서비스 등을 필요한 서비스로 응답하였고,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는 의료상담 및 지원, 자녀양육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표 18-34〉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특성	경제적 지원	의료 상담 및 지원	법률상 담 및 지원	자녀 양육 지원	언어 통역 서비스	취업 교육 및 취업훈련	기타	계(수)	χ^2
2009	15.2	4.8	4.4	24.9	31.7	17.9	1.2	100.0(10,680)	
2012	13.3	5.2	5.3	24.9	29.9	20.9	0.5	100.0(9,982)	
지역									
동부	13.2	5.5	5.5	25.0	29.3	21.0	0.5	100.0(8,615)	26.8
읍·면부	14.3	3.2	4.1	24.1	33.7	20.0	0.7	100.0(1,367)	***
가구원 수									
1인	18.6	4.6	7.7	18.3	30.1	20.2	0.4	100.0(840)	89.2
2인	12.3	5.0	4.9	21.5	33.3	22.6	0.5	100.0(2,213)	***
3~4인	13.3	5.2	5.2	27.0	28.8	20.1	0.5	100.0(5,879)	
5인 이상	12.0	6.3	4.6	25.9	28.8	22.2	0.3	100.0(1,050)	
가구소득(만원)									
100 미만	19.1	2.4	5.1	21.1	32.4	19.1	0.7	100.0(450)	108.4
100~200 미만	16.5	5.3	5.6	21.8	31.6	19.1	0.2	100.0(1,233)	***
200~300 미만	15.0	5.4	4.9	22.2	32.4	19.6	0.5	100.0(1,935)	
300~400 미만	13.0	4.8	4.3	27.1	30.9	19.4	0.5	100.0(1,974)	
400~500 미만	11.7	5.2	6.3	26.5	27.3	22.6	0.4	100.0(1,530)	
500 이상	11.0	5.8	5.5	26.3	27.9	22.8	0.6	100.0(2,860)	
욕구소독비									
1 미만	16.4	3.9	4.3	22.7	32.9	19.1	0.7	100.0(414)	96.9
1~2 미만	17.2	5.2	3.7	23.4	31.5	18.5	0.4	100.0(2,082)	***
2~3 미만	12.8	5.6	6.4	25.5	29.4	19.8	0.5	100.0(3,112)	
3~4 미만	11.9	4.4	4.7	24.1	31.4	23.2	0.3	100.0(1,905)	
4 이상	11.1	5.8	5.8	26.1	28.0	22.7	0.6	100.0(2,397)	
다문화가구 여부									
해당	13.2	5.2	5.3	24.7	30.0	21.1	0.5	100.0(9,834)	35.0
비해당	22.8	4.0	3.4	35.6	25.5	7.4	1.3	100.0(149)	***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8-28>과 동일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낮은 경우 ‘경제적 지원’과 ‘언어통역 서비스’를,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 지원’을 희망하였으며, 나머지는 소득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욕구소득비가 낮은 경우는 경제적 지원과 언어 통역서비스를 희망하였고, 욕구소득비가 높은 경우는 자녀양육지원과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등이 많았다. 다문화가구인 경우는 의료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언어통역서비스,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등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다문화가구가 아닌 경우는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지원 등을 희망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면, 남녀 모두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지원’과 ‘취업교육 및 취업 훈련’에 대한 욕구가, 여성은 ‘자녀양육지원’과 ‘언어통역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대체로 고연령층의 경우 ‘언어통역서비스’,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저연령층은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은 편이었다. 유배우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사별은 언어통역서비스의 욕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취업교육 및 훈련, 자녀양육 지원, 경제적 지원 순으로 많아서 전체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이혼·별거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경제적 지원’과 ‘언어통역서비스’를,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는 ‘자녀양육 지원’을 희망하였으나 나머지는 교육수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자는 취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욕구가 비취업자보다 많은 편이었고, 비취업자는 자녀양육지원과 언어통역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나머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리하면,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언어통역서비스’, ‘자녀양육 지원’, ‘취업교육 및 훈련서비스’에 집약되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낮으나 ‘경제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35〉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특성별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특성	경제적 지원	의료 상담 및 지원	법률상 담 및 지원	자녀 양육 지원	언어 통역 서비스	취업 교육 및 취업훈련	기타	계(수)	χ^2
2009	15.2	4.8	4.4	24.9	31.7	17.9	1.2	100.0(10,680)	
2012	13.3	5.2	5.3	24.9	29.9	20.9	0.5	100.0(9,982)	
응답자 성									
남성	15.1	4.6	7.4	20.5	28.4	23.1	0.9	100.0(1,821)	58.2 ***
여성	13.0	5.3	4.8	25.9	30.3	20.4	0.4	100.0(8,159)	
응답자 연령									
15~29세	15.2	4.9	4.2	28.5	31.2	15.7	0.2	100.0(407)	151.1 ***
30~39세	12.8	6.4	5.2	30.8	27.2	17.1	0.4	100.0(2,516)	
40~49세	12.9	4.7	4.7	25.6	30.1	21.6	0.5	100.0(3,326)	
50~59세	13.4	5.4	5.7	20.2	31.8	22.9	0.6	100.0(3,067)	
60세 이상	15.9	2.9	7.1	18.8	30.2	24.8	0.5	100.0(666)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12.8	5.2	5.1	26.1	29.8	20.5	0.5	100.0(8,264)	46.2 ***
사별	15.6	6.3	6.6	18.6	30.2	22.8	-	100.0(641)	
이혼·별거	15.9	4.9	6.0	19.9	30.5	22.3	0.6	100.0(1,077)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5	3.5	4.0	18.1	36.1	21.5	0.4	100.0(1,876)	158.9 ***
고등학교	12.9	5.2	5.7	24.2	30.5	21.3	0.3	100.0(4,509)	
대학 이상	12.3	6.1	5.4	29.4	26.0	20.0	0.7	100.0(3,595)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3.3	5.3	5.5	24.1	29.3	22.0	0.6	100.0(5,630)	18.2 **
비취업	13.5	5.0	5.0	26.0	30.7	19.5	0.3	100.0(4,352)	

주: *** p<.001, ** p<.01, * p<.05, # p<.1

자료: <표 18-45>와 동일

제5절 시사점

출산 및 가족 정책과 관련하여 15~64세 가구의 인식과 욕구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의 출생아수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에서 80% 이상의 높은 심각성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과 홍보활동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국민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저출산 현상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태도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즉 출산 및 양육을 담당하는 30~40대 층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에게서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을 역으로 해석하면, 출산 양육에 집중되어 있는 집단, 즉 30~40대 연령층, 남성보다는 여성,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 비맞벌이 가구보다는 맞벌이 가구의 인식 전환이 없이는 출산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홍보를 통한 전환보다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통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출산 및 양육의 집중 계층은 이미 저출산 문제를 출산 및 양육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 홍보활동을 통하여 인식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정책 욕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족 단위에서 해결 가능한 단순 정책욕구보다는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정책 욕구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나 직장의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직접적 책임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부정적 인식의 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세부적인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8-36>과 같은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산후 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등과 같은 산후 지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신혼부부 주거지원,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사산후가, 다자녀 가정 지원, 결혼가정 소득공제, 시간제

보육시설, 난임부부 지원 등은 정책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8-36〉 15~64세 기혼가구의 출산지원 관련 정책별 우선순위

(단위: %)

구분	분야	분야 내 비중 ¹⁾	분야별 가중치 ²⁾	정책수 가중치 ³⁾	최종 가중치 ⁴⁾	우선순위
구분	세부정책					
임신출산	산후지원	69.81	3.06	0.14	30.54	1
양육경제적지원	보육교육비	67.76	4.00	0.10	25.82	2
일가정양립	육아휴직	32.18	2.45	0.29	22.53	3
양육인프라	직장보육시설	29.42	2.75	0.24	19.27	4
결혼	신혼부부 주거	58.42	2.14	0.14	17.89	5
양육인프라	국공립보육시설	26.70	2.75	0.24	17.49	6
일가정양립	근로유연화	22.46	2.45	0.29	15.73	7
양육인프라	방과후보육교육	20.05	2.75	0.24	13.14	8
일가정양립	노동시장복귀	17.87	2.45	0.29	12.51	9
양육인프라	종일제보육시설	18.86	2.75	0.24	12.36	10
양육경제적지원	시설미이용아동	32.24	4.00	0.10	12.28	11
일가정양립	근로시간단축	16.97	2.45	0.29	11.88	12
결혼	결혼정책비용	30.99	2.14	0.14	9.49	13
임신출산	산전진찰비	16.36	3.06	0.14	7.16	14
일가정양립	산전후휴가	9.25	2.45	0.29	6.48	15
임신출산	난임부부	13.84	3.06	0.14	6.05	16
양육인프라	시간제보육시설	4.97	2.75	0.24	3.26	17
결혼	결혼가정 소득공제	10.59	2.14	0.14	3.24	18
기타	다자녀 가정취업	50.76	0.59	0.10	2.87	19
기타	다자녀 가정주택	49.24	0.59	0.10	2.78	20
일가정양립	유사산휴가	1.26	2.45	0.29	0.88	21

주 1) 6개 분야 내에서 각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 2) 6개 분야의 우선순위; 3) 6개 분야 내의 정책 개수로 전체 정책 개수는 21개; 4) 최종가중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최종가중치= 분야 내 비중 × 분야별 가중치 × 분야별 정책 수 가중치. 그리고 소수점으로 인하여 표에 제시된 항목의 곱이 최종 가중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조사결과

이와 같은 정책 우선순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원하는 주요 정책은 주로 제도 개선과 서비스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이다. 즉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인 및 가족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비용 지원정책은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산후 일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하며, 보육체계, 일·가정 양립체계와 같은 사회적

계의 개선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단순한 개별정책의 도입보다도 전반적인 출산 및 양육 체계의 큰 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개인가치관의 확대와 자아욕구의 증대로 인한 혼인가치관의 약화와 대학원 진학 등 고학력화 및 청년실업 등이 심화되면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사회적 현상이 팽배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층의 만혼화와 결혼기피는 저출산을 더욱 가속화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본 조사결과, 국가에서 혼인장려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청년실업해소가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고, 이외에 서민층의 주택임자, 혼인 및 출산가치관의 확립,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순으로 높았다. 이는 혼인가피요인으로 고용과 소득불안정, 주거부담, 그리고 혼인 및 출산가치관의 약화 등이 중요함을 시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우리사회는 세계화,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지속적인 세계화, 혼인수급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사회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시대에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국제결혼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반대보다 2.5배 높았고, 2009년에 비해 국제결혼의 반대의견은 줄어들었고, 찬성과 중립적인 견해가 많아졌다. 지속적인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가운데 본 조사결과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1/2를 상회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언어통역서비스, 자녀양육지원 및 취업교육 및 훈련서비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초기적응서비스에서 안정기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여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단순한 비용지원 정책보다 제도개선이나 서비스 체계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긍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보다 기업의 지원 필요성을 더 긍정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저출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인 만혼화 및 결혼기피를 최소화하고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미혼인구의 결혼의향과 관련이 높은 청소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인턴제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고용확대를 위해 공공·민관 기관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및 청년채용 권고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비용 부담해소를 위해 물량확대 및 자격 완화 측면에서 실효성 높은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혼인 및 출산가치를 제고하는 교육이 생애주기별로 설계·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전반에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가족가치를 확산한다. 또한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양성불평등적 결혼문화 개선과 함께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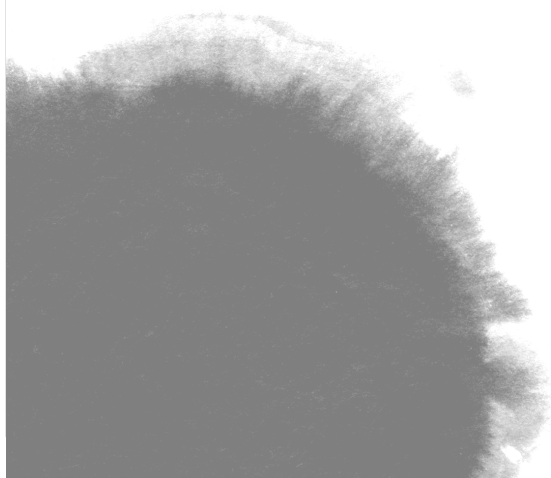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넷째,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다문화를 수용하는 수준은 저조한 편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일반청소년이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 등을 추진하고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다문화이해 교육을 강화한다.

다섯째, 현재 추진되는 다문화가족정책은 사회통합차원에서 가족정책이라는 큰 틀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일환으로 초기의 동화적 관점을 지양하고 사회참여와 자립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성 및 사회연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 학부모활동, 지자체 각종 위원회 및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결혼이민자의 자립방안으로는 적합직종 발굴 및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고용확대를 위하여 채용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고 인력풀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9장

정책제언



제19장 정책제언

제1 절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제언

1. 결혼 관련 정책제언

첫째, 결혼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가족관계를 완화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족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결혼을 사적(私的) 영역으로 보기 보다는 가족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문화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혼인가치관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태도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와 연령대별 차이를 인식하고 대화와 이해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치관 및 태도에 있어서 부부 간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은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의 기대가 다르고 이로 인하여 부부 갈등과 가족갈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혼을 늦게 하는 주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미혼남녀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양성과 충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결혼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취

업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혼생활에 필요한 소득보장과 주거보장이 가장 중요하며,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거나 중산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혼생활과 가족제도에서 각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즉,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우리나라 가족문화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성평등적 가족문화와 ‘시(嫗) 가족’ 스스로 변화를 위한 또는 ‘시(嫗)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혼부부 가족 대상의 다양한 세제 혜택과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의 할인 혜택 등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결혼의 필요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결혼생활의 장점(長點) 또는 이점(利點)이 단점(短點) 또는 불리한 점보다 많아야 결혼제도에 대한 호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제언

첫째,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제시된, 경제적 어려움, 난임 및 부부의 건강문제, 양성불평등적 가족문화 등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추가자녀 계획을 위한 필요정책으로 제시된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이 학령기 전체 아동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과 다양한 저출산 대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에의 접근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매체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중파 및 케이블 TV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셋째, 출산지원을 위한 ‘산후도우미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⁶⁵⁾

이를 위해서는 (i) 산모신생아 사업의 대상을 소득에 따른 차별없이 전체층으로 확대; (ii) 전체 서비스 가격 대비 정부지원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본인부담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저하; (iii)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인력(도우미)의 자질 향상을 위한 양성 및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교육기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며, 적정 보수수준을 유지; (iv)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원 이용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자동실’과 ‘모유수유’가 가능하도록 조치 등이 필요하다.

넷째,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임신부 산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총 임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은 감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유산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임신부 스스로 건강관리, 식의약품 오남용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많으므로 관련 홍보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중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가 아닌 자녀불원, 터울조절, 경제사회적 이유 등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당사자와 의료인에 대한 홍보, 교육과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가족보건 관련 정책제언

1. 피임 및 난임 관련 정책제언

첫째, 가임기 여성의 피임행태는 생식건강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65) ‘산후도우미 등 지원’ 정책은 이번 조사에서 출산지원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응답자들이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생식건강증진교육을 통해 인식이 증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식건강증진 측면에서 적합한 피임행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연령, 피임목적, 출산계획 등에 따라 피임방법의 선택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보급과 전문상담서비스가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난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난임을 극복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난임치료에 소요되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치료가 가능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원인 발견과 원인에 따른 치료방법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차원의 난임 원인 규명을 위한 의학적 연구를 지원 및 투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난임치료의 정책적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횟수를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난임을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을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건강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여야 한다.

2.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관련 정책제언

첫째, 제왕절개율을 OECD의 권고수준인 5~15%선으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왕절개의 실시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둘째, 출산연령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신생아의 저체중 및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 중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안전분만율은 매우 높으나(99.4%) 의원 분만이 줄고 있고, 취약지역에는 분만의료기관이 부재한 지역이 늘고 있으므로 취약지역 분만의료기관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모자보건이 취약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분만건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분만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위생 관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다섯째, 취업여성의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와 모유수유 지원정책의 추진, 육아휴직 지원 확대, 사회적인 모유수유지지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모유수유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모유수유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여성의 모유수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 확대,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와 모유수유 지원정책의 추진 등 모유수유지지 환경 조성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의원에서의 임산부에 대한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산전후 교육 강화와 모자동실제 채택 등 지지적 환경 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보험수가 보상, 제왕절개 산모에 대한 모유수유 실천기술 제공,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모유수유 실천 제고를 위한 모유수유 권장 정책의 강화와 함께 모유수유 교육과 기술이 제공되도록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비취업 여성(전업주부) 대상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모유수유의 장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과 모유수유 실천기술 제공이 필요하다.

일곱째, 조제분유의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조제분유에 대한 정보원으로 분유회사의 광고나 다양한 경로의 판촉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절 가족복지생활 및 자녀양육 관련 정책제언

1. 여성취업 및 가족주기 관련 정책제언

첫째,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 취업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과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제를 개선하고,⁶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 유연한 근로형태를 확산하는 한편, 가족친화 기업 및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용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단일법률 제정이 요구되며,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재취업은 연령 및 교육수준 등의 요인에 의해 고용상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요구된다. 재취업 여성 유망직종 훈련과정 개발·보급, 고학력 여성 특화 훈련 등 경력단절여성 특화 교육훈련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탄력근무제도를 확산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66)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월 폐합으로써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되, 전술한 바와 같이 급여율을 50%로 인상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셋째, 사업주 및 직장 동료 측면에서 육아휴직의 가장 큰 문제점인 대체인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현재 계획은 시범사업 실시에 의한 단계별 시행, 확산이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요구도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의 이용은 3년 내에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이용가능토록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도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성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성평등 양육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있다. 이는 시간제 고용의 안정이 선행적으로 될 때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혼을 최소화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지지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 이혼직전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의사소통 및 가족지지를 위한 정보교환 및 친교활동에 의한 가족유대망 형성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해체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고용안정, 양육부담 완화 등의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녀를 가진 한부모를 위한 일자리 정책, 양육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혼가족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자조모임을 통한 재혼가족의 어려움, 갈등 및 위기극복 사례, 자녀양육 정보 등을 공유하고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재혼생활 적응력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성인자녀가 독립하는 가족축소기가 늦어지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일방적 의존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 확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가족관계 교육 및 소통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부부 중심의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성평등적 부부관계 확립을 위해 가족유형 및 가족주기별로 부부관계, 부모역할 관련 교육·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인식을 개선한다.

열째,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반을 통해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비 노인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및 여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은퇴설계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한다.

2. 가족생활 관련 정책제언

첫째, 양성불평등에 따른 가족 갈등을 방지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⁶⁷⁾ 근로시간의 축소, 남성의 육아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실질적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남성의 가사참여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미도입 기관에 대한 제도 도입 컨설팅 및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의 통상임금을 80%이상 지급하는 남성유아휴직을 단기간 동안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1~3개월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80% 이상을 보장한다면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어린이 학교교육부터 고등교육 및 사회교육과 기업대상 교육까지 단

67)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인증 단계를 다양화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낮은 수준의 인증단계를 도입하여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함으로써 지방정부를 통한 제도의 확산을 도모하여야 한다.

계별로 세분화함이 바람직하다. 각급 단계별 양성평등 교육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족문화와 여가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즉,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가족단위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3. 양육비용 및 결혼비용 관련 정책제언

첫째,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양육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부모의 노후생활 준비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노인에 대한 국가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양육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인상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맞벌이 및 한부모의 자녀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최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며,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을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양육비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크므로 취학자녀와 대학생의 양육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⁶⁸⁾

68)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현행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프로그램의 양적 측면에서 욕구 및 충분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질적 측면에서 학원 수준 이상으로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질적 담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후의 아동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야간보육을 실시하는 시설, 기관이 충분치 않으므로 늦게 퇴근하거나 야간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홀로 아동 대책’을 시·군·구 단위로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 대책은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대상이어야 할 것이며, 대책내용으로서 프로그램의 양과 질

와 대학등록금의 인하 및 지원 확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양육비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의 산정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⁶⁹⁾ 이는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비를 확보하는 가장 일차적 방안이며, 다음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가장 큰 결혼비용 부담항목인 ‘신혼주택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의 비용을 최대한 융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금액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소득제한 없이 상환능력의 최대한까지 융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 몫으로 반드시 할당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 2~3명의 가구원이 약 3~4년간은 거주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결혼비용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결혼문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관습적으로 지출되는 항목 중 혼례식 및 결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자제토록 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양질’의 결혼식장을 공공기관에 마련하고, 무료로 대여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결혼당사자의 신혼살림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의 후원기관 및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후원금품에 의한 지원을 유도한다. 물론 이들 후원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홀로 아동 대책’에는 전술한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69) ‘양육비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김승권 외, 2011)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 가영희(2005). 성인의 직장-가정갈등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유경·박승희(2011). 노인의 독립적 삶의 기대감이 세대 간 자원 하향이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1), pp.133-154.
- 강이수(2007).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연구, 7(2), pp.1-35.
- 강이수·신경아(2009). 여성과 일: 한국여성 노동의 이해. 서울:동녘.
- 고갑석·함희순·변종화(1980). 한국 피임보급 실태조사.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동선 외(2009).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관련요인 분석.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3(2), pp.234-244.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 2008 건강보험통계연보.
- 권혜자(2007). 여성경제활동인구 천만시대, 경력단절현상은 개선되고 있는가. 고용이슈, 11, pp.1-12.
- 금재호(2004).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성차별: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한국응용경제학회 토론회 자료집.
- 김가을(2007). 비취업여성의 고용상태 변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례(2012). 불임(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평가와 전망: 여성의 출산권과 건

- 강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pp.181-200.
- 김경미·류승아·최인철(2012). 가족간 식사, 통화 및 여가활동과 중년기의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pp.279~300.
- 김경신·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생활과학회지, 1(1), pp.27-43.
- 김명자·손서희(2005). 기혼자녀(아들/딸)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3(7), pp.37-51.
- 김명희(1996).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한 피임교육 프로그램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김병기(1967). 사회 문화적 요인이 가족계획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도(1978). 女性 性Hormone과 避妊劑가 P-Dimethylaminoazobenzene 投與에 依한 白鼠의 肝 腫瘍 發生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국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2), pp.147-174.
- 김승권(1992). 우리나라 부인의 피임실패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논문집, 12(1), pp.119-144.
- 김승권·김상철·최영준(2011).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1).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김승권 외(2002). 『사이버시대의 가족생활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

- 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1).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옥(1999). 재혼가족 내 모의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 3.
- 김유경 외(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정·최유호(2007). 성인자녀의 부모부양동기에 관한 연구: 성별 및 부양자·노부모 관계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pp.313-334.
- 김응석(1973). 한국피임방법수용자의 인구학적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연구원.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pp.57-70.
- 김지자·한성현(1977). 고출산위험부인에 대한 가족계획 확대방안연구.
- 김진희(1999).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길(1996). 과학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빈곤. 철학과 현실, 28, 99.185-190.
- 김혜련(1982). 여성의 성역할에 관한 일연구. 국민학교 교사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7). 여성의 노동사를 통해 본 일과 가족의 접합. 페미니즘 연구, 7(2), pp.37-82.
- 김혜련(2011). 모유수유 추이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Issue &

Focus 제8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산·이정읍(2003).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41(2).

노순영(1973). 일부도시 영세민의 가족계획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3).

문현상 외(1972). 출산력과 가족계획. 가족계획연구원.

문현상 외(1982).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문현상 외(1985).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문현상 외(1989).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박경숙·김영혜(2005). 생애를 통해서 본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역할의 의미. 경제와 사회, 68, pp.133-160.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pp.33-62.

박경환(2010). 기혼직장인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대회 발표논문집, pp.109~130.

박민자(2006). 행복가족의 요소와 의미. 가족과 문화, 18(4), pp.183-205.

박병태 외(1978).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박복순·박선영·신연희(2011).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2011). 2011년 가족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0~2015).

서영준 외(2009). 『산후조리원의 소비자 가격 실태조사』. 연세대학교·보건복지부.

강상진 외(2009). 2008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개발원.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07). 『한국종합사회 KGSS 조사 2006』.

- 손문금(2005).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8(1), pp.277-311.
- 송건용·한성현(1973). 출산력조사 특별분석. 가족계획연구원.
- 송유진(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한국인구학, 34(2), pp.45~64.
- 송정아(2004). 건강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이마고 부부치료 적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찬호 외(1975). 월경조절법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8(8).
- 신종각 외(2011). 『2008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안형식·강영호·김남순·이신재(2000). 위험도 보정 병원별 제왕절개분만을. 2000년도 후기학술대회 연제집, pp.280-282.
- 오은진(2009).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성공요인 및 경로분석」, 정책세미나 여성의 경력단절과 재취업: 원인과 진단.
- 여성가족부(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여성부 외(2009).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우복희(1974). 자궁내피임장치에 관한 임상적고찰. 중양의학, 27(3).
- 유성용(2008). 가구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간. 한국사회학, 42(3), pp.28-62.
-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정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pp.111-129.
- 유홍준·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pp.75~101.
- 윤옥화(2009). 기혼취업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분석.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원아(2010). 배우자간 의사결정력에 따른 노부모로의 시간자원 이전. 대한

- 가정학회지, 48(4), pp.83-102.
- 윤현숙 외(200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동인.
-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 분업. 한국인구학, 32(3), pp.145-171.
- 이미숙(1985). 子女의 性, 연령, 數와 主부의 性역할태도가 結婚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pp.151-170.
- 이삼식 외(2005).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6).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9).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 이성립(2007). 우리나라 가계의 자녀양육 비용과 추정방법. 대한가정학회지, 45(2), pp.77-90.
- 이성립(2010). 자녀 양육비와 둘째 자녀 출산의도 대한가정학회지, 48(10), pp.105-119.
- 이성용·이정환(2011). 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한국인구학, 34(1), pp.1-25.
- 이성희·김태현(1989).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pp.109-125.
- 이임순·이윤희·정집광·이석민·이해혁·이정애(2002). 한국 여성 1,131명의 피임실천 및 실태에 대한 조사. 대한산부회지, 45(6), pp.960-966.
- 이은정(2011). 다문화가족 부부의 가족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숙(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pp.67-90.

- 이정원(2009). 유아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 결정 경로 분석: 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pp.323-351.
- 이태균(2001). 산후관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2).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4(1). pp.1229-4292.
- 이형실·옥선화(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 임재현(2011).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pp.279-304.
- 장수정(1998). 20대 대졸 여성의 피임경험을 통해 본 성적 주체화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지연·김지경(2001).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전혜영 외(2008). 『산후조리원 운용실태 점검 및 감염, 안전사고 관리기준 제고』. 아주대병원·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정경희 외(2012). 가족구조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명혜(2012). 중년기 기혼여성의 취업경력 지속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병은(2007). 세대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노인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7(2), pp.503-518.
- 정창무(2008). 초혼연령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변인. 국토계획, 43(4), pp.105~118.
-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pp.147-164.
- 조남훈 외(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병은(2007).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pp.59-75.

조옥라(1986).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2(1).

조운정(1996). 여성의 성적 주체성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운정(2007).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

최성경(2010). 가족관계의 변화와 젠더. 민사법학, 51, pp.371-405.

최연실(2010).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 한국가족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맥락 및 쟁점의 논의. 한국생활과학회 동계학술대회자료집.

통계청(2008). 『2008 사회조사』.

통계청(2009). 『출생통계』.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1). 『2011 사회조사』.

통계청(2012).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표영희(1997).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경혜·김상욱(2010). 세대 간 지원교환 설명요인에 있어서의 부계와 모계의 비교. 한국사회학, 44(4), pp.1-31.

한영자 외(2009). 2005-2006 영아사망 및 사산원인 분석.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주리·허경호(2005).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28, pp.251-282.

홍문식 외(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승아(2010). 맞벌이가족이 일-가족양립 지원. 월간복지동향, 137.

- 홍승아 외(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나미 외(20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수경(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 Bandura. A., G. V. Caprara, C. Barbaranelli, et al.,(2011). Impact of family efficacy beliefs on quality of family functioning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60(3), pp.421-448.
- Bull & Melian(1998). Contraception and Culture: The Use of Yuyos in Paraguay.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1).
- Brandwein, R.A., Brown, C.A., & Fox, E.M.(1974). Women and Children Last: the Social Situation of Divorced Moth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ust), 36(3).
- Duberman, Lucile(1976). The Remarried Dyad.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Sociology*, 13(1&2).
- Hunt & Hunt(1977), *The Divorce Experience*. MacGraw Hill.
- Khan, M.A(1996). Factors affecting use of contraception in Matlab.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28(3), pp.265-279.
- McDonald, Peter(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pp.427-440.
- Schlesinger, B.(1970). Remarriage as Family Organization for Divorced Persons- A Canadian Study. *Journal of Comparative Studies*, 1(1).
- Smart, L. S.(1977), An Application of Erikson's Theory to the Recovery-from-Divorce Process. *Journal of Divorce*, 1(1).

Spanier, G.B. & Casto, R.F.(1979). An Adjustment to Separation and Divorce: An Analysis of 50 Case Studies. Journal of Divorce, 2(3).

Stampfl, R.(1979). Family research: consumer education needs in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Home Economics, spring, pp.22-27.

OECD(2010). OECD Fact Book.

OECD(2012). OECD Health Data.

UN(1997). World Population Data Sheet. Population Reference Bureau Inc.

Westoff, L.(1975). The Second Time Around: Remarriage in America. Viking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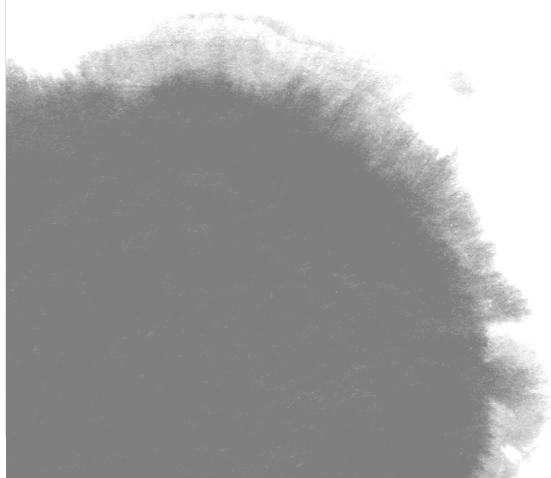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부 록

부록 1 조사지역

부록 2 조사표

부록1

조사지역



부록 1: 조사지역

1. 서울특별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101	종로구	종로5·6가동	124	양천구	목2동
102	종로구	창신3동	125	양천구	목5동
103	용산구	서빙고동	126	강서구	등촌2동
104	성동구	금호2·3가동	127	강서구	화곡1동
105	성동구	금호4가동	128	강서구	방화2동
106	광진구	구의2동	129	성동구	용답동
107	동대문구	전농2동	130	구로구	오류2동
108	동대문구	답십리2동	131	금천구	시흥5동
109	중랑구	중화2동	132	관악구	청림동
110	성북구	정릉3동	133	강서구	발산1동
111	성북구	돈암2동	134	동작구	흑석동
112	강북구	번2동	135	관악구	서림동
113	강북구	송중동	136	관악구	미성동
114	도봉구	쌍문1동	137	관악구	청림동
115	도봉구	도봉2동	138	강남구	신사동
116	노원구	공릉1·3동	139	강남구	청담동
117	노원구	중계1동	140	은평구	역촌동
118	노원구	상계6·7동	141	강남구	대치2동
119	은평구	응암2동	142	송파구	석촌동
120	서대문구	홍은2동	143	성동구	행당2동
121	서대문구	남가좌1동	144	강동구	천호3동
122	마포구	서교동	145	강동구	상일동
123	양천구	목3동	146	서초구	잠원동

서울특별시: 총 46개 조사구

2. 부산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147	서구	동대신3동	160	해운대구	재송2동
148	서구	서대신1동	161	해운대구	반여3동
149	영도구	영선2동	162	금정구	서1동
150	부산진구	부암3동	163	영도구	동삼1동
151	부산진구	양정1동	164	사하구	당리동
152	부산진구	개금2동	165	사하구	다대1동
153	동래구	온천3동	166	금정구	남산동
154	동래구	사직2동	167	금정구	구서2동
155	남구	대연6동	168	연제구	연신6동
156	남구	용호1동	169	연제구	연신9동
157	진구	양정2동	170	사상구	모라1동
158	북구	금곡동	171	사상구	덕포2동
159	북구	화명2동	172	기장군	기장읍

부산광역시: 총 26개 조사구

3. 대구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173	중구	남산3동	185	수성구	수성2·3가동
174	중구	남산2동	186	수성구	수성4가동
175	동구	해안동	187	수성구	고산1동
176	동구	안심1동	188	달서구	성당2동
177	서구	비산6동	189	달서구	진천동
178	남구	봉덕3동	190	달서구	두류3동
179	남구	대명11동	191	달서구	신당동
180	남구	이천동	192	달서구	상인1동
181	북구	관음동	193	달서구	송현2동
182	북구	북현2동	194	달성군	논공읍
183	북구	태전1동	195	달성군	회원읍
184	북구	국우동			

대구광역시: 총 23개 조사구

4. 인천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196	동구	만석동	208	남동구	논현고잔동
197	중구	신흥동	209	부평구	부평6동
198	남구	학익1동	210	부평구	일신동
199	남구	주안6동	211	부평구	신곡2동
200	남구	학익1동	212	부평구	갈산2동
201	연수구	연수1동	213	부평구	일신동
202	연수구	옥련1동	214	계양구	작전2동
203	연수구	동춘1동	215	계양구	계산2동
204	연수구	송도동	216	계양구	계양1동
205	남동구	간석1동	217	서구	가정1동
206	남동구	남촌도림동	218	서구	가정2동
207	남동구	만수2동	219	서구	검단1동

인천광역시: 총 24개 조사구

5. 광주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220	동구	지산1동	229	북구	용봉동
221	동구	지산1동	230	북구	동림동
222	서구	화정2동	231	북구	문흥2동
223	서구	화정2동	232	북구	건국동
224	서구	풍암동	233	광산구	월곡1동
225	서구	금호2동	234	광산구	송정1동
226	남구	주월2동	235	광산구	월곡2동
227	남구	효덕동	236	광산구	침단2동
228	북구	풍향동	237	광산구	신창동

광주광역시: 총 18개 조사구

6. 대전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238	동구	효동	247	서구	둔산2동
239	동구	중앙동	248	서구	월평2동
240	동구	용운동	249	서구	관저2동
241	중구	용두동	250	유성구	진잠동
242	중구	목동	251	유성구	온천1동
243	중구	유천2동	252	유성구	노은1동
244	서구	도마2동	253	유성구	관평동
245	서구	내동	254	대덕구	오정동
246	서구	정림동	255	대덕구	범2동
대전광역시: 총 18개 조사구					

7. 울산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256	북구	효문동	264	동구	화정동
257	중구	다운동	265	동구	대송동
258	중구	다운동	266	동구	전하2동
259	남구	신정3동	267	북구	농소3동
260	남구	무거동	268	북구	염포동
261	남구	신정4동	269	울주군	온산읍
262	남구	삼호동	270	울주군	언양읍
263	남구	대현동			
울산광역시: 총 15개 조사구					

8. 경기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301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326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
302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327	남양주시	진건읍
303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328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304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329	군포시	금정동
305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330	안성시	일죽면
306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31	안성시	안성3동
307	성남시 분당구	태평1동	332	포천시	영북면
308	성남시 분당구	태평1동	333	포천시	선단동
309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334	의정부시	가능1동
310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35	평택시	안중읍
311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336	평택시	중앙동
312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337	남양주시	오남읍
313	부천시 원미구	삼곡1동	338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314	부천시 소사구	삼곡본동	339	사흥시	신천동
315	부천시 원미구	상2동	340	사흥시	능곡동
316	광명시	광명1동	341	의왕시	부곡동
317	광명시	광명5동	342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318	동두천시	생연2동	343	광주시	송정동
319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344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320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345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321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346	이천시	장호원읍
322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347	화성시	마도면
323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	348	화성시	기배동
324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349	양주시	회천1동
325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경기도: 총 49개 조사구

9. 강원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350	춘천시	신북읍	358	강릉시	포남1동
351	춘천시	후평3동	359	강릉시	교2동
352	춘천시	후평3동	360	태백시	삼수동
353	춘천시	퇴계동	361	동해시	천곡동
354	원주시	단구동	362	속초시	노학동
355	원주시	문막읍	363	홍천군	두촌면
356	원주시	단구동	364	철원군	철원읍
357	원주시	태장2동	365	정선군	사북읍

강원도: 총 16개 조사구

10. 충청북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366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75	충주시	이류면
367	청주시 상당구	율광·사천동	376	충주시	문화동
368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377	충주시	칠금·금룡동
369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78	제천시	용두동
370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79	보은군	보은읍
371	청주시 흥덕구	운천·신봉동	380	진천군	이월면
372	청주시 흥덕구	북대1동	381	옥천군	옥천읍
373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82	증평군	증평읍
374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충청북도: 총 17개 조사구

11. 충청남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383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	393	아산시	온양3동
384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394	논산시	부적면
385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	395	서산시	동문2동
386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96	계룡시	엄사면
387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397	부여군	옥산면
388	천안시 서북구	쌍용3동	398	예산군	예산읍
389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	399	당진군	신평면
390	보령시	성주면	400	당진군	송악면
391	아산시	온양2동	401	홍성군	홍성읍
392	아산시	온양5동			

충청남도: 총 19개 조사구

12. 전라북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402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411	익산시	삼기면
403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412	익산시	신동
404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13	익산시	송학동
405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414	익산시	영등2동
406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415	군산시	수송동
407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군산시	나운3동
408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417	남원시	노암동
409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418	장수군	장계면
410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419	완주군	봉동읍

전라북도: 총 18개 조사구

13. 전라남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420	목포시	용당1동	428	여수시	문수동
421	목포시	부흥동	429	여수시	여천동
422	목포시	이로동	430	광양시	광양읍
423	목포시	부흥동	431	광양시	중마동
424	순천시	삼산동	432	고흥군	고흥읍
425	순천시	덕연동	433	강진군	옴천면
426	순천시	왕조2동	434	함평군	월야면
427	나주시	남평읍	435	무안군	삼향면

전라남도: 총 16개 조사구

14. 경상북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436	포항시 남구	오천읍	447	구미시	선주원남동
437	포항시 남구	송도동	448	구미시	인동동
438	포항시 남구	오천읍	449	영천시	중앙동
439	포항시 남구	대이동	450	영천시	동부동
440	포항시 북구	죽도동	451	문경시	농암면
441	포항시 북구	장량동	452	경주시	황성동
442	안동시	와룡면	453	경산시	서부1동
443	안동시	중구동	454	영덕군	영덕읍
444	안동시	옥동	455	칠곡군	동명면
445	구미시	광평동	456	칠곡군	왜관읍
446	구미시	고아읍			

경상북도: 총 21개 조사구

15. 경상남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457	김해시	활천동	469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458	김해시	장유면	470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459	김해시	내외동	471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
460	김해시	활천동	472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61	양산시	하북면	473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462	양산시	서창동	474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463	양산시	상북면	475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464	양산시	서창동	476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465	진주시	판문동	477	사천시	사천읍
466	진주시	상대1동	478	거제시	장평동
467	통영시	광도면	479	하동군	하동읍
468	통영시	정량동	480	함안군	철서면

경상남도: 총 24개 조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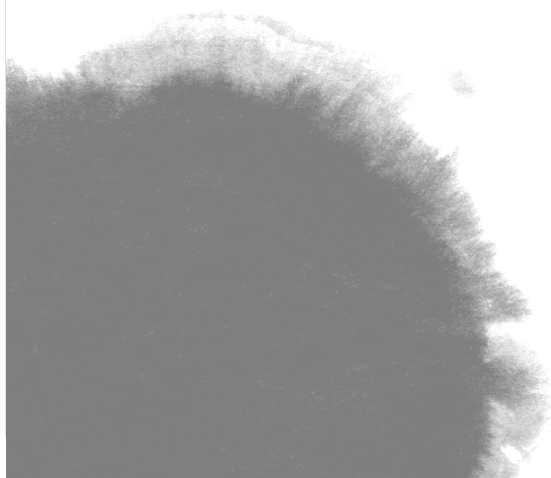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16. 제주특별자치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481	제주시	한림읍	486	제주시	연동
482	제주시	한경면	487	제주시	외도동
483	제주시	이도2동	488	제주시	일도2동
484	제주시	이도2동	489	제주시	노형동
485	제주시	삼양동	490	서귀포시	대천동

제주특별자치도: 총 10개 조사구

부록2

조사표



부록 2: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조 사 표 번 호											
조사구 번호 1~3				거처 번호 4~5		거처내 가구번호 6~7		조사구내 가구번호 8~9		부인번호	
										가구내 부인번호 10	응답부인 일련번호 11~12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인구 및 가족보건, 가족복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지정통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한 약 18,000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15~64세 기혼가구 및 20~44세 미혼자를 대상으로 개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대상가구의 선정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지역에 근거하여 표본추출되었으며, 귀댁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조사내용 문의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권 박사
02-380-8238, 02-380-8212

주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시 · 도 구 · 군 동읍면 아파트 · 리 동 · 번지 호통호 </div>											
가구주성명 (가명 가능)					응답자성명 (가명 가능)				☎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___)							
2	___월 ___일 ___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___)							
조사원 성명	_____ (인)				지도원 성명				_____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제2장 결혼 및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1-2
카드번호 0 4

(조사대상: 만15~64세 기혼가구, 응답자: 가구대표 또는 배우자,)
(응답자 가구원번호: _____)

3-4

1. 혼인, 이혼 및 재혼에 관한 태도

1.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⑤ 모르겠다 ⑥ 비해당 ⑦ 무응답

1
5

2. 귀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비해당:98, 무응답: 99)
1) 남자:만 _____ 세
2) 여자:만 _____ 세

2
3-4
5-6
7-8
9-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22
23-24
25-26
27-28
29-30
31-32
33-34
35-36
37-38
39-40
41-42
43-44
45-46
47-48
49-50
51-52
53-54
55-56
57-58
59-60
61-62
63-64
65-66
67-68
69-70
71-72
73-74
75-76
77-78
79-80
81-82
83-84
85-86
87-88
89-90
91-92
93-94
95-96
97-98
99-100
101-102
103-104
105-106
107-108
109-110
111-112
113-114
115-116
117-118
119-120
121-122
123-124
125-126
127-128
129-130
131-132
133-134
135-136
137-138
139-140
141-142
143-144
145-146
147-148
149-150
151-152
153-154
155-156
157-158
159-160
161-162
163-164
165-166
167-168
169-170
171-172
173-174
175-176
177-178
179-180
181-182
183-184
185-186
187-188
189-190
191-192
193-194
195-196
197-198
199-200
201-202
203-204
205-206
207-208
209-210
211-212
213-214
215-216
217-218
219-220
221-222
223-224
225-226
227-228
229-230
231-232
233-234
235-236
237-238
239-240
241-242
243-244
245-246
247-248
249-250
251-252
253-254
255-256
257-258
259-260
261-262
263-264
265-266
267-268
269-270
271-272
273-274
275-276
277-278
279-280
281-282
283-284
285-286
287-288
289-290
291-292
293-294
295-296
297-298
299-300
301-302
303-304
305-306
307-308
309-310
311-312
313-314
315-316
317-318
319-320
321-322
323-324
325-326
327-328
329-330
331-332
333-334
335-336
337-338
339-340
341-342
343-344
345-346
347-348
349-350
351-352
353-354
355-356
357-358
359-360
361-362
363-364
365-366
367-368
369-370
371-372
373-374
375-376
377-378
379-380
381-382
383-384
385-386
387-388
389-390
391-392
393-394
395-396
397-398
399-400
401-402
403-404
405-406
407-408
409-410
411-412
413-414
415-416
417-418
419-420
421-422
423-424
425-426
427-428
429-430
431-432
433-434
435-436
437-438
439-440
441-442
443-444
445-446
447-448
449-450
451-452
453-454
455-456
457-458
459-460
461-462
463-464
465-466
467-468
469-470
471-472
473-474
475-476
477-478
479-480
481-482
483-484
485-486
487-488
489-490
491-492
493-494
495-496
497-498
499-500
501-502
503-504
505-506
507-508
509-510
511-512
513-514
515-516
517-518
519-520
521-522
523-524
525-526
527-528
529-530
531-532
533-534
535-536
537-538
539-540
541-542
543-544
545-546
547-548
549-550
551-552
553-554
555-556
557-558
559-560
561-562
563-564
565-566
567-568
569-570
571-572
573-574
575-576
577-578
579-580
581-582
583-584
585-586
587-588
589-590
591-592
593-594
595-596
597-598
599-600
601-602
603-604
605-606
607-608
609-610
611-612
613-614
615-616
617-618
619-620
621-622
623-624
625-626
627-628
629-630
631-632
633-634
635-636
637-638
639-640
641-642
643-644
645-646
647-648
649-650
651-652
653-654
655-656
657-658
659-660
661-662
663-664
665-666
667-668
669-670
671-672
673-674
675-676
677-678
679-680
681-682
683-684
685-686
687-688
689-690
691-692
693-694
695-696
697-698
699-700
701-702
703-704
705-706
707-708
709-710
711-712
713-714
715-716
717-718
719-720
721-722
723-724
725-726
727-728
729-730
731-732
733-734
735-736
737-738
739-740
741-742
743-744
745-746
747-748
749-750
751-752
753-754
755-756
757-758
759-760
761-762
763-764
765-766
767-768
769-770
771-772
773-774
775-776
777-778
779-780
781-782
783-784
785-786
787-788
789-790
791-792
793-794
795-796
797-798
799-800
801-802
803-804
805-806
807-808
809-810
811-812
813-814
815-816
817-818
819-820
821-822
823-824
825-826
827-828
829-830
831-832
833-834
835-836
837-838
839-840
841-842
843-844
845-846
847-848
849-850
851-852
853-854
855-856
857-858
859-860
861-862
863-864
865-866
867-868
869-870
871-872
873-874
875-876
877-878
879-880
881-882
883-884
885-886
887-888
889-890
891-892
893-894
895-896
897-898
899-900
901-902
903-904
905-906
907-908
909-910
911-912
913-914
915-916
917-918
919-920
921-922
923-924
925-926
927-928
929-930
931-932
933-934
935-936
937-938
939-940
941-942
943-944
945-946
947-948
949-950
951-952
953-954
955-956
957-958
959-960
961-962
963-964
965-966
967-968
969-970
971-972
973-974
975-976
977-978
979-980
981-982
983-984
985-986
987-988
989-990
991-992
993-994
995-996
997-998
999-1000

3. 귀하께서 결혼한 나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혼이상인 부인일 경우 초혼 나이를 기준으로)

- ① 빨리했다 ② 적절하다 ③ 늦게했다 ④ 모르겠다 ⑤ 비해당 ⑥ 무응답
- 3-1. 결혼을 빨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집안 어른의 권유로 ② 배우자의 요구로 ③ 임신이 되어서
④ 배우자의 사정 때문 ⑤ 특별한 이유없음 ⑥ 기타(_____) ⑦ 비해당 ⑧ 무응답
- 3-2. 결혼을 늦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에 방해가 될까봐 ② 배우자감이 없어서 ③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④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⑤ 특별한 이유없음 ⑥ 기타(_____) ⑦ 비해당 ⑧ 무응답
- ⑨ 무응답(②, ④, ⑧, ⑨일 경우 11, 12칼럼을 ⑧ 비해당 으로 기재)

3
10
11
12
3-1
3-2

4. 귀하는 결혼에 관한 다음의 견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비해당:8, 무응답:9)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4-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4-3.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①	②	③	④
4-4.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4-1
4-2
4-3
4-4

5. 귀하께서는 이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④ 이혼은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
⑤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⑥ 모르겠다 ⑦ 비해당 ⑧ 무응답

5
17

6.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찬성하지 않음 ② 별로 찬성하지 않음 ③ 대체로 찬성 ④ 전적으로 찬성 ⑤ 비해당 ⑥ 무응답

6
18

7. 귀하께서는 재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 하는 것이 좋다 ③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④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⑥ 모르겠다 ⑦ 비해당 ⑧ 무응답

7
19

8. 과거에 비해 요즘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의 각 이유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비해당:8, 무응답 9)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8-1.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	①	②	③	④
8-2.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①	②	③	④
8-3.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①	②	③	④
8-4.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①	②	③	④
8-5.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①	②	③	④
8-6.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①	②	③	④
8-7.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①	②	③	④
8-8.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①	②	③	④
8-9.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8-10.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①	②	③	④

20	8-1
21	8-2
22	8-3
23	8-4
24	8-5
25	8-6
26	8-7
27	8-8
28	8-9
29	8-10

II. 응답자 및 배우자의 혼인관련 사항

※ 조사원: 현재 이혼·별거·사별중인 응답자의 남편(부인)에 관한 사항은 이혼·별거·사별 당시의 남편(부인)에 관하여 질문하십시오. 단, 이혼·별거·사별 중인 남편(부인)의 가구원번호는 (98)로 기재하십시오.

질문내용	부인 (가구원번호:)	남편 (가구원번호:)
1. 부인/남편께서는 언제 혼인하셨습니까?(현재 혼인) 혼인당시 연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양 음)	혼인연령: 만 ____ 세	혼인연령: 만 ____ 세
2. 현재의 혼인이 두분 모두에게 초혼입니까? ① 초혼 (필문 3으로) ② 재혼 이상 ③ 무응답 (필문 3으로)	_____	_____
2-1. (재혼 이상인 경우) 그러면 초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비해당: 9998 / 98, 무응답: 9999 / 99)	양력 ____년 ____월 ____일 만 ____세	양력 ____년 ____월 ____일 만 ____세
3. 두 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없음 (p45단 조사원확인사항으로)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기타(____) ④ 무응답 (p45단 조사원확인사항으로) (이혼·별거·사별일 경우 이혼·별거·사별 직전을 기준)	_____	_____
3-1.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불공 또는 예배(미사)를 드리십니까? (01) 일주일에 여러 번 (02) 일주일에 한번 (03) 한달에 두세번 (04) 한달에 한번 (05) 일년에 몇번 (06) 일년에 한번 (07) 일년에 한번 미만 (08) 전혀 가지 않음 (09) 모르겠음 (98) 비해당 (99) 무응답	_____	_____
3-2. 귀하께서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강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① 강하다 ② 다소 강하다 ③ 별로 강하지 않다 ④ 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_____	_____

부인	남편
30-31 <input type="text"/>	47-48 <input type="text"/>
32-33 <input type="text"/> 세	49-50 <input type="text"/> 세
34 <input type="text"/>	51 <input type="text"/>
35-38 <input type="text"/> 년	52-55 <input type="text"/> 년
39-40 <input type="text"/> 월	56-57 <input type="text"/> 월
41-42 <input type="text"/> 세	58-59 <input type="text"/> 세
43 <input type="text"/>	60 <input type="text"/>
44-45 <input type="text"/>	61-62 <input type="text"/>
46 <input type="text"/>	63 <input type="text"/>
	64 <input type="text"/>

※ 조사원: 응답자의 현 혼인상태를 가구원사항을 참조하여 표시하십시오

- ① 유배우 (p5의 III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 4-질문 53-2는 빈칸으로 남겨둘 것)
② 이혼, 별거, 사별 (필문 4로)

질문내용	부인	남편
4. (이혼/별거/사별) 당시 부인/남편께서는 각각 몇 세이셨으며, 해혼 년월은 언제이었습니까? (무응답: 년:9999, 월/세:99)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양) 해혼시 연령: 만 ____세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양) 해혼시 연령: 만 ____세
※ 조사원: 이혼/별거인 응답자는 5번으로, 현재 사별인 응답자는 (III.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으로(현재 사별인 경우 질문 5-32는 빈칸으로 남겨둘 것)		
5. (이혼/별거의 경우) 이혼/별거하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 ① 외도 (1)남편, (2)부인 ① 학대 또는 폭력 (1)남편, (2)부인 (3)기타 가족 ② 성격차이 ③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1)남편, (2)부인 ④ 가족간 불화 (1)사택식구, (2)친정식구 ⑤ 경제적 문제 (1)남편, (2)부인, (3)사택식구, (4)친정식구 ⑥ 건강상 이유 (1)남편, (2)부인, (3)자녀, (4)기타(____) ⑦ 기타(____) ⑧ 비해당 ※ ②, ⑦, ⑧, ⑨일 경우 88칼럼을 ⑧로 기재		
5-1. (이혼/별거의 경우) 이혼/별거를 먼저 제의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① 남편 ② 부인 ③ 시부모 또는 기타 사택식구 ④ 친정부모 또는 기타 친정식구 ⑤ 기타(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5-2. 이혼/별거 당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중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은 몇 세이셨습니까? (임신중이었을 때 - ① 있었음, 1명, 만 00세로 기재) ① 없었음 <III.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으로, 91~93칼럼은 8 또는 98로 기재 ① 있었음(____명)(가장 어린자녀 연령 만 ____세) ⑧ 비해당 ⑨ 무응답 (91~93칼럼은 8 또는 98로 기재)		
5-3. 이혼/별거 당시 만 18세 미만 자녀 중 현재까지도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음 <III.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으로 ① 있음(____명) ⑧ 비해당 ⑨ 무응답 ※ ①, ⑧, ⑨일 경우 <III.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으로, 95~105칼럼은 8 또는 98로 기재		
5-3-1.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은 몇 세이며 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18세 미만자녀 없을 때 나이:98 / 무응답: 99) 가장 어린자녀 연령: 만 ____세, 동거 주양육자: _____ ① 자녀의 부(남편) ② 자녀의 모(부인) ③ 조부모(친가/외가) ④ 기타 친척 ⑤ 혼자 살고 있음 ⑥ 사회복지시설 ⑦ 기타(____) ⑧ 비해당(18세 미만자녀 없을 때) ⑨ 무응답		
5-3-2. 현재 그 자녀(7장 어린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람 또는 기관은 누구 또는 어디입니까?(있다 1, 없다 0, 비해당 8, 무응답 9로 기재) ① 자녀의 부(남편) ② 자녀의 모(부인) ③ 조부모(친가/외가) ④ 기타 친척 ⑤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⑥ 사회복지시설 ⑦ 기타(____)		

99 100 101 102 103 104 105

카드번호 0 5

III.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자녀출생에 관한 사항]

※ 조사원: 현재 초혼인 부인만(p4의 질문 2에서 응답자가 ①(초혼)로 응답한 경우)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며, 재혼한 남편의 자녀는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1명일 경우 막내아도 동일하게 기재한다. 부인이 재혼일 경우 공민처리하고 3장 임신·출산·피임으로 이동한다. 1) 현존자녀수: ____명, 2) 사망자녀수: ____명, 3) 출생생아수: ____명			현존 3 <input type="text"/> 명
※ 현재 비동거중인 자녀 중 제장의 <II. 비동거자녀에 기재된 자녀의 가구원 번호는 '21' 또는 '22' 등으로 기재하고 그 외 혼인이나 취업으로 인한 분가 등으로 가구원 사항에 기록되지 않은 비동거 자녀의 가구원 번호는 '77' 또는 '78' 으로, 그리고 사망한 자녀의 가구원 번호는 '98'로 기재한다. 출산자녀(사망자녀 포함)가 한 명도 없는 경우는 빈칸으로 두고<조사원 사항: 4. 가족주기단계>로			사망 4 <input type="text"/> 명 출생 5 <input type="text"/> 명
질문내용	첫째아 (가구원 번호: ____)	막내아 (가구원 번호: ____)	
1. (첫째/막내)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① 남자 ② 여자		
1-1. (첫째/막내) 자녀를 낳을 당시 부인의 연령	만 ____세	만 ____세	

7-10 11-12 13 14-15

첫째아
6-7 8 9-10 11-12 13 14-15

[자녀혼인에 관한 사항]

2.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들은 몇 명이나 혼인하였습니까?

- ① 모두 혼인 (혼인자녀수: _____명) ② 일부 혼인 일부 미혼 (혼인자녀수: _____명, 미혼자녀수: _____명)
 ③ 모두 미혼 (미혼자녀수: _____명) (아래의 표 공란으로 두고 <4. 가족주기단계>로) ⑧ 비해당 ⑨ 무응답

16	2	17	혼인 자녀수	18	미혼 자녀수
----	---	----	-----------	----	-----------

※ 조사원: 부인이 낳은 자녀 중 첫 번째 또는 맨 마지막에 혼인한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혼인자녀 1명일 시, 마지막 자녀도 동일하게 기재할 것.

질문내용	첫 번째 혼인한 자녀 (가구원 번호: _____)	마지막 혼인한 자녀 (가구원 번호: _____)	(첫 번째 혼인한 자녀)	(마지막 혼인한 자녀)
3.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가 혼인한 연월일은 언제이며, 그 당시 자녀의 연령은 몇 세이었습니까?(출생순위와 다를 경우 생년월일 확인)	자녀 혼인년월일: _____년 _____월(양) (자녀혼인 연령: 만 _____세) 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양)	자녀 혼인년월일: _____년 _____월(양) (자녀혼인 연령: 만 _____세) 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양)	혼인년월 19-20 _____년 _____월 21-24 _____년 _____월 25-26 _____년 _____월 27-28 _____년 _____월	혼인년월 33-34 _____년 _____월 35-38 _____년 _____월 39-40 _____년 _____월 41-42 _____년 _____월
3-1.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가 혼인할 당시 부인께서는 몇 세이셨습니까?	만 _____세	만 _____세	29-30 _____세	43-44 _____세
3-2.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의 성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① 남자 ② 여자	31 _____	45 _____
3-3.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의 출생순위는 몇 째입니까?	출생순위: _____번째	출생순위: _____번째	32 _____	46 _____

※ 조사원: 가구사항, 혼인사항 및 위의 질문사항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단계를 골라 표시하십시오.

4. 가족주기단계 (01) 혼인후 출산경험 없는 경우(자연불임) (02) 혼인후 출산전인 경우(현 임신중, 앞으로 출산할 계획인 경우) (03) 출산경험이 있으나 현존자녀는 없는 경우로 계속 출산할 예정인 경우 (04) 출산경험이 있으나 현존자녀는 없는 경우로 계속 출산을 안(못)할 경우 (05) 현존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면서 계속 출산할 예정인 경우 (06) 출산을 완료한 경우 (06) 자녀가 1명도 혼인하지 않은 경우 (07) 자취중 일부가 혼인한 경우(자녀의 혼인이 시작된 경우) (08) 자취가 모두 혼인한 경우 (09) 남편이 이혼·별거·사망한 경우(※ 조사원 오른쪽의 해당 단계에 체크하시오) (98) 비해당 (99) 무응답 (49칼럼을 8로)	4-1. 남편이 이혼·별거·사망한 단계 ① 혼인후 첫 자녀 출산전 이혼·별거·사망 ② 현존자녀 없고 출산할 단계에서 이혼·별거·사망 ③ 현존자녀 있고 계속 출산할 단계에서 이혼·별거·사망 ④ 자취출산 완료후 이혼·별거·사망 ⑤ 자취가 1명도 혼인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혼·별거·사망 ⑥ 자취중 일부가 혼인한 후 이혼·별거·사망 ⑦ 자취가 모두 혼인한 후 이혼·별거·사망 ⑧ 비해당(질문4가족주기단계가 유배우일 때)	47-48 _____ 49 _____
-----------------------------------------------------------------------------------------------------------------------------------------------------------------------------------------------------------------------------------------------------------------------------------------------------------------------------------------------------------------------------------------------------------------------------	-----------------------------------------------------------------------------------------------------------------------------------------------------------------------------------------------------------------------------------------------------------------------	-------------------------

제3장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카드번호	1-2
0	6

(조사대상: 만5~49세 기혼여성, 응답자 기혼여성 또는 남편 대라 응답 대상이 아닐시 공란으로 두고 다음장으로 이동)
 (응답자 가구원번호: _____)

3-4	_____
-----	-------

I.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1. 귀하께서는 혼인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③ 없어도 상관없다 ④ 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 질문 2로)

1
5

1-1. 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 1, 없다: 0, 비해당: 8, 무응답: 9로 기재)

- ① 가문(대)를 잇기 위해 ② 노후생활을 위해서 ③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④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든든하다, 울타리가 된다. 알보이지 않는다)
 ⑥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⑦ 기타(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7	8	9	10	11	12

2.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상자녀수: _____명 ② 잘 모르겠다 ③ 비해당 ④ 무응답 **☞(질문 3으로)**

2-1. 딸·아들 구별해서 입니까? 구별없이 입니까?

- ① 구별없이 ② 구별해서(④ 아들: _____명 ⑤ 딸: _____명) ③ 비해당 ④ 무응답

3.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아들의 필요성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꼭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 ③ 없어도 상관없다 ④ 모르겠다 ⑤ 비해당 ⑥ 무응답 **☞II. 임신·출산 및 입양관련 사항으로**

3-1. 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④다 1, ⑤다 0, 비해당 8, 무응답 9로 기재)

- ① 가문(대)를 잇기 위해서 ② 노후생활을 위해서 ③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④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돈한다, 율타리가 된다. 알보이지 않는다)
⑥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⑦ 기타(_____)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⑥ _____ ⑦ _____
19 _____ 20 _____ 21 _____ 22 _____ 23 _____ 24 _____ 25 _____

II. 임신·출산 및 입양관련 사항

1. 부인께서는 현재 몇남 몇녀를 두고 계십니까? (출가/분가한 자녀 모두 포함)

현존자녀수: _____명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2. 부인께서는 지금까지 모두 몇 번의 임신을 하셨으며, 그 중에서 정상출생은 몇 번 하셨습니까?

또한 낳으신 아들, 딸은 각각 몇 명입니까? (* 현재 임신중인 경우는 현재의 임신을 포함할 것)

2-1. 총임신회수: _____회 (임신회수가 0회인 경우는 **질문 22-질문 46은 빈칸으로 남겨둘 것**)

2-2. 정상출생횟수: _____회 (쌍생아 이상인 경우는 1회 출생으로 간주) (쌍태아: _____회, 삼태아: _____회)

2-3. 출생아수: _____명(아들: _____명, 딸: _____명)

3.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가운데 혹은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① 있다 (사망자녀수(계): _____명,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③ 비해당 ④ 무응답

4. 혹은 임신 중에 인공유산을 하셨거나 자연유산이나 사산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인공유산이 1번일 경우 첫 번째 인공유산과 마지막인공유산을 동일하게 기재한다)

- ① 없다 **☞(질문 5)으로** ① 있다 (총 _____회 인공유산 _____회 자연유산 _____회 사산 _____회)

③ 비해당 ④ 무응답 **☞(인공유산이 0회 또는 98, 99일 경우 아래는 공란처리)**

질문내용	첫 인공유산	마지막 인공유산
4-1. 인공유산 시킨 임신은 몇 번째 임신이었으며, 그 당시 부인의 연령	임신순위: _____번째 임신 그 당시 부인연령 만 _____세	임신순위: _____번째 임신 그 당시 부인연령 만 _____세
4-2. 인공유산 할 당시 현재자녀수 (비해당 8, 무응답 9)	당시자녀수: _____명 (남아: _____명, 여아: _____명)	당시자녀수: _____명 (남아: _____명, 여아: _____명)
4-3. 인공유산시 태아성별 실시 (비해당 8, 무응답 9)	① 실시 안함 ① 실시함	① 실시 안함 ① 실시함
4-4. 인공유산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	(01) 자녀 원치않음 (02) 태울조절 (03) 임부의 건강상/자궁외임신 (04) 태아이상 (05) 혼전임신 (06) 가정문제 (07) 경제적 곤란 (08) 태아가 딸이었으므로 (09) 취업중이어서 (10) 기타(_____) (98) 비해당 (99) 무응답	(01) 자녀 원치않음 (02) 태울조절 (03) 임부의 건강상/자궁외임신 (04) 태아이상 (05) 혼전임신 (06) 가정문제 (07) 경제적 곤란 (08) 태아가 딸이었으므로 (09) 취업중이어서 (10) 기타(_____) (98) 비해당 (99) 무응답
	번호: _____	번호: _____

자녀수

26 _____ 27 _____ 28 _____

(총임신) 29-30 _____ 회

회수 쌍태아 삼태아

31 _____ 32 _____ 33 _____

총계 아들 딸

34 _____ 35 _____ 36 _____

37 _____

38 _____ 39 _____ 40 _____

41 _____

총 회 인공유산 자연유산 사산

42 _____ 43 _____ 44 _____ 45 _____ 46 _____ 47 _____

첫 인공유산

48 _____ 49-50 _____ 세

51 _____ 52 _____ 53 _____

54 _____

55-56 _____

마지막 인공유산

57 _____ 58-59 _____ 세

60 _____ 61 _____ 62 _____

63 _____ 64-65 _____

5. 부인께서는 남아출산을 위해 임신전 또는 임신후에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질문 6으로) ① 있다 ⑧ 비해당 (질문 6으로) ⑨ 무응답 (질문 6으로)

5-1.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있다 1, 없다 0, 비해당 8, 무응답 9로 기재)

- ① 자연요법 ② 양수검사 ③ 융모막검사 ④ 초음파검사 ⑤ 기타()
⑧ 비해당 ⑨ 무응답

6. 부인께서는 현재 임신중이십니까?

- ① 아니다 (질문 7로) ① 그렇다 ⑧ 비해당 (질문 7로) ⑨ 무응답 (질문 7로)

6-1. 현재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할 예정이십니까? (년,월: 비해당98, 무응답99)

- ① 아니다 ① 그렇다 (출산예정일은 언제입니까?(출산예정일: 20__년__월))
⑧ 비해당 ⑨ 무응답

7. 부인께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⑧, ⑨일 때 질문8로, 아래의 표 비워둡니다)

- ① 없다 ① 있다(임신회수: __회, 정상출생횟수: __회) ⑧ 비해당 ⑨ 무응답

연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2011												
2012												

기입요령 임: 임신 출: 출생 사: 사산 자: 자연유산 인: 인공유산 또는 월경조절술(MR)

구분	2010년 이후 첫 임신	2010년 이후 두 번째 임신	2010년 이후 세 번째 임신
7-1. 언제 임신하셨는지요?	20__년__월	20__년__월	20__년__월
7-2. 임신 당시 그 임신은 원치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① 원치 않음 ① 원함	① 원치 않음 ① 원함	① 원치 않음 ① 원함
7-3. 그 임신 당시 피임을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약위 피임방법 보기 참조)	① 비사용 ① 사용 (피임방법: __)	① 비사용 ① 사용 (피임방법: __)	① 비사용 ① 사용 (피임방법: __)
7-4. 임신 당시 재태수는 몇 명이었습니다?	아들: __명, 딸: __명 계: __명	아들: __명, 딸: __명 계: __명	아들: __명, 딸: __명 계: __명
7-5. 임신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출생 ② 사산 ③ 자연유산 ④ 인공유산 ⑤ 임신중	① 출생 ② 사산 ③ 자연유산 ④ 인공유산 ⑤ 임신중	① 출생 ② 사산 ③ 자연유산 ④ 인공유산 ⑤ 임신중
7-6.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① 20__년__월 ② 임신중	① 20__년__월 ② 임신중	① 20__년__월 ② 임신중

(2010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임신)	(2010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임신)	(2010년 1월 1일 이후 세 번째 임신)
6-7__년__월 8-9__년__월 10__년__월 11__년__월 12-13__년__월 아들 __명 딸 __명 계 __명 14__년__월 15__년__월 16__년__월 17__년__월 18__년__월 19-20__년__월 21-22__년__월	23-24__년__월 25-26__년__월 27__년__월 28__년__월 29-30__년__월 아들 __명 딸 __명 계 __명 31__년__월 32__년__월 33__년__월 34__년__월 35__년__월 36-37__년__월 38-39__년__월	40-41__년__월 42-43__년__월 44__년__월 45__년__월 46-47__년__월 아들 __명 딸 __명 계 __명 48__년__월 49__년__월 50__년__월 51__년__월 52__년__월 53-54__년__월 55-56__년__월

피임방법 보기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먹는 피임약	⑤ 콘돔	⑥ 살(질)정제
⑦ 월경주기법	⑧ 질외사정법	⑨ 기타()	⑩ 비해당	⑪ 무응답	
※한가지 피임방법만을 사용할 경우 아보기번호: 예) 콘돔 한가지를 사용할 경우 05로 기입					
※두가지 피임방법을 사용할 경우, 자궁내장치와 콘돔을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35, 먹는피임약과 월경주기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47로 기록					

8. 부인의 가장 최근 임신 및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부지원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없음 ① 출산지원금 지급 ② 자녀양육비 지원 ③ 보육비지원 ④ 기타(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8

57

- ※ 조사원: 현재 임신중인 부인은 현재의 임신 외에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십시오
9. 부인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① 낳겠다 ② 낳지 않겠다(질문 10으로) ③ 생각중이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질문 11로)

9

58

- 9-1. 지금 생각으로 몇 명이나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____명 ⑧ 비해당 ⑨ 무응답
- 9-2. 그러면 그 자녀는 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딸이기를 원하십니까?
① 구별없이 ② 구별해서(아들: ____명 딸: ____명) ⑧ 비해당 ⑨ 무응답 (질문 11로)

9-1

59

아들

딸

60

9-2

61

62

10. 향후 (추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경제적 이유(① 저소득, ② 실업상태여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④ 자녀양육을 위한 주택마련이 어려워져서, ⑤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⑥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 ② 사회적 이유(① 자녀양육 시설 부족, ②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 ③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자장이 있을까봐, ④ 경쟁사회에서 자녀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 ③ 가치관 관련 이유(①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③ 자아성취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 ④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⑤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⑥ 남들과 자취가 비슷해서, ⑦ 아이가 많아서)
- ④ 가족 관련 이유(① 가정 내 가사 및 양육 분담이 공평하지 않아서, ② 부부관계가 좋지 않음, ③ 정신적·신체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가진 가족문제 때문에)
- ⑤ 건강 관련 이유 (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②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③ 배우자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 ⑥ 기타(① 나이가 많음, ② 기타_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 ※ 63칼럼이 ⑧, ⑨일 경우 64칼럼은 8로 기재

10

63

64

11. 귀하의 (추가) 자녀 출산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보매체는 무엇입니까?
① 없음 ①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② 라디오 ③ TV ④ 인터넷 ⑤ 기타(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11

65

12. 부인께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면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① 낳겠다(____명) ② 낳지 않겠다 ③ 생각중이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질문 13으로)

12

66

67

명

- 12-1.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출산지원금 지급 ② 자녀양육비 지원 ③ 보육비 지원 ④ 보육시설 확충
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충 ⑥ 기타(_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12-1

68

13. 귀하의 가정에서는 입양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 ② 고려한 적이 있으나 포기하였다
③ 입양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④ 입양하였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13

69

- ※ 조사원: 이장에서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기록하여 확인하십시오.
총 임신 횟수가 0인 경우 자연유산, 사산, 인공유산 기입란은 모두 '00'으로 기재할 것
- 총임신회수(____회) = 출생횟수(____회) + 자연유산수(____회) + 사산수(____회) + 인공유산수(____회) + 현임신(0 또는 1)

총임신	출생	자연유산	사산	인공유산	현임신
70-71	72	73	74	75-76	77

14. 부인의 체중과 신장은 얼마입니까? (현재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 전 체중으로)
체중: ____kg 신장: ____cm

14

78-79

kg

80-82

cm

15. 남편께서는 흡연을 하십니까?
① 매일 흡연 ② 가끔 흡연 ③ 과거 흡연 ④ 흡연한 경험 없음 ⑤ 기타(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15

83

III. 가족계획실태

카드번호 1-2
0 8

※ 조사원: <III. 가족계획실태>는 만15~49세 유배우 부인을 위한 질문입니다(이혼, 별거, 사별상태의 부인은 III. 가족계획실태를 빈칸으로 남겨두고 제4장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가시오).

1. 부인과 남편께서는 지금까지 실제로 피임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질문1~질문6번 공란처리하고 **질문 7로**) ① **있다** ⑧ **비해당**

1
3

1-1. 그러면 부인과 남편께서는 지금도 피임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안한다**(질문 5로) ① **한다**(질문 2로) ⑧ **비해당**

※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 질문 2~질문 4는 빈칸으로 남겨둘 것

1-1
4

[과거에 피임경험 있으며 현재 피임을 하고 있는 부인]

※한가지 피임방법만을 사용할 경우 0+보기번호, 예) 콘돔 한가지를 사용할 경우 05로 기입

※두가지 피임방법을 사용할 경우, 자궁내장치와 콘돔을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35, 먹는피임약과 월경주기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47로 기록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먹는피임약 ⑤ 콘돔
⑥ 살(질)정제 ⑦ 월경주기법 ⑧ 질외사정법 ⑨ 기타() ⑩ **비해당** ⑪ **무응답**

2
5-6

3. 현재 피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단산** ② **출산연기** ③ 기타() ⑧ **비해당** ⑨ **무응답** (질문 4로)

3
7

- 3-1. 출산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

- (01) 소득이 적어서 (02)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03) 자녀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04)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05) 출산으로 인한 직장 차별 (06) 사회활동 지장
(07)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08) 가정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09)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의 가족수발 때문에 (10) 터울조절 (11) 기타()
(98)비해당 (99) 무응답

3-1
8-9

4. 현재 사용중인 피임방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보실 생각입니까?

- ① 계속 사용하겠다 ②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③ **바꾸겠다/바꾸고 싶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4
10

- 4-1. 어떤 방법으로 바꾸시겠습니까?바꾸고 싶으십니까?

-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먹는 피임약 ⑤ 콘돔 ⑥ 살(질)정제 ⑦ 월경주기법
⑧ 질외사정법 ⑨ 기타() ⑩ 미결정/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⑩ **비해당** ⑪ **무응답**

4-1
11-12

※ 조사원: 질문 4 또는 4-1번 질문 후 질문 5 이하는 비워두고 <제4장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과거에 피임경험이 있으나 현재 피임을 중단하고 있는 부인]

5. 그러면 부인과 남편께서 그동안 사용해오신 피임방법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이였습니까?

-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먹는피임약 ⑤ 콘돔
⑥ 살(질)정제 ⑦ 월경주기법 ⑧ 질외사정법 ⑨ 기타() ⑩ **비해당** ⑪ **무응답**

5
13-14

6. 왜 피임방법 사용을 중단하셨는지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임신하기 위해/자녀를 갖기 위해 ① **피임중 임신이 되어서/실패임신** ② 자연배출되어서(자궁내장치의 경우)
③ 사용상 불편해서/번거로워서 ④ 일시적으로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해외출장, 산후무월경 등)
⑤ 부작용 때문에 ⑥ **영구적으로 더 이상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1자궁적출 2폐경 3양측난관 제거 4기타())

15 16

이하 질문은 비워두고 <제4장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 ⑦ 기타() ⑧비해당 ⑨ 무응답

※ 15갈림이 ①~⑤, ⑦~⑨로 체크되었을 경우 16갈림은 ⑧비해당

※ 조사원: 6번 질문 후 이하 질문7-8는 비워두고 질문9으로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

7. 혼인후 아직 한번도 피임방법을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자연불임 ② 자녀를 위해서 ③ 피임방법을 잘 몰라서
④ 일시적 불필요(해외취업 등으로 인한 남편과의 별거, 산후 무월경 기간 등)
⑤ 기타() ⑧ 비해당 ⑨ 무응답

17

8. 부인께서는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혼인 후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① 있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질문 9로)

18

[현재 피임중단과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

9. 부인께서는 앞으로 피임방법을 사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질문 9-1로) ② 모르겠다/생각해보지 않았다 (IV. 불임실태 및 치료로)
③ 없다/피임할 필요가 없다 (질문 9-2로) ⑧ 비해당 ⑨ 무응답

19

9-1. 앞으로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먹는 피임약
⑤ 콘돔 ⑥ 살(질)정제
⑦ 월경주기법 ⑧ 질외사정법
⑨ 난관이든 정관이든 불임수술
⑩ 기타()
⑪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⑫ 비해당 ⑬ 무응답

9-2. 계속해서 피임을 하지 않으시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궁적출(이유는 무엇인가요?) ② 자궁내막증 ③ 자궁경부암
④ 난관不通 ⑤ 자궁내막염
⑥ 기능성 자궁출혈 ⑦ 기타()
② 자연불임
① 10년 이상 임신 안됨
② 5~10년 미만 임신 안됨
③ 3~5년 미만 임신 안됨
④ 1~3년 미만 임신 안됨
③ 기타() ⑨ 무응답
⑧ 비해당
※ ③~⑨일 경우, 23칼럼이 8로 기재

20-21 9-1
22 23

IV. 불임실태 및 치료

※ 조사원: 현재 피임 중단 및 피임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조사

1. 귀하의 부부께서는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혼인 후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제장 모자란 칸으로 이동하여 질문 20-21는 빈칸으로 둘 것) ① 있다 (질문 2로)
⑧ 비해당 ⑨ 무응답

24

2. 귀하의 부부께서는 양방병원에서 난임(불임) 진단을 받았습니까?

- ① 받지 않았다 (질문 7로 이동-질문 3-6빈칸으로 둘 것) ① 받았다 (질문 3으로)
⑧ 비해당 ⑨ 무응답

25

3. 난임(불임) 진단결과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 ① 부인 ② 남편 (질문 3-1으로) ③ 양쪽 모두 ⑧ 비해당 ⑨ 무응답 (질문 4으로)

26

※ 조사원: 아래의 보기에서 난임(불임)의 원인을 있는 대로 표시하고 코딩칸에 예는 '1'로, 아니오는 '2'를 기입하십시오. 또한 비해당은 8로 처리, 무응답은 9로 기재하십시오

3-1. 부인	(01) 원인불명 (02) 나팔관(난관)장애 (03) 배란장애 (04) 염색체이상 (05) 자궁경관장애 (06) 자궁내막장애 (07) 조기폐경 (08) 습관성유산 (09) 기타() (10) 잘모르겠다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2. 남편	① 원인불명 ② 무정자증 ③ 희소정자증 ④ 정자무력증 ⑤ 염색체이상 ⑥ 기타() ⑦ 잘 모르겠다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7 38 39 40 41 42 43

4.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귀하께서는 그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치료중이거나 받았다 ② 치료를 받다가 중단했다

③ 치료를 받지 않았다 **☞(질문 4-2으로)**

⑧ 비해당 ⑨ 무응답

☞(질문 5으로)

4-1. 치료를 받았다면 어디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① 양방병원 ② 한방병원 ③ 양방+한방병원 ④ 기타() ⑧ 비해당 ⑨ 무응답

※ 조사원: 4-1 질문후 질문 5로

4-2. 치료를 중단했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① 시간이 없어서 ② 직장 때문에 ③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④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⑤ 영구불임 판정을 받아서

⑥ 입양을 해서 ⑦ 기타 () ⑧ 비해당 ⑨ 무응답

5. (귀하는) 정부의 '난임(불임) 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 (1) 서민층,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2) 인공수정 3회까지, 체외수정시술 4회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십니까?

① 모두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② 일부만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른다⑧ 비해당 ⑨ 무응답 **☞(질문 6으로)**

5-1. 정부가 난임(불임) 치료비용을 지원한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서민층 난임부부가 자녀를 갖는데(출산율) 높아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③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6. 귀하는 난임(불임)과 관련하여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함 ② 약간 필요함 ③ 필요하지 않음 ⑧ 비해당 ⑨ 무응답 **☞(질문 7로)**

6-1. 어떤 기관에서 불임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까?

① 난임시술 민간의료기관 ② 국립의과대학 병원

③ 독립적인 비영리기관 의료전문협회 ④ 보건소 ⑤ 기타 ()

⑧ 비해당 ⑨ 무응답

7. 향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해주세요.

①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② 난임(불임) 치료비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

③ 난임(불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④ 불임 상담프로그램 운영

⑤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 ⑥ 기타()

⑧ 비해당 ⑨ 무응답

제4장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1-2

카드번호 0 9

(조사대상: 만15~49세 기혼여성 응답자 기혼여성 또는 남편 대리응답 대상이 아닐시 공란으로 두고 다음 장으로 이동)

(응답자 가구원번호:)

3-4

※ 조사원: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현존자녀 유무를 확인하여 아래 해답란에 표시한 후 질문을 시작하되, 이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먼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십시오. 또한 아기 이름을 호명하면서 질문하십시오.

•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현존자녀 유무: (조사당일부터 개월계산)

① 없음 **☞<제4장은 빈칸으로 두고 제4장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① 있음

•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① 생년월일(양력): 20__년 __월(월단위까지 코딩)

② 만 연령: 만__년 __개월(개월로 환산)

③ 이름: ()

• ○○(이) 출생시 어머니의 연령 (※ 조사란: 질문하지 말고 앞에서 조사된 부인의 생년월일과 ○○(이)의 생년월일을 기초로 출생시 어머니의 연령을 계산하여 기입하십시오)

• ○○(이)출생시 어머니의 연령: 만__세

• ○○(이)의 출생순위: __번째

• ○○(이)의 성: ① 남아 ② 여아

5

6-7__년 8-9__월

10-12__개월

13-14__세

15__번째

16

I. 산전 관리, 분만에 관한 사항

1. 부인께서는 ○○(아)의 임신기간동안에 산전진찰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질문 2로) ② 있다 ③ 비해당 ④ 무응답 (질문 2로)

1-1. 있다면 몇 회나 산전진찰을 받았습니까?	_____회	⑤ 비해당	⑥ 무응답
1-2. 첫 산전진찰(초진)시기: 임신 후 _____주		⑤ 비해당	⑥ 무응답

2.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로 획득하십니까?
① 보건소,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을 통해 ②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주최하는 임신부 교실에 참여하여
③ 분유회사가 주최하는 임신부교실, 태교음악회, 출산박람회 등을 통해
④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⑤ 가족, 친구, 친지를 통해서
⑥ 기타(_____) ⑦ 비해당 ⑧ 무응답

3. 임신 중 모유수유 교육이나 강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④ 무응답 (질문 4로)

3-1. 임신 중 모유수유 교육이나 강의를 받으셨다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① 병원 ② 보건소 ③ 직장 ④ 분유회사 ⑤ 민간단체 ⑥ 문화센터 ⑦ 기타 (_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3-2. 산전 모유수유 교육이나 강의를 받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② 도움이 안되었다 ③ 보통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⑥ 비해당 ⑦ 무응답

4. 부인께서는 ○○(아)를 어디에서 분만하셨습니다?
① 종합병원 ② 병원 ③ 의원 ④ 조산소 ⑤ 보건의료원 ⑥ 기타(_____) ⑦ 비해당 ⑧ 무응답

5. 부인께서는 ○○(아)를 자연분만으로 낳으셨습니까? 제왕절개로 낳으셨습니까?
① 자연분만(질문 6으로) ② 제왕절개 ③ 비해당 ④ 무응답 (질문 6으로)

5-1. 제왕절개로 분만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다? ① 본인의 의사로 ② 가족의 권유로 ③ 의사의 결정에 따라 ④ 기타 (_____) ⑤ 비해당 ⑥ 무응답
5-2. 제왕절개를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01) 아두골반 불균형 (아이가 크거나 산모의 골반이 좁은 경우-난산 우려가 있어서) (02) 태아상태가 나빠서(태아긴박증) (03) 태아 위치 이상(태아둔위 등) (04) 태반 위치 이상(전치태반) (05) 반복 제왕절개 혹은 자궁근종 수술 기왕력(첫아이를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서) (06) 조산 (태아가 심한 조산인 경우) (07) 고령임신 (08) 양수 조기파수 (09) 출산의 고통이 두려워서 (10) 기타(산모의 건강 때문에 등, 그 _____) (98) 비해당 (99) 무응답

※ 조사원: 질문하지 말고 가급적 야기수첩, 모자보건수첩, 산모수첩 등을 가져오게 하여 확인하고 적는다.

6. 부인께서는 ○○(아)를 임신 몇 주만에 분만하였으며, 출생아의 체중과 신장은 얼마였습니까?

6-1. 출산시기(비해당: 98, 무응답: 99): 임신 _____주후 분만

6-2. 출생시 아기 체중(비해당: 998, 무응답: 999): _____g

6-3. 출생시 아기 신장(비해당: 98, 무응답: 99): _____cm

17	1
----	---

18-19	1-1
20-21	1-2

22	2
----	---

23	3
----	---

24	3-1
----	-----

25	3-2
----	-----

26	4
----	---

27	5
----	---

28	5-1
----	-----

29-30	5-2
-------	-----

31-32	6-1
-------	-----

33-36	6-2
-------	-----

37-38	6-3
-------	-----

※ 출생시 아기의 체중이 2,500g 미만이었거나 출산이 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이었던 경우에 응답 하십시오.
 (※ 조사원: 질문하지 말고 질문 6-1, 질문 6-2에서 해당되는 아이가 있는 경우 미숙아로 대상 아동 확인하고
 저체중아, 미숙아가 아닌 경우 6-8번 질문까지 빈칸으로 남겨둘 것)

6-4. 저체중아 여부

- ① 저체중아 ② 정상 ⑧ 비해당 ⑨ 무응답

6-5. 조산아 여부

- ① 조산아 (37주 미만 분만) ② 정상 (37주 이후 분만) ⑧ 비해당 ⑨ 무응답

6-6. 미숙아일 경우 (※ 질문 6-1과 6-2를 통해 조사원 판단)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모른다 (※ 질문 7로) ① 알고 있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 질문 7로)

6-7.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인터넷 ② 보건소 ③ 의료기관 ④ TV, 신문 등 대중매체 ⑤ 기타() ⑧ 비해당 ⑨ 무응답

6-8. 의료비를 지원받으셨습니까?

- ① 받지 않았다 ② 받았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7. ○○(아)가 출생후 난청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신생아 청각신발검사'를 받으셨습니까?

- ① 받지 않았다 ① 받았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8. ○○(아)가 출생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으셨습니까?

- ① 받았다 ② 받지 않았다 ③ 잘 모르겠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8-1. 그러면 몇 종을 검사하셨습니까?

- ① 정부의 지원항목인 6종 검사만 했다 ② 정부지원 6종에 추가 검사를 했다
 ③ 잘 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9. 부인의 가장 마지막 출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9-1. 분만 후 1주일 이내, 출생아 건강문제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적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9-2. 임신 직전 혹은 임신 초기 체중조절(다이어트)을 시도한 적 있습니까?

- ① 예(체중감량정도 : kg)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II.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1. 부인께서는 ○○(아)를 출산한 후 산후진찰(산모의 출산과 관련하여)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① 있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2. ○○(아) 출산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습니까?

- ① 이용 하지 않았다 ① 이용했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3. ○○(아) 출산후 병의원 산부인과나 조산소나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 (신생아와 같이 지내는 방)을 이용하셨습니까?

- ① 이용 하지 않았다 (※ 질문 4로) ① 이용했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 질문 4로)

3-1. 그러면 산후 산부인과나 조산소, 산후조리원에서 하루 몇시간 동안 모자동실을유지했습니까?

- ① 8시간 미만 ② 8시간에서 12시간 미만 ③ 거의 하루종일
 ④ 기타 () ⑧ 비해당 ⑨ 무응답

4. ○○(아) 출산후 보건의료인 (의사, 조산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① 받지 않았다 ① 받았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39 6-4

40 6-5

41 6-6

42 6-7

43 6-8

44 7

45 8

46 8-1

47 9

48 9-1

49-50 kg

51 1

52 2

53 3

54 3-1

55 4

5. ○○(아) 출산후(약 6개월간) 부인께서는 직장을 다니셨습니까?
① 작정에 다님 ② 우회직 ③ 재직/무급휴직/사자 ④ 직장안다님 ⑤ 비해당 ⑥ 무응답

56

5-1. 직장을 다녔다면 근무시간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전일제 근무 ② 시간제(part-time) 근무 ③ 비해당 ④ 무응답

57

III. 수유에 관한 사항

1. ○○(아)에게 얼마 컷(모유수유)을 먹이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④ 무응답

58

1-1. 그러면 ○○(아)에게 출생 후 1시간 이내에 얼마 컷(모유수유)을 먹이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④ 무응답

59

1-2. ○○(아)의 출생시 산부인과나 조산원에서 모유만을 먹이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④ 무응답

60

2. ○○(아)에게 얼마 컷을 먹이는 것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언제입니까?

생후 ____주 또는 ____개월(주로 환산시 ____주) (질문 3으로) 998. 모유수유 중/비해당 무응답: 999

61-63 주

2-1. 현재 모유수유중이라면 언제까지 모유수유를 할 계획입니까?

생후 ____개월(주로 환산시 ____주) 998. 모유수유 중단했음/비해당 무응답: 999

64-66 주

3. ○○(아)가 모유나 조제분유 외에 다른 보충식(이유식)을 시작한 시기는 몇 개월경입니까?

생후 ____개월 ③ 비해당(보충식을 먹이지 않음) ④ 무응답

67-68 개월

4. ○○(아)의 현재까지의 수유형태(모유, 조제분유를 얼마동안 먹였는지, 보충식은 언제부터 하였는지)를 각각 아기 월령별로 말씀해주십시오

※ 조사원: 출생 이후 매월별로 수유양상을 파악하여 아래에서 번호를 골라 표기 하시오
조사대상 출생아의 현 월령을 확인하십시오. ____개월
(※조사원 확인사항 ____: ① 모유를 전혀 먹이지 않음 ① 모유를 먹인 적 있음)

개월	산생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17월	18-23월
아기 월령	1주 2주 3주 4주	1-2개월	2-3개월	3-4개월	4-5개월	5-6개월	6-7개월	7-8개월	8-9개월	9-10개월	10-11개월	11-12개월	12-13개월	13-14개월	14-15개월	15-17개월	18-23개월
수유 형태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출생

백일

첫돌

※ 수유 형태 (아래 보기에서 골라 윗 월령별로 해당 칸에 번호를 적으시고 해당이세요)

- ① 모유 ② 모유 + 인공유(분유) ③ 인공유(분유)
④ 모유 + 보충식(이유식) ⑤ 인공유(분유)+보충식(이유식) ⑥ 보충식(이유식) ⑦ 비해당 ⑧ 무응답

※ 조사원 수유 형태가 표시된 왼쪽 표를 코딩 칸으로 하고 조사내용을 코딩 및 에디팅 시 확인한다

※ 조사원: 수유형태표를 참고하여 모유를 전혀 먹이지 않은 경우 질문 5로, 모유수유를 중단한 경우 질문 6으로

5. 모유를 먹이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모유량이 부족하여 ② 유두 및 유방통증 ③ 엄마의 질병으로 ④ 취업 때문에
⑤ 아기가 젖을 잘 빨지 않아서(유두 혼동/유방 거부) ⑥ 아기 건강 때문에 ⑦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⑧ 기타(____) ⑨ 비해당(모유수유 함) ⑩ 무응답

89

6. 모유를 먹이다가 떼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01) 모유량이 부족하여 (02) 유두 및 유방통증 (03) 엄마의 질병으로 (04) 취업 때문에
(05) 아기가 젖을 잘 빨지 않아서(유두 혼동/유방 거부) (06) 아기 건강 때문에
(07)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08) 젖을 떼 시기가 되어서 (09) 기타(____)
(00) 비해당(모유수유 중임) (99) 무응답

90-91

7. 모유수유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정부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① 백화점 등 상업지역에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②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③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④ 분만 병의원에 모자동실 운영 ⑤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
⑥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⑦ 기타(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92

8. 조제분유(모유 대체 아기분유)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보건소,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을 통해서 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② 분유회사 광고를 보고 ③ 분유회사 주최 임신부 교실을 통해서
 ④ 태교음악회를 통해서 ⑤ 육아 출산 박람회를 통해서
 ⑥ 가족, 친구, 친지를 통해서 ⑦ 기타()
 ⑧ 비해당 ⑧ 무응답

93

제5장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2

카드번호 1 0

(조사대상: 만15~64세 기혼가구, 응답자: 가구대표 또는 배우자, 대상이 아닐시 공란으로 두고 다음장으로 이동)
 (응답자 가구원번호:)

3-4

1. 가족역할

※ 조사원: 응답자구가 이혼·사별·별거 가구인 경우 질문 1-6까지는 공란으로 남겨두고 질문 7로

1. 귀댁의 가사분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 1-1. 귀댁은 맞벌이 부부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④ 무응답
- 1-2. 현재 양육과 가사(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시장보기, 집안청소 등)를 어떻게 분담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함 ② 주로 부인이 하고 남편이 도움 ③ 남편과 부인이 반씩 나누어 함
 ④ 주로 남편이 하고 부인이 도움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함 ⑥ 비해당 ⑦ 무응답

5

1-1

6

1-2

2. 귀댁의 가사활동중 다음의 항목들은 현재 어떻게 분담되고 있습니까?(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함	주로 부인이 하고 남편이 도움	남편과 부인이 반씩 나누어 함	주로 남편이 하고 부인이 도움	전적으로 남편이 함
2-1. 식사요리준비	①	②	③	④	⑤
2-2. 설거지	①	②	③	④	⑤
2-3. 세탁	①	②	③	④	⑤
2-4. 시장보기	①	②	③	④	⑤
2-5. 집안청소	①	②	③	④	⑤
2-6. 기타 가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7

2-1

8

2-2

9

2-3

10

2-4

11

2-5

12

2-6

3. 귀댁의 가사는 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평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휴일)을 구분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해당: 998, 무응답: 999)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휴일)
3-1. 부인	()%	()%	()%
3-2. 남편	()%	()%	()%
3-3. 다른가족 또는 도우미	()%	()%	()%
계	100%	100%	100%

① 평일

② 토요일

③ 일요일(휴일)

13-15	3-1
16-18	3-2
19-21	3-3

22-24	
25-27	
28-30	

31-33	
34-36	
37-39	

4. 귀댁의 자녀양육활동 중 다음의 항목을 현재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무응답: 9)
 (자녀가 전혀 없거나 자녀 나이가 만18세이상인 경우 비해당 8로 기재)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함	주로 부인이 하고 남편이 도움	남편과 부인이 반씩 나누어 함	주로 남편이 하고 부인이 도움	전적으로 남편이 함
4-1. 학교공부	①	②	③	④	⑤
4-2. 놀이주기	①	②	③	④	⑤
4-3. 보육시설, 학교 등 하교	①	②	③	④	⑤
4-4. 기타 자녀양육활동	①	②	③	④	⑤

40

4-1

41

4-2

42

4-3

43

4-4

5. 자녀양육은 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평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휴일)을 구분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비해당:8, 무응답:9)
(자녀가 전혀 없거나 자녀 나이가 만18세이상인 경우 비해당 8로 기재)

구분	① 평일	② 토요일	③ 일요일(휴일)
5-1. 부인	()%	()%	()%
5-2. 남편	()%	()%	()%
5-3. 다른가족 또는 도우미	()%	()%	()%
계	100%	100%	100%

① 평일

44-46 5-1

47-49 5-2

50-52 5-3

② 토요일

53-55

56-58

59-61

③ 일요일(휴일)

62-64

65-67

68-70

6. 귀댁의 다음 가정 일에 대한 부부간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6-1. 일상생활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6-2. 주택매매 및 이사	①	②	③	④	⑤
6-3. 투자 및 재산증식	①	②	③	④	⑤
6-4. 자녀양육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6-5. 기타 가정 일	①	②	③	④	⑤

71 6-1

72 6-2

73 6-3

74 6-4

75 6-5

7.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7-1.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7-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7-3.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7-4.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76 7-1

77 7-2

78 7-3

79 7-4

II. 가족관계

※ 조사원: 응답자구가 이혼·사별 별거 경우 질문 1~3까지는 공란으로 비워두고 질문 4와 질문 5를 조사

1. 귀하는 남편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응답자가 남편인 경우 비해당:8, 무응답:9)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비해당
1-1.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⑧
1-2.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⑧
1-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⑧
1-4. 귀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⑧
1-5. 귀하는 사위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⑧

80 1-1

81 1-2

82 1-3

83 1-4

84 1-5

2. 귀하는 아내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응답자가 아내인 경우 비해당:8, 무응답:9)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비해당
2-1.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⑧
2-2.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⑧
2-3. 귀하는 아내과의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⑧
2-4. 귀하는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⑧
2-5. 귀하는 며느리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⑧

85	2-1
86	2-2
87	2-3
88	2-4
89	2-5

3. 귀하는 현재 직장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필문 4로)

3-1. (떨어져 살고 있다면) 월 평균 몇일 만나고 있습니까?

월 평균 _____ 일 ⑤ 비해당 ⑥ 무응답

90	3
----	---

91-92	3-1
-------	-----

4. 자녀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자녀가 없는 경우 비해당 8로 표시, 무응답:9)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비해당
4-1. 자녀와의 대화정도	①	②	③	④	⑤	⑧
4-2. 자녀와의 문화생활(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 운동, 산책, 외식)	①	②	③	④	⑤	⑧
4-3. 자녀들이 귀하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성적, 취업 등)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⑧
4-4.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⑧

93	4-1
94	4-2
95	4-3
96	4-4

5. 귀하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5-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3.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4.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5-5.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6.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5-7.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8.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5-9. 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10.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11. 가족이 일을 계획할 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1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13.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⑤
5-14. 우리 가족은 가족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5-15.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97	5-1
98	5-2
99	5-3
100	5-4
101	5-5
102	5-6
103	5-7
104	5-8
105	5-9
106	5-10
107	5-11
108	5-12
109	5-13
110	5-14
111	5-15

III. 동거 및 비동거 가족지원

1-2
카드번호 1 1

조사원: 다음 사항을 파악하시오 (해당사항 없으면 0명으로 표시, 비해당 8, 무응답: 9)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양가 부모 남편부모 _____명, 부인부모 _____명 (질문에서 질문까지 공란으로 두고 질문 5로)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나 생존하고 계신 양가 부모 남편부모 _____명, 부인부모 _____명 (질문 1로)

동거하지 않는 부모가 0명일 경우 질문 1~4까지 공란으로 두고 질문 5로 / 동거하지 않는 부모가 1명 이상 있을 경우 질문 1로

	남편	부인
부모동거 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부모비동거 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의 접촉여부]

1. (양가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살아계신 경우) 동거하지 않는 양가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1-1. 남편의 부모님과 만나는 정도	()
1-2. 부인의 부모님과 만나는 정도	()
(01)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02)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03) 일주일에 한번 정도 (04) 한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05) 한달에 한번 정도 (06)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2개월에 한번 정도) (07) 일년에 서너번 정도(3~4개월에 한번) (08) 일년에 한두번 정도 (09)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98) 비해당(생존부모가 0명일 경우) (99) 무응답	

7-8	1-1	<input type="text"/>
9-10	1-2	<input type="text"/>

2. (양가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살아계신 경우) 동거하지 않는 양가 부모님과 서로 전화, 편지 또는 전자메일(e-mail) 등으로 얼마나 자주연락을 하고 지내십니까?

2-1. 남편의 부모님과 전화, 편지 또는 전자메일(e-mail) 등으로 연락하는 정도	()
2-2. 부인의 부모님과 전화, 편지 또는 전자메일(e-mail) 등으로 연락하는 정도	()
(01)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02)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03) 일주일에 한번 정도 (04) 한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05) 한달에 한번 정도 (06)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2개월에 한번 정도) (07) 일년에 서너번 정도(3~4개월에 한번) (08) 일년에 한두번 정도 (09)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만나지 않음 (98) 비해당(생존부모가 0명일 경우) (99) 무응답	

11-12	2-1	<input type="text"/>
13-14	2-2	<input type="text"/>

3. 2011년 한해동안 동거하지 않는 양가 부모님께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드린 용돈이나 생활비, 병원비 등은 얼마입니까?(비해당: 998 / 9998, 무응답: 999 / 9999)

구분	정기적	비정기적
3-1. 남편 부모님에게 드림	월평균 _____만원	연 _____만원
3-2. 부인 부모님에게 드림	월평균 _____만원	연 _____만원

15-17	정기적	만원	18-21	비정기적	만원
22-24	<input type="text"/>	만원	25-28	<input type="text"/>	만원

4. 2011년 한해 동안 동거하지 않는 양가 부모님께 드린 비금전적 지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리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없다: 1, 없다: 0, 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① 여가(여행 및 관광)	② 건강용품	③ 생활용품	④ 전자제품	⑤ 외식 및 음식물	⑥ 기타
4-1. 남편 부모님에게 드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2. 부인 부모님에게 드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⑥
4-1	29 <input type="text"/>	30 <input type="text"/>	31 <input type="text"/>	32 <input type="text"/>	33 <input type="text"/>	34 <input type="text"/>
4-2	35 <input type="text"/>	36 <input type="text"/>	37 <input type="text"/>	38 <input type="text"/>	39 <input type="text"/>	40 <input type="text"/>

※ 조사원: 동거하는 부모님이 없을 경우 질문 5-6은 공란으로 하고 질문 7로 가시오

[동거하는 부모님께 드리는 지원]

5. 2011년 한해동안 동거하는 양가 부모님께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드린 용돈이나 생활비, 병원비 등은 얼마입니까?(비해당: 998 / 9998, 무응답: 999 / 9999)

구분	정기적	비정기적
5-1. 남편 부모님에게 드림	월평균 _____만원	연 _____만원
5-2. 부인 부모님에게 드림	월평균 _____만원	연 _____만원

41-43	정기적	만원	44-47	비정기적	만원
48-50	<input type="text"/>	만원	51-54	<input type="text"/>	만원

6. 2011년 한해 동안 동거하는 양가 부모님께 드린 비금전적 지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칸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있다 1, 없다 0, 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① 여가(여행 및 관광)	② 건강용품	③ 생활용품	④ 전자제품	⑤ 외식 및 음식물	⑥ 기타
6-1. 남편 부모님에게 드림						
6-2. 부인 부모님에게 드림						

	①	②	③	④	⑤	⑥
6-1	55	56	57	58	59	60
6-2	61	62	63	64	65	66

※ 조사원: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이 없을 경우 질문 7-8은 공란으로 하고 질문 9로 가시오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께 받은 지원]

7. 2011년 한해 동안 동거하지 않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받은 금전적 지원은 얼마입니까? (비해당: 998 / 9998, 무응답: 999 / 9999)

구분	정기적	비정기적
7-1. 남편 부모님으로부터 받음	월평균 _____ 만원	연 _____ 만원
7-2. 부인 부모님으로부터 받음	월평균 _____ 만원	연 _____ 만원

		1-2	
		카드번호	
		1	2
정기적	비정기적		
3-5	6-9		
10-12	13-16		
		만원	만원

8. 2011년 한해 동안 동거하지 않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비금전적 지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칸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있다 1, 없다 0 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① 여가(여행 및 관광)	② 건강용품	③ 생활용품	④ 전자제품	⑤ 외식 및 음식물	⑥ 기타
8-1. 남편 부모님으로부터 받음						
8-2. 부인 부모님으로부터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8-1	17	18	19	20	21	22
8-2	23	24	25	26	27	28

※ 조사원: 동거하는 부모님이 없을 경우 질문 9-10은 공란으로 하고 질문 11로 가시오

[동거하는 부모님께 받은 지원]

9. 2011년 한해 동안 동거하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받은 금전적 지원은 얼마입니까? (비해당: 998 / 9998, 무응답: 999 / 9999)

구분	정기적	비정기적
9-1. 남편 부모님으로부터 받음	월평균 _____ 만원	연 _____ 만원
9-2. 부인 부모님으로부터 받음	월평균 _____ 만원	연 _____ 만원

정기적	비정기적
29-31	32-35
36-38	39-42
만원	만원

10. 2011년 한해 동안 동거하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비금전적 지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칸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있다 1, 없다 0 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① 여가(여행 및 관광)	② 건강용품	③ 생활용품	④ 전자제품	⑤ 외식 및 음식물	⑥ 기타
10-1. 남편 부모님으로부터 받음						
10-2. 부인 부모님으로부터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10-1	43	44	45	46	47	48
10-2	49	50	51	52	53	54

※ 조사원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이 없을 경우 질문 11~12는 공란으로 하고 IV. 가족생활의 질로 가시오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과 주고 받는 서비스]

11. 2011년 한해 동안 귀하는 비동거 양가부모님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란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있다 1, 없다 0, 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남편측 부모님		부인측 부모님	
	부	모	부	모
11-1. 간병				
11-2. 집안일				
11-3. 기타()				

남편측		부인측	
부	모	부	모
55-56		61-62	
57-58		63-64	
59-60		65-66	

12. 2011년 한해 동안 귀하는 비동거 양가부모님으로부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란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있다 1, 없다 0, 비해당 8, 무응답 9)

구분	남편측 부모님		부인측 부모님	
	부	모	부	모
12-1. 자녀돌봄				
12-2. 집안일				
12-3. 기타()				

남편측		부인측	
부	모	부	모
67-68		73-74	
69-70		75-76	
71-72		77-78	

IV. 가족생활의 질

1. 다음 보기에서 귀하가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가지를 답해주십시오

- ① 가족원 모두 일에 성공하여야 한다 ① 가정이 안정되어야 한다
② 권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한다 ③ 배우자가 사회에 나가 제 구실을 하여야 한다
④ 자식이 사회에 나가 제 구실을 하여야 한다 ⑤ 효성이 뛰어난 자식들이 있어야 한다
⑥ 가족의 건강 ⑦ 기타()
⑧ 비해당 ⑨ 무응답

1 79

2. 귀댁의 가족생활을 1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더 나빠졌다 ② 동일하다 ③ 더 좋아졌다 ④ 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2 80

2-1. 더 나빠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가족간의 대화나 공유시간이 부족하므로 ① 가족원이 함께 하는 문화생활이 거의 없음
② 경제적 어려움으로 ③ 가족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④ 가족문제를 가족 밖에서 해결하므로 ⑤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제가 거의 없으므로
⑥ 가족원의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⑦ 기타() ⑧ 비해당 ⑨ 무응답

2-1 81

3. 귀하는 다음의 가정생활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무응답: 9)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비해당
3-1. 가정에서 나의 자유와 역할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3-2. 가사노동 부담 정도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3-3.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3-4.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3-5.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3-6.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3-7.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3-8.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3-9.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의 성취정도에 대해서	①	②	③	④	⑤	

3-1	82
3-2	83
3-3	84
3-4	85
3-5	86
3-6	87
3-7	88
3-8	89
3-9	90

4. 귀하께서 판단할 때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4 91

제6장 취업에 관한 사항

1-2
카드번호 1 3(조사대상: 만15~64세 기혼가구, 응답자: 기혼여성 또는 남편 대리응답; 대상이 아닐시 공란으로 다음장으로 이동)
(응답자 가구원번호: _____)

3-4

I.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 취업에 관한 사항

※ 조사원 생애단계별 취업여부를 확인한 후 각 단계별 모두 취업한 경우 동일직장 여부를 질문토록 한다. (각 칼럼에 직접 입력)

부인의 생애단계별 취업여부 및 직종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 기	
취업여부	① 취업 ② 비취업 ③ 비해당 ④ 무응답
직종	(01) 관리자 (02) 전문직 관련 종사자 (03) 사무종사자 (04) 서비스종사자 (05) 판매직종사자 (06) 농림어업종사자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8)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9) 단조·복조종사자 (10) 기타(_____) (98) 비해당 (99) 무응답
종사상 지위	① 고용주 ② 자영업자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직 근로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⑧ 비해당 ⑨ 무응답
동일직장 여부	① 동일직장 ② 다른 직장 ③ 직장→자영업 ④ 자영업→직장 ⑤ 자영업→자영업 ⑧ 비해당 ⑨ 무응답
중단 및 전직 이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	① 결혼(자외에 의한 중단) ② 배우자, 기타가족 반대로 ③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④ 자녀양육 때문에 ④ 부모, 기타 가족 부양으로 ⑤ 건강이 안 좋아서 ⑥ 회사문제를 맡게 되어서 ⑦ 기타(이유:_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구분	결혼전	결혼직후	첫 자녀 출산전	첫 자녀 출산직후	만내 출산 전	만내 출산 직후	만내 출산 전	만내 출산 직후
취업여부	5 1-1	9 1-4	15 1-9	19 1-12	25 1-17	29 1-20	35 1-25	39 1-28
직종	6-7 1-2	10-11 1-5	16-17 1-10	20-21 1-13	26-27 1-18	30-31 1-21	36-37 1-26	40-41 1-29
종사상 지위	8 1-3	12 1-6	18 1-11	22 1-14	28 1-19	32 1-22	38 1-27	42 1-30
동일직장 여부	13 1-7		23 1-15		33 1-23		43 1-31	
중단 및 전직 이유	14 1-8		24 1-16		34 1-24		44 1-32	

II. 현 취업에 관한 사항

1-2
카드번호 1 4

1. 응답자와 남편(부인)의 현재 취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 조사원 구분이 부인이 현재 취업중인 경우 부인 질문 후 선택된 질문으로 가고, 현재 부인이 비취업 중인 경우는 질문 1-1 질문을 비취업 후 <질문 7>을 응답 후 남편(부인)을 조사하십시오

구 분	부인(가구원번호: _____)	남편(가구원번호: _____)
1-1. 현 취업여부(비해당: 8, 무응답: 9) ① 비취업 ① 취업(직종 위 보기 참조하여 해당 번호 기입)	① 비취업(질문 7로) ① 취업(직종: _____)	① 비취업(질문 8로) ① 취업(직종: _____)
1-2.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비해당: 998, 무응답: 999)	____년 ____개월 (개월로 환산 총 ____개월)	____년 ____개월 (개월로 환산 총 ____개월)
1-3. 현재 종사상 지위(위표의 보기 참조)		
1-4. 현재 직장유형(무응답: 9) ① 공무원(국공립교사포함) ① 정부투자출연기관 ② 기타공공기관 ② 대기업(300인 이상) ③ 중소기업(50~299인) ③ 소기업(5~49인) ④ 개인사업체(5인 미만) ④ 기타(_____)		
1-5. 주당 평균근무시간(비해당: 98, 무응답: 99)	____시간	____시간
1-6. 일반적인 근무 시간대(비해당: 8, 무응답: 9) ① 오전 ② 오후 (____시)	① 오전 ② 오후 (____시)	① 오전 ② 오후 (____시)
1-7. 일반적인 근무 종료시간(비해당: 8, 무응답: 9) ① 오전 ② 오후 (____시)	① 오전 ② 오후 (____시)	① 오전 ② 오후 (____시)
1-8. 주말토, 일요일 근무여부(비해당: 8, 무응답: 9)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1-9. 고대근무 여부(2-3고대 근무 비해당: 8, 무응답: 9)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1-10.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소득 (비해당: 998, 무응답: 999)	____만원	____만원

3-4

28-29

5

30

6-7 직종

31-32 직종

8-10 개월

33-35 개월

11-12

36-37

13

38

14-15 시간

39-40 시간

16

41

17-18 시

42-43 시

19

44

20-21 시

45-46 시

22

47

23

48

24-25 만원

49-50 만원

- [부인이 일을 하는 경우]**
2.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00) 없음 (01) 자녀양육 부담 (02) 가사부담 (03) 부부간의 공유시간(대화) 부족
(04) 자녀와의 공유시간(대화) 부족 (05) 직장생활과 육아병행 (06) 노부모 부양
(07) 성 차별로 인한 불평등한 근로조건(채용, 승진 등)
(08)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 (09) 기타(_____) (98) 비해당 (99) 무응답
3. 향후 출산시 출산휴가를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있다(____개월) ② 없다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
④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출산 불가일 경우 ⑧ 비해당 ⑨ 무응답
4. 출산후 자녀 양육기에 육아휴직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있다(____개월) ② 없다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
④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출산 불가일 경우 ⑧ 비해당 ⑨ 무응답
5. 귀하께서는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6. 귀하께서는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생각하십니까?
- ① 당장 그만 둘 생각 ②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③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 까지
④ (정년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⑤ 건강이 허락할 때 까지
⑥ 쉬고 싶어질 때까지 ⑦ 기타(_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 ※조사원: 취업 부인의 경우 질문 6 응답 후 질문 8로 이동하십시오**

53-54 **2**

55 **3** 56-57 개월

58 **4** 59-60 개월

61 **5**

62 **6**

7. (부인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향후 취업할 의향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8.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응답) 여성이 직장일과 가정일을 함께 해나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해당 :98, 무응답: 99)
- | 자녀수 | 일(직장)형태 | | |
|--------------|---------|------|----------|
| | 전일제 | 시간제 | 일을 하지 않음 |
| 자녀를 전혀 두지 않음 | (01) | (02) | (03) |
| 자녀를 1명만 둠 | (04) | (05) | (06) |
| 자녀를 2명 이상 둠 | (07) | (08) | (09) |

63 **7**

64-65 **8**

제7장 자녀양육 및 결혼비용에 관한 사항

(조사대상: 만5~64세 기혼가구; 응답자: 가구대표 또는 배우자; 대상이 아닐시 공란으로 두고 다음장으로 이동)
(응답자 가구원번호: _____)

1-2
카드번호 **1 5**

3-4

I. 자녀양육에 관한 태도

1. 귀하께서는 자녀양육에 관한 다음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비해당8, 무응답: 9)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최대한 양(兩) 부모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1-3. 이혼 부부의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 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혼 당사자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5 **1-1**

6 **1-2**

7 **1-3**

2. 귀하는 부모로서 자녀양육(교육, 정서, 경제)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②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③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④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⑤ 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한다 ⑥ 기타(_____)
⑦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8 **2**

II. 자녀양육 비용

1. 귀댁의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지난 3개월간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체가구의 소비지출액 중 귀댁의 자녀를 위해 지출된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각 항목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조사원 ()에는 자녀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 단 비동거자녀는 [2번]부터 별도로 부여(제장 가구사항 참조). 조사대상은 영유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자녀로 둔 경우로 대학진학을 위한 재수생, 삼수생 자녀를 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자녀가 0명일 경우는 첫째·셋째이의 자녀양육비용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자녀가 1명일 경우는 둘째·셋째이를 2명일 경우는 셋째이를 비워준다. 자녀가 네명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아이부터 3명만 조사한다.

구분	전체가구	자녀 출생순위별				전체가구 지출금액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지출금액	첫째아 (가구원번호)	둘째아 (가구원번호)	셋째아 (가구원번호)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1-1. 식료품비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27-28			47-48		67-68	
1-2. 피복 및 신발비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29-31			49-51		69-71	
1-3. 보건의료비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32-34			52-54		72-74	
1-4. 문화·여가 및 관련비용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35-37			55-57		75-77	
1-5. 부모교육비(교육비) 및 관련비용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38-40			58-60		78-80	
1-6. 주거 및 광열수도비	_____만원	X				41-43			61-63		81-83	
1-7. 가구장비·가전용품비	_____만원					9-11						
1-8. 교양오락비	_____만원					12-14						
1-9. 교통통신비	_____만원					15-17						
1-10. 기타소비·비소비지출	_____만원					18-20						
1-11. 총계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21-23						
						24-26	44-46		64-66		84-86	

III. 본인 및 자녀의 결혼비용

1. 귀 댁에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가구주 부부나 자녀·손자녀 등 동거하던 가족 중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응답자 본인 포함)

※ 조사원: 2010년 1월 1일 이후 조사시점까지 가족 중 결혼한 분이 2명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을 중심으로 기재함.

- ① 없다 (필문 2-7을 비워두고 제장 가족명제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항으로) ① 있다(____명)
② 비해당 ③ 무응답

87 1 88 명

2.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의 결혼년도는 언제 입니까?

- ① 2010 ② 2011 ③ 2012 ④ 비해당 ⑤ 무응답

89 2

3.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은 이 댁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또한 결혼한 분의 성별, 결혼당시 연령, 교육 수준 및 취업여부 등 특성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분	3-1. 가구주와의 관계 ※ 외가친척(4쪽) 참조	3-2. 성 (비해당: 8, 무응답: 9)	3-3. 결혼당시 연령 (비해당: 98, 무응답: 99)	3-4. 결혼당시 교육정도 (보기 참조)	3-5. 결혼당시 취업여부 (보기 참조)
결혼당사자		① 남 ② 여	만 _____세		

90-91 3-1
92 3-2
93-94 3-3 세

보 기	
교육정도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2·3년제 대학 ⑥ 4년제 대학 ⑦ 대학원 이상 ⑧ 미취학 ⑨ 비해당 ⑩ 무응답
취업여부	① 비취업 ② 취업 ③ 학생 ④ 기타(____) ⑤ 비해당 ⑥ 무응답

95 3-4
96 3-5

4.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의 결혼비용은 얼마나 됩니까?(비해당: 9998, 무응답: 9999)

총 결혼비용 : _____만원

※ 조사원: ① 결혼식 비용(____) ② 신혼여행 비용(____) ③ 배우자의 예물, 예단 비용(____)
④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의 예단비용(____) ⑤ 신혼 살림살이 비용(____)
⑥ 신혼주택 비용(____) ⑦ 기타 결혼관련 비용(____) 등을 모두 합하여 계산함.

97-101 4 만원

5. 전체 결혼비용 중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결혼당사자)이 부담한 결혼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해당: 9998, 무응답: 9999) 결혼당사자가 부담한 결혼비용: _____만원
6. 귀댁에서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의 결혼비용은 귀댁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적당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 초과 ② 경제능력에 맞게 적당했음 ③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하였음
④ 기타(_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7. 귀댁에서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의 결혼관련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00) 없었음 (01) 결혼식비 (02) 배우자 예물 (03) 배우자측 예단 (04) 신혼살림 (05) 신혼여행비
(06) 합값 (07) 신혼주택 비용 (08) 기타(_____) (98) 비해당 (99) 무응답

102-106 5 만원

107 6

108-109 7

제8장 출산정책 및 가족정책 관련 사항

(조사대상: 만15~64세 기혼가구; 응답자: 가구대표 또는 배우자, 대상이 아닐시 공란으로 다음장으로 이동)
(응답자 가구원번호: _____)

1-2
카드번호 1 6

3-4

I. 출산정책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하십시오.

1. 귀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② 다소 심각한 문제이다 ③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④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⑤ 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2. 오늘날의 부부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에 관한 다음의 이유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비해당:8, 무응답:9)

5 1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①	②	③	④
2-2. 취업여성의 증가	①	②	③	④
2-3.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①	②	③	④
2-4.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①	②	③	④
2-5. 주택미련의 어려움과 주거공간 부족	①	②	③	④
2-6. 이혼한 부부의 증가	①	②	③	④
2-7.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의 확산	①	②	③	④
2-8.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의 확산	①	②	③	④
2-9.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의 증가	①	②	③	④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3. 귀하는 저출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사회적 지원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을 ①, 가장 우선시되지 않는 영역을 ⑥으로 하여 ①~⑥의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비해당:8, 무응답:9)

구 분	우선순위
3-1. 결혼지원	
3-2. 임신 및 출산지원	
3-3. 양육의 경제적 지원	
3-4.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3-5. 일·가정 양립 지원	
3-6. 기타 가족생활 지원	

15 3-1
16 3-2
17 3-3
18 3-4
19 3-5
20 3-6

4. 저출산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써 다음 각 지원 영역별로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체크해주세요. (비해당:8, 무응답:9)

영역	영역별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정책(17지씩 선택)
4-1. 결혼지원	① 신혼부부 대상 아파트·국민임대주택 지원 ② 결혼가정에 대한 소득공제(세금감면) 혜택 확대 ③ 결혼 초기 정착비용 지원강화(무이자 혹은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등)
4-2. 임신 및 출산지원	① 산전진찰비 지원 ② 불임부부 지원 ③ 출산 시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 도우미 지원
4-3. 양육의 경제적 지원	① 자녀보육 및 교육비 지원 ② 불임부부 지원 ③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4-4.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①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 ② 종일제 보육시설 확충 ③ 시간제 보육시설 확충 ④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4-5.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산전후 휴가 ② 육아휴직(급여조정, 대체인력지원, 남성참여활성화 등)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④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 출퇴근 등) ⑤유사산 휴가 ⑥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4-6. 기타 가족생활 지원	①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자금대출 ② 다자녀 실직 가정 취업지원

4-1
21
4-2
22
4-3
23
4-4
24
4-5
25
4-6
26

5. 귀하는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노동력 부족, 노인부양부담증가, 경제성장을 둔화 등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련(영향)이 없다 ② 별로 관련(영향)이 없다 ③ 대체로 관련(영향)이 있다
④ 매우 관련(영향)이 있다 ⑤ 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5
27

6. 귀하는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②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③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⑤ 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6
28

7. 귀하는 직장(회사, 기업 등)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②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③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⑤ 모르겠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7
29

8. 귀하는 국가가 세금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찬성하지 않음 ② 별로 찬성하지 않음 ③ 대체로 찬성
④ 매우 찬성 ⑤ 모르겠음 ⑧ 비해당 ⑨ 무응답

8
30

9. 귀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31-32	9
-------	---

보 기	
(01) 양성평등 구현 (02)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03) 공교육 강화 (04) 사교육비 경감	
(05)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06)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07)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08)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0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0) 복지수준의 향상	
(11)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12)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II. 가족정책

1. 최근 혼인을 기피하거나 혼혼의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형성의 지속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혼인장려정책으로 다음의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보기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33-34	1
-------	---

보 기	
(01)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02) 건전혼례 문화 조성 (03) 모기지 제도 확대	
(04) 서민층의 주택용자 (05) 청년실업 해소 (06) 최저임금 보장 및 인상	
(07) 결혼자금 융자 확대 (08) 소득공제(결혼비용, 주택자금)	
(09)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 조성 (10) 기타() (98) 비해당 (99) 무응답	

2. 귀하는 국제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⑧ 비해당 ⑨ 무응답
3.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정책과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가족정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면 되므로 별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은 필요없다.
② 가족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
③ 어떻게든 상관없다 ④ 모르겠다/생각해보지 않았다 ⑧ 비해당 ⑨ 무응답
4. 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서비스 17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경제적 지원 ② 의료상담 및 지원 ③ 법률상담 및 지원 ④ 자녀양육 지원
⑤ 언어통역 서비스 ⑥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⑦ 기타(____) ⑧ 비해당 ⑨ 무응답

2
35

3
36

4
37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 - 절 취 선 - - - - -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답례품 수령증

수령자 성명	서 명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2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이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이동사태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민간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자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합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4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사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이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옥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옥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옥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남상호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1	현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립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안락수정 사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립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 욕구필요도 측정방식 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 사례 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100세 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6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정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중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이태지역 및 유림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알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주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